

東北亞歷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15호 2007. 3

차례

특집 고구려와 중국과의 전쟁

여호규 | 고구려 초기 對中戰爭의 전개과정과 그 성격 7

공석구 | 고구려와 모용 '연'의 전쟁과 그 의미 57

김창석 | 고구려·수 전쟁의 배경과 전개 103

－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

박경철 | 麗唐戰爭의 再認識 137

이강래 | 한·중 사서에 보이는 고구려와 중국의 전쟁 기록 비교 검토 201

권도경 | 국립도서관본 계열 「설인귀전」의 형성 과정에 나타난

고·당 전쟁 문학의 교섭양상에 관한 연구 273

논문

장용준 | 中國 東北地域 後期舊石器 製作技術의 變遷과 系統 研究 313

권오중 | 遼東 公孫氏政權의 興亡과 '夷人' 問題 379

김은숙 | 일본 울령국가의 고구려계 씨족 419

특 집

고구려와 중국과의 전쟁



고구려 초기 對中戰爭의 전개과정과 그 성격

여 호 규 |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부교수

I. 머리말

주지하듯이 고구려는 압록강 중상류 일대에서 흥기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주민집단이 철기문화를 받아들여 독자적인 문화권을 형성하고 단일정치체를 향한 움직임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던 서기전 2세기 말경, 前漢이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이 지역에게까지 玄菟郡을 설치했다(서기전 107). 이로 인해 고대국가로의 성장을 저지당한 이 지역의 주민집단은 前漢의 지배를 물리치며 단일국가체를 향한 움직임을再開해야 했다. 실제 여러 연구를 통해 이 지역 주민집단이 玄菟郡을 축출하며 서기 1세기 중반에 국가체제를 확립했고, 그 이후에도 後漢과 각축전을 벌이며 국가적 성장을 도모한 사실이 확인되었다.¹⁾

그런데 최근 중국학자들은 統一的 多民族國家論에 의거하여 고구려사를 중국사로 귀속시키면서 고구려의 族源이 中國 多民族의 일원이었고, 고구려가 中國 境內에서 건립되었으며, 시종일관 中原王朝의 冊封을 받아 從屬關係

1) 余昊奎, 1996,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한국사』 5, 국사편찬위원회.

를 유지하며 중원정권을 대신하여 고구려지역을 통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²⁾ 이에 따라 고구려와 중국왕조의 대립이나 전쟁은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라 중국 국내의 민족모순 내지 통일전쟁으로 파악한다.³⁾ 아울러 민족단결을 위해 복무한다는 논리에 입각해⁴⁾ 고구려와 중국왕조는 기본적으로 和平關係를 유지했고 대립·전쟁 기간은 극히 짧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학자들은 이러한 논리를 고구려의 국가형성기부터 적용하고 있다. 그리해 압록강 중상류일대의 주민집단이 漢의 玄菟郡을 축출하며 고구려를 건국했다고 파악하는 한국학계와 달리, 고구려가 玄菟郡 곧 중국 경내에서 건국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건국 직후부터 漢에 歸屬했으며, 건국 이후 시종일관 예속관계를 유지했다고 강변하고 있다.⁵⁾ 그리고는 고구려가 後漢과 예속관계를 유지했다고 강조하기 위해 전쟁 관련 기사만 추출한 다음 후한 180여년 간 전쟁을 벌인 것은 10차례도 되지 않으며 기간으로는 10여년에 불과했다고 강변하고 있다.⁶⁾ 전쟁이 직접 발발하지 않은 기간에는 양자가 和平關係를 유지했다는 것이다.⁷⁾

한국학계의 일반적 이해방식과 상반된 주장이어서 당혹스럽기도 하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비판하기 위해서는 고구려 초기의 대중관계를 다각도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학자들이 고구려가 중국왕조에 시종일관 예속했

2) 중국학계의 최근 주장과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 참조.

余昊奎, 2003, 「중국학계의 고구려 대외관계사 연구동향」, 『한국고대사연구』 31;

余昊奎, 2004, 「중국의 동북공정과 고구려사 인식체계의 변화」, 『한국사연구』 126; 고구려연구재단 편, 2004, 『중국의 고구려사 연구 동향분석』.

3) 楊昭全, 1993, 「論高句麗的歸屬」, 『韓國上古史學報』 13, 187~200쪽; 徐貴通, 1996, 「中原王朝對高句麗諸王的冊封」, 『通化師院學報』 1996-1, 22~26쪽.

4) 杜榮坤·白翠琴, 1979, 「試論古代少數民族政策與祖國的關係」, 『民族研究』 1979-1, 25~32쪽.

5) 耿鐵華, 1986, 「高句麗起源和建國問題探索」, 『求是學刊』 1986-1; 孫玉良·李殿福, 1990, 「高句麗同中原王朝的關係」, 『博物館研究』 1990-3.

6) 孫進己, 1994, 「高句麗王國和中央皇朝的關係」, 『東北民族史研究』 (一), 中洲古籍出版社, 276~283쪽.

7) 상기 주장을 하는 중국학자의 논저목록은 이인철, 2006, 「고구려와 고대 중국의 전쟁」, 『고구려연구』 24, 90~91쪽에 잘 정리되어 있다.

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양자 사이의 전쟁을 종전과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만큼 이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령 종래 한국학계에서는 대중전쟁을 주로 대외관계사라는 측면에서만 접근했는데, 전쟁사의 측면에서 접근하여 전쟁 주체, 병력 규모, 전쟁로 등을 검토하여 과연 양자 사이의 전쟁이 국가 간의 충돌인지 아니면 국가 내부의 갈등인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고구려 초기 對中戰爭의 전개과정을 국가형성기와 2~3세기로 대별하여 최대한 전쟁사의 관점에서 다각도로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각 시기별 전쟁로를 다각도로 검토하여 고구려의 공간범위가 확장되는 과정을 추적하는 한편, 양국의 전략과 전술이 어떻게 변모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고찰을 통해 전쟁 수행의 주체였을 고구려의 국가적 위상도 재조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영성한 사료를 논리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억측과 비약을 범했을 것이다. 선학제현의 아낌없는 질정을 바란다.

II. 국가형성기의 漢 玄菟郡 퇴축 전쟁

1_ 제1玄菟郡 축출 전쟁

서기전 107년 漢이 압록강 중상류 일대에 玄菟郡을 설치할 무렵,⁸⁾ 이 지역의

8) 沃沮城을 玄菟城으로 삼았다는 사료 A-③ 때문에 제1玄菟郡의 治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대체로 제1玄菟郡 治所가 沃沮에 설치되었다는 견해(和田淸, 1955, 「玄菟郡考」, 『東亞史研究』, 東洋文庫; 김미경, 2002, 「제1玄菟郡의 위치에 대한 재검토」, 『실학사상연구』 24) 및 沃沮에는 본래 臨屯郡이 설치되었다가 서기전 82년 임둔군 폐지로 잠시 玄菟郡에 편입되었다가 서기전 75년 玄菟郡 퇴축으로 樂浪郡에 배속되었다는 견해(李丙巖, 1975, 「玄菟郡考」, 『韓國古代史研究』, 박영사) 등으로 대별된다. 제1현도군 치소의 위치 비정은 중요한 문제이지만, 어느 견해이든 압록강

주민집단은 상당한 정치세력으로 성장한 상태였다. 가령 서기전 128년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濊君南閔 집단이 고조선의 압박을 피해 漢과의 연계를 도모한 사실,⁹⁾ 그리고 현도군이 설치될 무렵 이 지역의 주민집단이 주변의 예맥족과 구별되는 ‘句麗’라는 별도의 명칭으로 불린 사실¹⁰⁾ 등은 이를 잘 보여준다. 특히 ‘句麗’라는 명칭이 城이나 마을을 뜻하는 ‘溝瀆’나 ‘忽’에서 생겨났다는 사실을 상기하면,¹¹⁾ 이 지역의 주민집단은 내부적으로 끊임없이 상쟁을 치르며 주요 요새지마다 성(溝瀆)을 축조했을 것으로 추정된다.¹²⁾ 그리하여 현도군이 설치될 무렵, 이 지역의 주민집단은 ‘句麗’라는 단일한 정치사회로 인식될 정도로 상당한 정치적 성장을 이룩했다.

따라서 현도군 설치 이후 그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현도군의 지배 양상은 이 지역에서 발견된 漢代 土城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최근 압록강 중류지역에서는 集安 國內城址 아래층의 토축성벽을¹³⁾ 비롯하여 桓仁

중상류 일대가 제1현도군의 관할범위에 속한다고 파악하고 있으므로 일단 본문처럼 기술했다. 제1현도군 치소에 대한 구체적인 논증은 후고로 미루고자 한다.

9) 李丙燾, 1975, 위의 책, 173~176쪽; 盧泰敦, 1977, 「三國의 成立과 發展」, 『한국사』 2, 147~148쪽.

10) 『漢書』 권28, 지리지 8하2.

11) 今西春秋, 1971, 「高句麗の城; 溝瀆と忽」, 『朝鮮學報』 59.

12) 천혜의 요새지인 桓仁 五女山城에서는 신석기-청동기시대가 확인되었고, 고구려 건국 직전의 초기 철기시대 유적 특히 戰國 燕계통의 철기류가 다량 출토되었는데, 이는 자연적인 요새지의 경우 매우 이른 시기부터 방어시설로 이용되었음을 반영한다.

梁志龍, 1992, 「桓仁地區高句麗城址概述」, 『博物館研究』 1992-1, 65~69쪽;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04, 『五女山城』, 文物出版社, 49~72쪽 및 284~285쪽.

13) 集安縣文物保管所, 1984, 「集安高句麗國內城址의 調査與試掘」, 『文物』 1984-1.

최근 국내성지에 대한 보고서에서 석축성벽 하단의 토축성벽에 대한 언급이 없고(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04, 『國內城』, 文物出版社), 임진강 유역의 호로고루나 당포성 등에서 토축기단을 구축한 다음 석축성벽을 축조한 사례를 근거로 국내성지 석벽 하단의 토벽을 漢代 토성지로 보던 종래 견해를 비판하고, 석벽의 기초부로 보는 견해가 제시되었다(심광주, 2005, 「고구려와 백제의 성곽문화」, 『고구려연구』 20, 276~277쪽). 이 문제는 추후 더욱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석벽 하단의 토벽을 적극적으로 부정할 만한 명확한 논거가 확보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1984년 보고서에 따라 국내성지 석벽 하단의 토벽을 토성지의 흔적으로 파악해 두고자 한다.

下古城¹⁴⁾ 通化 赤柏松古城¹⁵⁾ 등 한대 토성지가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는데, 玄菟郡이나 屬縣의 治所로 추정된다.¹⁶⁾ 이들은 대체로 교통로상의 요지에 위치했으며, 주변에는 넓은 충적대지가 펼쳐져 있다. 특히 환인 하고성과 집안 국내성 부근에는 고구려 초기의 적석묘가 널리 분포하고 있다. 이로 보아 漢은 일찍부터 유력한 정치세력이 성장하였던 교통로상의 요지에 郡縣의 治所를 설치하여 압록강 중상류 일대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를 도모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玄菟郡 설치 이후 토착사회의 변화상은 전하지 않고 있지만, 낙랑군이나¹⁷⁾ 西南夷의 사례로 미루어 보아 한군현의 일방적인 수탈로 급격한 사회변화가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玄菟郡 설치 이후 한군현과 결탁한 일부 유력 집단은 한의 선진문물을 받아들이고 다른 토착집단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했겠지만,¹⁸⁾ 대다수 토착민은 한군현의 일방적인 수탈과 지배에 강하게 반발하며 유력집단을 중심으로 결집했을 것이다.¹⁹⁾

A - ① 罷儋耳·眞番郡. (『漢書』 권7, 昭帝紀7, 始元5년 6월조)

② 至昭帝始元五年, 罷臨屯·眞番, 以并樂浪·玄菟. 玄菟復徙居句驪. 自單婁大領已東, 沃沮·濊貊悉屬樂浪. (『後漢書』 권115, 東夷傳, 東濊條)

③ 漢武帝元封二年, 伐朝鮮, 殺滿孫右渠, 分其地爲四郡, 以沃沮城爲玄菟郡. 後爲夷貊所侵, 徙郡句驪西北, 今所謂玄菟故府是也. 沃沮還屬樂浪. (『三國志』 권30, 東夷傳 東沃沮條)

14) 蘇長清, 1985, 「高句麗早期平原城」, 『遼寧省本溪丹東地區考古學術討論論文集』.

15) 玄菟郡의 屬縣인 上殷台縣의 治所로 추정하는 견해도 있다.

邵春華·滿承志·柳嵐, 1987, 「赤柏松漢城調査」, 『博物館研究』 1987-3.

16) 田中俊明, 1994, 「高句麗の興起と玄菟郡」, 『朝鮮文化研究』 1; 尹龍九, 1999, 「고구려의 平地城과 郡縣城 운용」, 『高句麗研究』 8.

17) 權五重, 1992, 「樂浪郡 運營의 內部的 實態」, 『樂浪郡研究』, 一潮閣, 78~80쪽.

18) 고구려 초기 관직 가운데 主簿·丞은 현도군 시에 토착민이 속리직에 참여한 것의 잔영이라는 견해가 있다(權五重, 1992, 위의 책, 82~83쪽).

19) 汶山郡이 설치되었던 卍夷의 경우 “토착민이 부역을 부담스러워 하자 서기전 67년 郡을 폐지하고 蜀郡 北部都尉에 소속시켜 부역을 감소시켜 주었다”라고 한다 (『後漢書』 권86, 南蠻西南夷列傳 제76 卍夷條; 權五重, 1992, 앞의 책, 41쪽).

B- ① 募郡國徒築遼東·玄菟城. (『漢書』 권7, 昭帝紀7, 元鳳6년 春正月條)

② 其(元鳳)六年正月, 築遼東·玄菟城. (『漢書』 권26, 天文志6)

상기 사료는 한군현의 변화양상을 잘 보여준다. A-①과 ②에 따르면 서기전 82년에 臨屯郡과 眞番郡이 폐지되고 樂浪郡과 玄菟郡에 병합되었다고 한다. 또한 A-②와 ③에 따르면 서기전 82년 이후 夷貊의 침공에 따라 현도군을 句麗의 서북 방면으로²⁰⁾ 옮겼다고 하는데, 서기전 75년에 요동성과 더불어 현도성을 축조한 것으로 보아(B- ①· ②) 서기전 82~75년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현도군이 句麗의 서북 방면으로 移置됨에 따라 낭림산맥[單單大嶺] 동쪽의 예맥과 옥저 지역은 모두 낙랑군에 배속되었다(A- ②· ③).

서기전 82년~75년 한군현의 지배가 현저히 약화되었고, 특히 현도군은 구려의 서북 방면으로 축출되었던 것이다. 사료 A-①에 따르면 眞番郡과 함께 南越 지역의 儋耳郡을 폐지했다고 하므로 현도군의 移置도 한의 대외정책 전환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여겨진다. 실제 서기전 1세기 전반 한의 대외정책을 검토해보면 武帝代 말기부터 강경책에서 유화책으로 전환하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무제를 이은 昭帝代에는 강경책의 대표자인 桑弘羊의 실각과 더불어 온건책으로 전환하기에 이른다. 따라서 서기전 82~75년경 현도군의 移置도 한의 대외정책 전환에 따라 일어났을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그런데 眞番郡과 함께 폐지된 儋耳郡은 서기전 111년 설치된 이래²¹⁾ 20여년간 무려 6번이나 반란을 일으켜 마침내 珠崖郡에 병합했다고 한다.²²⁾ 이로 보건데 진번군과 임둔군도 한의 대외정책 전환과 더불어 토착민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폐지했을 가능성이 높다. “夷貊의 침공을 받아 현도군을 句麗의 서북방면으로 옮겼다”는 사료 A-③은 이를 잘 보여준다. 더욱이 한은 현도군을

20) A-②에는 “玄菟復徙居句麗”로 나오는데, ‘句麗’ 다음에 ‘西北’이 생략된 것으로 추정된다.

21) 『漢書』, 武帝紀6, 元鼎6년 10월조.

22) 『漢書』, 권64하, 賈捐之傳.

구려의 서북 방면으로 옮긴 다음 곧바로 郡國徒를 동원하여 요동성과 함께 현도성을 축조했다(B-①·②). 이는 현도군의 이치와 함께 곧바로 성곽을 축조해야 할 정도로 夷貊의 압박이 거세었음을 시사한다.

1~3세기경 ‘貊’이라는 명칭은 주로 高句麗나 그 서방의 別種을 지칭했으므로 현도군의 축출을 주도한 ‘夷貊’은 고구려를 건국한 압록강 중상류 일대의 주민집단으로 추정된다.²³⁾ 현도군이 구려의 서북방면으로 쫓겨났다는 사실도 이를 반영한다. 현도군 축출을 전후하여 압록강 중상류 일대에는 강력한 무장력과 결속력을 지닌 정치세력이 등장했던 것이다. 따라서 현도군은 한의 대외정책 전환과 더불어 고구려 건국을 주도한 주민집단의 무력 공격을 받아 축출당했다고 추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玄菟城을 축조하기 1년 전인 서기전 76년에 三輔와 郡國의 惡少年 및 告劾亡吏를 징발하여 遼東에 주둔시킨 사실이 주목된다.²⁴⁾ 惡少年은 주로 屯戍充軍에 동원된 사례가 확인되며, 죄를 지은 관리의 경우에도 邊塞屯戍에 服役시킨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²⁵⁾ 그러므로 서기전 76년 요동지역으로의 徙民은 이 지역의 군사력을 강화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²⁶⁾ 당시 한은 요동의 동방뿐 아니라 서북방에서도 烏桓의 항거에 직면하고 있었는데, 재정고갈과 민생불안으로 인해 두 방면의 항거를 동시에 제압하기 힘들었다. 이에 漢은 자신의 安危에 보다 직접적인 위협을 주는 烏桓 토벌에 군사력을 집중하는 한편,²⁷⁾ 동방의 夷貊에 대해서는 군현지배를 완화하는 정책을 구사했다. 이렇게 본다면 漢은 일차적으로 烏桓의 항거를 평정하기 위해 요동지역의 군사력을 강화했다고 파악할 수 있다.²⁸⁾

23) 여호규, 2002, 「高句麗 初期의 梁貊과 小水貊」, 『한국고대사연구』 25.

24) 『漢書』, 昭帝紀7, 元鳳6년 春正月조.

25) 金慶浩, 1997, 「전한 시기 河西 徙民의 배경과 성격」, 『상명사학』 5, 160~169쪽.
漢은 무제 이후 刑徒를 外征의 병력으로 많이 동원했다고 한다(飯田祥子, 2004, 「前漢後半期における郡縣民支配の變化」, 『東洋學報』 86-3, 13쪽)

26) 權五重, 1995, 「前漢時代의 遼東郡」, 『人文研究』 17-1, 영남대학교, 294쪽.

27) 『漢書』 권94상, 匈奴傳64상 및 『後漢書』 권90, 烏桓鮮卑列傳80. 그렇지만 서기전 75년 여름에도 烏桓이 한의 邊塞를 침공한데서 보듯이 오환의 항거를 쉽게 평정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서기전 76년 요동지역으로 사민했던 郡國徒를 동원하여 그 이듬해에 요동성과 현도성을 축조한 것에서 보듯이(B-①) 요동지역의 군사력 강화는 궁극적으로 夷貊의 침공을 방어하려는 대책이기도 했다. 실제 夷貊이 현도군을 퇴축시킨 여세를 몰아 요동지역까지 압박한다면 漢으로서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에 漢은 夷貊과 烏桓의 흥기를 동시에 제압하기 힘든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烏桓에 대해서는 토벌정책을 구사하는 한편, 夷貊에 대해서는 군현지배를 완화하면서 현도성을 축조하는 등 방어태세를 강화했다.

이처럼 압록강 중상류의 주민집단은 한의 대외정책 전환 및 오환의 흥기라는 정세변화를 적극 활용해 제1현도군을 무력으로 공략했다. 이에 한은 玄菟郡의 移置와 더불어 곧바로 방어태세를 강화할 정도로 군사적 위협을 강하게 느꼈다. 결국 압록강 중상류의 주민집단은 강력한 무장력을 바탕으로 한의 지배로부터 벗어났다고 할 수 있다. 이 지역의 주민집단은 현도군을 축출하는 단계에서부터 군사적 충돌 즉 소규모 전쟁을 치렀던 셈이다.

그런데 압록강 중상류 일대는 본래 한의 영역이 아니었다. 후술하듯이 서기전 1세기 후반에 漢인들이 압록강 중상류 일대뿐 아니라 그 서북쪽의 제2현도군 지역[蘇子河 유역]까지 塞外로 인식한 사실은 이를 잘 보여준다. 한은 고조선 멸망 이후 일시적으로 압록강 중상류 일대를 점유했을 뿐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상기의 군사적 충돌은 결코 동일한 국가 내부의 갈등이라고 볼 수 없다. 압록강 중상류 주민집단에 의한 현도군 축출 전쟁은 기본적으로 외부세력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정치적 독립을 쟁취하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공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자신의 본거지에 대한 영유권을 회복하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28) 이상은 여호규, 2005a, 「고구려의 국가형성과 한의 대외정책」, 『軍史』 54, 5~13쪽 참조.

2_ 제2玄菟郡의 영향력 차단 전쟁

제1현도군 축출로 압록강 중상류의 주민집단은 일단 한의 직접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고구려 건국의 정치적 기반을 확보한 것이다. 또한 현도군의 군치가 서북방면으로 옮겨감에 따라 중전의 본거지도 상당 부분 수복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한의 영향력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그리 간단치 않았다. 다음 사료는 제1현도군 축출 이후 고구려지역과 제2현도군 사이의 관계가 여러 단계에 걸쳐 변모했음을 잘 보여준다.

C-① 本有五族，有消(消)奴部·絕奴部·順奴部·灌奴部·桂婁部。本消(消)奴部爲王，稍微弱，今桂婁部代之。② 漢時賜鼓吹技人，常從玄菟郡受朝服衣，高句麗令主其名籍。③ 後稍驕恣，不復詣郡，于東界築小城，置朝服衣 其中，歲時來取之，今胡猶名此城爲溝淩。溝淩者，句麗名城也。(『三國志』，魏書 권30, 東夷傳, 高句麗條)

D-① 玄菟郡，武帝元封四年開。高句驪，莽曰下句驪，屬幽州。戶四萬五千六，口二十二萬一千八百四十五。縣三：高句驪，遼山，遼水所出，西南至遼陰入大遼水。又有南蘇水，西北經塞外。上殷台，莽曰下殷。西蓋馬，馬泚水西北入鹽難水，西南至西安平入海，過郡二，行二千一百里。莽曰玄菟亭。(『漢書』 권28 하, 지리지)

서기전 82~75년 句麗의 서북방면으로 축출된 제2현도군의 治所는 대체로 蘇子河 南岸의 新賓 永陵鎮古城으로 비정된다.²⁹⁾ 이곳은 句麗의 본거지인 압록강 중상류의 서북 방면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실은 사료 D-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D-①에는 현도군의 호구수와 속현의 현황이 기재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현도군의 首縣인 高句麗縣 관내에는 遼山에서 발원하여 大遼

29) 白鳥庫吉·箭内互, 1913, 「漢代の滿洲」, 『滿洲歴史地理』(1권), 85~87쪽; 徐家國, 1984, 「漢玄菟郡二遷址考略」, 『社會科學輯刊』 1984-3; 田中俊明, 1994, 「高句麗の興起と玄菟郡」, 『朝鮮文化研究』 1.

수로 흘러드는 遼水와 그 지류인 南蘇水가 있다고 한다. 여기의 大遼水는 지금의 遼河, 대요수의 지류로 나오는 遼水는 요하의 지류인 渾河, 또 요수의 지류인 南蘇水는 혼하의 지류인 蘇子河에 각각 해당한다. 현도군의 首縣인 高句麗縣이 압록강 중상류의 서북방면인 혼하-소자하 유역에 위치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료 D-①은 기본적으로 현도군이 구려의 서북방면으로 축출된 제2현도군 시기의 상황을 반영하며, 통설처럼 제2현도군과 그 首縣인 고구려 현의 치소는 소자하 남안의 영릉진고성이라고 생각된다.

영릉진고성에서는 蘇子河와 渾河를 경유하여 요동평원으로 나아갈 수 있고, 동쪽의 소자하 상류나 남쪽의 岔路溝를 거슬러 압록강 유역으로 진입할 수 있다. 더욱이 영릉진고성 일대는 소자하와 그 지류들이 만나며 비교적 넓은 충적평지를 이루며, 소자하 상류를 따라 蘇子河·富爾江 分水嶺 지대까지 河谷平地가 계속 펼쳐진다.³⁰⁾ 이로 보아 한은 소자하 유역의 충적평지를 배경으로 제2현도군의 치소를 재건한 다음, 소자하-혼하로를 통해 요동평원에 설치된 요동군의 지원을 받는 한편³¹⁾ 蘇子河 上流路나 岔路溝路를 이용해 압록강 중상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고 시도했다고 추정된다. 이러한 양상은 사료 C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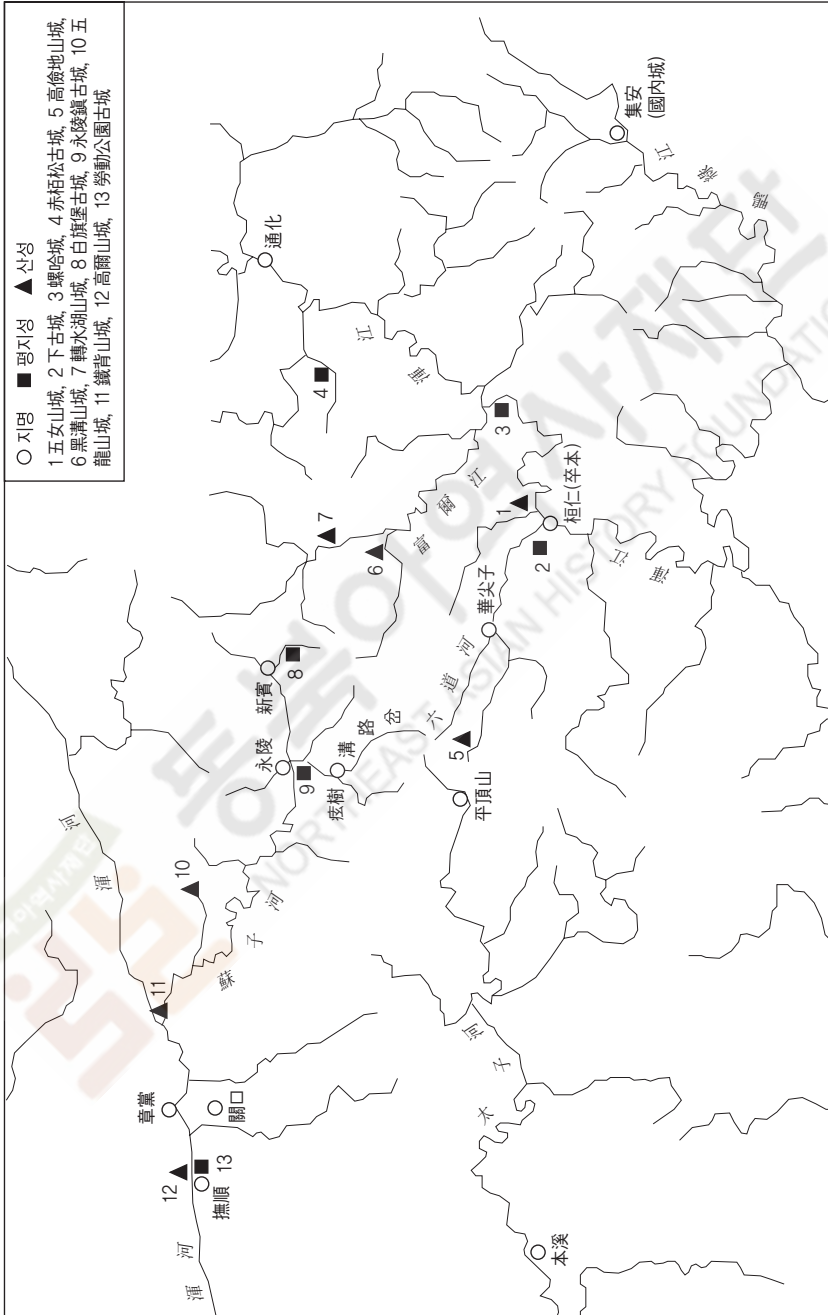
사료 C는 현도군 퇴축 이후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 계루부 왕실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본래 消奴部에서 왕을 배출했다는 것으로 보아 현도군 퇴축 이후 처음에는 消奴集團이 고구려 지역의 맹주권을 장악한 것으로 보인다(C-①).³²⁾ 그런데 한나라 때에 북·피리·악공을 내렸는데, 고구려지역의 여러 집단이 항상 현도군에 와서 朝服과 衣 을 받아갔으며 현도군의 首縣인 高句麗縣의 縣令이 이들의 명단[名籍]을³³⁾ 관장했다고 한다(C-②). 그 뒤 고구려인들이

30) 余昊奎, 1999a, 「新賓 永陵鎮古城」, 『高句麗 城』 II(요하유역편), 國防軍史研究所.

31) 전한 후반기에 군사부담이 과중했던 邊郡은 다른 지역으로부터 재정적인 원조를 받았다고 한다(飯田祥子, 2004, 앞의 글, 337~339쪽).

32) 李丙叢, 1975, 앞의 글.

33) 이 名籍을 고구려 지역의 호구 현황을 기재한 戶籍으로 파악하기도 한다(小林聰, 1991, 「漢時代における中國周邊民族の内屬について」, 『東方學』 82, 35쪽). 그렇지만 居延漢簡에서 名籍이라는 용어가 각종 명단 특히 官人의 명단이라는 의미로 사



〈지도 1〉渾江-渾河 지역의 지형과 성곽 분포 양상

점차 ‘驕恣’해져 더 이상 오지 않자 현도군이 동쪽 경계에 小城[溝濶]을 쌓아 그곳에 朝服·衣 을 두면 歲時마다 와서 취해 갔다고 한다(C-③).

C-②를 제1현도군 시기의 상황으로 파악하거나,³⁴⁾ C-②에서 C-③으로의 전환을 제1현도군의 축출을 반영한다고 이해하기도 한다.³⁵⁾ 그렇지만 항상 현도군에 오던 고구려인들이 더 이상 오지 않자 ‘東界’에 小城을 축조했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東界’의 확립 시점은 상기 사료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문맥상 C-②와 C-③의 현도군이 같은 장소에 위치한 것은 분명하다. C-③뿐 아니라 C-②도 현도군과 고구려지역 사이에 경계를 설정할 수 있는 시기, 즉 현도군에서 고구려지역을 바라볼 때 ‘東界’를 설정할 수 있는 제2현도군 시기의 상황인 것이다.

사료 C는 전체적으로 제2현도군 시기의 상황으로서 그 상한은 서기전 82~75년, 하한은 제2현도군이 다시 혼하 방면으로 축출된 1세기 말~2세기 초이다.³⁶⁾ 사료 C에 따르면 고구려지역과 제2현도군의 관계는 크게 두 단계로 전개되었다. 즉 현도군 축출 이후 일정 시간이 흐른 다음 압록강 중상류의 여러 집단이 개별적으로 제2현도군과 왕래하다가(C-②), 다시 어느 시기부터인가 개별적인 왕래가 단절되었다는 것이다(C-③). C-②가 한이 압록강 중상류에 대해 분리통제를 도모하던 상황이라면, C-③은 이러한 분리통제책

용된 데서 보듯이(永田英正, 1980, 「簡牘よりみたる漢代邊郡の統治制度」, 『講座敦煌: 敦煌の社會』, 大同出版社, 72~73쪽; 山明, 1999a, 「下級官吏の世界」, 『漢帝國と邊境社會』, 中央公論新社, 152~153쪽) 상기 名籍도 문맥상 제2현도군에 조복·의책을 받으려 오던 여러 集團 내지 그 渠帥의 명단을 뜻한다고 생각된다.

34) 金翰奎, 1982, 『古代中國の世界秩序研究』, 일조각, 369쪽; 權五重, 1992, 앞의 책, 51쪽.

35) 朴京哲, 1998, 「‘高句麗社會’의 발전과 정치적 통합 노력」, 『한국고대사연구』 14, 300~306쪽. 또한 제1현도군 축출 직후로 보기도 한다(李鍾旭, 1987, 「고구려 초기의 정치적 성장과 대중국관계」, 『동아시아의 비교연구』, 일조각; _____, 1999, 『한국의 초기국가』, 아르케, 314~318쪽).

36) 『後漢書』 권23, 군국지5, 현도군조, 所引 東觀書의 기사를 근거로 고구려가 105년에 제2현도군을 축출했다고 파악한다(池內宏, 1951, 앞의 논문, 195~198쪽). 그렇지만 고구려가 105년 이전부터 자주 한의 변경을 침범했다고 하므로(『後漢書』 권 85, 동이전, 고구려조), 1세기 말경에 축출했을 가능성도 높다.

이 차단되어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고구려지역과 제2현도군의 관계가 다시 한 번 변모한 것이다. 더욱이 고구려의 '驕恣'로 인해 왕래가 중단된 반면, 玄菟郡은 고구려와의 교섭을 지속하려 한 것을 보면 고구려 내부의 변화 때문에 이러한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여겨진다. 이에 상기 전환은 대체로 압록강 중상류에 강력한 정치체가 등장하여 각 집단의 대외교섭권을 통제하여 이 지역 전체를 통괄하는 국가체제를 확립한 것을 반영한다고 이해한다.³⁷⁾ 이렇게 본다면 제2현도군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과정에서도 고구려와 현도군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그러면 고구려가 한의 분리통제책을 차단한 시점은 언제일까?

서기전 1세기 중반 漢의 주변 정세를 살펴보면, 서기전 75년 烏桓 토벌과 서기전 72년 匈奴 정벌로³⁸⁾ 동북방과 북방의 정세가 크게 안정되었다. 이로써 한은 다시 대외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여유를 되찾았고, 그 여세를 몰아 동방지역에 대해서도 지배력을 강화했다고 여겨진다. 이에 따라 압록강 중상류 일대의 여러 집단이 한의 원심력에 이끌려 개별적으로 현도군까지 가서 교섭했고, 당시 맹주였던 소노집단은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 사료 C-②는 바로 이러한 양상을 반영한다. 제1현도군이 축출되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다음 다시 한의 분리통제책이 압록강 중상류 일대에 미쳤던 것이다.

그런데 서기전 1세기 후반에도 前漢의 대외정세는 비교적 안정되어 있었고, 주변국(족속)이 漢을 침공하거나 저항하면 강경책과 회유책을 병행하여 적절히 대처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명확한 논거가 없는 한 서기전 1세기 후반에³⁹⁾ 고구려가 제2현도군의 분리통제책을 차단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어떠한 형태로든 한이 군사적으로 개입했을 텐

37) 盧泰敦, 1975, 「삼국시대의 部에 관한 연구」, 『한국사론』 2, 12~14쪽.

38) 『漢書』, 宣帝紀8, 本始 2년 5월조 및 匈奴傳64상(3785쪽).

39) 최근 서기전 1세기 후반에 C-②에서 C-③으로의 전환이 일어났다고 추정하는 견해가 제기되었다(이인철, 2006, 앞의 글, 93~95쪽; 윤용구, 2006, 「고구려의 흥기와 책구루」, 『고구려의 역사와 대외관계』, 서경, 18~19쪽).

데 현전하는 사료상 그러한 흔적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⁴⁰⁾

이러한 양상은 D-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술했듯이 D-①은 제 2현도군 시기의 상황을 기술한 것이다. 상기 기사가 포함된 『漢書』, 지리지의 郡國別 戶口數나 소속 縣의 현황이 전한 말의 일괄 자료라는 점도 이를 반영한다.⁴¹⁾ 상기 자료에 따르면 당시 현도군의 호구수는 45,006戶 221,845口인데, 소속 현은 3개에 불과하다고 한다. 縣數에 비해 戶口數가 지나치게 많다. 이에 양자의 불일치를 현도군의 변천과 관련시켜 합리적으로 이해하려는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었는데,⁴²⁾ 『漢書』 지리지의 호구수나 현수가 기본적으로 전한 말의 일괄 자료라는 점을 존중하면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⁴³⁾

D-①에 따르면 현도군의 속현인 西蓋馬縣 관내에는 마자수가 염난수로 흘러든다고 한다. 여기의 馬訖水는 독로강, 鹽難水는 압록강이므로⁴⁴⁾ 서개마현은 대체로 독로강, 압록강, 혼강 등이 합류하는 위원-초산 일대로 비정된다.⁴⁵⁾ 즉 제2현도군 시기인 전한 말경에도 여전히 압록강 중상류 일대에 한군현의 일부가 잔존해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당시 현도군의 호구수는 4만 5천여호나 된 반면, 현수는 3개에 불과했다. 압록강 중상류에 잔존한 현도군의 속현이 이 지역 전체를 실효적으로 지배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더욱이 왕망이 서개마현의 명칭을 ‘玄菟亭’으로 개칭했다고 하는데, 漢代 邊境地域에서 亭은 邊塞를 구성하는 최말단 哨戒組織을 지칭하던 명칭이다.⁴⁶⁾

이는 왕망 당시 서개마현이 행정적인 기능을 거의 수행하지 못한채 주변

40) 여효규, 2005a, 앞의 글, 18~20쪽.

41) 『漢書』 지리지의 군국별 호구적은 元始 2년(서기전 2)의 上計簿에 의한 것이며, 所屬縣目은 元延-綏和年間(서기전 9~8년)에 작성되었다고 한다(윤용구, 2006, 앞의 글, 12쪽 각주 17).

42) 盧泰敦, 1999, 「고구려의 기원과 국내성 천도」, 『한반도와 중국 동북 3성의 역사와 문화』, 서울대 출판부, 325쪽; 윤용구, 2006, 앞의 글, 10~11쪽.

43) 윤용구, 2006, 앞의 글, 12쪽.

44) 노태돈, 1999, 앞의 글, 323쪽.

45) 윤용구, 2006, 앞의 글, 14쪽.

46) 永田英正, 1980, 앞의 글, 60~70쪽.

지역의 동정을 살피는 전초기지에 불과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4만 5천여호는 제2현도군이 직접 관할하던 호구수로 보기는 힘들다. 대체로 당시 제2현도군이 간접적인 분리통제책을 시행하던 고구려 지역의 호구까지 포함한 숫자이거나,⁴⁷⁾ 아니면 제1현도군 시기의 지배 범위를 회복하겠다는 정책에 의거하여 제1현도군의 호구수를 기재했을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아무튼 현도군이 구려의 서북방면으로 축출된 다음, 다시 구려지역에 대한 분리통제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1~2개에 불과하지만 압록강 중상류에 속현을 설치했을 가능성이 높다.⁴⁸⁾ 이처럼 압록강 중상류에 제2현도군의 속현이 다시 설치되었다면, 제2현도군과 고구려 중심지 사이에 C-③의 '東界'와 같은 경계지대가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제2현도군 관내의 南蘇水 곧 蘇子河가 서북으로 塞外를 경유한다”라는 사료 D-①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사료의 전거자료가 정리된 전한 말경에 소자하 유역 일대는 제2현도군이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塞外’로 인식되었다는 것이다. 이 塞는 전한 초에 수리한 ‘遼東古塞’로⁴⁹⁾ 추정되는데, 소자하 서남쪽의 太子河 상류도 塞外로 인식되었다.⁵⁰⁾ 전한의 邊塞인 ‘요동고새’가 제2현도군[蘇子河 유역]과 고구려 중심지[압록강 중상류]의 경계지역보다 더 서쪽을 경유했고, 漢인들이 이 ‘遼東古塞’를 전통적인 변새로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소자하나 압록강 중류 일대가 모두 새외로 인식되었다는 점에서

47) 漢代에는 주변국 군장이 漢에 內屬한 경우 자신이 거느린 戶口數를 신고했고 漢王朝은 이들을 ‘王朝의 民’으로 파악했으며, 內屬民은 납세의 일종으로 遼珍의 奇物을 貢獻했을 뿐 아니라 ‘約’의 형태로 각종 의무사항을 정했다고 한다(小林聰, 1991, 「漢時代における中國周邊民族の內屬について」, 『東方學』 82).

48) 通化 赤柏松古城을 제2현도군의 상은대현으로 비정하기도 하는데 명확한 논거가 확보된 상태는 아니다(李健才, 1990, 「玄菟郡의建置和遷移」, 『東北地方史研究』 1990-1, 35~36쪽).

49) 『史記』 권105, 열전55, 朝鮮傳.

50) 『水經注』 권14, 小遼水條에는 漢代의 大梁水 곧 太子河가 塞外에서 발원하여 서남으로 흘러 小遼水 곧 지금의 渾河와 합류한다고 기술되어 있다([大梁] 水出北塞外, 西南流逕 遼陽縣, 注遼水). 이는 太子河 상류가 塞外였고, ‘遼東古塞’가 태자하 유

전한이 제2현도군과 고구려지역 사이에 변새와 같은 거대한 군사방어선을 구축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만약 이러한 군사방어선이 존재했다면 사료 D-①처럼 소자하 유역을 새외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C-③의 ‘東界’는 전한 말 이후에 확립되었고, 고구려가 제2현도군의 분리통제책을 완전히 차단한 것도 그 이후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다음 사료가 주목된다.

E-① 始建國元年(9년) 正月朔, …… 其定諸侯王之號皆稱公, 及四夷僭號稱王者皆更爲侯. …… 秋, 遣五威將王奇等十二人班符命四十二篇於天下. …… 五威將奉符命, 齎印綬, 王侯以下及吏官名更者, 外及匈奴·西域, 徼外蠻夷, 皆卽授新室印綬, 因收故漢印綬. …… 其東出者, 至玄菟·樂浪·高句驪·夫餘, 南出者, 隴徼外, 歷益州, 貶句町王爲侯, 西出者, 至西域, 盡改其王爲侯, 北出者, 至匈奴庭, 授單于印, 改漢印文, 去璽曰章. 單于欲求故印, 陳饒椎破之, 語在匈奴傳. 單于大怒, 而句町·西域後卒以此皆畔. …… ② 始建國四年(12년) 先是, 莽發高句驪兵, 當伐胡, 不欲行, 郡強迫之, 皆亡出塞, 因犯法爲寇. 遼西大尹田譚追擊之, 爲所殺. 州郡歸咎于高句驪侯驩, 嚴尤奏言, 貉人犯法, 不從驩起, 正有它心, 宜令州郡且尉安之, 今猥被以大罪, 恐其遂畔. 夫餘之屬必有和者, 匈奴未克, 夫餘·穢貉復起, 此大憂也. 莽不威安, 詔尤擊之. 尤誘高句驪侯驩至而斬焉, 傳首長安. 莽大說, 下書曰 …… 其更名高句驪爲下句驪, 布告天下, 令咸知焉. 於是貉人愈犯邊, 東北與西南夷皆亂云. (『漢書』 권99중, 王莽傳 中)

상기 사료는 新을 건국한 왕망이 엄격한 華夷論에 입각하여 강경한 대외 정책을 추진하던 상황을 보여준다. E-①은 주변국에 수여했던 前漢의 印綬를 新의 인수로 교체하던 상황을 기술한 것인데, 이때 현도군과 더불어 고구려가 별도의 수여 대상으로 거명되고 있다. 고구려는 현도군과 명확히 구별되는 존재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왕망은 인수 교체에 만족하지 못하고 10년 天下에 총동원령을 내려 흉노를 정벌하려 했다. 그렇지만 왕망의 뜻과

역의 어느 지점을 지나갔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달리 물자와 인력은 원활하게 동원되지 않았으며, 흉노도 대대적으로 邊塞를 침공했다.⁵¹⁾

이에 다급해진 왕망이 고구려 병을 강제로 동원했으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다는 것이다(E-②). 종래 E-②의 ‘塞’는 대체로 요동과 고구려 사이에 위치한 邊塞로 파악했다.⁵²⁾ 또한 최근에는 제2현도군과 고구려 사이에 설치한 邊塞로 이해한 다음 왕망이 동원하려던 고구려인을 제2현도군 관내의 토착민으로 파악하기도 한다.⁵³⁾ 그렇지만 전술했듯이 전한 말경에 제2현도군이 위치한 蘇子河 일대가 塞外로 인식되었다는 점에서 이들보다 더 동쪽인 제2현도군과 고구려 사이에 ‘塞’가 설치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하겠다.

오히려 遼西大尹이었던 田譚이 邊塞를 도망치던 고구려 병을 추격했고, 흉노 정벌의 전진기지인 遼西의 漁陽에 주둔하던 토예장군 엄우가 고구려군의 내부사정을 정확히 간파한 것으로 보아 상기 사건은 고구려병이 본거지를 떠나 요서일대로 동원되던 와중이나 아니면 요서지역에 도착한 다음 일어났다고 추정된다. 상기 기사의 ‘郡強迫之’를 『後漢書』, 고구려전에서는 “강압적으로 압박해 파견했다[疆迫遣之]”로 표현한 것도 이를 반영한다. 상기 邊塞의 위치를 제2현도군과 고구려지역 사이로 보거나, 이를 근거로 상기의 고구려 병을 제2현도군 관내의 토착민으로 파악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왕망이 병력을 동원하려했던 고구려는 제2현도군과 명확히 구별되는 압록강 유역의 고구려로 보아야 한다(E-①). 또한 왕망의 결정은 단순히 계획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일단 고구려 본거지에서 병력을 강제로 동원했다가 강력한 저항에 부딪힌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고구려와 제2현도군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중요한 단서를 포착할 수 있다.

먼저 현도군과 고구려가 별개로 인식되었지만 王莽이 고구려인을 동원했다는 사실로부터 제2현도군이 고구려지역에 대해 군현지배를 관철한 것은 아

51) 『漢書』 권94하, 匈奴傳 64하.

52) 池內宏, 1954, 앞의 책, 88~91쪽.

53) 권오중, 2002, 「한과 고구려의 관계」, 『고구려연구』 14, 248쪽; 윤용구, 2006, 앞의 글, 13쪽; 이인철, 2006, 앞의 글, 98쪽.

니지만, 병력을 동원할 수 있을 정도로 간접적인 분리통제책을 시행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군이 강압적으로 압박했다[郡強迫之]”고 하여 왕망의 명령을 수행한 주체가 ‘郡’임을 밝히고 있는데, 이 ‘郡’은 당시 고구려 지역을 관장하던 제2현도군일 것이다. 제2현도군이 고구려지역의 병력을 동원하는 책임을 맡았다는 것인데, 고구려현령이 관장하던 名籍이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고구려인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해 한의 병력동원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고, 오히려 이 사건 이후 고구려인들이 변경을 빈번하게 침범했다 [貉人愈犯邊]고 한다. 전한 후반기에는 한의 분리통제책이 비교적 원활하게 시행되었지만, 12년 이후 점차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하여 대략 1세기 중반에는 고구려가 후한의 유화적인 대외정책을 틈타 분리통제책을 완전히 차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貉人愈犯邊’이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무력으로 제2현도군을 공략했을 가능성이 높다.⁵⁴⁾

이처럼 고구려인의 침공이 잦아짐에 따라 압록강 중상류 일대에 다시 설치되었던 제2현도군의 속현도 폐지되거나 소자하 방면으로 이치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제2현도군과 고구려 지역 사이에는 C-③의 ‘東界’와 같은 경계지대가 형성되었을 것이다. 이에 따라 고구려인들은 제2현도군과 왕래하면서 때로는 이 경계지대를 넘어 제2현도군을 공략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당시 고구려지역과 제2현도군의 전쟁양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려면 양 지역 사이의 교통로 즉 전쟁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2현도군의 治所는 소자하 남안의 영릉진고성으로 비정된다. 이곳에서는 동쪽의 蘇子河 상류나 남쪽의 路溝를 거슬러 압록강 유역으로 진입할 수 있다. 제2현도군은 蘇子河 上流路나 路溝路를 이용해 압록강 중상류에 대한 통제를 시도했을 것이다. 한편 당시 압록강 중상류의 중심지는 卒本[忽本] 곧 지금의 환인분지 일대였고, 이곳을 무대로 고구려가 건국되었다. 졸본의 위치를 정확하게 비정하기는 힘들지만, “추모왕이 忽本 서쪽 山上에 성곽을 축

54) 여호규, 2005a, 앞의 글, 28~32쪽 참조.

조해 도읍을 세웠다”는 「광개토왕릉비」의 기사를 참조하면 대략 山上의 성곽으로 비정되는 五女山城 동쪽 지역 곧 환인담 수몰지대로 비정할 수 있다.⁵⁵⁾

환인담 수몰지대에서 영릉진고성으로 나아갈 경우, 혼강 지류인 富爾江을 거슬러 소자하 상류로 진입하는 루트와 역시 혼강 지류인 六道河를 거슬러 橫道河子 隘口를 거쳐 路溝로 진입하는 루트 등이 있다. 영릉진고성에서 압록강 유역으로 진입하는 교통로와 비교한다면 富爾江路는 蘇子河 上流路, 六道河路는 路溝路에 각각 대응된다. 그런데 제2현도군은 고구려인들이 더 이상 오지 않자 ‘東界’에 小城을 축조하여 고구려 지역에 사여할 조복과 의책을 두었다고 한다. 여기의 ‘東界’는 제2현도군에서 바라본 방향이므로 영릉진고성의 동쪽 곧 소자하 상류로에 위치했다고 보아야 한다. 고구려지역에서 바라본다면 부이강로에 해당한다.

주요 교통로에 책구루를 축조했을 것임을 상기하면, 고구려와 제2현도군은 주로 소자하 상류로 곧 부이강로를 사용했다고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은 영릉진고성에 대한 고고학 발굴성과를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다. 종래 영릉진고성에 대해서는 南北 2城說과 單一城說로 대립되었는데,⁵⁶⁾ 최근 조사결과 소자하 남안에 소형 성곽이 있고 그 남쪽 대지상에 대형 성곽이 위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⁵⁷⁾ 영릉진고성은 두 개의 성곽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규모로 보아 남쪽 대지상의 대형 성곽은 제2현도군의 치소, 소자하에 면한 북쪽의 소형 성곽은 제2현도군의 首縣인 高句麗縣의 치소로 추정된다.⁵⁸⁾

55) 여호규, 2005b, 「고구려 국내 천도의 시기와 배경」, 『한국고대사연구』 38, 54~60쪽. 이에 五女山城 동쪽 富爾江-渾江 합류지점의 喇哈城이나 富爾江 유역을 졸본으로 비정하기도 하지만 명확한 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盧泰敦, 1999, 앞의 글, 338~339쪽; Mark E. Byington, 2004, 「Problems Concerning the First Relocation of the Koguryo Capital」,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유산』, 서경문화사, 569~576쪽). 따라서 졸본의 위치는 추후 고고학 발굴성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56) 여호규, 1999a, 앞의 책, 76~81쪽.

57) 중국학자들이 2005년도에 영릉진고성에 대한 고고학 발굴조사를 통해 상기와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특히 소자하 바로 남쪽에 위치한 성곽은 한 변 100~150m 전후로서 漢代 邊郡의 縣城에 해당하는 작은 규모이다.

58) 徐家國, 1984, 앞의 글; (재수록)馮季昌·孫進己·馮永謙(편), 1987, 『東北歷史地理

그런데 제2현도군이 고구려지역에 대해 분리통제책을 시행할 무렵, 高句麗縣令이 그 名籍을 관리했다고 한다. 따라서 고구려 지역의 집단이 제2현도군에 나아갈 경우, 먼저 고구려현에 들렀을 것이다. 제2현도군은 이를 감안해 고구려현을 두 지역 사이의 주교통로에 전진 배치했을 것이다.⁵⁹⁾ 만약 영릉진 고성 남쪽의 路溝路 곧 육도하로가 주요 교통로였다면 고구려현은 남쪽에 위치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 고구려현의 치소로 추정되는 소형 성곽은 북쪽에 위치해 있다. 이로 보건데 당시 路溝路가 주요 교통로였을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된다.

한편 蘇子河 上流路가 주요 교통로였다면 고구려인들은 소자하를 따라 내려오다가 지금의 영릉진 시가지 부근에서 남쪽으로 소자하를 건너야 한다. 소형 성곽은 바로 소자하를 건너 남쪽의 대형 성곽으로 나아가는 지점에 위치해 있다. 이로 보아 당시 고구려 지역과 제2현도군 사이에는 蘇子河 上流路 곧 부이강로가 주요 교통로로 사용되었고, 漢도 이를 고려하여 고구려현의 치소를 蘇子河 남안에 축조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제2현도군과 고구려 지역의 왕래뿐 아니라 충돌도 주로 소자하 상류로에서 일어났으며, 이러한 충돌이 잦아진 12년 이후에는 C-③의 '東界'와 같은 경계지대가 형성되었다고 추정된다.

현재 蘇子河 上流路 곧 富爾江路에서 지형상 경계지대는 소자하-부이강의 분수령 일대이다. 이곳을 제외하면 제2현도군의 치소인 영릉진고성에서 소자하 상류의 白旗堡 일대까지는 河谷平地가 계속 이어지며, 또 분수령 지대를 통과하면 富爾江-渾江 연안을 따라 졸본이 위치했을 환인담 수몰지구까지 나아갈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소자하-부이강의 분수령 직전의 白旗堡古城을 溝婁로 비정한 견해가 주목된다.⁶⁰⁾ 실제 백기보고성은 소자하 유역에서 확인된 漢代 古城 가운데 가장 동쪽에 위치했다는 점에서 책구루일 가능성이 높다.

論著匯編』, 195~196쪽; 李健才, 1990, 앞의 책, 35쪽.

59) 조금 후대의 사실이기도 하지만 北魏가 洛陽城 남문 외곽에 四夷館을 배치한 것도 이와 연관된다.

60) 孫進己·馮永謙, 1989, 『東北歷史地理』(一), 黑龍江人民出版社, 260~261쪽.

따라서 C-③의 ‘東界’는 소자하-부이강 분수령 일대일 가능성이 높다. 즉 12년 이후 고구려 지역과 제2현도군 사이에 무력 충돌이 찾아지면서 소자하-부이강의 분수령 일대가 두 지역을 공간적으로 분리하는 일종의 국경선과 같은 경계지대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고구려지역과 제2현도군 사이에 무력 충돌이 일어났다면 상기의 경계지대를 넘나드는 형태로 진행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무력 충돌이 더욱 찾아지면서 이러한 경계지대는 다른 방면의 교통로로 확산되어 갔을 것이다. 다음 사료는 바로 이러한 양상을 잘 보여준다.

F-① 王命烏伊·摩離領兵二萬，西伐梁貊滅其國，進兵襲取漢高句麗縣。(縣屬玄菟郡) (『三國史記』, 高句麗本紀1, 유리명왕 33년 8월조)

유리왕 33년은 14년에 해당한다. 다만 『三國史記』 고구려본기 초기 기사가 전체적으로 조금씩 소급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면,⁶¹⁾ 상기 사건은 14년보다 조금 늦은 시기에 일어났다고 생각된다. 아무튼 F-①은 1세기 전반의 어느 시점에 일어났을 텐데, 고구려가 서쪽으로 梁貊을 정벌한 다음 계속 진군하여 漢의 高句麗縣을 襲取했다고 한다.

이 기사의 梁貊은 ‘梁水 유역에 거주하는 貊’이라는 뜻이다. 梁水는 漢代에 遼陽에서 遼水[遼河]와 합류하던 강으로⁶²⁾ 오늘날의 太子河로 비정된다. 다만 本溪市 서쪽의 하류 구간은 戰國時代 후반 이래 중국 군현이 설치되었으므로 梁貊의 주요 거주구역은 본계시 동쪽의 태자하 상류유역이라 할 수 있다.⁶³⁾ 이들은 압록강 중상류의 주민집단과 동일한 계통이었기 때문에 당시 고구려인들과 더불어 ‘貊’이라고 불렸다.⁶⁴⁾ 결국 고구려인들은 자신과 동일한

61) 노태돈, 2003,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기사의 신빙성 검토」, 『한국사연구방법의 새로운 모색』, 경인문화사.

62) 『漢書』 권28, 지리지8하, 遼東郡條.

63) 梁志龍, 1993, 「梁貊略說」, 『遼海文物學刊』 1993-1, 86쪽.

64) 여호규, 2002, 앞의 글.

계통인 태자하 상류의 양맥을 정벌한 다음 그 여세를 몰아 제2현도군의 수현인 고구려현까지 공략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양맥은 고구려의 서방에 위치했으므로 고구려는 당시 일상적으로 왕래하던 부이강로가 아니라 육도하로를 이용하여 제2현도군을 공격했다고 파악할 수 있다. 그것도 六道河에서 路溝로 이어지는 현재의 환인 교통로를 이용하지 않고, 양맥의 거주지역인 태자하 상류를 경유하는 교통로를 이용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의 육도하로에는 六道河의 尖子, 혼강-소자하 분수령인 橫道河子 隘口, 路溝의 榆樹 등에서 太子河 상류로 나아가는 여러 산간로가 갈라진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양맥은 현재의 육도하로에 위치한 것은 아니지만, 혼강이나 소자하 유역과 모두 교통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한 것이다.

더욱이 현재까지 육도하로의 상류 즉 尖子-橫道河子 隘口 사이에서는 고구려 성곽이 확인되지 않은 반면, 尖子에서 木孟子鎮을 거쳐 태자하 상류의 平頂山 일대로 나아가는 루트에서는 高儉地山城이 확인되었다.⁶⁵⁾ 더욱이 평정산 일대에는 소자하 유역의 榆樹鎮을 거쳐 제2현도군의 치소가 있던 永陵鎮으로 나아가는 산간로도 개설되어 있다.⁶⁶⁾ 현재의 교통로와 달리 고구려 시기에는 桓仁 서북방면을 통해 소자하 유역으로 나아갈 경우 곧바로 소자하 유역으로 나아가지 않고, 태자하 상류 일대를 경유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아니면 적어도 혼강과 소자하 유역을 곧바로 연결하는 교통로와 더불어 태자하 상류를 경유하는 루트도 활발하게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⁶⁷⁾

이렇게 본다면 양맥은 환인 서북방에서 고구려지역과 제2현도군을 연결하는 중간지대에 위치했다고 할 수 있다. 환인 북방의 소자하-부이강 분수

65) 桓仁滿族自治縣文物志 編纂委員會, 1990, 『桓仁滿族自治縣文物志』, 35~38쪽; 梁志龍, 1992, 앞의 글, 64~69쪽.

66) 현지인의 증언에 따르면 高儉地山城이 위치한 高儉地村에서 蘇子河 유역의 永陵鎮으로 갈 경우 과거에는 太子河 상류의 平頂山을 경유했다고 한다.

67) 渾江-太子河-蘇子河 일대의 산간로를 답사해 보면, 고검지산성이 위치한 渾江 상류에서 太子河 상류의 平頂山 일대로 나아가는 분수령은 그다지 험하지 않고, 태자하 상류의 평정산에서 소자하 유역의 榆樹를 거쳐 영릉진으로 나아가는 산간로도 비교적 평탄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령 지대처럼 양맥은 환인 서북방에서 고구려 지역과 제2현도군의 관할 지구를 가르는 일종의 경계지대 역할을 했던 것이다. 이에 고구려는 경계지대에 위치한 양맥을 먼저 정벌한 다음 제2현도군을 공략하는 전략을 구사했던 것이다. 고구려가 이러한 전략을 구사한 데에는 양맥의 배후 습격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만약 당시 양맥이 제2현도군과 결탁되어 있었다면 고구려 군대를 배후에서 습격할 위험이 매우 높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고구려는 1세기 전반 일종의 국경선인 경계지대를 넘어 제2현도군을 기습 공격하는 작전을 구사했다. 특히 환인 서북방의 경계지대에 위치한 양맥을 정벌한 다음 제2현도군을 공격한 것으로 보아 장기간 군사작전을 수행했으며, 동원한 병력도 대규모였다고 추정된다. 후술하듯이 2세기에든 대략 1만명 이내의 병력을 동원한 것으로 보아 F-①처럼 2만 대군을 동원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수천명은 동원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1세기 전반 제2현도군과의 전쟁은 공간적으로 명확히 구분된 정치체가 수천명의 병력을 동원해 장기간 군사작전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독립 국가 사이의 전쟁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고구려가 漢 玄菟郡의 境內에서 건국했다거나 건국 이후 시종일관 漢에 예속했다는 중국학자들의 견해는 결코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고구려가 무력 공격을 통해 제2현도군의 분리통제책을 차단했다는 점에서 한동안 漢과의 교류가 단절되었고, 한의 침공에 대비하여 군사방어체계를 강화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표 1>에서 보듯이 1세기 후반 고구려와 후한 사이에는 교섭 기사가 보이지 않으며, 1세기 중후반에는 졸본지역에서 지금의 집안분지로 천도하여 군사방어태세를 강화한 사실이 확인된다.⁶⁸⁾

이상과 같이 고구려는 서기전 82~75년경 무력 공격을 통해 제1현도군을 소자하 방면으로 축출했고, 1세기 전반에는 제2현도군의 분리통제책을 역시 무력 공격으로 차단했다. 그리하여 1세기 중반경에는 현도군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압록강 중상류 일대 전체를 통괄하는 국가체제를 확립했다. 고구려는 국

68) 여호규, 2005b, 앞의 글.

가형성기에 주로 한의 현도군과 전쟁을 치루었고, 이를 통해 정치적 독립을 쟁취하고 본거지인 압록강 중상류 일대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한 것이다.

Ⅲ. 2~3세기 對中戰爭의 양상과 그 성격

1_ 2세기 後漢과의 전쟁

〈표 1〉은 1~2세기 高句麗와 後漢의 전쟁 및 대외관계 기사를 정리한 것인데, 對後漢戰爭의 전반적인 추이가 잘 나타나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1세기 후반에는 양국 사이에 전쟁뿐 아니라 대외관계 기사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먼저 1세기 중반경 국가체제를 확립한 고구려가 한과의 대외관계를 단절하고 대내적인 체제정비나 다른 방면으로의 세력 확장에 치중했을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전술했듯이 고구려가 1세기 중후반 卒本에서 國內로 천도한 사실이나 동해안 방면의 沃沮를 정복한 사실은 이를 잘 보여준다.⁶⁹⁾

이와 더불어 光武帝를 이은 後漢의 明帝가 度遼將軍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대외정책으로 전환한 사실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명제대에는 “천하가 평안하고 요역이 없고 해마다 풍년이 들어 백성들이 殷富해졌다”고⁷⁰⁾ 할 정도로 국력이 충실해졌으며, 이러한 국력을 배경으로 邊郡의 군사력을 강화하여 塞外地域에 대한 토벌에 나서는 등 강경한 대외정책을 구사했다.⁷¹⁾ 따라서 무력공격을 통해 제2현도군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국가체제를 확립한 고구려로

69) 金美晔, 2000, 「고구려의 沃沮 服屬과 그 성격」, 『한국사의 구조와 전개』, 하현강교수정년기념논총.

70) 『後漢書』 권2, 明帝紀, 永平12년 是歲條.

71) 小林總, 1989, 「後漢の少數民族統御官に關する一考察」, 『九州大學東洋史論集』 17, 101~104쪽.

〈표 1〉 1~2세기 高句麗와 漢의 전쟁 및 대외관계 기사⁷²⁾

시 기	고구려 지휘자	전투지역 군대규모	중국측 지휘자	경 과	전 거
12년 유리왕 31	高句麗 侯 騶		遼西大尹 田譚 討穢將軍 嚴尤	新이 匈奴 정벌에 고구려병을 강제로 동원하자, 모두 도망하 여 노략질을 일삼고 田譚을 살 해함. 왕망의 명을 받은 嚴尤가 騶를 유인하여 참살함 고본1에는 장수 延즈가 살해되 었다고 나옴	漢書 왕망전 후한서 동이전 삼국지 동이전 고본1
14년 8월 유리왕 33	王子 無恤	양맥 고구려현 2만		서쪽으로 양맥을 정벌한 다음, 漢의 高句麗縣 기습 공격	고본1
28년 7월 대무신 11	左輔 乙頭智	尉那巖城	요동태수	요동태수의 침입을 守城戰으로 격퇴	고본2
49년 1월 모본왕 2		右北平·漁 陽·上谷· 太原	요동태수 祭彤	遼東徼外の 獯人이 右北平·漁 陽·上谷·太原을 공격, 요동태 수 제웅이 恩信으로 대우하여 화친을 회복함 獯人; 동이전에는 句驪, 고본에 는 고구려 장수로 나옴	후한서 광무제기, 동이전 고본2
55년 태조왕 3				요서에 10城을 축조하여 漢兵에 대비함	고본3
태조왕 전반기				변경을 자주 침범함	후한서 동이전
105년 1월·9월 태조왕 53		요동 6현	요동태수 耿夔	요동6현 공격, 耿夔에게 격파되 고, 渠帥(獯人) 참수됨	후한서 화제기 동이전 고본3
109년 3월 태조왕 57				후한에 사신을 파견하여 공헌함	후한서 안제기
111년 태조왕 59				후한에 사신을 파견하여 공헌하 고, 현도군에 屬하기를 요청함	후한서 동이전
118년 6월 태조왕 66	왕	華麗城 穢獯		예맥과 함께 현도군의 화려성 공격	후한서 안제기 동이전 고본3
121년 1월 태조왕 69	王弟 遂成	塞外, 현도·요동 2천+3천	幽州刺史 馮煥 등	유주자사 馮煥, 현도태수 姚光, 요 동태수 蔡諷 등이 滅獯渠帥를 살해 하고, 兵馬財物 노획. 遂成이 군사 2천으로 한군의 침입을 막고, 몰래 3천을 보내 현도·요동군 공격	위와 같음

(계속)

72) 전거의 '고본'은 『三國史記』 고구려본기를 지칭한다.

시 기	고구려 지휘자	전투지역 군대규모	중국측 지휘자	경 과	전 거
121년 4월 태조왕 69	王	侯城, 遼隊, 新昌 鮮卑8천	遼東太守 蔡諷 등	鮮卑 8천과 함께 遼隊 공격. 채 풍을 新昌에서 전사시킴. 兵曹掾 등의 추격 물리침	上同 삼국지 동이전
121년 12월 태조왕 69	王	玄菟城 馬韓, 穢貊 1萬騎	부여왕자 尉仇台	馬韓 · 穢貊 1萬騎를 거느리고 玄菟城 공격. 부여(2만)와 한군 의 연합군에게 패함	후한서 안제기 동이전, 고본3
122년 태조왕 70				遂成이 한의 生口를 돌려보내며 현도군에 이르러 항복을 청함	후한서 동이전
122년 태조왕 70	王	遼東 馬韓, 穢貊		馬韓, 穢貊과 함께 요동 공격	고본3
132년 태조왕 80				한이 현도군에 屯田 6부를 설치 함	후한서 동이전
順桓之間		新安, 居鄉		요동의 新安과 居鄉 공격	삼국지 동이전
146년 8월 태조왕 94	將帥	西安平		西安平縣을 습격하여 帶方수를 살해하고, 낙랑태수의 처자를 사로잡음	후한서 동이전 삼국지 동이전 고본3
168년 2월 신대왕 4				鮮卑와 濊貊이 幽 · 并 2州를 공 격함	후한서 영제기
169년 신대왕 5			玄菟太守 耿臨	경림이 침입하여 아군 수백명을 참수함. 왕이 항복하며 현도(요 동군 : 삼국지)에 屬하기를 청함	후한서 동이전 삼국지 동이전 고본4
熹平中				신대왕이 현도군에 屬하기를 청함	삼국지 동이전
169년 신대왕 5	大加 優居 主簿 然人	富山城		優居와 然人 등이 公孫度을 도 와 富山賊 토벌	삼국지 동이전 고본4
172년 11월 신대왕 8	國相 明臨答夫	坐原 數千騎		명림답부가 守城戰으로 漢의 침 입군을 퇴각시키고, 坐原에서 漢 軍을 크게 무찌름	고본4
184년 고국천왕 6	王 王弟 尉須	坐原 精騎	遼東太守	왕이 漢의 침입군을 坐原에서 크게 무찌름	고본4

서는 후한과 계속 공방전을 벌이다가는 오히려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었다. 이에 고구려는 후한과의 교섭뿐 아니라 무력 공격마저 중단하고 내부적인 체제정비나 동해안 방면으로의 진출 등에 주력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비교적 안정되어 있던 후한의 내부정세는 1세기 말경 잇따른 자연 재해와 외적의 발호로 급속하게 불안정한 상태로 변모했다. 특히 자연재해의

피해가 심각하여 빈민구제책과 더불어 의례 간소화 등 각종 儉約策을 시행하며 지방행정제도까지 쇠신했다.⁷³⁾ 이로 인해 후한의 군사방어력도 급격히 약화되었고, 이를 틈타 鮮卑나 烏桓 등이 후한의 변경을 공략했다. 고구려도 태조왕 宮이 105년 이전부터 후한의 변경을 자주 침공했다는 것으로 보아⁷⁴⁾ 1세기 말경부터 후한에 대한 무력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때 고구려는 소자하 유역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던 제2현도군부터 공략했을 것이다. 이로 인해 현도군은 다시 渾河 방면으로 쫓겨나게 되었다. 후한이 “安帝가 즉위하던 106년에 요동군 관할의 高縣, 候城, 遼陽 등 3개 縣을 현도군에 分屬시켰다”는 기사는⁷⁵⁾ 이를 잘 보여준다. 제3현도군의 치소는 대체로 요동평원과 동부 산간지대의 접경지역인 무순 노동공원고성으로 비정된다.⁷⁶⁾ 따라서 고구려가 제2현도군을 혼하 방면으로 축출한 다음, 소자하 유역을 비롯하여 요동동부 산간지대를 석권하는 한편 요동평원 일대의 한군현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기 시작했을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실제 이러한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면 2세기 이후 후한과의 전쟁은 종전과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토했듯이 국가형성기의 對漢戰爭은 기본적으로 현도군을 축출하는 과정이었다. 제1현도군이나 제2현도군이 압록강 중상류 일대나 소자하 유역 등에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로서는 이를 물리치는 것이 급선무였고, 또한 이를 퇴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불리 요동일대를 공략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가형성기의 전쟁 대상은 거의 현도군에 국한되어 있었다.⁷⁷⁾

그런데 1세기 말~2세기 초경 현도군을 요동동부 산간지대에서 축출함에

73) 上谷浩一, 1994, 「後漢中期の地方行政刷新とその背景」, 『東洋學報』75-3·4, 198~209쪽.

74) 『後漢書』권85, 동이전 고구려조, “後句驪王宮 …… 及長勇壯, 數犯邊境. 和帝元興元年春, 復入遼東, 寇略六縣.”

75) 『後漢書』권23, 郡國志 제5, 玄菟郡조, 所引 東觀書; 池內宏, 1951, 앞의 논문, 195~198쪽.

76) 여호규, 1999b, 「撫順 勞動公園古城」, 『高句麗城』II(요하유역편), 국방군사연구소, 170~181쪽.

77) <표 1>을 보면 대무신왕 11년(28)에 요동태수가 고구려 도성인 國內 尉那巖城

따라 요동평원의 한군현을 본격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표 1>에서 보듯이 고구려가 105년 요동6현을 공격한 이래 후한 말까지 현도군과 요동군을 번갈아 가면서 공격한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다음 사료는 『후한서』 본기와동이전의 기사로 121년 고구려와 후한의 전쟁을 기술하고 있다. 병력동원과 전투과정 등 전쟁의 경과를 상세히 기술하고 있어서 당시의 전쟁 양상과 그 성격을 이해하는데 많은 시사를 준다.

G-① 建光元年 春正月 漢幽州刺史馮煥率二郡太守 討高句驪·穢貊, 不克. ② 夏四月 穢貊復與鮮卑寇遼東, 遼東太守蔡諷, 追擊, 戰沒. ③ 冬十二月, 高句驪·馬韓·穢貊圍玄菟城. 夫餘王遣子與州郡并力討破之. 延光元年 春二月 扶餘王遣子將兵救玄菟, 擊高句驪·馬韓·穢貊, 破之. 遂遣使貢獻. (『후한서』 권5, 효안제기, 建光元年조)

H-① 建光元年 春 幽州刺史馮煥·玄菟太守姚光·遼東太守蔡諷等 將兵出塞擊之. 捕斬穢貊渠帥 獲兵馬財物. 宮乃遣嗣子遂成 將二千餘人 逆光等. 遣使詐降 煥等信之 遂成因據險阨以遮大軍 潛遣三千人攻玄菟·遼東 焚城郭 殺傷二千餘人. 於是發廣陽·漁陽·右北平·涿郡屬國三千餘騎同救之, 而貊人已去. ② 夏, 復與遼東鮮卑八千餘人攻遼陰, 殺略吏人. 蔡諷等追擊於新昌, 戰歿, 攻曹耿耗·兵曹掾

까지 침공했다고 하며, 49년에는 遼東徼外的 貊人이 요서지역의 우북평, 어양, 상곡 등을 공격했다고 한다. 또한 태조왕 3년(55)에는 요서지역에 10개의 성곽을 축조하여 한의 침공에 대비했다고 한다. 고구려가 1세기 전반에 이미 요동군과 대결했을 뿐 아니라 멀리 요서지역까지 공략했다는 것이다. 12년 新的 왕망에 의해 고구려지역의 병력이 요서지역으로 동원된 사례가 있는 만큼, 49년에 貊人 곧 高句麗人들이 요서지역을 공격했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당시 고구려는 제2현도군을 소자하 유역에서 완전히 축출한 상태도 아니었고, 더욱이 요동태수 祭川이 유화책을 구사해 鮮卑나 烏桓을 入朝시킬 정도로 요서지역을 안정적으로 다스리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12년의 역사적 경험을 되살려 소규모 별동대가 요서지역까지 진공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성곽을 구축하며 한과 대치할 정도로 요서지역을 본격적으로 공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49년의 요서 공략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돌출적인 사건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또한 卒本에서 國內로 천도한 시기가 1세기 중후반으로 추정되므로 대무신왕 11년(28)에 요동태수가 국내 위나암성까지 침공했다는 기사도 기년상 소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龍瑞·兵馬掾公孫輔以身諷，俱沒於陳，死者百餘人。③秋，宮遂率馬韓·濊貊數千騎圍玄菟，夫餘王遣子尉仇台，將二萬餘人，與州郡并力討破之，斬首五百餘級。（『후한서』 권85, 동이전, 고구려조）

먼저 상기 기사에 따르면 후한의 유주자사, 현도태수, 요동태수 등이 고구려와 예맥을 토벌하기 위해 출정했지만, 고구려의 반격으로 오히려 현도군과 요동군의 여러 성곽이 불타고 2천여명이 전사했다고 한다. 이에 후한이 광양, 어양, 우북평, 탁군속국 등의 3천여기를 추가로 동원하여 추격에 나섰지만 이미 고구려군이 모두 돌아간 뒤였다고 한다. 2세기 전반 후한이 고구려와의 전쟁에 요동지역의 玄菟郡이나 遼東郡뿐 아니라 幽州 관내의 병력을 대거 동원했다는 것이다. 이는 2세기 전반 고구려의 군사력이 幽州 관내에 배치된 후한의 군사력에 필적할 정도로 강성했음을 의미한다.

상기 사료에 따르면 요동태수와 더불어 현도태수까지 출정했으며, 반격에 나선 고구려군이 현도군과 요동군의 성곽을 불살랐다고 하므로 후한의 군대는 渾河南岸의 제3현도군에서 출병했다고 추정된다. 또한 후술하듯이 제3현도군을 출발한 조위의 관구검이 혼하-소자하 연안로를 거쳐 압록강 유역으로 진입한 것을 상기하면 이때 후한의 군대도 제3현도군을 출발하여 혼하와 소자하 유역을 거쳐 고구려 방면으로 진격했을 것이다. 그런데 후한군은 '塞'를 나선 다음 고구려 공격에 앞서 '濊貊渠帥'를 참수하고 그의 兵馬財物을 노획했다고 한다. 사료 G의 ①과 ③에서 보듯이 여기의 예맥은 고구려와 명확히 구별되는 존재이다.

『후한서』·『삼국지』의 동이전에 따르면, 2~3세기경 고구려는 북으로 夫餘, 남으로 朝鮮(樂浪郡 朝鮮縣)과 濊貊, 동으로 沃沮와 접하였다고 한다. 이 가운데 부여는 당시 고구려와 적대관계였고 G-③에서 보듯이 상기의 '濊貊'과도 뚜렷이 구별된다. 남쪽의 조선은 곧 首縣이 朝鮮縣이었던 樂浪郡 일대를 지칭하는데, 아직 고구려에 병합되기 이전이다. 결국 남쪽의 예맥과 동쪽의 옥저가 남는데, 이들 역시 상기 '예맥'으로 보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남쪽의 예맥은 單婁大嶺 동쪽에 위치한 濊 곧 東濊로 비정되는데, 2세

기 후반인 후한 말에야 고구려에 복속되었다.⁷⁸⁾ 동옥저는 비교적 일찍 고구려에 복속되었지만, 한과의 공방전에 병력으로 동원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특히 옥저는 일찍부터 夫租·沃沮 등으로 불렸다.⁷⁹⁾ 상기의 ‘예맥’에 동옥저가 포함되어 있을 지도 모르지만 동옥저만을 가리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상기의 ‘濊貊’을 고구려의 동·남·북에 위치한 국가나 집단과 연관시키기 힘들다면, 결국 서쪽에 위치했다고 상정할 수밖에 없다. 위 사료에서도 제3현도군을 출발한 후한군이 고구려 공격에 앞서 濊貊渠帥를 참수했다고 하므로, 상기 예맥은 고구려와 제3현도군의 중간지역 곧 고구려 서쪽에 위치했다고 보아야 한다. 더욱이 당시 후한군이 제3현도군을 출발한 다음 蘇子河 유역을 거쳐 고구려 방면으로 진격했을 가능성을 상기하면, 상기의 예맥은 蘇子河 유역의 주민집단을 지칭한다고 추정된다.

후한이 고구려 공격에 앞서 그 서변의 주민집단부터 공략한 것은 이들이 고구려에게 병력을 제공했기 때문이다(G·H-③). 다시 말하면 고구려가 그 서변의 주민집단, 구체적으로는 소자하 유역의 주민집단을 후한과의 전쟁에 대거 동원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2세기 전반경 고구려가 소자하 유역의 주민집단을 예속시켰다고 파악된다. 전술했듯이 고구려는 1세기 전반 제2현도군 공격에 앞서 태자하 상류의 梁貊을 정벌한 바 있다. 이로 보아 고구려는 제2현도군의 분리통제책을 차단하면서 太子河 상류의 梁貊도 예속시켰을 텐데, 2세기 중반 국상 명림답부가 梁貊에 대한 統領權을 행사했다는 사실은⁸⁰⁾ 이러한 가능성을 시사한다.

마찬가지로 제2현도군을 흔히 방면으로 퇴축한 다음에는 소자하 유역의 여러 집단도 예속시켰을 것이다. 1~3세기경 태자하 상류의 주민집단은 ‘梁貊’, 서안평 북쪽의 관전현 일대의 주민집단은 ‘小水貊’으로 불리는 등 고구려와 요동평원 사이의 산간지대에 산재한 주민집단은 고구려와 동일한 계통인

78) 『三國志』 권30, 동이전, 동예조.

79) 리순진, 1964, 「‘부조예군’ 무덤에 대하여」, 『고고민속』 1964-4; 金基興, 1985, 「夫租歲君에 대한 일고찰」, 『韓國史論』 12.

80) 『三國史記』, 高句麗本紀4, 신대왕 2년.

‘貊’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고구려 서변의 주민집단들은 청동기시대 말기에 예맥족에서 분화하여 압록강 중상류의 주민집단과 함께 문화적 친연성이 높은 주민집단을 형성했는데, 철기문화의 보급 이후 다시 고구려 건국집단과 그 서변의 別種으로 분화되었다. 소자하 유역의 주민집단도 바로 이러한 서변의 別種에 속했다.⁸¹⁾

따라서 고구려는 현도군을 요동방면으로 축출하면서 본래 문화적 친연성이 높았던 서변의 別種을 예속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는 후한과의 전쟁에 이들을 대거 동원했던 것이다. 다만 당시는 아직 지방통치조직을 정비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직접 병력을 동원하지 못하고 유력한 토착세력을 매개로 병력을 동원했다고 추정된다. 상기 사료에서 후한군에게 살해된 예맥거수가 바로 그러한 토착세력으로 추정된다. 실제 상기 기사에 따르면 예맥거수는 전쟁 수행에 필요한 병장기와 말을 보유[관장]하고 있다. 예맥거수는 이러한 병장기와 말을 바탕으로 토착사회의 병력을 동원하여 고구려의 對後漢戰에 참전했던 것이다.⁸²⁾

이처럼 고구려는 제2현도군을 축출하면서 그 서변의 주민집단을 예속시킨 다음, 이들을 병력으로 동원하여 후한에 대한 공격을 대대적으로 개시했다. 그리고 선비와 연합작전을 수행하기도 했다. 그리하여 고구려는 8천여명 또는 1만여기에 이르는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요동지역을 공략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 상기 기사에서 보듯이 고구려는 121년에 제3현도군뿐 아니라 혼하 하류의 候城을⁸³⁾ 지나 멀리 요하 하류의 遼隧와 新昌까지⁸⁴⁾ 진격했다. 또한 140년대에는 요동군의 新安과 居鄕을 공략했으며, 146년에는 압록강 하구의 西安平을 습격했다.⁸⁵⁾ 고구려는 2세기에 요동일대 전역을 대상으로 군사

81) 余昊奎, 2002, 앞의 글.

82) 상기 서술은 여호규, 1998a, 「고구려 초기의 병력동원체계」, 『軍史』 36, 27~31쪽 참조.

83) 瀋陽 舊城으로 지정된다(孫進己·王綿厚, 1989, 『東北歷史地理』 (一), 黑龍江人民出版社, 395~396쪽).

84) 新昌은 鞍山 남쪽, 遼隧는 海城 서쪽으로 각각 지정된다(孫進己·王綿厚, 1989, 위의 책, 276~284쪽).

85) 丹東 鬲河尖古城으로 지정된다(曹汎, 1980, 「鬲河尖古城和漢安平瓦當」, 『考古』 1980-6).

작전을 감행했던 것이다.

이처럼 고구려가 그 서변의 別種을 동원했을 뿐 아니라 鮮卑와 연합작전까지 수행했기 때문에 후한도 현도군과 요동군뿐 아니라 幽州 관내의 병력을 대거 동원하여 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⁸⁶⁾ 결국 2세기 이후 對後漢戰은 현도군과의 공방전 양상을 띠었던 국가형성기의 전쟁과 달리 점차 幽州 방면에 배치된 후한의 군사력과 맞대결하는 전면전의 양상으로 변모한 것이다. 또한 요동 동부 산간지대 내부에서 현도군과 공방전을 벌이던 국가형성기의 전쟁과 달리 2세기 이후에는 요동평원 일대를 공략하는 형태로 전쟁의 양상이 변모했다. 그에 따라 양자 사이의 국경선도 점차 요동평원과 동부 산간지대의 접경지역으로 이동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121년 제3현도군을 출발한 후한군이 ‘塞’를 나간 다음 ‘濊貊渠帥’를 살해했다는 기사에 다시 한 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검토했듯이 후한이 살해한 예맥거수는 소자하 유역의 토착세력으로 추정된다. 당시 후한군이 제3현도군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상기의 ‘塞’는 혼하 남안의 제3현도군과 소자하 유역 사이에 위치했다고 상정된다. 즉 후한군이 소자하 유역에 진입하기 이전인 혼하 유역에 위치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2현도군 관내에 있던 南蘇水 곧 蘇子河가 서북으로 ‘塞外’를 경유한다”는 사료 D-①이 주목된다. 이 사료의 전거자료가 일괄적으로 정리된 전한 말경에 이미 소자하 유역이 ‘塞外’로 인식되었다는 것이다. 즉 전한 말경에 요동평원과 소자하 유역 사이에 ‘塞’가 존재했다는 것인데, 이 塞는 바로 전한 초에 수리한 ‘遼東古塞’⁸⁷⁾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요동지역에 구축된 최초의 長城인 燕·秦·漢 장성은 요서지역의 요녕성과 내몽고자치주 경계선 약간 위쪽을 따라 동서 방향으로 놓여 있는데,

86) 後漢代에 邊郡의 병력은 4천명, 部都尉나 屬國都尉의 병력은 대략 1천명 전후였다고 한다(胡宏起, 1996, 『漢代兵力論考』, 『歷史研究』 1996-3). 이는 보병과 기병을 합친 것인 만큼, 3개의 변군과 1개의 속국에서 기병 3천을 동원했다면 소속 기병을 거의 모두 동원했을 가능성이 높다.

87) 『史記』 권105, 열전55, 朝鮮傳.

요하 중류 서안의 法庫지역까지 그 유적이 확인된다.⁸⁸⁾ 그리고 요하 동쪽에서는 渾河를 따라 墩臺 유적이 이어진다.⁸⁹⁾ 墩臺 유적은 渾河 北岸을 따라 3~4리 간격으로 동서로 배열되어 있는데, 撫順 동쪽의 章黨에서 남쪽으로 꺾여져 혼하 지류인 東洲河 東岸을 따라 남으로 關口 營城子까지 이어진다. 특히 돈대 유적과 그 주변에서 前漢 초중반의 유물이 집중적으로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전한 초기에 수리했다는 遼東古塞의 일부로 파악된다.⁹⁰⁾

漢代의 邊塞가 제3현도군의 치소가 위치했던 撫順 동쪽의 渾河 北岸과 東洲河 東岸을 지나갔으며, 바로 이 변새 유적이 D-①이나 H-①의 ‘塞’를 지칭한다고 파악된다.⁹¹⁾ 한은 이러한 변새를 따라 대략 2~6리(1~3km) 간격으로 ‘燧’나 ‘亭’으로 불린 哨戒網[望樓+烽燧]을 축조한 다음 최말단 초계조직에는 5~6명의 병졸을 거느린 隧長[亭長], 중간 초계조직에는 십수명의 병졸을 거느린 候長을 배치했다. 그리고 이들 보다 상급 무관조직인 部[塞尉], 候官[障尉], 都尉府[都尉] 등을 변새를 따라 설치해 최전방 군사방어체계를 구축했다.⁹²⁾ 이렇게 본다면 漢代의 邊塞는 최전방 군사방어망으로 사실상 국경선과 같은 성격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⁹³⁾

88) 馮永謙·何溥濤, 1986, 『遼寧古長城』, 遼寧人民出版社; 李健才·劉素雲(주편), 1997, 『東北地區燕秦漢長城和郡縣城的調查研究』, 吉林文史出版社.

89) 漢代의 邊塞는 국경지대의 방어시설로 지형조건과 재료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축조했다. 가령 河西지역 邊塞 유적은 참호, 성벽, 돈대나 보루, 천연장벽, 繩索이나 柵欄, 天田[모래밭]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吳 驥, 2004, 『河西漢塞調查研究』, 文物出版社, 182~186쪽).

90) 孫守道, 1992, 「漢代遼東長城列燧遺跡考」, 『遼海文物學刊』 1992-1, 14~15쪽; 王綿厚, 1994a, 「燕秦漢時代的東北障塞」, 『東北秦漢史』, 遼寧人民出版社, 223~224쪽.

91) 전술했듯이 『水經注』 권14, 小遼水조에 따르면 漢代의 大梁水 곧 太子河도 塞外에서 발원하여 서남으로 흘러 小遼水 곧 지금의 渾河와 합류한다고 한다. 太子河 상류가 塞外였고, 「遼東古塞」가 태자하 중하류를 지나갔을 가능성을 시사하는데, 실제 東洲河 東岸에서 남쪽으로 계속 연장하면 태자하유역을 경유하게 된다.

92) 米田賢次郎, 1953, 「漢代の邊境組織」, 『東洋史研究』 12-3, 251~254쪽; 陳楚家, 1964, 「漢簡所見居延邊塞與防禦組織」, 『考古學報』 1964-1, 68~69쪽; 永田英正, 1980, 앞의 글, 60~70쪽; 山明, 1999b, 「烽燧, 長城, 關所」, 앞의 책, 45~50쪽.

93) 吳 驥, 2004, 앞의 책, 182~183쪽.

따라서 한의 군현이 요동동부 산간지대에까지 전진 배치된 제1, 2현도군 시기에는 撫順 동쪽의 渾河-東洲河 연안을 지나던 遼東古塞의 기능이 많이 약화되었겠지만, 요동동부 산간지대에서 渾河 방면으로 퇴출된 제3현도군 시기에는 상기의 遼東古塞를 중심으로 군사방어망을 재구축했을 것이다. 제3현도군 시기에는 撫順 동쪽의 遼東古塞가 후한의 최전방 군사방어선이었고, 이 ‘邊塞’는 사실상 후한과 고구려 사이의 국경선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다. 이에 사료 H-①에서도 후한군이 최전방 군사방어선을 넘어 塞外 곧 고구려의 영향력이 미치는 夷狄의 境內로 진입했음을 강조하기 위해 ‘出塞’라 표현했던 것이다.⁹⁴⁾

이처럼 2세기 이후에는 후한의 군사방어선이 요동평원과 동부산간지대의 접경지역으로 후퇴했고, 이 일대가 고구려와 후한의 국경선으로 고착되어 갔다. 이에 따라 고구려는 요동동부 산간지대에서는 후한의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고, 접경지역에 위치한 후한의 군사방어망을 뚫고 곧바로 요동평원 일대를 공략할 수 있었다. 후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고구려의 공격을 방어하기가 훨씬 어려워졌지만, 고구려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군현을 공략하기가 훨씬 용이해진 셈이다. 이에 따라 고구려는 西邊의 別種을 동원하거나 鮮卑와 연합작전을 구사하며 요동평원 곳곳을 공략한 반면, 후한은 幽州 관내의 병력을 대거 동원하거나 그것도 모자라 부여의 지원을 받아 겨우 고구려군을 격퇴했다(H-③).

이처럼 2세기 이후 고구려와 후한 사이에는 ‘邊塞’라는 일종의 국경선이 형성되었고, 양국 모두 대규모 병력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고구려의 對後漢戰은 독립 국가 사이의 전쟁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양자의 전쟁을 국가 내부의 갈등으로 파악하는 중국학자들의 견해는 결코 성립할 수 없다. 또한 고구려가 後漢과 예속관계를 유지했음을 강조하기 위해 전쟁 관련 기사만 추출한 다음 전쟁 기간이 10여년에 불과했다는 견해도⁹⁵⁾ 결코 성립할 수 없다. <표 1>

94) 撫順 동쪽 章黨의 官嶺-土口子 사이는 撫順[제3현도군]에서 新賓[제2현도군] 일대로 나아가는 교통로상의 關門인데, 동서로 마주보는 白龍山과 黑虎山 위에 墩臺 유적이 있다(孫守道, 1992, 앞의 글, 14쪽). 邊關을 설치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 그렇다면 121년 漢軍이 出塞했다는 지점에 해당한다.

에서 보듯이 1세기 후반에는 양국관계가 단절된 상태였고, 고구려가 111년 현도군에 屬하기를 요청한 다음에도 불과 7년만인 118년에 현도군을 공략했기 때문이다. 또한 122년 현도군에 屬하기를 요청한 다음에는 140년대까지 휴전 상태가 유지되지만, 169년에 현도군[요동군]에 屬하기를 요청한 다음에는 불과 3년만에 다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內屬을 요청한 다음 일정 기간은 和親관계가 유지되었겠지만, 다시 긴장이 고조되다가 전쟁이 발발했을 것임을 상기하면 실제 화친 기간은 內屬 이후 전쟁이 발발하기까지의 기간보다도 짧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⁹⁶⁾ 더욱이 이때의 內屬은 결코 한군현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漢代에는 주변국이 邊郡에 내속하면 먼저 邊塞에 설치된 관문인 邊關부터 제거했다고 한다. 그런 다음 주변국 군장에게 자신이 거느린 戶口數를 신고하도록 하고, 일종의 納稅의 형태로 遠珍의 奇物을 貢獻하도록 하고 ‘約’의 형태로 각종 의무사항을 정했다고 한다.⁹⁷⁾

그런데 2세기 고구려가 후한에 내속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매우 짧았고, 또한 내속과 공방전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상기와 같은 일련의 과정이 모두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아마 내속 이후 첫 번째 단계인 국경의 관문인 변관을 제거하고 상호 화친관계를 모색하다가 다시 긴장이 고조되었다고 추정된다. 이렇게 본다면 고구려와 후한의 관계는 일종의 국경 관문인 邊關을 중심으로 내속과 공방전을 되풀이하는 형태로 전개되었고, 이 과정에서 撫順 동쪽의 渾河-東洲河 연안을 지나는 邊塞는 더욱더 국경선으로 고착화되었다고 추정된다. 결국 2세기 고구려의 대후한전은 양자가 국경선으로 인식한 변새를 넘

95) 孫進己, 1994, 앞의 글, 276~283쪽.

96) 한편 중국학자들에 대한 반론으로 內屬 이후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까지를 모두 화해국면, 또 전쟁 발발 이후 내속까지는 모두 전쟁국면으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이인철, 2006, 앞의 글, 101~103쪽). 실제로 전쟁이 일어난 기간만 긴장관계로 파악하는 중국학자들에 비해 합리적인 견해라고 생각되지만, 내속 이후 점차 긴장이 고조되다가 전쟁이 발발했으며 또한 전쟁 이후 점차 화해무드가 조성되다가 내속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상정할 필요가 있다.

97) 小林聰, 1991, 『漢時代における中國周邊民族の內屬について』, 『東方學』 82.

나드는 형태로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독립 국가 사이의 전쟁이라고 파악된다.

다만 2세기 당시 고구려의 경우, 豪民層 이상의 전사층이 군사력의 근간을 이루었고, 대외전쟁시에는 계루부 왕권의 통제 아래 각 那部別로 병력을 동원했기 때문에 상시 운영되는 병력규모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경에서 도성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 방어시설을 구축하거나 방어체계를 확립하기 힘들었다. 그리하여 적군이 침입하면 험준한 자연지세를 이용하여 방어하든가 都城에서 守城戰을 펼치다가 적군이 퇴각하면 추격했다. 사료 H-①에서 ‘險隘’한 곳에 의지해 후한군을 방어했다거나, 대무신왕 11년이나 신대왕 8년에 守城戰을 전개한 사실은 <표 1>에서 잘 확인할 수 있다.⁹⁸⁾ 고구려는 후한과 전면전을 벌이기는 했지만 병력동원체계나 군사방어체계상 많은 한계를 안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한계는 3세기 전반을 지나면서 점차 극복되기 시작한다.

2_ 3세기 전반 曹魏와의 전쟁

2세기 말경 宦官의 발호와 黃巾賊의 반란으로 후한의 지배체제가 붕괴됨에 따라 동아시아 국제정세는 종전과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중국 대륙은 曹魏, 蜀漢, 孫吳 등 3국으로 분열되었으며, 중국 대륙 주변에서도 여러 족속과 나라가 새롭게 흥기했다. 이러한 국제정세 변화는 고구려가 위치한 만주와 한반도 일대로도 밀려왔다. 고구려가 2세기 동안 대대적으로 공략했던 요동지역에서는 토착 漢人 계통의 公孫氏 정권이 흥기하여 50여년간 독자세력을 구축했으며, 요서지역에서도 선비족이 새롭게 흥기하여 화북일대와 요동지역까지 공격했다.

이에 따라 고구려는 요동지역에서 후한 대신 공손씨 정권과 접경하게 되었다. 그런데 공손씨 정권은 후한의 붕괴를 틈타 요동지역뿐 아니라 서쪽으로는 烏桓을 정벌하고, 발해만을 넘어 산동반도 일대까지 진출하는 등 급격히

98) 여호규, 1998a, 앞의 글, 17~26쪽 참조.

세력을 확장했기 때문에 고구려가 쉽게 대적하기 힘들었다. 이에 고구려는 처음에는 공손씨의 富山賊 토벌에 원병을 파견하는 등 우호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⁹⁹⁾ 그러다가 고국천왕 사후 왕위계승전에서 패배한 발기가 내투하자, 공손씨 정권이 고구려를 대대적으로 침공하기에 이른다. 이때 공손씨가 도성[國]까지 격파했다는 것으로 보아 고구려가 일방적인 열세 상태였다고 추정된다.¹⁰⁰⁾ 또한 공손씨 정권이 도성까지 진격한 것으로 보아 후한대와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전쟁이 전개되었다고 추정된다.

한편 고구려는 공손씨 정권을 견제하기 위한 다양한 대외정책을 모색했는데, 230년대에 접어들면서 처음에는 曹魏 공략을 위해 동방정책을 적극 추진하던 孫吳와의 연계를 도모했다. 그러다가 234년 諸葛亮의 사망으로 손오와 축한의 북벌이 중대한 위기에 봉착한 것을 틈타 조위가 동북방의 공손씨 정권에 대한 토벌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자, 고구려는 238년 조위를 도와 공손씨 정권을 멸망시켰다. 이로써 고구려는 40여년 가까이 대적하던 공손씨 정권을 붕괴시켰지만, 요동일대를 점령한 조위는 공손씨보다 더욱 강력한 분할지배 정책을 구사하며 고구려를 위협했다. 이에 고구려는 242년 압록강 하구의 서안평을 공격하며 특단의 대책을 강구했지만, 오히려 244~245년 관구검의 침공을 야기하며 엄청난 국가적 위기를 맞게 된다.¹⁰¹⁾

이때 고구려와 조위의 전쟁 과정은 비교적 상세히 전해지고 있어 당시 전쟁 양상과 성격을 이해하는데 많은 시사를 주고 있다.

I-① 二十年秋八月，魏遣幽州刺史毌丘儉，將萬人，出玄菟來侵。王將步騎二萬人，逆戰於沸流水上，敗之，斬首三千餘級。又引兵再戰於梁貊之谷，又敗之，斬獲三千餘人。王謂諸將曰：魏之大兵，反不

99) 『三國志』 권30, 동이전, 고구려조, “公孫度之雄海東也，伯固遣大加優居・主簿然人等，助度擊富山賊，破之。”

100) 『三國志』 권30, 동이전, 고구려조 ; 『梁書』 권54, 열전48, 고구려전.

101) 3세기 전반 고구려의 대외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논고를 참조할 수 있는데, 필자도 3세기 전반 동아시아 국제정세를 고려하며 공손씨 및 조위와의 대외관계를 다른 논고를 준비하고 있다.

如我之小兵。毌丘儉者魏之名將，今日命在我掌握之中乎。乃領鐵騎五千，進而擊之。儉爲方陣，決死而戰，我軍大潰，死者一萬八千餘人。王以一千餘騎，奔鴨綠原。冬十月，儉攻陷丸都城，屠之。乃遣將軍王頎追王。王奔南沃沮，至于竹嶺。軍士分散殆盡，……王間行轉輾，至南沃沮，……(『三國史記』，高句麗本紀5，동천왕 20年條)

- ② 七年 春二月，幽州刺史毌丘儉討高句麗。夏五月，討濊貊，皆破之。(『三國志』魏書4，三少帝紀，正始7年條)
- ③ 正始中，儉以高句麗數侵叛，督諸軍步騎萬人出玄菟，從諸道討之。句麗王宮將步騎二萬人，進軍沸流水上，大戰梁口，宮連破走。儉遂東馬縣車，以登丸都，屠句麗所都，斬獲首虜以千數。……宮軍將妻子逃竄。儉引軍還。六年，復征之，宮遂奔買溝。儉遣玄菟太守王頎追之，過沃沮千有餘里，至肅慎氏南界，刻石紀功，刊丸都之山，銘不耐之城。諸所誅納八千餘口，論功受賞，侯者百餘人。穿山漑灌，民賴其利。(『三國志』魏書28，毌丘儉傳)
- ④ 毌丘儉討句麗，句麗王宮奔沃沮，遂進師擊之。沃沮邑落皆破之，斬獲首虜三千餘級，宮奔北沃沮。北沃沮一名置溝婁。(『三國志』，魏書 30，東夷傳，沃沮條)
- ⑤ 五年，幽州刺史毌丘儉將萬人，出玄菟討位宮，位宮將步騎二萬人逆軍，大戰於沸流。位宮敗走，儉軍追至峴，¹⁰²⁾懸車束馬，登丸都山，屠其所都，斬首虜萬餘級，位宮軍將妻息遠竄。六年，儉復討之，位宮輕將諸加奔沃沮，儉使將軍王頎追之，絕沃沮千餘里，到肅慎南界，刻石紀功，又到丸都山，銘不耐城而還。(『梁書』 권54，열전 48，고구려전)
- ⑥ 正始三年高句麗反，督七牙門討句麗五。復遺寇六年五月旋。討寇將軍魏烏丸軍于□。威寇將軍都亭侯□。行裨將軍領□。□裨將

李基白, 1996, 「3세기 동아시아 제국의 정치적 발전 - 위의 동침과 관련하여」, 『한국고대정치사학회사연구』, 일조각 ; 吳舜濟, 1998, 「2세기末~3세기中葉 고구려의 요동진출에 대한 연구」, 『선사와 고대』 11 ; 박노석, 2001, 「서기 3세기 초의 고구려와 魏의 관계」, 『전북사학』 24 ; 서영수, 2002, 「고구려와 三國의 관계 - 위진과의 외교와 전쟁을 중심으로」, 『고구려연구』 14.

102) 『北史』 고구려전에는 ‘靺嶺’, 『太平御覽』 고구려전에는 ‘靺嶺’, 『通典』 고구려전에는 ‘靺’으로 표기되어 있다.

軍」(冊丘儉紀功碑, 판독문은 『譯註 韓國古代金石文』(I) 참조)

상기 사료들은 전쟁이 일어난 시점에 대해 조금씩 다르게 기술하고 있다. 가령 I-①이나 I-②에는 冊丘儉이 246년 한 차례 고구려를 공략했다고 기술한데 비해, I-③이나 I-⑤에는 244년(正始 5년)과 245년(正始 6년) 두 차례 침공했다고 나온다. 종래 이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으나, 1906년 集安 小板嶺에서 발견된 「冊丘儉紀功碑」(I-⑥)에 의해 242~244년 및 245년 두 차례에 걸쳐 고구려를 침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¹⁰³⁾ 따라서 冊丘儉은 244년과 245년 두 차례 고구려를 침공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三國史記』 고구려본기와 『三國志』 관구검전의 기사를 비교해 보면, 전자에는 두 차례에 걸친 관구검의 침공이 통합되어 기술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I-① 가운데 冊丘儉이 玄菟郡을 출발해 丸都城을 도륙한 부분까지는 244년의 침공, 王頡를 파견해 沃沮 방면으로 피신하던 東川王을 추격한 부분은 245년의 재침공에 해당하는 것이다. 실제 I-①에 기술된 冊丘儉軍의 공격로를 보면 玄菟 → 沸流水 → 梁貊之谷 → 丸都城으로서 I-③의 玄菟 → 沸流水 → 梁口 → 丸都 등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 관구검군의 출발지인 玄菟郡은 혼하 남안의 제3현도군이며, 丸都城은 당시 고구려 도성의 비상시 군사방어성인 集安 山城子山城으로 비정된다. 관구검군은 혼하 남안의 제3玄菟郡을 출발하여 압록강 중류에 위치한 고구려 도성을 최종 목표로 삼아 진격했던 것이다.

그런데 두 기사는 중간 경유지에 대해 조금 다르게 기술하고 있다. 즉 I-①에는 玄菟郡을 출발한 관구검 군대가 沸流水에서 고구려군에게 패배한 다음, 梁貊之谷으로 퇴각하여 이곳에서 고구려군을 대파하고 환도성으로 진격

103) 최근 「관구검기공비」 가운데 정시6년(245) 5월에 ‘旋’했다는 주제를 조위가 아니라 고구려로 파악한 다음, 관구검의 재침공이 정시6년 이듬해인 246년에 일어났다고 파악한 견해가 제기되었다(박노석, 2003, 「고구려 동천왕대 관구검의 침입」, 『한국사상과 문화』 20, 168~170쪽; 장창은, 2006, 「3~5세기 고구려·신라 관계의 전쟁사적 추이」, 『고구려연구』 24, 46~48쪽).

한 것으로 나온다. 이에 비해, I-③에는 비류수를 거쳐 梁口에서 고구려군을 대파하고 丸都로 진격했다고 나온다.¹⁰⁴⁾ 어느 사료를 취하느냐에 따라 관구검군의 경유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달라지는 것이다. 가령 I-①의 경우 관구검이 비류수에서 패배한 다음 梁貊之谷으로 퇴각했기 때문에 梁貊之谷은 제3현도군과 비류수 사이로 비정되는 반면, I-③은 비류수를 경유하여 梁口에서 전투를 벌였다고 하므로 梁口는 비류수와 환도성 사이로 비정된다. 이에 I-③을 취하여 梁口가 비류수 곧 현재의 渾江 일대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¹⁰⁵⁾ 그렇지만, I-③은 冊丘儉 열전에 수록된 사료인 만큼, 패전 사실을 숨기고 승전만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다. 즉 관구검이 비류수에서 패배한 다음 梁口로 퇴각한 사실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높다.¹⁰⁶⁾

더욱이 두 기사를 대조해보면 梁口는 梁貊之谷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양맥지곡이나 양구는 모두 ‘梁水’라는 하천명에서 유래한 지명이다. 전술했듯이 梁水는 오늘날의 太子河를 지칭하며, 梁貊은 太子河 상류유역에 거주하던 고구려의 別種을 가리킨다. 이러한 양맥의 거주지역인 태자하는 渾江의 서변에 위치했으며, 渾江에서 곧바로 환도성으로 진격할 경우 경유할 수 없는 곳이다. 따라서 冊丘儉軍이 沸流水에서 梁口를 경유하여 곧바로 丸都城으로 진격한 것처럼 기술한 I-③은 성립하기 힘들다. 양맥이 제3현도군[渾河南岸]과 비류수(渾江) 사이인 太子河 상류와 연관된다는 점에서 I-③에는 “冊丘儉軍이 沸流水에서 패배한 다음 梁貊之谷으로 퇴각했다”는 사실이 누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사료 I-③은 관구검의 공적을 칭송하기 위해 비류수에서의 패전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244년 曹魏軍과 高句麗軍은 沸流水와 梁貊之谷

104) 『梁書』 고구려전에는 梁口라는 지명마저 생략한 채 마치 冊丘儉이 沸流水 지역에서 고구려군을 대파한 것처럼 기술했다.

105) 池內宏, 1928a, 『曹魏의 東方經略』: _____, 1954, 『滿鮮史研究』(상세1책), 吉川弘文館, 258~263쪽.

106) 池內宏, 1928b, 『冊丘儉의 高句麗征伐に關する三國史記の記事』: _____, 1954, 위의 책, 282~285쪽에서는 고구려 修史家가 沸流水 전투의 결과를 조작했고, 梁貊之谷은 지어낸 지명이라고 파악했다.

(梁口)에서 두 차례 격전을 치루었는데, 비류수의 1차전에서는 고구려군이 승리했지만, 양맥지곡의 2차전에서는 조위군이 승리했다고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조위군은 양맥 전투에서 승리한 여세를 몰아 다시 비류수를 거쳐 환도성으로 진격했다. 조위군은 제3玄菟郡 → 沸流水 → 梁貊之谷(梁口) → 沸流水 → 靺嶺¹⁰⁷⁾ → 丸都城 등 진격과 퇴각을 거듭하면서 환도성까지 진공했던 것이다. 조위군은 혼하 남안의 제3현도군을 출발하여 비류수 곧 혼강유역으로 진입했다고 하므로 蘇子河 유역을 경유했을 것이다.

한편 전술했듯이 현재 渾江과 蘇子河 유역 사이에는 차로구로[육도하로]와 소자하 상류로[부이강로]가 있는데, 제2현도군 당시에는 소자하 상류로가 더욱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그리고 소자하에서 혼강을 거쳐 압록강 중류의 集安 일대로 나아갈 경우 蘇子河 상류 → 富爾江을 경유하는 루트가 최단 코스로서 가장 평탄한 편이다. 따라서 조위군이 제3현도군을 출발해 소자하를 경유하여 혼강[비류수] 유역까지 진격할 때에는 소자하 상류-부이강로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조위군이 퇴각할 때에는 왜 본래 진군했던 루트를 이용하지 않고, 梁貊 방면으로 물러났을까?

전술했듯이 태자하 상류의 양맥은 현재의 육도하-차로구로에 위치한 것은 아니지만, 이곳에는 육도하-차로구로와 통하는 산간로가 많다. 양맥은 혼강과 소자하 유역을 연결하는 중간지대에 위치했던 것이다. 이에 고구려가 제2현도군을 공격하기에 앞서 양맥부터 정벌했다고 추론한 바 있다. 더욱이 현재의 육도하로 상류에서는 고구려 성곽이 확인되지 않은 반면, 태자하 상류의 平頂山 일대로 나아가는 루트에서는 高儉地山城이 확인되었다. 이로 보아 현재와 달리 고구려 시기에는 桓仁 서북방면을 통해 소자하 유역으로 나아갈 경우 태자하 상류를 경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된다.

이러한 점에서 ‘梁貊之谷’이 I-③에는 ‘梁口’로 표기된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梁口는 ‘梁水の 河口’ 또는 ‘梁水の 入口’라는 의미인데, 전자는

107) 冊丘儉軍이 丸都城으로 진격하기 직전에 넘었다는 靺嶺(靺嶺, 嶺)은 「관구검기 공비」가 발견된 小板嶺 일대로 비정된다(池內宏, 1928b, 앞의 글; _____, 1954, 앞의 책, 258~263쪽).

제3玄菟郡이나 渾江과 너무 멀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梁口는 문맥상 ‘梁水の 入口’로 해석되는데, 조위군이 비류수에서 패배한 뒤 퇴각했음을 고려하면 ‘渾江 유역에서 太子河 상류로 진입하는 入口’로 추정된다. 즉 ‘梁口’는 혼강 지류인 六道河에서 木孟子鎮[高儉地山城]을 거쳐 태자하 상류로 진입하는 入口인 平頂山 일대로 비정된다.¹⁰⁸⁾ 이곳은 고구려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梁貊이 거주하는 골짜기’ 곧 I-①처럼 ‘梁貊之谷’으로 인식되는 곳이다.¹⁰⁹⁾

이렇게 본다면 244년 고구려군과 조위군의 주요 戰場은 沸流水[渾江] 유역과 梁貊[太子河 상류] 지역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曹魏軍의 진격로는 1~2세기경 漢軍의 침공 루트와 거의 동일하다. 그렇지만, 고구려의 입장에서 본다면 전투양상에 커다란 변화가 엿보인다. 가령 고구려는 1~2세기에는 주로 도성의 군사방어성으로 피신하는 守城戰을 구사한 반면, 조위와의 전쟁에서는 국경과 도성의 중간지대에서 적군을 저지하는 방어전술을 구사했다. 방어전술이나 전투지역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渾江 右岸 일대 고구려 성곽의 분포양상이 주목된다. 현재 혼강 우안에서는 고구려 산성이 상당수 확인되는데, 거의 대부분 桓仁 五女山城처럼 산정상부의 평탄면을 활용한 山頂式 산성이다. 특히 부이강 루트에 위치한 전수호산성과¹¹⁰⁾ 흑구산성은¹¹¹⁾ 입지뿐 아니라 壁牆을 활용한 축성법

108) 孫進己·馮永謙, 1989, 앞의 책, 368쪽; 王綿厚, 1994b, 『秦漢東北史』, 遼寧人民出版社, 141쪽.

109) 필자는 「3세기 후반~4세기 전반 고구려의 교통로와 지방통치조직」(『韓國史研究』 91, 1995)의 13~15쪽 및 「高句麗 初期의 梁貊과 小水貊」(『한국고대사연구』 25집, 2002)의 95~97쪽에서 ‘梁口’를 ‘蘇子河에서 太子河 상류로 진입하는 입구’로 파악하고 ‘梁貊之谷’의 실제 지점이 蘇子河 연안일 가능성을 상정한 바 있다. 상기 논고를 작성할 때에도 ‘梁貊之谷(梁口)’이 ‘太子河 상류 일대’일 가능성을 고려했었지만, 현지 답사를 충분히 진행하지 못해 현재의 지도상에 표기된 교통로를 바탕으로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상기와 같이 파악했다. 최근 이 일대에 대한 현지답사와 문헌사료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기존 견해를 본문과 같이 수정한다. 다만 ‘梁貊之谷(梁口)’의 위치를 수정한다 하더라도 기존 논고의 전체 논지에는 변함이 없다. 기존 논고의 세부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할 것을 약속하는 바이다.

110) 撫順市博物館, 1991, 「遼寧新賓縣轉水湖山城」, 『北方文物』 1991-1.

까지 거의 동일하다. 이들 산성은 정식 발굴을 거치지 않아 축조시기를 단언하기는 곤란하다. 다만 4세기 전반에 축조된 渾河-蘇子河 연안의 高爾山城(新城),¹¹²⁾ 鐵背山城(南蘇城),¹¹³⁾ 五龍山城¹¹⁴⁾ 등과 대비하면 뚜렷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산정상부에 위치한 철배산성을 제외하면 혼하-소자하 연안의 산성은 기본적으로 包谷式山城이다. 이러한 포곡식 산성은 4세기 이후 지방제도를 정비하면서 군사방어성의 성격과 더불어 거점성의 기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출현한 것으로 이해된다.¹¹⁵⁾ 따라서 혼강 우안의 산정식 산성은 고구려 발흥지에 위치했을 뿐 아니라, 입지조건상 군사방어성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혼하-소자하 연안의 포곡식 산성보다 이른 4세기 이전에 축조되었다고 추정된다. 그리고 3세기 초 山上王代에 환도성을 임시 왕성으로 삼아 비상 국가체제를 구축한 것으로 보아 이 무렵에 축조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본다면 혼강 右岸의 山頂式山城은 3세기 전반에 축조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2세기 말 이래 공손씨 정권과 약 40여년간 대립했다는 점에서 애초에는 公孫氏政權의 침공에 대비해 축조했을 것으로 추정된다.¹¹⁶⁾ 그리고 공손씨에 이어 요동지역을 장악한 曹魏가 244년에 대대적으로 침공하자, 이를 거점으로 삼아 방어하는 전략을 구사했다고 추정된다. 244년 고구려와 조위군이 沸流水 곧 渾江 유역에서 1차전을 벌였고, 고구려가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는 사실은 이를 반영한다. 따라서 고구려는 3세기 이후 비류수 곧 현

111) 撫順市博物館·新賓縣文化局, 1985, 「遼寧省新賓縣黑溝高句麗早期山城」, 『文物』1985-2.

112) 撫順市文物工作隊, 1964, 「遼寧撫順高爾山古城址調查簡報」, 『考古』1964-12; 徐家國·孫力, 1987, 「遼寧撫順高爾山城發掘簡報」, 『遼海文物學刊』1987-2; 三上次男·田村晃一, 1993, 『北關山城』, 中央公論美術出版.

113) 佟達, 1998, 「撫順後金界藩城和薩爾滸城調查」, 『遼海文物學刊』1988-1; 撫順市社會科學院, 1994, 「界藩城」, 『撫順地區清前遺跡考察紀實』, 遼寧人民出版社.

114) 佟達, 1994, 「新賓五龍高句麗山城」, 『遼海文物學刊』1994-2.

115) 林起煥, 1998, 「高句麗 前期山城研究」, 『國史館論叢』82, 67~95쪽; 余昊奎, 1999a, 앞의 책, 61~64쪽.

116) 公孫氏政權의 침공에 대비하여 방어체계를 강화하던 과정은 별고를 통해 상론할 예정이다.

재의 혼강 유역을 비롯해 국경에서 도성에 이르는 중간지대에 군사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군이 도성에 진입하기 이전에 저지하는 새로운 방어전략을 구사했다고 파악된다.

국경지대에까지 성곽을 축조한 4세기 이후와 비교한다면 군사방어체계를 완비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국경과 도성 사이에 인위적인 방어시설을 거의 구축하지 않았던 1~2세기와 비교한다면 커다란 변화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변화는 어떠한 요인을 배경으로 일어났던 것일까? 앞서 2세기에는 豪民 層 이상의 전사층이 군사력의 근간을 이루었고, 각 那部別로 병력을 동원했기 때문에 상시 운영되는 병력규모는 그다지 많지 않았고, 이로 인해 국경에서 도성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 인위적인 방어시설을 구축하기 힘들었다고 파악한 바 있다. 2세기의 병력동원규모가 대략 5천~1만명 정도였다는 사실은 이를 잘 보여준다.

그런데 사료 1에서 보듯이 244년 고구려는 조위와의 전쟁에 종전보다 2~4배 증가한 2만여명의 대규모 병력을 동원했다. 물론 2세기 말 이래 새롭게 豪民으로 성장한 자들을 戰士로 편입하거나, 피정복민을 대거 동원했을 가능성도 상정해볼 수 있다. 그렇지만 2세기 말 이후 새로운 호민층이 성장했다 하더라도 그 수는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며, 당시에는 아직 정복지역에 대한 간접적인 집단지배를 시행하던 상황이었으므로¹¹⁷⁾ 피정복민을 대거 동원할 수도 없는 상태였다. 또한 당시의 완만한 인구증가율을 상기하면 인구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병력동원체제의 변화를 상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계루부 왕실이 각 나부를 매개로 통치력을 관철하던 초기 국가체제는 2세기 말부터 점차 변질되었다. 특히 광범위한 사회변동으로 인해 나부의 자치권은 약화된 반면, 계루부왕권의 강화와 더불어 점차 국가권력의 지배를 직접 받는 公民이 형성되었다. 아울러 국가 차원에서 公民을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는데, 고국천왕대에 시행한 진대법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에 따라 戰士 중심

117) 임기환, 1987, 「고구려 초기의 지방통치체제」, 『경희사학』 14, 22~32쪽.

의 병력동원체계는 점차 公民에 대한 징병으로 전환되었는데, 244년 조위와의 전쟁에 2만 대군을 동원한 것은 바로 이를 반영한다.

다만 정복지역의 경우 아직도 간접적인 집단지배를 시행하던 상황이었고, 고구려 중심부에서도 공민을 징병하는 제도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4세기 이후처럼 5만을 상회하는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기는 힘들었다. 이에 따라 정복지역인 혼하-소자하 등의 국경지대에까지 군사방어체계를 구축할 수도 없었다. 결국 3세기는 병력동원체계나 군사방어체계상 2세기 단계에서 4세기 이후로 전환되는 과도기였던 것이다. 3세기의 전쟁양상이 2세기와 4세기 전쟁의 과도기적 모습을 띠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¹¹⁸⁾

이처럼 고구려는 비록 244~245년 조위와의 전쟁에서 도성이 함락되고, 동천왕은 멀리 북옥저까지 피신하는 등의 국가적 위기를 겪었지만, 전쟁양상만 놓고 본다면 군사방어체계, 방어전술, 병력동원규모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종전보다 더욱 진전되었다고 파악할 수 있다. 특히 국경과 도성의 중간지대에 군사방어체계를 구축했으며, 전사층 위주의 병력동원방식에서 公民에 대한 징병제로 점차 전환했다는 점에서 적군의 침공을 국경지대에서 저지하여 국력 손실을 최소화하는 한편 대규모 정복전쟁을 수행할 토대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고구려는 바로 이를 바탕으로 4세기 초 서진의 붕괴를 틈타 낙랑군과 대방군 등 서북한에 설치되었던 중국군현을 전격적으로 점령할 수 있었다.

118) 상기 서술은 여호규, 1998b, 「국내성기 고구려의 군사방어체계」, 『한국군사사연구』 1 참조.

IV. 맺음말

이상을 통해 고구려 초기의 대중전쟁을 국가형성기와 2~3세기로 대별하여 검토했다. 그 결과 이 시기의 對中戰爭은 기본적으로 독립 국가 사이의 전쟁이었고, 고구려는 이러한 전쟁을 통해 한군현을 축출하고 영역을 확장하면서 국가적 성장을 이룩한 사실을 파악했다.

가령 압록강 중상류의 주민집단은 서기전 82~75년경에 무려 공격을 통해 한의 제1현도군을 소자하 방면으로 축출했다. 압록강 중상류 일대는 본래 한의 영역이 아니었고, 한이 이 지역에 일방적으로 군현을 설치했다는 점에서 현도군 축출 전쟁은 기본적으로 외부세력의 지배를 물리쳐 정치적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전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 공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본거지에 대한 영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전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학자들의 주장처럼 제1현도군 축출 전쟁을 동일한 국가 내부의 갈등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것이다.

고구려는 현도군을 소자하 방면으로 축출한 다음, 한동안 제2현도군의 분리통제를 받다가 1세기 전반에 그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전쟁을 전개했다. 이때 고구려는 양자의 경계지대를 넘어 기습 공격하는 작전을 구사했다. 특히 환인 서북방의 양맥을 정벌한 다음 제2현도군을 공격한 사례가 확인되는데, 수천명의 병력을 동원해 장기간 군사작전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독립 국가 사이의 전쟁으로 보아야 한다. 고구려가 현도군 境內에서 건국했다거나 시종일관 漢에 예속했다는 견해는 결코 성립할 수 없다. 이처럼 고구려는 국가형성기에 현도군과의 전쟁을 통해 정치적 독립을 쟁취하고 본거지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했다.

한편 고구려는 1세기말~2세기초에 제2현도군을 다시 渾河 방면으로 축출하고 소자하 유역까지 장악했다. 이에 후한은 요동평원과 동부 산간지대의 접경지역에 있던 邊塞를 재구축했는데, 이를 넘나드는 형태로 전쟁이 진행됨에 따라 점차 국경선으로 고착되었다. 더욱이 고구려가 서변의 주민집단을 동원하거나 선비와 연합작전을 구사하며 요동평원 곳곳을 공략했기 때문에 후

한도 幽州 관내의 병력을 대거 동원해야 했다. 2세기 對後漢戰도 ‘邊塞’라는 국경선이 존재했고, 양국 모두 대병력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독립 국가 사이의 전쟁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당시 고구려는 병력동원체계의 한계로 인해 상비병의 수가 적었기 때문에 국경-도성 사이에 방어체계를 구축하기 힘들었다.

이러한 한계는 3세기를 거치며 점차 극복되었다. 가령 244~245년 조위와의 전쟁과정을 검토하면 고구려가 국경-도성의 중간지대인 비류수[혼강]나 양맥[태자하 상류] 지역에서 적군을 방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병력규모도 종전에 비해 2~4배나 증가한 2만여명에 이르고 있다. 고구려는 3세기 이후 국경-도성의 중간지대에 본격적으로 군사방어체계를 구축했으며, 또 공민에 대한 징병도 점차 확립해 나갔던 것이다. 그리하여 적군의 침공을 국경지대에서 저지해 국력 손실을 최소화하는 한편 대규모 정복전쟁을 수행할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고구려는 바로 이를 바탕으로 4세기 이후 중국대륙의 분열을 틈타 낙랑군과 대방군을 점령하는 등 정복전쟁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ABSTRACT]

Koguryo dynasty's warfare with China in its early days,
and the Nature of those conflicts

Yeo, Ho-Kyu

In this article, a certain historical perspective currently shared by the Chinese scholars, which views the wars and battles fought between the Koguryo dynasty and other Chinese dynasties as internal conflicts of China, is critically examined. This kind of perspective would undoubtedly be part of their efforts to establish the history of the Koguryo dynasty as a mere part of the history of China, instead of acknowledging it as an independent one and also part of the Korean history. So in order to appropriately analyze the nature of the conflicts that had arisen between Koguryo and the Chinese dynasties, in this article, the factions that led those wars, size of the troops dispatched to the frontlines, and the regions where the battles were mainly fought, are all thoroughly examined. Also, the warfares seem to have changed slightly in nature as time progressed, so in this article the period of ancient state establishment, and the 2nd and 3rd centuries, are separately examined to shed some light on that matter.

As a result, it is confirmed that the battles that were fought between the Koguryo dynasty and China were basically warfares fought between individual and independent states(dynasties). And it is also confirmed that in the process Koguryo succeeded in actually

repelling the Gun-Hyeon units previously established by the Chinese Han dynasty, and paved the way for a huge progress and state prosperity. For example, the war in which Koguryo tried to repel the First Hyeondo-gun unit in B.C. 82~75 was a war to obtain political freedom and to reclaim authority over the region previously held under control of the Hyeondo-gun unit. And also, the attack upon the Second Hyeondo-gun unit that took place in the early half of A.D. 1st century was also a battle(a warfare) between states, as thousands of troops were committed to a long-term military operation which continued along areas that essentially constituted borders.

Around late 1st century and early 2nd century, Koguryo again succeeded in forcing the Second Hyeondo-gun unit to relocate itself to the Hunhe/渾河 river area. As a result, the borderline between those two dynasties were reestablished at the Yodong plain and the Eastern mountains, accordingly. At the time, Koguryo launched a massive assault upon the Yodong region, by not only mobilizing several power groups that had previously been subjugated by Koguryo, but also initiating joint operations with the Xianbei/鮮卑 tribes. In response, the Hou-Han dynasty also had to mobilize a huge amount of military reserves out of the Yuju/幽州 area. Koguryo's war with the Hou-Han dynasty which took place during the 2nd century also showed a clear borderline serving as a frontline and commitments involving the mobilization of massive troops, which definitely suggests the nature of a state-to-state warfare.

After the 3rd century, the defense system and troop mobilization of the Koguryo dynasty changed considerably. Examination of the war between Koguryo and the Cao-Wei/曹魏 dynasty that took place

in 244~245, reveals that the Koguryo government established new defense facilities between the capital city and the borders, and also devised a new system to draft civilians(‘公民’) into military service. As a result, Koguryo finally equipped itself with the capability of fighting the enemy troops along the border while also launching full scale foreign campaigns, at the same time.

keyword

Koguryo dynasty, Chinese dynasty, warfare, Hyeondo-gun unit, borderline

고구려와 모용 '연'의 전쟁과 그 의미

공 석 구 | 한밭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I. 서언

압록강, 혼강 유역을 배경으로 하여 국가를 성립한 고구려가 5~6세기에 이르러 동북아의 강국으로서 등장하게 된 배경을 알아보면, 고구려의 내적인 발전과 당시 국제정치 상황이라는 요인으로 귀결된다. 고구려의 발전과정에서 모용씨라는 정치세력 집단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모용씨에 관해서는 중요한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¹⁾ 고구려와 모용씨의 관계사는 이미 선행의 연구업적이 상당수 축적되어 있다.²⁾ 하지만 모용씨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 일례를 들자면 모용씨가 남겨놓은 물질문화에 대

1) 池培善, 1997, 『中世東北亞史研究-慕容王國史』, 일조각.

2)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연구업적이 참조된다.

孔錫龜, 1998, 『高句麗領域擴張史研究』, 서경문화사; 田中俊明, 1997, 「高句麗 前期・中期の遼東進出路」, 『朝鮮社會の史的展開と東アジア』, 山川出版社; 金英주, 1997, 「高句麗 故國原王代の 對前燕關係」, 『北岳史論』 4, 국민대학교 국사학과; 李基東, 1998, 「高句麗史발전의 劃期로서의 4世紀」, 『高句麗・渤海研究』 I, 미술사강좌 10; 여호규, 2000, 「4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질서와 고구려대외정책의 변화」, 『역사와 현실』 36; 姜仙, 2001, 「고구려와 전연(前燕)의 관계에 대한 고찰」, 『고구려연구』 11, 고구려연구회; 공석구, 2003, 「고구려와 모용 '연'의 갈등 그리고 교류」, 『강좌 한국고대사』 제4권, (재)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공석구, 2005, 「고구려의 요동지방 진출

한 해명이 충분치 못하다. 뿐만 아니라 문헌적인 측면에서도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다. 나아가 고구려와 모용씨 간의 관계를 문헌과 고고학적인 측면에서 연결시켜 해석하고자 하는 시도도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 생각된다.

필자는 고구려와 모용씨 간의 관계사라는 측면에서 양국 간에 벌어진 전쟁을 고찰하려고 한다. 고구려는 모용씨와의 갈등을 통하여 성장해 나갔고, 국가적 발전을 이룩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용씨가 건국한 전연, 후연(이를 모용 ‘연’이라고 지칭하였음)과 고구려간의 전쟁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근래 중국에서는 고구려사를 중국사로 편입하고자하는 견해가 일반화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고구려사의 귀속문제와도 관련하여 진행되는 논쟁을 염두에 두면서 논고를 진행하고자 한다.

II. 고구려와 모용 ‘연’의 전쟁

고구려왕국의 성립과 발전은 당시 국제정세의 변동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중원의 패자였던晉의 쇠퇴와 몰락은 주변의 정치세력들이 발흥하는 계기가 되었다. 요서지방에는 북방의 유목민 출신인 선비족 모용씨가 세력을 잡게 되었다. 고구려와 모용씨는 진이 몰락해가는 과정 속에서 세력을 급속하게 확장시켜 나갔다. 이것은 영역확장 정책으로 구체화되었으며, 결국 양 세력의 대립과 충돌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다. 다음 <표 1>은 고구려와 모용씨 사이의 충돌기사를 주로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서 간추린 것이다.

<표 1>에서 나타나듯이 고구려와 모용씨 간에는 여러 차례의 충돌기록이 보인다. 1~9번은 고구려와 전연 간의 충돌이고, 10~16번은 고구려와 후연 간의 충돌이다. 4세기를 전후하여 고구려는 모용씨와 치열하게 대립, 투쟁하였

정책과 모용씨』, 『군사』 54, 국방군사연구소; 지배선, 2006, 「고구려와 선비의 전쟁」, 『고구려연구』 24, 고구려연구회.

〈표 1〉 고구려와 모용씨의 충돌기사

번호	연대	내 용	사 료
1	293	모용외가 침입. 봉상왕 신성피난. 북부소형 고노자가 물리침	『삼국사기』 봉상왕 2년
2	296	모용외가 고국원까지 침입. 서천왕묘 도굴실패. 고노자를 신성태수로 임명	『삼국사기』 봉상왕 5년
3	302	왕이 군사 3만 명으로 현도군 침략. 8천 명을 붙잡아 평양으로 옮김	『삼국사기』 미천왕 3년
4	311	장수를 보내 요동 서안평 공격 함락시킴	『삼국사기』 미천왕 12년
5	315	현도성을 공격하여 깨뜨렸는데, 죽이고 사로잡은 자가 매우 많음	『삼국사기』 미천왕 16년
6	320	군사를 보내 요동을 침략하였는데, 모용인이 막아 싸워서 격파하였음	『삼국사기』 미천왕 21년
7	339	연왕 모용황이 쳐들어 와서 그 군사들이 신성에까지 미치게 되자, 왕이 맹약을 요구하니 돌아감	『삼국사기』 고국원왕 9년
8	342	전연이 고구려를 침략. 환도성을 함락하고 왕모와 왕비 포로 5만을 데리고 돌아감	『삼국사기』 고국원왕 12년
9	345	연왕이 모용각을 보내 남소성을 함락시키고 수자리(戍)를 설치하고 돌아감	『삼국사기』 고국원왕 15년
10	385	군사 4만으로 요동습격. 요동과 현도를 함락하고 포로 1만 명을 데리고 돌아옴	『삼국사기』 고국양왕 2년
11	399	연왕 모용성이 침략하여 신성과 남소성을 함락시키고 700여 리의 땅을 넓혀, 5천여 호를 옮겨놓고 돌아감	『삼국사기』 광개토왕 9년
12	401	왕이 군사를 보내 속군성을 공격하니, 연나라 평주자사 모용귀가 성을 버리고 달아남	『삼국사기』 광개토왕 11년
13	403	군대를 내어 燕을 침공	『삼국사기』 광개토왕 13년
14	404	후연왕 모용희가 요동성을 침공. 후연이 마침내 이기지 못하고 돌아감	『삼국사기』 광개토왕 14년
15	405	후연왕 모용희가 거란을 습격하다가 실패하고 고구려를 공격. 목저성을 공격했으나 실패하고 돌아감	『삼국사기』 광개토왕 15년
16	407	보병과 기병 5만을 파견하여 …… 베고 죽이어 싹 쓸었다. 돌아오는 길에 사구성, 누성 …… 등을 쳐부숨	『광개토대왕릉비』 ³⁾ 영락 17년

3) 이 사료는 논란중이다. 학자에 따라서는 고구려와 후연 또는 고구려와 백제 간의 전

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공방은 요동지방을 배경으로 해서 전개되었다.⁴⁾ 양자 간의 치열한 갈등 속에서, 결국 고구려는 요동지방을 확보하게 되었고, 이후 머지않아 요서지방의 모용씨도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 전쟁기록 하나하나를 고구려사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본고에서는 고구려와 전연, 고구려와 후연 간의 전쟁 가운데서 대표할 만한 사건을 각기 한 가지만 검토하고자 한다. 검토할 내용은 <표 1>의 8번과 10번이다.

1_ 342년, 전연과의 전쟁

1) 배경

고구려와 전연이 전쟁을 일으키게 된 배경은 양국 간의 세력 확장정책이 충돌한 사건이었다. 먼저 전연은 동쪽방향에서 다가오는 고구려에 대하여 정치적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모용씨가 전연을 건국하기 이전부터 고구려와 모용씨는 빈번히 충돌하였다(표 1 참조).⁵⁾ 모용씨는 337년 모용황이 燕王을 칭하면서 본격적으로 그 세력을 사방으로 확장해 나갔다. 이러한 상황은 주변에 있던 여러 세력집단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전연의 서쪽에서 세력을 잡고 있던 후조의 반발이 극심하였다. 後趙는 흉노족의 일파인 갈족(羯族)출신의 石勒이 세운 국가이다. 후조는 338년 전연의 도성인 극성(棘城)을 포위하는 등 공세를 강화하였으나, 공격은 실패로 돌아갔다. 후조는 재차 전연을 도모하였는데, 이번에는 양면작전을 구상하였다. 전연 동쪽의 고구려를 끌어 들였던 것이다. 즉 해안가에 양곡 300만 섬을 비축해 하는 한편, 고구려에 배 300척과 양곡 30만 섬을 실어 보내도록 하였다. 후조의 이와 같은 시도에 대해서 고구려가 어떻게 반응하고 협조하였는지 그 내용을 알 수는 없다.

쟁으로 보는 견해가 제기되어 있지만, 필자는 이 사료를 고구려와 후연 간의 전쟁으로 이해하고 있다.

4) 공석구, 2005, 앞의 논문.

5) 池培善, 1997, 앞의 책 ; 공석구, 2005, 앞의 논문 참조.

이번에도 후조의 공격은 실패로 돌아갔다. 하지만 후조와 고구려가 연합을 시도한 사건은 전연을 크게 자극하였던 것 같다. 『삼국사기』를 보면,

燕王 모용황이 쳐들어와 그 군대가 新城에 들어 닥쳤다. 이에 (고국원)왕이 和盟을 청하니 곧 돌아갔다. (고구려본기 6, 故國原王 9년(339))

라는 기록에서 전연의 분노를 짐작할 수 있다. 이 기사는 전연의 보복이라고 생각된다. 즉 고구려와 후조가 양면작전을 시도했던 그 이듬해(339)에 전연왕 모용황이 직접 新城에까지 공격해 왔던 것이다. 그렇다면 고구려가 후조의 협공작전에 대하여 어느 정도 협력하였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고구려는 전연의 침입에 위협을 느꼈고, 곧 수습에 나섰다. 이 사건 이후 고국원왕은 세자를 전연의 모용황에게 입조하게 하는 등 저자세외교를 펼쳤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고구려는 국경지방에서 계속 전연 군대와 충돌하고 있었다. 341년 요동지방의 평곽에 주둔한 모용각이 여러 차례 고구려 군을 격파했다는 『資治通鑑』 권96, 晉成帝 咸康 7년 기록에서 잘 알 수 있다. 이처럼 고구려가 평곽 지역을 누차 공략한 것은 이 지역에 다량으로 매장된 鐵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⁶⁾ 전연의 강력한 힘을 느낀 고구려는 유화책을 사용하는 한편 요동지방으로의 진출을 계속하여 시도하였다. 전연은 고구려의 집요한 요동지방 진출의도를 커다란 위협으로 인식하였다.

모용황은 341년 東晉으로부터 요서 및 요동지방에 대한 지배권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동진의 성립이후 양자강이북 지역은 권력의 진공상태에서 혼란이 지속되고 있었다. 342년 요서지방의 중심지였던 용성(現 朝陽市 일대)으로 천도한 모용황은 중원으로의 진출을 생각하고 있었다. 이제 전연을 위협하는 세력은 동쪽의 고구려와 서쪽에 인접한 宇文氏였다. 이때 段氏와 宇文氏⁷⁾에서 오랜 기간 체류한 바 있던 모용한이 돌아와 모용황에게 자신이 체

6) 李龍範, 1959, 「高句麗의 遼西進出 企圖와 突厥」, 『史學研究』 1-4, 50~53쪽.

7) 段氏와 宇文氏는 요서지방의 서쪽 및 북방지역에서 세력을 떨치고 있던 선비족의 일파이다.

득한 정보 즉 고구려의 강성함과 우문부와 고구려의 긴밀한 연결 관계를 보고 하였다. 모용한은 전연이 중원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우문씨와 고구려를 제거해야 하는데, 우선 고구려를 공격한 후에 우문씨를 제거하자는 의견이었다. 고구려를 먼저 제압함으로써 후방인 동쪽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을 제거 하자는 것이었다.⁸⁾ 이와 같은 모용한의 생각은 중원진출을 노리는 모용황의 의중과 일치하였고, 결국 그 건의는 채택되었다.

2) 경과

전연은 고구려를 공격하기로 결정하였다. 전연의 고구려 공격에 대한 상황은 『자치통감』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었다.

이제 고구려를 치려고 하였다. 그런데 고구려로 가는 길은 두 군데가 있었다. 그 북쪽 길은 평탄하고 넓는데 비해서, 남쪽 길은 험하고 좁았다. 그러니 사람들은 북쪽 길로 (공격해)가자고 했다. 이때 (모용)한이 말했다. “고구려는 평소라면 (우리가) 북쪽 길로 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북쪽 길을 중시하고 남쪽 길을 경시할 것입니다. 왕께서는 마땅히 정예군대를 이끌고 남쪽 길로 가서 그들을 공격하면, 그들이 생각지도 못한 계책이라 환도는 빼앗는 다고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군사를 북쪽 길로 가게 하십시오. 그러면 설령 차질이 있다고 해도 그들의 중심부는 이미 궤멸되었으니 사지를 움직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모용)황은 이 말을 따르기로 했다.

11월에 (모용)황은 스스로 강한 병사 4만 명을 이끌고 남쪽 길을 향해 출발하였다. 모용한과 모용패를 선봉으로 삼았다. 별도로 장사(長史)인 왕우에게 병사 일만 오천 명을 이끌고 북쪽 길로 가서 고구려를 치게 하였다. 고구려왕 쇠(고국원왕)는 동생인 (고)무를 파견하여 정예병사 오만 명을 이끌고 北道를 막도록 하였다. (왕)스스로는 노약한 병사들을 이끌고 남쪽 길에서 (전연 군에) 대비하였다.

모용패 등이 먼저 도착하여, (고국원왕인) 쇠와 마주쳐 싸움을 하니, (모용)황이 大兵을 이끌고 뒤를 받쳐 주었다. 좌상시(左常侍)인 선우량

8) 『자치통감』 권97, 진기19, 성제 함강 8년(342).

이 말하기를 “신은 포로로 잡힌 몸으로서, 왕의 국사(國士)라는 은혜를 입게 되었으니 보답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제가 죽는 날이 될 것입니다” 하며 홀로 여러 명의 기병과 함께 고구려진지를 침범해 들어가니, 가는 곳마다 무찌르고 함락시켰다. 고구려진지는 동요하였고, 많은 (본대의) 군사는 이를 계기로 기회로 삼으니, 고구려 군사는 크게 패배하였다. 좌장사(左長史)인 한수는 고구려 장수인 아불화도가를 목 베니 모든 군사들은 이긴 기세를 타고서 추격하였다. 마침내 환도에 입성하였다.

쇠(釧)는 홀로 말을 타고 도망갔다. 경거장군(輕車將軍)인 모여니가 추격하여 (왕의) 어머니인 주씨와 처(왕비)를 붙잡아 돌아왔다.

북쪽 길로 간 왕우 등은 (고구려 군과) 만나 싸웠으나 모두가 패배하여 죽었다. 이 때문에 (모용)황은 끝까지 추격하지 못했다. 이에 사자를 보내어 쇠를 불렀으나 쇠는 항복하지 않았다. 모용황이 군대를 철수하려고 하는데 한수가 말하였다. “고구려 땅에는 수자리(戍)를 설치해야만 합니다. 지금은 왕이 도망한데다 백성들은 흩어져 산과 골짜기에 숨어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많은 군대가 떠나버리고 나면 (그들은) 반드시 비둘기처럼 다시 모여들어 불타버리고 남은 것을 거둘 것이니, 이는 오히려 걱정거리가 될 것입니다. 청컨대 그 아비의 시체를 싣고 그 어머니를 묶어서 돌아간다면, 그가 (스스로) 몸을 묶어서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런 다음에 그들을 돌려보내며 은혜와 신의를 가지고 위무하는 것이 정책 중에서도 상책입니다” 하니 (모용)황이 이 말을 따랐다. 쇠의 아버지인 을불리(美川王)의 묘를 파서 그 시체를 싣고, 창고에 있던 여러 대에 걸쳐 모아둔 보물을 빼앗고, 남녀 오만여명을 포로로 잡고, 그들의 궁실을 불 지르고, 환도성을 파괴하고 돌아왔다. (『자치통감』 권 97, 진기19, 성제 함강 8년(342))

이와 같은 『자치통감』 기록을 통해서 위 사건을 대략 이해할 수 있다. 수도인 용성(현재의 朝陽市)에서 고구려를 정벌하기 위하여 출발한 전연 군의 행로는, 동진하여 義州縣에 이르러 북상한 다음 阜新을 거쳐 다시 동쪽으로 나가 新民에서 요하를 건넌 후 瀋陽에 도착하는 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⁹⁾

9) 鄭守一, 2002, 「高句麗와 西域關係試考」, 『高句麗研究』 14, 高句麗研究會,

이 길은 645년 唐의 이세적이 고구려를 정벌할 때 柳城(영주 = 용성)에서 회원진을 지나 북진하다가 통정진(현재 신민현)에서 요하를 건너 현도(무순 또는 심양)에 이르렀다고 한 길과 동일한 교통로이다.

이 전쟁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고구려를 공격해온 전연왕 모용황은 공격군을 둘로 나누었다. 모용환의 건의를 따라서, 주력부대(4만 명)는 南道를 통하여 진격하였고, 王寓가 거느린 일부 병력(1만 5천명)은 北道를 통하여 공격하였다. 전쟁은 전연이 예상했던 것처럼 진행되었다. 한편 고구려는 전연의 공격사실을 인지하고서 주력부대(5만 명)를 북도에 배치하였고, 남도에는 고국원왕 자신이 일부의 약한 병사를 일부 이끌고 대비했다.

모용황은 모용환과 모용패를 선봉으로 삼아 먼저 고구려를 공격하도록 하였다. 고국원왕이 거느린 일부의 약졸들로는 전연의 주력군을 막아낼 수가 없었다. 전연 군은 고구려 군을 격파하였다. 전쟁에서 패한 고국원왕은 홀로 도망했다. 전연 군은 패주하는 고구려 군을 계속 추격하여, 마침내 수도인 국내성을 점령하였다. 한편으로 고국원왕의 동생 武가 거느린 고구려의 주력군(5만 명)은 왕우가 이끄는 1만 5천명의 전연 군을 섬멸하였다.

3) 결과

이 전투는 전연의 치밀하게 계획된 작전에 의한 승리였다. 반면에 고구려는 전술, 전략적인 측면에서 실패하였다. 5만 5천명에 달하는 전연 군의 병력에 비해서 고구려 군의 병력도 결코 뒤지는 것은 아니었다. 北路에서 벌어졌던 전연군 1만 5천 명과 고구려군 5만 명의 전투는 고구려 군의 승리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하지만 4만 명에 달하는 전연의 주력군에 대항한 소수 고구려 군의 전투결과와는 역시 고구려 군의 참패였다. 고구려는 전연의 공격에 대한 대응전략을 잘못 수립한 것이다. 전연 군의 침략소식을 알고서 자신이 주력군을 이끌고 대항하지 않은 故國原王의 소극적인 태도도 이해하기 어렵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의 뒤처리 장면을 보면 전연 군의 승리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고국원왕이 도망하여 아직 항복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또한 북도로 들어온 전연 군을 궤멸시킨 고구려 주력군이 존재하고 있어 언제든지 국내성으로 진입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다. 한편으로 주력군을 총동원한 전연은 군대를 고구려에 장기간 지체시킬 여유가 없었다. 서쪽에 인접한 우문씨가 고구려 공격사실을 알고 어떻게 대응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모용황은 군대를 돌이키려 하였다. 하지만 고구려가 언제 다시 공격해 올지 알 수 없었다. 모용황은 韓壽라는 부하의 대책에 따라서 철수작전을 진행하였다. 전연은 고국원왕의 어머니 주씨와 왕비를 사로잡았고, 부왕인 미천왕의 시체를 도굴하고, 남녀 5만 명의 포로를 데리고 철수했다. 거기다가 여러 대에 걸쳐 수집된 고구려의 보물을 약탈하였고, 궁실을 불태우고, 도성인 환도성을 허물고 돌아갔던 것이다.

전연 군이 철수한 이후, 고구려와 전연은 다시 종전의 국경선을 유지하였다. 그것은 철수한 지 3년 후인 345년에 “모용황이 모용각을 시켜 남소성을 빼앗고 그곳에 주둔병을 두고 돌아갔다”라는 기록을 통하여 짐작할 수 있다. 전연은 고구려로 들어가는 요충지인 남소성을 공격한 것이다.

한편 고구려는 전연과의 전쟁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고구려는 전연으로부터 받은 피해의 복구에 국력을 집중하였다. 우선 해결하여야 할 문제는 국가의 재건과 포로로 잡혀간 부모에 대한 송환이었다. 고구려가 선택한 방법은 전연에 대하여 화친정책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343년 王弟를 전연에 入朝시켜 선왕(美川王)의 유해를 돌려받았고,¹⁰⁾ 349년에는 고구려로 도망해 온 바 있던 前 東夷護軍 宋皇을 돌려보냈다.¹¹⁾ 355년에 이르러 급기야는 ‘征東大將軍 營州刺史 樂浪公’이라는 전연의 봉작을 받기까지 이르게 되었다.¹²⁾ 이제 전연은 고구려에 대한 우위를 확보하게 되었고¹³⁾ 봉작을 계기로 하여 그 동안 볼모

10) 『삼국사기』 권18, 고구려본기 6, 故國原王 13년(343).

11) 『삼국사기』, 故國原王 19년(349).

12) 『삼국사기』, 故國原王 25년(355).

13) 하지만 전연의 입장에서 고구려의 존재는 여전히 믿기 어려운 존재로서 배후의 위협

로 잡아두었던 王母를 송환해 주었다.

4) 342년 전쟁에 대한 논란

이 사건을 상세하게 기록한 사료는『자치통감』이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학계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사건의 내용에 대한 이해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 사건에 대한『자치통감』의 기록과는 일부 상이한 내용을 전하고 있는 다른 사서가 존재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 관련 사료의 내용을 알아보자.

A-1. 함강 7년(341) (모용)황은 용성으로 천도하였다. 강한 병사 4만을 거느리고 남협(南陜)으로 부터 들어가 우문씨와 고구려를 정벌하였다. (모용)한과 아들인 (모용)수를 선봉으로 삼았다. 장사인 왕우를 보내 병사 일만 오천 명을 북치(北置)로부터 나아가게 하였다. 고구려왕 쇄는 (모용)황의 군대가 북로로부터 들어올 것이라 (예상)하고는 이내 동생인 武를 보내어 정예병사 오만 명을 거느리고 북치를 막도록 하였다. (왕) 자신은 약한 병사들을 거느리고 남협을 방비하였다. (모용)한은 쇄(고국원왕)와 木底에서 전투를 벌여 크게 패배시켰다. 승리한 기세를 몰아서 마침내 丸都에 들어갔다. (『晉書』 권109, 재기9, 모용항)

A-2. 건국4년(341) 모용원진(황)이 무리를 이끌고 고구려를 정벌하였다. 남협으로 부터 들어가 木底에서 전투를 벌였다. 쇄(고국원왕)의 군대를 크게 격파하였다. 승리한 기세를 타고서 마침내 환도에 들어갔다. (『魏書』 권100, 열전 88, 고구려)

위의 사료를 보면『자치통감』기록과는 상이한 내용이 나타난다. 먼저『晉書』나『魏書』는 이 전쟁을 341년의 사건으로서 기록하였다. 하지만 당시의 모용씨에 대한 전반적인 전후사정을 검토해보면『자치통감』기록(342)이 옳다고 생각된다. 또한『진서』를 보면 ‘南陜’, ‘北置’라는 용어가 나타난다.『위서』

으로 인식하였을 것이다. 이는 357년 前燕이慕容垂(후일 後燕王)를 요동의襄平에 파견하였다는 기록(『十六國春秋前燕錄』, “以吳王垂爲東夷校尉 平州刺史鎮遼東”)에서 나타나는데, 이러한 조치가 고구려를 대비케 한 것임을 짐작케 한다.

에도 ‘南陝’이라는 용어가 나타난다. 위의 『자치통감』에 ‘南道’와 ‘北道’라는 용어와는 다른 기록이다. 또한 『삼국사기』 기록에는 고국원왕이 숨어 들어간 곳으로서 斷熊谷이라는 지명이 나타난다. 『자치통감』에는 보이지 않는 기록이다. 이 사건에 대한 『삼국사기』 기록은 『자치통감』 기록을 전재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적어도 斷熊谷이라는 지명은 『삼국사기』에 나타나는 독자적인 기록으로서 국내 사료에 의한 전승이라고 생각된다. 『삼국사기』가 『자치통감』 기록을 대부분 그대로 인용한 것은 의미를 부여해 볼 수도 있다. 그것은 이 전쟁을 기록한 국내의 옛 기록에 나타난 내용과 『자치통감』 기록이 별 차이가 없어서 그랬을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전쟁에서 단지 빠진 부분(단웅곡)을 국내의 고유사료에서 보완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전연의 모용황이 이끄는 주력군과 고국원왕이 마주쳐 전투를 벌인 곳으로서 木底라는 지명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 시기 고구려사에서 자주 나타나는 木底城과 동일한 지명이다. 다행이도 목저라는 단서를 통해서 양국 간의 전쟁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어쨌든 이 사건을 기록한 몇 가지 사료에 나타난 상이점은 이 전쟁을 이해하는데 각기 다른 인식의 차이를 가져왔다. 따라서 사료 상의 차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1) 남도와 북도의 용어에 대한 해석문제

『資治通鑑』은 전연 군이 고구려로 공격해 가는데 2개의 길이 있다고 하고는, 이를 ‘南道’와 ‘北道’라고 표현하였다. 그리고 남도와 북도를 설명하는 말 중에 ‘北道平闊’, ‘南道險陝’이라고 하였다. 즉 남·북도에 대한 지형을 설명한 것으로서 ‘북도는 넓고도 평탄한 길’이고, ‘남도는 험하고 좁은 길’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반면에 『진서』에는 침공로와 관련하여 ‘南陝’, ‘北置’, ‘北路’라는 용어가 보인다. 『위서』에도 ‘南陝’이라는 용어가 나타난다. 이것은 사료들 간에 이 사건을 이해하는데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진서』나 『위서』는 전연 군이 공격하는 과정에서 남협, 북치라는 용어를 소개하였는데, 후일 『자치통감』에서는 이 사건을 기술하면서 남도와 북도라는 용어로서 대치시켰던 것이다.

사료의 편찬순서를 감안한다면 남협, 북치라는 용어가 보다 오래된 기록이다. 그리고 『진서』에 보이는 ‘北路’라는 용어에서 상대적 개념인 ‘南路’가 존재함을 알겠다. 이를 정리해보면 남협은 남도 상에 위치하고, 북치는 북도 상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료 상의 차이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학자 간에 해석의 차이가 있었다. 호삼성은 『자치통감』의 주석에서 “北道는 北置로부터 나아간다. 南道는 南陝으로부터 木底城으로 들어 간다”,¹⁴⁾ “남소성은 南陝의 동쪽에 위치한다”¹⁵⁾라고 해석하였다. 호삼성은 『진서』나 『위서』 기록을 감안하여 주석을 달았는데, ‘남협’과 ‘북치’를 지명으로서 인식한 것이다. 이와 같은 해석을 계승한 어느 연구자는 남협을 길림성 신빈현에 소재한 五龍山城에다가, 북치를 길림성 청원현에 소재한 西山城에다가 구체적으로 비정하였다.¹⁶⁾ 또 다른 연구자는 남협을 得勝堡山城에 비정하기도 했다.¹⁷⁾

하지만 이와 같은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 견해도 있다. 日人학자인 箭內互,¹⁸⁾ 田中俊明¹⁹⁾은 ‘남협’과 ‘북치’는 특별한 지명이 아니라 남도와 북도를 대체하는 용어로서 해석하였다. 사실 위의 공격내용을 정리해보면, 10월 공격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한 전연 군은 다음 달인 11월에 계획대로 고구려를 공격했다. 남로로 진격한 주력군은 남협으로 부터 들어갔다고 한다. 그렇다면 남협은 남로의 입구쯤에 위치해 있다고 하겠다. 또한 북쪽 길로 진격한 왕우가 이끄는 1만 5천군은 북치로부터 나아갔다고 한다. 그렇다면 북치도 역시 북쪽 길로 들어가는 입구쯤에 위치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공격사실을 인지한 고구려가 전연 군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를 파견한 곳이 남협과 북치였다. 전연 군의 공격기점에 해당하는 남협과 북치가 어떻게 하여 고구려 군의 방어기점이 될 수가 있을까?

14) 『자치통감』 권97, 진기19, 성제 함강 8년(342) 10월의 호삼성註.

15) 『자치통감』 권97, 목제 영화원년(345) 10월의 호삼성註.

16) 孫進己·馮永謙, 1989a, 『東北歷史地理』 권1, 黑龍江人民出版社, 98~99쪽.

17) 王綿厚, 2002, 『高句麗古城研究』, 文物出版社, 218쪽.

18) 箭內互, 1913, 『滿洲歷史地理』 권1, 南滿洲鐵道株式會社, 351쪽.

19) 田中俊明, 1997, 앞의 논문, 44쪽.

그렇다면 북치와 남협은 전연 군의 공격 기점이자 고구려 군의 방어기점이 된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이런 경우가 가능할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연 군의 공격내용을 검토해보면 남도와 남협, 북도와 북치는 동일한 대상을 달리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해가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남협과 북치는 남도와 북도를 대체하는 일반적인 용어로서 해석하여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필자는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남도와 북도 상에 소재한 특수한 지형(남협)이나 어떤 장소(북치)에 대한 설명이라고 해석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진서』의 ‘南陝’과 ‘北置’, 『위서』의 ‘南陝’의 의미를 문자의 뜻 그대로 이해한다. ‘남협’의 협(陝)은 골짜기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남쪽의 골짜기, 즉 고구려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어느 곳의 지형을 설명한 것이다. 그렇다면 전연 군은 남쪽의 골짜기로부터 들어가 목저에서 전투를 벌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치’의 치(置)는 몇 가지 사전적 의미가 있다. 즉 역참을 의미하는 ‘宿驛’의 의미와 직진한다는 ‘直’의 의미이다. 일찍이 箭內互는 이를 ‘宿驛’ 즉 역참의 의미로서 이해하였다.²⁰⁾ 여호규는 이를 앞으로 곧장 나아간다는 ‘直’의 의미로서 해석하였다.²¹⁾ 필자는 이 두 가지의 사전적 의미가 모두 해당된다고 생각된다. 먼저 ‘宿驛’ 즉 역참의 의미로서 이해한다.²²⁾ 즉 북쪽 길에 소재한 역참 즉 모용씨가 나름대로 인지하고 있던 이 지역의 역참을 설명한 것이다. 그렇다면 왕우의 군대는 북쪽에 있는 역참을 따라서 진격했던 것이다. 이 역참은 오래 전부터 알려진 것이고, 역참을 연결해주는 교통로가 존재해 있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또한 ‘直’의 의미인 “직진해서 곧장 나아간다”라는 의미로서 이해한다. 북

20) 箭內互, 1913, 앞의 책, 347~357쪽.

21) 여호규, 1995, 「3세기 후반~4세기 전반 고구려의 교통로와 지방통치조직」, 『한국사연구』 91, 12쪽.

22) 중국에서는 漢代 이래의 置 유적이 종종 발견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근래 돈황에서는 懸泉置라는 前漢 부터 後漢대에 걸쳐 사용된 역참유적이 발굴되었는데, 거기서 3만 2천여 점의 漢簡이 발견되어 화제가 된 바 있다.

치는 전연 군이 남북으로 갈라지는 상황 속에서 북쪽 길의 형편을 설명한 것이다. 즉 북쪽 길은 행군로를 바꾸지 않고 오던 길 그대로 계속 직진하여 나아간다는 의미라 하겠다. 그렇다면 남도와 북도는 전연의 입장에서 바라본 교통로라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진서』에 기록된 ‘南陝’과 ‘北置’는 전연이 고구려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고구려지역 내의 특수한 지형을 설명한 것이거나 특정한 어느 길의 상황을 설명한 일반적인 용어로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2) 남도와 북도의 위치비정 문제

북도와 남도는 어떤 길이었을까? 이 길은 모용씨가 전쟁 전부터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길이요, 또한 고구려와 요동지방을 연결하는 교통로라고 하겠다. 이 길은 이미 오래 전부터 알려진 길이었으며, 전연과 고구려를 연결하는 일반적인 길이었고, 또한 이 길을 따라서 수만 명의 병력이 이동하였던 교통로이기도 하다. 그런데 전연은 작전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고구려가 북도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할 것이라고 진단하고는 남도를 따라서 진격하였다. 고구려 또한 전연이 북도를 통해서 공격해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주력군을 배치하였다. 그렇다면 북도는 요동지방과 고구려를 연결하는 대표적인 교통로였음을 알 수 있겠다.

남도와 북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구려와 전연(요동지방) 사이를 연결해주는 고대 교통로를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전쟁 이전에 있었던 고구려와 요동 간의 접촉에 대한 관련기록 중 필요한 사료를 인용해보자.

- B-① 105년, 봄에 고구려가 요동군 6개현 공략, 가을에 요동태수가 고구려 군 격파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태조왕 53년)
 ② 111년, 고구려가 현도공략 (『자치통감』, 安帝 永初 5년)
 ③ 118년, 고구려가 현도군의 화려성 공략 (『후한서』, 동이열전, 고구려)
 ④ 121년, 봄에 고구려가 요동과 현도를 공격하여 성곽을 불태우다.

4월에는 고구려가 요대현을 공격하니 요동태수 채풍이 신창(현)에 나와서 전투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태조왕 69년)

- ⑤ 121년, 가을 고구려가 현도성을 포위하고 공격하니 부여왕이 군대를 파견하여 도와줌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태조왕 69년)
- ⑥ 122년, 고구려왕(차대왕)이 현도에 와서 항복 (『후한서』,동이열전, 고구려)
- ⑦ 146년, 고구려가 요동군 서안평현을 습격하여 대방(현)령 살해하고 낙랑군태수의 처자를 사로잡음 (『삼국사기』, 태조왕 94년)
- ⑧ 168년, 현도군 태수가 공격해오니 (신대)왕이 항복하고 현도에 소속되기를 요청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신대왕 4년)
- ⑨ 197년, 이이모가 새로이 국가를 세우니, 비류수에 있던 발기가 요동의 공손씨에게로 갔다. 그 후 고구려가 현도를 공격하니 현도군과 요동군이 합세하여 쳐부렸다. (『삼국지』, 동이열전, 고구려)
- ⑩ 242년, 고구려가 서안평을 기습 공격 (『삼국지』, 동이열전, 고구려)
- ⑪ 244년, 관구검이 1만 명을 이끌고 현도로부터 공격해 오니 비류수 가에서 싸워 격파. 또 양맥의 골짜기에서도 격파. 하지만 위군에 패한 (동천)왕은 압록원으로 도망. 관구검군이 추격하여 정현(峴)에 이르다. 환도산에 오르고 도읍을 도륙질. (고국원)왕은 죽령을 거쳐 남옥저로 도망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동천왕 20년)
- ⑫ 302년, (미천)왕이 군사 3만 명을 거느리고 현도군을 침략하여 8천 명을 붙잡아 평양으로 옮겼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미천왕 3년). 311년, (미천)왕이 현도성을 공격하여 깨뜨렸는데, 죽이고 사로잡은 자가 매우 많았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미천왕 12년)
- ⑬ 320년, 고구려가 요동지방 침략, (평곽에 주둔하고 있던) 모용인이 격파 (『자치통감』, 元帝 太興 3년)
- ⑭ 336년, 모용황이 평곽에 있던 모용인의 반란군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동수, 곽충이 고구려로 도망 (『자치통감』, 成帝 咸康 2년)
- ⑮ 339년, 전연의 모용황이 신성에까지 쳐들어오자 (고국원)왕이 맹약을 요청하니 철수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고국원왕 9년)

위의 B 사료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고구려와 요동지방 간의 교통로를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위의 사료를 보면 몇 가지의 지명이 나타나는데, 이들 지명은 고구려와 요동 간의 교통로를 추적해 볼 수 있는 단서가 된다. ①의 요동태수는 요동군의 행정적인 책임자인데 그가 근무했던 중심지는 요양시 일대로 비정되고 있다. ④의 요대현, 신창현은 요양 서남쪽의 안산이나 해성부근으로 비정된다.²³⁾ ⑤의 현도성은 현도군의 행정치소에 해당되는 성을 말하는데, 그 중심지는 요녕성 무순시 일대라고 한다.²⁴⁾ 또는 심양 부근이라고도 한다.²⁵⁾ ⑦과 ⑩의 서안평은 압록강하류의 북쪽 연안인 단동시 부근이라고 한다.²⁶⁾ ⑭의 평곽은 요녕성 개주시 남쪽에 해당된다고 한다.²⁷⁾ ⑮의 신성은 무순시에 소재한 고이산성이라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다. 신성은 고구려의 군사전략적 거점이며, 고구려 멸망 이후에 신성주도독부, 677년에는 안동도호부가 이곳에 설치되기도 한 요충지이기도 하다.

이들 지명중에 중요한 것은 요동과 현도이다. 이 지명은 요동군과 현도군을 말하는데 漢代 이래 隋代를 거쳐 모용씨가 요서지방에 세력을 차지한 이후까지도 요동지방의 정치·군사적 요충지였다. 특이한 것은 모용씨가 평곽 지방에 주목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고구려의 수도였던 집안에서 이들 지역으로 통하는 길을 검토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현도군(무순지방)으로 나아가는 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요동군(요양지방)으로 나가는 길이다. 첫째로 현도군으로 나가는 길은 위의 사료 ②·③·④·⑤·⑥·⑧·⑨·⑪·⑫·⑮가 해당된다. 이 길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료는 ⑪이다.

⑪을 좀 더 분석해보자. 8월, 현도 길을 통하여 쳐들어 온 관구검군 1만은

23) 孫進己·馮永謙, 1989b, 『東北歷史地理』 권2, 黑龍江人民出版社, 65~66쪽.

24) 箭內互, 1913, 앞의 책, 110~111쪽 및 116~118쪽; 孫進己·馮永謙, 1989a, 앞의 책, 380쪽 및 1986a, 앞의 책, 380쪽 및 63쪽.

25) 여호규, 1999, 『고구려 성 II』, 국방군사연구소, 178쪽.

26) 箭內互, 1913, 앞의 책, 210쪽; 孫進己·馮永謙, 1989a, 앞의 책, 63쪽.

27) 孫進己·馮永謙, 1989a, 앞의 책, 64~65쪽.

혼강으로 비정되는 비류수 상류에서 고구려 군과 격돌하였으나 패배하였다. 오늘날의 환인지방 부근이 아닐까 생각된다. 승리한 동천왕이 패주해 간 魏軍과 재차 격돌한 곳은 양맥의 골짜기이다. 梁貊이란 지명이 어느 곳인지는 분명치 않다. 양맥에 대해서는 『삼국사기』 유리왕 33년조를 보면 “서쪽으로 양맥을 쳐서 그 나라를 멸하고 이어서 漢의 高句麗縣을 공격하였다”라는 기록에서 양맥은 국내성의 서쪽으로서 한의 고구려현 사이에 위치함을 알 수 있겠다. 다시 말하자면 제2현도군과 고구려를 연결하는 교통로상에 위치한다.²⁸⁾ 여기서 양맥이란 양수 가에 사는 맥족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것은 『위서』 관구검전을 보면 양국 군대가 ‘梁口’에서 大戰을 벌인 것으로 기록하였는데, 여기서 양구는 양수의 입구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동천왕이 이끄는 2만의 고구려 군과 관구검이 이끄는 1만의 위군이 격돌한 ‘양맥지곡’은 맥족이 거주하는 양수유역의 골짜기로 해석할 수 있겠다. 그 위치는 환인의 서쪽, 태자하의 주변지역이라고 생각된다. 이 지역에는 고구려시대의 초기산성인 고검지산성이 있다.

결국 관구검군은 패주 해 간 양맥의 골짜기 부근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두었다. 참패한 고구려 동천왕은 후퇴하여 압록원으로 도망갔다. 환인의 서쪽에서 환인을 지나 추격하던 위군은 정현을 지나 환도산성으로 올라갔다고 한다. 관구검기공비가 발견된 곳이 소판차 부근이므로 관구검군이 판차령을 통해서 환도산성으로 진격한 것으로 보아야 하겠다. 위군이 넘어온 정현은 판차령으로 비정되기 때문이다.²⁹⁾ 이 길은 동천왕이 패주한 길이기도 하다.

이 사료를 바탕으로 하여 당시 관구검군의 침공로를 추정해보면, 관구검군은 무순시에서 비류수 - 峴을 거쳐 환도성을 함락하였다. 이 길은 현도 길로서 소자하를 따라 영릉진을 거쳐 환인부근을 지나 혼하와 소자하를 거슬러 혼강으로 진입한 다음 新開河와 판차령을 거쳐 환도성으로 들어오는 길이라고

28) 여호규, 1995, 앞의 논문, 14쪽.

29) 池内宏, 1951a, 「曹魏の東方經略」, 『滿鮮史研究』 上世第1冊, 吉川弘文館, 258~263쪽.

한다.³⁰⁾ 이 사료를 통하여 당시 수도인 국내성에서 현도군의 행정치소인 현도성(무순시 일대)으로 나가는 길을 복원해보면, 이 길은 집안 - 환인 - 영릉진 - 무순으로 통하는 길이다.

사료 ⑫는 고구려 군 3만 명이 현도 길을 따라서 현도성까지 진출했다고 한다. 고대 전투에서 수만 명의 군대가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길이란 水路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한다. 또한 이 길은 667년 신성으로부터 들어온 당군이 남소성, 목저성, 창암성을 차례로 격파하고 국내성에 있던 남생과 회합하였던 길이기도 하다. 이 길을 방어하기 위하여 길 주변에는 고구려산성이 다수 배치되어 있다. 이 길에 배치된 산성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鐵背山城, 五龍山城, 舊老城 등이 있다. 이를 요약해보면 이 길은 고구려와 요동지방 간의 접촉 과정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 교통로라고 할 수 있겠다.

둘째로, 요동군으로 나가는 길은 위의 사료 ① · ④ · ⑦ · ⑨ · ⑩ · ⑬ · ⑭가 해당된다. 당시 수도인 국내성에서 요동군의 행정치소가 있었던 요동성(요양시 일대)으로 나가는 길은 대체로 알려져 있다. 고구려에서 요동을 연결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길은 집안 - 환인 - 본계 - 요양 길이다. 이 길에는 太子河라는 강이 있는데, 길을 따라 많은 산성이 배치되어 있다. 이 길에 배치된 산성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고검지산성, 태자성, 유관산성, 하보산성, 연주성(백암성) 등이 있다. 이 길에 해당되는 사료를 꼽아본다면 ⑦ · ⑩을 들 수 있겠다.

이 길 이외에도 집안 - 봉성 - 본계 - 요양 길도 있다. 이 길에는 草河와 細河가 있다. 이 길에 해당되는 사료를 꼽아본다면 ⑧ · ⑪을 들 수 있겠다. 이 길을 지키기 위해서 교통로의 주변에는 많은 산성이 배치되어 있다. 이 길에 배치된 산성들 중에 대표적인 것은 무려 15km가 넘는 대형 산성인 봉황산성이 있고 또한 백암성 등이 있다. 또 하나는 집안 - 수암 - 해성 - 요양 길도 있다. 이 길은 봉성, 혹은 장하를 통하여 수암으로 연결하는 교통로이다. 이 길의 주변에는 大洋河와 沙鐵河가 있다 이 교통로의 주변에 배치된 대표적인 산성으

30) 池内宏, 1951a, 위의 책, 258~263쪽 ; 여호규, 1995, 앞의 논문, 12~15쪽.

로는 장하의 성산산성, 수암의 낭낭성산성, 해성의 영성자산성(안시성)을 들 수 있다. 장하의 성산산성에서 벽류하를 따라 개현의 건안성을 지나 평곽으로 연결하는 길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 교통로의 주변에는 碧流河와 大清河가 있다

한편 4세기 대 들어와 모용씨는 평곽을 중시하였다. 모용씨는 321년에 모용인을, 341년에 모용각을 평곽에 주둔케 하였다. 고구려는 국경지방에서 계속 모용씨의 군대와 충돌하였다. 평곽³¹⁾에 주둔한 모용각은 여러 차례 고구려군을 격파하였다는 『資治通鑑』 권96, 晋成帝 咸康 7년 기록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고구려에서 평곽 지방으로 통하는 길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길은 집안 - 수암 - 평곽 길이다. 장하의 성산산성에서 벽류하를 따라 개현의 건안성을 지나 평곽으로 연결하는 길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 길에 해당되는 사료를 꼽아본다면 ⑬ · ⑭를 들 수 있겠다. 이 길은 앞서 설명한 집안 - 수암 - 해성 길과도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고구려에서 요동지방으로 통하는 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현도군으로 통하는 길이다. 편의상 현도길이라고 한다. 또 다른 하나는 요동군으로 통하는 길이다. 편의상 요동길이라고 한다. 평곽으로 나가는 길은 넓은 의미에서 요동 길에 포함될 것이다.

고구려의 입장에서 볼 때 현도길이 북도, 요동 길은 남도라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고구려와 전연 간의 전쟁에 나타나는 남도와 북도가 여기에도 해당될 수 있을까? 아래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는 학자도 없지 않다. 그런데 위의 『자치통감』, 『삼국사기』 등의 사료를 보면 남로와 북로를 추정해 볼 수 있는 단서는 오로지 '북쪽 길은 평탄하고 넓으며, 남쪽 길은 좁고 험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資治通鑑』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南陝', '北置'가 '北道平關', '南道險陝'으로 윤색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³²⁾ 그렇다

31) 평곽은 오늘날 요령성 개주시 남쪽의 熊岳鎮 부근에 해당된다. 그 동쪽에는 개현고성이 있는데 漢 대의 토성이라고 한다. 토성주변에서 후한 대의 무덤이 다량 발굴되었다고 한다(孫進己 · 馮永謙 編, 1988, 『東北歷史地理』 제1권, 294 · 379쪽 및 같은 책 제2권의 64~65쪽).

면 여기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당시 일반적인 교통로가 북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연 군이 남도를 택한 이유일 것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前燕이 수만 명에 달하는 병력의 이동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겨울 전쟁(11월)을 택했다고 본다. 겨울이면 강과 하천이 얼어붙는데, 그 때 강과 하천을 따라서 병력을 이동하면 빠르고, 쉽게 이동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전연 군은 남도 상에 있는 강, 하천을 따라 진격해왔을 개연성이 높다고 본다.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남쪽 길(남도)과 북쪽 길(북도)의 위치문제를 해석해 보기로 하자. 먼저 남도와 북도의 위치를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사료는 『진서』와 『위서』에 나타나는 목저라는 지명이다. 이 사료에 나타나는 木底는 고국원왕이 전연 군의 침략소식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기다리고 있던 지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목저는 남도에 위치한 지명이 분명하다.

그런데 고구려로 통하는 남도라는 입장에서 위의 사료 B군과 비교 검토해 볼 때 남도는 태자하를 따라 오는 요동 길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하지만 다음 사료를 보면 이와 같은 추측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李勣為遼東道行軍大總管，右武衛將軍孫貳朗，右屯衛大將軍鄭仁泰副之，率營州都督兵，繇新城道以進，次南蘇，木底，虜兵戰不勝，焚其郭。(『新唐書』 권220, 열전145, 東夷 高麗)

이 사료는 647년 이적이 新城道를 따라 진격하여 남소성과 이어서 목저성을 공격했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신성이 무슨의 고이산성이라고 할 때 남소성과 목저성은 무슨에서 고구려로 들어가는 통로에 위치한다고 보아야 하겠다. 그렇다면 목저는 현도 길에 소재한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목저가 현도 길에 위치한다면, 사료 B와 비교해볼 때 이를 어떻게 설명하여야 할까? 사실 『진서』와 『위서』의 기록 중에 남도와 북도가 서로 뒤바뀐 것이라고 사료비판을 한다면 남도는 요동 길, 북도는 현도 길이라고 해석되어 위의 사료 B와 비교할 때 쉽게 이해가 간다. 하지만 『진서』와 『위서』에 구체적인

32) 여호규, 1995, 앞의 논문, 4~5쪽.

로 기록된 사실을 왜곡하여 그렇게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학계에서는 남도와 북도를 어떻게 비정해왔는지 그 동안의 연구경향을 알아보기로 하자. 다음 <표 2>를 보자.

<표 2> 남도와 북도에 대한 다양한 견해³³⁾

논 자	분기점	남도의 경로	木底城	南蘇城
		북도의 경로		
箭內互	遼河	渾河, 蘇子河, 通化, 집안 서북 45km 開原, 清河, 輝發河, 臨江, 동화, 집안	木奇鎮	청원 남산성
津田左右吉	遼陽	요양 → 태자하 산간로(요동길) 혼하 → 소자하 연안로(현도길)	태자하상류	영릉진 부근
今西春秋	遼東	태자하 → 소자하 산간로 → 목기진(요동길) 혼하 → 소자하 연안로(현도길)	목기진	철배산성 살이허산성
方起東 陳相偉	渾江	신개하 → 판차령 → 마선구 → 집안 위사하 → 노령 → 집안		
王綿厚 李健才	旺清門	부이강, 혼강, 신개하, 마선구, 집안 통화현성, 혼강, 위사하(청하), 통구하	목기일대 (남북도의 필수경로)	五龍山城
孫永鐘	혼하, 소자하 합류점	소자하 → 홍묘자 → 흑구산성(환인) 혼하상류 → 남산성자 → 금창령 → 부이강상류	木奇鄉의 수수보산성	鐵背山城
佟達	혼하, 소자하 합류점	(혼하·소자하)木奇鎮, 永陵鎮, 부이강, 旺清門, 鴨綠河 환인현동쪽, 신개하, 환도성 (혼하상류, 영액하)南雜木鎮, 靑原縣, 南山城鎮, 向陽鎮, 紅石砬子, 通化市, 환도성	木奇鎮 동남의 평지성	五龍山城
張正岩 王平魯		소자하 → 영릉진 → 부이강(환인) → 신개하 → 집안	河西村古城	得勝堡山城
梁志龍	永陵鎮	판로구, 목우자진, 육도하, 환인 상고성자, 횡도하, 외판구하, 량수, 유림하, 태평구, 마선구, 집안 소자하, 신빈현성, 왕청문, 부이강, 신개하, 마선구, 집안	櫃子石山城 (남북도의 필수 경로)	鐵背山城
余昊奎	남소성	요동 → 혼하 → 소자하 → 혼강 → 신개하 → 집안 혼하상류 → 류하·삼통하 → 용강산맥 → 혼강상류 → 위사하 → 노령 → 집안	木奇鎮일대	鐵背山城

(계속)

33) 이 표는 여호규의 논문(1995, 5쪽) 및 田中俊明의 논문(1997)을 참조하여 수정 보충하여 작성하였음.

논 자	분기점	남도의 경로	木底城	南蘇城
		북도의 경로		
田中俊明		태자하 길(요동길) 소자하 길(현도길)	高儉地山城	舊老城
林起煥	遼陽	요양 → 태자하 → 환인 또는 소자하상류(요동길) 요동 → 신성 → 혼하상류 → 소자하 → 환인 → 집안(현도길)	舊老城	鐵背山城
王綿厚	舊老城	고검지산성 → 사도하자 → 마안산산성 → 환인 → 혼강 → 노변장관에 → 랑수향 → 마선구 → 집안 왕청문 → 부이강 → 흑구산성 → 패왕조산성 → 신개하 → 망파령관에 → 집안	五龍山城	催陣堡山城

위의 <표 2>에서도 보듯이 이 문제를 연구한 先學의 연구내용에서 공통점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학자들의 견해는 남도와 북도의 분기점을 어디로 비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노선이 달라진다. 또한 남도와 북도의 經路도 학자들 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단지 여러 학자 간에 의견의 공통점을 보이는 것은 목저성을 木奇鎭일대로 이해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목기가 목저성과 연관된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

필자는 목저성이 현도 길에 소재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남도와 북도의 위치비정에서 목저성은 남소성의 위치비정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

箭內互, 1913a, 앞의 책, 347~357쪽; 津田左右吉, 1915, 『滿鮮地理歷史研究報告』 권1, 91~100쪽; 今西春秋, 1935, 「高句麗の南北道と南蘇・木底」, 『靑丘學叢』 22; 方起東·陳相偉, 1964, 「集安吉林高句麗南道和北道上的關隘和城堡」, 『考古』 1964-2; 王綿厚·李健才, 1988, 『東北古代交通』, 瀋陽出版社, 100~105쪽, 117~131쪽; 孫進己·馮永謙, 1989a, 앞의 책, 93~100쪽; 孫永鐘, 1989, 「고구려의 남도·북도와 환도성의 위치에 대하여」, 『력사과학』 1989-3·4; 李健才, 1990, 「關於高句麗南北道の探深」, 『歷史地理』 8; 佟達, 1993, 「關於高句麗南北交通路」, 『博物館研究』 1993-3, 34~38쪽; 張正岩·王平魯, 1994, 「新城道及新城道上諸城考」, 『遼海文物學刊』 1994-2; 梁志龍, 1995, 「高句麗南北道新探」, 『社會科學戰線』 1995-1, 142~143쪽; 余昊奎, 1995, 앞의 논문; 田中俊明, 1997, 앞의 논문; 林起煥, 1998, 「高句麗前期山城研究」, 『國史館論叢』 82; 王綿厚, 2002, 앞의 논문, 236~238쪽.

관되어 있다. 그렇다면 앞서 제기한 사료상의 문제점과 위의 <표 2>에서 제기된 연구업적을 참조로 하면서, 남도와 북도의 노선을 비정해보자. 남도와 북도에 대한 위치비정 문제는 다음의 두 가지 가능성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는, 남도를 현도 길로 비정할 때, 북도는 현도 길의 북방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일찍이 箭內互³⁴⁾이 주장한 적이 있었다. 이후 큰 관심을 끌지 못하다가 손영중,³⁴⁾ 孫進己·馮永謙,³⁵⁾ 佟達³⁶⁾이 비슷한 관점을 제기하여 주목을 끈 바 있다. 중국학자의 견해는 동달의 의견이 우세한 경향이다.³⁷⁾

한국학계에서는 여호규가 구체적으로 논증하였는데, 요동과 부여, 고구려와 부여를 연결하는 교통로가 있었음을 고찰하고는, 그 대안으로서 혼하 상류 → 류하 · 삼통하 → 용강산맥 → 혼강 상류 → 위사하 → 노령 → 집안으로 들어오는 교통로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북도를 현도 길의 북쪽 지역에서 찾아야 한다는 시각이었다. 이러한 견해가 가지는 장점은 현도 길에 남도에 소재한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새로이 비정한 북쪽 길의 존재가 위의 사료 B군에서 충분히 나타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기왕에 제시된 다른 견해보다는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라고 하겠다.

두 번째 가능성은 남도를 현도 길로 비정할 때 현도 길에서 이 두개의 길을 모두 비정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다. 그렇게 본다면 현도길(남도)로 들어온 전연 군이 진격과정에서 둘로 나뉘어 졌다고 해석된다. 즉 현도길 안에서 남도와 북도가 존재하는 것이라 하겠다. 필자는 두 번째 가능성이 보다 타당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파악하는 근거는, 이 길이 역사적으로 볼 때 고구려와 요동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로로서 활용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은 목저성의 위치문제가 목저성과 함께 사료 상에 나타나는 남소성, 창암성의 위치비정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견해는

34) 孫永鐘, 1989, 위의 논문.

35) 孫進己·馮永謙, 1989a, 앞의 책, 97~99쪽.

36) 佟達, 1993, 앞의 논문.

37) 耿鐵華, 1996, 「高句麗南北道的形成與拓展」, 『通化師範學院』 1996-1.

위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 중국학자의 견해이기도 하다. 하지만 전쟁내용의 이해정도에 따라서 세부적인 지명비정 및 교통로는 학자에 따라서 각기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자. 먼저 남소성과 목저성의 위치비정이다. 목저성의 위치는 “647년 이적이 신성도를 따라 진격하여 남소성과 목저성을 격파하였다”³⁸⁾거나 “설인귀가 신성으로부터 고구려를 공격하여 남소성, 목저성, 창암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³⁹⁾ 문헌기록을 통하여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목저성은 남소의 동쪽에 위치한다”⁴⁰⁾거나 “신성의 동북쪽으로 남소성 목저성이 위치한다”⁴¹⁾라는 호삼성의 견해에서 그 위치를 짐작할 수 있다. 요컨대 남소성, 목저성, 창암성은 현도군에서 고구려로 들어가는 길에 차례로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다음 사료를 보기로 하자.

新城州都督府 遼城州都督府
哥勿州都督府 建安州都督府
南蘇州 木底州 蓋牟州 代那州 倉巖州
磨米州 積利州 黎山州 延津州 安市州
凡此十四州, 並無城池, 是高麗降戶散此諸軍鎮, 以其酋渠爲都督,
刺史羈縻之 (『舊唐書』 권39, 志地理2, 河北道)

위의 사료를 보면 당은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 그 故地의 주요한 요충지에다가 9都督府와 42州를 설치하였다. 그 후 이들은 폐치되어 갔고 나중에는 14개의 중요한 軍鎮이 14州로서 남게 되었다고 한다. 이들 14주 중에 新城州都督府, 南蘇州, 木底州, 倉巖州가 눈에 띈다. 남소성, 목저성, 창암성은 고구려의 고지에 설치된 14주 가운데 하나이다. 이들은 唐代까지도 그 지역의 대표적인 행정치소인 동시에 군사적인 전략거점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이들 성곽

38) 『新唐書』 권220, 열전145, 東夷 高麗.

39) 『舊唐書』 권83, 열전33, 薛仁貴.

40) 『자치통감』 권114, 진기36, 의희 2년(406)의 호삼성註.

41) 『자치통감』, 진기19, 함강 5년(339)의 호삼성註.

은 고구려시대 이래 해당지역의 군사적인 거점으로서 인정된다.⁴²⁾

이처럼 이 성들이 각 지역의 대표성을 띄고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기존 학계의 지명비정 문제를 검토해보자. 목저성의 위치는 어디쯤일까? 위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많은 연구자들이 木奇鎮 일대로 비정하고 있다. 목기진 일대에는 몇 개의 성곽이 분포되어 있다. 이 중에 목저성으로 비정되는 성곽은 五龍山城,⁴³⁾ 櫃子石山城,⁴⁴⁾ 河西村古城⁴⁵⁾ 등이 있다. 오룡산성의 경우는 주변에 평야지대가 없고, 좁고도 험한 협곡을 통과하는 길목주변에 위치한다. 따라서 험한 교통로를 감시하는 전략적 거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지역의 행정적인 치소를 감당하기엔 무리라는 생각이다. 궤자석 산성은 고구려산성이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⁴⁶⁾ 하서촌고성은 소자하 연안에 축조된 평지토성이다. 이 성을 한 대의 군현치소로 비정하는 견해,⁴⁷⁾ 고구려시대의 성곽으로 파악하는 견해,⁴⁸⁾ 唐대의 목저주 治所로 파악하는 견해⁴⁹⁾ 등이 있다. 따라서 이 중에서는 하서촌고성설이 유력하다. 그렇지만 필자는 이 지역이 남협이라는 좁고 깊은 협곡에 위치하고 있어 험한 교통로를 감시하는 전략적 거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후대까지 지역의 대표성을 띄는 행정치소적 성격을 띄는 성곽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필자의 생각으로는 목저의 위치를 좀 더 고구려의 내부로 들어온

42) 물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치소성의 위치가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다. 즉 고구려 당시엔 치소가 산에 위치하던 산성이던 것이 고구려 멸망 후인 평화 시엔 평지로 내려와 평지성으로 바뀌어 졌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하지만 행정치소의 위치가 크게 이동되는 것은 아니다.

43) 王綿厚·李健才, 1988, 앞의 책, 102쪽; 王綿厚, 1994, 「鴨綠江右岸高句麗山城綜合研究」, 『遼海文物學刊』, 1992-2.

44) 孫進己·馮永謙, 1989a, 앞의 책, 102~103쪽.

45) 張正岩·王平魯, 1994, 「新城道及新城道上諸城考」, 『遼海文物學刊』 1994-2.

46) 張正岩·王平魯, 1994, 위의 논문, 26쪽.

47) 田中俊明, 1994, 「高句麗の興起と玄菟郡」, 『朝鮮文化研究』 1, 26쪽.

48) 張正岩·王平魯, 1994, 앞의 책. 한편 溫秀榮·張波(1996, 「關於撫順地區的高句麗山城」, 『博物館研究』 1996-1, 80쪽)는 이 성에서 고구려유물이 출토되고 있는 데 그 시기를 고구려중기까지 볼 수 있다고 한다.

49) 徐家國·徐琰, 1994, 「唐代木底州治今地考」, 『遼海文物學刊』 1994-2, 27~28쪽.

지점, 즉 동쪽 방향으로 이동하여 비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목저성의 위치를 목기진에서 좀 더 동쪽에 위치한 永陵鎭 부근에 비정하고자 한다. 좀 더 추정해보자면 현도 길을 통해서 남협을 거쳐 영릉진 지역까지 들어온 전연 군은 둘로 나뉘어 환도성으로 진격하였는데, 여기서부터 남도와 북도가 갈라졌다고 추정해본다.

구체적으로 목저성의 위치를 비정해 보자. 『진서』나 『위서』에 ‘木底’에서 전투를 벌였다는 기록이 있다. 즉 사료는 전투를 벌인 곳이 목저성이 아니라 목저라고 기록하였다. 그렇다면 실제로 수만 명에 달하는 양국군이 전투를 벌였을 장소는 성곽(목저성)이 아닌 곳이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양국은 목저성의 관할지역 어디쯤에서 충돌했다고 생각된다.

그러면 고구려와 모용 ‘연’ 및 당과의 충돌과정에서 나타나는 목저성의 위치는 어디일까? 필자는 영릉진에서 남쪽 길로 내려오다 만나는, 이 지역의 대표적인 고구려시대 성곽인 舊老城으로 비정하고자 한다. 목저성의 위치를 구노성으로 비정할 경우 일찍이 목저성의 위치에 대한 호삼성의 주석내용⁵⁰⁾과도 일치하게 된다.

그렇다면 목저성의 서쪽에 위치한다는 남소성은 철배산성으로 비정할 수 있을 될 것이다. 철배산성은 교통로 상의 분기점에 위치하여,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라 하겠다. 혼하와 소자하가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한다. 철배산성의 동북쪽으로는 부여가 있는 길림으로 통하는 평탄대지가 심양에서부터 연결되고 있다. 이 길을 따라서 혼하가 흐르고 있는데, 이 길은 당시 현도성에서 부여로 통하는 길목에 해당한다. 철배산성의 동·남쪽은 협준한 산맥이 전개되고 있는데, 동쪽방향으로 산맥사이에 좁고도 긴 협곡이 있다. 이 협곡 사이로 소자하가 흐르고 있는데, 이 교통로를 따라 영릉진 → 환인 → 집안 또는 영릉진 → 통화 → 집안으로 연결된다. 이 협곡이 『진서』나 『위서』에서 말하는 南陝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협곡을 통과하는 이 길은 고구려에서 현도 길로 통

50) 『자치통감』 권97, 진기19, 함강 8년(342) 10월 및 영화원년(345) 10월, “南道從南陝入木底城”, “南蘇城在南陝之東”

하는 주요 교통로에 해당한다. 이렇게 비정할 경우 “345년 모용각이 남소성을 함락시키고 戍를 설치하고 돌아갔다”는 기록은⁵¹⁾ 전연이 고구려로 통하는 협곡의 입구를 공격하고 돌아간 기록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남도의 경로를 추정해보자. 영릉진 부근에서 갈라진 모용황이 이끄는 주력군은 남쪽으로 난 교통로를 따라 환인지방까지 내려왔을 것이다. 고구려 군과 전연 군이 충돌한 지점은 구노성에서 환인에 이르는 길 어디쯤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구노성에서 멀지 않은 지점일 것이다. 영릉진에서 환인으로 통하는 교통로는 협곡사이의 하천을 따라 가는 비교적 평탄한 길이다. 전연 군은 환인부근에서 渾江으로 진입한 다음 혼강을 따라가다 新開河로 들어선다. 신개하를 거슬러 올라가다가 판차령을 넘는데 이 길은 계곡을 따라 좁고 험한 길이다. 판차령에 올라 환도성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 이 길은 위나라 관구검군이 침공해왔던 길이기도 하다. 이 길에 위치한 小板에서 관구검 기공비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4만 명의 전연 군도 이 길을 활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 길은 요동의 현도성에서 고구려의 수도를 연결하는 최단 교통로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한편 이 교통로의 주변에는 고구려시대의 많은 산성이 배치되어 있다. 이 길을 감시,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 졌음을 알 수 있다. 영릉진에서 환인으로 들어오는 길목주변에 고검지산성, 마안산성이 있다. 환인에는 오녀산성이 있으며, 환인에서 신개하 방향으로 가는 길주변에는 흑구산성이 있다. 신개하의 입구에는 패왕조산성이 있다. 패왕조산성은 신개하와 혼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하는데, 합류점 저 멀리 五女山城이 바라다 보인다(그림 1).

패왕조산성에 올라서면 혼강을 따라 올라오는 적군과 富爾江을 타고 내려오다가 다시 渾江으로 거슬러오는 적군을 아울러 조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혼강에서 신개하를 따라 집안 방향으로 침략하는 적군을 감시할 수 있다. 신개하를 거슬러 올라가면 집안으로 통하는 최단의 교통로이다. 따라서 패왕조산성은 고구려가 國都를 방어하기 위한 관방의 요충지에 해당한다. 신개하를 따

51) 『삼국사기』, 고구려, 고국원왕 15년.



〈그림 1〉 패왕조산성에서 남쪽으로 보이는 오녀산성(혼강을 거슬러오는 적군을 감시하는 요충지)

라 동남쪽으로 거슬러 오르다보면 망파령 차단성이 있다. 망파령 차단성을 지나면 판차령에 초소가 있으며, 마선구하의 상류를 따라 동쪽으로 가다보면 소판차에 이르게 된다. 이 소판차에서 관구검기공비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이 길은 관구검군의 침입로로서 추정되고 있기도 하다. 소판차를 지나 마선구를 지나면 마지막으로 산성자산성(환도산성)이 있다.

한편 왕우가 이끄는 1만 5천 명의 병사가 진격해 온 북로는 어디일까? 이 길은 고구려와전연이 공감하고 있던 양국을 연결해주는 대중적이고도 일반적인 교통로였다. 전연 군이 쳐들어 올 경우엔 당연히 북로로 올 것이라고 고구려가 당연히 예상했던 교통로가 아니던가. 따라서 이 길은 오래전부터 널리 알려지고 활용된 길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길은 위의 사료 B군에서도 자주 이용했던 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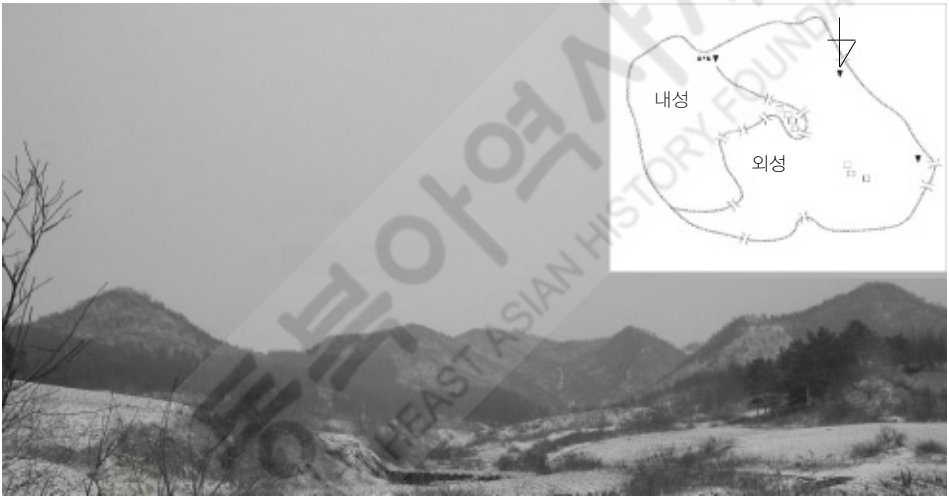
앞서 필자는 북치의 치(置)를 두 가지 의미로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그 두 가지 의미 중에 ‘宿驛’ 즉 역참의 의미와 “곧바로 직진해서 간다”는 ‘直’의 의미로서 이해하였다. 즉 北置는 북쪽에 있는 역참 즉 모용씨가 인지하고 있던 이 지역의 역참을 설명한 것이다. 즉 왕우의 군대는 북쪽에 있는 역참을 지나



1. 高爾山城(新城) 東壁



2. 五龍山城



3. 舊老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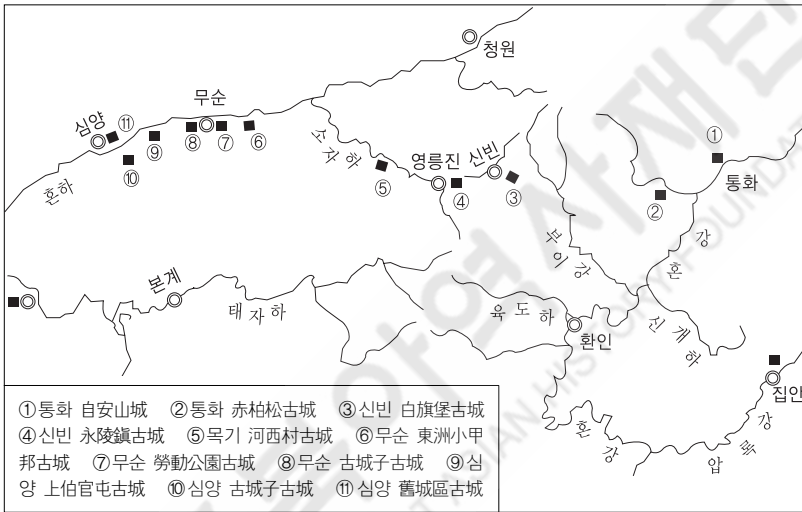
4. 霸王朝山城 동벽의 여장



5. 望波嶺關隘

〈그림 2〉 교통로상에 위치한 고구려의 주요 관방유적

서 진격했던 것이다. 이 역참은 오래 전부터 알려진 것이고, 역참을 연결해주는 교통로가 존재해 있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필자는 이 역참의 의미를 한 대부터 존재했던 군현성의 존재에서 찾고자 한다. 다음 〈그림 3〉은 이 지역에 산재한 한대의 군현성과 관련된 유적이다.



〈그림 3〉 한 대의 평지토성 및 산성⁵²⁾

이 그림을 보면 대략 군현성의 성격이 나타난다. ⑥~⑪은 한대 군현성의 밀집지역으로서 요동군 및 현도군과 그 군에 소속된 여러 군현성과 관련된 유적일 것이다. 이는 한대 영역의 동쪽 경계지역에 소속된 군현성들일 것이다. 이들은 魏晉代까지도 그 기능을 유지하였다. 이 지역의 동남쪽 지역에 토착민이 세운 국가 즉 고구려가 위치하고 있다.

또한 ①~⑤는 하나의 선으로 길게 분포되어 있다. ①~⑤는 한 대의 유물이 출토되는 성곽이다. ⑤목기진의 하서촌고성, ④영릉진의 영릉진고성(제2현도군 치소로 추정), ③신빈의 백기보고성, ②통화의 적백송고성(한 대의 상은대현 치소로 추정되는데 통화방면, 신빈방면, 환인방면으로 통하는 교통로

52) 田中俊明, 1994, 앞의 논문, 21쪽의 도면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상의 요지)⁵³⁾, ①통화의 자안산성 등이다. 이를 연결해보면 교통로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는 고구려족 즉 예맥족이 거주하던 지역에 설치된 한 대의 군현성 관련 유적이라고 생각된다. 漢 왕조는 이렇게 線上으로 길게 연결된 교통로를 따라서 고구려지역을 관리해왔을 것이다.

실제 이들 성곽을 연결하는 교통로가 존재하는데, 이 길은 지금까지도 영릉진과 통화를 연결하는 주요 교통로로서 사용되고 있다. 漢 대에는 이 교통로를 따라 환도성을 거쳐 압록강을 건너 강계를 거쳐 함경남도의 옥저지역까지 연결되었을 것이다.⁵⁴⁾ 한 대 이래 이 길은 요동지역과 압록강 - 함경도 지방까지를 연결하는 주요 교통로로 사용되었다고 생각된다.⁵⁵⁾ 그렇다면 전연이 고구려로 진격하면서 생각했던 길이란 당연히 역사적인 측면에서 많이 알려진 교통로였던 이 길이라고 하겠다(그림 3). 전연은 과거 한대 이래 요동지방 지배의 전초기지였던 이 지방의 군현성과 교통로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둘째로 '直'의 의미인 "직진해서 곧장 나아간다"는 뜻으로서도 해석된다. 북치는 전연 군이 南北路로 갈라지는 상황 속에서 북쪽 길의 형편을 설명한 것이다. 즉 北路는 행군로를 바꾸지 않고 오던 길 그대로 직진하여 나아간다는 의미이다. 이는 분기점인 영릉진 부근에서 오던 길을 따라 그대로 동쪽으로 직진하여 곧장 나아가는 교통로가 있음을 말한다. 이 길은 영릉진에서 통화를 연결하는 교통로를 말하는데 현재까지도 주요 교통로로서 이용되고 있다. 이 길을 현재의 지명으로 연결시켜보면 永陵鎭에서 蘇子河를 따라 新賓 - 紅升을 거쳐 旺清門⁵⁶⁾을 지나 通化⁵⁷⁾를 거쳐 환도성으로 들어오는 길이다.

53) 여효규, 1998, 『고구려 성 I』, 국방군사연구소, 206쪽.

54) 국내성에서 옥저지역까지 통하는 교통로로 확인되는 사실은 이 길을 따라서 관구검이 파견한 왕기가 동천왕을 추격해 간 교통로이기도 하다.

55) 池内宏, 1951b, 「漢魏晉の玄菟郡と高句麗」, 『滿鮮史研究』 上世第一冊, 吉川弘文館, 195~196쪽; 田中俊明, 1994, 앞의 논문, 39쪽.

56) 왕청문은 청대 만주지역을 봉금하는 과정에서 외부에서 봉금지역으로 들어가는 주요 교통로(門)중의 하나였다고 한다.

57) 통화지역은 고구려 시기 국내성을 방어하는 중요한 거점이었다. 통화관내에는 무려 9



1. 撫順의 勞動公園城(현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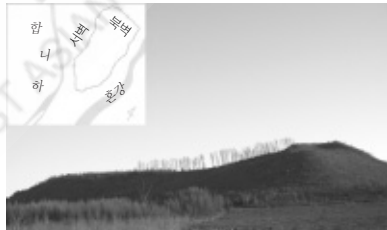
2. 白旗堡古城



3. 永陵鎮古城



4. 赤柏松古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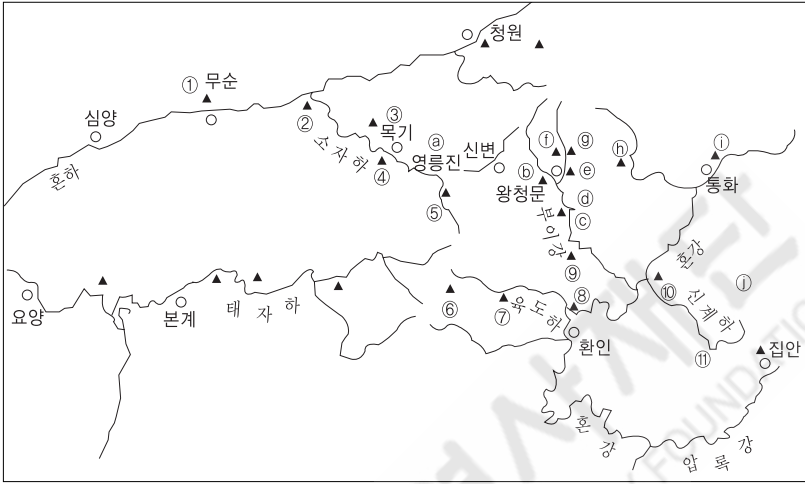
5. 自安山城의 북벽

〈그림 4〉 한 대의 군현성 관련 유적

한편 고구려의 입장으로 볼 때, 이 교통로는 중요한 관리대상이라 하겠다. 한군현을 축출하는 과정에서 이 교통로 상에 위치한 군현성들이 우선적인 공격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한 군현이 축출된 이후에도 고구려는 이 지역의 군현성과 교통로를 관리하였다.⁵⁸⁾ 고구려는 이 교통로를 장악함으로써 예상치 못

개에 달하는 성곽과 관아가 분포되어 국내성으로 통하는 길을 방어하고 있다(여호규, 1998, 앞의 책).

58) 윤용구, 1999, 「고구려의 평지성과 군현성운용」, 『고구려연구』 8, 고구려연구회.



〈그림 5〉 남북 교통로 주변의 고구려산성

①撫順 高爾山城 ②撫順 鐵背山城 ③新賓 五龍山城 ④木寄 河西村古城 ⑤舊老城 ⑥高儉地山城 ⑦환인 馬鞍山城 ⑧환인 五女山城 ⑨黑溝山城 ⑩霸王朝山城 ⑪望波嶺關隘
 ☆ 관구검기궁비 발견지 ⑫永陵鎮古城 ⑬旺淸門 孤脚山山城 ⑭四道溝山城 ⑮轉水湖山城 ⑯南台古城 ⑰太平溝門古城 ⑱依木樹山城 ⑲英戈布山城 ⑳自安山城 ㉑關馬牆山城

한 침략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길에 소재한 漢郡縣城들은 고구려에 의해 점령된 이후 교통로를 중간 중간 연결해주는 역참으로서 활용되었을 것이다. 실제 이 교통로 상에 위치한 한군현성은 상당수 고구려가 다시 사용한 흔적이 있다고 한다.⁵⁹⁾ 따라서 고구려가 이 교통로를 장악한 이후 교통로를 감시하기 위해서 많은 성곽을 설치하였음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실제로 이 교통로 주변에는 고구려시대의 산성이 여러 개 분포되어 있다. 즉 교통로를 따라서 ○旺淸門의 고각산산성→○通化縣의 태평구문고성, 남태고성, 의목수고성→英額布鎮의 영과포산성→通化市の 자안산성→○集安의 관마장산성→○集安 산성자산성이 배치되어 있다. 또 유사시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산성이 인근 지역에 다수 분포되어 있다.

59) 목기진의 하서촌고성, 영릉진의 영릉진고성, 통화의 자안산성에서 고구려시대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2_ 385년, 후연과의 전쟁

1) 배경

380년, 요서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주동자는 苻洛이다. 용성에 주둔하고 있던 苻洛은 대군을 거느리고⁶⁰⁾ 中山(현 하북성 定縣일대)에서 전연 왕 부견과 전투를 벌였으나 크게 패배하였다. 이 반란에는 요동태수와 현도태수가 동조하여 참여했다. 반란을 진압한 前秦은 용성을 장악하였지만, 요서지방에 대한 행정적 장악력은 현저히 떨어졌다. 이에 전진은 용성에 주둔하던 유주자사를 薊城(현재의 북경부근)으로 옮기고, 새로이 평주자사를 설치하여 龍城(현재의 朝陽市 일대)에 주둔케 하였다. 하지만 東晉의 계속되는 압박은 전진이 요서지방에 관심을 쓰기 어렵도록 전개되었다. 더군다나 전진은 요서지방보다 더욱 변방에 해당되는 요동지방에까지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다. 이때의 요동지방은 고구려와의 우호적인 관계로 전진의 관심에서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다. 전진은 383년 동진과의 비수(淝水)전쟁에서 대패하면서 급격하게 쇠락해졌다. 그 여파로 부견의 부하였던 慕容垂(전연왕 모용황의 아들)는 전진을 이탈하였고, 385년 後燕을 건국하였다. 쇠퇴해가는 전진과 신흥세력인 후연의 대립과 갈등은 지속되었고, 이후 북중국 일대는 새로이 등장한 후연의 세력권으로 급속하게 편입되어 갔다.

이에 따라 요서지방의 상황도 급격히 변화였다. 요서지방에서는 384년부터 전진과 모용수 세력 간의 갈등이 시작되었다. 전진이 동진에게 참패하자 모용씨는 384~385년 전진의 幽州(薊: 현재의 北京부근) 및 요서지방의 平州(朝陽市 일대)를 공격하였다.⁶¹⁾ 즉 후연은 전진의 패배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요

60) 부락이 사신을 보내 고구려, 백제, 신라 군사를 불러 모으려 했으나, 이들 국가가 협조한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치 않다.

61) ①(前)秦의 幽州刺史 王永과 平州刺史 苻 丕 이 二州의 무리를 이끌고 燕을 공격하니 燕王 垂는 平朔將軍 平規를 보내어 永을 공격케 하였다. 永은 昌黎太守 宋敞을 보내어 范陽에서 맞아 싸웠으나 敞의 군대가 패함에 따라 平規는 薊城의 남쪽에까지 진격하였다(『資治通鑑』 권105, 晋孝武帝紀, 太元 9년(384)).

서지방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385년 2월에 전진이 용성의 궁궐을 불태우고 철수하자, 그 뒤를 이어서 후연이 요서지방을 장악하고서 帶方王 모용좌를 용성에 주둔시켰다.⁶²⁾

요서지방을 장악한 후연은 계속하여 요동지방을 장악하려고 시도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384~385년 기록을 찾아보면 요동지방의 사정을 전하는 사료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전진이나 후연이 요동지방에까지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었던 상황을 반영한다고 생각된다.

2) 경과

고구려는 前秦의 몰락과정 그리고 요서지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진과 後燕간의 갈등관계를 면밀하게 주시 파악하고 있었다. 고구려는 요동 및 요서지방에서 권력교체기라는 상황을 이용하여 전격적으로 요동지방에 대한 진출을 단행하게 된다. 이 사실을 『삼국사기』에서 알아보면,

여름 6월에 (고국양)왕은 4만의 병사를 거느리고 요동을 습격하였다. 이에 앞서 燕王 (모용)垂는 帶方王 (모용)佐로 하여금 龍城을 지키게 한 바 있었다. (모용)佐는 고구려 군이 遼東을 습격하였다는 말을 듣고 司馬 景을 보내어 구원토록 하였으나, 우리 (고구려) 군대가 쳐부수고 는 마침내 遼東·玄 를 함락하고 남녀 1만 명을 포로로 붙잡아 돌아 왔다. (고구려본기 6, 故國壤王 2년)

라 하여 고구려가 385년 6월 요동군을 습격하여 점령하였음을 기록하고 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진서』, 『자치통감』, 『북사』 등에서 유사한 내용의 기록을

②(後燕)의 帶方王 佐와 寧朔將軍 平規가 함께 薊를 공격하여 王永의 군대를 여러 번 패배시켰다(위의 책, 晉孝武帝紀, 太元 10년(385)).

62) ①2월에 永은 宋敞을 보내어 和龍과 薊城의 궁실을 불사르게 하는 한편 三萬의 무리를 거느리고 壺關으로 도망하니 (慕容)佐 등이 薊에 入城하였다(위의 책, 晉孝武帝紀, 太元 10년(385)).

②(燕王 垂는) 帶方王 佐로 하여금 龍城에 주둔케 하였다(위의 책, 晉孝武帝紀, 太元 10년(385)).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고국양왕이 4만 병력을 이끌고 공격했다”든지 또는 “요동·현도군에서 1만 명의 포로를 잡아왔다”라는 등의 내용은 『삼국사기』에서나 볼 수 있는 기록이다. 고구려에서 전해진 독자적인 사료가 『삼국사기』 편찬 과정에 인용된 것이라 생각된다.

이 전쟁기록을 살펴보면 적어도 3번의 큰 전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진다. 첫 번째 전투는 고국양왕이 4만의 병사를 이끌고 요동을 습격한 것이다. 두 번째 전투는 후연이 요동군의 습격소식을 듣고 구원군을 요동으로 파견하였다. 즉 용성(현 요령성 朝陽市)에 주둔하고 있던 모용좌가 司馬벼슬에 있던 학경을 파견했는데 이때의 구원군은 용성에서 출발하여 요동에까지 왔지만 역시 고구려 군에 패배하였다. 세 번째 전투는 용성에서 파견된 후연 군을 격파한 고국양왕은 내친 김에 요동군뿐만 아니라 인접한 현도군마저도 함락시켰다.

위의 기록을 보면 고구려가 먼저 요동을 습격하였고, 그 후에 현도군까지 함락했다고 한다. 그렇게 볼 때 4만의 고구려 군이 공격했던 길은 환인을 거쳐 태자하를 따라 요동성까지 이르는 이른바 요동 길을 이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고구려 군은 요동·현도군에서 주력부대를 철수시키면서 포로 1만 명을 사로잡아왔다. 하지만 이 지역을 지키고 관리하기 위해서 일부의 병력을 주둔시켰음을 추정하기는 어렵지 않다. 고구려의 요동군 및 현도군 지역에 대한 지배는 한 동안 계속되었다.

한편 後燕은 빼앗긴 요동지역을 되찾으려고 시도할 만한 여유가 없었다. 그 이유는 후연의 내부사정 때문이다. 고구려가 요동지방을 함락시킨 다음 달(7월)에 요서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났던 것이다. 즉 후연의 建節將軍이었던 徐(餘)巖이라는 인물이 하북성과 요서지방을 배경으로 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반란은 몇 개월 동안이나 지속되었다. 후연은 마침내 내부반란을 진압하고는 계속 군대를 진격하여, 385년 11월 고구려가 장악한 요동지방을 공격하였다. 이는 고구려가 요동·현도군을 점령한 지 약 5개월만의 일이었다. 이 반격에서 後燕은 요동·현도군을 수복했다고 한다.

후연은 요동지방을 다시 장악한 직후 요동지방을 행정적으로 지배하려고 시도하였다. 龍城에 있던 平州刺史의 치소를 요동의 남부지방 요충지인 平

郭으로 옮겨 설치하였던 것이다.⁶³⁾ 이는 요동지방의 정치·군사적인 중심지 역할을 해왔던 요동군의 중심지가 襄平(현 요양시)에서 요동지방의 남쪽에 소재한 평곽 지방으로 옮겨졌음을 의미한다. 이는 양평지역에 대한 고구려의 강력한 영향력을 감안한 조치였을 것이다. 또한 요동태수를 파견하여 이 지역을 장악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후연의 요동지방에 대한 지배는 오래가지 못했다.

3) 결과

고구려가 요동지방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시도한 사건은 342년 전연의 국내성 攻陷사건 이후 실로 40여년 만에 재개된 것이다. 이 당시 고구려의 後燕 공격에 대하여 『資治通鑑』의 胡三省 註에는 “당시 후연은 고구려를 제압할 수가 없었다”라고 기록했듯이⁶⁴⁾ 당시 상황은 강력한 고구려 군과 아직 요동지방을 완전하게 장악하지 못한 후연과의 싸움이었던 것이다. 고구려가 요동지역을 능히 점령할 수 있었던 배경을 생각해보자면, 고구려의 요동공격이 후연의 용성점령 4개월 여 만에 이루어졌던 관계로 요동지방을 정비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고구려의 요동지방 공격은 신흥세력인 후연에 대한 적대감의 표시였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후연이야말로 고구려에게는 국도를 훼손하고 미천왕릉을 도굴하는 등의 만행을 저지른 전연의 후예로서 인식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후연은 고구려로부터 요동지방을 수복하였지만, 후연의 후속적인 대응을 알아보면 고구려에 빼앗겼던 요동·현도군을 수복하는데 그치고 있는 것이다.⁶⁵⁾ 하지만 후연의 요동지방에 대한 지배는 오래가지 못하였다. 이후 얼마

63) 『資治通鑑』 권106, 晋孝武帝 太元 10년(385), “(慕容垂)徙平州刺史帶方王佐鎮平郭……先是幽冀流民多入高句麗。(慕容)農以驃騎司馬范陽龐淵爲遼東太守 招撫之。”

64) 『資治通鑑』 권106, 晋孝武帝, 太元 10년(385) 6월의 註 참조.

65) 前燕 대에 있었던 적극적인 군사적 대응방식(後趙와의 연합에 따른 新城공격, 宇文王 일두귀 문제를 둘러싼 남소성 함락)과는 분명히 구분된다. 이는 후연이 고구려를 응징하여 공격할 만한 여유가 없었음을 의미한다.

되지 않아 고구려는 재차 요동지방을 장악하였다. 고구려가 처음으로 요동지방을 확보한 이후 이 지역은 지키려는 고구려와 빼앗으려는 후연과의 치열한 쟁탈전이 지속되었다. 385년, 요동지역 점령사건은 고구려가 요동을 지배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Ⅲ. 고구려와 모용 '연'의 전쟁과 그 의미

- 결론을 대신하여 -

팍의 몰락이라는 중원의 정치상황에 기인하여 요서지방에서 모용씨가 등장하게 되었다. 고구려는 세력 확장과정에서 서쪽의 모용씨와 마주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요동지방을 먼저 장악한 것은 모용씨였다. 그것은 요동지방에 축적되어 있던 漢代 이래의 사회, 문화적인 전통이 인적·물적 자원과 함께 모용씨에게 계승되었음을 의미한다. 본래 모용씨는 북방 유목민인 선비족의 한 갈래이다. 결국 고구려는 국가를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모용씨가 건국한 전연, 후연과 대립·충돌하였다. 양국의 충돌은 고구려사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고구려의 영역확장 과정에서 나타난 고구려와 모용 '연' 간의 충돌 중에 대표적인 전쟁 두 가지를 선정하여 고찰하였다.

첫째로 고구려와 전연 간의 342년 전쟁이다. 고구려는 요동지방에서 권력의 교체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감지하고 대외적인 세력 확장에 나서게 되었다. 고구려는 4세기 초엽 현도군을 공략하고, 또한 교통의 요충지인 서안평을 공격하여 요동과 한반도의 연결고리를 차단하였다. 그러한 연후에 낙랑·대방군을 공격하여 멸망시키는 등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게 되었다.

한편 모용씨는 종래 요서·요동지방을 지배해왔던 팍을 몰아내고 이 지역의 새로운 지배자로 등장하였다. 이와 같은 양국의 세력 확장은 갈등으로 표면화되었다. 모용씨가 건국한 前燕은 점차 세력을 확장하여 중원을 경영하는 등 帝國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갔다. 이 과정에서 전연은 고구려에 대한 주

도적인 공세를 펼 수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342년 전쟁이 일어났다. 전연왕이 이끄는 5만 5천 명에 달하는 병력이 두 개의 길로 나뉘어 고구려를 침략한 것이다. 고구려는 전연 군에 대패하였다. 고구려는 전술, 전략적으로도 실패하였던 것이다. 전쟁은 전연의 예측처럼 진행되었다. 이와 같이 전연의 예상대로 전쟁이 진행되었던 이면에 혹시나 전연의 첩자가 활약했다고 추정해보는 것은 어떨까? 사실 고구려에는 모용씨로부터 이주해 온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그들 중에 일부는 고구려 정권에 참여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 전쟁에서 생각해 볼 문제는 최근 중국에서 고구려사를 중국 고대 소수민족사의 하나로서 포함시켜 이해하는 견해이다. 중국학자들은 고구려사는 중국사의 일부였으며 당시 고구려와 중국 간의 전쟁을 중국 국내의 갈등 내지 통일전쟁으로서 파악하고자 한다. 그런데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은 중원지역이 혼란에 휩싸여 각기 다른 종족이 세운 다수의 국가들이 명멸해가던 혼란기였다. 이 전쟁은 당시의 혼란한 정세속에서 선비족이 건국한 전연과 고구려가 충돌한 것이었다. 오늘 날 우리가 인식하는 중국이란 용어는 20세기의 국가명칭이다. 따라서 고구려와 전연간의 전쟁에 대해서 중국이라는 개념을 상정하고 서로 간의 통일을 위한 전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전연과 고구려는 양국의 명운을 걸고 격돌하였다. 국가 간의 차원에서 수만 명씩이 동원된 전쟁이다. 당시까지 고구려가 이렇게 많은 병력을 전쟁에 동원한 사례도 없을 것이다. 전연은 고구려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고구려 미천왕의 시체를 도굴해가고 국도를 철저히 훼손하였다. 왕릉을 도굴해서 시체를 싣고 돌아간 행위는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이는 상대와의 공존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극도의 중요심이 수반된 적대행위이다.

고구려는 전연과의 전쟁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고구려는 국가에 닥친 위기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전연과의 화친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선 해결하여야 할 문제는 국가의 재건과 포로로 잡혀간 부모 등에 대한 송환이었다. 이 시기에 진행된 고구려의 외교정책을 알아보면 전연에 대하여 화친정책을 추진하였다.⁶⁶⁾ 349년 고구려에서 생활해오던 송황을 돌려보내고,⁶⁷⁾ 355년

에 이르러 급기야는 전연의 봉작을 받기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 상황을 고구려와 전연 간에 조공 - 책봉체제의 수립으로서 이해하는 견해도⁶⁸⁾ 있다. 이는 당시의 고구려로서는 불가피했던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이다.

이제 전연은 고구려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확인하게 되었고, 봉작을 계기로 해서 그 동안 볼모로 잡았던 王母를 송환해 주었다. 한편 10여 년간 전연에서 생활하던 王母와 그 일행이 고구려왕실로 돌아와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단지 불교가 4세기 중엽 이전 고구려에 들어왔다고 하는 견해⁶⁹⁾를 감안해 볼 때 이미 불교가 성행한 전연에서 생활하던 미천왕모와 그 일행의 고구려 귀환이 고구려사회에 끼쳤던 영향력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한편 고구려는 사정상 요동진출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후 고구려의 영역 확장 정책은 남진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고국원왕이 백제에 패하여 전사하였음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필자는 이 전쟁을 분석하여 전쟁과정을 재구성해 보았다. 간략하게 설명해 보면, 용성에서 출발한 전연 군은 요하를 건너 심양을 통해 무순으로 들어왔

66) ①(고국원)王이 동생을 보내어 燕에 稱臣 入朝하고 珍異한 물건을 전하였는데 그 수효가 千을 헤아렸다. 燕王은 이내 父(미천왕)의 시신을 돌려보냈으나 母(주씨)는 그대로 잡아 두어 볼모로 삼았다(『삼국사기』 권18, 고구려본기 6, 故國原王 13년(343)).

②(고국원왕)王은 前東夷護軍 宋皇을 燕으로 돌려보냈다(위의 책, 故國原王 19년(349)).

③(고국원)王은 사신을 燕에 보내어 볼모를 주고 조공하면서 王母의 반환을 청하였다. 燕王 偶이 허락하고 殿中將軍 刀龕을 시켜 王母를 호송케 하고 왕에게 征東大將軍營州刺史 樂浪公이란 작위를 봉하고 고구려왕은 前과 같이 하였다(위의 책, 故國原王 25년(355)).

67) 前燕의 前東夷護軍 宋晃은 고구려에서 약 10여 년 간(338~349) 체류하였다. 전연에서 모용준이 즉위하자 돌려보냈던 것이다. 송황이 돌아오자, 모용준은 그를 사면하고는 이름까지 활이라 고쳐주며 우대하였다. 송황(황)이 수여받은 中尉라는 관직은 본래 王國이나 小國에서 군사 일을 담당하였다고 한다. 얼마 후 그는 중서감의 요직으로 발탁되었다. 전연 황제 모용준은 고구려의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던 송황을 중용함으로써 국내에 산재해 있던 고구려 유이민에 대한 대책과 고구려와의 대외관계에 대비하려 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68) 여호규, 2000, 앞의 논문.

69) 전호태, 1989, 「5세기 고구려 벽화고분에 나타난 불교적 내세관」, 『한국사론』 21, 서울대.

다. 이곳은 전연이 행정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현도군이 위치해 있었다. 현도군은 전연의 최전방 군사기지이기도 하다. 현도성에서 이번 전쟁을 마지막으로 점점한 전연 군은 고구려로 진격하였다. 전연 군은 고구려로 통하는 교통로를 이용하였는데, 역사적으로 요동과 고구려를 연결하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된 길이기도 하다. 고구려로 진입하는 험한 협곡 즉 남협을 통해 영릉진까지 들어온 모용황은 공격부대를 둘로 나누었다. 왕우에게 일만 오천 명을 거느리고 북도(新賓-紅升-旺清門-通化-集安)를 통하여 진격하게 명령하였다. 모용황 자신은 주력군을 이끌고 남쪽으로 난 길(남도)을 따라 가다가 곧 고구려군과 조우하였다. 舊老城이 소재한 목저지역에서 양국이 충돌하였는데, 고구려 군을 대파한 전연 군은 계속 전진하여 환인지역으로 들어왔다. 한 겨울에 해당하는 11월, 얼어붙은 강, 하천 길을 따라 신속하게 이동한 전연 군은 계속하여 渾江으로 진입한 다음 혼강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동쪽으로 新開河로 진입하였고, 신개하를 따라 가다가 판차령을 넘어 환도성을 점령하였다고 생각된다(그림 5 참조).

한편 환도성에 있던 고구려 고국원왕은 전연 군의 침략소식을 듣고 서둘러 방어군을 편성하였다. 북쪽 길로 전연의 주력군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는 고구려 주력군을 통화방면으로 파견하고, 자신은 일부의 부대를 이끌고 환인방면으로 나아갔다가 남쪽 길로 들어온 모용황군에게 크게 패배하였던 것이다.

둘째로 고구려와 후연 간의 385년 전쟁이다. 중원지방의 정치적인 변화상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던 고구려는 요동지방을 습격하여 점령하였다. 고구려는 계속된 3차례의 전쟁을 통하여 요동군을 점령하였고 현도군지역까지 점령하였다. 후연은 이를 되찾으려고 노력하였으나 내부의 사정으로 여의치 않았다. 고구려는 점령했던 요동군과 현도군지역을 5개월 여 만에 후연 측에 내주었다. 하지만 후연은 요동지역을 단기간 수복하는데 그쳤고, 얼마 후 요동지역은 다시 고구려의 차지가 되었다.

한편 이번 전쟁에서 고구려는 요동, 현도지방을 공격하여 1만 명의 포로를 데리고 돌아왔다. 고구려가 요동지방을 공격한 배경은 이 지역의 높은 문화와

物産에 염두를 두고 있었다. 오래 전부터 요동지방에서 정치·문화적으로 중심적 역할을 해왔던 요동군을 점령하고 수많은 포로를 잡아왔다는 사실은 고구려에겐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고구려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요동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다. 고구려의 요동지방 장악은 고구려 멸망 시까지 지속되었으며, 요하를 경계로 하여 중원지역에서 명멸해 간 여러 왕조와 대치하게 되었다. 내적으로 고구려는 요동지방을 장악하게 되면서 동북아의 강국으로서 등장하게 되었다.

고구려와 모용 '연'은 팝의 몰락이라는 정치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서로 국경을 마주하게 되었다. 이 시기 양국은 당시의 국제정치 상황 속에서 국력을 사방으로 팽창해 나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양국은 정치적으로 대립·갈등하였다. 양국 간에는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다. 특히 342년 전쟁은 고구려에게 엄청난 좌절을 안겨주었다. 반면에 385년 전쟁을 통해서도 고구려가 요동지방을 장악하는 단초가 되기도 하였다.

양국은 갈등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당시의 국제정치 상황과 양국의 지리적 인접성에 기인하여 여러 가지 제도와 문물에 대한 교류가 진행되었다.⁷⁰⁾ 이러한 교류는 전쟁을 통하여 발생한 유랑민이나 전쟁포로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양국의 성장 특히 고구려의 성장에 큰 활력소가 되었다. 4세기는 고구려사에서 볼 때 일대 전환기였다. 고구려는 모용 '연'과의 갈등을 통하여 모진 시련을 겪기도 하였지만 이 과정에서 내부적 모순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다. 또한 고구려는 모용 '연'으로부터 숙원이던 요동지방을 쟁취하였고, 이를 지키기 위하여 투쟁하는 과정을 통하여 국가적 기틀을 확립할 수 있었다. 고구려는 모용 '연'과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국가적 모순을 해결하였고, 이는 고구려가 급성장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70) 공석구, 2003, 앞의 논문.

[ABSTRACT]

A study on the wars between Koguryo and Moyong
'Yeon' and their meanings

Kong, Seok-Koo

The history of Koguryo is recently rising as a big issue in our society, for the subjects of the history of Koguryo studied under the extensive support by Chinese government have been thoroughly revealed. they interpret that oppositions and conflicts existed between Koguryo and Chinese dynasty are internal conflicts or the wars for unifi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if indeed, the wars between Koguryo and Moyong 'Yeon' (慕容 '燕') are either collisions between nations or ones within the country by approaching the aspects of the wars from the point view of the war histor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wars with Moyong 'Yeon' each of which forms the backbone in the history of Koguryo both in a concentrated way and in a deep one. It, hence, examines the backgrounds, processes, and influences of the wars that Koguryo had to fight with Moyong 'Yeon'; attempts to clarify how the inverse relationship of the international situation and mutual recognition came to stir large-scale war and how they functioned to the change of society & culture in Koguryo.

The process by which Koguryo and Moyong 'Yeon' take advantage of the decline of Chin. The conflict of Koguryo and Moyong 'Yeon' arised Liao-tung(遼東) regions.

1) In 342, the war between Koguryo and Jeon-yeon(前燕). While Jin(晉) Dynasty had been falling, these two countries came into collision in Liao-tung region. Koguryo disposed its main force on the northern road as Jeon-yeon expected, and defeated by Jeon-yeon force that had attacked from the southern road. Koguryo could not help groping for an amity with Jeon-yeon to escape from the crisis that had befallen it. I analyzed the process of this war. As a result, I was able to obtain my own conclusion of the southern road and the northern one. The Emperor, Moyong, who had entered into Young Ryeong Jin(永陵鎮) through a steep gorge penetrating into Koguryo divided his army into two. He ordered the first army to attack through the northern road(Sin Bin(新賓) - Hong Seung(紅升) - Wang Cheong Mun(旺淸門) - Tong Hwa(通化). The other one which was the main force of Jeon-yeon attacked through the southern road. The armies of two countries collided each other in Mokjeo(木底) region. It is considered that Jeon-yeon force that had defeated Koguryo one completely moved forward continually, entered into Hon river(渾江) through Hwanin(桓仁) region, and then went over Singae river(新開河) and Pancharyeong(板岔嶺), and finally seized Hwandosung(丸都城).

2) In 385, the war between Koguryo and Hu-yeon(後燕). Koguryo that had been closely observed the political changes in

Jungwon region attacked Liao-tung region and took over it. Koguryo took possession of Liao-tung force and even captured Hyeondo-kun(玄 郡) region. With this war as a momentum, Koguryo came to seize Liao-tung region completely. Gokuryeo's seizure of Liao-tung region had lasted until Koguryo was destroyed, and caused Koguryo to stand up against many dynasties that flickered in China by forming the border in Liao-ha(遼河). Koguryo internally came to appear on the stage as a great power in the northeast Asia by capturing Liao-tung region.

The newly secured regions, and obtained technology & information that Koguryo had gotten while it undertook the wars against midlands empire became nutrients for the social and cultural development in Koguryo since then.

keywords

Koguryo, Moyong 'Yeon', war, the northern and southern route, Liao-tung

고구려 · 수 전쟁의 배경과 전개

-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

김 창 석 | 강원대학교 역사교육과 조교수

I. 머리말

고구려 · 수 전쟁(이하 高隋 전쟁으로 약칭)은 598년 발발하여 4차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614년에 終戰된다. 그러나 이후 일어난 高唐 전쟁까지 시야에 넣게 되면 668년 고구려가 멸망할 때까지 70년이라는 장기에 걸쳐 지속된 국제전의 서막이라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미가 중대하다.

고구려인에게도 이 전쟁은 깊은 인상을 남겼으니, 일종의 전승 기념물로 京觀을 쌓았는데 唐이 631년 사신을 보내 이것을 파괴하자 이를 침략으로 간주하여 곧 천리장성을 쌓은 바 있다.¹⁾ 수에 대한 승리를 상징하는 경관은 단순한 기념물로 그치지 않고 중국 세력에 대한 정신적 방어벽 역할을 한 듯하다.²⁾ 618년에는 倭에 사절을 보내 수 양제의 대군을 격파한 사실을 알리면서 그 포로와 악기, 무기를 증여하기도 했다.³⁾ 근래 중국 학계 일각에서 고구려

1) 『三國史記』 卷20, 高句麗本紀8, 榮留王 14年.

2) 金昌錫, 2005, 「古代 領域 觀念의 形成과 王土意識」, 『韓國史研究』 129, 16~17쪽.

3) 『日本書紀』 卷22, 推古天皇 26年 8月.

가 중국의 지방정권이고 고수 전쟁도 이를 통합하기 위한 내전 혹은 통일전쟁의 일환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⁴⁾ 이처럼 왜와 같은 제3국과 독자적인 외교 활동을 벌이고 對隋 전승 사실을 과시한다거나 그 기념물을 세운 나라를 중앙 정부의 통일전쟁에 맞선 지방정권으로 볼 수 없음은 자명하다.

수나라 대군의 패배는 당시대는 물론 후대의 중국인에게도 큰 충격으로 여겨졌다. 조선 전기의 學人 崔溥가 중국에 표착하여 여행하던 중 蘇州에서 명나라 관리를 만나 나눈 대화는 이를 잘 보여준다.

“당신 나라는 무슨 비결로 수·당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소?”

“지략 있는 신하와 용맹한 장수가 군사를 잘 지휘했으며, 병졸들은 모두 충성스러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소. 그 때문에 고구려는 변방의 작은 나라였으나 족히 중국의 백만 대군을 두 번이나 물리칠 수 있었소.”⁵⁾

고수 전쟁은 이와 같이 고구려사와 수나라의 향후 역사 전개 뿐 아니라 후대 지식인들의 역사 인식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고수 전쟁에 대해서는 그간 적지 않은 연구가 이뤄졌다. 전쟁의 제반 문제에 대한 개설적인 연구가 제출된 바 있고,⁶⁾ 특히 전쟁의 배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기울여졌다. 책봉체제론, 중화사상론, 주변국 동맹론, 수의 고구려 인식론, 수의 정권구조론, 말갈·거란을 둘러싼 갈등설 등이 제기된 바 있다.⁷⁾ 그리고 최근에는 그 이념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4) 張博泉, 1985, 『東北地方史稿』, 吉林大學出版社, 158~168쪽; 楊秀祖, 1996, 「隋煬帝征高句麗的幾個問題」, 『通化師院學報』 1996-1, 49~55쪽.

5) 최부 지음, 서인범·주성지 옮김, 2004, 『표해록』, 한길사, 246쪽.

6) 李丙燾, 1975, 「高句麗對隋唐抗戰」,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임기환, 1994,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 『한국사』 4, 한길사; 李昊榮, 1996, 「수·당과의 전쟁」, 『한국사』 5, 국사편찬위원회.

7) 전쟁의 배경에 관한 그간의 연구 성과에 대해서는 金子修一, 2001, 「隋唐交代と東アジア」, 『隋唐の國際秩序と東アジ』, 名著刊行會, 108~110쪽 및 여호규, 2002, 「6세기말~7세기초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고구려 대외정책의 변화 - 대수관계(對隋關係)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46, 2~4쪽 참조.

연구도 제출되었다.⁸⁾

그러나 고수 전쟁의 배경은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깊이 있게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양제가 대군을 동원하여 고구려를 원정할 명분을 제공한 裴矩의 정벌 이념은 중국의 전통적인 대외관의 양 축인 華夷論과 德化論의 흐름 속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극단적 이념이 나오게 된 현실적 배경으로서 경제적 요인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이에 대해서도 언급이 이뤄진 바 있지만,⁹⁾ 요서 지역의 교역 양상은 4세기 이래 고구려 대외 교역체계의 발전 과정 속에서 그리고 이를 잠식하려는 수의 입장 양자를 돌아시아 세계라는 큰 틀 속에서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고수 전쟁의 배경을 고찰할 때 수차에 걸쳐 반복적으로 대규모 戰役이 이뤄진 이유를 보다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이념적 · 경제적 이유가 절박하다고 하더라도 전쟁의 승패에는 군사력과 그 운용 능력 여하가 크게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면에서 고수 전쟁의 전개 과정을 양측의 전략과 전술에 초점을 맞춰 검토해보려고 한다. 양측 전술의 특징과 한계는 이후 高唐 전쟁이 전개되면서 당의 전략이 바뀌어가는 양상을 보면 선명하게 드러나리라 생각한다.

8) 윤용구, 2005a, 「隋唐의 對外政策과 高句麗 遠征 - 裴矩의 '郡縣回復論'을 중심으로」, 『북방사논총』5, 고구려연구재단; 박한제, 2006, 「隋唐 世界帝國과 高句麗 - 朝貢秩序 및 羈縻體制와 관련하여」, 『한국 고대국가와 중국왕조의 조공 · 책봉관계』, 고구려연구재단.

9) 노태돈, 1999, 「6세기 중반의 정세변동」,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李成制, 2000, 「嬰陽王 9年 高句麗의 遼西 攻撃」, 『震檀學報』90. 그리고 임기환, 1994, 앞의 논문, 168~169쪽도 전쟁의 경제적 배경에 대해 간략히 지적하고 있다.

II. 高隋 전쟁의 배경

1. ‘大一統’의 이념

수나라는 남북조의 분열시대를 마감하고 통일 제국을 건설했다. 그러나 수 정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이종족 국가까지 포괄하는 광의의 천하¹⁰⁾ 통일 즉 ‘大一統’을 지향했다.¹¹⁾ 그 영역을 둘러싸고 突厥, 吐谷渾, 契丹, 高句麗 등 여러 족속과 나라들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다. 비록 중원을 장악한 統一帝國이라고 하더라도 주변 세력과 어떠한 관계를 맺을 것인가는 제국의 안정과 발전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였던 것이다.

역대 중국 왕조는 이를 위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대처하였는데,¹²⁾ 주지하듯이 주로 조공·책봉 관계라는 외교적인 상하 질서를 통해 이를 해결하려 하였다.¹³⁾ 여기에다 큰 나라는 작은 나라를 사랑하고, 작은 나라는 큰 나라를 섬겨야 한다[字小事大] 유교적 윤리를 끌어다 붙여 국제적 불평등관계를 합리화했다.

이러한 조책 관계의 저변에는 周代 이래 중국의 전통적인 대외정책 논리

10) 고대 중국인이 생각한 天下의 범위는 중층적이고 유동적이어서 하늘 아래의 모든 지상 세계, 天命을 받은 天子가 다스리는 공간(中國, 海內, 九州) 그리고 夷狄의 세계(四海)와 중국을 포함한 공간 등을 뜻했다(李成珪, 1992a, 『中華思想과 民族主義』, 『哲學』 37, 33~40쪽). 광의의 천하는 이 가운데 세 번째 것을 가리킨다.

11) 중국의 천자가 천하를 통일해서 여러 종족과 국가를 그 치하에 포섭해야 한다는 이념은 이미 전국시대에 제기되어 주로 公羊學者들에 의해 체계화되었다(堀敏一, 1993, 『中華思想と天下觀念』, 『中國と古代東アジア世界 - 中華的世界と民族』, 岩波書店, 58~59쪽).

12) 이로 인해 맺어진 중원 왕조와 주변국의 관계는 그 밀접도에 따라 영역화 즉 내지화 → 羈縻 지배 → 책봉 관계 → 단순 조공 관계로 구분하기도 한다(栗原益男, 1979, 『七・八世紀の東アジア世界』, 『隋唐帝國と東アジア世界』, 汲古書院, 140~141쪽).

13) 朝冊 관계의 기원과 변천에 관해서는 西嶋定生, 1962, 『六~八世紀の東アジア』, 『岩波講座 日本歴史』 古代2, 岩波書店과 金翰奎, 1982, 『古代 中國的 世界秩序 研究』, 一潮閣 및 노태돈, 2006, 『고구려와 북위 간의 조공·책봉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 고대국가와 중국왕조의 조공·책봉관계』, 고구려연구재단 참조.

가운데 하나인 華夷論이 깔려 있었다. 즉 中華와 夷狄를 준별하지만 오랑캐 땅을 직접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존속시킨 상태에서 중화제국이 문화 선진국으로서의 명분상의 우위만을 지킨다는 것이다. 중화 조정은 조공 · 책봉 관계라는 외교 형식을 통해 멀리 떨어진 이민족 국가를 통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수직적 국제질서는 삼국시기 중국과의 관계에서 보듯이 명분과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 실제로는 각국의 현실적인 힘과利害에 따라서 외교 관계가 좌우되었다.¹⁴⁾

그런데 수나라는 형식적인 상하 관계에 만족하지 않고 명실상부한 지배 · 존속 관계를 원했다.¹⁵⁾ 특히 고구려와 같이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배후에서 수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무력 정벌을 통해서 정권을 전복하고 이를 직접 지배하려는 욕구가 절실했을 것이다. 이를 이념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또 하나의 대외정책 논리인 德化論이다. 이에 따르면 중국의 天子가 온 천하의 주인이고 주변국의 人民은 그 지배를 받아야 할 어린아이 赤子로 간주된다.¹⁶⁾ 그러므로 중국 황제는 자신의 德 즉 법률과 무력을 가지고 세계를 敎化하는 최고의 지배자가 되어야 한다. 이는 바로 주변 국가와 종족에 대한 정복과 통치를 의미하며, 더 이상 華와 夷의 구별과 차이는 무의미해지고 이들 모두는 황제의 臣民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덕화론에 의해 주변 지역에 대한 정치적 압력과 무력 침공이 합리화되고 郡縣 지배로 실현되기도 했다.¹⁷⁾

그런데 실제 역사의 전개를 보면, 역대 중국 왕조의 통일의 대상 즉 ‘천하’라고 불린 지역은 秦이 통일한 지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념상으로는 천하에 四夷도 포함되지만 적극적인 통합의 대상으로 설정되지 않았고, 조공 · 책봉 체제를 통해 臣屬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만족했다.¹⁸⁾ 수 조정도

14) 盧泰敦, 1984, 「5~6世紀 東아시아의 國際情勢와 高句麗의 對外關係」, 『東方學志』 44.

15) 박한제, 2006, 앞의 논문, 135~136쪽.

16) 수 문제가 평원왕에게 보낸 璽書의 다음 구절을 보라. “朕於蒼生 悉如赤子 賜王土宇 授王官爵 深恩殊澤 彰著遐邇”(『隋書』 卷81, 列傳46, 東夷, 高麗).

17) 金昌錫, 2002, 「唐의 東北亞 戰略과 三國의 對應」, 『軍史』 47, 242~243쪽.

18) 李成珪, 1992b, 「中國帝國的 分裂과 統一 - 後漢解體 이후 隋 · 唐 統一의 形成

덕화론 일색이었던 것은 아니어서 劉炫의 撫夷論¹⁹⁾과 같은 온건한 입장도 있었고, 高穎은 598년, 耿詢은 611년에 각각 고구려 정벌을 반대한 바 있다.²⁰⁾

덕화론에 입각한 고구려 정벌론은 양제 대인 607년에 裴矩가 본격 제기하였다.

배구가 上奏하기를 “고구려의 땅은 본래 고죽국이 있던 곳입니다. 周代에 그 땅을 기자에게 봉했고 漢代에는 3군으로 나누었으며 晉氏 또 한 요동을 다스렸습니다. 지금 신하가 되지 않고 따로이 外域이 되었으니 先帝가 근심하여 정벌하려고 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다만 楊諒이 불초하여 출병했지만 공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폐하의 시기에 와서도 (고구려가 - 필자. 이하 동일) 섬기지 않는 것을 즐겨하니 이 예의의 땅이 오랑캐의 땅으로 바뀌도록 두시겠습니까? 지금 그 使者가 돌궐에 와서 啓民可汗이 (수와) 나라를 합치고 교화에 따르는 것을 직접 보았으니, 반드시 皇靈의 遠暢을 두려워하여 뒤늦게 굴복하면 그보다 앞서 망하게 됨을 염려할 것입니다. 入朝하도록 위협하면 반드시 이를 것입니다”고 했다.²¹⁾

그리고 고구려 왕의 親朝를 요구하고 듣지 않으면 돌궐을 동원하여 정벌하는 방책까지 제시했다.²²⁾ 이를 양제가 받아들여 고구려 사신에게 그대로 전달했고, 611년 선포한 東巡 조칙에서는 이때 제시한 친조 요구를 영양왕이 거부한 것을 침략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²³⁾

1차 전쟁은 고구려의 선제 공격으로 시작되었으므로 수나라가 주도적으로 원정을 개시한 것은 양제대의 2차 전쟁부터인데 위의 상주가 그 시발이 되었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한다. 고죽국, 기자, 한4군 등을 거론하여 고구려와의 역사적 연고를 제시한 것은 새로운 면이 있지만, 결국 이들에 의해 뿌려진

過程을 중심으로, 『歷史上의 分裂과 再統一』上, 一潮閣, 80쪽.

19) 『隋書』卷75, 列傳40, 儒林, 劉炫.

20) 『隋書』卷41, 列傳6, 高穎; 같은 책, 卷78, 列傳43, 藝術, 耿詢.

21) 『隋書』卷67, 列傳32, 裴矩.

22) “帝曰 如何 矩曰 請面詔其使 放還本國 遣語其王 令速朝覲 不然者 當率突厥 即日誅之 帝納焉”.

23) 『隋書』卷3, 帝紀3, 煬帝 上, 3年 8月과 7年 2月.

德化의 씨앗이 고구려의 지배에 의해 더럽혀지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전제에 불과하다.

이는 한 때 당 고조가 갖고 있던 인식과 분명히 다르다.

“이름과 실체는 모름지기 부합해야 한다. 고구려는 수나라의 신하를 일컬으면서 마침내 양제에게 맞서려고 했으니 어찌 신하라고 할 수 있겠는가? 짐은 만물을 존중하고 교만하고자 하지 않는다. 단지 세계에 의거하여 인민을 함께 평안케 하는 데 힘쓸 뿐, 어찌 반드시 (고구려로 하여금) 신하를 일컫게 하여 스스로를 높이겠는가.”²⁴⁾

수의 고구려 침공 실패를 경험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고조는 고구려를 복속시킬 생각이 없음을 밝혔다. 고구려가 당에게 적대적이지 않는 한 고구려 중심의 세력권과 공존할 뜻을 천명한 것이다. 이는 남북조시기의 화이론으로의 복귀임과 동시에 현실의 역관계를 인정한 결과이다. 그러나 이때도 덕화론자는 있어, 고구려 땅이 원래 기자와 한 군현의 교화가 미친 지역임을 지적하며 고조의 인식을 비판했다.

“만약 고구려를 (중국과) 대등한 예법으로 대우한다면 사방의 오랑캐가 어찌 (우리를) 우러러 보겠습니까? 또한 중국과 夷狄의 관계는 태양과 못별의 관계와 같으니 어느 것을 높이고 어느 것을 낮출 수 없습니다. 고구려를 다른 오랑캐처럼 대우하십시오.”

이 언급에서 溫彦博은 배구의 논리를 그대로 빌리고, 고구려의 ‘不臣’을 용인한다면 다른 四夷들도 중국을 이반할 우려가 있음을 덧붙였다. 비록 수나라 정벌의 무모함을 간과하고 있지만 사방에 이종족 국가들이 버티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이 또한 현실의 일부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입장은 곧 군사적 침략을 정당화하는 논리²⁵⁾로 이어지게 된다.

24) 『舊唐書』卷61, 列傳11, 溫大雅 弟彦博.

25) 『舊唐書』卷66, 列傳16, 房玄齡, “彼高麗者 邊夷賤類 不足待以仁義 不可責以常禮”.

배구의 견해로 돌아가 보자. 夷狄化된 고구려를 옛 성현의 땅으로 되돌리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朝覲을 통해 스스로 中華의 제도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天子가 직접 순행하여 강제로 실시하는 것임을 제시했다. 그런데 양제는 일단 첫 번째 방법을 택하면서도 의례적인 조공 사절 파견이 아닌 국왕의 親朝를 요구한 것이다. 이는 600년 1월 견사한 이래 당시까지 수와 교섭을 중단한 고구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극단적인 요구이다. 더욱이 남북조시기 天孫意識에 바탕한 독자적인 天下觀을 갖고 있던 고구려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

裴矩와 煬帝의 제안은 어차피 실현 가능성이 낮은 형식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곧 그들이 고구려를 무력으로라도 정복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굳히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 아닐까? 양제는 즉위 초부터 “遼·碣에 뜻을 두어 軍府를 증치하고 땅을 쓸듯이 병력을 늘렸으니 이로부터 조세 수입이 점차 줄어들었다” 함²⁶⁾은 이를 증명한다. 따라서 親朝 요구는 무력 정벌을 합리화하기 위한 구실을 찾기 위해 일방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사실상 선전 포고나 다름없다고 생각된다.

한편으로는 정벌 대상국의 폭정을 종식시키고 백성들을 위무한다는 논리로 침략을 호도하기도 했다.

(고구려는) 법령이 가혹하고 수취가 무거우며 強臣과 호족이 모두 권력을 전횡하면서 무리 이루기를 즐겨한다. 뇌물 주고받기가 시장에서 물건 사듯 하고 억울한 자는 호소할 데가 없다. 여러 해 흉년이 들어 백성들은 줄줄이 굶주리는데도 전쟁은 그칠 줄 모르고 요역은 끝나지 않았으며, 물자 수송에 힘을 다하고 몸은 구렁텅이에 구르게 되니 백성의 근심과 고통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 (짐이) 풍속을 살피려고 幽州, 朔州에 들렀으므로 인민을 조문하고 (고구려 왕의) 죄를 묻기 위해 다시 오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이에 친히 六師를 거느리고 九伐의 뜻을 펴서 그 위난을 없애고 하늘과 뜻을 함께 하여 추악한 무리를

26) 『隋書』 卷24, 志19, 食貨; 같은 책, 卷74, 列傳39, 酷吏, 元弘嗣, “大業初 煬帝潛有取遼東之意 遣弘嗣往東萊海口 監造船”도 이를 뒷받침 한다.

멸함으로써 선대의 모범을 따르겠노라.²⁷⁾

그러나 이것이 허구이며 침공의 빌미에 불과함은 644년 당 태종이 조서에서 “수 양제는 신민에게 잔혹하게 한데 비해 고구려 왕은 그 백성을 사랑하였다. 반란의 뜻을 품은 군대로 화합한 무리를 친 까닭에 이길 수 없었다”²⁸⁾라고 한 것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 儒家에서 전통적으로 주장하던 ‘弔民伐罪’의 義戰論을 동원한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수나라는 왜 이처럼 고구려를 자신의 질서 속으로 편입하려 했을까? 오랜 동안의 분열을 끝내고 대륙을 통일한 신생 제국의 야망이 주변 종족과 나라로까지 확장되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러한 ‘大一統’의 이념과 정책의 바탕에 또 다른 의도가 숨어 있지는 않을까? 아래에서는 이를 경제적 측면에 유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_ 국제 교역체제의 변동

수는 중국을 통일하고 중앙 집권적인 황제지배체제를 복구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전국적인 교통망을 구축하였다. 양제는 즉위한 해인 604년 산서 · 하남 지방과 낙양 · 장안을 연결하는 방어진 겹 육로를 건설하였다.²⁹⁾

그리고 양자강 이남의 杭州로부터 중국 대륙을 남북으로 관통하여 北京까지 이르는 대운하가 양제 때 완성되었다. 문제 개황 4년(584) 장안 大興城 ~ 황하를 연결하는 廣通渠를 개통했고, 양제 대업 원년(605)에는 淮水 ~ 황하를 연결하는 通濟渠를 완성했다. 개통 시기는 알 수 없지만 610년에는 양자강 ~ 항주를 잇는 江南河를 정비하고, 대업 4년(608)에는 황하 ~ 涿郡(지금의 북경 부근)을 잇는 永濟渠를 열었다.³⁰⁾ 587년 개통한 山陽瀆(장강의 揚州 ~

27) 『三國史記』 卷20, 高句麗本紀8, 嬰陽王 23年.

28) 『三國史記』 卷21, 高句麗本紀9, 寶藏王 3年.

29) 李成珪, 1992b, 앞의 논문, 196쪽.

30) 누노메 조후 · 구리하라 마쓰오 외 지음 · 임대희 옮김, 2001, 『중국의 역사 - 수당오

회수의 山陽)처럼 이미 춘추시대 吳王 夫差가 만들었다는 溝의 옛 수로를 따라 확대한 경우도 있지만,³¹⁾ 문제·양제대를 거쳐 강남과 화북을 잇는 경제 유통의 대동맥이 건설되었음은 분명하다.

부녀자까지 동원하여³²⁾ 대역사를 일으킨 이유는 군수 물자 보급로를 확보 한다는 전략적 목적과 함께, 강남의 경제력을 흡수하여 북쪽에 치우쳐 있는 대흥성·낙양성의 정치 거점에 공급하기 위한 유통로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양제는 즉위하기 전인 590년부터 10여 년 동안 揚州 총관을 역임했고 수차례 강남을 巡行했으며, 610년에는 장안·낙양과 함께 양주를 수도로 삼아 三京制를 실시한 바 있다.³³⁾ 이와 함께 대운하가 통하는 낙양에는 곡물 창고인 河陽倉, 洛口倉이 있었는데, 부근에 특별 군부인 都尉府를 설치하여 東都(낙양) 방어와 함께 운하와 창고 시설을 보호하고자 했다.³⁴⁾ 이를 통해 그가 漕運을 활용한 물자 유통과 집중을 도모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낙양에 동경 건설이 완료된 후 천하의 富商大賈 수만 家를 이주시킨 것³⁵⁾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낙양성은 강남에서 흡수하여 올라오는 막대한 양의 稅米 등 각종 물자를 집적하기 위한 중계 기지로서 건설되었던 것이다.³⁶⁾

대운하를 활용한 국내 유통망의 확충과 더불어 수 왕실은 주변국과의 대외교역망 복원 및 장악에도 腐心했다. 583년 文帝는 서남방에 있던 吐谷渾을 공격했는데, 그 나라는 “정해진 세금이 없고 상인들로부터 충당한다”라고 할 정도로 河西回廊을 통과하는 상인이나 조공 사절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었다. 또 오아시스 국가들과 중국 사이에서 교역을 중개하기도 했다.³⁷⁾ 수는 토욕혼을 공격하여 서변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함은 물론 서역과의 동서 교역로를 장

대], 해안, 35쪽.

31) 胡戟, 『隋煬帝與大運河』, 『煬帝與揚州』, 江縣文物管理委員會, 39~43쪽.

32) 『隋書』卷24, 食貨志.

33) 丁載勳, 2004, 『隋煬帝(604~617)의 對外政策과 天下巡行』, 『中國史研究』 33, 36~44쪽.

34) 김선민, 2003, 『隋煬帝의 軍制改革과 高句麗遠征』, 『東方學志』 119, 155~159쪽.

35) 李成珪, 1992b, 앞의 논문, 197쪽.

36) 愛宕元, 1996a, 『隋代前期の政治 - 文帝期』, 『中國史』 2, 山川出版社, 292쪽.

37) 『隋書』卷83, 西域列傳, 吐谷渾.

악하고자 한 것이다.³⁸⁾

양제의 서역 경영에 자문 역할을 한 인물이 대고구려 강경책을 주장한 裴矩였다는 사실³⁹⁾도 흥미롭다. 양제는 배구로 하여금 張掖에서 이뤄지는 서역 여러 나라와의 교역을 관장하도록 파견했다. 그는 서역을 경영하려는 양제의 뜻을 알고, 상인들에게 그 나라의 풍속과 산천, 물산 등을 물어 44개국의 사정을 지도와 함께 『西域圖記』 3권으로 지어 바쳤다. 그 서문이 『수서』 배구전에 실려 있다.

황제께서는 하늘의 뜻을 받들어 만물을 육성하심에 華와 夷의 차이가 없으니, 온 세상의 백성들이 (이 같은 은혜를) 사모합니다. 바람이 불어 미치고 해가 비치는 곳까지 職貢이 모두 통하여 먼 곳이라도 이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⁴⁰⁾

다분히 수사적인 표현으로 중화 천자의 교화가 異域에까지 미치고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도 대외교역망의 확장을 夷의 中華化라는 정치·문화적 논리로 분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6세기 중반 북방 초원지대에 등장하여 隋朝와 상쟁을 벌인 돌궐에 대해서도 유사한 양상을 찾아볼 수 있다. 돌궐은 영역을 확대하면서 포섭한 소그드 상인들을 지원하여 동서 교역을 활성화 시켰다. 소그드인의 원주지는 현재 우즈베키스탄에 해당하는 아무다리야강과 시르다리야강의 중간 지역으로서 이 소그디아나 지역은 동서로는 중국 - 서아시아 - 유럽을 잇고, 남북으로는 인도 - 북아시아 초원 지대를 잇는 교통의 요충이었다. 이들은 기원전부터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 그리스, 스키타이 그리고 기원후에는 쿠산왕조, 서돌궐의 침략과 지배를 받았다. 여타 오아시스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관개농업과 목축

38) 丁載勳, 2001, 「隋文帝(581~604)의 統一 指向과 對外政策 - 西北民族에 대한 對策을 중심으로」, 『中國史研究』 13, 86쪽.

39) 愛宕 元, 1996b, 「隋代後期の政治 - 煬帝期」, 『中國史』 2, 山川出版社, 303쪽.

40) 『隋書』 卷67, 列傳32, 裴矩, “皇上膺天育物 無隔華夷 率土黔黎 莫不慕化 風行所及 日入以來 職貢皆通 無遠不至”.

을 하며 생활했고 과잉 인구는 수공업과 상업에 종사했는데, 특히 원거리 교역에 능하여 광범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원격지 교역에 종사했다.⁴¹⁾ 이들을 활용하여 권력 기반을 강화하려고 했던 돌궐의 카간은 소그드 상인과 교역할 물품을 중국 왕조로부터 공납으로 받아내고자 압력을 가하곤 했다.⁴²⁾ 그렇다면 北周·北齊로부터 당대까지 이어진 돌궐과의 상쟁 배경에는 소그드인의 활동 범위를 둘러싸고 대외교역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시도도 자리 잡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수의 동방 지역을 검토해보자. 탁군 북방에 奚, 靺鞨, 室韋가 있고 그 동쪽으로 거란과 말갈 그리고 다시 그 남쪽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와 바다 건너 왜가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583년 이후 속말갈의 돌지계 집단이 隋로 들어갔으며, 584년 거란 8부의 하나인 莫賀弗과 奚가 수에 조공함으로써 수가 요서 지역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593년에는 거란, 해, 습, 실위가 수에 견사했고, 608년에는 이들이 동돌궐에 복속했다. 隋의 동북방에 있던 제종족에 대해서는 수와 고구려 그리고 돌궐 삼자 간에 쟁탈전이 치열했고 특히 거란, 말갈에 대해서는 수와 고구려가 대립하고 있었다.⁴³⁾

고구려의 대외교역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별로 없지만 南朝와의 교역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자료가 있다. 劉宋代 인물인 劉敬叔의 글이 그것이다.

담비가 고구려에서 산출된다. 항상 어떤 짐승(物)이 (담비와) 함께 구덩이 속에 사는데, 모습은 사람과 비슷하고 키는 3척이다. 능히 담비를 잡을 수 있다. 손칼을 좋아하여 그 습속에 다른 사람이 담비 가죽을 얻고자 하면 칼을 그 구덩이 입구에 던져 놓는다. 그 짐승이 밤에 구덩이를 나와 담비 가죽을 칼 옆에 놓아두면, 기다리던 사람이 가죽을 가져

41) 金昌錫, 2006a, 「8~10세기 이슬람 제종족의 신라 來往과 그 배경」, 『韓國古代史研究』 44, 한국고대사연구, 105~109쪽.

42) 金浩東, 1993, 「北아시아 遊牧國家의 君主權」, 『東亞史上的 王權』, 한울, 146~149쪽.

43) 李龍範, 1959, 「高句麗의 遼西進出企圖와 突厥」, 『史學研究』 4, 68~73쪽; 노태돈, 1999, 앞의 책, 351~353쪽.

가고 그 뒤에야 비로소 칼을 집어 간다.⁴⁴⁾

이 글이 실린 『異苑』은晉 · 宋代의 괴이한 이야기를 모아 놓은 일종의 소설이다.⁴⁵⁾ 하지만 이를 단순한 가공의 사실로 제쳐놓을 수 없는 것은, 이렇게 파트너가 서로 대면하지 않고 벌이는 교역 형태는, 異人의 사악한 시선을 피하기 위한 침묵교역(Silent Trade)으로서 세계 각지에서 그 유례를 확인할 수 있기⁴⁶⁾ 때문이다.

단 담비 가죽은 고구려 산품이 아니고 그 전부터 유명했던 ‘挹婁貂’로 보아야 한다. 고구려인이 읍루 지역과 교역하여 담비 가죽을 입수한 후 이를 중국에 중개했으며,⁴⁷⁾ 遠方에 있던 읍루에 대해 지식이 없던 남조인이 이를 고구려산으로 오해했던 것이다. 이를 제외하면 위의 자료는 유송대 이전 ‘읍루족 말갈 - 고구려 - 남조’ 사이에 이뤄진 국제교역의 일면을 담고 있는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고구려는 말갈족의 담비를 어떤 경로로 입수하였을까? 고구려는 담비 가죽을 공납 등을 통해 무상으로 얻지 못하고 교역을 통해 입수했다.⁴⁸⁾ 『이원』의 기록은 이를 가리킨다.

한편 이 시기 중국에서 고구려로 들어온 물품으로는 도자기가 있다. 최근 집안 국내성 안에서 東晉製 靑磁가 출토되었다.⁴⁹⁾ 아직 고구려 지역에서 출토된 중국 도자의 예가 많지 않아 단정할 수 없지만, 국내성이나 평양성의 왕족과 귀족들이 사용한 중국 도자기는 위세품이면서 동시에 사치품으로서 남조

44) 『異苑』 卷3, “貂出句麗國 常有一物共居穴 或見之 形貌類人 長三尺 能制貂 愛樂刀 子 其俗 人欲得貂皮 以刀投穴口 此物夜出穴 置皮刀邊 須人持皮去 乃敢取刀”.

45) 神田信夫 · 山根幸夫 編, 1989, 『中國史籍解題辭典』, 燎原書店, 3쪽.

46) 相田洋, 1997, 「鬼市と邪視」, 『異人と市 - 境界の中國古代史』, 研文出版.

47) 松田壽男, 1962, 「東西交渉とシベリア森林民」, 『東西文化の交流』, 至文堂, 151~152쪽.

48) 459년 숙신이 고구려를 통해 宋에 楛矢石弩를 바친 것(『宋書』 卷29, 志19, 符瑞 下, 孝武帝 大明 3年)도 고구려를 매개로 한 교역체계를 시사해준다.

49)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 集安市博物館 編, 2004, 『國內城 - 2000~2003年集安國內城與民主遺址試掘報告』, 文物出版社.

와의 교역을 통해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더불어 비단과 같은 중국제 사치품은 고구려 산품은 물론 앞서 언급한 담비 가죽과 같은 희귀품과 교환되는 남조의 유력한 교역품이었다. 고구려인은 철제 공구나 무기를 가지고 말갈 지역에 가서 담비 가죽과 바꾸고, 다시 이를 남조에 되팔아 중국제 사치품과 교환하는 일종의 삼각 무역을 전개했던 것이다.⁵⁰⁾

6세기 후반 고구려는 南室韋와도 교역을 벌였다.

실위는 5부로 나뉘어 있고 …… 대군장이 없으며 인민은 빈약하다. 돌궐이 吐屯 셋을 두어 이들을 거느리도록 했다. 남실위는 거란의 북쪽 2천 리에 있으며 토지는 습하다. …… 나라에 鐵이 나지 않아 고구려로부터 이를 구한다.⁵¹⁾

고구려가 부여성 일대에 진출하면서 기존에 돌궐의 지배를 받던 남실위에 철을 공급하면서 이 지역과 관계를 맺은 것이다.⁵²⁾ 실위에서도 담비가 난다고 하므로⁵³⁾ 고구려와 교역한 실위의 담비 가죽이 남조로 공급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고구려와 말갈·남실위 그리고 남조는 상호 거리가 멀다는 교역상의 단점이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간 교역 거점이 필요했고 그 대상지의 하나로 요서 지역을 주목했던 듯하다. 고구려는 요서 진출의 거점으로 武厲邏(지금의 요녕성 新民市 소재)를 두었고⁵⁴⁾ 그곳 거란족 거주지에 전진 기지가 존재했을 가능성도 있다.⁵⁵⁾

대외교역망의 장악과 확충을 위해 무력 동원까지 불사하던 隋가 이를 간

50) 이상은 金昌錫, 2004, 「高句麗 초·중기의 對中 교섭과 교역」, 『新羅文化』 24 참조.

51) 『隋書』 卷84, 列傳, 室韋.

52) 노태돈, 1999, 앞의 책, 424~426쪽.

53) 『北史』 卷94, 列傳82, 室韋國(南室韋).

54) 무려라의 설치 시점에 대해 北魏 孝昌 연간(525~527) 고구려가 요서를 침공하여 설치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井上直樹, 2001, 「『韓暨墓誌』を通してみた高句麗の對北魏外交の一側面 - 六世紀前半を中心に」, 『朝鮮學報』 178, 28쪽).

55) 노태돈, 1999, 앞의 책, 411쪽.

과할 리 없다. 590년 무렵 수 문제는 營州總管府를 설치하여 요서 진출의 거점으로 삼았다.⁵⁶⁾ 그 치소가 있던 柳城(지금의 朝陽市)은 6세기 후반 이래 교역과 교통의 요지로서 이후 遼西郡이 설치되는 곳이다.⁵⁷⁾ 수는 영주총관부를 설치함으로써 고구려와 돌궐을 견제하는 전략적 거점은 물론 이를 통해 주변 지역으로까지 연결된 교역망을 장악하려고 한 것이다.⁵⁸⁾ 수나라는 이처럼 주변 諸族에 대한 정복과 복속을 통해 교역의 이익도 확보하려 했기 때문에 교통로의 건설과 대외 전쟁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588년 陳에 대한 전면 공격을 단행하기 전 해에 회수와 장강을 잇는 溝, 즉 산양도를 완공한 것은 전쟁의 보급로를 확보하기 위한 군사 목적 외에 통일을 완성한 후 강남을 포괄하는 전국적 유통망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생각되며, 황하와 탁군을 잇는 永濟渠를 건설한 것도 고구려 정벌을 위한 전략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었다.⁵⁹⁾

그런데 589년 남조의 陳이 멸망함으로써 고구려 대외교역의 한 축이 사라졌다. 더욱이 이어서 영주총관부가 설치됨으로 인해 고구려의 대외 교역체계는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598년 고구려가 수를 선제 공격할 때 영주를 택한 것은(후술) 요서 지역의 주도권 장악이라는 상징적 의미와 함께 위축된 교역망을 회복하려는 의도가 작용했던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전쟁의 배경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하여 그 전개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한편 윤용구, 2005b, 「고대중국의 동이관(東夷觀)과 고구려-동이교위(東夷校尉)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55 는 고구려가 5세기 후반 대릉하 동쪽에서 시라무렌하 방면으로 영향력을 확대했다고 보았다.

56) 李成制, 2000, 「嬰陽王 9年 高句麗의 遼西 攻擊」, 『震檀學報』 90, 12쪽.

57) 노태돈, 1999, 앞의 책, 426~428쪽.

58) 영주총관 韋藝가 산업을 일으키고 北夷와 교역하여 재부를 축적했고(『隋書』 卷47, 列傳12, 韋藝), 그 동생 韋沖이 다시 영주총관이 되어 595년 거란·말갈을 위무하고 해·습을 조공토록 한 사실(『隋書』, 卷47, 列傳12, 韋沖)도 이를 시사해준다.

59) 愛宕 元, 1996a, 앞의 논문, 292~293쪽.

Ⅲ. 전쟁의 전개 과정과 전술

1. 수의 부대 편성과 진군로

對隋 전쟁은 고구려의 선제 공격으로 시작되었다. 영양왕 9년(598) 말갈의 기병 1만여 명이 요서 지역을 공격함으로써⁶⁰⁾ 고수 전쟁의 막이 오르는 것이다. 영주총관 韋沖이 이를 격퇴했다고 하므로 이 때 고구려군의 타격 대상은 영주 총관부였을 가능성이 높다.⁶¹⁾

요서 경영과 교역의 거점이었던 영주가 공략 당하자 文帝는 그 해 2월 수군과 육군 30만을 동원하고 6월에는 영양왕에게 주었던 책봉호를 박탈했다.⁶²⁾ 막북의 돌궐과 대결을 벌이는 상황에서 30만 대군을 고구려 원정에 동원한 것은 건국 후 20년이 채 되지 않는 신생 수나라에게 동방의 정세 안정과 나아가서는 이 방면으로의 세력 확장이 얼마나 중요했던가를 보여준다.

隋軍의 사령관은 漢王 諒과 王世積⁶³⁾이었지만 실질적인 지휘권은 梁諒이 갖고 있었던 것 같다. 그는 문제의 막내 아들로 597년 並州總官이 되어 영주를 포함한 52주를 관장하고 있었기⁶⁴⁾ 때문이다. 당시 부대 편성을 살펴보면, 行軍元帥 양량과 왕세적이 휘하에 육군과 水軍을 거느렸으며 수군은 水軍總管 周羅 가 지휘했다는 정도밖에 전하는 자료가 없다. 그러나 그 進路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하다. 598년 6월에 육군이 臨 關을 출발했다고⁶⁵⁾ 하니 고구려군의 영주 공격 직후인 2월부터 약 5개월만에 병력을 동원

60) 『隋書』卷81, 列傳46, 東夷, 高麗, “明年 元率靺鞨之衆萬餘騎 寇遼西 營州總管韋沖擊走之”.

61) 李成制, 2000, 앞의 논문, 19쪽.

62) 『隋書』卷2, 帝紀2, 高祖 下, 18年, “二月 甲辰 幸仁壽轟 乙巳 以漢王諒爲行軍元帥 水陸三十萬 伐高麗 …… 六月 景寅 下詔 黜高麗王高元官爵”.

63) 『隋書』卷40, 列傳5, 王世積.

64) 『隋書』卷45, 列傳10, 文四子, 庶人諒 “十七年 出爲并州總管 上幸溫湯而送之 自山以東 至于滄海 南拒黃河 五十二州盡隸焉 特許以便宜 不拘律令”.

65) 『資治通鑑』卷178, 隋紀2, 文帝, 開皇 18年.

하여 柳城 서쪽 400리 지점에 있던 임유관에 집결시킨 것이다. 그리고 유성으로 진군했다⁶⁶⁾고 하므로 육군은 '임유관 - 유성 - 요하 - 압록강 - 평양성'으로 진격하려 했던 듯하다. 한편 수군은 東萊에서 출항하여 평양성을 향하도록 했으니, 지금의 산둥반도 북쪽 해안인 掖縣에서 묘도열도를 따라 북상하여 요동반도에 이른 다음 남쪽 연안을 따라 동진한 후 한반도 서해안을 끼고 남하하여 대동강 하구에 이른 다음 이를 거슬러 올라가 평양성에 닿는 항로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 최초의 고구려 원정에서 수나라는 출정 시기를 잘못 선택하는 결정적 실수를 저질렀다.

漢王 諒의 군사가 임유관을 나왔는데 홍수를 만나고 보급이 이어지지 않아 군사들이 굶주렸으며 전염병까지 일어났다. 周羅 는 동래에서 바다에 배를 띄워 평양성으로 향했는데 또한 풍랑을 만나 많은 배가 침몰했다. 가을 9월 己丑에 군사가 돌아왔는데 죽은 자가 열에 여덟, 아홉이었다.⁶⁷⁾

임유관에서 평양성까지 이동 거리와 중간 전투를 감안하면 수개월이 소요될 것인데 음력 6~9월이라면 바로 장마와 태풍기인 것이다. 실제로 육군은 유성에 이르러 홍수를 만나고 군수품 보급이 끊어졌으며 전염병이 돌아 回軍할 수밖에 없었으며, 수군 또한 풍랑을 만나 많은 배가 침몰했다. 戰時를 잘못 선택하여 전투도 벌여 보지 못하고 출정시의 군사 태반이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영주총관부를 중심으로 한 요서 지역의 장악력도 그리 강하지 못했다. 612년 양제의 조서를 보면 "(고구려가) 거란의 무리와 함께 隋의 해안 防戍를 죽이고 말갈족과 친하여 요서를 침범했다"고 한다.⁶⁸⁾ 또 605년 돌궐병을 이용하여 거란을 공격할 때 柳城에서 돌궐과 고구려가 교역하는 것으로 위장하

66) 『隋書』卷40, 列傳5, 王世積, “及起遼東之役 世積與漢王竝爲 行軍元帥 至柳城 遇疾疫而還”.

67) 『資治通鑑』卷178, 隋紀2, 文帝, 開皇 18年.

68) 『三國史記』卷20, 高句麗本紀8, 嬰陽王 23年.

여 거란을 속였는데⁶⁹⁾ 이는 실제로 당시 양자 사이에서 교역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다. 즉 교전 상대국인 고구려가 당시 돌궐과 교역을 벌일 정도로 이곳에 대한 수의 지배는 강력하지 않았고⁷⁰⁾ 따라서 고구려의 전통적인 교역망도 상당 부분 유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607년 동돌궐 啓民可汗의 牙帳을 찾은 고구려 사신이 양제와 遭遇한 사건도 고구려와 돌궐의 긴밀한 교섭 관계를 시사해준다.⁷¹⁾

604년 즉위한 양제는 막내 동생 楊諒의 반란을 진압한 후 황제지배체제를 확립하여 ‘一統天下’를 완성하고 나아가 주변 세계까지 포괄하는 ‘大一統’의 새로운 세계질서를 구축하고자 했다. 이로 인해 서돌궐과 막북의 투르크계 부족이 약화되었고, 동돌궐의 템리스 카간은 문제대에 啓民可汗으로 책봉 받은 이후 수의 부용집단과 같은 처지에 있었다. 유리한 국제 정세가 조성되자 양제는 608년 낙양~涿郡을 연결하는 永濟渠를 착공하여 東巡을 준비했다. 그러나 돌궐의 정세가 다시 악화되고 吐谷渾 통제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北巡과 西巡을 먼저 추진함으로써 고구려 원정은 미수에 그쳤다.⁷²⁾

609년 西巡이 성공하여 동돌궐과 토욕혼, 서돌궐의 연계가 차단되었고 동서 교역이 활발해졌다. 수의 세력은 치렌(祁連)산맥을 넘어 張掖에서 서방 사절을 모아 祭典을 벌이고 상업 활동을 장려했으며, 낙양에서는 北魏代의 국제 교역이 재현되었다. 이에 양제는 610년 江都(지금의 강소성 揚州)~會稽를 연결하는 강남 운하를 정비하여 東巡 준비에 나섰다. 그리고 611년 2월 江都에서 직접 북상하면서 東巡 조칙을 반포했다.⁷³⁾

이에 따라 전쟁 준비가 본격화했다. 유주총관 元弘嗣를 보내 동래항에서

69) 『資治通鑑』卷180, 隋紀4, 煬帝, 上之上, 大業元年.

70) 노태돈, 1999, 앞의 책, 426~428쪽.

71) 이에 대해서는 고구려가 돌궐과의 연맹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여호규, 2002, 앞의 논문, 30쪽). 그러나 『隋書』卷84, 列傳49, 突厥, “先是高麗私通使啓民所 啓民推誠奉國 不敢隱境外之交”를 보면 고구려와 돌궐 사이에 수를 배제한 교섭이 이뤄지고 있었고, 그 목적에는 연맹, 교역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72) 丁載勳, 2004, 앞의 책.

73) 丁載勳, 2004, 앞의 책, 57~59쪽.

300척의 戰船을 급조토록 했고, 조서를 내려 천하의 병사를 원근 불문하고 모두 징발하여 탁군에 모이도록 했다. 또 양자강과 회수 이남에서 뱃사람[水手] 1만, 쇠뇌병 3만 그리고 영남(지금의 광둥성, 광서성)에서 槍兵[排鎗手] 3만을 뽑았다. 5월에는 하남 · 회남 · 강남 지역에서 戰車 5만 대를 만들어 군수 물자를 싣고 오도록 하고, 7월에는 다시 江淮 남쪽의 백성과 배를 동원하여 군량미를 탁군으로 운송토록 했다.⁷⁴⁾

전국에 걸친 戰備 동원으로 612년 정월 1,133,800명의 대군과 군수품이 탁군에 집결했다고 한다. 이는 海路軍을 제외한 숫자이다. 병부상서 段文振을 대장군으로 삼고 전군을 좌군과 우군으로 편성했다. 그리고 각각을 12軍으로 나누고 각기 道名을 붙여주었으니 鏐方 · 長岑 · 海冥 · 蓋馬 · 建安 · 南蘇 · 遼東 · 玄 · 扶餘 · 朝鮮 · 沃沮 · 樂浪道와 蟬 · 含資 · 渾彌 · 臨屯 · 候城 · 提奚 · 踏頓 · 肅慎 · 碣石 · 東曉 · 帶方 · 襄平道가 그것이다. 이 가운데 누방, 장잠, 해명, 조선, 낙랑, 점제, 함자, 혼미, 대방은 낙랑 · 대방군 관련 지명이고 요동, 후성, 양평은 요동군 그리고 현토, 부여, 개마는 현토군 또 옥저, 동이는 한반도 동해안 방면으로 비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도명은 당시 고구려 영역의 주요 도시나 군사 요충지를 붙인 것일 뿐 각 군의 진출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좌 · 우군의 구분도 육군과 수군의 구분이나, 342년 고구려와 前燕 사이의 전투에서 문제가 되었던 南 · 北道の 교통로⁷⁵⁾와는 거리가 멀다. 정벌 후 주둔지 혹은 통치의 거점을 지시했을 수도 있지만 다분히 공격 목표를 선명히 하고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우는 명분적인 것에 불과했다.⁷⁶⁾

부대 편성으로 먼저 좌 · 우군을 살펴보면, 그 조직은 ‘軍 - 團 - 隊’의 체계로 이뤄졌다. 각 군에는 大將과 亞將 그리고 항복한 자를 접수하는 受降使者가 한 명씩 있었고 단에는 偏將을 두었다. 각 군마다 騎兵이 40隊, 步卒이 80隊 편성되었다.⁷⁷⁾ 1대의 병력이 문제인데, 기병은 1대 100명이고 10대가 1

74) 『資治通鑑』 卷181, 隋紀5, 煬帝, 大業 7年 2月 壬午.

75) 余昊奎, 1995, 「3세기 후반~4세기 전반 고구려의 교통로와 지방통치조직 - 南道와 北道を 중심으로」, 『韓國史研究』 91, 12~17쪽.

76) 李丙燾, 1977, 『國譯 三國史記』, 乙酉文化社, 309쪽.

단을 이룬다고 하였으나,⁷⁸⁾ 보졸 1대의 병력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또 보졸은 80대가 4단이라고 하였으니 20대가 1단이 되어 역시 기병과 차이가 있다. 일단 기병은 1대 100명으로 환산하면 1군에 40대 4단 4천 명이 된다.

그리고 보졸은 기병과 같이 1대 100명으로 계산하면 8천 명이 되지만 기병과의 비율을 생각하면 비현실적이다. 1단의 구성이 기병과 달리 그 두 배인 20대로 된 것을 참고하여 1대도 마찬가지로 비율로 200인으로 환산해보면 80대 16,000명이 되고 이는 기병의 4배여서 비교적 합리적인 숫자로 볼 수 있겠다. 즉 보졸은 1군에 80대 4단 16,000명 정도가 되는 것이다. 이밖에 대장과 아장의 친위대 혹은 직속 부대의 700騎, 鼓吹隊, 輜重戎車散兵이 있었다.⁷⁹⁾ 고취대는 일종의 군악대로서 전투 병력이라 할 수 없다. 치중용거산병은 그 字義로 보아 전투용 중장비와 군수품을 운송하거나 예비 병력으로 편성되었다고 보이는데, 역시 4團이었으므로 보졸 기준으로 1대 200인, 20대 1단으로 계산하면 16,000명이 된다. 따라서 1군의 병력을 어렵잡아 보면 기병 4,700명, 보졸 16,000명, 중장비 운송 및 예비 병력 16,000명, 기타 인원을 합하여 약 37,000명 정도로 추산할 수 있다. 좌·우 24군은 약 88만 8천 명이 된다.⁸⁰⁾

여기에 황제 직속의 御營軍이 6軍으로 편성되었으므로 약 222,000명(37,000×6)이다. 이들만 추산해도 약 111만 명이 되는데 이는 기록에 나오는 1,133,800명과 근사한 수치이다. 약간의 오차는 앞서 지적했듯이 1隊의 병력이 기병과 보졸, 치중용거산병 그리고 어영군 사이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함께 산둥반도에서 별도로 출항한 해로군은 최소 5만이었다.⁸¹⁾ 해로군의 총 병력 규모를 알 수 없어 유감이지만 1백만을

77) 『資治通鑑』卷181, 隋紀5, 煬帝, 大業8年正月壬午.

78) 『隋書』卷8, 志3, 禮儀3은 “隊百人置一纛 十隊爲團”이라 하였다.

79) 『隋書』卷8, 志3, 禮儀3.

80) 淺見直一郎, 1985, 「煬帝の第一次高句麗遠征軍－その規模と兵種」, 『東洋史研究』44-1, 26~27쪽은 輜重戎車散兵을 제외하고 1군을 약 25,000명 그리고 24군을 약 60만 병력으로 추산하였다.

81) 淺見直一郎, 1985, 위의 논문, 28쪽.

훨씬 넘는 대군이 고구려 원정을 위해 동원된 것만은 사실로 봐야겠다.⁸²⁾

이들 가운데 陸路軍은 612년 정월에 탁군을 출발했다. 598년 1차 원정시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출정 시기를 조정했음을 알 수 있다. 탁군에서 임유관까지의 이동 거리가 더해지긴 했지만, 6개월 정도의 시간이면 장마와 더위가 닥치기 전에 평양성까지 도달하여 이를 함락시킬 수 있다는 계획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병력도 1차의 30만에 비해 3배 이상 증강했다. 그런데 과대한 병력은 오히려 여러 문제를 파생시켰다. 육상 교통로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의 병력이 이동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으니, 선두 부대가 출발하고 40일이 지나서야 모든 부대의 출진이 끝났다.⁸³⁾

탁군을 출발한 원정군은 요하선까지는 ‘임유관 - 유성 - 요하’에 이르는 1차 원정의 교통로를 이용한 듯하다. 여기까지는 진군이 순조로워서 3월에 요하에 닿을 수 있었다.⁸⁴⁾ 하지만 渡江 작전이 미숙한 浮橋 가설과 대안에 있던 고구려군의 공격 때문에 실패하고, 한 동안 지체한 다음 4월에야 고구려 수비군을 물리치고 요하를 건넜다.⁸⁵⁾ 다음 공략 대상은 遼東城이었다. 요동성은 지금의 요양시에 있었고 이곳을 점령하면 蠡河를 따라 烏骨城 - 서안평 - 압록강을 지나 평양으로 진격할 수 있었다.⁸⁶⁾ 그러나 여기서도 고구려의 농성 전에 막혀 6월까지 지체할 수밖에 없었다. 요동성 전투를 끝내지 못한 이유 가운데는 지휘 · 명령 체계의 문제점도 자리 잡고 있었다.

황제가 친히 경계하여 말하기를 “이번 전쟁은 백성을 芻問하고 죄인을

82) 『隋書』卷4, 帝紀4, 煬帝 下, 8年 正月條는 이 때 동원된 군사를 통칭 2백만이라 했고 다시 보급 · 수송을 맡은 인원이 그 배가 된다고 했으나 이는 煬帝의 학정을 비판하기 위한 과장된 필법이라고 생각된다.

83) 『隋書』卷4, 帝紀4, 煬帝 下, 8年 正月.

84) 『隋書』卷4, 帝紀4, 煬帝 下, 8年 3月 甲午.

한편 『資治通鑑』卷181, 隋紀5, 煬帝, 大業 8年條에 의하면 2月 癸巳일에 요하에 도착했다고 한다.

85) 『隋書』卷4, 帝紀4, 煬帝 下, 8年條는 3月 甲午에 요하를 건넜다고 했으나 中華書局 版의 교감기에 따라 4월 갑자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86) 田中俊明, 1997, 「高句麗前期・中期の遼東進出路」, 『朝鮮社會の史的展開と東アジア』, 山川出版社, 35~36쪽.

징벌하기 위함이다. 혹시 여러 장수들이 짐의 뜻을 잘못 알고 가벼이 군사를 움직여 급습하거나 홀로 전투를 벌여 일신의 이름을 높여 상을 받으려 한다면 군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公들은 진군함에 세 갈래로 나누어 가되 공격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서로 통보하여 알게 하고 혼자서 가벼이 싸우다 패전하지 않도록 하라. 또한 병력의 진퇴는 모두 (사령부에) 보고하여 명령을 기다려야 하고 마음대로 결단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⁸⁷⁾

양제가 이 지시를 5월에 내렸으므로 요동성 전투가 한창 벌어지고 있을 때이다. 공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隋軍의 일부는 우회로를 모색했던 듯하다. 즉 여기서 말한 세 갈래 진군로는 요동성을 통하는 길과 요동성을 북과 남으로 우회하는 길이다. 북으로의 우회로는 2차 원정의 결과로 수가 획득했다는 武厲邏와 通定鎮⁸⁸⁾ 방면일 것이다. 남쪽 우회로는 나중에 별동대가 평양성으로 진군하는 루트인지 水軍의 항로를 가리키는지 분명하지 않다.

여하튼 양제는 부대간의 상호 연락과 전투시 협공 그리고 모든 보고와 명령은 자신을 통하도록 엄명을 내렸다. 전황이 극히 유동적이고 출정로가 길어서 원정을 속히 마무리해야 하는 대고구려전에서 이러한 명령체계가 비효율적임은 명백하다.⁸⁹⁾ 전세가 불리해지자 농성군측에서 항복을 청하였으나 이를 사령부에 보고하고 명령 하달을 기다리는 사이에 항복을 반복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이에 양제는 처소를 요동성 근처로 옮기고 독전했으나 전세는 바뀌지 않았다.

한편 水軍은 來護兒의 지휘 하에 바다를 건너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왔다. 평양성에서 60리 떨어진 곳까지 진격하여 고구려군을 격파한 후 승세를 타고 평양성 안으로 진입하였으나 高建武가 이끄는 500명 군사의 요격을 받고 퇴각하고 말았다.⁹⁰⁾ 이처럼 고구려의 저항이 거센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宇文述

87) 『資治通鑑』卷181, 隋紀5, 煬帝, 大業 8年 5月.

88) 『資治通鑑』卷181, 隋紀5, 煬帝, 大業 8年, “是行也 唯於遼水西 距高麗武厲邏 置遼東郡及通定鎮而已”.

89) 漢 무제대에도 고조선을 공략할 때 특사인 衛山이 專決權을 갖지 못하고, 누선장군과 좌장군 사이에서는 협공이 이뤄지지 못하여 왕검성 함락이 늦춰진 경향이 있었다(『史記』卷115, 朝鮮列傳55 참조).

과 于仲文이 이끄는 30만 5천의 별동대가 파견되었으나 살수에서 참담하게 패전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들은 요동성을 우회하여 압록강을 건너 평양성으로 진격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중문에게 전권을 위임하여 전항에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했으나, 중무장한 군사들이 군량을 遺棄함으로써 군량이 중도에 소진되고 고구려군의 유인술에 말려들어 보급선도 끊기고 말았다. 후퇴하던 隋軍이 살수에 이른 때가 7월이었으니 군량의 부족은 물론 장마와 더위가 오기 전에 철군을 마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2차 원정은 598년 전역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여러 모로 보완책을 강구했으나 이 역시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613년 정월 양제는 다시 조서를 내려 천하의 군사를 탁군에 모이도록 했다. 2월에는 패전의 책임을 물었던 우문술 등의 관작을 회복시키고 정벌전에 다시 돌입하여, 4월에 요동에 닿았다.⁹⁰⁾ 이번에도 연초부터 준비를 개시하여 요하선까지는 순조롭게 이동할 수 있었다. 병력의 규모는 기록에 없지만 2차 원정 시의 피해를 감안하면 그 보다는 훨씬 작은 규모였을 것이다. 2차와 차이점 중의 하나는 출정할 때 예부상서 楊玄感을 黎陽(지금의 하남성 濮陽縣)에 파견하여 군량을 안정적으로 보급토록 한 것이다.⁹²⁾ 여양은 황하의 물을 탁군으로 연결하는 영제거의 남쪽 출발점에 해당하며, 다시 그 남쪽으로는 회수까지 이어지는 通濟渠와 양자강으로 이어지는 溝(山陽瀆) 또 항주까지 이어지는 江南河와 연결되는 수상 교통의 요지이다.⁹³⁾ 그 漕運을 통해 강남의 물자까지 고구려 원정에 동원하려 했을 것이다.

또 다른 점은 공격선을 다변화한 것이다. 일찌감치 新城을 공격하여 요동성에 집중된 고구려의 전력을 분산시켰다. 명령체계도 각 장군에게 전결권을 위임하여⁹⁴⁾ 부대별 임무 수행의 유연성을 높였다. 그리고 飛樓, 雲梯 등 攻城 중장

90) 『隋書』卷64, 列傳29, 來護兒, “遼東之役 護兒率樓船 指滄海入自淇水 去平壤六十里 與高麗相遇 進擊大破之 乘勝直造城下 破其郭郭 於是 縱軍大掠 稍失部伍 高元弟建武 募敢死士五百人 邀擊之 護兒因却 屯營海浦 以待期會”.

91) 『隋書』卷4, 帝紀4, 煬帝 下, 9年.

92) 『資治通鑑』卷182, 隋紀6, 煬帝, 大業 9年.

93) 胡戟, 「隋煬帝與大運河」, 『煬帝與揚州』, 江縣文物管理委員會, 39~46쪽.

94) 『資治通鑑』卷182, 隋紀6, 煬帝, 大業 9年 4月.

비를 쓰고 地道, 魚梁大道를 가설하여 입체적으로 공략했으나 함락할 수 없었다. 더욱이 6월이 되자 양현감이 여양에서 반란을 일으켜 낙양을 압박하고, 출전 중인 병부시랑 斛斯政이 양현감과 가깝다는 이유로 고구려로 달아나는⁹⁵⁾ 사태가 벌어졌다. 이번에는 국내의 자중지란으로 더 이상 원정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것이다.

614년의 4차 원정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준다. 2월에 조서를 내려 정벌을 논의케 하고 천하의 병사를 동원하여 출정했다. 진격로도 ‘탁군 - 임유관 - 회원진’ 루트를 이용했다. 來護兒가 이끄는 수군은 요동반도 남단의 卑沙城에서 고구려군을 격파하고 평양으로 향했다. 그러나 내지에서 반란이 잇따르고 있었고 고구려도 전쟁에 지쳐 곡사정을 송환하며 항복을 요청했으므로 화의가 성립했다.⁹⁶⁾

615년 10월 고구려 원정이 재론되기는 했으나 이후 수 멸망 때까지 다시 실행되지는 못했다. 이미 수차례의 패전과 원정 실패를 겪었기 때문에 조야의 반대가 심했다. 예컨대 8월 양제가 돌궐군에게 포위당하자 고구려 원정을 중단하여 국력을 보존하고 돌궐 방어에 전력하자는 건의가 있었고 양제도 이를 좇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⁹⁷⁾

수는 이와 같이 4차에 걸쳐 대규모 고구려 원정을 감행했다. 앞장에서 보았듯이 ‘大一統’이라는 정치적 이념은 물론 광역의 국제교역망을 중국 중심으로 재건하려는 경제 利權의 문제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隋軍은 원정이 거듭될수록 출정 시기, 지휘·명령체계, 공격 방법, 무기체계가 개선되고 새로운 전술적 시도도 있었지만 실효를 거둘 수 없었다. 여기에는

95) 『隋書』卷4, 帝紀4, 煬帝 下, 9年 6月.

96) 『資治通鑑』卷182, 隋紀6, 煬帝, 大業 10年.

97) 『資治通鑑』卷182, 隋紀6, 煬帝, 大業 11年 8月, “民部尚書 樊子蓋曰 陛下乘危徼幸一朝狼狽 悔之何及 不若據堅城以挫其銳坐徵四方兵使入援 陛下親撫循士卒 諭以不復征遼 厚爲勳格 必人人自奮 何憂不濟 內史侍郎蕭瑀以爲 突厥之俗 可賀敦預知軍謀且義成公主 以帝女嫁外夷 必恃大國之援 若使一介告之 借使無益 庸有何損 又 將士之意 恐陛下旣免突厥之患 還事高麗 若發明詔 諭以赦高麗 專討突厥 則衆心皆安 人自爲戰矣 瑀 皇后之弟也 虞世基 亦勸帝重爲賞格 下詔停遼東之役 帝從之”.

우선 고구려도 마찬가지로 수에 밀려서는 안 되는 이해관계가 걸려 있었기 때문이지만 직접적으로는 군사력과 전략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제 그 방어 전술을 중심으로 이에 대해 살펴보자.

2_ 고구려의 방어 전술

581년 수가 건국된 이후 매해 사절을 파견하던 고구려는 585년 남조의 陳에 건사한 이후 590년까지 수와 교섭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586년 長安城으로 移都하였는데, 이는 당시 조성된 수와의 긴장 관계 속에서 단행된 것이다.⁹⁸⁾ 일반적으로 589년 수 문제가 陳을 병합함으로써 동아시아의 정세는 근본적으로 변화했고 이에 따라 고구려도 수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갖추었다고 보지만, 이미 그 전부터 고구려의 군비 강화 움직임은 포착된다.

평원왕 32년(590) 문제가 보낸 璽書에는 다음의 언급이 있다.

(고구려) 왕이 매번 사절을 보내 해마다 조공하면서 藩附를 칭하지만 진정한 절의는 다하지 않았다. 왕이 이미 신하가 되었으면 모름지기 짐과 덕을 같이 해야 함에도 말갈을 핍박하고 거란을 가두었다. …… 太府의 장인은 그 수가 적지 않으니 요청하면 (장인을) 보내 줄 수 있는데, 예전에 몰래 재화로 小人을 움직이고 사사로이 쇠뇌 만드는 장인(弩手)을 흠치듯 데려가니, 어찌 병기를 고칠 뜻이 외부로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여 몰래 도둑질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때 使者를 파견하여, 변방을 위무하고 그 백성들의 뜻을 물으며 정치의 방법을 가르치고자 했으나, 왕은 (사자를) 아무도 없는 객관에 두고 엄중히 지켜 눈과 귀를 가렸으니 끝내 듣고 볼 수 없었다. …… 또한 자주 기병을 보내 변방의 인민을 살해하고 누차 간교한 꾀를 내어 나쁜 말을 지어냈으니 마음이 신하됨에 있지 않았다.⁹⁹⁾

98) 김창석, 2006b, 「長安城 축성의 배경과 공간 구성」, 『고고자료에서 찾은 고구려인의 삶과 문화』, 고구려연구재단, 180~183쪽.

99) 『隋書』卷81, 列傳46, 東夷, 高麗.

여기에는 이 새서를 보낸 연도가 개황 17년(597)이라고 되어 있어, 『三國史記』 평원

고구려가 이전부터 수의 변경을 공략했고 병장기를 改修하기 위해 기술을 몰래 탐지했다는 것은 이미 수나라를 가상 적국으로 간주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수 역시 사절의 활동 제한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아, 뒤에 唐의 陳大德이 고구려에 사절로 가서 곳곳의 정보를 수집했듯이¹⁰⁰⁾ 고구려 동태 파악에 유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597년까지 간헐적으로 교섭이 이뤄지다가 598년 高隋 전쟁이 발발했다. 이에 따른 수의 반격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을 터이므로 요서 공격 이전에 방어 태세에 만전을 기했을 것이다. 시기가 조금 올라가지만 590년에 수의 대륙 통일 소식을 들은 평원왕이 군사를 훈련하고 군량을 비축하여 방어할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¹⁰¹⁾ 이를 잘 보여준다.

또 한편으로는 수에 陳謝 사절을 보냄으로써 和戰 양면전술을 구사했다. 9월 隋軍이 중도에 퇴각하자 영양왕은 견사하여 사죄했다. 하지만 600년 1월에 다시 견사한 뒤로는 정식으로 수에 사절을 보낸 기록이 없어¹⁰²⁾ 이때의 견사가 무마용의 임시방편이었음을 보여준다. 614년 4차 전쟁 때는 來護兒가 이끄는 水軍이 상륙하여, 요동성의 戰線 교착 상태를 틈타 평양성으로 진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전격적으로 乞降使를 파견하고 이전에 고구려에 망명한 斛斯政을 압송했다.¹⁰³⁾ 이는 이미 수차례 대규모 전쟁을 벌였기 때문에 고구려 방어력도 한계에 이른 현실을 감안한 조치였다. 양제는 철군의 명분을 얻어 이를 환영했으나 내호하는 화의를 거부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왕 32년조의 590년에 보냈다는 기록과 다르다. 그러나 평원왕의 몰년이 590년이므로 597년보다는 590년에 보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井上秀雄 他 譯注, 1974, 『東アジア民族史』 1, 平凡社, 177쪽).

100) 『三國史記』 卷20, 高句麗本紀8, 榮留王 24年, “帝以我太子入朝 遣職方郎中陳大德答勞 大德入境 所至城邑 以綾綺厚餉官守者曰 吾雅好山水 此有勝處 吾欲觀之 守者喜導之 遊歷無所不至 由是 悉得其纖曲 見華人隋末從軍沒留者 爲道親戚存亡 人人垂涕 故所至士女夾道觀之 王盛陳兵衛 引見使者 大德因奉使 國虛實 吾人不知 大德還奏 帝悅”.

101) 『三國史記』 卷19, 高句麗本紀7, 平原王 32年, “王聞陳亡 大懼 理兵積穀 爲拒守之策”.

102) 여호규, 2002, 앞의 논문, 6~8쪽.

103) 『隋書』 卷81, 列傳46, 東夷, 高麗.

대군이 세 번이나 출정하였으나 적을 평정하지 못했다. 이번에 군사를 돌이키면 다시 올 수 없을 것이니 힘을 쓰고도 이룬 바가 없음은 나의 수치이다. 지금 고구려가 실로 어려운 처지이니 많은 병사로써 공격하면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이길 것이다.¹⁰⁴⁾

고구려가 역경을 벗어나기 위해 주도적으로 화의를 요청했고 수군이 철수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리고 양제가 조건으로 제시했다고 생각되는 고구려 왕의 親朝도 결국 실천하지 않은 것은¹⁰⁵⁾ 그 화의 요청이 전술적이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형식적 항복과 화의 요청은 고구려의 기만 전술과 연결되어 있었다. 612년의 전쟁에서 요동성 공방전이 계속되면서 전력이 소진되자 수에 항복을 요청했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수군의 명령체계의 문제 때문에 항복 의사를 양제에게 전달하고 다시 지시가 하달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때는 고구려 측에서 의도적으로 수군을 기만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수군이 요동성으로 실제 진입하기까지 공격이 중지된¹⁰⁶⁾ 틈을 이용하여 전력을 보강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수측의 지휘체계가 비효율적임을 알게 된 것이다. 이후 수차례나 항복과 그에 대한 반복을 거듭하면서 항진을 이어간 것은¹⁰⁷⁾ 수나라 지휘체계의 약점을 이용하여 기만 전술을 적절히 활용한 예이다. 전황을 타개하기 위해 양제가 별동대를 파견했을 때 수 진영에 파견된 乙支文德이 항복을 가장하고 수군의 허실을 탐지한 것도¹⁰⁸⁾ 이에 해당한다.

고구려는 수군 지휘부의 의견 차이를 활용하여 내부 분열을 유도하는 이간책

104) 『資治通鑑』卷182, 隋紀6, 煬帝, 大業 10年 7月.

105) 『隋書』卷81, 列傳46, 東夷, 高麗.

106) 이는 당시 수 원정군의 각 軍에 受降使者가 배치되고, 양제가 특별히 고구려가 항복해오면 군사 행동을 자제하고 按撫하도록 지시한 것(『資治通鑑』卷181, 隋紀5, 煬帝, 大業 8年 5月)을 통해 알 수 있다.

107) 『資治通鑑』卷181, 隋紀5, 煬帝, 大業 8年 5月, “遼東城將陷 城中人輒言請降 諸將奉命不敢赴機先 令馳奏 比報至 城中守禦亦備 隨出拒戰 如此再三 帝終不寤 既而城久不下”.

108) 『三國史記』卷20, 高句麗本紀8, 嬰陽王 23年.

을 쓰기도 했다. 2차 전쟁시에 수의 별동대와 평양성 30리 지점에서 대치한 상황에서 고구려는 宇文述 진영에게 화의를 제의했다.¹⁰⁹⁾ 于仲文에게는 그를 조롱하는 오언시를 보내고 우문술에게는 우선 철군을 조건으로 국왕의 親朝를 제안한¹¹⁰⁾ 이유는 전자가 강경 공격론자이고 후자가 현실적인 타협론자였기 때문이다. 우문술은 제안을 받아들여 철군하기 시작했고 이 상황에서 우중문 군도 독자 공격이 어려워졌음은 당연하다. 원정의 목적과 戰勝 요건에 대한 양자의 의견 차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적진을 분열·교란시킨 것이다. 이는 고구려 측에서 수군 내부 동태에 정통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삼국간 항쟁이 격화되면서 첩보전도 치열하게 전개되었는데¹¹¹⁾ 對中 관계도 예외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밖에 요동성·신성 방어시 활용한 장기 籠城 전술이나 살수대첩시의 유인·기습 전술에 대해서는 익히 알려져 있으므로, 부대 단위 전술로서 복병전에 관한 사례만을 살펴보자. 2차 전쟁에서 來護兒가 이끄는 水軍이 평양성을 돌파하여 내부로 들어왔다가 패퇴하는 경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을 전해주는 자료가 있다.

내호아는(周法尚의 만류)를 듣지 않고 精兵 4만 명을 간추려 곧 바로 성 밑으로 진격했다. 羅郭 안의 빈 절에 숨어 있던 고구려 병사가 나와 싸우다 거짓으로 패하니 내호아의 군사는 이를 쫓아 성 안으로 들어왔다. 병사를 풀어 약탈하고 다시 대오를 갖추지 않았다. (이때 고구려의) 복병이 나와 (싸우니) 내호아는 크게 패하고 간신히 생포와 죽음을 면하여 돌아온 자가 수천 명에 불과했다.¹¹²⁾

長安城은 평원왕대까지는 복성 - 내성 - 외성의 구조였고 이후 다시 중성 구역이 설정된다. 왕궁과 관부 건물은 내성에 있었으며, 복성은 왕궁을 수비하는

109) 『資治通鑑』 卷181, 隋紀5, 煬帝, 大業 8年.

110) 『三國史記』 卷44, 列傳4, 乙支文德.

111) 대표적인 예만 들면, 고구려의 승려 德昌과 白石은 신라로 잠입하여 김유신 관련 정보 수집 및 공작 활동을 벌였고, 신라의 居柒夫는 고구려에서, 租末坤은 백제에서 포섭 활동을 벌인 바 있다.

112) 『資治通鑑』 卷181, 隋紀5, 煬帝, 大業 8年 5月.

주력군이 주둔했던 듯하다. 그리고 외성 안에는 택지가 구획되어 있었다.¹¹³⁾ 따라서 위 자료에서 수군이 진입하여 약탈을 자행한 나곽 내부는 외성 안을 가리킨다.¹¹⁴⁾ 이곳에는 사찰도 있었으며 500명의 군사가¹¹⁵⁾ 그곳에 숨어 있다가 일부가 성 밖으로 나가 적군을 성 안으로 유인하고 그 전열이 흩어진 틈을 타 요격한 것이다. 복병 전술은 이밖에도 많이 행해졌을 테지만 都城 안의 종교 시설물을 활용하여 최대한 적을 기만한 상태에서 기습하는 형태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효과를 극대화한 고도의 작전이라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이 고구려는 589년 수가 陳을 병합하여 천하를 통일하기 이전부터 전쟁 상황에 대비한 군사력 보강을 추진했으며, 선제 공격 · 和戰 양면전술 · 기만책 · 이간술 · 유인 및 기습전 · 장기 농성 · 복병 전술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의 대규모 침공을 저지했다. 이것은 隋軍이 방대한 병력을 동원함으로써 야기된 조직과 명령체계의 경직성 그리고 장거리를 이동함으로써 파생된 긴 보급선의 약점을 효과적으로 파고든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한편으로는 적군의 공격 전략과 전술이 바뀌면 고구려의 방어체제도 무너질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 실제로 645년 고구려를 침공했다가 안시성에 막혀 돌아간 당 태종이 다시 원정을 구상할 때 조정에서는 새로운 전략이 논의되었다.

고구려는 산성을 쌓아 쉽게 함락시킬 수 없다. 앞서 (태종의) 친정으로 인해 고구려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었고, 함락시킨 성을 보니 곡식은 수확했지만 가뭄이 이어져 백성의 태반이 굶주리고 있다. 만약 소부대를 자주 보내어 번갈아 그 영토를 공략하여 그들을 피폐하게 하고, 서둘러 入堡하여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여 수 년 동안 천 리를 쓸쓸하게 하면 인심이 스스로 이반하여 압록강 이북은 싸우지 않고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¹¹⁶⁾

113) 김창석, 2006b, 앞의 논문, 187~196쪽.

114) 東潮 · 田中俊明, 1995, 『高句麗の歴史と遺蹟』, 中央公論社, 234쪽.

115) 『隋書』卷64, 列傳29, 來護兒.

116) 『三國史記』卷22, 高句麗本紀10, 寶臧王 6年.

647년 2차 원정에서는 이 전략이 채택되었다. 대군을 동원하여 일거에 고구려를 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소규모 부대로 공격하고 후퇴하는 소모전·지구전을 펼쳤던 것이다. 이로 인해 고구려군의 군사력은 점차 소진되었다. 또 신라의 군사력과 제2전선으로서의 전략적 가치를 주목하여 나당동맹을 맺음으로써 隋代와는 결정적으로 다른 국면에 진입하게 되었으니, 이로 인해 고구려는 멸망에 이르는 것이다.

IV. 맺음말

이상에서 고수 전쟁의 배경을 이념적·경제적 측면에서 고찰하고 전쟁의 전개 과정을 교전 당사국의 전략과 전술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하여 글을 맺고자 한다.

중국 고대 왕조는 전통적으로 화이론과 덕화론에 입각한 대외 정책을 펴왔는데, 고수 전쟁은 裴矩가 제창한 덕화론을 양제가 전격 채택함으로써 본격화되었다. 이는 남북조의 통일은 물론 주변 제국까지 일원적 세계질서에 편입하려는 ‘大一統’의 이념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극단적 이념과 무력 동원의 배후에는 경제적 요구가 자리 잡고 있었다. 隋는 대운하를 완성하여 강남과 화북을 잇는 유통망을 구축한 다음 이를 주변 제국과의 대외교역망과 연결시키고자 했다. 吐谷渾, 돌궐과의 상쟁에는 분명 그러한 의도가 작용했다. 이를 동북방에도 적용하여 요서 지역을 장악하고자 했고, 이를 위해 營州總管府를 설치했다. 그러나 이 지역에 이미 대외 교역의 거점을 마련하고 말갈, 남실위 그리고 남조에 걸쳐 광역의 교역망을 운영하고 있던 고구려도 이를 방관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598년 1차 전쟁은 영주를 중심으로 벌어졌다. 고수 전쟁은 동북아와 남조까지 포괄하는 고구려 중심의 교역망을 장악하려는 수와 이를 유지하려는 고구려 사이에 벌어진 경제 패권 쟁탈전의 성격도 띠고 있었다고 본다.

이처럼 정치적 이념과 경제 이권이 걸린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 양상은 규모가 크고苛烈할 수밖에 없었다. 고구려는 589년 수가 陳을 병합하여 천하를 통일하기 이전부터 전쟁 상황에 대비한 군사력 보강을 추진했다. 그리고 선제 공격 · 和戰 양면전술 · 기만책 · 이간술 · 유인 및 기습전 · 장기 농성 · 복병 전술 등을 효과적으로 결합하여 수의 대규모 침공을 저지했다. 이상이 이 글의 요지이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점이 있다. 수나라가 4차에 걸쳐 대규모 원정을 단행한 것은 직접 대상은 고구려였지만 이를 통해 주변 제국에게 새로운 교역체계의 중심축이 隋라는 것을 시위하고, 요서는 물론 고구려 전 영역을 확보함으로써 한반도 남부와 왜까지 포괄하는 광역의 교역체계를 수립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듯하다. 이는 漢 무제가 고조선을 칠 때 고조선의 중개무역, 주변국의 조공로 차단 등을 이유로 공격을 단행한 것과 통한다. 고조선 故土에 설치한 낙랑군 · 대방군이 주변 제종족에 대한 통제와 함께 왜까지 미치는 교역망의 중심축 역할을 한 것도 이를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수가 국력을 소진하면서 대고구려전을 감행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터이지만, 천하를 통일하려는 ‘大一統’의 이념 아래, 중국 강남 · 북의 유통망을 연결하고 이를 주변으로까지 확대하여 광역의 교역망을 건설함으로써 대제국의 물적 기반을 확보하려는 경제적 목적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ABSTRACT]

The Background and the Development of the War
between Koguryo and Sui(隋)-Dynasty

Kim, Chang-Seok

Traditionally ancient dynasties of China had conducted unique external policies. The war between Koguryo and Sui broke out because Emperor Yang(煬帝) adopted a kind of ideology Peiju(裴矩) had proposed. This resulted from the ideology of great unification of neighboring countries as well as North and South Dynasties(南北朝) into unitary world order. But Sui made an unreasonable demand that Koguryo king should pay tribute in person, as a matter of course armed hostilities would break out.

There were economic needs under the extreme ideology and ways. Sui Dynasty completed a big canal system(大運河) to establish a nation-wide network for distribution and intended to connect this network to the foreign trade networks. Clearly this intention acted on the struggles with Toyokon(吐谷渾) and Turk(突厥). Sui wished to hold real power in Liaoshi(遼西) area by the action of the intention. But Koguryo, getting the base of foreign trade and managing the wide networks of trade to Southern Dynasties(南朝) in that area, could not look on the action of Sui. So the first war in 598 proceeded at Yinzhou(營州) in Liaoshi. The war between Koguryo and Sui had the characteristic of a struggle for economic hegemony.

The war, for the political ideology and the economic spoils, assumed a large and severe aspect. Koguryo promoted a military force to provide against the war before Sui unified Chen(陳) Dynasty in 589, and checked the attack of Sui with organic use of diverse tactics. Koguryo blindsided effectively the weak points of Sui, the stiffness of a organization and a long supply route.

Keywords

Koguryo, Sui Dynasty, Great Unification, Foreign Trade, Tactics

麗唐戰爭의 再認識

박 경 철 | 강남대학교 교양교수부 부교수

I. 序言

高句麗는 기원전 3세기 이래 貊系 주민을 중심으로 일정한 발전과정을 經過, 기원전 1세기~기원후 1세기 東北아시아 구석진 곳의 한 王國(kingdom)으로 흥기하였다.¹⁾ 고구려는 國家形成期 이래 환경적 여건의 취약성을 군사적 팽창정책으로 상쇄하면서 전형적인 ‘專制的 軍事國家(despotic military state)’로 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고구려는 4세기 말 이래 하나의 ‘왕국’의 단계를 넘어서 동북아시아의 霸權을 장악한 帝國의 지배구조에 입각한 多種族 國家로 우뚝 서게 되었던 것이다.²⁾

1) 朴京哲, 1997a, 「高句麗와 濊貊: 高句麗의 住民과 그 文化系統」, 『白山學報』 48, 白山學會, 109~151쪽; 朴京哲, 1997b, 「B.C. 1000年紀 後半 積石塚築造集團의 政治의 存在樣式」, 『韓國史研究』 98, 韓國史研究會, 1~31쪽; 朴京哲, 1998, 「高句麗社會의 發展과 政治의 統合 努力: 國家形成期 高句麗史 理解를 위한 前提」, 『韓國古代史研究』 14, 한국고대사학회, 283~321쪽.

2) 朴京哲, 1989, 「高句麗 軍事戰略 考察을 위한 一試論: 平壤 遷都 以後 高句麗

그러나 6세기 말 이래 隋·唐帝國은 中原을 재통일하고 자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세계 질서를 주변 제 국가와 세력에 강요하게 된다. 따라서 새로운 世界政策(world policy)에 입각한 수·당의 적극적인 동북아시아 정책은 이 방면에서의 패권을 둘러싸고 고구려와의 길고도 지루한 전쟁을 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598년 고구려의 선제공격으로 시작된 이 전쟁은 百濟(660년)와 고구려(668년)의 國亡에 그치지 않고, 677년 羅唐戰爭 종결 시까지 근 80년 가까운 장기간 계속된 동아시아 國際戰爭이었다. 특히 本稿가 다루고자 하는 23년간의 麗唐戰爭(645~668)은 이 국제전쟁의 한 획을 긋는 전쟁으로 자리 매김 되고 있다.

高句麗의 對隋·唐七十年戰爭(598~668)은 기원전 2세기 古朝鮮·漢戰爭과 30년 麗·蒙戰爭(1231~1259) 및 壬辰倭亂(1592~1598)과 더불어 우리 민족사 전개에 있어 하나의 分水嶺을 이루었던 未曾有의 大戰亂으로 인식되어져 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족사의 轉換點에 대한 歷史認識이 여러 연구자의 視角에 따라서 상당한 偏差가 있을 수 있음은 충분히 수긍하고도 남음이 있다.

『三國史記』 이래 우리 傳統史學은 고구려와 당 간의 전쟁(이하 논지 전개편의 상 '고구려의 대 당 전쟁'을 '麗唐戰爭' 혹은 '本戰爭'으로 표현함)과 관련된 중국 측 자료에 바탕한 사료를 儒敎的 합리주의와 自我準據의 관점에서 다시 읽고, 그것을 역사의 기억 속에서 우리 국가·민족의 자기 正體性을 재확인하는 근거로 삼아 왔다.

그러나 日本強占期 일본인 학자들의 본 전쟁에 대한 인식은 '근대 역사학적 시각에서의 접근'을 표방하면서도 학문의적·정치적인 고려 아래 적잖이 歪曲된 그것으로 표출될 수 밖에 없었다. 곧 일본은 그들의 한국 강점과 대륙 침략의 역사적 합리화라는 정책적 역사인식 논리를 바탕으로 '滿鮮史觀'을 구상하고, 고구려사에 대한 일련의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³⁾ 따라서 본 전쟁에 관한 저들의 연구 성과 또한 그 연장선 위에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軍事戰略의 志向點을 中心으로, 『史學研究』 40, 韓國史學會, 1~53쪽.

3) 末松保和, 1931, 「高句麗攻守の形勢」, 『靑丘學叢』 5, 87~101쪽; 稻葉岩吉,

우리 역사를 굴절·훼손시키려는 이러한 악의적 기도에 대한 저항이 申采浩를 중심으로 하는 민족주의 사학자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시도되었음⁴⁾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오늘날 우리 학계의 본 전쟁과 관련된 연구 노력은 만선사관의 비판적 극복이라는 과제를 넘어서서 冷戰構造와 分斷 상황에서 비롯된 現場性的 상실이라는 시대적 여건의 어려움을 딛고 이미 적지 않은 학문적 성과를 축적하게 되었다.

우리 先學들의 이 방면의 啓導的 연구 성과는 진단학회의 『韓國史(古代篇)』에 잘 집약되어 있다.⁵⁾ 그리고 국사편찬위원회는 1977년 그간의 연구 성과를 참작하여 『한국사 2: 민족의 성장』에서 본 전쟁을 재조명한 바 있다.⁶⁾

한편 1991년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가 간행한 『고구려 대 수·당전쟁사』는⁷⁾ 본 전쟁에 관한 軍事史的인 시점에서의 종합적 접근을 시도한 최초의 단행본 저서인 점에서 주목된다. 또한 최초의 民纂史書로 평가 받는 1994년 한길사 간행의 『한국사 4: 고대사회에서 중세사회로 2』는 기왕의 연구 성과에 더하여 본 전쟁과 관련 된 새로운 학계의 견해를 收斂·정리함을 통하여⁸⁾ 이후 학계 연구의 향방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 바 있다. 국사편찬위원회 역시 1996년 『한국사 5: 삼국의 정치와 사회 I~고구려』에서 본 전쟁에 관련된 일련의 고찰을 행하고 있다.⁹⁾

오늘날 우리 학계의 본 전쟁에 대한 관심은 2002년 시작된 중국 학계의 ‘東

1933, 「滿鮮史體系の再認識」, 『靑丘學叢』 11(1~25쪽) · 12(58~76쪽) · 13(92~109쪽) · 14(56~74쪽).

4) 申采浩, 1948a, 『朝鮮史研究草』, 연학사; 申采浩, 1948b, 『朝鮮上古史』, 종로서원; 申采浩, 정필선 譯, 1955, 『乙支文德』, 丹齋 遺稿出版會.

5) 李丙燾, 1959, 『韓國史(古代篇)』, 新丘文化社, 463~528쪽; 李丙燾, 1976, 「高句麗의 對隋·唐抗戰」,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423~454쪽.

6) 李萬烈, 1977, 「高句麗와 隋·唐과의 戰爭」, 『한국사 2: 민족의 성장』, 국사편찬위원회, 487~506쪽.

7)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1991, 『高句麗 對隋·唐戰爭史』.

8) 林起煥, 1994,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 『한국사 4: 고대사회에서 중세사회로 2』, 한길사, 139~186쪽.

9) 李昊榮, 1996, 「수·당과의 전쟁」, 『한국사 5: 삼국의 정치와 사회 I-고구려』, 국사편찬위원회, 109~144쪽.

北工程'의 연구 성과가 국내에 소개됨을¹⁰⁾ 계기로 다시 불붙게 되었다. 이에 대한 우리 학계의 대응은 본 전쟁의 본질적 성격이 國際戰爭이 아닌 '內戰'이라는 중국 측의 그릇된 인식을 비판함을¹¹⁾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이 문제에 관한 논쟁의 향방을 짐작케 해주고 있다.

이상의 논의에 유념하면서, 본 연구자는 고구려의 대 당 전쟁을 [背景·原因論→戰爭經過論→性格論]이라는 열개에 따라 매개 사안 별 논점과 쟁점을 고찰해 보고, 그 결과와 제 자료 검토의 성과를 상호 연결시켜, 본 전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의 一端을 제시코자 한다.

II. 麗唐戰爭의 背景·原因

1_ 研究史的 檢討

먼저 이제까지 국내외학계에서 논의된 고구려의 당과의 전쟁이 勃發하게 된 배경과 원인에 대한 제 논의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震檀學會의 『韓國史(古代篇)』는 본 전쟁의 근본적 원인을 고구려와 상접한 중국에서의 통일정권의 출현에서 구한 바 있다.¹²⁾ 또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 2』에서는 본 전쟁의 그것을 중국에서의 통일왕조의 성립과 그들의 동방진출 정책에서 찾고 있다.¹³⁾

한편 전사편찬위원회의 『고구려 대 수·당전쟁사』(1991)는 여당전쟁의 원인

10) 余昊奎, 2003, 「中國學界의 高句麗 對外關係史 研究 現況」, 『韓國古代史研究』 31, 한국고대사학회, 35~66쪽.

11) 朴京哲, 2004a, 「中國學界의 高句麗 對隋·唐70年戰爭 認識의 批判的 檢討」, 『韓國古代史研究』 33, 한국고대사학회, 57~73쪽.

12) 李丙燾, 1959, 앞의 글, 483~486쪽; 이병도, 1976, 앞의 글, 439~441쪽.

13) 李萬烈, 1977, 앞의 글, 501~503쪽.

을 당의 대외 팽창 정책과 수의 멸망에 대한 보복 의지 그리고 신라의 대당 원조 요청과 관련시켜 이해하고 있다.¹⁴⁾ 한길사의 『한국사 4』는 5~6세기 이래의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변동과 맞물리는 고구려 및 당 측의 국내 정치 상황을 거시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당에 의한 돌궐 등의 북방세력 제압으로 동아시아 세력균형이 와해되는 가운데서 삼국 상쟁의 와중에 중국세력 침투의 틈새가 생겼다고 파악한다. 아울러 이 견해는 고구려 내에서 자기 세력권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대외 강경정책을 주도하는 집단이 집권한 상황 하에 본 전쟁이 일어났다고 보고 있다. 또 이 견해는 본 전쟁의 배경으로 중국 통일제국 황제권력의 권위 고양 욕구 및 동북아 패권 장악을 통하여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지배집단의 의도와 관료집단 간의 갈등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있다.¹⁵⁾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 5』는 본 전쟁의 배경으로 중국에서의 통일제국의 출현과 그에 따른 팽창주의적 정책 그리고 고구려 국내 정정의 불안과 대외 정책을 둘러싼 갈등을 꼽고 있다.¹⁶⁾

이상에서 살펴 본 바처럼, 본 전쟁의 배경에 관한 우리 학계의 견해들은 우선적으로 당 제국 출현이라는 동아시아 정세의 구조적 변화와 이에 힘을 받은 중국 측의 동북아시아로의 세력팽창정책에 주목하고 있다. 또 최근의 논의에서는 점차 그 관심이 그러한 국제적 요인이 고구려와 당 내부의 상황 진전과 어떻게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전쟁으로 收斂되어 갔는가를 밝히는 방향으로 옮겨 가고 있다. 이 점과 관련, 국내 학계 일각에서는 본 전쟁의 배경을 수·당 황제들의 '爭取한 皇位'의 취약한 정통성을 대외전쟁을 통해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하기도 한다.¹⁷⁾

한편 국·내외 학계에서는 일찍부터 고구려의 대륙 관계사 진전 속에서 말

14)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1991, 앞의 글, 149~159쪽.

15) 林起煥, 1994, 앞의 글, 169~177쪽.

16) 李昊榮, 1996, 앞의 글, 124~131쪽.

17) 朴漢濟, 1993, 「七世紀 隋唐 兩朝의 韓半島進出經緯에 대한 一考: 隋唐初 皇帝의 正統性確保問題와 關聯하여」, 『東洋史學研究』 43, 東洋史學會, 1~57쪽.

갈·거란 등에 대한 지배권과 돌궐 등과의 관계 설정의 향방을 놓고 [여 ↔ 수·당]의 갈등이 증폭되어 온 것이 본 전쟁의 배경이 됨을 밝힌 바 있다.¹⁸⁾

이점과 관련, 최근 논자에 따라서는 수·당 제국 성립을 주도한 세력은 ‘武川鎮軍閥=關隴集團’임을 환기시키면서, 동몽골 지역에서의 거란족 지배권의 향방을 둘러싼 [고구려 ↔ 수·당 ↔ 돌궐] 사이의 각축전을 본 전쟁 발발 원인 가운데 유력한 하나로 꼽기도 한다. 또 이 견해는 훨씬 뒷날 後金(淸)의 중원 지배가 만주의 여진족과 몽골과의 연합전선 구축에서 창출된 파괴력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수·당 지배집단의 대 고구려 강경정책이 결코 기우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¹⁹⁾

종래 日本 학계는 ‘冊封體制論’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구명해 보고자 한 바 있다. 즉 이 논의들은 唐 대까지의 동아시아 국제관계에 있어서 조공과 책봉을 연결고리로 한 일원적인 ‘동아시아세계’의 실재를 상정, 고구려의 존재를 도외시 한 수·당 중심의 책봉질서 관철이라는 시점에서 본 전쟁을 이해해 왔던 것이다. 즉 이 견해에 따르면, 본 전쟁은 중국 封疆의 질서 및 중국사회의 禮的 질서를 바로 잡는다는 관념을 배경으로 일어났다는 것이다.²⁰⁾

그러나 본 전쟁 이후 비로소 당을 중심축으로 한 억압적 평화체제가 동아시아

18) 日野開三郎, 1949, 「粟末靺鞨の對外關係: 高句麗滅亡以前」, 『史淵』41~43, 九州史學會; 李龍範, 1959, 「高句麗의 遼西進出 企圖와 突厥」, 『史學研究』4, 韓國史學會, 43~81쪽; 盧泰敦, 1976, 「高句麗의 漢江流域 喪失의 原因에 대하여」, 『韓國史研究』13, 韓國史研究會, 29~56쪽; 盧泰敦, 1984, 「5~6세기 東아시아의 國際情勢와 高句麗의 對外關係」, 『東方學志』44, 延世大學校 國學研究院, 1~57쪽; 金善昱, 1985, 「高句麗의 隋唐關係研究 -靺鞨을 中心으로-」, 『百濟研究』26,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5~18쪽; 朴京哲, 1989, 앞의 글 53~61쪽; 菊池英夫, 1992, 「隋朝の對高句麗戰爭の發端について」, 『中央大學 アジア史研究』16; 李在成, 1996, 「古代 東蒙古史研究」, 法仁文化社; 李成制, 2000, 「嬰陽王 9년 高句麗의 遼西 攻撃」, 『震檀學報』90, 震檀學會; 朴京哲, 2003, 「高句麗 異種族支配의 實相」, 『韓國史學報』15, 高麗史學會, 288~301쪽; 朴京哲, 2004a, 앞의 글, 63~68쪽; 朴京哲, 2005a, 「高句麗의 東蒙古經略」, 『白山學報』71, 白山學會, 146~162쪽.

19) 朴京哲, 2004b, 앞의 글, 67~68쪽; 朴京哲, 2005a, 위의 글, 161쪽.

20) 西嶋定生, 1962, 「6~8世紀の東アジア」, 『岩波講座 日本歴史(古代 2)』, 東京: 岩波出版社.

아에서 본격적으로 가동됨을 상기할 때, 책봉체제론을 전제로, 또 아무런 국가적 실익도 보상받을 수 없는 관념론에서 본 전쟁의 배경을 구하고자 함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된다.

한편 일본 학계의 일각에서는 당시 중국의 황제 독재권 아래의 朋黨의 跋扈와 소수 近臣에 의한 정권과 정보 독점이 본 전쟁을 야기 시킨 것으로 보기도 한다.²¹⁾ 또 논자에 따라서는 무천진 군벌의 전쟁 상황 지속의 희망을 본 전쟁의 배경으로 추정하기도 한다.²²⁾

1990년대 이후 中國 학계는 統一的 多民族國家論을 고구려와 수·당의 관계를 고찰함에 경직적으로 적용, 대부분 수·당의 입장만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고구려 원정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 논의들은 대체로 고구려에 대한 수·당의 정벌은 국가 사이의 전쟁이 아니라 중원 통일정권이 변장 소수민족 할거세력을 통제하던 과정으로서 결코 침략이 아니라는 점을²³⁾ 그 주요 입론으로 삼고 있다.

혹자는 고구려 정벌을 중국의 고유영토를 회복하여 전국을 통일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하기도 한다.²⁴⁾ 논자에 따라서는 고구려는 중국 영역이지만, 신라와 백제는 ‘宗藩’ 관계에 있었다고 함으로써, 고구려와 백제·신라 사이에 존재하는 역사 인식 영역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견해도²⁵⁾ 제시하고 있다.

麗唐戰爭 이해의 출발점은 배경·원인론이 되며, 이는 성격론과도 首尾相關의 맥락을 가지고 접속되고 있다. 또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본 전쟁의 경과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전제가 됨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제 논의들은 중국 학계의 그것은 논외로 하고라도 지나치게 분산적이며 단편적이

21) 堀敏一, 1979, 「隋代東アジアの國際關係」, 『隋唐帝國と東アジア世界』, 東京: 汲古書院, 113~137쪽; 金子修一, 2002, 「高句麗와 隋의 關係」, 『高句麗研究』 14, 高句麗研究會, 371~396쪽.

22) 宮崎市定, 1987, 『隋の煬帝』, 東京: 中公文庫.

23) 孫玉良·李殿福, 1990, 「高句麗與中原王朝的關係」, 『博物館研究』 1990-3.

24) 楊秀祖, 1996, 「隋煬帝征高句麗的幾個問題」, 『通化師範學報』 1996-1, 49~55쪽.

25) 劉子敏, 1999, 「關於高句麗政權及其領域的歷史歸屬問題之我見」, 『全國首屆高句麗學術研討會 論文集』, 吉林社會科學院 高句麗研究中心·通化師範學院 高句麗研究所, 4~26쪽.

다. 한 전쟁의 배경이나 원인은 人間事만큼이나 매우 복잡한 것이다. 또 그것이 國際戰爭일 경우 더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다.

오늘날 國際政治學界의 주요 흐름인 新現實主義(neorealism)에 따르면, ‘전쟁’에 관한 연구는 ①인간 本性에 관한 연구(political leadership 혹은 personality), ②개별 國家構造에 관한 연구(정치·경제·사회·문화 구조), ③國際體制라는 세 가지 수준의 분석 및 접근 방법에 기초하고 있다.²⁶⁾ 이 점은 본 전쟁에 대한 거시적·포괄적 접근 노력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위에서 제시된 과제들 중 주로 ①과 ③의 두 가지 접근법, 곧 국제 구조 틀 속에서의 고구려·당 등 관련 당사국들이 처한 위상 및 상황과 각국의 정치적 지도력과 그와 유관한 정치상황 등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이 문제 해명의 새로운 轉機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제전쟁이란 국제정치의 연장이며, 국제정치의 본질은 각 당사국들의 國益 추구에 있다는 命題 또한 본 전쟁의 본질과 성격을 이해함에 있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2_ 東아시아 勢力構圖 再編을 둘러싼 葛藤

먼저 동아시아 국제정치 구조의 틀 속에서의 고구려·당 등 관련 당사국들이 처한 위상 및 상황을 점검해 봄을 통하여 여당전쟁의 배경과 원인을 구명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5세기 南北朝時代의 동아시아 국제질서는 고구려·北朝의 北魏·南朝의 諸王朝들·柔然·土谷渾이라는 5대強國(major power)에 의한 勢力均衡體制(Balance of Power International System)가 성립되어 상대적 안정을 누리게 되었다.²⁷⁾

26) Kenneth Neal Waltz, 김광린 옮김, 1988, 『인간·국가·전쟁』, 소나무, 19~38쪽.

27) Morton A. Kaplan은 이론적으로 가능한 國際體制(International System)의 상태를 여섯 가지 典型으로 파악한 바 있다. 그는 이 model 중에서 다섯 개의 強大國인 ‘必須的 國家行爲者’가 그 체제의 작용에 결정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런 정세 하에서 남조·유연·토곡혼은 북위의 동아시아 세계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의 실현을 저지하기 위하여 서로를 潛在的 동맹 대상으로 인식, 대북위 공동행동을 취하는 경향이 현저하였다. 반면 북위는 고구려가 이들과 더불어 대북위 ‘封鎖連環’을 형성할 가능성을 저어하여 고구려의 적극적인 군사적 팽창정책을 容認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고구려는 동아시아 세력균형 체제의 5대 열강 간 力學 關係의 構圖를 결정하는 주요한 캐스팅 보트(casting vote)를 거머쥔 존재로서 자리 매김 되게 되었다.²⁸⁾ 결국 북위는 東北아시아에서의 고구려 패권을 인정함으로써 동아시아세계에서의 窮極의인 자기 지배권을 鞏固化시키고자 하는 세계 經營 정책, 곧 세계정책을 채택하고 있었다.

“북위가 여러나라 使邸의 서열을 정할 때 중국 남조의 南齊를 제1위로, 고구려를 그 다음으로 하였음”은²⁹⁾ 당시 고구려가 동아시아에서 차지하고 있던 국제적 위상을 가늠케 한다. 당시 동아시아세계에서의 이러한 고구려의 위상은 자기의 全方位的 국제팽창정책을 관철함에 있어 많은 選擇紙를 허용받고 있었던 셈이다.

이처럼 5세기 이래 고구려는 동북아 최강의 武裝勢力(armed force)으로 각인되고 있었다. 이러한 고구려의 강성은 당시 고구려인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天下의 중심으로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름대로의 세계정책을 관철해 나갔다. 즉 고구려는 이러한 ‘天下觀’에 따라 중국과 遊牧文化圈을 자기의 천하와 분별하면서, 동북아에서의 패권 장악을 도모하고자 하였던 것이다.³⁰⁾

특히 이 사실과 관련하여 눈여겨 볼 사실은 이 시기 고구려가 우리 민족사에

국제체제를 ‘勢力均衡體制(the balance of power International System)’라고 규정하고 있다. James E. Dougherty & Robert L. Pfaltzgraff Jr, 1981, *Contending 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A Comprehensive Survey*, New York: Harper & Row, pp. 157~158.

28) 朴京哲, 1989, 앞의 글, 44~45쪽.

29) 『三國史記』卷18, 高句麗本紀6, 長壽王 72年(484) 冬10月條.

30) 盧泰敦, 1988, 「5세기 金石文에 보이는 高句麗人의 天下觀」, 『韓國史論』 제19호, 서울大學校 人文大學 國史學科, 31~66쪽.

있어 언제나 강요 향으로서 기능하던 대륙관계사 전개의 향방을 능동적으로 주도·대응해 왔다는 점이다. 이 점은 漢族 세력이 魏晉南北朝時代(3~6세기 말) 동안 북아시아 초원 지대에서 흥기한 제 유목 세력에게 위축·압도·정복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매우 주목을 요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6세기 말 이래 중국은 秦·漢帝國에 이은 漢 세력의 제2의 팽창기를 맞게 된다. 곧 隋·唐 제국은 中原을 재통일하고 자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세계체제 질서를 주변 제 국가와 세력에 강요하게 된다.

이제 수·당 양국 모두 朝貢·冊封을 매개기제로 자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세계체제 질서 곧 ‘중국을 중심으로 한 抑壓的 平和體制(pax-Scinica system)’을 정립함으로써 자기 국가의 궁극적 安全保障을 담보코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수·당의 세계정책은 주변 제 국가·민족·집단의 무장 해제와 세력 재편 심지어는 空間的 생존 영역의 재조정을 강제하는 등 매우 폭력적인 強制機制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7세기 초 隋에 갈음하여 중원을 재통일한 唐의 세계정책 또한 자기의 우월한 軍事力量에 바탕한 동북아 세력 구도 재편 企圖의 형태를 띠고 추진되고 있었다.

당이 국초의 소극적 대외정책에서 보다 적극적인 그것으로 점진적으로 이행해 나갔음은 수와 마찬가지로 手順을 밟았다고 볼 수 있다. 곧 수·당은 국초 北아시아 방면의 突厥과 동북아 쪽의 고구려에 대해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로 접근하고 있다.³¹⁾ 그러나 양국의 대외정책 모두 어느 정도 국내 정세가 안정됨에 따라 공격적인 그것으로 바뀌어 갔던 것이다. 양국은 먼저 돌궐을 군사적으로 제압한 후, 그 힘을 동북아 방면으로 投射하기 시작했던 것이며, 그 주 打擊 대상은 고구려였던 것이다.

이 점은 기원전 2세기 古朝鮮과 漢帝國과의 전쟁이 漢 민족 제1팽창기인

31) 『三國史記』 卷20, 高句麗本紀8, 榮留王 4年(621)條에서 『三國史記』 卷21, 高句麗本紀9, 寶臧王 2年(643)條까지 그러한 당의 대고구려 宥和 정책이 표현되어 있음.

秦·한 제국 시기에 우리 민족이 감당해야 했던 동북아시아 국제정치에서의 機會費用이었다면, 그 제2팽창기인 수·당제국 시기의 고구려의 대 수·당전쟁 역시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6세기 중반 이래 한강 유역 영유권 문제를 빌미로 신라와 백제의 ‘每相攻伐’ 상황이 演出되고, 고구려와 신라 간의 主敵 관계가 성립된 상황 하에서 신라는 對唐傾倒政策을 國家生存戰略으로 선택하게 된다. 이렇게 격화된 韓半島 남부 지역에서의 相爭은 당으로 하여금 동북아 지역 勢力均衡者를 자임케 함으로써 자기의 戰略的 위상을 더욱 고양 시키는 계기가 되었음을 유념해야 한다.³²⁾

① 개황 17년(579) 文帝가 湯에게 다음과 같은 새서를 내렸다. …… 오히려 말갈을 몰아치고, 거란을 완강히 막았소.³³⁾

② 煬帝가 조서를 내려 말하였다. …… 급기야 거란 도당들을 아울러 바다의 수비병들을 죽이고, 말갈의 버릇을 익혀 요서를 침범하였다.³⁴⁾

③ 삼월 황제가 정주에 이르러 시신에게 이르기를, “요동은 본래 중국 땅인데, 隋가 네 번 군사를 출정시켰으나 취하지 못하였다. 내가 지금 동정함은 중국의 전물 자제들의 원수를 갚고, 고구려에 대해서는 시해당한 임금의 치욕을 씻어주려는 것일 뿐이다. 또 사방의 구석까지 평정되었는데, 오직 이고구려만이 평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더 늦기 전에 사대부들의 남은 힘을 가지고, 이땅을 되찾으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³⁵⁾

④ 男生이 자기 무리를 이끌고 국내성으로 달아나 몸을 피하니, 말갈과

32) 박경철, 2006, 「麗濟·戰爭史의 再檢討」, 『高句麗研究』 24, 高句麗研究會, 150쪽.

33) 『隋書』 卷81, 列傳46, 東夷 高句麗傳, “開皇十七年 上賜湯璽書曰, …… 而乃驅逼靺鞨 固禁契丹”

34) “煬帝下詔曰 …… 乃兼契丹之黨, 度劉海戍 習靺鞨之服 侵 遼西”(『三國史記』 卷20, 高句麗本紀8, 嬰陽王23年(612)).

35) “三月 帝至定州 謂侍臣曰 遼東本中國之地 隋氏四出師 而不能得 朕今東征 欲爲中國報子弟之讎 高句麗雪君父之恥耳 且方隅大定 唯此未平 故 及朕之未老 用士大夫餘力以取之”(『三國史記』 卷21, 高句麗本紀9, 寶臧王 4年(645)).

거란병이 내부했다.³⁶⁾

①과 ②는 당시 고구려의 집요한 靺鞨과 契丹에 대한 패권 추구 정책에 대한 隋의 불편한 心氣를 잘 드러내 주고 있다. 이 점은 唐 역시 마찬가지였다.

③은 당의 고구려 공격 원인이 遼東에 대한 領有權 회복과 수의 패전에 대한 雪辱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당시 당 측은 645년의 전쟁이 수의 대여 정벌의 명분이었던 거란·말갈 문제(①·②)를 완전히 해결하고, 天下平定을 향한 마지막 未踏地를 짓밟기 위함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④는 國亡 당시까지 고구려의 군사역량으로 활용되던 말갈·거란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 사실은 당의 세계정책이 오직 고구려의 攻滅을 통해서만 거란·말갈에 대한 패권 문제로 상징되는 동북아 세력 재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음을 엿보게 해주는 대목이다. 즉 고구려와 당의 전쟁은 애당초 타협이 불가능한 제로섬(zero-sum)의 전쟁이었던 것이다.

고구려는 국초 이래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군사적 국세 팽창정책의 연장선 상에서 동북아시아에서의 독자적 生存圈과 패권의 保存 및 그 확산을 담보하는 나름대로의 ‘大陸政策’을 관철해 나가고자 했다. 그러나 당은 동아시아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一元的 지배질서로 재편, 자국의 안보를 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세계정책을 강행하고자 했던 것이다.

36) “男生走保國內城率其衆與契丹靺鞨兵內附”(『唐書』卷110, 列傳 35, 諸夷蕃將 泉男生傳).

3_ 淵蓋蘇文政權과 關隴集團

본節에서는 전쟁 관련 當事國들 내부의 政治的 指導力과 이를 바탕으로 한 고구려·당의 국내 정치상황으로 본 전쟁의 배경과 원인을 짚어 보고자 한다.

1) 고구려의 淵蓋蘇文政權

5세기 이래 고구려는 그간의 전방위적 국세 팽창정책의 성과에 힘입어 ‘帝國(empire)’화 되어 갔다. 따라서 고구려는 급격한 정치·경제·사회변동을 경험하게 되었다.

즉 고구려 국세팽창의 진전에 따라 支配構造 내 중심의 幅이 확장되어 감과 동시에 그 내부에서의 중심과 변방 간의 차별성도 심화되어 갔다.

고구려 지배구조의 인적 기반을 이루는 것은 濊貊系 주민들로 구성된 高句麗人들이었다. 물론 소수의 상층 신분 漢人 등 異種族들 역시 그들의 역량에 힘입어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으나, 異邦人으로서 자리 매김 됨이 常例였다.

고구려 세력권 내에서도 지배구조로 진입할 수 없는 人間群像들이 假想的 邊方 주민으로서의 삶을 힘겹게 꾸려 나가고 있었다. 이들은 공간적으로는 고구려 勢力圈의 중심부에 살면서도 여전히 그 지배구조의 변방에 몸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즉 고구려사의 전개는 通時的인 邊方空簡 확대 과정이며, 共時的으로는 支配構造 내에서의 中心 / 邊方 차별성의 심화 과정이기도 하였다. 아마도 이러한 고구려 邊方構造의 重層性이 힘을 바탕으로 구축된 帝國의 지배구조가 갖는 虛實의 한 斷面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실은 고구려가 애당초부터 軍事貴族制(militocracy)의 身分國家로 출발했다는 점을 想起할 때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 그리고 어쩌면 이 점이 고구려의 제국적 지배구조의 未熟性的 한 측면일 수도 있다.³⁷⁾

37) 朴京哲, 2005b, 「高句麗 邊方の 擴大와 構造의 重層性」, 『韓國史學報』 제19호, 高麗史學會, 261~262쪽.

한편 이에 따른 제반 갈등의 增幅·蔓延은 長壽王 대를 轉機로 보다 집중적 권력행사가 가능한 지배구조로의 이행을 촉진하였던 것이다.

고구려 국가 지배구조의 根幹은 권력 엘리트(elite)가 주로 軍事엘리트로서 충원되는 軍事貴族制(militocracy)였다.³⁸⁾ 따라서 장수왕은 선왕의 武勳으로 高揚된 왕권을 배경으로 국내 지배집단의 심한 반발과 정치적 갈등을 堪耐하면서 국왕으로의 국가권력 집중을 도모함을 통하여 集權的 支配體制의 확립을 꾀하였다. 무엇보다도 그가 단행하였던 427년 平壤으로의 遷都는 이후 고구려 국가 지배구조 성격의 변화와 그 정치사 전개에 있어 하나의 획 선을 그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집권적 지배체제의 정립은 고구려가 보다 강력한 국가 권력을 매개로 제 갈등을 수렴·조정함으로써 국가·사회적 통합을 유지하고 나아가 국가의 생존과 이익을 담보코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지배구조의 變換은 곧 국가의 기존 지배집단에 대한 馴致 과정을 동반하게 마련이다. 이 외증에서 국가권력의 表象인 국왕과 既得權 집단 및 새로운 지배구조 형성과정에서 대두한 新興 지배집단 사이의 갈등은 심화되어 가게 마련이다. 결국 이렇게 潛在·內燃되어 오던 지배구조·지배집단 내부의 갈등은 그 제국적 支配秩序 및 체제가 弛緩·약화되는 시점에 이르러 顯在化되어 軍閥의 발호와 더불어 제국적 지배질서의 와해를 재촉하게 된다. 6세기 중반 경 安臧王~安原王~平原王 繼位시 발생한 지배집단 내부의 流血事端은 그러한 현상의 첫 번째 표출이었고, 642년 淵蓋蘇文의 執權은 그것을 마무리하는 政變이었다. 곧 6세기 중반의 일련의 정변들은 貴族聯立政權 체제의 운영을 통해 그 갈등의 해소책을 구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7세기 중반 연개소문의 정변은 그러한 체제의 破綻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오늘날 우리 학계에는 이러한 정변과 관련된 귀족 세력의 實體를 둘러싸고 일련의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이들의 실체를 전통적인 國內系 세력과 신진 平壤系 세력으로 분별하면서, 전자를 대외정책에 있어 穩健派와 후자를 대외 強硬

38) 朴京哲, 1996, 「高句麗의 國家形成 研究」, 高麗大學校 史學科 博士學位論文, 254쪽. 이 점에 관한 한 신라·백제 역시 마찬가지인 異形同質의 社會였다.

派로 분별하는 견해가 제시 된 바 있다. 물론 이 경우, 연개소문은 후자와 관련시켜 파악되고 있다.³⁹⁾

한편 또 다른 견해는 東扶餘의 지배집단 일부가 402년 고구려 廣開土王의 동부여 征伐 이래 고구려 지배집단에 편입되었고, 장수왕 대에 들어와 유력 세력화되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견해는 이 동부여 출신세력이 신흥귀족으로서 6세기 중반 귀족연립정권체제 구축의 중심적 역할을 다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입장은 두만강 유역 일대의 水精說話와 연개소문을 배출한 淵氏 집안의 始祖說話에 주목, 淵氏家門 또한 동부여 출신세력이었을 蓋然性을 거론하고 있다.⁴⁰⁾

그러면 여당전쟁 진행과 맞물리면서 그 始終을 같이 해 온 이 淵蓋蘇文政權의 정치적 성격과 의미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⁴¹⁾ 연개소문 정권은 642년 流血 쿠데타(coup d'état)로 執權한 이래 군사적 팽창정책의 지속적 추진만이 고구려 국가 및 그 지배집단의 생존기반을 안정적으로 담보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종래 ‘大陸政策’을 관철할 것을 추구하는 연장선 상에서 對唐强硬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唐太宗이 고구려 정벌 의지를 노골화하기 시작한 시점이 연개소문 정변 이듬해인 643년인 점도⁴²⁾ 이런 연개소문의 성향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이 연개소문이 주도하는 대당전쟁은 몇 가지 內在的 취약점을 갖고 있었다. 먼저 이런 정치체제는 당시 국가권력 ‘正統性’의 表象인 국왕권의 虛構化하게 만든다. 그만큼 연개소문 정권은 국가권력 기제의 실질적 운영주체가 지만, 그 권력행사 상의 ‘正當性(legitimacy)’에 있어 상당한 瑕疵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이런 체제는 국가권력 집중 현상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국가권력의 자

39) 林起煥, 1992, 「6~7세기 고구려 정치세력의 동향」, 『한국고대사연구』 5, 한국고대사연구회, 39쪽.

40) 盧泰敦, 1993, 「朱蒙의 出自傳承과 桂婁部の 起源」, 『韓國古代史論叢』 5, 한국고대사학회연구소, 43~52쪽.

41) 林起煥, 1997, 「대륙의 천하질서를 거부한 고구려」, 『한국역사속의 전쟁』, 청년사, 87~88쪽.

42) 『三國史記』 卷21, 高句麗本紀9, 寶臧王 2年(643) 潤6月條.

律性(State Autonomy)이 훼손되는 심각한 跛行相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⁴³⁾ 따라서 危機管理體制를 自任한 연개소문 정권 아래서 여당전쟁의 실효적 수행을 담보하는 국가적 통합도가 눈에 띄게 약화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여당전쟁을 수행하는 고구려 軍民들이 間歇的으로 보여 주는 無力함과 敵前分裂相은 麗隋戰爭 당시 그들이 보여준 戰意와 확연히 분별되고 있음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政治體制의 正當性的 하자(the crisis of legitimacy)는 그 체제의 效率性을 저하시키고(the crisis of efficiency) 나아가, 국가의 생존 문제 즉 正體性的의 危機(the crisis of identity)마저 불러 오게 되는 것이다.

연개소문정권이 자기의 국가 지배권력의 문제점을 이념적으로 보완코자, 종래의 儒敎·佛敎에 갈음하는 道敎를 意圖的으로 보호·육성하고자 한 바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⁴⁴⁾ 한편 국내 政情의 불안은 대외적 葛藤行爲를 助長하는 경향이 있다.⁴⁵⁾ 어찌면 연개소문 정권은 國內에서 여러 집단의 반발을 무마하는 수단으로 대외적인 갈등을 부각시켜 관심을 밖으로 쏠리게 함으로써 자기 체제의 안정과 결속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을 가능성도 감안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대당 강경 정책은 당 측의 집요한 고구려 攻滅 기도가 충분히 발미를 제 공해주고 있었던 것임은 물론이다.

2) 唐과 關隴集團

東蒙古 지방(北魏·隋·唐代의 ‘遼海’·‘松漠’지방 → 보다 후대의 ‘熱河’지방)은 훗날에까지 몽고 지방의 제압과 滿洲와 西蕃 諸戎에 대한 패권의 안정적 관철을 담보함에 있어 “天下之腦”⁴⁶⁾가 되는 지역이라고 인식된 바 있다.⁴⁷⁾ 따라

43) 국가권력의 自律性(state autonomy)에 관해서는, 孫浩哲, 1989, 「국가자율성 개념을 둘러싼 제 문제들: 개념 및 이론적 문제를 중심으로」, 『韓國政治學會報』 23-2, 韓國政治學會, 296~318쪽.

44) 『三國史記』 卷21, 高句麗本紀9, 寶臧王 2年(643) 三月條.

45) Rosenau의 ‘linkage theory(連繫理論)’에 관해서는, 李相禹, 1987, 『國際關係理論: 國家間的 葛藤原因과 秩序維持』 改訂·增補版, 博英社, 133쪽.

46) 『熱河日記』 卷9, 「黃敎問答」.

서 고구려는 일찌기 이 동몽고 지방의 地政學的 중요성을 看破, 이 방면에서의 세력 확산에 腐心했던 것이다.⁴⁸⁾

6세기 말 隋·唐世界帝國 성립을 주도한 세력은 ‘武川鎭軍閥=關隴集團’ 이었다.⁴⁹⁾ 이들은 종래 北魏가 內蒙古 방면을 방어하기 위하여 설치한 ‘河北六鎭’ 중의 하나로서, 胡化된 漢人武將 집단이 그 운영 주체였다. 이들은 수·당 건국 이후에도 [遼海·松漠지방 → 內蒙古 → 外蒙古 → 西域(silk-road)]으로 이어지는 前線의 전략적 가치를 熟知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사료(①~④)에서 간취할 수 있듯이 고구려의 동몽고 지방에서의 세력 부식 노력과 北아시아 草原 제 세력과의 연계 가능성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군사적 대응조치 모색하고 있었다.

훨씬 뒷날 後金/淸의 中原 지배가 만주의 女眞族과 蒙古族와의 聯合戰線 구축에서 창출된 파괴력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⁵⁰⁾ 이들 관룡집단의 우려가 결코杞憂는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관룡집단의 ‘關中優先視政策’은⁵¹⁾ 고구려와의 전쟁을 수행하면서도 항시 제 유목 세력의 동향을 주시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또 실제 이 점이 여당전쟁의 경과에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⁵²⁾

고구려는 국초 이래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군사적 국세 팽창정책의 연장선 상에서 東蒙古 문제에 접근, 동북아에서의 독자적 生存圈 및 패권의 보존 및 그 확산을 담보하는 나름대로의 ‘대륙정책’을 관철해 나가고자 했다. 그러나 隋·唐帝國은 동아시아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일원적 지배질서로 재편, 자국의 안보

47) 閔斗基, 1963, 「『熱河日記』의 一研究」, 『歷史學報』 20, 歷史學會, 1065~1067 쪽.

48) 朴京哲, 2005a, 앞의 글.

49) 柳元迪, 1989, 「唐 前期의 支配層: 舊貴族과 官僚基盤의 擴大」, 서울大學校 東洋史學研究室 編, 『講座 中國史Ⅱ: 門閥社會와 胡·漢의 世界』, 지식산업사, 229~232쪽.

50) 盧基植, 1999, 「後金時期 만주와 몽고 관계 연구」, 高麗大學校 大學院 史學科 博士學位論文.

51) 柳元迪, 1989, 앞의 글.

52) 徐榮教, 2003, 「고구려의 대당전쟁과 내륙아시아 제민족: 안시성전투와 설연타」, 『軍史』 4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24쪽.

를 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世界政策(world policy)을 강행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 점에 비추어, 특히 동몽고 지방에서의 거란족 지배권의 향방을 둘러싼 [高句麗 ↔ 隋·唐 ↔ 突厥] 사이의 角逐戰은 고구려의 對隋·唐 70年戰爭 발발 원인 가운데 유력한 하나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⁵³⁾

관련 사료들을 보면, 643~644년 당 태종은 고구려와의 開戰 명분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弑君’⁵⁴⁾·‘殺主’⁵⁵⁾·‘遼東故中國地’⁵⁶⁾가 그들이다. 이외에도 ‘侵新羅’⁵⁷⁾를 들 수 있다. 또 당 측은 645년 전쟁 명분을 遼東 回復과 隋의 敗戰에 대한 雪辱을 거론하고 있다(사료 ③).

당 태종은 ‘玄武門의 變’이라는 일종의 쿠데타를 통해서 왕위를 획득한 바 있다.⁵⁸⁾ 이러한 그가 연개소문의 ‘시군’을 전쟁 구실로 거듭 언급함은 역설적으로 자기의 왕위획득 과정에 있어서의 하자를 연개소문을 징벌하기 위한 전쟁을 수행함을 통하여 治癒하고자 하는 정치적 補償 행위와 다름 아닌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이 연개소문의 ‘弑君’을 전쟁 명분으로 자주 들먹인 것은 고구려 측 抗戰意志를 약화시키기 위한 일종의 弘報 / 心理戰 전략의 일환인 바, 실제로 이러한 당 측의 의도는 간혹 효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더구나 고구려에 중국적 君臣 간의 義理를 강제함은 동북아시아 일대에 중국 중심적 禮敎秩序를 관철코자하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이다.

한편 당이 신라에 대한 고구려의 잦은 침공을 질책함 역시 당 중심의 세계질서 내에서 각국 위상의 恣意的인 자리매김과 안정을 강요함을 통하여 중국 중심적 억압적 평화체제를 정립코자 하는 욕구가 표출된 것이다.

결국 당의 전쟁 목적은 드러낸 명분과는 달리 “天下에서 아직까지 平定되지 않은 本中國之地”였던 遼東의 고구려를 攻滅시키는 것이었다(사료 ③).

53) 朴京哲, 2004b, 앞의 글, 68~72쪽; 朴京哲, 2005a, 앞의 글, 161~162쪽.

54) 『三國史記』 卷21, 高句麗本紀9, 寶臧王 2年(643); 같은 책, 寶臧王 3年(644) 條.

55) 『三國史記』 卷21, 高句麗本紀9, 寶臧王 3年(644)조.

56) 『三國史記』 卷21, 高句麗本紀9, 寶臧王 3年(644)조.

57) 『三國史記』 卷21, 高句麗本紀9, 寶臧王 3年(644)조.

58) 朴漢濟, 1993, 앞의 글, 17~29쪽.

Ⅲ. 麗唐戰爭의 經過

1_ 麗唐戰爭 理解를 위한 分析

645년 첫 戰端을 연 여당전쟁은 668년 고구려 國亡 때까지 23년간 지속된 동아시아 國際戰爭이었다. 그런데 이 전쟁은 通時的으로 볼 때 軍事行動의 배경 및 목적과 戰略 상의 특성 그리고 그 결과에 있어 시기 별로 일정한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전쟁은 대략적으로 나마 [제1차 여당전쟁(645~648년) → 소강기의 여당충돌(654~659년) → 제2차 여당전쟁(660~662년) → 제3차 여당전쟁(666~668년)]이라는 네 단계의 전개 과정을 거치면서 수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645~668년의 여당전쟁 전개 과정을 위의 네 分期로 쪼개어 각각 본장에서 분석·검토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자는 여당전쟁 전개과정의 실효적 분석·검토를 위해 주로 『三國史記』를 중심으로 관련 사료를 정리해 보았다.⁵⁹⁾

또 연구자는 이들 사료에 나타난 전쟁과 관련 수행된 諸 軍事行動(Military action)을 [A. 當事國(集團) · B. 性格 · C. 戰果 · D. 規模]의 네 항목으로 나누어 일정한 점수를 부여함을 통하여, 當該 개별 군사행동이 가졌던 유의미성을 평가하였다. 이 평가 기준을 규정한 것이 <표 1 軍事行動 관련 사항 평가표>이다.⁶⁰⁾

여기서 주목할 점은 [A. 당사국(집단)]을 加重值 삼아, 이를 [B. 성격 · C. 전과 · D. 규모]라는 여타 항목의 합에 곱함을 통하여 개별 군사행동 유의미성의 總和를 표현한 指數를 구한 점이다. 곧 $[A \times (B+C+D) = \text{총화}]$ 가 된다.

59) 『三國遺事』 등 관련 국내 자료는 물론이고, 『北史』, 『周書』, 『隋書』, 『宋書』, 『南齊書』, 『梁書』, 『資治通鑑』, 『冊府元龜』 등 중국 측 문헌사료에 대한 검토도 병행할 것임.

60) 본고에서 사용할 ‘軍事行動’ · ‘戰略’ · ‘戰術’ 등의 개념은, 朴京哲, 1988, 「高句麗 軍事力量의 再檢討」, 『白山學會』 35, 白山學會, 143~179; 朴京哲, 1989, 앞의 글, 3~5쪽 참조.

〈표 1〉 軍事行動 관련 사항 평가표

관련 사항	세부 내용	평 가
A. 當事者	唐	8
	高句麗	4
	百濟·新羅·말갈 등	라·제 각 2, 기타 1
B. 성격	戰役(campaign: 王都 陷落·王 戰死·王都壓迫· 주요 戰略의 廣域空間 確保·會戰)	5
	戰略의 군사행동(전략적 打擊 → 主要據點 確保 등)	4
	戰術의 軍事行動(交戰 등)	3
	豫備軍事行動 (軍事動員·軍事防禦措置·軍事機動-軍事力 展開)	2
	단순 武裝衝突	1
C. 戰果	왕도 함락·王 전사	5
	왕도 압박	4
	전략적 광역공간 확보	3
	전략적 타격(주요거점 확보 등)	2
	전략적 타격(諸據點 확보 등)	1
	其他	1
D. 규모	1,000人마다 0.1 (자료 상 명시된 경우만 계산 함을 원칙으로 함)	

당과 고구려·백제·신라 등은 각기 동아시아 세계에서의 國際關係 운영의 당사자로 개념지을 수 있다. 국제전쟁은 國際政治의 연장으로서 그 전쟁의 복잡성은 관련 당사국의 수효와 정비례한다는 점을 감안, [A. 당사국(집단)]의 수를 당해 군사행동 유의미성의 총화 지수를 算定키 위한 가중치로 삼은 것이다.

그런데 당시 동아시아 세계에 있어 당과 고구려가 뿔어낼 수 있었던 힘을 고려할 때, 각국의 가중치를 모두 균등 처리함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표 1〉처럼 개별 당사국의 점수에 차별성을 부여한 것이다.

⑤ 고구려의 5부 176성 69만여 호를 나누어 9도독부 42주 100현으로

만들고, 평양에 안동도호부를 두어 이를 통치하게 하였다.⁶¹⁾

⑥ 지난날 고구려가 한창 강성할 적에 군사 30만으로 당과 맞서 싸운 것은 그야말로 강국이라 할 만 하지만.⁶²⁾

⑦ 병기는 중국과 대체로 같다.⁶³⁾

여기서 당과 고구려 가중치의 차이가 곧 양 국 간 실제적 힘의 차이를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다. 즉 ⑤를 보면 국망 당시고구려는 69萬戶 345만 명 정도의 인구를 가진 것으로 추산된다. ⑦은 고구려의 武裝體系 곧 戰術力量이 중국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지적되어 있다. 그리고 그 병력 규모는 3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⑥) 전해지고 있다.

당시 당의 인구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고구려의 대수·당전쟁 발발 직전인 6세기 말의 인구는 460여만 호 2,400여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⁶⁴⁾ 그리고 당은 7세기 중엽 여당전쟁 시 府兵制 하의 可用 병력 30~40만 명에 다 주로 河北 지방의 徵兵으로 구성된 100여만 명을 더하여 약 130~140여만 명까지 전장에 투입할 軍事動員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⁶⁵⁾ 곧 인구 면에서는 당이 고구려의 7~8배, 가용 병력은 3~4배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군사력의 投射 정도는 중심지로부터 戰場에 이르는 距離, 곧 戰場縱深에 反比例한다. 따라서 당시 당의 중심지로부터 동북아 전장인 ‘遼左’에 이르는 空間的 遠隔性を 감안하면, 이 수치는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는 문제이다.

‘표 2’~‘표 5’는 <표 1>을 평점기준으로 하여 매개 시기 고구려의 대당 전쟁관계 관련 사료를 분석한 결과물을 제시 한것이다.⁶⁶⁾

61) “分五部 百七十六城 六十九萬餘戶爲九都督府 四十二州 百縣 置安東都護府於平壤以統之”(『三國史記 卷22, 高句麗本紀10, 寶臧王 27年(668)).

62) “昔 高句麗盛時 土三十萬 抗唐爲敵 可謂雄強”(『唐書』卷219, 列傳44, 北狄 渤海傳).

63) “兵器與中國略同”(『隋書』卷81, 列傳46, 東夷 高句麗).

64) 傅樂成 著, 辛勝夏 譯, 1976, 『中國通史』, 宇鐘社, 398쪽.

65) 三軍大學 編著, 1976, 『中國歷代戰爭史: 第八冊-唐初對外戰爭, 征高麗·百濟諸戰役』, 黎明文化事業公司, 296쪽.

66) 『三國史記』상 고구려의 대당 전쟁 관련 記事에는 대부분 당해 사건의 年과 月만 제

이 분석의 결과물(〈표 2〉~〈표 5〉)을 그래프로 圖示한 것이 〈도 1〉~〈도 4〉이다. 이러한 〈표〉와 〈도〉를 감안하면서 네 시기 별 여당전쟁의 경과를 검토하고자 한다.

2_ 第1次 麗唐戰爭(645~648)

1) 高句麗와 唐의 臨戰態勢

唐帝國은 高祖(618~626) 말까지 遼西廻廊地帶를 취약한 作戰線으로 하는 營州(遼寧城 朝陽) 지역을 최전방 전진거점으로 운영하고 있었다.⁶⁷⁾ 당시 당은 隋 말 이래 다시 그 세력을 회복한 突厥과 동북의 고구려와 더불어 팽팽한 긴장관계 속에서 동북아시아 방면의 현상유지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太宗이 630年 東突厥의 利可汗을 토벌하고 요서 및 遼海 방면으로 적극 진출하여 옴에 따라, 이 방면에서 利害를 달리하는 당과 고구려의 충돌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641년 고구려가 千里長城을 축조하기 시작한 것도⁶⁸⁾ 이러한 정세와 관련된 軍事對應措置였다. 최근 학계에서는 이 천리장성에 관한 새로운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다. 논자에 따라서는 이 천리장성이 처음으로 축성된 것이 아니라, 기왕에 조성된 산성들을 보완·개축함으로써 하나의 防禦線으로서 연결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⁶⁹⁾ 즉 이 견해에 따르면, 천리장성은 萬里長城처럼 연속적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요하를 따라 구축된 주요 요충을 연결시킨 산성 네트워크로서, 초기의 시발점은 夫餘城이며, 그 남쪽 종착지점은 建安城이었지만, 후기 장성의

시되고 있다. 그러나 『資治通鑑』에는 이와 관련된 날짜가 日干支로 명기되어 있다. 본 〈표 2~4〉 상 ‘연대’ 난에 제시된 날짜는 이를 따라 예컨대, 蓋牟城이 失陷된 645년 4월 26일을 “645-4-26”로 표기하였다. 그리고 이 작업에는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編의 『高句麗 對隋·唐戰爭史』를 참조하였음을 밝혀둔다.

67) 『三國史記』 卷21, 高句麗本紀9, 寶臧王 3年(644)條 및 4年(645)條; 『唐書』 卷2, 本紀2, 太宗 貞觀18年~19年條; 『唐書』 卷220, 列傳145, 東夷 高麗傳.

68) 『三國史記』 卷20, 高句麗本紀8, 榮留王 24年條.

69) 申滄植, 2000, 「만주의 고구려 산성: II 천리장성」, 신형식·최근영·윤명철·오순제·서일범, 『고구려산성과 해양방어체계연구』, 백산자료원, 65~68쪽.

실질적 출발점은 新城이고 그 종착점은 卑沙城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반면 或者은 이 천리장성을 처음부터 平地城으로 새로이 축조된 長城이라고 본다.⁷⁰⁾ 이 견해는 특히 요하 중·상류 지역에서 송화강 유역까지 구축된 그것은 말갈의 이탈을 방지하고, 친당적인 거란·돌궐의 침투 기도를 제어하기 위하여 쌓아졌던 것이라 보고 있다.

당의 전쟁 준비는 644년부터 본격화된다. 그런데 당이 고구려를 공격함에 가장 고민한 문제는 “遼東道遠 糧轉艱阻 東夷善守城 不可猝下”⁷¹⁾ 하다는 점이 었다. 곧 麗隋戰爭 당시 수 측은 긴 작전선 운용과정에서 야기되는 兵站 문제와 고구려의 諸城 네트워크에 힘입은 縱深防禦戰略을 극복하지 못하여 苦戰했던 것이다.

이에 당은 黃海制海權 장악을 전제로 한 海上運送을 통한 병참 역량 제고에서 해결책을 구했다. 644년 군량을 실을 船舶 400척을 건조케 한 사실과 河南 諸州의 양곡을 바다로 운반한 점 등이⁷²⁾ 이를 엿보게 해준다.

아울러 당은 고구려의 제 성을 공격키 위해 이루 해야될 수 없이 많은 “攻城器械”를 마련하는 등⁷³⁾ 나름대로 준비를 해나갔다.

한편 제1차 여당전쟁 시 당 동원한 군사력 규모는 사료 상 張亮 휘하의 4萬 3,000명의 水軍 및 戰艦 500隻과 李世勣의 지휘를 받는 步騎 6만 명 등 모두 10만 3,000명 밖에 되지 않는다.

고구려는 645년 駐 會戰 당시 一舉에 15만 명을 전장에 투입할 방어역량을 가지고 있었다. 攻擊者인 당이 10여만에 지나지 않는 병력을 가지고 길고도 脆弱한 작전선을 擔保로 고구려를 상대로 효율적인 군사행동을 수행했던 점은 선뜻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혹자는 당군 측의 機動力이 여수전쟁 당시에 비해 월등히 향상되었던 점을

70) 余昊奎, 2000, 「高句麗 千里長城의 經路와 築城背景」, 『國史館論叢』 91, 國史館찬위원회, 159~175쪽.

71) 『三國史記』 卷21, 高句麗本紀9, 寶臧王 3年條.

72) 『三國史記』 卷21, 高句麗本紀9, 寶臧王 3年條.

73) 『三國史記』 卷21, 高句麗本紀9, 寶臧王 3年條.

지적하기도 한다.⁷⁴⁾ 곧 이 견해는 隋 말 農民軍의 전술을 흡수한 당 기병이 重裝騎兵에서 輕騎兵으로 전환된 결과 이들의 기동력이 향상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 이 견해는 고구려도 이런 당 측 兵種 구성의 변화를 간파하고 이를 막기 위해 평지성인 천리장성을 구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⁷⁵⁾ 한편 이러한 견해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은⁷⁶⁾ 당시 당 측에 從軍한 ‘降胡’ 곧 유목민 출신 기병들이 당군의 機動戰을 수행하였고, 이들이 제 성간의 상호 지원 작전을 효율적으로 저지함으로써 당 측의 실효적 작전 수행을 크게 뒷받침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공격자는 항시 防禦者에 대해 역량 상 절대적 우세를 견지한 조건 하에서만 승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법이다. 기병 戰力 운용 방식이나 유목기병들의 존재 자체는 전술적 우위성에 보탬이 되지만, 전략적 승패 결정에 그다지 큰 기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668년 당시 당 측은 23년간의 장기 消耗戰으로 피폐해진 고구려를 공멸코자 최소 50만 이상의 대병을 平壤城 攻圍戰에 투입한 바 있다.⁷⁷⁾ 이점을 감안할 때 645년 당시 태종이 정말로 10만 병력만을 가지고 고구려와의 전쟁에 나섰다면, 이는 무모하거나, 정치적 示威를 목적으로 한 군사행동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당시 당의 군사제도는 府兵制로서 총 60여만의 병력을 동원할 수 있지만, 外征에 동원 가능한 병력은 30~40만 명 수준이었다. 따라서 戰時에는 별도로 壯丁을 강제적으로 徵發하여 필요한 병력을 보충하였던 것이다.⁷⁸⁾ 따라서 당이 645년 전쟁 당시 동원한 것으로 사료 상 著錄된 병력은 戰鬥員으로 실제 전장에 투입된 精銳 府兵 10만을 지칭한 것인 바, 이들을 전장에서 보조한 招募兵 등은 兵員 수 계산에서 탈락된 것이 아닐까 조심스레 추론해 본다.

어쩌면 당 측으로서는 “隋가 100만 대군으로도 실패한 전쟁을 태종은 단 10만 병력으로 수행하였다”라는 식의 정치적 홍보 효과를 노리고 645년 전쟁의 參

74) 余昊奎, 2000, 앞의 글, 181쪽.

75) 余昊奎, 2000, 앞의 글, 176~184쪽.

76) 徐榮教, 2003, 앞의 글, 204~209쪽.

77) “何力率兵五十萬, 先趨平壤, 勸繼進, 攻凡七月, 拔之, 虜其王以獻”(『唐書』卷 110, 列傳35, 契苾何力傳).

78)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1991, 앞의 책, 138~148쪽.

戰 인원을 줄여서 세상에 알렸을 수도 없지 않은 것이다.

혹자는 관련 제 사료 상의 10만 병력에는 당 태종 本陣의 병력이 명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당시 당군의 병력은 [10萬+본진 병력]에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⁷⁹⁾

645年(寶臧王4年·唐 貞觀19年)의 ‘第1次 麗唐戰爭’에서 고구려는 여수전쟁 때와 다른 ‘內線作戰’ 원칙에 의거한 ‘縱深防禦戰略’에 따라 당군의 진공에 대처하였다.

駐 會戰에 임한 고구려측의 高正義가 개진한 작전계획이⁸⁰⁾ 그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 곧 고구려는 제 방어 거점을 ‘豎壁固守’ 하는 持久戰을 수행함으로써 당군의 戰力 분산과 지속적인 出血을 강요하는 동시에 靺鞨兵 등을 활용한 奇兵戰을 전개, 당 측 작전선의 균형을 깨뜨리고 병참선을 차단함으로써 당군 전력의 枯渴 상태를 유도한 후 이들을 各個擊破하여 패퇴시키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고구려 대당 ‘중심방어전략’의 핵심은 諸城을 중심으로 한 防禦 네트워크이다. 고구려는 전국적으로 散在한 200여개의 大城과 小城을 기축으로 30만 명의 병력을 운용하고 있었다^⑥. 즉 고구려는 주로 山城을 거점으로, 이를 주요 交通路 상에 다수 배치하고, 이들 성이 相互呼應함으로써 방어역량을 극대화시켰다. 이는 고구려 지방지배체제가 城 단위로 편제된 것과 유관하다.⁸¹⁾

隋·唐 측의 최대 약점은 긴 병참선이었다. 여수전쟁 당시 수군은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요동에서 평양으로의 直攻策을 채택했던 것이다. 그런데 고구려는 遼東平原~千山山脈 진입로마다 성들을 축조하여 立體的 군사방어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고구려는 이를 바탕으로 淸野守城戰을 펴서 敵의 취약점을 극대화시키는 한편 誘引戰과 奇襲戰을 전개하였다. 따라서 수의 평양 직공 전략은 좌절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⁸²⁾

당은 수의 좌절을 감안하는 한편, 고구려의 제 성을 중심으로 하는 입체적 군

79) 이 견해는 2006년 11월 중국 답사기간 중 서울教育大學校 林起煥 교수가 밝힌 것임.

80) 『三國史記』 卷21, 高句麗本紀9, 寶臧王 4年條.

81) 林起煥, 1997, 앞의 글, 87쪽.

82) 余昊奎, 2000, 앞의 글, 180쪽.

사방어체계에 입각한 중심방어전략을 고려하여 새로운 대여군사전략을 구상하고 있었다. 곧 당은 요동 지방 제 성들을 차례로 제압한 후 천산산맥과 鴨綠江을 넘어 평양성으로 진공하는 전략을 선택했던 것이다.⁸³⁾ 과연 645년 전쟁은 遼河流域, 정확히 말해서 渾河와 太子河 沿線에 布置된 여러 성들의 爭奪戰으로 시종하였던 것이다.⁸⁴⁾

2) 645년의 全面戰⁸⁵⁾

644년 唐軍은 幽州(北京)에 집결한 후, 다시 동북 방면 각 前線으로 나뉘어

83) 余昊奎, 2000, 위의 글, 180쪽.

84) 漢 대 이전에는 醫巫閭山을 기준으로 遼東과 遼西가 분별되었으나, 그 이후에 그 分割의 基点이 현재의 遼河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당시뿐만 아니라 先史시대 이래 현재까지도 遼寧지방의 人文的 활동 중심축은 오히려 그보다 오�히려 渾河·太子河 유역이다. 따라서 오늘날 학계는 여당전쟁의 주전장을 막연히 ‘요하유역’이라고 흔히들 지칭하고 있지만, 그 주요 싸움터는 오히려 河谷平地가 발달하여 농경에 적합했던 渾河·太子河 유역의 제 지역들이다. 이는 遼河水系가 요하 本流와 渾河·太子河로 구성된 까닭에서 비롯된 혼선이며, 본 연구자를 포함한 우리 학계 일반이 무의식적으로 되풀이 하는 게으름이다. 본 연구자는 관련 자료 상에 일반적으로 ‘요하’로 표기된 경우에도, 앞으로는 이를 가능한 한 ‘요하(분류)와 혼하·태자하’로 분별·명기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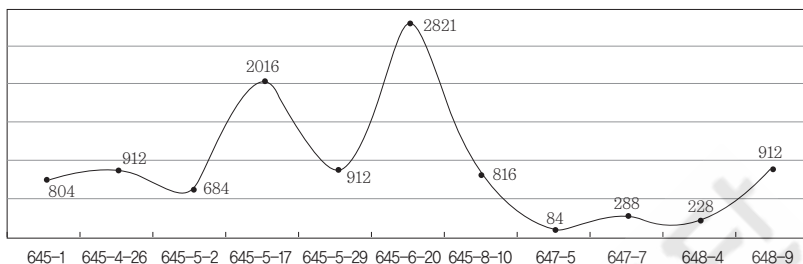
85) 645~648년 시기의 여당전쟁 사료를 분석한 <표 2>에 제시된 사료 ⑧·⑨·⑩·⑪·⑫·⑬의 典據는 아래와 같다. ⑧번 사료는 『三國史記』卷21, 高句麗本紀9, 寶藏王 3(645)年條로서 이는 4단락으로 나뉘어 진다. “a. 夏四月 世勣自通定 濟遼水至玄 我城邑大駭皆閉門自守 副大總管江夏王道宗 將兵數千至新城 折衝都尉曹三良 引十餘騎 直壓城門 城中驚擾 無敢出者 b. 營州都督張儉 將胡兵爲前鋒 進度遼水 趨建安城 破我兵殺數千人 c. 李世勣·江夏王道宗 攻蓋牟城 拔之 獲一萬人 糧十萬石 以其地爲蓋州 d. 張亮帥舟師 自東萊渡海 襲卑沙城 城西面懸絕 惟西門可上 程名振引兵夜至 副總管王大度先登 五月 城陷 男女八千口沒焉”; ⑨번 사료는 『三國史記』卷21, 高句麗本紀9, 寶藏王 4(645)年條; ⑩번 사료는 『三國史記』卷21, 高句麗本紀9, 寶藏王 4(645)年條로서 “a. 李世勣進攻白巖城西南 帝臨其西北 城主孫代音 潛遣腹心請降 臨城投刀鉞爲信曰 奴願降 城中有不從者 帝以唐幟 與其使曰 必降者 宜立之城上 代音立幟 城中人以爲 唐兵已登城皆從之 帝之克遼東也 b. 得城中男女萬餘口 臨水設幄受其降 仍賜之食 八十已上 賜帛有差 他城之兵在白巖者 悉慰諭給糧仗 任其所之 c. 先是 遼東城長史 爲部下所殺 其省事奉其妻子 奔白巖 帝憐其有義 賜帛五匹 爲長史造靈輿 歸之平壤 d. 以白巖城爲巖州 以孫代音爲刺史 e. 初莫離支遣加尸城七百人 戍蓋牟

〈표 2〉 645~648년 고구려 대 당 군사행동 내용 분석표

연대	작전명	A. 당사자	당사 점수	B. 성격	성격 점수	C. 전과	전과 점수	D. 규모	규모 점수	총화: $A \times (B+C+D)$	총화 점수	누적 점수	본고에서의 사로 번호	비고
645-1	당, 협토성, 신성, 김안성 공격	당 → 고구려	12	전술적 군사 행동	3	진술적 타격	1	당군 6만, 김안병 수천 전사	63	려당 전쟁 첫 교전	804	804	8-a & b	당 세갈래 진공, 여 폐문 자수
645-4-26	당, 개모성 공발	당 → 고구려	12	전략적 군사 행동	4	전략적 타격	2	당군 6만, 여병 1만 회	70	당군 도요후 첫 거점 공함	912	1716	8-c	신성 - 요동 성단절, 군량 10만 석
645-5-2	당, 비사성 공발	당 → 고구려	12	전략적 군사 행동	4	전략적 타격	2	장량 수군 4.3 만 여인 8천 회	51	당군 요동반도 교두보 확보	684	2400	8-d	고구려 요하 방어선 교란 (동래 발)
645-5-17	당, 요동성 공발	당 → 고구려	12	전역	5	전략적 광역 공간확보	3	당군 6만, 여군 4만 + 2만 + 4만	160	요하 방어선 타격	2016	4416	9	요하방어선 전장 중 중요 전략거점 확보 군량 50 만 석
645-5-29	백암성 당에게 투항	당 → 고구려	12	전략적 군사 행동	4	전략적 타격	2	당군 6만, 여 남아 1만	70	태자하 유역 방어선 붕괴 위기	912	5328	10	여당전쟁 중 첫 대규모 투항

(계속)

연대	작전명	A. 당사자	당자 점수	B. 성격	성격 점수	C. 전과	전과 점수	D. 규모	규모 점수	총화: A×(B+C+D)	총화 점수	누적 점수	본고에서의 사료 번호	비고
645-6-20	주필회전	당 → 고구려 + 말갈	12	전역	5	진략적 타격	2	당군 6만, 여+말갈 15만	210	고구려 작전 역량 취약성 노출	2821	8149	11	여병 3만6천 창항, 말갈 생매장
645-8-10	안시성 공방전	당 → 고구려	12	전역	5	진략적 광역 공군확보	3	당군 6만	60	당군 철수 결정	816	8965	13	당군의 병참 역량 취약성
647-5	당, 남소성 등 타격	당 → 고구려	12	전술적 군사 행동	3	진술적 타격	1	이세적 등 당 병 3천	3	여 배상거전	84	9049	18-a	지속적 소규모 소모전 시작
647-7	당, 석성발, 적리성 타격	당 → 고구려	12	전술적 군사 행동	3	진술적 타격	1	우진달 등 당 병 1만, 여병 1만	20	수군활동 (누신 전함)	288	9337	18-b	요동반도 - 압록강선 거점 타격 (내주 발)
648-4	당, 부해내적, 역산전	당 → 고구려	12	전술적 군사 행동	3	진술적 타격	1	고신강, 여군 1만 5천 교전	15	수군활동 (누신 전함)	228	9565	19-b	박작정전의 전초전(내주 → 오후도)
648-9	당, 박작성 공위전	당 → 고구려	12	전략적 군사 행동	4	진략적 타격	2	설만철 등 3만여, 여군 1+3만	70	수군활동, 여측오폴, 안지제성내원	912	####	19-f	압록강 방어선 위협



〈도 1〉 645~648년 고구려 대 당 군사행동 내용 분석 도표

軍事機動을 실시하게 된다.⁸⁶⁾ 先鋒으로 나선 李世勣·道宗이 거느리는 병력은 여수전쟁 당시 隋軍이 활용했던 [柳城(遼寧省 朝陽市)→懷遠鎮(요령성 遼中縣)] 루트를 타지 않고 渾河 유역으로 진출했다. 곧 이세적은 유성에서 甬道(양

城 李世勣盡虜之 其人請從軍自效 帝曰 汝家皆在加尸 汝爲我戰 莫離支必殺汝妻子 得一人之力 而滅一家 吾不忍也 皆凍賜遣之 以蓋牟城爲蓋州”；⑪번 사료는 『三國史記』 卷21, 高句麗本紀9, 寶臧王 4(645)年條로서 “帝至安市城 進兵攻之 北部褥薩高延壽 南部褥薩高惠真 帥我軍及靺鞨兵十五萬 救安市 帝謂侍臣曰 今爲延壽策有三 引兵直前 連安市城爲壘 據高山之險 食城中之粟 縱靺鞨掠吾牛馬 攻之不可猝下 欲歸則泥潦爲阻 坐困吾軍上策也 拔城中之衆 與之宵遁中策也 不度智能 來與吾戰下策也 卿曹觀之 彼必出下策 成擒在吾目中矣 b. 時對盧高正義 年老習事 謂延壽曰 秦王內芟群雄 外服戎狄 獨立爲帝 此命世之才 今據海內之衆 而來 不可敵也 爲吾計者 莫若頓兵不戰 曠日持久 分遣奇兵 斷其糧道 糧食既盡 求戰不得 欲歸無路 乃可勝 延壽不從 引軍直進 去安市城四十里 …… c. 江夏王道宗曰 高句麗傾國 以拒王師 平讓之守必弱 願假臣精卒五千 覆其本根 則數十萬之衆 可不戰而降 …… d. 旦日 延壽等 獨見李世勣軍少 勒兵欲戰 帝望見無忌軍塵起 命作鼓角舉旗幟 諸軍鼓噪并進 延壽等懼 欲分兵禦之 而其陣已亂 會有雷電 龍門人薛仁貴著奇服 大呼陷陣 所向無敵 我軍披靡 大軍乘之 我軍大潰 死者三萬餘人 …… e. 延壽·惠真 帥其衆三萬六千八百人 請降 入軍門拜伏 請命 帝簡褥薩已下官長三千五百人 遷之內地 餘皆縱之 使還平壤 收靺鞨三千三百人 悉坑之 獲馬五萬匹 牛五萬頭 明光鎧萬領 器械稱是 更名所幸山曰駐 山 以高延壽爲鴻臚卿 高惠真爲司農卿”；⑫번 사료는 『三國史記』 卷21, 高句麗本紀9, 寶臧王 4(645)年條로서 “a. 諸將急攻安市 …… b. 江夏王道宗督衆 築土山於城東南隅 浸逼其城 城中亦增高其城 以拒之 士卒分番交戰 日六七合 …… 築山晝夜不息 凡六旬 用功五十萬 …… 山頽壓城 城崩 會伏愛私離所部 我軍數百人 從城缺出戰 逐奪據土山 壘而守之”

86) 『三國史記』 卷21, 高句麗本紀9, 寶臧王 4年條.

측에 담을 쌓아 밖에서 볼 수 없게 만든 길)를 이용, 고구려의 눈을 속인 후 渡河作戰의 부담 없이 通定鎮(요령성 新民市 高台子山城)에서 요하를 건넜던 것이다. 본래 이곳은 고구려가 요서 지방에 전개 시킨 제 前哨 거점 가운데 하나인 武厲邏가 控制하던 渡津點이었다. 그러나 여수전쟁 결과 고구려가 이 무려라를 상실함으로써 이 방면에서의 瞰制 역량을 상실하게 되었던 것이다. 玄 城(요령성 撫順市 勞動公園)의 고구려군이 크게 놀란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고구려는 “閉門自守”의 ‘嬰城固守’ 전술로 이들 당군의 急攻을 이겨 냄으로써 혼하 방면의 거점들을 보전할 수 있었다(표 2의 사료 ⑧-a).

한편 張儉은 淵蓋蘇文이 遼東으로 온다는 諜報를 접한 후 胡兵의 기동력에 힘입어 [盤山 → 牛莊]의 최남단 코스를 타고 요하를 건너 建安城(요령성 蓋縣 高麗城山山城)을 급습하였으나, 徒勞에 그쳤다(표 2의 사료 ⑧-b).⁸⁷⁾

그러나 당군은 그 銳鋒이 혼하 지역의 제 거점들과 太子河 지역의 중심 거점인 遼東城(요령성 遼陽市 遼東城址)을 매개하는 蓋牟城(요령성 瀋陽市 塔山山城)을 攻拔함에 이르러 기세가 오르게 된다(표 2의 사료 ⑧-c). 고구려는 이 개모성이 함락됨으로써 혼하-태자하 양 지역 제 거점들의 네트워크를 전략적 空間으로 활용함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또한 張亮의 水軍에 의한 遼東半島 남단 卑沙城(요령성 金縣 大黑山山城)의 攻陷은(표 2의 사료 ⑧-d) 당의 요동 방면 전선에 대한 水運에 의한 원활한 병참 지원을 기약할 수 있게 하였다. 또 이 승리는 당측의 혼하·태자하 방면의 主攻에 대한 助攻 작전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建安城·烏骨城(요령성 鳳城 鳳凰山城) 등 후방 전략 거점들을 위협함과 더불어 鴨綠江防禦線을 넘볼 수 있게 만들었다.

고구려는 신성·國內城 步騎 4만을 요동성 방면으로 보내 당군의 압력을 완화시킬 것을 시도했지만, 우월한 기병 전력에 눌려 실패했고, 요동성은 孤立無援의 항전을 강요받게 되었다. 한편 이즈음 당 태종이 遼澤을 건너 요동성에 당도했다. 이 요택은 요하 본류의 하구 수령 지대로 추정된다. 이것은 水軍을 제외한

87) 余昊奎, 2000, 앞의 글, 179쪽.

당의 모든 역량이 요동성 공함 작전에 투입되었으며, 이 사실은 고구려측의 來援 시도와 더불어 그만큼 이곳이 갖는 전략적 중요성이 매우 큼을 시사해 주는 셈이다. <표 2>와 <도 1>의 높은 指數가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표 2의 사료 ⑨).

요동성민들이 朱蒙信仰까지 동원해 “城必完”의 항전의지를 다지고 있었지만, 당군 측 砲車 등의 우월한 攻城 역량에 더한 火攻 전술 앞에 성은 함락되었다. 요동성 함락은 고구려 측에게 치명적 손실이었다. 곧 고구려는 병력 2만과 주민 4만 총 6만과 50만 석의 식량 등 막대한 인적·물적 자원을 상실하였다.

뿐만 아니라 고구려는 요하방어선의 중심 거점이 실함됨으로써, 혼하·태자하 방면 제 거점들의 유기적 연결 고리의 結節點을 상실한 셈이다. 또 요동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安市城(요령성 海城市 英城子村 英城子山城)·白巖城(요령성 燈塔縣 燕州城)에 대한 당의 안정적 공략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요동성의 실함은 백암성의 동요를 불러 일으켰다(표 2의 사료 ⑩). 주목할 점은 이렇다 할 싸움 없이 적에게 投降한 예가 여수전쟁 당시에는 찾아 볼 수 없었던 사실이다. 이 점은 642년 연개소문의 政變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안시성의 城主 역시 이 문제로 무력 충돌까지 벌였던 사실은⁸⁸⁾ 요동 지역 지배집단들의 연개소문 정권에 대한 인식의 一端을 어느 정도 짐작케 해준다.

백암성 성주 孫代音 역시 새로이 성립된 연개소문 정권의 정당성에 회의를 품었거나 혹은 曠의 身邊 불안을 가졌던 자로 여겨진다. 또 이 사실은 연개소문 정권의 존재가 대당 전쟁 수행상 가지는 한계성을 엿보게 해준다. 당 태종 또한 이러한 점을 간파하고, 연개소문의 ‘弑君’ 사실을 전쟁의 명분으로 공언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또한 투항한 자들에 대한 施惠를 통해 고구려 臣民의 항전의지를 약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었던 것이다.

- ⑩ 춘 2월 태종이 수도에 돌아가서 이정에게 일러 말하기를 “내가 천하 사람을 가지고도 작은 오랑캐에게 곤욕을 당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하니, 이정이 “이것은 도종이 알 것 입니다”라 하였다. 황제

88) “吾聞安市 城險而兵精 其城主材勇 莫離支之亂 城守不服 莫離支擊之 不能下因而與之”(『三國史記』卷21 高句麗本紀9, 寶臧王 4년(645).

가 도종에게 돌아보고 묻자, 도종이 주필산에 있었을 때 빈틈을 타 평양을 빼앗자고 했던 말을 자세하게 진술하였다.⁸⁹⁾

요동성·백암성의 실함은 요동 방면 특히 태자하 유역 安市城에 대한 당군의 압력을 집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고구려 역시 안시성이 무너지면 건안성·오골성의 안위를 장담할 수 없고, 나아가 압록강방어선마저 돌과 당할 가능성을 직시하고 있었다. 따라서 고구려는 “傾國” 수준의 군사동원을 실시하여 고구려·靺鞨 연합병력 15만을 투입한 안시성 救援을 위한 駐 (遼寧省 遼陽縣 河欄鎮 亮甲山 일대)會戰을 벌리게 되었다(표 2의 사료 ⑪).

고구려가 이렇게 많은 대병력을 동원할 수 있었던 人的 基盤은 ‘高句麗人’ 외에도 靺鞨 등 異種族들을 자기 군사동원체제 내에 編制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 점은 <표 2>의 사료 ⑪-a에 적시된 말갈 병력의 규모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사료 ⑪-b에 의하면, 고구려는 말갈을 흔히 非定規戰의 성격이 짙은 작전에 투입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⁹⁰⁾ 그러나 <표 2>의 사료 ⑪-a는 말갈이 數萬에서 十五萬까지 작전 병력으로 一時에 대량 투입되고 있다.⁹¹⁾ 이

89) “春二月 太宗還京師 謂李靖曰 吾以天下之衆 困於小夷何也 靖曰 此道宗所解 帝顧問道宗 具陳在駐 時 乘虛取平壤之言”(『三國史記』 卷21, 高句麗本紀9, 寶臧王 5년(646). 한편 이와 관련 된 주필회전 당시 당군 지휘부의 작전 논의의 자세한 전말은 “a. 帝之克白巖也 謂李世勣曰 吾聞安市 城險而兵精 其城主材勇 莫離支之亂 城守不服 莫離支擊之 不能下因而與之 建安兵弱而糧少 若出其不意 攻之必克 公可先攻建安 建安下 則安市在吾腹中 此兵法所謂城有所不攻者也 對曰 建安在南 安市在北 吾軍糧皆在遼東 今踰安市而攻建安 若麗人斷吾糧道 將若之何 不如先攻安市 安市下 則鼓行而取建安耳 …… b. 高延壽·高惠真 請於帝曰 烏骨城 櫛薩老耄 不能堅守 移兵臨之 朝至夕克 其餘當道小城 必望風奔潰 然後此其資糧 鼓行而前 平壤必不守矣 c. 群臣亦言 張亮兵在沙城 召之信宿可至 乘高句麗懼 併力拔烏骨城 度鴨渌水 直取平壤 在此舉矣 帝將從之 d. 獨長孫無忌以爲 天子親征 異於諸將 不可乘危徼幸 今建安新城之虜衆 猶十萬 若向烏骨 皆躡吾後 不如先破安市 取建安 然後長驅而進 此萬全之策也 帝乃止”(『三國史記』 卷21, 高句麗本紀9, 寶臧王 4년(645))이 참조된다.

90) “兵糧又竭 強敵在前 靺鞨出後(『隋書』 卷60, 列傳25, 段文振傳)”도 이 경우에 해당한다.

91) “高麗有衆十五萬 屯於遼水 又引靺鞨數萬據南蘇城 何力奮擊大破(『舊唐書』 卷107, 列傳57, 契苾何力傳)”의 경우도 그 호례가 된다.

점은 말갈이 고구려 군사역량 운용에 있어 戰略豫備隊로서의 구실도 수행하였음을 시사해 준다. 물론 이들 가운데는 598년 嬰陽王의 遼西 공격의 경우처럼⁹²⁾ 國王 직속의 특수부대로 편성되어 정복 활동에 구사된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⁹³⁾ 따라서 주필회전 당시 당 측이 생포한 말갈병들을 집단 생매장한 것은(표 2의 사료 ⑪-e) 그 표면적 이유와는 달리 말갈의 고구려 군사 역량화에 대한 唐 측의 신경질적인 반응의 단적인 표현과 다름 아닌 것이다.

여당전쟁 당시 고구려의 중심방어전략은 <표 2>의 사료 ⑪-b에서 볼 수 있는 바, 高正義가 개진한 作戰計劃(각주 88 참조)이 그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 당 측도 고구려의 중심방어전략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표 2>의 사료 ⑪-a·c와 d를 통해 짐작할 수가 있다. 즉 당 태종은 요동 지방의 可用作戰期間을 의식하여⁹⁴⁾ 고구려군의 지구전 기도를 두려워한 까닭에 ‘速戰速決’의 원칙 하에 “踰安市 先攻建安”策을 개진하거나, 高延壽의 지구전 企圖 가능성에 대해 의구심을 표명했던 것이다. 반면 李世蹟이나 長孫無忌는 당군의 병참 기능의 취약성을 의식, 작전선의 안정적 확보를 중시하여 태종의 ‘踰安市’策이나 고연수 등 諸將의 ‘平壤直攻’策에 반대, ‘先攻安市’策을 고집했던 것이다(각주 89의 관련 사료 d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대고구려 征討戰略의 기본골격은 우월한 군사역량을 배경으로 2~3개월이라는 단기간 내에 遼河水系에 구축된 방어거점들을 공파하여, 작전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미 遼東半島에 橋頭堡를 설치하고 있는 張亮의 水軍과 합세하여, 平壤으로 진공한다는 것이다.⁹⁵⁾

92) “嬰陽王 九年(598) 王率靺鞨之衆萬餘, 侵遼西, 營州總管韋 擊退之, 文帝聞而大怒 命漢王諒·王世積竝爲元帥, 將水陸三十萬來伐”(『三國史記』卷20, 高句麗本紀8).

93) 金賢淑, 1992, 「高句麗의 靺鞨支配에 관한 試論的 考察」, 『韓國古代史研究』 6, 한국고대사학회, 245~246쪽.

94) 遼寧地方의 氣候는 6·7月의 雨期가 지나면 8·9月부터 이듬해 2·3月까지 雪寒期가 된다. 따라서 이 지방에서의 가용작전기간은 우기 이후 初冬期까지 3개월 남짓이다. 당 군은 이 귀중한 7·8·9月 석 달을 안시성공방전에서 소진해 버렸던 것이다. 草間茂登外 3人, 『滿洲の自然地理』, 『日本地理大系』, 238~240쪽.

95) 『三國史記』卷20, 高句麗本紀8, 榮留王 24年(641)조의 당 太宗과 陳大德간의

주필회전 당시 고구려 측 지휘관인 高廷壽·高惠眞은 “年老習事”한 고정제의 건의를 무시하고, ‘大平原會戰’을 강행함으로써 당 군의 誘引戰術에 말려 대패한 후 투항한다. 혹자는 이러한 ‘대평원회전’이 당의 중장기병에서 경기병으로의 전환을 認知한 고구려 측의 예정된 전술이었다고 보기도 한다.⁹⁶⁾ 또 다른 입장은 당군이 이 회전에서 유목기병을 고구려군에 충격을 주는 망치로, 이세적의 長槍步兵은 모루로 사용했다고 보고, 漢兵과 蕃兵의 절묘한 배합이 고구려군을 “大潰”시켰다고 주장한다.⁹⁷⁾

주필회전의 결과 고구려가 받은 타격은 치명적이었다. <표 2>와 <도 1>에서 주필회전이 가장 높은 指數로 나타남을 이를 웅변해 주고 있다. 15만 병력 중 6만 6,000명이 죽거나 생포되었다. 당시 고구려가 동원 가능한 30만 병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병력이 미숙한 작전 운용 결과 참패한 것이다.

그보다 심각한 사실은 주필회전에서 확인된 고구려 군의 적극적 항전의지의不在이다. 대체로 전장에 투입된 단위 병력의 30% 가량이 소모되면, 조직적인 전투가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고구려군은 이 회전에서는 20% 병력이 희생된 순간 戰意를 상실하고 투항했던 것이다. 고혜진과 고연수는 아마도 연개소문이 직접 선택하여 출정시킨 자들일 것으로 추정되는 바, 당시 고구려 전쟁 지휘부의 資質과 人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음을 추단케 해준다.

- ⑭ 황제가 생각하기를 요동은 일찍 추워져서 풀이 마르고 물이 얼어 군사와 말을 오래 머물게 할 수 없는데다 군량이 곧 다하겠는지라, 군사를 되돌리도록 명령하였다. 먼저 요주와 개주의 주민들을 뽑아 요수를 건너게 하고, 안시성 아래에서 군대를 사열해 돌아가니, 성안에서는 모두 자취를 감추고 나오지 않았다. …… 이세적과 도종에게 명해 보병과 기병 4만 명을 거느리고 후군으로 서게 해서 요동에 이르러 요수를 건너는데, 요동의 진창과 웅덩이들 때문에 수레와 말이 지나갈 수 없었다.⁹⁸⁾

대화중에 이러한 戰略構想의 일단을 엿볼 수가 있다.

96) 余昊奎, 2000, 앞의 글, 181~182쪽.

97) 徐榮教, 2003, 앞의 글, 208~209쪽.

98) “a. 帝以遼左早寒 草枯水凍 士馬難久留 且糧食將盡 勅班師 先拔遼蓋二州戶口

- ⑮ 고려 막리지가 말갈에게 몰래 명을 내려 이남을 후한 이익으로 유혹하도록 하였으나, 이남이 두려워하여 감히 행동하지 못하였다. …… 이때(645) …… 마침내 군사를 보내어 하주를 침구하였다.⁹⁹⁾

당군은 개모성·비사성·요동성·백암성 등의 攻陷 작전에 성공하고, 주필 회전에서 대승 하였지만, 안시성 攻防戰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하였다(표 2의 사료 ⑬). 이 안시성이 당군의 끈질긴 공성전을 끝내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인접한 蓋平 지방의 철 생산에 의해 조성된 경제력에 힘 입은 바 컸으며,¹⁰⁰⁾ 또 이곳의 사수를 위한 고구려 측의 의지 역시 남다른 바 있었기 때문이다.

당군은 추 7월에서 9월에 걸쳐 행해진 이 싸움에서 요동 지역에서의 가용 작전기간을 거의 소진해버린 데다가, 진작부터 우려의 대상이던 병참 지원조차 6~7월 雨期 이후 여의치 못하게 되었던 것이다. 더구나 바로 이 당시 고구려의 사주를 받은 것으로 짐작되는 鐵勒 부족 薛延陀의 河北 침입으로 인하여(사료 ⑮) 당군은 철수를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사료 ⑭). 즉 薛延陀 내부에서 反唐의인 沙多彌可汗이 돌연히 집권하고 연이어 오르도스(Ordos)로 침공함으로써, 關中 優先政策을 國是로 하던 당은 철군을 단행했던 것이다.¹⁰¹⁾

한편 中央아시아 사마르칸트 아프라시아 궁전 유지에서 발견된 벽화의 使節圖에는 7세기 후반 Varxuman 왕의 치세 중 이곳을 방문한 두 명의 고구려인이 그려져 있다. 초원길(steppe road)을 따라 이곳에 온 두 명의 고구려 사절은 점점 가열되어 가던 대당 전쟁의 절박한 상황 하에서 內陸아시아 국가들과의 동맹을 추구하던 고구려 朝廷의 외교 노력의 일면을 보여 주고 있다.¹⁰²⁾ 고구려의 대

度遼 …… 命世勣道宗 將步騎四萬爲殿 至遼東度遼水 遼澤泥濘 車馬不通 命無忌將萬人 草填道 水深處以車爲梁 帝自擊薪於馬 以助役 冬十月 帝至蒲溝駐馬 督填道 諸軍渡 諸水 暴風雪士卒沾濕多死者 勅燃火於道 以待之(『三國史記』卷21, 高句麗本紀9, 寶臧王 4년(645)).

99) “而高麗莫離支 潛令靺鞨 誑惑夷男 昭以厚利 夷男氣懾不敢而動 …… 是時(645) …… 遂發兵寇夏州”(『舊唐書』卷199下, 列傳149, 北狄 鐵勒傳).

100) 李龍範, 1966, 「高句麗 成長과 鐵」, 『白山學報』1, 白山學會, 83~86쪽; 朴京哲, 1988, 앞의 논문, 158~159쪽.

101) 徐榮教, 2003, 앞의 글, 214~221쪽.

설연타 공작과 더불어 아프리카시업 벽화의 사절도는 여당전쟁이 갖는 國際性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 ⑩ a. 무릇 현도 · 횡산 · 개모 · 마미 · 요동 · 백암 · 비사 · 협곡 · 은산 · 후항 등 10성을 함락시켰고, 요주 · 개주 · 압주 등 3주의 백성과 주민들을 옮겨 중국으로 들여 온 것이 7만 명이였다. …… b. 신성 · 건안 · 주필 3대전에서 우리 군사나 당군 및 말들이 매우 많이 죽었다. 황제가 성공하지 못한 것을 크게 후회하고 탄식해 말하기를 “위징이 있었다면, 나로 하여금 이번 걸음을 하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¹⁰³⁾

〈표 2〉와 〈도 1〉에서 645년 제1차 여당전쟁 전개 과정 가운데 개모성(912) · 비사성(684) · 백암성(912) 등 제 전략 거점 공함의 지수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요동성의 경우, 그곳이 요하수계의 최 중요 전략거점이었다는 점에서 지수(2016)는 매우 높은 셈이다. 그러나 이번 전쟁 중 가장 중요한 전장은 안시성이었다. 물론 안시성 자체의 싸움은 여타의 전략 거점들의 지수와 거의 비슷한 수준(816)이지만, 그 前哨戰에 해당하는 주필회전이 가지는 유의미성이 보여주는 높은 지수(2821)를 참작하면, 이번 전쟁의 가장 주요한 勝負處는 안시성이었던 셈이다.

고구려는 이번 전쟁에서 당의 突的 공세를 저지하고, 전장을 요동 지역에 고착화시키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사료 ⑩-a에서 적시하고 있는 바, 요동 지역의 주요 전략거점들이 타격을 받았고, 적지 않은 인적 · 물적 자원이 소진되었다는 점에서 많은 상처를 받게 되었다. 특히 1년 미만의 단기간에 보유 병력 30여 만 중 15만 이상이 壤滅된 것은 이후 고구려 인적 자원의 관리 · 동

102) 盧泰敦, 1999, 「고구려 · 발해인과 내륙아시아 주민과의 교섭에 관한 고찰」,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539~543쪽.

103) “a. 凡拔玄 · 橫山 · 蓋牟 · 磨米 · 遼東 · 白巖 · 卑沙 · 夾谷 · 銀山 · 後黃十城 徙遼蓋巖三州戶口 入中國者七萬人 …… b. 新城 · 建安 · 駐 三大戰 我軍及唐兵馬死亡者甚衆 帝以不能成功 深悔之嘆曰 魏徵若在 不使我有是行也”(『三國史記』 卷21, 高句麗本紀9, 寶臧王 4년(645)).

원에 많은 문제점을 던져 준 셈이다.

그리고 전쟁 진행 과정 중 隨時로 드러나는 적극적 항전의지의 부재는 연개소문 정권에게 하나의 숙제를 남겨 준 셈이다.

3) 647~648년의 軍事衝突¹⁰⁴⁾

⑪ 당 태종이 다시 원정을 하려 하였으나, 조의는 “고구려가 산에 의거해서 성을 만들어 갑자기 함락시킬 수 없습니다. 앞서 대가가 친정하였을 때 그 나라 사람들은 농사지를 수가 없었고, 함락한 성들은 실제 그 곡식을 거두었으나, 한재가 이어서 태반의 고구려 백성은 식량이 결핍했습니다. 지금 만일 자주 소부대를 보내어 그 지방을 교대로 침요해서 그들로 하여금 명을 듣고 출동하는 것으로 피곤케 하고, 쟁기를 놓고 보루에 들어가기를 수 년 간 하여 천리가 황폐하게 되면 인심이 저

104) 647~648년 시기의 여당전쟁 사료를 분석한 <표 2>에 제시된 사료 ⑮~⑰의 典據는 아래와 같다. ⑮번 사료는 『三國史記』卷22, 高句麗本紀10, 寶臧王 6年(647)條로서 이는 3단락으로 나뉘어 진다. “a. 以左武衛大將軍牛進達 爲靑丘道行軍大總管 右武衛將軍李海岸副之 發兵萬餘人 乘樓船 自萊州泛海而入 又以太子詹事李世勣 爲遼東道行軍大總管 右武衛將軍孫貳郎等副之 將兵三千人 因營州都督府兵 自新城道入 兩軍皆選習水善戰者配之 李世勣軍既度遼 歷南蘇等數城 皆背城拒戰 世勣擊破之 焚其羅郭而還 b. 秋七月 牛進達·李海岸 入我境 凡百餘戰 攻石城拔之 進至積利城下 我兵萬餘人出戰 李海岸 擊克之 我軍死者三千人 c. 太宗勅宋州刺史王波利等 發江南十二州工人 造大船數百艘 欲以伐我”; ⑯번 사료는 『三國史記』卷22, 高句麗本紀10, 寶臧王 7年(648)條로서, “a. 春正月 遣使入唐朝貢 b. 帝詔右武衛大將軍薛萬徹 爲靑丘道行軍大總管 右衛將軍裴行方副之 將兵三萬餘人及樓船戰艦 自萊州泛海來擊 c. 夏四月 烏胡鎮將古神感 將兵浮海來擊 遇我步騎五千 戰於易山破之 其夜我軍萬餘 襲神感船 神感伏發乃敗 d. 帝謂我困弊 議以明年發三十萬衆 一舉滅之 或以爲 大軍東征 須備經歲之糧 非畜乘所能載 宜具舟艦爲水轉 隋末 劍南獨無寇盜 屬者 遼東之役 劍南復不預及 其百姓富庶 宜使之造舟艦 帝從之 e. 秋七月 太宗遣左領左右府長史強偉於劍南道 伐木造舟艦 大者或長百尺 其廣半之 別遣使行水道 自巫峽抵江楊 趣萊州 f. 九月 宗遣將軍薛萬徹等來伐渡海入鴨渚 至泊灼城南四十里止 營泊灼城主所夫孫 帥步騎萬餘拒之 萬徹遣右衛將軍裴行方 領步卒及諸軍乘之 我兵潰 行方等進兵圍之 泊灼城因山設險 阻鴨渚水以爲固 攻之不拔 我將高文 率烏骨·安地諸城兵三萬餘人 來援 分置兩陣 萬徹分軍以當之 我軍敗潰 g. 帝又詔萊州刺史李道裕 轉糧及器械 貯於烏胡島 將欲大舉”

절로 떠나서 압록강 북쪽은 싸우지 않고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당주는 이에 따랐다.¹⁰⁵⁾

⑳ 하 4월 당태종이 죽으니 유조로 요동의 전역을 파하였다.¹⁰⁶⁾

647년 이후의 唐 태종의 대고구려 정토전략은 645년 ‘遼東之役’의 경험을 토대로 상당히 변화되었다(사료 ⑰). 즉 당은 強攻과 突破라는 종래의 正攻法을 갈음하여, 3,000에서 3만의 소규모 병력을 다수 編制하여 水陸兩面으로 交替投入, 波狀의인 [出兵→打撃→撤收]의 군사행동을 반복 실시시키되, 작전선의 형성이나 거점 점령을 기도하지 않았다. 당은 南蘇城(요령성 撫順 鐵背山城: 표 2의 사료 ⑱-a)·石城(遼寧省 鳳城縣: 표 2의 사료 ⑱-b)·泊灼成(요령성 丹東 虎山山城: 표 2의 사료 ⑲-f) 등 주로 고구려가 요하 수계인 渾河와 요동반도 東岸 및 鴨綠江 유역에 전개시킨 방어거점들을 대상으로 이런 군사행동을 실시하였다.

당이 의도하는 바는 고구려에게 장기 消耗戰을 강요함으로써, 고구려의 방어 역량의 磨滅과 분산을 획책하자는 것이다. 당 측은 이런 전략 構圖로 고구려의 완강하게 형성된 방어 중심을 약화시킨 후에 비로소 대규모의 군사력을 동원하여 결정적 타격을 가함으로써, 고구려를 일거에 覆滅시켜 버리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전략 구상은 太宗의 死後, 高宗代에도 상당 기간 지속되었다.¹⁰⁷⁾

〈표 2〉의 사료 ⑱-a 상의 南蘇城 전투는 당이 요하 본류를 건너 혼하 유역까지 거침없이 침투하여 남소성 등 여러 거점에 대한 공격이 가능하게 될 정도로 645년 전쟁 결과 요하 수계의 방어 역량이 약화되었음을 짐작케 해준다. 특히 당

105) “太宗將復行師 朝議以爲 高句麗依山爲城 不可猝拔 前大駕親征 國人不得耕種 所克之城 實數其穀 繼以旱災 民太半乏食 今若數遣偏師 更迭擾其疆場 使彼疲於奔命 釋耒入堡 數年之間 千里蕭條 則人心自難 鴨綠之北 可不戰而取矣 帝從之”(『三國史記』 卷22, 高句麗本紀10, 寶臧王 6년(647)).

106) “夏四月 唐太宗崩 遺詔罷遼東之役”(『三國史記』 卷22, 高句麗本紀10, 寶臧王 8년(649)).

107) 『三國史記』 卷22, 高句麗本紀10 중의 寶臧王 13년(654)條의 新城戰, 同王 14년(655)의 貴湍水戰 및 同王 18년(659)條의 橫山戰 등이 그 좋은 예이다.

의 남소성 공격은 이 지역이 蘇子河 유역에 沿한 國內城 방면으로의 接近路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된다.

〈표 2〉의 ⑬-b의 石城은 요동반도 남단 비사성에서 압록강 口에 이르는 해안 통로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¹⁰⁸⁾ 당이 이 곳을 확보하게 되면, 水軍을 통한 압록강 유역이나 평양으로의 뱃길에 있어 중요 寄港地를 얻게 된다는 점에서 공발 작전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당의 새로운 전략은 이런 유형의 縱深打擊을 요하 수계 뿐 아니라, 압록강 유역의 제 거점에 대해 반복 실시함으로써 압록강 방어선을 약화시키고자 하였다.

〈표 2〉의 ⑭-f 상의 泊灼城 공방전은 동원된 양 측 병력 규모에서 647~648년 무장충돌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전투였다. 〈표 2〉와 〈도 1〉의 지수가 이를 뒷받침 한다. 박작성은 오골강과 압록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한 까닭에 [요동성 → 오골성 → 박작성]으로 이어지는 압록강 이서 지역의 주요 통로와 그 以東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였던 것이다. 당 군은 우월한 수군 역량을 바탕으로 압록강구인 이곳으로 내공해 왔던 것이다. 그 전초전이라 할 易山(표 2의 사료 ⑭-c) 전투를 포함 양 측 8만 여 이상의 병력이 투입된 이 전투는 그 승패를 떠나 당군이 이제 압록강 방어선을 압박하는 단계에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당 측이 황해제해권을 확고히 장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석성이나 박작성에 대한 당의 실효적 작전이 모두 수군 활동을 통해 이루어졌고, 그 작전 범위도 陸路로 접근함에 비하여 훨씬 任意로 확대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표 2〉의 사료 ⑬-c는 당 태종 또한 이런 수군의 전략적 활용 가치에 매우 주목하고 기대를 걸고 있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당군의 이러한 군사행동이 『唐書』 및 그것을 轉載하다시피한 『三國史記』의 記事처럼, 일방적인 連戰連勝이 아니었음은 “안으로 전대(隋)의 부끄러움을 씻고 밖으로는 신라의 원수를 갚는다 하지만, 이 어찌 얻는 것이 적고 잃는 것이 크다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한 房玄齡의 上表를¹⁰⁹⁾ 통하여 짐작할 수가 있다.

108)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1991, 앞의 책, 206쪽.

109) “內爲前代雪恥, 外爲新羅報讎, 豈非所存者小, 所損者大乎”(『三國史記』 卷22,

그리고 645~648년의 제1차 여당전쟁은 사료 ②0에 나타난 바 649년 당 태종의 죽음으로 마무리된다.

3_ 戰爭小康期の 麗唐衝突(654~659)¹¹⁰⁾

고구려와 당의 전쟁은 659년까지 소강상태에 돌입한다. 태종 사후 당은 高宗이 繼位하게 된다. 당시 당 내부에는 655년 武后 冊立, 659년 ‘東都 遷居’ 등 무후와 고종이 얹힌 복잡다단한 사건이 연발하여,¹¹¹⁾ 고구려 문제는 그다지 관심을 끌지 못한 것 같다. 고구려 역시 650년 盤龍寺 普德和尚이 “不信佛法”을 이유로 百濟로 망명하는 등,¹¹²⁾ 당시 연개소문 정권은 지배 이념 재정립 문제 등 내부 체제 정비에 腐心하였던 듯하다.

다만 이 소강기 중에도 요하 수계 일대에서 산발적인 소규모 충돌이 654~659년에 걸쳐 산발적으로 벌어졌던 것이다.

본래 ‘遼海’란 遼河 유역에서 海濱에 이르는 광활한 地區를 일컫는 말이나, 실상은 그 기본은 ‘遼河之西’로서 ‘契丹·奚·靺鞨’을 ‘遼海三藩’이라 칭한다.¹¹³⁾ 당의 집요한 遼海經略 노력은 648年 窟哥의 “舉部內屬”이라는 큰 성과를 일궈

高句麗本紀10, 寶臧王 8년(649)).

110) 654~659년 시기의 여당전쟁 사료를 분석한 <표 3>에 제시된 사료 ②1·②2·②3·②4의 典據는 아래와 같다. ②1번 사료는 『三國史記』卷22, 高句麗本紀10, 寶臧王 13年(654)條로서, “冬十月 王遣將安固 出師及靺鞨兵擊契丹 松漠都督李窟哥禦之 大敗我軍於新城”; ②2번 사료는 『三國史記』卷22, 高句麗本紀10, 寶臧王 14年(655)條로서, “二月 高宗遣營州都督程名振·左衛中郎將蘇定方 將兵來擊 夏五月 名振等渡遼水 吾人見其兵少 開門度貴湍水逆戰 名振等奮擊大克之 殺獲千餘人 焚其外郭及村落而歸”; ②3번 사료는 『三國史記』卷22, 高句麗本紀10, 寶臧王 17年(658)條로서 “夏六月 唐營州都督兼東夷都護程名振·右領軍中郎將薛仁貴 將兵來攻 不能克”; ②4번 사료는 『三國史記』卷22, 高句麗本紀10, 寶臧王 18年(659)條로서 “冬十一月 唐右領軍中郎將薛仁貴等 與我將溫沙門 戰於橫山破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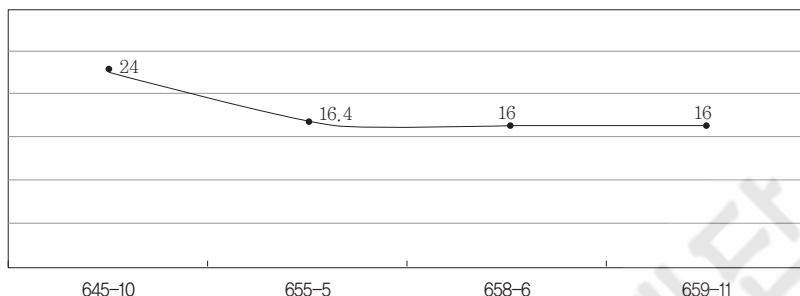
111) 傅樂成 著, 1976, 앞의 책, 444~445쪽.

112) 『三國史記』卷22, 高句麗本紀10, 寶臧王 9年(650).

113) 孟廣耀, 2002, 『北部邊疆民族史研究』(上), 哈爾濱: 黑龍江教育出版社, 27~28쪽.

〈표 3〉 654~659년 고구려 대 당 군사행동 내용 분석표

연대	작전명	A.당시자	당자 점수	B.성격	성격 점수	C.전과	전과 점수	D.규모	규모 점수	총화: A×B+C+D	총화 점수	누적 점수	본고에서의 사료 번호	비고
645-10	여, 거란 공격, 신성전	고구려+말갈 → 거란	6	전술적 군사 행동	3	전술적 타격	1	말갈+여, 대 거란 합동작전		여장 안고 / 거란 이끌가	24	24	21	거란, 고구려 첫 충돌, 여 대패
655-5	여당, 귀단수전	당 → 고구려	4	전술적 군사 행동	3	전술적 타격	1	당(정명진, 소정방, 실회 1천)	0.1	당의 여 외곽 거점 타격	16.4	40.4	22	당, 여 요하 방어선 중심 타격
658-6	당, 내공	당 → 고구려	4	전술적 군사 행동	3	전략적 타격	1	여, 불능극당 (정명진, 설인 귀)			16	56.4	23	
659-11	여당, 황산전	당 → 고구려	4	전술적 군사 행동	3	전술적 타격	1	당(설인귀) 파여(은사문)			16	72.4	24	당, 여 요하 방어선 중심 타격



〈도 2〉 654~659년 고구려 대 당 군사행동 내용 분석

내었다. 따라서 唐은 굴가를 松漠都督으로 삼아, 그를 통하여 요해 지방 경영을 본격화하였다.¹¹⁴⁾ 반면, 요해 지방에서의 勢力圈 보전에 부심하고 있던 고구려로서는 이러한 거란의 움직임을 방치할 수 없었다.

고구려는 654년 거란에 대한 군사행동을 일으켰으나 당의 적극 지원을 받은 굴가 세력의 逆襲을 받고 물러나야 했다(표 3의 사료 ㉒)

그러나 고구려는 요해 방면에서의 군사행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했다 왜냐하면 이 방면에 있어서의 고구려 세력의 존재 자체는 요서회랑지대를 통하는 당의 대고구려 군사행동의 작전선을 그 左側方에서 압박함으로써 당 측에 대한 恒時的인 전략상 제약조건을 강요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648년 당시 당의 ‘宜具舟艦爲水轉’論(표 2의 사료 ㉑-d) 또한 요해 지방에서의 고구려 세력의 존재를 의식한 것일 수도 있다.

한편 굴가 死後(656~660) 거란이 송막도독 阿卜固를 중심으로 다시 당에 反旗를 든 것은 고구려의 입김이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추론 된다.

따라서 당은 659년 黑山에서 거란을 격파, 아복도를 생포함으로써¹¹⁵⁾ 고구려의 요해지방 경영에 큰 타격을 주었다. 그러나 고구려가 거란에 대한 우월적 지

114) “未幾 窟哥舉部內屬 乃置松漠都督府 以窟哥爲使節十州諸軍事 松漠都督…… 窟哥死 與奚連叛 行軍總管阿史德樞賓等執松漠都督阿卜固獻東都” (『唐書』 卷29, 列傳144, 北狄 契丹傳).

115) 『唐書』 卷111, 列傳36, 薛仁貴傳.

위를 끝까지 유지하고 있었던 것은 666年 男生과 행동을 같이하는 ‘契丹兵’의 존재(사료 ④)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

관련 자료들은 당군이 645년부터 요동 지방 貴湍水(표 3의 사료 ②)와 橫山(요령성 遼陽 姑嫂山城) 일대에서 고구려에 대한 중심타격 작전을 수행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다만 <표 3>의 사료 ③번의 경우 그 교전지가 不明이나, 『唐書』에 그곳이 ‘赤烽鎮’임을 밝히고 있다.¹¹⁶⁾ 따라서 전쟁 소강기에 있었던 군사충돌과 관련된 지수들이 매우 미미함을 <표 3>과 <도 2>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4_ 第2次 麗唐戰爭 (660~662)¹¹⁷⁾

- ⑤ 11월에 당의 좌효위대장군 계필하력이 패강도행군대총관이 되고, 좌무위대장군 소정방이 요동도행군대총관, 좌효위장군 유백영이 평양도행군대총관, 포주자사 정명진이 누방도총관이 되어 군사를 거느리고 길을 나누어 쳐들어왔다.¹¹⁸⁾

660년 나당연합군 18만은 백제를 공멸하였다. 661~662년 第2次 麗唐戰爭은 당이 백제 攻滅의 기세를 휘몰아, 고구려 王都 平壤城을 포위 공격하는 긴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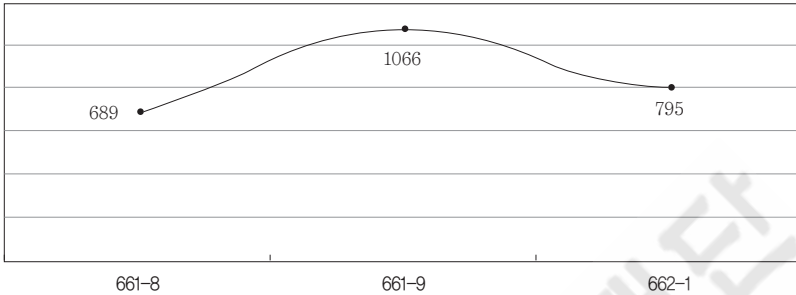
116) “高宗顯慶三年(658) 六月壬子 程名振及高麗戰于赤烽鎮敗之”(『唐書』卷3, 本紀3).

117) 660~662년 시기의 여당전쟁 사료를 분석한 <표 4>에 제시된 사료 ②⑥~②⑦의 典據는 아래와 같다. ②⑥번 사료는 『三國史記』卷22, 高句麗本紀10, 寶臧王 20(661)年條로서 “a. 春正月 唐募河北淮南六十七州兵 得四萬四千餘人 詣平壤·鏐方行營 又以鴻臚卿蕭嗣業爲扶餘道行軍總管 帥回紇等諸部兵詣平壤 b. 夏四月 以任雅相爲沮江道行軍總管 契苾何力爲遼東道行軍總管 蘇定方爲平壤道行軍總管 與蕭嗣業及諸胡兵凡三十五軍 水陸分道并進 …… c. 秋八月 蘇定方破我軍於沮江 奪馬邑山 遂圍平壤城 d. 九月 蓋蘇文遣其子男生 以精兵數萬守鴨綠 諸軍不得渡 契苾何力至 值水大合 何力引衆乘冰度水 鼓而進 我軍潰奔 何力追數十里 殺三萬人 餘衆悉降 男生僅以身免 會有詔班師 乃還”; ②⑦번 사료는 『三國史記』卷22, 高句麗本紀10, 寶臧王 21(662)年條로서, “a. 春正月 左驍衛將軍白州刺史沃沮道總管龐孝泰 與蓋蘇文 戰於蛇水之上 舉軍沒 與其子十三人皆戰死 b. 蘇定方圍平壤 會大雪解而退 凡前後之行 皆無大功而退”

118) “冬十一月 唐左驍衛大將軍契苾何力爲沮江道行軍大總管 左武衛大將軍蘇定方爲遼東道行軍大總管 左驍衛將軍劉伯英爲平壤道行軍大總管 蒲州刺史程名振

〈표 4〉 660~662년 여당 전쟁 시료 분석

연대	직전명	A. 당사자	당자 점수	B. 성격	성격 점수	C. 전과	전과 점수	D. 규모	규모 점수	총화: $A \times (B+C+D)$	총화 점수	누적 점수	본고에서의 시료 번호	비고
661-8	당, 평양성 공위전	당+제호 → 고구려	13	전역	5	왕도 압박	4	당군 총 4.4만	44	당(소정방), 최초 평양성 압박	689	689	26-c	백제 멸망, 작진 선(패강) → 마 음산 평양성)
661-9	여당 압록회전	당 → 고구려	13	전역	5	전략적 광역 공간 확보	3	당군 총 4.4만, 여 3만 전사	74	여(남생) ↔ 당 (계필하력)	1066	1775	26-d	당압록강병어 신돌과 남생여 군지휘, 당반사
662-1		당+신라 → 고구려	13	전역	5	왕도 압박	4	당군 총 4.4만, 방효태 전사	44	여(연개소문) ↔ 당(방효태/ 소정방)	795	2550	27	당평양성서찰수 연개소문출전 신 리치중작전



〈도 3〉 660~662년 고구려 대 당 군사행동 내용 분석

한 상황을 조성하는 데까지 이른 것이었다(사료 ②5와 표 4의 사료 ②6·②7). 이번 전쟁은 세 가지 방면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첫째는 平壤城 攻圍戰이다. 661년 당 군은 “水陸分道並進”하여 거침없이 평양성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표 4의 사료 ②6). 이 사실은 당 측의 황해제해권 장악을 전제로, 고구려의 요하 수계의 방어선이나 압록강 방어선이 당 군의 지속인 종심타격으로 매우 약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 경우 고구려는 당의 蘇定方에 대하여 연개소문이 직접 지휘하고 있다(표 4의 사료 ②6-c와 ②7-a). 두 번째는 압록강 방어선을 고수하기 위한 男生이 지휘한 鴨綠會戰이다(표 4의 사료 ②6-d). 세 번째로 특기할 일은 新羅가 당을 위한 冬季輜重作戰을 강행하고 있는 점이다.¹¹⁹⁾ 당은 제1차 여당전쟁 기간 중 동계 군사작전을 매우 부담스러워 하였다. 그러나 소강기의 군사충돌 시나 제2차 및 제3차 여당전쟁 당시 당군이 과감하게 동계 군사행동을 수행함은 전자의 경우 수군에 의한, 또 후자의 경우 신라에 의한 兵站 지원 활동에 힘입은 바 큰 것이다.

655년 고구려가 백제·말갈과 連兵하여 신라 北境 33城을 공취한 사건은 新羅에게 매우 충격적인 사태였다. 이러한 여·제의 압박이 漸増됨에 정비례하여 신라의 당으로의 접근 정책은 더욱 적극성을 띠게 되었다. 즉 신라는 고구려가

爲鏤方道總管 將兵分道來擊”(『三國史記』卷22, 高句麗本紀10, 寶臧王 19년(660)).

119) 『三國史記』卷6, 新羅本紀6, 文武王 2年(662).

주도하는 동북아시아 세력구도 속에서 고립화 되어 갈 수 밖에 없었다. 이 상황에서 신라는 對唐傾倒政策을 國家生存戰略으로 선택 하였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신라의 적극적인 唐制 受容은 자기의 親唐路線을 誇示하기 위한 誇張된 외교적 제스처(gesture)일 수도 있다. 그러나 당의 지배체제는 당시 동아시아 農耕社會에 가장 最適化된 尖端시스템으로 평가 받고 있었다. 삼국 중 가장 後發國家로 자리매김 되던 신라는 이러한 최선진 지배체제를 자기역량화 함으로써 일거에 麗·濟 양국을 앞질러 가고자 했던 것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이후 여·나 간의 主戰場이 漢江과 臨津江 선으로 고착화 되어 감은 이후 여당전쟁 기간 중 신라 自任한 ‘第2前線’의 역할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상황 하에서 고구려는 이후 복상하는 나당군에 의한 ‘제2전선’의 형성이라는 군사적 부담을 새로이 추가하는 전략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혹자가 연개소문이 신라의 동맹 요청을 물리치고 결국 羅唐同盟이 이루어지게 한 것을 고구려 국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된 외교상의 실패라 평가한 것도¹²⁰⁾ 바로 이런 데서 비롯된 것이다.

어쨌든 戰局은 당나라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당측의 손발 안 맞는 대응이 “모두 큰 성과 없이 돌아가는(皆無大功而退: 표 4의 사료 27-b)” 결과를 낳았다는 점은 주목되는 사안이다. 압록회전에 승리한 당 군이 소정방을 지원코자 하는 의지를 보임 없이 “군사를 돌리라는 조서가 있자 그들이 곧 돌아간(有詔班師: 표 4의 사료 26-d)” 점이나, 蛇水戰에서 패했던 소정방 군이 “큰 눈이 내리자 포위를 풀고 물러간(會大雪解而退: 표 4의 사료 27-b)” 일, 그리고 애써 복상한 신라 치중부대가 “당병이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또한 귀환한(聞唐兵歸亦還)”¹²¹⁾ 사실 등이 이를 적시하고 있다.

이는 당시 당에게 적극적인 고구려 공멸 의지가 없었거나, 혹 전쟁 지휘부 자체 내의 여러 문제점이 존재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어쩌면 고구려의

120) 林起煥, 1997, 앞의 글, 88쪽.

121) 『三國史記』卷6, 新羅本紀6, 文武王 2年(662).

대당 戰力과 지도체계가 蛇水戰에서 나타났듯 여전히 강고한 점이 후일을 기약한 철군을 단행하게 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혹자는 당의 백제 공멸 사실을 고구려의 평양 직공을 위한 우회 전략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견해는 이 전쟁을 당 측의 평양 直攻 전략의 실패로 평가기도 한다.¹²²⁾ 그러나 왕도 공위전과 압록회전 등을 치른 제2차 여당전쟁은 <표 4>와 <도 3>에서 비교적 높은 지수를 보이고 있다.

5_ 第3次 麗唐戰爭(666~668)¹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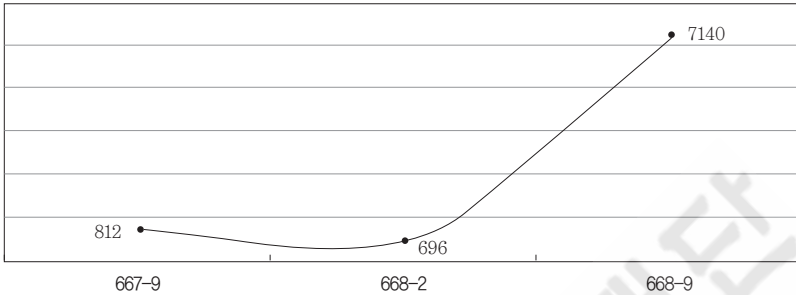
㉘ a. 연개소문이 죽고 맏아들 남생이 그를 대신해 막리지가 되었다. 그가 처음 국정을 맡아서 지방에 나가 여러 성을 돌아다닐 때, 자기 아우 남건과 남산에게 조정에 머물러 뒷일을 처리하게 하였다. 어떤 이가 남생의 두 아우에게 이르기를 “남생은 두 아우 분들이 자기 자리에 바짝 근접해 오는 것을 싫어 해 당신들을 얹어려 생각하고 있으니 이쪽에서 먼저 계책을 세우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또 어떤

122) 金瑛河, 2000, 「高句麗 內紛의 國際的 背景」, 『韓國史研究』 110, 韓國史研究會, 41~45쪽.

123) 666~668년 시기의 여당전쟁 사료를 분석한 <표 5>에 제시된 사료 ㉘~㉚의 典據는 아래와 같다. ㉘번 사료는 『三國史記』 卷22, 高句麗本紀10, 寶臧王 26(667)年條로서 “a. 秋九月 李勣拔新城 使契苾何力守之 勣初渡遼 謂諸將曰 新城高句麗西邊要害 不先得之 餘城未易取也 遂攻之 城人師夫仇等 縛城主開門降 勣引兵進擊 一十六城皆下 b. 龐同善·高侃 尚在新城 泉男建遣兵襲其營 左武衛將軍薛仁貴擊破之 侃進至金山 與我軍戰敗 我軍乘勝逐北 薛仁貴引兵橫擊之 殺我軍五萬餘人拔南蘇·木·蒼巖三城 與泉男生軍合 c. 郭待封以水軍 自別道趣平壤 …… 勣乃更遣糧仗赴之 …… d. 處俊在安市城下 未及成列 我軍三萬掩至 軍中大駭 處俊據胡床 方食乾糲 簡精銳擊敗之”; ㉙번 사료는 『三國史記』 卷22, 高句麗本紀10, 寶臧王 27(668)年條로서 “a. 春正月 唐以右相劉仁軌爲遼東道副大總管 處俊·金仁問副之 b. 二月 李勣等拔我扶餘城 薛仁貴既破我軍於金山 乘勝將三千人 …… 遂拔扶餘城 扶餘川中四十餘城皆請服 c. 侍御史賈言忠 奉使自遼東還 …… 諺曰 …… 今男生兄弟 狼爲我鄉導 虜之情僞 我盡知之 …… d. 泉男建復遣兵五萬人 救扶餘城 與李勣等 遇於薛賀水 合戰敗 死者三萬餘人 勣進攻大行城 e. 夏四月 彗星見於畢昂之間 …… f. ㉚ 秋九月 李勣拔平壤 ㉚ 勣既克大行城 諸軍出他道者 皆與勣會 進至鴨渌柵 我軍拒戰 勣等敗之 追奔二百餘里 拔辱夷城 諸城遁逃及降者相繼 ㉚ 契苾何力先引兵 至平壤城下 勣軍

〈표 5〉 666~668년 여당전쟁 시료 분석

연대	직전명	A.당시자	당자 점수	B.성격	성격 점수	C.전과	전과 점수	D. 규모	규모 점수	총화: A×(B+C+D)	총화 점수	누적 점수	본고에서의 시료 번호	비고
667~9	당, 신성 등 16성 및 남소, 목제, 창암 3성 공함	당+신라 → 고구려	14	전역	5	전략적 광역 공간 확보	3	여군 5만 전사	50	당, 고구려 공멸 위한 전략적 예비 군사행동	812	812	30 - a & b	요하방어선 붕괴, 압록강 방어선 압박
668~2	당, 부여성 공함, 부여 친 중 40여성 청향	당 → 고구려	12	전역	5	전략적 광역 공간 확보	3	여 원군 5만 중 3만 전사	50	당, 고구려 공멸 위한 전략적 예비 군사행동	696	1508	31 - b & d	당, 송화강 유역 후방거점지역 유린
668~9	당 발 평양	당+신라 → 고구려	14	전역	5	왕도 함락	5	계필하력 휘하 50만	500	고구려 멸망	7140	8648	31 - f	



〈도 4〉 666~668년 고구려 대 당 군사행동 내용 분석

이가 남생에게 알려 말하기를 “두 분 아우는 형이 돌아와 자기들의 권세를 빼앗을까 염려해 형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합니다”라고 하였다. 남생이 몰래 자기 심복을 평양으로 보내 동정을 엿보게 했는데, 남생의 두 아우들이 숨어 있던 그를 체포해 두고는 왕명으로 남생을 소환하니, 남생이 감히 수도에 돌아오지 못하였다. 남건이 스스로 막리지가 되어 군사를 발동해 남생을 토벌하였다. b. 남생은 국내성으로 달아나 웅거하면서 자기 아들 현성을 당에 보내 동정을 구걸하였다. 6월에 당 고종이 좌효위장군 계필하력에게 명해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응접해오게 하니, 남생이 몸을 빼내 당으로 달아났다.¹²⁴⁾

- ㉔ a. 겨울 12 월 고종은 이적을 요동도행군대총관 겸 안무대사로 삼고, 사열소상백인 안록 출신 학처준을 그의 보좌로 하였으며, 방동선·계필하력을 모두 요동도행군부대총관 겸 안무대사로 삼았다. 그리고 수육군의 모든 총관들과 전량사인 두의적·독고경운·곽대봉 등도 다 이적의 지휘를 받게 하였다. b. 하북 제 주의 조부는 전부 요동으로

繼之 ㉔ 圍平壤月餘 ㉕ 王臧遣泉男產 帥首領九十八人 持白幡詣勣降 勣以禮接之 ㉖ 泉男建猶閉門拒守 頻遣兵出戰皆敗 ㉗ 男建以軍事 委浮圖信誠 信誠與小將烏沙·饒苗等 密遣人詣勣 請爲內應 後五日 信誠開門 勣縱兵登城 鼓 焚城 男建自刺不死 執王及男建等”

- 124) “a. 蓋蘇文死 長子男生代爲莫離支 初知國政 出巡諸城 使其弟男建·男產 留知後事 或謂二弟曰 男生惡二弟之逼 意欲除之 不如先爲計 二弟初未之信 又有告男生者 曰二弟恐兄還奪其權 欲拒兄不納 男生潛遣所親 往平壤伺之 二弟收掩得之 乃以王命召男生 男生不敢歸 男建自爲莫離支 發兵討之 b. 男生走據國內城 使其子獻誠 詣唐求哀, 六月 高宗命左驍衛大將軍契苾何力 帥兵應接之 男生脫身奔唐”(『三國史記』卷22, 高句麗本紀10, 寶臧王 25년(666)).

보내 군비에 충당하게 하였다.¹²⁵⁾

고구려의 대당 前線 상의 치명적인 균열은 666년 政爭으로 失脚한 男生이 당으로 투항한 전쟁 지도부의 분열이었다(사료 ②8). 淵蓋蘇文 사후 일어난 그 자식들 간의 권력 다툼은 절대적 권력자의 죽음이 몰고 올 死後 不安定性(post-death in-stability)의 단적인 예가 된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生前 절대자 권력의 안정성에 비례하여 증폭되는 것이다.¹²⁶⁾ 절대 권력체제 아래서 情報과 權力의 흐름은 制度보다 人脈에 얽혀 있게 되며, 그것이 派閥 형성을 부채질하게 된다. 따라서 절대적 권력의 空白期에는 그러한 파벌 간의 투쟁이 결정적 破局을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

논자에 따라서는 당의 고구려 정벌 전략이 [요동 공략 → 평양 직공 → 내분 유도공작]이라는 3단계로 진전되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이 견해는 평양 직공 전략의 실패 후 당에 의한 고구려 분열 유도 공작의 소산이 연개소문 사후 벌어진 고구려 내분이라고 본다. 즉 이 견해에 따르면, 666년 泰山封禪에 寶藏王의 아들이 참석한 것은¹²⁷⁾ [남생 - 보장왕]연합전선이 구축되어 대당 和解路線을 추구하고자 했음을 뜻하는 바, 이에 대해 南山은 대당 강경노선을 견지하고자 함으로써 국망과 직결되는 내분이 발생하였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¹²⁸⁾

만일 남생이 대당 화해 추구세력이며,¹²⁹⁾ 國內城 지역 세력이 舊派인 온건파라고 보는 견해가¹³⁰⁾ 맞는다면, 남생이 실각 후 대당 정책에 대한 견해를 같이 하

125) “a. 冬十二月 高宗以李勣爲遼東道行軍大總管兼安撫大使 以司列少常伯安陸·處俊副之 龐同善·契苾何力 并爲遼東道行軍副大總管兼安撫大使 其水陸諸軍總管并轉糧使竇義積·獨孤卿雲·郭待封等 并受勣處分 b. 河北諸州租賦 悉詣遼東給軍用”(『三國史記』卷22, 高句麗本紀10, 寶藏王 25년(666)).

126) Richard K. Betts & Samuel P. Huntington, 1985/1986, *Dead Dictators and Rioting Mobs*, vol.10, no.3, pp. 113~143.

127) “王遣太子福男入唐 侍祠泰山”(『三國史記』卷22, 高句麗本紀10, 寶藏王 25年(666)).

128) 金瑛河, 2000, 앞의 글, 46~52쪽.

129) 金瑛河, 2000, 앞의 글, 47~48쪽.

130) 林起煥, 1992, 앞의 글, 39쪽.

는 세력들의 본거지인 국내성 지역으로 도주 후 재기를 꾀했을 수도 있다. 남생이 제2차 여당전쟁 시 압록회전의 지휘자였다는 점 역시 이와 관련 주목되는 사실이다.

男生은 “走保國內城, 率其衆與契丹靺鞨兵”(사료 ④)하여 당으로 奔走하였다. 즉 男生은 자기 국내 지지 세력뿐만 아니라, 적지않은 거란·말갈 집단을 對唐戰列에서 이탈케 함으로써, 고구려의 대당 저항역량의 기반을 蠶食했던 것이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심각한 사태는 남생이 대당전쟁을 수행하는데 있어 最大 후방 병참거점이면서, 고구려의 전략예비병력으로서의 구실을 담당하던 말갈에 대한 瞰制基地로 기능하던 松花江 유역의 전략적 가치를 당에게 提報한 사실이다. 688년 고구려가 都城의 포위 공격 위협에 직면해서조차도 松花江 유역 일대의 奪還戰을 시도한 것은(표 5의 사료 ㉓-d) 말갈의 잠재적 군사역량을 의식한 군사행동이었다. <표 5>의 사료 ㉓-c 상의 “지금 남생이 형제간에 싸움질을 벌여 우리의 길잡이가 되었으니, 저들의 속사정을 우리가 속속들이 알게 되었다(今男生兄弟 狼爲我鄉導 虜之情僞 我盡知之)”라는 侍御史 賈言忠의 말은 남생의 離叛이 고구려의 대당 전열에 가한 치명적 결과를 시사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당군은 667년 秋 9월에 적어도 50萬 이상의 대병력을 동원¹³¹⁾ 고구려 서변 요지인 新城 공발 작전을 필두(표 5의 사료 ㉓-a)로 종래와는 다른 主攻 방향을 취하면서, 南蘇城·木底城 등 渾河 및 蘇子河 沿線의 제 군사거점 및 압록강 방어선 상의 여러 거점을 逐次的으로 유린하였다(표 5의 사료 ㉓-b). 그리고 翌年인 668년 2월에는 고구려의 최대 후방거점인 송화강 유역의 扶余城과 扶余川邊 40여 城을 확보함으로써(표 5의 사료 ㉓-a) 반년 간에 걸쳐 수행한 일련의 예비공세를 마무리 지었다.

이러한 당의 군사행동은 압록강방어선 돌파 이후 우려되는 배후의 불안요인인 고구려의 혼하·태자하 유역 일대 및 압록강 유역 상 포진된 제 군사거점들을 一掃하여 작전선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병참 기능의 원활화를 꾀하고자 함이다. 또 당 군은 동시에 송화강 유역 일대를 점거함으로써, 최종 군사목표인 平壤城을

131) 『唐書』卷110, 列傳35, 契苾何力傳.

중심으로 한 대동강 유역 일대에 대한 일체의 물적·인적 지원 가능성을 차단하여 왕도 攻圍戰의 성공가능성을 보다 확고히 담보하려는 목적 하에서 실시된 것이다.

한편 신라는 자기의 대당 경도 정책에도 불구하고 제1차 여당전쟁(645~648) 발발 이래 대여 參戰에는 매우 소극적 자세를 견지하여 왔다. 신라가 第2次 여당전쟁 시 치중 작전을 전개한 것은 자기의 주적인 백제 공멸전에서 보여 준 당의 역할과 역량을 고려한 조치였다. 당은 666년 남생의 투항이라는 고구려의 대당 전열 상의 치명적인 균열을 빌미로 고구려 공멸을 위한 第3次 麗唐戰爭(666~668)을 일으킨다. 신라는 고구려의 멸망 가능성이 보다 분명해진 시점에서 당군과 연합하여 668년 9월부터 평양성 공위전에 참가했던 것이다.¹³²⁾

마침내 당 군은 신라군과 연합하여 668년 9월부터 고립무원의 상태가 된 평양성 공발전을 전개하여, 한 달 여에 걸쳐 필사적으로 항전하는 평양성을 함락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표 5의 사료 ㉓~f). 고구려의 國亡을 결과 한 667~668년의 제3차 여당전쟁이 <표 5>와 <도 4>에서 645년 제1차 전쟁(8965)과 더불어 매우 높은 지수(8648)를 보이고 있음은 당연한 일이다.

IV. 麗唐戰爭 意味의 再檢討

1. 麗唐戰爭 時期 區分

<표 6>과 <도 5>는 앞에서 살펴 본 <표 2>~<표 5>를 연도별로 다시 정리한 것이다. 이를 검토해 보면 23년 간 진행된 여당전쟁의 推移를 파악할 수 있다.

제일 높은 지수가 나온 해는 645년(8965)과 668년(7836) 그리고 661년(1755)이다. 그러나 661~662년(2550) 및 667~668년(8648)은 연속된 당 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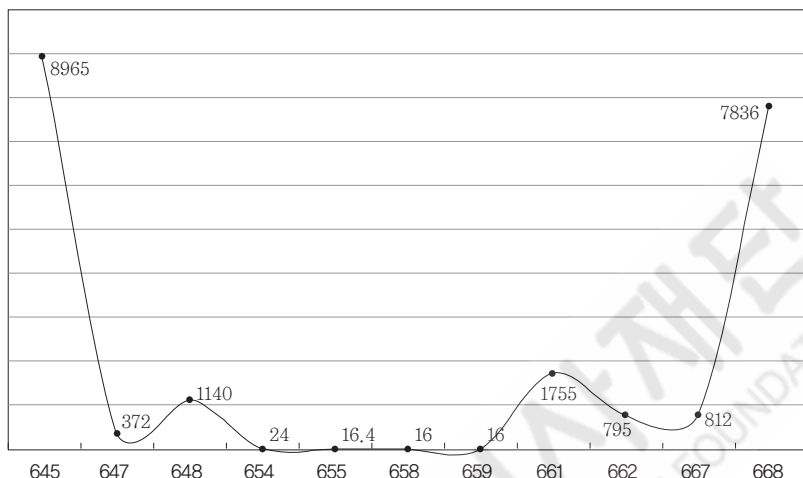
132) 『三國史記』卷22, 高句麗本紀10, 寶臧王 25~27年(666~668).

〈표 6〉 645~668년 여당 전쟁 사료 분석

시기구분	연대	작전명	A.당사자	총화점수	누적점수	비고	연도별 백분율
제 1차 여당전쟁	645	당, 고구려 공멸전	당 → 고구려	8965	8965	주전장 요하유역에 형성	41.22332
	647	당, 고구려에 대한 지속적 소모전 강요	당 → 고구려	372	9337	당, 수륙양면작전, 요하유역 - 압록강선 중심타격	1.710549
	648	당, 박작성 공위전	당 → 고구려	1140	10477	당, 수군 활용, 압록강 방어선 압박, 고구려 공멸 계획무산	5.242006
여당전쟁 소강기	654	고구려, 거란 압박	고구려+말갈 → 거란	24	10501		0.110358
	655	귀단수전	당 → 고구려	16.4	10517	당, 여 요하방어선 중심타격	0.075411
	658	당 내공	당 → 고구려	16	10533		0.073572
	659	황산전	당 → 고구려	16	10549	당, 여 요하방어선 중심타격	0.073572
제 2차 여당전쟁	661	당, 1차평양성 공위전 개시, 압록회전	당+제호 → 고구려	1755	12304	백제 멸망, 당 평양성 공위전 개시, 압록강방어선 돌파	8.06993
	662	당, 평양성에서 철수	당+신라 → 고구려	795	13099	661~662 연속적 군사행동 신라 치중작전	3.655609
제 3차 여당전쟁	667	당, 고구려 공멸 위한 전략적 예비군사 행동	당+신라 → 고구려	812	13911	요하방어선 붕괴, 압록강방어선 압박	3.73378
	668	당, 고구려 공멸 위한 전략적 예비군사 행동 → 평양성 공함 → 고구려 멸망	당+신라 → 고구려	7836	21747	667~668 연속적 군사행동, 당, 송화강 유역 후방거점지역 유린 → 공발 평양	36.03189

의 대역 군사행동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두 기간은 645~648년(10477)과 더불어 지수가 654~659년(72.4)에 비하여 비교가 되지 않게 높은 것이다. 또 이런 지수를 백분율로 표시할 경우도 마찬가지이다(표 6).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여당전쟁의 시기를 [645~648년(10477)의 제1차 여당전쟁 → 654~659년(72.4)의 전쟁소강기 → 660~662년(2550)의 제2차 여당전쟁 → 667~668년(8648)의 제3차 여당전쟁]이라고 네 단계로 분별한 것이다.



〈도 5〉 645~668년 고구려 대 당 군사행동 내용 분석

2_ 麗唐戰爭에 대한 總括的 檢討

고구려가 6세기 이상의 기간에 걸쳐 축차적으로 확보한 鴨綠江·豆滿江·大同江·遼河 및 松花江 유역은 제국화 된 고구려의 前線을 뒷받침하는 動員基地 (mobilization base)가 되었다. 국가형성기 이래 고구려의 全方位的 軍事膨脹의 動線은 당시 가장 중요한 전략물자인 말(馬)과 鐵의 안정적 확보 노력과 무관하지 않다. 고구려는 이러한 國勢 팽창 정책과정에서 漢人 및 靺鞨·鮮卑·契丹·室韋·地豆于 등 변방 異種族 집단을 군사력으로 제압하면서 이들에 대한 실효적인 지배권을 확립하여 나갔던 것이다. 따라서 고구려는 6세기 이래 동북아시아 霸權國家로 군림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구려의 패권이 전방위적 군사팽창 정책의 소산임은 곧 고구려 변방공간이 적대적 국가·세력과 지속적으로 接續·交戰하는 前線(limes)으로서 恒時的이며 구조적인 불안정성을 가진 채 경영되고 있었음을 뜻한다. 고구려의 縱深防禦戰略은 이러한 불안정한 변방 공간을 방어중심으로 운용하는 專守防禦戰略이었던 것이다.

고구려가 시종일관 전수방어전략 개념에 입각한 중심방어전략으로 對唐戰에 임한 것은 戰力の 選擇·集中 원칙을 애당초 포기한 전쟁 수행을 하였음을 뜻한다. 그 결과 고구려는 처음부터 戰爭主導權 상실하고 당의 군사행동에 대해 分散的·即興的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었던 것이다. 즉 고구려는 자기가 선택한 戰場에서 이미 자리 잡고 있는 唐兵을 상대로 한 비효율적 전력 消耗을 자초하고 있었다. 따라서 고구려는 23년간의 지루한 소모전과 持久戰의 한가운데에서 인적·물적 資源을 포함한 國力の 枯渴을 결과했고, 방어중심의 逐次的 退縮을 초래했던 것이다.

곧 645~648년 제1차 여당전쟁의 주전장은 渾河 및 太子河 유역 일대였다. 또 654~659년의 소강기의 군사충돌에서도 이 방면에서 고구려는 지속적인 縱深打撃을 받고 있었다. 661~662년의 제2차 여당전쟁의 경우, 전장은 압록강 유역으로까지 확대되는 한편 平壤城攻圍戰을 벌리게 되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667~668년의 제3차 여당전쟁 시기에는 두만강 유역을 제외한 全 領域이 戰場化되어 갔던 것이다. 이러한 방어중심의 축차적 퇴축은 결국 중심방어전략 자체를 無用之物로 만들게 되었다.

고구려는 여당전쟁을 치루면서 혼하 및 태자하 유역의 遼東 지방과 國內城을 중심으로 하는 압록강 유역 그리고 扶余城이 있는 송화강 유역 및 平壤城이 중심이 되는 대동강 유역 모두가 전장화 되어 갔던 것이다. 다만 柵城 중심의 豆滿江 유역만이 戰禍를 모면하게 된 점은 이곳이 훗날 渤海 건국의 立地로 거듭날 수 있었던 배경으로 판단된다.

고구려가 채택한 중심방어전략의 핵심은 諸城 네트워크의 稼動이었다. 이러한 제 성 중심의 방어체계는 중앙 통제력이 약화될 경우, 독자적 運動性을 보이는 한계를 드러내게 된다. 특히 대당 전쟁 말기 지방군사력의 이탈로 말미암아 십사리 왕도인 평양성이 포위·함락되는 약점을 노출시키기도 하였던 것이다.¹³³⁾

아울러 여당전쟁 당시 당이 黃海制海權을 확고히 장악함을 바탕으로 作戰 범위를 任意로 확대시킬 수 있었고, 병참 역량의 안정적 운용을 기할 수 있었던

133) 林起煥, 1997, 앞의 글, 87쪽.

점도 이 전쟁의 승부를 가르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된다.

고구려는 본질상 內線的인 위치에서 중심방어전략으로 당과 맞서 상대적으로 우세한 적의 군사역량에 맞서 毅然히 대처해 나갔다. 그러나 612년 이래 遼西 지역에서의 控制 능력을 상실했고, 645년 이래 요동 지방이 恒時戰場化됨에 따라, 고구려 最前線으로서의 이 지역의 전반적인 방어역량의 消耗는 극대화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遼海 방면에서의 고구려세의 퇴조는 이 지역의 전략적 負擔을 더욱 가중시키게 되었던 것이다. 여기에 百濟 멸망(660) 이후 羅·唐軍의 北上 압력에 의한 ‘第2前線’의 형성 위협은 군사적으로 취약한 대동강유역 이남 지역 방위라는 새로운 어려움을 더하고 있었다. 결국 667~668년 요동 지역 및 압록강 유역에 대한 唐의 마지막 축차적 군사행동과 고구려 최대의 후방거점인 송화강 유역 실패는 고구려 ‘帝國’ 자체의 전면적 崩潰를 예고하는 사태였던 것이었다.

3_ 麗唐戰爭의 性格과 意義

우리 학계는 여당전쟁의 성격 혹은 본질이 당의 中華 중심적 천하질서 실현을 위한 팽창주의에 대항한 고구려의 독자적 세력권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고, 그것이 고구려와 백제가 연결된 남북 진영과 신라와 당이 연결된 동서 진영을 양축으로 하는 동아시아를 편가르는 국제전쟁의 형태를 띠고 전개되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¹³⁴⁾

여당전쟁의 결과로 10세기 말까지 동아시아 세계에는 조공·책봉을 매개기제로 한 당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세계체제 질서 곧 중국을 중심으로 한 억압적 평화체제가 정착하게 된다. 또 이 전쟁은 이후 우리 한국 대외관계사 전개의 패러다임(paradigm)이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太平御覽』 중에는 당 태종 시 征遼判官으로 종군한 바 있던 徐慶이 당시 전장에서 꾸었던 凶夢이 則天武后 시에 현실이 되어 被戮되었다는 이야기가 저록

134) 林起煥, 1994, 앞의 글, 169~177쪽.

되어 있다.¹³⁵⁾ 이 사실은 당시 중국인들의 삶과 기억에 있어 고구려와 치렀던 ‘遼東之役’이 對突厥·吐蕃戰과 더불어 동아시아에서 그들이 겪었던 가장 혹독하고도 기나긴 전쟁으로 刻印되고 있었음을 시사해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국학계 연구 성과들은 대부분 당이 고구려에 보낸 詔書를 근거로 양자 관계를 파악, 본 전쟁의 성격을 國際戰이 아닌 內戰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서라는 자료가 갖는 常套性과 修辭性을 감안할 때 그 行間 의미의 파악 노력 없이 행해진 이러한 연구 성과는 즉흥적인 정책적 역사인식의 가장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조서 및 당시 관련 제 사료에 드러난 당의 華夷論의 세계인식은 고구려·백제·신라를 모두 ‘夷’로 파악하고 있는 바, 고구려만 유독 자기 대내 정책의 관철 대상으로, 또 그것과의 전쟁을 내전으로 단정 지음은 지나친 演繹의 논리 비약이 아닐 수 없다.

한편 모든 자료들은 본 전쟁이 진행되는 와중에서조차 이 화이론적 세계관의 실천 메카니즘인 朝貢·冊封體制가 고구려와 당 간에 간헐적으로 가동되고 있었음을 적시하고 있다. 이 점은 화이론과 조공·책봉체제가 갖는 虛構性的의 일단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는 셈이다.¹³⁶⁾

본래 조공·책봉제도란 중국의 문화적·이념적 우월성에 기초하는 바, 그러한 우월성 역시 중국이 四夷를 군사적으로 지배하던 특정 시기에 한해서만 실효적으로 관철되었던 것이다. 중국 측의 군사적 우월성이 담보해지지 못하는 유교 이념에 기초한 이러한 階序의 대외관계는 중국 내부에서 皇帝 통치권을 정당화하려는 노력이 빚어낸 허구에 지나지 않았다.¹³⁷⁾ 따라서 우리가 화이론적 觀念論의 虛偽意識에서 비롯된 중국 측 사료가 갖는 한계를 충분히 인식한 위에서만 본 전쟁의 실상을 좀 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에 비추어, 당시 고구려와 당 간의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은 ‘화이론·조

135) 『太平御覽』卷四百, 人事部 四十一, 凶夢.

136) 朴京哲, 2004a, 앞의 글, 64~65쪽.

137) 피터 윤(윤영인), 2002, 「서구학계 조공제도 이론의 중국 중심적 문화론 비판」, 『아세아연구』 109,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72~278쪽.

공'이라는 圖式的 용어의 틀에서 나뉜 것이 아니었다. 당시 동아시아 諸國의 대외 관계를 地政學的·역사적 맥락에서 짚어 갈 때, 본 전쟁은 관련 여러 국가 혹은 王朝의 생존·보존·발전을 위한 전략의 관철이라는 實利主義 원칙 곧 國益 추구에서 비롯된 동아시아 국제전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당시 전쟁 당사국들이 지키고 실현하고자 했던 국익은 무엇이었을까?

고구려는 국초 이래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군사적 국세 팽창정책의 연장선 위에서 동북아시아에서의 독자적 生存圈 및 패권의 보존 및 그 확산을 담보하기 위하여 '東蒙古' 문제로 대표되는 나뉠대로의 '大陸政策'을 관철해 나가고자 했다.

그러나 당은 동아시아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일원적 지배질서에 입각하여 재편함을 통하여 자국의 안보를 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世界政策(world policy)을 강행하고자 했던 것이다. 곧 본 전쟁은 각자의 국익을 추구하려는 고구려의 대륙정책과 당의 세계정책이 정면충돌하면서 빚어낸 동아시아 國際戰爭이었지, 결코 당과 국내 割據 세력 사이에 벌어진 內戰이 아니었던 것이다.¹³⁸⁾

또 이 점은 “영원한 敵도 同志도 없고, 영원한 국익만이 있을 뿐”·“적의 동지는 나의 적, 적의 적은 나의 동지”·“국익을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거래할 수 있다”라는 國際政治的 命題가 여당전쟁의 진행 과정에서 또 이후 羅唐戰爭에서 그대로 구현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새삼 확인할 수 있다.

138) 朴京哲, 2004a, 앞의 글, 63~68쪽.

V. 結語

이상의 논의를 정리함을 통하여 결어에 갈음코자 한다.

제1장에서는 麗唐戰爭의 背景·原因을 살펴 보았다. 고구려는 국초 이래의 군사적 국세 팽창정책의 연장선 상에서 동북아시아에서의 독자적 生存圈 및 패권의 보존 및 그 확산을 담보하는 나름대로의 ‘大陸政策’을 관철해 나가고자 했다. 그러나 唐帝國은 동아시아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一元的 지배질서로 재편, 자국의 安保를 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世界政策을 강행하고자 했던 것이다.

6세기 중반 연개소문의 정변은 貴族聯立政權 체제의 파탄을 보여주고 있었다. 연개소문 정권은 군사적 팽창정책의 지속적 추진만이 고구려 국가 및 그 지배집단의 생존기반을 안정적으로 담보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종래 ‘대륙정책’을 관철할 것을 추구하는 연장선상에서 대당 強硬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그러나 연개소문 정권은 권력행사 상의 ‘正當性(legitimacy)’에 있어 상당한 瑕疵를 가지고 있었다. 6세기 말 隋·唐世界帝國 성립을 주도한 세력은 ‘武川鎮軍閥 = 關隴集團’이었다. 이들은 고구려의 동몽고 지방에서의 세력 부식 노력과 北아시아 초원지역 제 세력과의 연계 가능성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군사적 대응조치 모색하게 된다. 한편 당의 전쟁 목적은 드러낸 명분과는 달리 “天下에서 아직까지 平定되지 않은 本中國之地”였던 遼東의 고구려를 攻滅시키는 것이었다.

제2장에서는 여당전쟁의 경과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당이 고구려를 공격함에 가장 고민한 문제는 병참과 제 성의 존재였다. 당이 645년 전쟁 당시 동원한 것으로 사료상 著錄된 병력은 戰鬥員으로 실제 전장에 투입된 精銳 府兵 10만을 지칭한 것인 바, 이들을 전장에서 보조한 招募兵 등은 兵員 수 계산에서 탈락된 것이 아닐까 조심스레 추론해 보았다. 645년 제1차 여당전쟁의 가장 주요한 승부처는 안시성이었다. 고구려는 이 전쟁에서 당의 저돌적 공세를 저지하고, 전장을 요동지역에 고착화시키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요동 지역의 주요 전략거점들이 타격을 받았고, 적지 않은 인적·물

적 자원이 소진되었다. 전쟁 진행 과정 중 간헐적으로 드러나는 적극적 항전의지의 부재는 연개소문 정권에게 하나의 숙제를 남겨 준 셈이다. 또한 당 측의 黃海制海權 장악은 고구려의 전쟁 수행에 있어 큰 장애물 가운데 하나였다.

고구려와 당의 전쟁은 659년까지 소강상태에 돌입한다. 당의 武后와 高宗이 얹힌 복잡다단한 사건이 연발되었으며, 고구려 역시 연개소문 정권은 내부 체제 정비에 腐心하였던 듯하다. 다만 이 소강기 중에도 요하 수계 일대에서 소규모 충돌이 654~659년에 걸쳐 산발적·간헐적으로 벌어졌던 것이다.

660~662년 제2차 여당전쟁에서 고구려는 북상하는 나·당군에 의한 ‘제2 전선’의 형성이라는 군사적 부담을 새로이 추가하는 전략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당 측은 평양성 공위전을 벌이는 등 戰局을 유리하게 이끌었지만, 손발 안 맞는 대응으로 아무 성과 없이 철군하고 만다. 이는 고구려의 대당 戰力과 지도체계가 여전히 강고했던 데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다.

666~668년 제3차 여당전쟁에서 고구려는 政爭으로 실각한 男生이 당으로 투항한 전쟁 지도부의 분열이라는 고구려의 대당 前線 상의 치명적인 균열을 드러내게 된다.

당군은 압록강방어선 돌파 이후 우려되는 배후의 불안요인인 고구려의 혼하·태자하 유역 일대 및 압록강 유역 상 포진된 제 군사거점들을 一掃하여 작전선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병참 기능의 원활화를 꾀하였다. 또 당군은 동시에 송화강 유역 일대를 점거함으로써, 최종 군사목표인 平壤城을 중심으로 한 대동강 유역 일대에 대한 일체의 물적·인적 지원 가능성을 차단하여 평양성 攻圍戰을 성공리에 이끌었던 것이다.

마지막 제3장에서는 여당전쟁의 시기구분, 전쟁에 대한 총괄적 평가 및 의의를 고찰해 보았다. 본 연구자는 <표 6>과 <도 5>를 검토함을 통하여 여당전쟁의 시기를 [645~648년(10477)의 제1차 여당전쟁 → 654~659년(72.4)의 전쟁소강기 → 660~662년(2550)의 제2차 여당전쟁 → 667~668년(8648)의 제3차 여당전쟁]이라고 네 단계로 분별하였다.

한편 고구려가 시종일관 전수방어전략 개념에 입각한 중심방어전략으로 대당전에 임한 것은 戰力의 선택·집중 원칙을 애당초 포기한 전쟁 수행을 하였음

을 뜻한다. 그 결과 고구려는 처음부터 전쟁주도권을 상실하고 있었다. 따라서 고구려는 지루한 소모전과 지구전으로 인하여 국력의 고갈을 결과했고, 방어중심의 逐次的 퇴축을 초래했으며, 결국 종심방어전략 자체를 無用之物로 만들게 되었다. 아울러 당시 당의 黃海制海權 장악도 이 전쟁의 승부를 가르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된다.

여당전쟁의 결과로 10세기 말까지 동아시아 세계에는 조공·책봉을 매개기제로 한 당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세계체제 질서 곧 중국을 중심으로 한 억압적 평화체제가 정착하게 된다. 또 이 전쟁은 이후 우리 한국 대외관계사 전개에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여당전쟁은 각자의 국익을 추구하려는 고구려의 대륙정책과 당의 세계정책이 정면충돌하면서 빚어낸 동아시아 국제전쟁이었지, 결코 당과 국내 할거세력 사이에 벌어진 내전이 아니었던 것이다.

[ABSTRACT]

Revisiting the war between Koguryo and Tang

Park, Kyung-Chul

The most prominent character of the war between Koguryo and Tang is the direct contact of the two powers, not the indirect war of the internal powers against Tang. So this war was international conflict in the East Asia between the Koguryo's continent policy and Tang's world policy.

By the continent policy Koguryo pursued her own lebensraum : the keeping and expanding the hegemony in the North East Asia. But Tang wanted to reorganize this area as the background guaranteing the security for her unilateral world order. In the 6th century, Koguryo adopted the strong anti-Tang policy to realize her old 'continent policy', but could not mobilize the military powers cause of the domestic legitimacy problem. And in the later part of this century, the Wuchanzhen warlords which succeed to build the Tang Dynasty tried to destroy the Koguryo's power in the East Mongolia and the alliance of Koguryo with the steppe powers in the North Asia. Tang's main military object was to attack to destroy Koguryo in her background area, Laotung peninsula.

The great confrontation of this two policies could be divided into three wars : first from 645 to 648, second from 660 to 662, and last one from 667 to 668. And between the first and the second war poses almost 10 years' state of temporary ease. In the first war, Koguryo

defended for Ansi-castle, the crucial strategic point against Tang, despite of Tang's seizure of the Yellow Sea ruling power. Koguryo defeated Tang in the Laotung peninsula, but was great her loss in the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In the second, the alliance of Tang and Silla, Korean internal power, rushing from the South, forced Koguryo to prepare a new defence line, but Koguryo still kept the military power and political leadership. It was in the third and last war that Koguryo collapsed before Tang by the domestic political coups where one leader, called Nam Saeng, surrendered to Tang camp. The ending of this confrontation settled the Pax Sinica, new paradigm in the foreign policy for Koreans, based on the tribute system in the East Asia, and this order lasted to before the first millenium

Keywords

the war between Koguryo and Tang, the continent policy versus World policy, the regime of the General Yon versus Wuchanzhen warlords, the Koguryo destroying war, Pax-Sinica system, the international war in the East Asia

한·중 사서에 보이는 고구려와 중국의 전쟁 기록 비교 검토

이 강 래 | 전남대학교 사학과 교수

I. 검토의 시각

고대 국가에서 전쟁이 함유하는 의의는 심중하였다. 국가 형성기 건국 주체 세력들은 우선 우호적이지 않은 대외 조건들을 극복하기 위해 크고 작은 전쟁 행위를 피할 수 없었으며, 그 과정에서 정치적 조직 역량의 증대를 거두기도 하였다. 이후 비대해진 정치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물질 필요와 부단히 권력 강화의 지향을 견지했던 왕권의 의지는 또한 전쟁을 유효한 수단으로 간주하도록 강요하였다. 인습적인 무기 체계 하에서 전쟁은 실로 파괴적 행위가 아니라 생산적 속성을 지니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적어도 고대 사회에서 그것은 당면한 현실의 모순을 해결하거나 혹은 회피하기 위해 가장 용이하게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었다.

고구려사에서 차지하는 전쟁의 비중과 기능 또한 다르지 않다. 자료의 한계와 후대인의 편견으로 상당한 굴절을 피하지 못한 『삼국사기』의 기록이지만, 고구려본기의 내용 가운데 18%를 상회하는 전쟁 기사로 헤아려지는 현상은 하나의 지표로 삼을 만하다.¹⁾ 특히 고구려는 농업 생산 조건이 열악하여

힘써 경작해도 배를 채우기 어려웠다는 평가야말로²⁾ 이른 시기 고구려의 군사력과 정복력을 음미하기 위한 본질일지 모른다. 따라서 일상의 생산성과 군사적 역동성은 깊은 함수관계에 있다 하겠다.³⁾ 예컨대 고구려의 최초 도읍지인 졸본성의 선정 논리가 토양의 비옥함과 산수의 험준함을 들고 있었던 것을 주목한다.⁴⁾ 이것은 경제적 조건과 군사방어적 조건을 수도 선정의 주요 요소로 파악하고 있는 사례인데, 유리왕 22년(3)의 국내성 천도나 장수왕 15년(427)의 평양성 천도에도 동일한 고려가 있었던 것이다.

반면에 전쟁이 경제적 측면의 생산적 의의를 상실할 때 그것은 위험한 파탄을 예비하게 된다. 전쟁을 유발하는 경제 외적 동인으로는 개별 주체 사회의 내적 모순과 국가 간의 명분론이 주로 개입되는 경향이 있다. 즉 고대 왕조의 멸망은 모두 어떤 형태의 전쟁에서 말미암았다. 대개 왕조 멸망으로 귀결되는 전쟁들은 전쟁 결과에 대한 전쟁 담당자들의 각성이 결여되기 십상이었다. 우리 고대 삼국의 전쟁 지휘부들도 아마 고대 전쟁의 일상적 타성에 함몰된 채 7세기 전쟁을 수행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7세기 전쟁 및 고구려 등의 왕조 멸망에 대한 균형 있는 사유란 7세기의 시공간을 어느 정도 객관화시킬 수 있을만한 여유를 필요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 간 전쟁이란, 전쟁의 결과로서 전쟁 당시에 이미 승패가 갈리게 되는 현실의 행위이다. 동시에 전쟁의 승패는 반드시 복수의 당사국들에 의해 공유되는 가치 판단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범상한 실재를 전쟁 관련 기록을 통해 확인하는 것은 단순한 작업이 아니다.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 특정 전쟁의 참여 당사국들은 그 전쟁에 대해 서로 다른 의미와 수용 방식을 지닐 수 있으며, 서로 다른 전승과 기억을 유지할 수 있다. 즉 고구려와 중국의 제 왕조가 경험한 전쟁에 대한 기록물들의 상충은 그 예증이다. 부합할 수 없는 상충은 전쟁 과정의 세부 정보를 포함하여 전쟁의

1) 申滢植, 1981, 『三國史記 研究』, 一潮閣, 113쪽.

2) 『三國志』, 魏書30, 東夷傳, 高句麗.

3) 金瑛河, 1997, 「高句麗의 發展과 戰爭」, 『大東文化研究』 32.

4) 『三國史記』, 高句麗本紀1, 始祖 東明聖王 즉위기.

승패에까지 폭넓게 걸쳐 확인된다. 여기에 이 글이 겨냥하는 검토의 일차적 당위가 있다.

한편 고구려가 수행한 중국 왕조들과의 전쟁 기록의 한국 측 원천이라고 해야 할 『삼국사기』는 고구려가 멸망한 후, 그리고 고구려의 역사를 자기 중심으로 재편했던 신라마저 해소된 후, 다양한 계통의 전승 자료들을 아우른 고려 중기의 편찬물이다. 따라서 『삼국사기』에는 고구려인들의 당대 정보와 통일기 신라인들의 수용 혹은 변형 정보, 여기에 고려 중기 지식인들의 고구려 인식 및 관련 자료의 조건 따위가 복잡하게 얹혀 간접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수백 년 전에 멸망한 고구려 왕조의 경험을 직접 전하는 자료가 희소해진 상황에서 중국 측 자료를 크게 활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삼국사기』에 보이는 고구려의 대 중국 전쟁 기록이 지니는 최대의 결함이다. 실제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의 경우, 서명을 밝히거나 밝히지 않은 채로 실로 수많은 중국 사서 인용이 실증적으로 추적된 바 있다.⁵⁾

이러한 각성에 동의할 때, 『삼국사기』와 중국 측 기록 사이의 미세한 차이조차도 범상한 오기로 단정하지 않고 자료의 문제, 나아가 그와 같은 자료를 작성한 주체의 인식의 문제로 확대 음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이 글의 검토 과정에서 유념해야 할 또 하나의 영역이 된다. 하나의 사례를 들어 이 점을 확인해본다.

蓋蘇文[혹은 蓋金이라고 한다]은 성이 泉氏인데, 스스로 물 속에서 태어났다고 하여 사람들을 현혹하였다. 그는 풍채가 걸출했고 뜻과 기세가 호방하였다. 그의 아버지 東部[혹은 西部라고 한다] 大人 大對盧가 죽자 개소문이 의당 아버지의 지위를 이어받아야 했으나 …… (『삼국사기』 49, 열전9)

인용한 개소문전의 서부는 거의 틀림없이 『신당서』 고려전에 의거한 것이

5) 田中俊明, 1982, 「『三國史記』中國史書引用記事の再検討 - 特にその成立の研究の基礎作業として」, 『朝鮮學報』 104.

다. 인용문 가운데 보이는 두 군데의 분주는 본문의 정보에 대한 보완이거나 이중 전승의 소개를 염두에 둔 것이다. 그 가운데 “혹은 개금이라고 한다”라고 한 지적은 개소문의 이름에 대한 범상한 보완 정보이되, 『신당서』에서도 비록 본문 형태로 서술되었지만 같은 위치에서 확인이 된다. 그런데 다른 분주, 즉 “혹은 서부라고 한다”라고 한 지적은 본문과 정면으로 상충하는 정보로서, 『신당서』의 인식일 수는 없다. 다시 말해 개소문이 ‘동부대인’이었던 아버지의 지위를 승계했다 한 이 서술은 『신당서』 혹은 『자치통감』을 전거로 한다.⁶⁾ 반면에 『구당서』 고려전의 기록에는 개소문을 ‘서부대인’이라 하였다.⁷⁾ 일견 『신당서』에 직접 의거하여 본문을 작성하면서 『구당서』의 이중 정보를 분주를 통해 소개한 것으로 파악해도 무방할 듯하다.

그러나 또한 고구려본기에는 영류왕이 “서부대인 개소문에게 명해 장성 쌓는 공사를 감독하게 했다”라고 하였다.⁸⁾ 이 장성 축조는 영류왕 14년에 발단되어 16년이 소요된 대역사였거니와, 개소문이 이 공역을 감독하게 된 사실은 중국 측 사서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장성 축조 감독과 관련한 개소문의 소속부 ‘서부’는 고구려 측 고유 자료의 정보였을 가능성이 크다. 같은 논리에서 개소문전의 분주 “혹은 서부라고 한다” 역시 『구당서』가 아니라 고구려본기가 의존한 고유 자료를 직접 근거로 삼았을지 모른다. 나아가 “혹은 개금이라 한다”라고 한 분주가 설사 『신당서』의 본문 내용을 분주로 활용하여 기입한 것이라 해도, 그것은 곧 그 내용이 분주로 작성할 만한 사항, 다시 말해 본문 서술의 주요 전거가 아닌 전승물의 존재를 지시한다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지 않다. 관련 전승물에 대한 단서는 『삼국유사』에 인용된 『高麗古記』에 있다.

『삼국유사』 보장봉로보덕이암조에는 『국사』와 『고려고기』의 동일 내용을 병기하면서 비교했는데, 『고려고기』는 『국사』, 즉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의

6) 『新唐書』 220, 列傳145, 東夷 高麗; 『資治通鑑』 196, 唐紀12, 貞觀 16년 11월 丁巳.

7) 『舊唐書』 199, 列傳149, 東夷 高麗.

8) 『三國史記』, 高句麗本紀9, 榮留王 21년.

‘蓋蘇文’을 일러 ‘蓋金’이라 하였다.⁹⁾ 따라서 개소문전 찬자가 『고려고기』로 지칭된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다고 할 때, ‘개금’의 분주 정보는 그로부터 유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고려고기』는 또한 고구려 ‘榮留王’을 ‘武陽王’이라고 표기하였다. 그렇다면 ‘蓋蘇文 - 蓋金’, ‘榮留王 - 武陽王’, ‘東部 - 西部’의 대비쌍은 각각 다른 자료 계통의 필치를 반영하는 것이며, 그 가운데에는 『고려고기』 내용이 한 갈래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본다. 이때 『고려고기』는 ‘고구려에 관한 『고기』’인 바, 고구려 관련 고유 전승을 이른다.¹⁰⁾ 아울러 중국 측 자료를 주요 전거로 활용한 『삼국사기』 열전의 서술에서는 관련 전승을 담은 국내 고유 자료 정보가 분주의 형태로 대비 제시되는 것이 일반적 형태였음을 고려하고자 한다. 요컨대 일견 중국 사서에 기반하여 작성된 기사로 판단되는 경우들에서도 고구려 측의 고유 전승 정보가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된다.

이 문제는 단순히 활용 자료의 실상을 추구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자료의 취사에는 취사 주체의 의도나 판단이 개입하기 마련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고구려가 멸망한 후 유민의 동태와 관련한 다음 기사들을 본다.

- 總章 2년 기사(669) 2월에 왕의 서자 安勝이 4천여 호를 거느리고 신라에 투항하였다. 여름 4월에 고종이 3만 8천 3백 호를 江·淮의 남쪽 및 山南·京西 등지에 있는 여러 주들의 빈 땅으로 옮겼다.
- 咸亨 원년 경오(670) 여름 4월에 劍牟岑이 국가를 회복하고자 하여 당을 배반하고 고구려 왕의 외손자 安舜[羅紀에는 ‘勝’으로 썼다]을 옹립해 임금으로 삼았다. 당 고종이 대장군 高侃을 東州道行軍總管으로 삼아 군사를 발동해 토벌케 했더니, 안순은 검모잠을 죽이고 신라로 달아났다. (이상 『삼국사기』, 고구려본기10)

9) 『三國遺事』, 興法 寶藏奉老普德移庵, “高麗本記云 …… 蓋蘇文說王 以儒釋竝熾 而黃冠未盛 特使於唐求道教 …… [已上國史] …… 高麗古記云 …… (蓋)金奏曰 鼎有三足 國有三教 臣見國中 唯有儒釋 無道教 故國危矣 王然之 奏唐請之 ……”.

10) 李弘植, 1956, 「淵蓋蘇文에 대한 若干의 存疑」, 『李丙燾博士華甲紀念論叢』; _____, 1971, 『韓國古代史의 研究』, 新丘文化社, 296쪽.

우선 함형 원년조에 보이는 ‘安舜’에 대해 “羅紀에는 ‘勝’으로 썼다”라고 한 분주에 주목한다. 분주에서 지시한 ‘羅紀’는 ‘(新)羅(本)紀’를 이르며, 따라서 문무왕 10년(670)조의 기사일 것이다. 그에 따르면 검모잠과 안승은 함께 신라에 투신하여 금마저에 안치되었고, 안승은 곧이어 고구려왕으로 책봉되었다.¹¹⁾ 고구려본기의 내용과는 크게 다른 것이다. 게다가 신라본기 기사는 안승을 ‘淵淨土의 아들’이라고 하였다. 신라본기에 의하면 연정토는 이미 문무왕 6년(666)에 투항해 왔다. 고구려본기의 함형 원년조 자체는 『자치통감』 기사를 발췌한 것이다.¹²⁾ 그런데 고구려본기 찬자는 『자치통감』의 ‘안순’을 신라본기의 ‘안승’과 동일 인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에는 두 가지 문제가 개입된다. 하나는 신라본기에 보이는 ‘연정토의 아들 안승’과 『자치통감』에 보이는 ‘보장왕의 외손자 안순’의 출계 문제이다. 다른 하나는 충장 2년에 신라에 투항한 안승을 ‘보장왕의 서자’라 한 점이다. 특히 충장 2년에 안승이 신라에 투항했다는 정보는 중국 사서에서 확인되지 않는 것이므로, 신라 혹은 고구려 측의 고유 정보일 것이다. 우선 『자치통감』과 신라본기의 두 가지 출처 정보, 즉 보장왕의 외손자이면서 연정토의 아들이라는 위상은 상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그가 보장왕의 서자일 수는 없다. 게다가 당시 정황으로 보아서도 669년에 보장왕의 서자가 신라에 투항했다는 기록을 수용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¹³⁾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구려본기 찬자는 이 출계의 모순에 주의하지 않은 채 ‘안승’과 ‘안순’을 동일 인물로 판단한 것이다.

한편 신라본기의 문맥에서 안승은 의심 없는 고구려 왕실 인물의 위상을 지니고 있다. 즉 안승을 연정토의 아들로 이해한 신라에서도 그가 투항해 온

11) 『三國史記』, 新羅本紀6, 문무왕 10년, “六月高句麗水臨城人年(牟-필자)岑大兄 收合殘民 …… 見高句麗大臣淵淨土之子安勝 迎致漢城中 奉以爲君 …… (7월)奉安勝爲高句麗王 ……”.

12) 『資治通鑑』 201, 唐紀, 高宗 咸亨 元年조, “四月高麗酋長劍牟岑叛 入高藏外孫安舜爲主 以左監門大將軍高侃爲東州道行軍總管 …… 發兵討之 安舜殺劍牟岑 奔新羅”.

13) 임기환, 2003, 『報德國考』, 『강좌 한국고대사』 10,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296~297쪽.

얼마 뒤 8월 1일에 작성한 책문에서는 그와 ‘태조 中牟王’의 혈연 관계를 강조하였다. 또한 안승의 행적과 그에게 거는 기대 등을 쥔 文公과 衛 宣公의 고사에 비기고 있다. 진 문공은 獻公의 아들인데, 계모 驪姬가 자기 소생인 奚齊를 태자로 삼고자 하여 헌공의 태자 申生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의 형제들마저 해치려 하자, 국외로 망명해 19년 동안이나 외국에서 유랑생활을 하다가 가까스로 秦 穆公의 도움으로 본국에 돌아와 즉위하였다.¹⁴⁾ 위 선공은 莊公의 아들이며 桓公의 아우인데, 장공의 또 다른 아들 州吁가 환공 完을 죽이고 스스로 군주의 지위에 올랐다가 陳에서 죽임을 당한 뒤, 邢으로부터 돌아와 백성들의 추대로 즉위하였다.¹⁵⁾ 요컨대 신라에서는 안승을 고구려 왕실의 ‘嗣子’로 인정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문제는 여전히 안승 혹은 안순의 출계 문제에 있다. 고구려본기 분주자는 중국 측 사서와 신라 측의 고유 자료간 상충을 지적하면서도 이에 대한 논증이나 선택을 포기하였다. 필시 그것은 두 자료의 ‘안순’과 ‘안승’을 동일 인물로 짐작하면서도, 669년에 신라에 투항했다 한 고구려본기 측의 다른 전승 즉 ‘서자 안승’이 그의 적극적인 판단에 장애로 작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자치통감』의 함형 원년 ‘안순’ 관련 정보를 위해서는 669년 ‘안승’의 고유 전승을 희생해야 옳았다. 더구나 『신당서』에는 검모잠 등이 보장왕의 외손 안순을 옹립한 시기를 총장 2년으로 기록한 바 있다.¹⁶⁾ 따라서 『신당서』를 배제하고 『자치통감』에 의존한 찬자가 출계 상의 모순을 감내하면서 ‘안승’ 관련 고유 전승을 채택한 것은 자료를 대하는 태도의 영역에서 주목해야 할 대목일 것이다.

주지하듯이 ‘안순’의 존재를 전하고 있는 『자치통감』은 『책부원구』와 함께 『삼국사기』 찬진 당시의 최신 자료였다.¹⁷⁾ 그렇다면 ‘서자 안승’ 계통 본문 기

14) 『左傳』, 僖公 4년.

15) 『左傳』, 隱公 4년.

16) 『新唐書』 220, 列傳145, 東夷 高麗 總章 2년, “大長鉗牟岑率衆反 立藏外孫安舜爲王”.

17) 權重達, 1979, 「資治通鑑의 東傳에 대하여」, 『(中央大)文理大學報』 38, 47쪽.

록은 국내 고유 자료에 대한 『삼국사기』 찬자의 무비판적 수용의 일면을 반영하는 것이다. 고구려본기의 대 중국 관련 기사 취사에서 『자치통감』을 여타 중국 사서보다 각별히 존중하면서도, 그것은 국내 고유 자료에 우선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¹⁸⁾

이처럼 기록에 개재된 미세한 단서들에는 관련 자료에 대한 기록자의 판단과 신뢰 여하가 잠복해 있다. 특히 『삼국사기』 찬자들이 고려 왕조의 역사적 토대로 간주한 전대 왕조 가운데 하나였던 고구려와 중국의 전쟁 기록을 서술하면서 수반한 자료 취사의 맥락은 신중하게 음미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동일한 전쟁을 기술한 기록물 사이에서 발견되는 차이점들은 일단 기록 주체의 판단을 경유한 것이라고 보고자 한다.

물론 한·중의 관련 기록물들이 전승되는 가운데 내용상 병리적 흠결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된다. 예컨대 고구려본기 모본왕 2년(49) “봄에 왕이 장수를 보내 한의 北平·漁陽·上谷·太原을 습격하게 했으나, 요동태수 蔡彤이 은혜와 신의로 대하므로 그만 다시 화친하였다”라고 한 기사는 『후한서』의 정보를 활용한 것이 명백해 보이지만, 양측의 기술에는 ‘北平↔右北平’, ‘蔡彤↔祭彤’ 등의 고유명사에서 차이를 보인다. ‘彤’과 ‘彤’은 중국 사서들 사이에서도 사서와 판본에 따라 출입이 발생한 경우이지만,¹⁹⁾ ‘右’의 탈락과 ‘祭’를 ‘蔡’라 한 고구려본기의 서술은 인용 과정이나 판각 과정의 단순한 오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찬자의 오해에서 비롯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 예컨대 『삼국사기』 찬자들은 수 양제의 침공을 격멸시킨 을지문덕의 위업을 전하는 국내 고유 자료가 부재한 상황에서, 고구려본기에서는 거의 완벽하게 『자치통감』의 문면을 전재했고,²⁰⁾ 열전의 을지문덕전 역시 『자치통감』을 위주로 하

18) 田中俊明, 1982, 앞의 책, 76~78쪽.

19) 『後漢書』 1下, 光武帝紀, 建武 25년(49), “春正月 遼東徼外貊人 寇右北平·漁陽·上谷·太原 遼東太守祭彤招降之”; 『後漢書』 20, 祭彤傳; 『後漢書』 85, 東夷列傳, 句麗 建武 25년, “春 句麗寇右北平·漁陽·上谷·太原 而遼東太守祭彤以恩信招之 皆復款塞”; 『資治通鑑』 44, 漢紀36, 世祖 下, 建武 25년, “春正月 遼東徼外貊人寇邊 太守祭彤招降之”.

면서 본기에서 고려하지 않은 『수서』의 우중문전과 우문술전을 적절하게 활용 배치하였다.²¹⁾ 그러나 이처럼 중국 측 사서에 의존한 서술임에도 불구하고 을지문덕전 서부는 “수 開皇 연간에 煬帝가 조서를 내려 고구려를 쳤다”라고 하여 심각한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 이 대목은 딱히 중국 자료에 의지하지 않은 채 찬자가 작문한 도입부에 해당하는데, 주지하듯이 ‘개황’은 양제의 부 문제의 연호이니 명백히 찬자의 착오이다.

유사한 예로서, 고구려본기 찬자는 중국 측 자료들을 취합하여 기술하다 부적절한 절충을 빚기도 하였다.

영류왕 11년(628) 가을 9월에 사신을 당에 들여보내 당 태종이 돌궐의 利可汗을 사로잡은 것을 축하하고, 겸하여 封域圖를 올렸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8)

위 기사에 연·월은 아마 『자치통감』에서 비롯했을 것이다. 그러나 『책부원구』나 그 원전이었을 『구당서』 고려전에 따르면, 이 해에 당은 돌궐의 힐리가한을 압박·격파했을 뿐 그를 사로잡은 것은 아니었다.²²⁾ 한편 『신당서』 고려전에는 연대를 밝히지 않은 채, 당 태종이 힐리가한을 사로잡은 데 대해 영류왕이 사신을 보내 축하하고 아울러 봉역도를 바쳤다고 하였다.²³⁾ 그러나 『신당서』의 정보만으로는 정관 2년(628)에 힐리가한을 사로잡은 것으로 판단할 근거가 없다. 힐리가한이 사로잡힌 것은 『신당서』 태종본기와 돌궐전에서 정관 4년(630)의 일로 기록되었다.²⁴⁾ 따라서 고구려본기의 기사는 『책부원

20) 『資治通鑑』 권181, 隋紀, 煬帝 大業 8년.

21) 『隋書』 권60, 列傳25, 于仲文; 『隋書』 권61, 列傳26, 宇文述.

22) 『冊府元龜』 970, 外臣部, 朝貢3, “(貞觀 2년) 高麗王建武 遣使奉賀 破突厥 利可汗 并上封域圖”; 『舊唐書』 199上, 高麗傳, “貞觀二年 破突厥 利可汗 建武遣使奉賀 并上封域圖”.

23) 『新唐書』 220, 高麗傳, “太宗已禽突厥 利 建武遣使者賀 并上封域圖”.

24) 『新唐書』 2, 太宗 貞觀 4년 3월 甲午, “李靖俘突厥 利可汗以獻”; 『新唐書』 215, 突厥 上, (貞觀) 4년, “五月 …… 利得千里馬 獨奔沙鉢羅 行軍副總管張寶相禽之 …… 其國遂亡 …… 利至京師 告俘太廟”.

구』와 『신·구당서』 고려전의 정보를 편의적으로 절충하는 과정에서 초래된 오류인 것이다. 이처럼 의도하지 않은 오류와 다종의 중국 자료를 취합 절충하면서 초래된 오류는 전승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리적 일탈과 마찬가지로 기록 주체의 관점이나 의도와 무관하다.

이러한 고려 조건들을 세심하게 염두에 두면서, 한·중의 기록에 나타난 고구려와 중국 왕조들과의 전쟁 기록 가운데 발생한 주요 차이점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검토의 시각은 크게 두 측면으로 설정한다. 하나는 사실 관계 기록의 비교이다. 여기서는 주로 관련 인물, 관련 연대, 관련 세부 사건 등의 차이점을 비롯하여 일부 관련 자료의 취사 문제 등이 거론되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전쟁에 대한 서술자의 인식 비교이다. 기록자의 인식이란 원칙적으로 사실의 기록 행위 자체에 이미 내재하는 경우가 적지 않겠지만, 특히 수·당과의 전쟁에서는 전쟁 담당자의 인식을 포함하여 이 문제가 정면으로 거론되어야겠다. 나아가 『삼국사기』 및 『삼국사기』 편찬에 고려되었던 중국 측 자료 이후에 이루어진 한·중의 전승에서 논의된 전쟁 인식의 문제를 위 두 가지 측면의 비교 검토를 토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사실의 비교

1. 인물

앞에서 논의한 ‘안순’과 ‘안승’의 차이는 비록 중국 사서와 우리 고유 자료 사이의 상충 정보로 분류될 여지가 있지만, 엄밀히 말해 고구려와 중국 왕조가 공유하는 사건 기사라고 할 수는 없다. 고구려의 대 중국 전쟁 기사 가운데 관련 인물의 정보가 크게 상충하는 첫 사례는 건국 초 고구려와 왕망 정권과의 갈등에서 확인된다. 왕망의 대 흉노 군사 행동과 관련된 고구려 병사들의 동원이 차질을 빚으면서 왕망과 고구려 사이에 군사 충돌이 야기되었다.

유리명왕 31년(12년)에 한의 王莽이 우리 군사를 징발해 흉노를 치게 하였다. 우리 군사들이 가지 않으려 하는데도 억지로 협박해 보내니, 모두 변경으로 도망해 법을 어기고 도둑떼가 되었다. 遼西大尹 田譚이 추격하다 그들에게 죽게 되자, 주·군들이 허물을 우리에게 돌렸다. 嚴尤가 왕망에게 아뢰기를 “貉인들이 법을 어긴 데 대해서는 마땅히 주·군들로 하여금 그들을 무마하고 안도케 해야 합니다. 지금 함부로 큰 죄를 들쭉우면 그들이 마침내 반란을 일으킬까 두렵습니다. 그럴 경우 부여의 무리 가운데 반드시 반란에 동조할 이가 있을 것이니, 흉노를 물리치지 못한 터에 부여와 獒貉이 다시 일어난다면 이는 큰 걱정거리가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왕망은 듣지 않고 엄우에게 조칙을 내려 그들을 치게 하였다. 엄우가 우리 장수 延丕를 유인해 목을 베어 수도로 보냈다[『兩漢書』 및 『南北史』에는 모두 ‘句麗侯 騶²⁵⁾를 유인해 목을 베었다’라고 하였다]. 왕망이 기뻐하고 우리 왕의 명칭을 고쳐 ‘下句麗侯’라 하고, 천하에 포고해 모두가 알게 하였다. 이에 한의 변경 지역을 침구하는 것이 더욱 심해졌다.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1)

왕망과의 갈등에서 야기된 엄우의 공격에 희생된 고구려 측 주체의 문제이다. 본문 서술에서는 그를 고구려의 장수 ‘延丕’라고 한다. 그에 반해, 분주에서는 “『양한서』 및 『남북사』에는 모두 ‘句麗侯 騶를 유인해 목을 베었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우선 『한서』 왕망전과 그에 충실한 『자치통감』에는 ‘高句麗侯 騶’, 『후한서』 구려조에는 ‘句麗侯 騶’라 했다. 『남사』 고구려조에는 그러한 사실이 없으며, 『북사』 고구려조에는 ‘句麗侯 騶’라 하였다. 한편 『삼국지』 고구려조에 ‘句麗侯 騶’가 있고, 『양서』 고구려조에 ‘句麗侯 騶’가 보이므로, 분주자는 『삼국지』 혹은 그를 계승한 『양서』를 『남사』에 넣어 『남북사』로 통칭했을지 모르겠다. 여하튼 분주의 본의는, 중국 측 사서에는 고구려의 장수가 아니라 ‘句麗侯’가 희생된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데 있다. 따라서 문제는 고구려본기의 본문 내용이 거의 전적으로 중국 측 전승에 의존하

25) 정덕본 『삼국사기』에는 ‘騶’로 표기되었으나, 이는 ‘騶’의 오기 혹은 오각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면서도²⁶⁾ 오직 희생된 인물 ‘延丕’만이 그와 다르게 된 연유이다.

먼저 주의할 사항은, 엄우의 조치는 ‘고구려왕’을 ‘하구려후’로 폄하한 것이었다는 점이다. 그 때문에 엄우에게 유인 당해 살해된 ‘구려후’와 이후 ‘하구려후’로 폄칭된 ‘고구려왕’이 동일 인물인지의 여부가 문제시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후한서』 고구려전이 ‘고구려’와 ‘구려’로 분단된 듯한 외형을 보이는 데서 그와 같은 논의 방식이 힘을 얻기도 했던 것이다.²⁷⁾ 특히 살해된 인물 ‘騶’를 고구려 시조 ‘鄒牟’로 간주하는 견해에서는 고구려의 왕위가 추모에서 유리명왕으로 계위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중국 측의 오전 혹은 과장이리라고 설명하게 된다.²⁸⁾ 적지 않은 비약이긴 하나, ‘구려후’와 ‘고구려왕’의 일체 여하의 문제와는 무관하게나마, 애초에 왕망의 대 고구려 강정책에 반대했던 엄우로서는 전과를 허위 보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긴 하다.

분명한 것은, 고구려본기 찬자는 해당 인물을 고구려의 장수 ‘연비’로 설정한 고유 전승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사실일 것이다. 물론 그가 『후한서』의 ‘구려후’와 ‘고구려왕’을 동일 인물로 독해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분주의 문제 제기에 한정할 때, 중국 자료의 ‘구려후’와 고유 자료의 ‘연비’는 다른 인물로 파악되고 있었다고 해야 옳다. 이 점은 그가 중국 사서의 표현과 서술에 의존하여 해당 사건을 기입하면서 유독 ‘구려후’만을 ‘연비’로 대체한 것에서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그러나 고구려본기의 서술 방식은 이중 자료를 취급하는 데 있어 지극히 소극적이다. 분주의 문맥이 ‘연비’ 계통의 고유 자료에 대한 단순 비교인지 아니면 그를 비판하는 것인지 명료치 않으며, 상충하는 두 전승에 대한 판단과 숙고가 수반되지 않았다. 이 문제를 위해 유사한 사례를 들어본다.

26) 본문의 문장만으로 볼 때 일부 표현의 절삭이 있긴 하지만 『漢書』 99, 王莽傳, 始建國 4년(12)조 및 『資治通鑑』 37, 漢紀29, 王莽 中에 始建國 4년조에 가장 가깝다.

27) 이에 대해서는 奇修延, 1998, 「『後漢書』 「東夷列傳」 〈高句麗傳〉에 대한 분석 연구」, 『史學志』 31을 참조할 것.

28) 李丙巖, 1977, 『國譯 三國史記』, 乙酉文化社, 227쪽.

- 민중왕 4년(47년) 겨울 10월에 獯友落部の 大家 戴升 등 萬餘家が 낙랑으로 가서 한에 투항하였다[『후한서』에는 ‘大加 대승 등 萬餘口’라고 하였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2)
- (建武 23년) 冬 句驪의 獯支落 大加 戴升 등 萬餘口가 낙랑에 와서 內屬하였다. (『후한서』, 동이전, 句驪)
- (建武 23년 冬十月) 高句驪가 종족을 거느리고 낙랑에 와서 內屬하였다. (『후한서』, 光武帝紀 제1하)

분주의 논거가 된 『후한서』 정보는 동이전과 광무제기에서 추적 가능하다. 분주자의 문제 제기에 따르면, 분주의 대상이 된 본문과 분주가 의지한 『후한서』의 차이는 ‘大家’와 ‘大加’, ‘萬餘家’와 ‘萬餘口’에 있다. 坂元義種은 일찍이 이 분주가 후주일 가능성에 주목한 바 있다. 그는 『후한서』 문장을 약간 변형하여 본문을 작성하고 또 그 본문과 『후한서』와의 상위를 주기한 부자연스러움에 착목하여, 분주는 본문과 『후한서』와의 상위를 깨달은 사람이 주기한 것으로, 본문과 분주의 집필자는 별개의 사람이었다고 파악한 것이다.²⁹⁾ 그러나 田中俊明은 이에 반대하여 『구삼국사』에는 이미 『후한서』가 인용되어 있었으므로 이에 더한 분주는 『삼국사기』 편찬 단계의 작문이 된다고 보았다. 그는 동명·유리·대무신을 중심으로 3세기까지에 중점을 둔 고유 원전의 존재를 주장한 井上秀雄의 견해³⁰⁾를 수용하여 이를 『구삼국사』로 보고, 여기에 이미 『후한서』의 해당 기사가 인용되어 있던 것을 『삼국사기』 찬자는 이를 충실히 인용한 탓에 원래 『후한서』 기재와는 다른 표현이 답습되었을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다.³¹⁾

후주의 실재 여부와 그 경우 ‘後’의 구체적 시점을 지시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논의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문제된 분주가 과연 후주인가의 판단과는 상관없이, 관련 논자들은 민중왕 4년 기사의 본문 작성자와 분주 작성자의

29) 坂元義種, 1978, 「『三國史記』分注の検討 - 『三國遺事』と中國史書を中心として」, 『古代東アジア史論集』上, 吉川弘文館, 279~280쪽.

30) 井上秀雄, 1968, 「三國史記の原典をもとめて」, 『朝鮮學報』 48, 88~90쪽.

31) 田中俊明, 1977, 「『三國史記』撰進と『舊三國史』」, 『朝鮮學報』 83, 11~12쪽.

차이 혹은 각각의 작성 시점의 차이를 수궁하는 데는 동의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의 견해들에서는 해당 본문이 『후한서』에 의거했으리라는 데에서도 일치를 보이고 있다. 요컨대 본문 작성자가 『후한서』를 오인한 다음, 그 스스로 『후한서』와의 차이점을 분주를 통해 지적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힘든 정황이다. 결국 본문과 분주는 각각 작성 주체가 달랐다고 보아야 옳되, 본문이 오직 『후한서』에 의한 것인가는 단정할 수 없다. 본문의 서술 형태가 『삼국사기』 이전의 국내 전승물에 이미 있었던 것이든, 『삼국사기』 편찬 단계에서 비롯한 것이든, 그것이 반드시 『후한서』의 정보만으로 구성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것이다.

물론 ‘家’와 ‘加’, ‘家’와 ‘口’의 경우들은 용이하게 빚어질 수 있는 오기일 수 있다. 게다가 본문의 ‘蠶友落’과 분주의 ‘蠶支落’ 역시 ‘友’를 ‘支’의 오각으로 판단해야 옳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리지의 三國有名未詳地分 가운데 보이는 ‘蠶支落’은 그 배열 위치상 필시 민중왕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蠶支落’은 ‘蠶支落’의 오기일 것이다. 그러나 ‘蠶友落部’에 보이는 ‘部’의 표기를 주의하고, 또 동일한 사례 범주로 파악할 수 있는 유리명왕조의 ‘연비’라는 인물 정보를 함께 고려할 때, 본문의 서술은 『후한서』 범주 밖의 정보를 전제해야 할 듯하다.

『후한서』와 직접 관련된 정보들이면서도 기왕의 국내 전승을 본문에 채택하고 『후한서』와의 차이점을 분주에 지시하는 서술 방식은, 완곡하나마 고유 전승에 대한 존중의 태도로 읽혀진다. 이러한 이해는 2세기 초 한과 공방을 벌인 고구려왕의 실체에 대한 상충 문제에서 비로소 적극적 지지를 획득한다.

…… 왕위를 내주고 별궁으로 물러나 앉으니, 태조대왕이라고 일컬었다[『후한서』에는 “安帝 建光 원년(121)에 고구려 왕 궁이 죽고 그의 아들 수성이 왕위에 올랐다. 현도태수 姚光이 건의하여 고구려의 국상을 틈 타 군사를 발동해 치고 싶다 하자 의논하는 이들이 모두 수궁했으나, 尙書 陳忠이 말하기를 ‘궁이 전날 교활하여 요광이 치지 못했거니와 이제 그가 죽자 치자고 하는 것은 의롭지 않으니, 마땅히 사람을 보내 조문하고 그 계제에 지난 죄과를 나무라되 용서해 처벌하지는 마시

어 그들이 허물을 고치고 착해지도록 하소서'하매, 안제가 이 말을 따랐다. 이듬해에 수성이 한나라의 포로들을 돌려보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海東古記』를 살펴보면 “고구려 國祖王 高宮은 후한 建武 29년 紀元³²⁾에 왕위에 오르니 이때 나이가 7세라 國母가 섭정을 했고, 孝桓帝 本初 원년 병술(146)에 왕위를 친동생 수성에게 양위하니 이때 궁의 나이는 1백 세로 왕위에 있는 지 94년째였다”라고 한다. 그렇다면 건광 원년은 궁이 왕위에 있는 지 69년째가 되므로, 『한서』에 기록된 바와 『고기』가 어긋나 서로 부합하지 않으니, 아마 『한서』의 기록이 잘못된 듯하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3, 태조대왕 94년)

인용문은 태조대왕 94년, 곧 서력 146년에 태조대왕이 아우 수성에게 선위한 사건에 대한 분주이다. 그에 의하면 『후한서』에는 121년에 이미 태조왕 궁이 죽고 아들인 차대왕 수성이 계위했다³³⁾ 한 데 반해, 『해동고기』에는 146년에 아우 수성에게 양위했다 하여 심대한 차이가 발생했다. 즉 121년과 146년 사이 고구려왕의 실체에 대한 이견의 사례이며, 나아가 태조왕의 재위 기간 및 수명에 대한 논의이다. 『해동고기』는 제사지에도 인용된 예가 있으며, 『三韓古記』와 함께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를 의미하는 ‘해동’이나 ‘삼한’을 관칭한 『고기』류의 하나이다. 따라서 태조대왕의 졸년과 관련한 『후한서』의 정보는 『삼국사기』 이전 단계의 국내 자료에서도 외면된 셈이다. 그것은 혹시 『集解』의 沈字가 지적한 것처럼 인용된 『후한서』 고구려전의 문맥상 궁의 죽음은 秋冬間이었어야 하는데, 이를 계기로 발단된 건의 주체인 姚光은 정작 같은 해 4월에 이미 피살되었던 것을 염두한 것인지도 모른다.³⁴⁾

문제의 121년부터 146년 사이에 발생한 고구려와 한의 군사 접촉은 다섯 차례였다.

32) 후한 건무 29년은 계축년이므로, ‘紀元’는 ‘계축’의 오기이다.

33) 『後漢書』 85, 東夷傳, 高句麗傳의 정보이다. 그에 의하면 遂成은 궁의 ‘嗣子’라 하였고, 수성의 즉위년 역시 建光 元年이라 하여 고구려본기와 다르다.

34) 『後漢書』 5, 孝安帝紀, 建光 元年 夏四月 甲戌.

- 태조대왕 69년(121) 봄에 한의 유주자사 馮煥, 현도태수 姚光, 요동태수 蔡諷 등이 군사를 거느리고 침입해 와서 예맥의 우두머리를 처죽이고 무기와 말과 재물을 모조리 약탈하였다. 왕이 곧 아우 遂成을 보내 군사 2천여 명을 거느리고 풍환·요광 등을 막게 하였다. 수성이 사람을 보내 거짓으로 항복하자, 풍환 등이 이를 믿었다. 수성은 이 틈에 험한 곳에 웅거해 적의 대군을 막고, 은밀하게 3천 명을 보내 현도와 요동 두 군을 쳐서 그 성곽들을 불사르고 2천여 명을 죽이고 사로잡았다.
- 여름 4월에 왕이 선비 8천 명과 함께 가서 遼陰縣을 공격하였다. 요동태수 채풍은 군사를 거느리고 新昌으로 나와 싸우다가 죽었다. 功曹掾龍端과 兵馬掾公孫醜가 몸으로 채풍을 호위하다 함께 진중에서 죽었다. 죽은 이가 1백여 명이었다. ……
- 12월에 왕이 마한과 예맥의 1만여 기병을 거느리고 진격해 현도성을 에워쌌다. 부여 왕이 아들 尉仇台를 보내 군사 2만 명을 이끌고 한의 군사와 함께 힘을 합해 막아 싸우게 하니, 우리 군사가 크게 패하였다.
- 태조대왕 70년(122)에 왕이 마한·예맥과 함께 요동을 침공하자, 부여 왕이 군사를 보내 구원하고 우리를 격파하였다[마한은 백제 온조왕 27년(9)에 멸망했는데, 지금 고구려 왕과 함께 군사 행동을 하고 있으니 아마 멸망했다가 다시 일어난 것인가 한다].
- 태조대왕 94년(146) 가을 8월에 왕이 장수를 보내 한의 요동군 西安平縣을 쳐서 帶方令을 죽이고 낙랑태수의 처자를 잡아 왔다. (이상 『삼국사기』, 고구려본기3)

먼저 태조대왕 69년 봄의 전쟁 내용은 수성을 궁의 아우라 한 점을 제외하면 『후한서』와 일치한다.³⁵⁾ 그러나 같은 해 4월의 전쟁 기록은 ‘4월’의 월차,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동태수 채풍과 함께 전사한 인물 ‘功曹掾龍端·兵

35) 『後漢書』 85, 東夷傳, 高句麗, “建光 元年(121) 春 幽州刺史馮煥·玄菟太守姚光·遼東太守蔡諷等 將兵出塞擊之 捕斬濊貊渠帥 獲兵馬財物 宮乃遣嗣子遂成將二千餘人逆光等 遣使詐降 光等信之 遂成因據險阨以遮大軍 而潛遣三千人攻玄菟·遼東焚城郭 殺傷二千餘人 於是發廣陽·漁陽·右北平·涿郡屬國三千餘騎 同救之 而貊人已去”.

馬掾公孫醜³⁶⁾가 『자치통감』과 일치하는 한편³⁶⁾ 『후한서』의 ‘功曹 耿耗·兵曹 掾龍端·兵馬掾公孫醜’와는 다르다. 결국 두 중국 사서를 절충한 형태가 되었다. 이어 12월의 현도성 공격 기록에서는 고구려 군사의 규모 ‘1만’이 여타 중국 사서들의 ‘수천’과 차이를 보인다. 이 차이를 차치한다면, 이듬해 태조대왕 70년의 요동 전투와 함께 아마 『후한서』에 입각한 서술로 보아도 좋겠다.³⁷⁾ 물론 중국 사서들은 이 두 차례 마한이 동원된 고구려의 군사 주체를 수성이라고 기록하였다. 끝으로 태조대왕 94년의 요동 공격 기록은 『후한서』와 『삼국지』의 고구려전에 각각 ‘質·桓’연간과 ‘順·桓’ 연간의 일로 기록했을 뿐이다.³⁸⁾ 더구나 『후한서』와 『삼국지』 등의 문맥으로는 당시 고구려왕은 伯固로서 수성조차 이미 사거한 뒤였다. 다만 태조대왕 94년 기사 경우는, 질제와 환제가 교체된 때가 146년에 해당하므로 고구려본기 찬자나 그가 의존한 기존 고구려사 전승 작성자가 『후한서』 등의 기록에 특정 연대를 설정하고자 한 결과일 수 있다.

주목할 사항은 중국 사서에 빈번하게 등장한 고구려 왕 수성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삼국사기』 찬자는 단호하게 이를 부정했다는 점이다. 『후한서』와 『해동고기』의 상충을 비교한 분주로 판단한다면, 그는 중국 사서보다는 『해동고기』에 신뢰를 보낸 셈이다. 또한 고구려본기에 보이는 태조대왕과 그의 아우 수성 사이의 내연하는 갈등 내용은 실로 현실감 있는 정황을 드러내고 있다. 그와 같은 맥락을 오직 『후한서』 등의 기록을 근거로 부정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고구려본기의 태조대왕이 수행한 대 중 전쟁 기록에서 종종 드러난 중국 사서와의 괴리를 단순한 오각과 오기의 결과로 속단하기에는 이

36) 『資治通鑑』 50, 漢紀, 孝安帝 建光 원년 夏4월, “高句麗復與鮮卑入寇遼東 蔡諷追擊於新昌 戰歿 功曹掾龍端·兵馬掾公孫醜以身 諷俱歿於陳”.

37) 『後漢書』 5, 孝安帝紀, 建光 원년(121), “冬十二月 高句驪·馬韓·穢貊圍玄菟城 夫餘王遣子與州郡并力討破之”; 延光 원년(122), “春二月 夫餘王遣子將兵救玄菟[夫餘王子 尉仇台也] 擊高句驪·馬韓·穢貊 破之 遂遣使貢獻”.

38) 『後漢書』 85, 東夷傳, 高句驪, “質·桓之間 復犯遼東西安平 殺帶方令 掠得樂浪太守妻子” 및 『三國志』 30, 魏書, 東夷傳, 高句驪, “順·桓之間 …… 又攻西安平 于道上 殺帶方令 略得樂浪太守妻子”.

르다.

덧붙여 태조대왕 70년 고구려 군사력의 일부로 나타난 마한에 대한 의문의 분주 역시, 『삼국사기』 찬자에게 고유 자료가 지니는 비중을 암시한다.³⁹⁾ 분주는 백제본기의 기사 혹은 그 자료 토대가 되었을 전대 기록을 염두에 둔 것인바, 『후한서』 등의 정보를 수용하면서도 고유 전승과의 상충을 유념한 대목이다.

요컨대 『해동고기』로 대변된 고구려 관련 고유 전승은 고구려본기 작성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한다. 미세하나마 『해동고기』에 태조대왕을 ‘국조왕’이라 한 점은 그에 대한 단서가 될 수 있다. 고구려본기의 공식 왕칭은 ‘태조대왕’이었으나, 『삼국사기』 연표에는 ‘국조왕’이라고 표기하였다. 연표의 삼국 왕칭 가운데 본기의 공식 왕칭과 다른 유일한 예이다. 『삼국유사』의 왕력의 표제 역시 오직 태조대왕의 경우만을 『삼국사기』 본기 표기와 달리 ‘국조왕’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은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와 『삼국유사』 왕력의 작성에서 ‘국조왕’의 표기를 담은 『해동고기』의 자료적 위상을 반영한다. 이로써 고구려와 중국 왕조간의 전쟁 관련 인명 혹은 군사 주체의 정보가 상충하는 경우 『삼국사기』 찬자는 국내 고유 전승을 우선 본문으로 채택했으며, 대체로 그러한 판단은 역사적 실제에도 부합하는 것이었다고 본다.

2. 연대

태조대왕의 졸년을 『해동고기』에 따른 이상, 적어도 고구려본기의 왕대력은 중국 사서보다는 국내 전승을 존중했음을 알 수 있거니와, 몇 가지 유사 사례를 거론하고자 한다.

- 안장왕 13년(531) 여름 5월에 왕이 죽었다. 왕호를 안장왕이라 하였다[이 해는 梁 中大通 3년이요, 魏 普泰 원년(531)이다. 『양서』에

39) 이강래, 2002, 「『삼국사기』의 마한 인식」, 『全南史學』 19, 3~8쪽.

“안장왕이 왕위에 있는 지 8년째 되는 普通 7년(526)에 죽었다”라고 한 것은 잘못이다].

- 안원왕 15년(545) 봄 3월에 왕이 죽었다. 왕호를 안원왕이라 하였다[이 해는 梁 大同 11년이요, 東魏 武定 3년(545)이다. 『양서』에 “안원왕이 太清 2년(548)에 죽으니, 그의 아들을 寧東將軍高句麗 王樂浪公으로 삼았다”라고 한 것은 잘못이다].
- 평원왕 32년 (590) …… 왕이 왕위에 있는 지 32년 겨울 10월에 죽었다. 왕호를 평원왕이라 하였다[이 해는 開皇 10년(590)이다. 『수서』와 『통감』에 “고조가 조서를 개황 17년에 내려주었다”라고 한 것은 잘못이다. (이상 『삼국사기』, 고구려본기7)

인용문은 안장왕, 안원왕, 평원왕의 흥거를 서술하면서 『양서』와 『수서』 및 『통감』의 오류를 비판한 대목이다. 우선 분주자의 판단은 모두 옳다. 고구려본기에 의하면 안장왕 8년(526)과 9년에 양에 사신을 보낸 기록이 있고, 이것은 『양서』3, 무제본기 普通 7년(526)과 大通 원년(527)의 상응하는 기사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분주의 지적처럼 『양서』에 “(普通)七年 安卒 子延立”이라 한 것은 확실히 오류이다.⁴⁰⁾ 안원왕의 경우는 『양서』 고구려전과 무제본기 양처에서 분주에 지적된 오류가 반복되었다.⁴¹⁾

한편 수의 高祖가 평원왕을 힐난한 조서를 보낸 시기를 『수서』81, 고려전과 『자치통감』178, 隋紀2에서 개황 17년으로 기록한 것은 분주자의 지적과 같다. 이들 사서에는 바로 이 해에 평원왕이 죽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수서』, 고조본기와 『북사』, 수본기에서는 개황 10년 7월에 왕의 죽음을 기록하여 『삼국사기』와 일치하고 있다.⁴²⁾ 주의할 것은 개황 17년으로 기록한 전자의 기록들에는 고구려왕의 이름이 ‘湯’으로 표기된 반면, 개황 10년으로 기록한 후자

40) 『梁書』 54, 諸夷傳, 高句麗; 『冊府元龜』 963, 外臣部, 封冊 1에도 普通 7년조에 같은 오류를 반복하였다. 반면 『日本書紀』 17, 繼體紀 25년조의 細註에는 『百濟本記』를 인용하여 『삼국사기』와 마찬가지로 辛亥年(531)에 안장왕의 죽음을 기록하였다.

41) 『南史』 및 『冊府元龜』 963, 外臣部 封冊 1의 정보도 이와 같다.

42) 『北史』 11, 隋本紀, 開皇 元年·10년조; 『隋書』 1, 高祖 上, 開皇 元年; 『隋書』 2, 高祖 下, 開皇 10년조.

의 기록들은 평원왕의 이름으로 『삼국유사』 왕력에서 소개한 ‘高陽’을 적용하였다는 것이다. 사실 『복사』도 고려전에서는 개황 17년에 해당 사항을 기록하면서 ‘湯’의 죽음을 말했으나, 『수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기와 열전이 모순을 일으키고 있는 셈이다. 이 문제에는 『책부원구』가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평원왕을 ‘高湯’이라고 하되, “一作高陽”이라는 분주를 가하는 한편, 그의 죽음 역시 개황 10년 7월로 하여 『복사』·『수서』의 본기 연대관을 취했던 것이다.⁴³⁾

이처럼 평원왕의 이름과 졸년에 대해 각각 ‘高湯’과 ‘高陽’, 그리고 ‘개황 17년’과 ‘개황 10년’으로 설정한 두 계통의 이해가 있었던 것을 확인한다. 그런데 고구려본기의 본문은 『자치통감』의 문장과 지극히 방불하다. 그러므로 『자치통감』의 오류를 지적한 분주자가 수 고조가 조서를 보낸 사건이 개황 17년의 일이 아니라고 단정한 판단의 근거란 평원왕의 졸년 정보를 담고 있었을 고유 전승일 수밖에 없다. 사실 이러한 추정은 평원왕의 죽음을 지시한 본문의 서술 형태에서 이미 짐작할 수 있다. 즉 삼국의 본기에 보이는 왕들의 사거기사는 왕의 해당 재위년조에 일반적인 정보로 처리되어 있다. 다시 말해 특정 왕의 죽음은 해당 왕의 말년조에 “왕이 죽었다”라는 형태로 기록된다. 그런데 유독 평원왕의 경우만이 재위 32년째에 『자치통감』 기사에 기반하여 수 고조의 조서 및 그에 대한 평원왕의 수용 방식을 서술한 뒤에, 다시 “王在位三十二年 冬十月 薨”이라고 하였다. 삼국의 여타 왕들에서는 ‘王在位三十二年’ 부분이 반복 제시된 사례가 없다. 따라서 분주자의 연대 고증 기준은 평원왕의 졸년이었던 것이고,⁴⁴⁾ 그 전거 자료는 고구려 고유 정보였다. 즉 분주자가 중국 사서의 오류를 단정한 판단 근거는 국내 고유 자료였던 것이다. 결국 졸

43) 『冊府元龜』 963, 外臣部, 封冊 1, 後周武帝 建德 6년조 및 隋高祖 開皇 10년 7월조.

44) 따라서 본 분주는 수 문제가 국서를 보낸 연대에 대한 것이 아니며, 실제 국서의 전달 연대 자체는 별도의 논증 사항이다. 이에 대한 견해들은 日野開三郎, 1991, 『日野開三郎 東洋史論集』 15, 三一書房, 212~214쪽; 姜性文, 1996, 『麗隋·麗唐戰爭 原因考』, 『國史館論叢』 69, 163~164쪽; 李成制, 2000, 『嬰陽王 9年 高句麗의 遼西 攻撃』, 『震檀學報』 90, 3쪽; 余昊奎, 2000, 『高句麗 千里長城의 經路와 築城 背景』, 『國史館論叢』 91, 188쪽 참조.

년을 필두로 한 연대관에 대해서는 철저히 본국 자료를 지지한 경향의 일례로 보아도 좋을 듯하다.

전쟁 관련 연대의 차이점을 보이는 현저한 사례는 신대왕대의 현도태수 耿臨의 침공 기사이다. 이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신대왕대의 대 중 전쟁 기사를 아울러 제시한다.

- 신대왕 4년(168)에 한의 현도군 태수 耿臨이 침입해 와서 우리 군사 수백 명을 죽였다. 왕이 스스로 항복하고 현도에 속할 것을 청하였다.
- 신대왕 5년(169)에 왕이 대가 優居와 주부 然人 등을 보내 군사를 거느리고 현도태수 公孫度를 도와 富山の 적도들을 쳤다.
- 신대왕 8년(172) 겨울 11월에 한나라가 대군으로 우리나라를 향해 오니, 왕이 여러 신하들에게 나가 싸우는 것과 지키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편리할 것인지를 물었다. 여러 사람들이 의논해 말하기를 “한의 군사들은 수가 많은 것을 믿고 우리를 가벼이 여기는데, 만약 우리가 나가 싸우지 않는다면 저들은 우리가 겁내고 있다고 생각하여 자주 침략해 올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산세가 험하고 길이 좁아서 이야말로 한 사람이 문을 지키면 만 명이 당할 수 없다는 형국입니다. 한의 군사가 비록 많다 하나 우리를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니, 청컨대 군사를 내보내 그들을 막으십시오”라고 하였다. (明臨) 答夫는 말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한은 나라가 크고 백성이 많아 이제 강병으로 멀리서 쳐들어 왔으니 그 서슬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군사가 많은 경우에는 나가 싸워야 하고, 군사가 적은 경우에는 지켜야 하는 것은 兵法家の 원칙입니다. 지금 한나라 사람들은 천리 길에 군량을 날라 오니 오래 지탱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도랑을 깊이 파고 보루를 높이 쌓으며 들의 곡식을 모두 비워놓고 기다린다면, 저들은 반드시 한 달을 넘기지 못해 굶주리고 피곤해서 돌아갈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굳센 군사로 육박하면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그의 말을 수긍하여 성문을 닫고 굳게 지켰다. 한나라 사람들은 공격해 보아도 이길 수 없고 사졸들이 굶주리자 군대를 이끌고 돌아갔다. 이때 담부가 수천 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그들을 쫓아 坐原에서 싸

우니 한의 군사들은 크게 패해 한 필의 말도 돌아가지 못하였다. 왕은 크게 기뻐하여 답부에게 좌원과 質山을 내려주어 식읍을 삼게 하였다. (이상 『삼국사기』, 고구려본기4)

경림의 침공 기사는 『후한서』, 『삼국지』, 『책부원구』, 『자치통감』 등에 모두 建寧 2년(169)의 일로 기록되었으며, 이를 168년의 사건으로 기록한 『삼국사기』의 내용 자체는 『후한서』에 가장 근접해 있다.⁴⁵⁾ 따라서 『삼국사기』 측의 오인으로 생각할 여지가 적지 않다. 그런데 이듬해에 현도태수 공손도와 함께 富山에서 벌인 군사행동은 『삼국지』에서 대응 기사를 발견한다. 그러나 『삼국지』에는 사건의 발생 시점을 ‘熹平 연간(172~177)’이라고 했으며, 공손도 역시 여하한 직함도 없는 채로 기록되었다.⁴⁶⁾ 일단 고구려본기에서 공손도를 현도태수라고 한 것은 해당 사건 이전 시점에 백고가 현도군에 속할 것을 원했다는 기록에 영향을 받은 탓으로 보이지만, 희평 연간의 기록을 169년의 연대판에 맞춘 조치는 심각한 오류이거나 전승 자료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정작 희평 원년에 해당하는 신대왕 8년의 전쟁 기사는 어떤 중국 사서에서도 확인할 수 없는 한편, 그 상세함을 미루어 틀림없이 고구려 고유 전승에 입각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옳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 공손도전과 명림답부전을 음미할 필요가 있다. 그에 따르면, 공손도는 公孫域이 태수로 있던 시절 현도군에서 郡吏가 되었다가 董卓에게 천거되어 요동태수가 되었다. 그 후 初平 원년(190) 경 신장된 세력을 바탕으로 자립하여 遼東侯·平州牧을 자처하였다.⁴⁷⁾ 그러므로 그가 고구려 군사와 군사 활동을 함께 한 때는 현도군의 군리 혹은 요동군의 태수였을 것

45) 『三國志』 30, 魏書, 東夷傳, 高句麗 靈帝 建寧 2년, “玄菟太守耿臨討之 斬首虜數百級 伯固降 屬遼東”; 『後漢書』 85, 東夷傳, 高句麗 建寧 2년, “玄菟太守耿臨討之 斬首數百級 伯固降服 乞屬玄菟”; 『資治通鑑』 56, 漢紀48, 孝靈皇帝 建寧 2년, “高句麗王 伯固寇遼東 玄菟太守耿臨討降之”; 『冊府元龜』 983, 外臣部 征討 2, 建寧 2년.

46) 『三國志』 30, 魏書, 東夷傳, 高句麗, “熹平中 伯固乞屬玄菟 公孫度之雄海東也 伯固遣大加優居·主簿然人等 助度擊富山賊 破之”.

47) 『三國志』 8, 二公孫陶四張傳, 公孫度. 다만 『資治通鑑』 56, 漢紀51, 孝獻 甲에서는 初平 원년에 요동태수가 되었다고 했으나 『삼국지』가 옳은 듯하다.

이다. 특히 永康 원년(167)에 부여를 격파한 현도태수 공손역의 존재와,⁴⁸⁾ 이미 말한 바와 같이 建寧 2년(169)에 고구려를 친 현도태수 경림 등을 염두에 둘 때, 이 즈음 공손도가 현도태수였을 리는 없다.

한편 신대왕 8년(172)의 전쟁 기사는 중국 측 군사 주체가 드러나 있지 않다. 반면에 그것은 명림답부라는 걸출한 재상이자 전략가의 위상에 비중을 둔 전승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 고구려본기에 의하면 명림답부는 차대왕 20년(165) 10월 왕을 시해하고 신대왕을 옹립한 장본인이었다. 이에 신대왕은 이듬해에 명림답부를 國相으로 임명하였다. 그 후 명림답부는 위에 인용한 바와 같이 한나라의 대군이 침습해 왔을 때 출격하여 접전할 것을 주장하는 중론과는 달리 수성전을 건의하여 결과적으로 군공을 세웠다. 그 후 그는 신대왕 15년(179) 9월에 113세의 나이로 죽었다. 그러나 『삼국사기』 열전의 명림답부전에는 고구려본기의 내용이 거의 그대로 전제되면서도, 오직 신대왕 8년의 전쟁을 현도태수 경림이 침입했을 때의 일로 기록하였다. 이미 언급했듯이 경림의 침입은 고구려본기에 신대왕 4년(168), 그리고 『삼국지』를 비롯한 중국의 사서들에는 모두 靈帝 建寧 2년(169)의 일로 기록되었다. 더구나 경림의 침입 때 고구려는 패했으므로, 명림답부의 군공을 경림의 침입 때 사실로 설정한 열전의 서술은 매우 돌발적인 것이다.

여하튼 명림답부의 전승 기록은 오직 『삼국사기』에서만 확인되는 것이므로, 그 원전은 고구려 측의 고유 전승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신대왕 8년의 고구려 침입 주체를 경림이라 한 열전의 정보 또한 고구려본기의 오독이 아니라 고구려 관련 고유 전승 자료의 인식을 토대로 한 것일지도 모른다.⁴⁹⁾ 물론 열전에 보이는 고구려 인물들인 을파소, 밀우와 유유, 창조리 등의 약전이 대체로 고구려본기의 관련 기사를 적절하게 윤문하면서 재구성한 것

48) 『資治通鑑』 56, 漢紀48, 孝桓 下.

49) 신채호의 경우 신대왕 8년조의 기록을 이른바 ‘古記’에서 초록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이를 신대왕 4년의 사건과 함께 한 가지 사건을 분재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申采浩, 1987, 「高句麗 全盛時代 - 朝鮮上古史」, 『丹齋申采浩全集』 上, 丹齋申采浩先生紀念事業會, 175~176쪽.

으로 보는 일반적 이해에⁵⁰⁾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11월의 월차까지 밝혀 기록한 명림답부의 이 인상적 전승담을 가공의 기록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가능한 추정은 두 가지이다. 우선 명림답부전이 고구려본기와 무관하게 고유 전승을 활용한 서술이라면, 명림답부가 거둔 전승의 상대는 신대왕 4년의 전쟁과 마찬가지로 현도태수 경림이었다고 보아야겠다. 반면에 명림답부전이 고구려본기 기사의 잘못된 취합의 결과라면, 신대왕 8년 전쟁의 적군 주체는 경림이 아닐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손도가 요동태수로 있으면서 주변에 군사적 위력을 떨쳤던 사실을 환기하고자 한다. 『삼국지』 찬자는 이를 일러 “東伐高句麗 西擊烏丸 威行海外”라고 평하였다.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보아 명림답부가 거둔 승전의 대상은 요동태수 공손도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어느 경우이든 명림답부의 승리는 오직 고구려 측의 전승에 충실한 것이며, 중국 사서는 이를 언급하지 않았던 것이다. 요컨대 신대왕대의 대漢 전쟁의 연대 관련 문제는, 크게 보아 그를 전후한 고구려 측의 독자적 전쟁 전승의 수용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헤아려둔다.

물론 경림과의 전쟁 연대가 『삼국사기』와 중국 사서 사이에 1년의 차이를 보이게 된 점은 여전히 설명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동의하듯이 『삼국사기』 측의 오인일 가능성이 적지 않으나, 설사 오인이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전승 자료와 관련된 배경이 있을지도 모른다. 예컨대 『삼국사기』 제사지에는 고구려의 역대 왕들이 졸본에 행차하여 시조묘에 제사한 기록들이 있는데, 신대왕과 그의 사왕인 고국천왕의 경우 고구려본기의 대응 기사와 1년의 차이를 보인다. 제사지의 서술은 이른바 『고기』의 정보에 입각한 것이었다. 그 가운데 고국천왕의 경우는 전왕인 신대왕이 12월에 홍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구려본기에서는 경직된 유월칭원 즉 즉위년칭원에 따라 신대왕 홍거년을 고국천왕 즉위년으로 산정했기 때문에 실제로 충실한 『고기』의 재위년수보다 1년 이르게 된 경우였다. 그렇다면 오직 신대왕의 경우만 남거니와, 제

50) 李弘植, 1971, 「三國史記 高句麗人傳의 檢討」, 『韓國古代史의 研究』, 新丘文化社.

사지에는 신대왕 4년 9월에 “王如卒本 祀始祖廟”라고 한 반면, 고구려본기에는 같은 내용을 동왕 3년 9월에 기록하였다. 유일하게 신대왕대 편년 기사만이 『고기』보다 1년 이르게 된 정황은, 경림의 침입 기사를 중국 사서에 비해 1년 이르게 설정한 고구려본기 신대왕조의 현상을 전승 자료의 기년 방식과 연관지어 음미할 당위를 지지한다.⁵¹⁾

일부 전쟁 기사에는 月次의 상충도 보인다. 예컨대 광개토왕 11년(402)의 宿軍城 공격, 동왕 13년(404) 11월의 연나라 공격, 동왕 15년(406) 12월 慕容熙의 木底城 침공 기사 등은 모두 『자치통감』을 주요 원전으로 삼은 것으로 판단되면서도,⁵²⁾ 월차의 설정은 『자치통감』의 5월, 12월, 정월을 취하지 않거나 그와 다르게 하였다. 660년 백제 침공을 마무리한 당이 契苾何力 등의 군단을 새롭게 편성하여 고구려 공략에 나선 사건 역시, 고구려본기의 서술은 전적으로 『자치통감』에 의존하면서도, 그 월차는 『자치통감』의 12월이 아니라 11월로 설정하였다.⁵³⁾

고구려본기의 중국 관계 기사 작성 과정이 『자치통감』을 가장 주요한 모델로 삼았음은 주지의 사실인바, 『자치통감』 내용과 일치하는 서술에서 유독 월차만이 다르게 나타나는 데에는 일단 인용자의 誤引과 誤記 혹은 판각상의 誤刻 따위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一’과 ‘二’, 같은 이유로 ‘二’와 ‘三’ 사이에서는 종종 판각상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⁵⁴⁾ 특히 중국 사서들 가운데 『자치통감』과 여타 사서가 서로 다른 연대관을 전할 때 고구려본기

51) 이강래, 2005,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왕대력 비교 연구」, 『韓國史學報』 21, 86~87쪽.

52) 『資治通鑑』 112, 晉紀, 安帝 元興 元年(402) 5월; 『資治通鑑』 113, 晉紀, 安帝 元興 3년(404) 12월; 『資治通鑑』 114, 晉紀, 安帝 義熙 2년(406) 정월; 『晉書』 124, 慕容熙傳.

53) 『三國史記』, 高句麗本紀10, 寶臧王 19년 11월; 『資治通鑑』 200, 唐紀16, 高宗 上之下 顯慶 5년 12월.

54) 645년 4월 蓋牟城 전투에서 발생한 고구려 포로 규모의 차이점이 유사한 사례로 거론될 수 있다. 즉 고구려본기는 명백히 『자치통감』의 관련 기사를 적의하게 전제하면서도 오직 李世勣의 개모성 공함으로 발생한 고구려 군의 포로 규모를 ‘1만’ 명이라 하여 『자치통감』의 ‘2만’ 명과 다르게 되었다. 『資治通鑑』 197, 唐紀13, 太

찬자의 선택은 거의 예외없이 『자치통감』으로 귀결하였다. 예컨대 고구려본기 고국원왕 9년(339) 慕容皝의 新城 침공 기사는 동일 내용을 전하는 『진서』의 咸康 3년(337)이 아니라 『자치통감』의 함강 5년 기사를 취한 것이다.⁵⁵⁾ 고국원왕 12년(342) 겨울 모용황의 대규모 침공전 기사 역시 『자치통감』을 따라 『진서』와 『위서』의 341년이나 『양서』의 343년 정보를 배제하였다.⁵⁶⁾

그러나 『자치통감』의 연대관은 또한 『삼국사기』 찬자에 의해 가장 많이 비판되기도 하였다. 신라왕들의 졸년에 대한 중국 사서의 허다한 오류는 특히 『자치통감』을 들어 지적되었고, 모든 경우 판정의 근거는 『고기』로 불린 국내 고유 전승물이었다. 고구려본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찬자는 평원왕의 졸기에서 수 고조의 조서가 전해진 연대를 개황 17년이라 한 『자치통감』의 기록을 비판한 바 있다. 또한 앞에서, 현도태수 경림의 침공 연대를 『자치통감』을 위시한 중국 사서들과 달리 1년 이르게 설정한 데에는 명림답부 중심의 고유 전승이 개입한 때문일 것으로 짐작한 바 있었다. 그렇다면 월차의 상충 대목도 단순히 편찬과 판각 과정의 오류로만 단정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모용희의 침공 시점과 같은 경우, 『자치통감』의 정월과 『삼국사기』의 12월은 그와 같은 오류의 범주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할 일이다. 따라서 전쟁 주체의 문제와 동일한 관점에서, 전쟁 연대의 문제 역시 고유 전승의 수용 맥락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자 한다.

宗 中之下 貞觀 19년 4월 및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寶臧王 4년 4월. 647년 7월 積利城 인근 전투에서 唐將 李海岸 군대에 참살당한 고구려 군사 규모는 『자치통감』의 '2천'과 고구려본기의 '3천'이 다르게 되었다. 『資治通鑑』 198, 唐紀14, 太宗 下之上 貞觀 21년 7월 및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寶臧王 6년 7월. 고구려본기 찬자가 『자치통감』의 서술을 이용한 것이 확실한 이상, 피해 규모를 의도적으로 부풀리거나 축소시켰다기보다는 단순한 오각의 결과라고 함이 온당하다.

55) 『資治通鑑』 96, 晉紀, 顯宗成帝 中之下 咸康 5년(339); 『晉書』 109, 載記, 慕容(咸康 3년).

56) 『資治通鑑』 97, 晉紀, 顯宗成帝 咸康 8년 겨울 10월; 『晉書』 109, 慕容 傳, 咸康 7년; 『魏書』 95, 慕容元眞 및 같은 책 100, 列傳, 高句麗 (建國 4년, 341); 『梁書』 54, 東夷傳, 高句麗 (建元 원년, 343).

3. 사건

고구려본기가 문장의 채택과 서술에서 『자치통감』에 절대적 의존의 경향을 보인다는 이해와 고구려본기의 중국 관련 기사 가운데 『자치통감』과 상충하는 정보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반드시 모순으로 간주할 필요는 없다. 우선 열전에 기록된 명림답부의 대승, 밀우와 유유의 순국, 온달의 전공 등 인물 중심의 고구려 전승은 고구려 당대의 사실 수준을 넘어 다양한 경로의 변형과 생성 과정을 거쳐 『삼국사기』에 정착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본기 기사 가운데에도 중국 문헌과 무관한 중국 관련 기사는 드물지 않다. 예컨대 유리명왕 11년 扶蘇奴의 鮮卑 공략, 동왕 33년(14)의 한나라 고구려현 공탈, 대무신왕 11년(28) 한나라 요동태수의 침공 방어 등은 상세하고도 생생한 고구려 당대 정보와 인식에 입각해 있다. 명림답부의 대승이 坐原에서 이루어졌듯이, 고국천왕 6년(184) 왕이 직접 좌원에서 요동태수의 군사를 섬멸한 기록 역시 고구려 측 전승에서 유래했을 것이다.

특히 3세기 중엽의 중천왕대부터 미천왕 20년(319) 이전까지의 대 중국 군사 갈등은, 『자치통감』은 물론 여타 중국 사서에서 대응 기사를 적출할 수 없는 고구려 고구려 전승 정보로 작성되었다. 이 때문에 일찍부터 국내 자료와 중국 측 자료의 이용을 기준으로 하여 미천왕대를 전후한 기록의 ‘단층’이 유념된 바 있었다.⁵⁷⁾ 국내 자료의 이용 비중이 높을수록 중국 사서 기록과 충돌할 가능성 또한 높다.

저명한 幽州刺史 毋丘儉의 침공 기사에서 이 문제를 숙고하고자 한다. 이 사건을 고구려본기 찬자는 동천왕 20년(246)의 편년에 기록하였다. 그러나 『삼국지』의 열전과 그를 계승한 『양서』 등에는 모두 正始 5년(244)에 발단된 일로 기록하였다.⁵⁸⁾ 반면 『자치통감』은 『삼국사기』와 같은 연대를 취하였

57) 三品章綴, 1953, 「三國史記高句麗本紀の原典批判」, 『大谷大學研究年報』 6; 武田幸男, 1979, 「高句麗廣開土王紀の對外關係記事」, 『三上次男博士頌壽記念 東洋史・考古學論集』, 朋友書店.

58) 『三國志』 28, 毋丘儉傳; 『三國志』 30, 魏書, 東夷傳, 高句麗; 『梁書』 54, 高句麗

다.⁵⁹⁾ 관구검의 침입 기간의 실제 여부와 관계없이 『삼국사기』와 『자치통감』의 편년이 일치하고 있음에 주의한다. 즉 고구려본기에 기록된 이 전쟁의 전개 과정은 대체로 『삼국지』와 『양서』 등의 서술 방식에 충실하면서도, 편년만은 『자치통감』에 부합하는 것이다. 『삼국지』 관구검전과 『양서』는 정시 5년과 6년에 걸쳐 관구검군의 군사 활동을 기록했으며, 이는 「관구검기공비」 잔편의 정보와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등 자세하고도 생생한 전쟁 기록을 전하는 고구려본기에는 『양서』 등의 정시 5년과 6년에 분재된 내용을 정시 7년에 해당하는 동천왕 20년의 8월과 10월의 사건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이 사건에 대한 고구려 측의 고유 전승이 그와 같은 편년의 기준이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물론 정시 7년 한 해에 관련 사건의 시말을 모두 배치한 것은 『자치통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자치통감』의 경우는 동천왕의 중국 침구를 반대했다는 得來 관련 내용에 한정하여 고구려본기와 상응하고 있을 뿐이다. 게다가 고구려본기 찬자는 『자치통감』의 기록에 회의적이기도 하였다.

- 동천왕 20년(246) 가을 8월에 위에서 유주자사 관구검에게 1만 명을 거느려 보내 현도를 나와 침입하였다. ……
- 겨울 10월에 관구검이 환도성을 쳐 함락시키고 도륙하더니, 내치 장군 王頎를 보내 왕을 뒤쫓았다. …… 왕은 나라를 회복하고 전공을 논의할 때 밀우와 유유를 제일로 삼았으며, 밀우에게는 巨谷과 靑木谷을 주고, 劉屋句에게는 鴨濼과 杜訥河原을 주어서 식읍으로 하였다. 죽은 유유에게는 九使者를 추증하고, 또 그 아들 多優를 大使者로 삼았다.
- 이번 전쟁에서 위의 장수가 숙신의 남쪽 경계에 이르러 돌을 새겨 공적을 기념하고, 또 환도산에 와서는 不耐城에 새기고 돌아갔다. 처음에 신하 得來가 왕이 중국을 침구하고 배반하는 것을 보고 여러 번 간했으나 왕이 따르지 않았다. 득래가 탄식해 말하기를 “이

傳; 『北史』 94, 高麗傳. 또 「卍丘儉紀功碑」 잔편에는 정시 5년에 침공을 시작해 이듬해 6월에 철군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59) 『資治通鑑』 75, 魏紀, 邵陵厲公 中; 『三國志』 4, 魏書, 齊王芳紀.

땅에 쑥이 나는 것을 당장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더니 마침내 먹지 않고 죽었다. 관구검이 여러 군사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무덤을 허물지 말라 하고 나무를 베지 못하게 했으며, 그의 처자를 찾아가 모두 놓아 보내주게 하였다[『括地志』에는 이르기를 “불내성은 곧 국내성이다. 성은 돌을 쌓아 만들었다”라고 했으니, 이는 곧 환도산과 국내성이 서로 인접한 것이다. 『양서』에는 “司馬懿가 公孫淵을 토벌할 때 왕이 장수를 보내 西安平을 습격했으므로 관구검이 와서 침공하였다”라고 하였고, 『통감』에는 득래가 와서 왕에게 간한 것이 왕 位宮 때의 일이라고 했으나 잘못이다. (이상 『삼국사기』, 고구려본기5)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의 본문은 동부의 밀우나 하부의 유옥구, 그리고 역시 동부의 유유와 다우 부자 등 구체적 인물들의 행적을 포함하여 매우 풍부한 고구려 자체 전승을 채록한 사례로 꼽힐 만한 기사이다.⁶⁰⁾ 그 가운데 마지막 단락은 고구려본기 찬자의 『양서』와 『자치통감』 수용 사실과 방식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우선 관구검의 刻石紀功 부분은 『양서』에서 유래한다. 관련 원문을 대조해 본다.

- 정시 6년(245), 至肅慎氏南界 刻石紀功 刊丸都之山 銘不耐之城 (『삼국지』 28, 위서, 王毋丘諸葛鄧鍾傳, 毋丘儉)
- 정시 6년, 到肅慎南界 刻石紀功 又到丸都山 銘不耐城而還 (『양서』 54, 열전48, 동이전, 고구려)
- 정시 7년(246), 至肅慎氏南界 刻石紀功而還 (『자치통감』 75, 魏紀 7, 邵陵厲公 中)
- 동천왕 20년(246), 到肅慎南界 刻石紀功 又到丸都山 銘不耐城而歸 (『삼국사기』, 고구려본기5)

고구려본기는 완연 『양서』의 서술을 반복하였다. 그에 따르면 숙신의 남계와 환도산에 각각 각석 및 기공 행위를 한 것으로 읽힌다. 그러나 “숙신의

60) 李弘植, 1971, 앞의 책, 255~256쪽.

남계에 이르렀다”라고 함은 관구검에 의해 파견된 현도태수 王頤의 행적을 이룬 것이므로 이를 ‘각석기공’과 이어 해독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관구검전의 문맥에서는 “刊丸都之山 銘不耐之城”이 곧 ‘각석기공’의 내용이 된다. 『양서』는 관구검전의 ‘刊’을 ‘到’로 오독하여 ‘숙신남계’와 ‘환도산’을 대응시키고, 또한 ‘刻’과 ‘銘’을 대응시킨 것이다. 그러나 ‘銘’은 ‘刊’과 대응하며, 이 ‘刊·銘’이 곧 ‘刻·紀’를 이룬다고 보아야 옳다. 『자치통감』의 필법이 그러한 독법에 충실한 사례이다. 따라서 고구려본기 찬자는 『양서』와 『자치통감』의 서로 다른 독해 가운데 『양서』를 취한 것이다. 다만 『양서』에 보이지 않는 득래 관련 사화는 『자치통감』을 충실히 따랐다.

이와 같은 수용을 거친 후 찬자는 분주를 통해 두 가지 사항을 논증하였다. 첫째는 환도산과 국내성의 위치 문제이며, 둘째는 관구검 침공의 맥락과 당시 고구려왕의 실체 문제이다. 우선 환도산과 국내성이 서로 인접해 있다고 판정한 분주의 논거는 『괄지지』에 있다. 『괄지지』는 당 태종의 넷째 아들 濮恭王 泰가 주동하여 편찬한 지리서로서,⁶¹⁾ 특히 『翰苑』에서 백제와 신라조를 서술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채택되었다. 그러나 『한원』에서 고구려를 서술하는 데에는 오직 『高麗記』가 『괄지지』의 역할을 대신하였다. 『고려기』에 의하면 불내성은 한대의 不而縣이며, 『고려기』 작성 당시의 국내성이라 한다.⁶²⁾ 그러나 불내성과 국내성을 동일시한 『괄지지』나 『고려기』의 인식, 나아가 그를 근거로 환도산과 국내성을 인접한 것이라 한 고구려본기 분주자의 판단은, 아마 관구검전의 내용을 오독하거나 아니면 오독의 결과인 『양서』 등을 따르는데 기인했을 것이다. 그 때문에 환도산과 불내성을 인접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데 주안하는 연구자들은, 관구검전의 문의에 대해 환도산과 불내성 두 곳에 刻石紀功한 것으로 이해하기도 했던 것이다.⁶³⁾

61) 『新唐書』 80, 列傳5, 太宗諸子 및 同書 58, 藝文2.

62) 『翰苑』, 蕃夷, 高麗, “高麗記曰 不耐城 今名國內城 在國東北六百七十里 奔(本の誤 - 필자)漢不而縣也”.

63) 李丙巖, 1977, 앞의 책, 乙酉文化社, 265쪽; _____, 1976,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202~203쪽; 金泰植, 1997, 『三國史記』 地理志 高句麗條의 史料의 檢

다음으로, 『양서』와 『자치통감』의 서술에 대한 비판은 다시 두 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양서』의 경우로, 사마의가 공손연을 토벌할 때 고구려왕이 서안평을 공격했기 때문에 관구검의 침공이 발단되었다고 했다는 것이다. 『양서』에 의하면, 景初 2년(238)에 사마의가 공손연을 토벌할 때 고구려 왕이 군사를 보내 협력하였다. 그 후 정시 3년(242)에 고구려 왕 위궁은 서안평을 공략했고, 2년 뒤인 정시 5년(244)과 6년에 걸쳐 관구검의 고구려 침공이 전개되었다. 다른 사건 기사의 개입이 전혀 없이 서술된 『양서』 고구려전의 내용은 일견 사마의의 공손연 토벌부터 관구검의 고구려 침공까지가 일련의 맥락 가운데 조응하는 것처럼 비쳐질 수도 있다. 다른 하나의 비판 영역은 『자치통감』이 득래의 간언 시기를 왕 위궁 때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외양으로는 고구려왕의 실체 문제이나 실제로는 관구검의 고구려 침공 시기와 관련한 비판이다. 이상의 두 영역은 그러나 분주자의 논리 가운데서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고구려본기 작성자는 『양서』에 보이는 사마의의 공손연 토벌 이하의 기사 내용을 충실히 기재하였다. 다만 일련의 기사 가운데 관구검의 침공 사건만은 내용을 충실히 전제하면서도 연대를 정시 7년 한 해에 편성하였다. 따라서 사마의와 서안평과 관구검의 연속적 의미 맥락을 인정하지 않는 비판의 핵심은 관구검의 고구려 침공 연대에 있다고 해야 옳다. 즉 관구검의 침공은 정시 5년이 아니라 정시 7년이었던 판단이 개재해 있는 것이다. 그 경우, 『자치통감』에 대한 비판이 오직 해당 시기 왕을 위궁이라고 한 데 한정해 있는 것은 『자치통감』의 편년이 정시 7년으로 된 데 따른 결과일 것으로 생각한다. 관구검 침공 당시의 고구려왕을 위궁이라 한 것은, 『자치통감』 뿐만 아니라 『양서』를 비롯하여 『삼국지』 계통의 중국 사서들 가운데에는 모두 예외가 없기 때문이다. 요컨대 『삼국사기』 찬자는 『양서』와 『자치통감』의 내용을 충실히 전제하면서도⁶⁴⁾ 『양서』의 연대관, 그리고 크게 다를 바 없는 문제이지만 『자

討, 『歷史學報』 154, 31~32쪽.

64) 『梁書』 54, 高句驪, “魏景初二年(238) 遣太傅司馬宣王率衆討公孫淵 位宮遣主簿大加將兵千人助軍 正始三年(242) 位宮寇西安平 五年(244) 幽州刺史毋丘儉將萬人出

치통감』의 고구려왕 관련 정보를 수궁하지 못한 것이다.

여러 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대 중국 사건 연대의 경우 이처럼 단호한 논거는 고구려 관련 국내 고유 전승물의 존재와 그에 대한 찬자의 신뢰 정도로 설명할 수 있다. 『삼국사기』 열전의 밀우·유유전에도 이 사건은 동천왕 20년, 즉 정시 7년의 일로 기록되었다. 따라서 결국 고구려본기 본문은 사건 연대를 포함하여 고유 자료의 전승이 상당한 비중을 점했던 것이다.

그러나 『양서』와 『자치통감』의 정보를 잘못이라고 판단한 고구려왕 ‘위궁’ 관련 논증은 오직 ‘위궁’을 산상왕의 이름으로 간주한 찬자 자신의 오류일 뿐이다. 그는 산상왕의 이름 ‘연우’에 대하여 “위궁이라고도 한다”는 분주를 가한 후 『위서』를 인용하였다.

산상왕은 이름이 延優이고[位宮이라고도 한다]이고 고국천왕의 아우이다. 『위서』에 이르기를 “주몽의 후손 宮은 나면서부터 눈을 뜨고 볼 수 있었는데 이가 태조가 되었다(是爲太祖). 지금 왕은 태조의 중손인데(今王是太祖曾孫) 역시 태어나자마자 사람을 알아 보는 것이 중조 궁과 같았다. 고구려에서는 서로 비슷하다는 것을 ‘位’라고 했으므로 그의 이름을 位宮이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4, 산상왕 즉위기)

인용한 문장 구조에서 주의할 것은, 『위서』 이하의 내용은 전적으로 ‘위궁’에 대한 것이나, 그 위치가 직접 관련 대상 정보로부터 얼마간 격리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삼국사기』 분주는 거의 모두 분주 대상 본문 정보에 바로 이어 자리하는 게 일반적이거니와, 분주적 내용이 분명하되 본문으로 서술된 이 경우는 그와 다르다는 점을 유념해 둔다. 또한 그 내용 역시 인용서 『위서』의 실체와 관련하여 다른 문제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인용문을 제외하면, 고구려본기에서 『위서』를 노출하여 인용한 다른 용례들은 모두 魏收가 찬수한 『위

玄菟討位宮 …… 六年(245) 儉復討之……”；『資治通鑑』 75, 魏紀, 邵陵厲公 中, “句驪之臣得來 數諫位宮 位宮不從 得來歎曰 ……”.

서』¹⁰⁰, 고구려전에서 확인이 된다. 그러나 인용문에서 『위서』로 이끌어진 내용은 위수의 『위서』만으로 포괄되지 않는다. 우선 “是爲太祖” 대목은 문제가 된 『위서』는 물론 여느 중국 사서의 표현도 아니다. 이는 오직 서술자의 논증이다. 또한 “今王是太祖曾孫” 부분에서 ‘太祖’의 명칭에 더해 ‘今王’이라 한 것은 『위서』 찬술 시점의 표현일 수 없다. 오히려 그것은 『삼국지』 위서 고구려전에서 궁의 증손 위궁을 ‘今王’이라 표현한 것에 조응하는 게 틀림없다. 그러나 문제가 된 ‘태조’ 관련 적소들을 제외한다면, 전체 문맥의 흐름은 위수의 『위서』에 근사하다. 따라서 인용된 『위서』 이하 내용은 위수의 『위서』와 『삼국지』의 고구려전 정보가 아울러지는 동시에 서술자의 고유한 판단마저 개입된 것으로 판단한다.

이처럼 찬자의 판단에 의해 ‘위궁’은 오직 산상왕으로 파악되었다. 그는 『양서』와 『자치통감』에 경초 혹은 정시 연간의 일을 기록함에 있어서 고구려 왕을 위궁이라 한 것을 납득하지 못하였다. 요컨대 『자치통감』에 등장하는 위궁의 존재를 비판한 찬자의 오류는 『삼국지』 등을 염두에 두고 산상왕의 휘를 “一名位宮”이라 단정한 오류의 연장이었던 것이다.

고구려본기에 채택된 정보가 특정 중국 문헌 정보와 사건의 주요 내용에서 상충하는 사례도 있다. 태조대왕대의 대 현도군 관계 기사를 본다.

태조대왕 59년(111)에 한에 사신을 보내 방물을 바치고 현도군에 붙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통감』에는 “이 해 3월에 고구려 왕 궁이 穢貊과 함께 현도를 침구하였다”라고 했으니, 혹은 붙여줄 것을 요구하고, 혹은 침구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렇지 않다면 한 쪽이 잘못된 듯하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3)

분주자는 동일한 해에 일어난 상이한 성격의 사건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본문의 경우 태조대왕은 111년에 현도군에 우호적 교섭을 하였다. 그러나 『자치통감』에는 태조대왕이 현도군을 침구했다고 하였다. 정반대의 두 문헌 정보에 대해 고구려본기 분주자가 추정한 상황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본문 내

용과 분주에 인용한 『자치통감』이 전하는 내용 사이의 상반된 관계가 실제 전개되었을 가능성이다. 다른 하나는 두 전승 가운데 하나가 잘못된 가능성이었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신라본기의 유사한 사례를 염두에 둔다면, 그리고 만약 본문 구성 자료가 『고기』나 ‘本史’와 같은 국내 고유 전승이었다면, 분주자는 거의 틀림없이 『자치통감』의 잘못으로 단정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두 가지 가능성을 열어 놓은 채 적극적 판정을 보류하여 미완의 고증에 머물고 말았다. 이는 아마 고구려본기의 본문 구성 자료가 고유 전승이 아니라고 판단한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 ① 59년(111) : 遣使如漢 貢獻方物 求屬玄菟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태조대왕)
- ② 66년(118) 6월 : 王與穢貊襲漢玄菟 (위와 같음)
- ③ 永初 5년(111) 3월 : 夫餘夷犯塞 殺傷吏人 (『후한서』 5, 孝安帝紀)
- ④ 元初 5년(118) 6월 : 高句驪與穢貊寇玄菟 (위와 같음)
- ⑤ 영초 5년(111) : 夫餘王 …… 寇 樂浪 殺傷吏民 (『후한서』 85, 부여국)
- ⑥ 영초 5년(111) : 宮遣使貢獻 求屬玄菟 (『후한서』 85, 구려)
- ⑦ 원초 5년(118) : 復與穢貊寇玄菟 (위와 같음)
- ⑧ 영초 5년(111) 3월 : 夫餘王寇樂浪 高句驪王宮與穢貊寇玄菟 (『자치통감』 49, 漢紀, 孝安 上)
- ⑨ 元初 5년(118) 夏6월 : 高句驪與穢貊寇玄菟 (『자치통감』 50, 漢紀, 孝安 中)

『삼국사기』 태조대왕 59년의 본문 정보(①)는 오직 『후한서』 고구려전의 내용(⑥)과 일치한다. 반면 『자치통감』을 들어 논의한 분주의 지적은 ⑧에 근거하고 있다. 그런데 ⑧에는 ‘3월’의 시점과 부여왕의 낙랑 침구 내용이 있으므로, 아마 『후한서』 본기 기사(③)와 부여전 기사(⑤)를 함께 고려한 듯하다. 다만 ⑧에 보이는 고구려의 현도 침구 정보는 『후한서』의 본기와 동이전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다. 한편 고구려본기의 태조대왕 66년 기사(②)는 『후한서』 본기 기사(④) 및 『자치통감』의 같은 해 기사(⑨)와 상응한다. 따라서 만약

고구려본기의 서술이 선행한 『후한서』에 기초한 것이라면, 본기와 동이전의 정보를 함께 고려했을 것이다. 『자치통감』 역시 선행한 『후한서』의 정보가 주요 토대로 기여했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3월’과 ‘6월’ 등의 월차로 미루어 『자치통감』은 오히려 『후한서』의 본기 정보에 주안한 듯하다. 그렇다면 『자치통감』의 ⑧이 ⑥을 취록하지 않은 것은, 『후한서』 동이전의 ⑤와 ⑦이 본기에서 확인되는 반면, ⑥의 경우는 본기의 대응 기사가 없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⑧의 고구려 관련 기사는 여전히 그 출처가 분명치 않다. 다시 말해 ⑧의 고구려 관련 기사는 ④ 혹은 ⑦의 오인·중복 기사일 수도 있다.

결국 어느 경우라 하더라도, 『후한서』에 의거한 고구려본기 본문 정보의 수용 주체와 이에 대한 분주의 서술 주체는 동일 시점에 있었던 것 같지 않다. 아마 『후한서』에 근거한 본문 정보는 『삼국사기』 편찬을 위해 동원된 기왕의 고유 자료 형태로 존재했을 것이다. 반면에 새롭게 편년체 『자치통감』의 활용도에 착안한 『삼국사기』 편찬 단계의 분주자는 『후한서』에 입각한 기왕의 해당 기사와 『자치통감』의 상충을 지적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가 재래의 국내 전승물의 전거를 『후한서』로 확신했는지의 여부는 분명치 않다. 물론 분주자가 본문의 전거를 『후한서』로 보았다면, 그의 논지는 『후한서』와 『자치통감』의 상충 문제에 주목한 것이었겠다. 그러나 내용 차이를 보이는 복수의 중국 문헌들 가운데서는 거의 『자치통감』에 편향되었던 고구려본기의 서술 태도를 감안한다면, 분주자의 경우 기성의 태조대왕 59년 기사의 출전을 재래의 고유 전승물 범주에서 파악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이다.

요컨대 고구려본기 찬자는, 명백한 고유 전승을 확보한 경우에는 『자치통감』을 포함하여 여타 중국 문헌 정보와의 괴리에 당해 단연히 고유 전승에 신뢰를 주었으나, 중국 문헌 정보들 사이의 상충에 대해서는 의연히 『자치통감』의 견해를 중시했다고 보고자 한다. 문제가 되고 있는 태조대왕 59년 기사는 『후한서』와 일치를 보이고 있으나, 분주자 스스로가 『후한서』의 해당 기사를 『삼국사기』에 편록한 주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본문 정보와 『자치통감』의 상충을 판정할 수 있는 명백한 고구려 고유 전승이 확보되지 않은 조건에서 판단을 주저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에서 지적해 둔 바와 같이 미천왕 20년

이후의 4~5세기 대 중국 전쟁 기사는 거의 대부분 『자치통감』에 의거한 것이었지만, 종종 고구려본기의 실제 기사에는 『자치통감』과 다른 정보가 개입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고구려 측 전승의 존재가 그 원인이었을 것이다.

고국양왕 2년(385) 여름 6월에 왕이 군사 4만 명을 내서 요동을 습격하였다. 이에 앞서 연 왕慕容垂가 帶方王慕容佐를 시켜 龍城을 진무케 했는데, 모용좌는 우리 군사가 요동을 습격한다는 말을 듣고 司馬景을 보내 군사를 거느리고 와 구원케 했으나, 우리 군사가 그를 쳐부수었다. 드디어 요동과 현도를 함락시키고 남녀 1만여 명을 사로잡아 돌아왔다. 겨울 11월에 연의慕容農이 군사를 이끌고 침입해 와서 다시 요동과 현도의 두 군을 수복하였다. 처음에 幽州와 冀州의 유랑민들 다수가 우리에게 의탁해 왔는데, 모용농이 范陽의 龐淵을 요동태수로 삼아 그들을 불러들여 무마하게 하였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6)

인용문은 『자치통감』의 문장을 근간으로 하였으며, 약간의 출입이 발생한 경우이다.⁶⁵⁾ 이때는 후연왕 모용수가 칭제하기 1년 전으로서 고구려와의 긴장이 자못 예리해 가던 즈음이었다. 385년의 공방에 대해 『양서』나 그를 이은 『북사』 등은 “고구려가 요동군과 현도군을 공격하니, 후연의 모용수가 아우 모용농을 보내 고구려를 쳐서 2군을 되찾았다”라고 간략하게 언급하는 데 그쳤다.⁶⁶⁾ 고구려가 한동안 두 군을 점유한 맥락을 읽기 어려운 서술인 것이다. 『진서』는 고구려의 2군 점령과 뒤이은 모용농의 수복을 분별하여 기술하고는 있지만, 역시 고구려본기의 상세함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⁶⁷⁾ 반면에 『자치통감』은 고구려본기와 같이 ‘6월’과 ‘11월’의 월차를 밝힌 데다가 6월의 사건 말미에 “自此燕不能勝高句麗”라 하여 고구려 승리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

65) 『資治通鑑』 106, 晉紀28, 烈宗孝武皇帝 中之上 太元 10년(385) 閏月·6월·11월.

66) 『梁書』 54, 高句驪傳, 孝武帝 太元 10년; 『北史』 94, 高麗傳, 孝武帝 太元 10년.

67) 『晉書』 123, 載記 23, 慕容垂, “……高句驪寇遼東 垂平北慕容佐遣司馬 景率衆救之 爲高句驪所敗 遼東玄菟遂沒 ……慕容農攻克令支 斬徐巖兄弟 進伐高句驪 復遼東玄菟二郡 還屯龍城”.

다. 따라서 고구려본기 서술의 근거는 『자치통감』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자치통감』에서도 고구려 군사의 규모 ‘4만’이나 요동군과 현도군 공략에서 노획한 포로 ‘남녀 1만 명’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여기에도 고구려 측의 고유 전승물이 침입되었다고 해야 옳다.

물론 고구려의 고유 전승에 비중을 두고자 한 편찬 방침에도 불구하고, 그 개별 사료의 신빙성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온달전에는 후주와의 전투가 기록되어 있으나 그에 상응하는 내용이 고구려본기에서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한다. 『삼국사기』에 입전된 고구려의 인물들 가운데 오직 온달 관련 내용만이 본기에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온달전은 시대 배경으로 ‘平岡王’ 때를 설정하였다. 그런데 고구려본기에는 平原王에 대해 “혹은 平岡上好王이라고도 한다”라고 분주하였다. 이것은 그의 부왕인 陽原王에 대해 “혹은 陽崗上好王이라고도 한다”라고 한 분주와 동궐에 있는 것으로서, 이른바 이 ‘분주 계열’ 계통 사료는 ‘본문 계열’의 그것과 구분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⁶⁸⁾ 따라서 온달전에 분주 계열 왕호가 채택되어 있다는 것은 고구려본기의 본문 작성을 위한 기본 원전과 온달전의 전거가 달랐던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도 좋다.

그즈음 後周의 武帝가 군사를 내 요동에 쳐들어오자,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拜山の 들에서 막아 싸웠다. 온달이 선봉이 되어 날래게 싸워 수십여 명의 목을 베니, 여러 부대가 승세를 타고 맹렬히 싸워 크게 이겼다. 공로를 논할 때 온달을 제일로 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이에 왕이 가상히 여겨 찬탄하면서 “이야말로 내 사위로다!” 하고 예를 갖추어 맞이했으며, 작위를 내려 大兄으로 삼았다. (『삼국사기』, 열전5, 온달)

인용한 대목은 평강왕 즉 평원왕대에 고구려와 후주의 요동 전투 전말이

68) 高寬敏, 1996, 「高句麗本紀の國內原典」, 『三國史記』의原典的研究, 雄山閣; _____, 1993, 「『三國史記』高句麗本紀の國內原典」, 『朝鮮學報』 146.

다. 그러나 이 요동 전투의 실제 및 이 전투에서 거둔 온달의 군공은 고구려본기의 문맥에 비추어 그 진위를 가르기 어렵다. ‘후주’는 실제 556년부터 581년까지 존속했던 북조 왕조의 하나로 北周를 이르는 것이나, 고구려 평원왕 때(559~590)는 북주의 영주 武帝의 치세(560~578)로 東魏를 찬탈한 北齊와의 사투에서 승리해 가야호로 화북 땅에 군림할 시기였다. 그러므로 평강왕 역시 재위 19년에 북주에 조공을 한 바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拜山’의 전장과 전황 등 구체적 전말은 후주와 고구려의 전쟁을 가공의 상상물로 치부하기 어렵게 한다. 게다가 온달전에 보이는 고구려의 후주 및 신라와의 갈등을 겨냥하여 “온달의 행적은 당시 고구려 정권이 취한 대외정책의 동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해된 바 있으므로,⁶⁹⁾ 역사적 실재를 반영한다고 보고자 한다. 다만 『삼국사기』 찬자들은 온달 관련 사건들의 편년이 불명한 데다가 여하한 중국 문헌에서도 대응 기사를 발견하지 못한 상황에서 고구려 본기에의 편록을 포기했을 것이다.

Ⅲ. 인식의 비교

고구려와 중국의 전쟁 기록에 대한 문헌의 비교를 통해 몇 가지 이해를 획득하였다. 우선 편찬 시기에서 크게 뒤늦은 『삼국사기』의 경우, 『후한서』와 『자치통감』을 비롯한 여러 중국 사서들로부터 관련 기사를 적출 활용한 것은 불가피한 작업이었다. 그러나 고구려 측의 전승 자료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국 문헌 정보와의 상충에도 불구하고 고유 전승을 존중하였다. 특히 동일한 전쟁을 대상으로 한 한·중 사서에 표출된 인명, 연대, 사건 정보의 차이점들을 비교 검토한 결과, 국내 전승의 정보가 상당한 근거를 지니면서 본문 서술

69) 임기환, 1994,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 『한국사 4 - 고대사회에서 중세사회로』, 한길사, 155쪽.

에 반영되었음이 드러났다. 나아가 고유 전승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중국 사서들의 기사 채택은 유일한 대안이었으나, 이들 사이의 상충에서는 다시 취사작업이 이루어졌다. 즉 중국 사서 가운데에서는 『자치통감』이 월등히 중시되었다. 다만 『자치통감』의 존중이란 관련 고유 전승 정보가 부재했을 때에 한 정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여러 중국 사서들 가운데 『자치통감』의 수월한 위상은 종종 고구려본기에 한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 예로 보장왕대에 신라의 청군에 부응하여 고구려를 침공해 온 정명진 군대와 교전한 기사를 들어본다.

보장왕 14년(655) 봄 정월, 앞서 우리가 백제 및 말갈과 함께 신라의 북쪽 변경을 침공해 33개 성을 빼앗자, 신라 왕 김춘추가 당에 사신을 보내 구원을 청하였다. 2월에 당 고종이 薊州都督 程名振과 左衛中郎將 蘇定方을 보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공격하게 하였다. 여름 5월에 정명진 등이 요수를 건너왔다. 우리 쪽에서는 그들의 병력이 적은 것을 보고 성문을 열고 나와 貴湍水를 건너가 맞받아 싸웠다. 정명진 등이 맹렬하게 공격해 우리 군사를 크게 물리치고 천여 명을 죽이고 잡았으며, 외곽 성과 촌락들에 불을 지르고 돌아갔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¹⁰⁾)

인용문은 대체로 『자치통감』 기사를 주객만을 바꾸어 전제한 것이다. 『신·구당서』 어디에도 『자치통감』에 상응하는 정도의 정보는 기재되지 않았다. 특히 고구려와 백제 등의 침공에 의해 상실된 신라 성의 규모 ‘33성’은 전거 자료를 분별하는 데 하나의 지표가 된다. 즉 『구당서』의 백제전과 신라전은 모두 ‘30여 성’이라 하였고, 『신당서』의 백제전과 신라전은 ‘30성’이라 하였다. 또한 『신당서』 고려전에는 ‘36성’이라고 하였다.⁷⁰⁾ 한편 신라본기에는 ‘33성’의 경우는 고구려본기와 일치하지만, 신라 측의 청군에 부응하여 정명진 등이 파견된 시점은 ‘3월’로 기록되었다.⁷¹⁾ 게다가 백제본기에는 ‘30여

70) 『資治通鑑』 199, 唐紀15, 高宗 上之上 永徽 6년; 『舊唐書』 199, 東夷傳, 百濟·新羅 永徽 6년; 『新唐書』 220, 東夷傳, 高麗·百濟·新羅 永徽 6년.

성'이라 하여 『구당서』와 일치하는 동시에 사건 발생 시점을 '8월'이라 하였다.⁷²⁾ 신라본기의 '3월'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월'의 오각일 여지가 없지 않으나, 적어도 백제본기의 '8월'은 『자치통감』 혹은 여타 중국 사서의 자료 계통에서 대응시킬 바가 없다.

유사한 정황은 본기와 열전 사이에서도 발견된다.

보장왕 26년(667) 가을 9월에 李勣이 新城을 함락시키고 契苾何力으로 하여금 지키게 하였다. 이적이 처음에 요수를 건너와 여러 장수들에게 이르기를 “신성은 고구려 서변의 요충이기 때문에 이곳을 먼저 차지하지 않으면 나머지 성들을 쉽게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고는 드디어 신성을 공격하자, 신성 사람 師夫仇 등이 성주를 결박해서 성문을 열고 나와 항복했던 것이다. 이적이 군사를 이끌고 진격하자 16개의 성이 모두 항복하였다. 龐同善과 高侃은 아직 신성에 남아 있었는데 泉男建이 군사를 보내 그들의 진영을 쳤으나, 좌무위장군 薛仁貴가 이를 격파하였다. 고간은 金山까지 진출했다가 우리 군사와 싸워 패하였다. 우리 군사가 승세를 타고 도망가는 적들을 쫓아 설인귀가 병력을 이끌고 측면에서 공격해 와 우리 군사 5만여 명을 죽이고 南蘇와 木 와 蒼巖의 세 성을 함락시켰으며, 泉男生의 병력과 합하였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10)

역시 인용문은 전적으로 『자치통감』 기사를 충실히 따른 것이다.⁷³⁾ 그 가운데서도 남생이 당에 투신한 이듬해 즉 예거한 보장왕 26년(乾封 2) 9월에, 설인귀가 고구려군 5만 명을 살육하고 “南蘇와 木 와 蒼巖의 세 성을 함락시켰으며, 천남생의 병력과 합했다”라고 한 부분을 주목한다. 그런데 이 내용이 『신당서』 고려전에는 건봉 3년조에 기록되었고 설인귀가 회합한 군대 역시 이적의 것으로 되어 있다.⁷⁴⁾ 또한 『신당서』의 천남생전이나⁷⁵⁾ 이를 답습한

71) 『三國史記』 5, 新羅本紀, 太宗武烈王 2년.

72) 『三國史記』 28, 百濟本紀, 義慈王 15년.

73) 『資治通鑑』 201, 唐紀17, 高宗 中之上 乾封 2년 9월.

74) 『新唐書』 220, 列傳145, 東夷傳, 高麗, 乾封 3년 2월.

『삼국사기』의 열전에는 남생이 “哥勿·南蘇·倉巖 등의 성을 들어 (당에) 항복하였다”라고 기록하였다. 동일한 사건이 분명한 반면, 목저성과 가물성의 차이는 물론 세 성의 귀추를 남생의 투항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것인가 설인귀의 공략에서 초래된 것으로 이해할 것인가의 차이가 발생한다. 결국 『자치통감』의 우월한 자료적 지위란 오직 고구려본기에서, 그것도 제한적으로 발견될 뿐이다.

이처럼 『삼국사기』의 전쟁 기록 작성에서 중국 문헌의 활용이 불가피했던 한편, 특정 사서에 편향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고구려 관련 고유 전승 자료에 대한 존중의 태도가 견지되었던 정황의 확인은, 전쟁 인식의 비교를 위한 의미 있는 토대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658년 고구려와 당의 전쟁에 대한 『삼국사기』의 문면은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보장왕 17년(658) 여름 6월에 당의 營州都督兼東夷都護 정명진과 右領軍中郎將 설인귀가 군사를 거느리고 쳐들어왔다가 이기지 못하였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10)
- 顯慶 3년(658) 다시 정명진을 보내 설인귀를 거느리고 (고구려를) 쳤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신당서』 220, 동이전, 고려)
- 영주도독겸동이도호 정명진과 우령군증랑장 설인귀가 군사를 거느리고 고구려의 赤烽鎮을 공격하여 함락시켰으며, 400여 명의 목을 베고 100여 명을 사로잡았다. 고구려는 대장 豆方婁를 보내 무리 3만 명을 이끌고 막았는데, 정명진이 거란족으로 맞받아 쳐서 크게 깨뜨리고 2500여 명의 목을 베었다. (『자치통감』 200, 唐紀, 顯慶 3년 6월)

고구려본기는 『자치통감』의 전반부와 『신당서』 기사의 마지막을 조합하였다. 『신당서』에 의하면 정명진 등의 당군은 고구려 공격에 실패한 반면, 『자치통감』의 문면은 고구려군 3천여 명을 살육한 당 측의 대승이었다. 두 자료의 차이는 곧 승리와 패배가 갈리는 문제이다. 월차로 미루어 『자치통감』의 해당

75) 『新唐書』 110, 列傳35, 諸夷藩將, 泉男生傳.

기사를 참조한 것이 분명한 고구려본기 찬자는, 그러나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는 『신당서』를 따랐다. 여기에 어떤 판정의 논거가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중국 사서 사이에 승패가 엇갈린 전쟁 기사에서 중국의 실패 쪽을 선택 수용한 『삼국사기』 찬자들의 의식을 주목한다. 일반적으로 중국 사서들 가운데에서 『자치통감』에 좌단했던 사료 취사의 경향에 비추어 실로 의외의 적소인 것이다.

제다가 『자치통감』 기사는 고구려의 군사 거점이었을 ‘赤烽鎮’과 고구려의 장수 ‘豆方婁’가 보이는 등 그 구체성에서 『신당서』를 크게 능가하였다. 특히 ‘적봉진’은 『삼국사기』 지리지 ‘유명미상지분’ 목록에도 기재되어 있다. 지리지 말미의 ‘삼국유명미상지분’은 『삼국사기』 편자가 관계된 원전을 정리하고 그 가운데 미상지명을 적출한 것이라고 한다.⁷⁶⁾ 그런데 정작 고구려본기에는 ‘적봉진’이 언급된 바 없다. 결국 ‘적봉진’은 『삼국사기』 편찬에 동원된 자료 가운데 있었던 반면, 관련 정보가 채택되지는 않았던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적봉진 관련 정보를 배제한 찬자의 행위에는 필시 『신당서』에 보이는 반대의 전쟁 결과가 개입되었을 것이다. 그가 해당 전쟁의 결과에 대해 승패의 어느 한 쪽을 선택할 만한 객관적 근거, 즉 고구려 측의 고유 전승과 같은 제3의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는지는 불명이나, 이러한 취사 사례는 고구려와 중국 세력과의 전쟁에 대한 인식을 논의하는 영역에서 주의해야 할 대목임이 분명하다.

이를 염두에 두고, 『삼국사기』 찬자의 고구려 전쟁 관련 사평을 중심으로 한·중 간 전쟁 인식의 단층을 점검해본다.

편찬자는 논평하여 말한다. 처음에 태종이 요동을 원정할 때 말리는 이가 하나가 아니었다. 또 안시성에서 철군한 후 스스로 성공하지 못한 점을 깊이 후회해 탄식하기를 “만약 魏徵가 있었다라면 내가 이 원정을 하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다시 고구려를 치고자 할 때 司空 房玄齡이 병중에서 표문을 올려 간하기를 “노자는 ‘만족할 줄

76) 井上秀雄, 1968, 앞의 책.

을 알면 욕되지 않고 그칠 줄을 알면 위태롭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폐하께서는 그 위명과 공덕이 이미 족하다 하겠사옵고, 강역을 개척해 넓히는 것도 이제 역시 그칠만 하옵니다. 게다가 폐하께서 매번 중죄인 한 사람을 처결하실 때에도 반드시 세 번 다시 살피고 다섯 번을 거듭 아뢰도록 하며, 보잘것없는 음식을 올리게 하고 풍류를 그치게 함은, 사람의 목숨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바이거늘, 이제 무고한 사졸들을 몰아다가 칼날 아래 내맡겨 비참하게 죽게 하는 것만은 어찌하여 불쌍하게 여기지 않으십니까? 지난날 가령 고구려가 신하의 법도를 어겼다면 처단함이 옳고, 우리 백성을 침노해 괴롭힌다면 패멸시킴이 옳으며, 뒷날 중국의 두통거리가 될 것 같으면 없애버려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와 같은 세 가지 조건이 없는데도 공연히 중국을 번거롭게 하는 것이니, 안으로 전대의 치욕을 씻고 밖으로 신라의 원수를 갚는다 하나, 이 어찌 얻는 것은 작고 잃는 것은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원컨대 폐하께서는 고구려가 스스로 새로워지도록 내버려두시어 파도를 헤쳐나갈 배를 불사르고 응모한 무리를 흩어버리신다면, 자연히 중화에는 경사요 오랑캐는 의지해 올 것이며, 원방은 삼가 공경하고 근방은 편안하리이다"라고 하였다. 梁國公이 장차 죽으려 할 때의 말이 이같이 간곡했는데도, 황제는 듣지 않고 동방을 폐허로 만들어야만 속이 시원할 것으로 생각하더니 죽게 되어서야 그만두었다. '사론'에 이르기를 "큰 것을 즐기고 공명을 좋아해 멀리까지 군사를 내몰았다"라고 한 것은 이것을 이른 말이 아니겠는가? 柳公權의 '小説'에 이르기를 "駐山 전쟁에서 고구려와 말갈의 연합군이 40리에 뻗치자 태종이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기색이 있었다"라고 했으며, 또 "6軍이 고구려에 제압되어 거의 움츠러 떨치지 못할 때 척후가 英公의 휘하 黑旗가 포위되었다고 아뢰니 황제가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하였다. 비록 끝내는 스스로 탈출해 나왔으나 두려워함이 저와 같았거늘 『신·구당서』와 司馬光의 『자치통감』에는 이를 말하지 않았으니, 이는 어찌 자기 나라를 위해 꺼려 회피한 경우가 아니겠는가? (『삼국사기』, 고구려본기9, 보장왕 8년 말미의 사론)

인용한 논찬은 649년 4월, 당 태종이 죽음에 임하여 "유조를 내려 요동의 전쟁을 그만두게 하였다"라고 한 본문의 서술에 붙인 것이다. 논찬자는 우선

위징과 방현령 등이 고구려에 대한 군사 행동에 반대한 사실을 예거하였다. 당 태종은 이를 물리치고 무모한 전쟁을 불사하다가 죽음에 당하여서야 후회한 것이다. 이어 논찬자는 중국 사서의 왜곡된 필법을 환기시켰다. 이를 위해, 『삼국사기』 찬자 스스로 가장 크게 의존했으며 당 태종과의 전쟁 기록을 가장 풍부하게 담고 있는 『자치통감』과 『신·구당서』를 직접 거론하였다. 즉 논찬자의 강조점은 당 태종의 고구려 침공이 패배 혹은 실패한 것이라는 데 있다. 그러므로 중국 측의 주요 관련 기록물들은 이를 은폐하거나 왜곡한 것이다. 즉 이것은 한·중의 전쟁 기록에 담긴 인식 사이의 첨예한 충돌을 의미한다.

물론 고구려본기에 보이는 당 태종과의 전쟁 기록은 대부분 논찬자가 비판한 『자치통감』과 『신·구당서』에 의존하였다. 한 예로 당 태종이 위징을 추억하면서 후회했다는 대목은 『신당서』에서 연유한 것이며, 『삼국사기』 고구려본기는 『자치통감』의 문장을 통해 이를 인용하였다.⁷⁷⁾ 논찬에 인용된 방현령의 상표문 일부 역시 『신당서』와 『자치통감』의 활용 방식을 답습한 것이며,⁷⁸⁾ 그에 이어 인용한 ‘사론’은 『신당서』에 근거한 것이었다.⁷⁹⁾ 태종을 일러 “큰 것을 즐기고 공명을 좋아했다[好大喜功]”는 사론의 평은 완곡하나마 그의 현시욕과 공명심을 비판하는 대목이다.⁸⁰⁾ 그러므로 당 태종이 안시성 전투 후 그 실패를 인정하면서 후회했다거나 방현령 등이 간곡히 요동 침공을 만류했다는 것, 그리고 죽음에 당한 당 태종 스스로 고구려 침공을 중단케 했다는 것은 중국 측 기록에서도 ‘사실’이었다. 다만 그 문맥적 의미가 다를 뿐이다.

77) 『新唐書』 97, 列傳22, 魏徵; 『資治通鑑』 197, 唐紀13, 太宗 中之下 貞觀 19년 10월; 『三國史記』, 高句麗本紀10, 寶臧王 4년.

78) 『新唐書』 96, 列傳21, 房玄齡; 『資治通鑑』 199, 唐紀15, 太宗 下之下 貞觀 22년 7월.

79) 『新唐書』 2, 太宗本紀, 貞觀 23년조 말미의 사론, “甚矣 至治之君不世出也 …… 至其牽於多愛 復立浮圖 好大喜功 勤兵於遠 此中材庸主之所常爲”.

80) 이러한 논평과 관련하여, 당 태종이 사형을 앞 둔 죄수 290인, 혹은 390인을 방면하면서 기일에 맞춰 돌아올 것을 명하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형기에 맞춰 돌아와 사면을 입었다는 사건을 환기한다. 『新唐書』 56, 志46, 刑法; 『唐語林』 1, 政事 上; 『資治通鑑』 194, 唐紀10, 貞觀 7년 9월. 그러나 뒷날 歐陽修(1007~1072)는 ‘縱囚論’에서 이 사건을 두고 태종과 사형수들이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 도적질한 것에 불과하다고 혹평한 바 있다.

논찬자가 중국 사서에서 인용한 내용은 주로 당 태종의 패배와 후회, 죽어 서야 그치게 된 끝없는 과욕과 무절제, 공명에 매인 군사행동, 대 고구려전에서 보인 위축 등 모두 부정적인 대목들이다. 고구려에 대한 무모한 침략 행위에 집중하여 당 태종을 비판하고자 한 찬자의 의도는 명백하다. 이것은 『삼국사기』 편찬자의 자기 역사를 향한 애정에 다름 아닌 것이다. 특히 그는 유공권의 ‘소설’을 들어 『신·구당서』와 『자치통감』에서 당 태종의 패색과 위구함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였다. 유공권은 당 憲宗代에 입사하여 咸通 6년(865)에 죽은 이로서⁸¹⁾ 당 태종으로부터 200여 년 뒤의 인물이다. 그의 ‘소설’에는 안시성 전투 때 당 태종의 위축과 이적의 곤경이 언급되었던 것이다. 이적은 당 태종의 침공전에서 遼東道行軍大總管으로 종전했고, 주필산 전투에서 크게 공적을 세운 인물로 평가되었다.⁸²⁾ 그러나 당 태종과 영국공 이적의 패색을 언급한 ‘소설’의 실체를 추적하기는 어렵다. 그의 ‘소설’로서 확인 가능한 현존 자료로는 『說郛』에 그 일부가 실려 있는 『小說舊聞記』 외에는 없다.⁸³⁾ 그러나 문제가 된 당 태종과 고구려의 전쟁에 관련한 내용은 그 가운데서 확인되지 않는다.⁸⁴⁾

그런데 논찬자가 지목한 두 가지 장면 가운데, 주필산 전투에서 당 태종이 두려워했다는 대목은 고구려본기에 기재되었다. 즉 고구려본기에 의하면, 高延壽와 高惠眞이 말갈군을 포함하여 15만의 규모로 안시성을 돕기 위해 왔을 때, “우리 군사가 말갈 군사와 합세해 진을 치자 길이가 40리에 달하니, 황제가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기색이 있었다[帝望之有懼色].”라고 하였다. 해당 대목의 전후는 전적으로 『자치통감』의 서술을 차용한 것이지만, 오직 “帝望之有懼色”의 구절만은 『자치통감』과 『신·구당서』 어디에도 기재되지 않았다. 그

81) 『新唐書』 163 ; 『舊唐書』 165, 列傳115.

82) 『新唐書』 93, 列傳18, 李勣.

83) 『說郛三種』, 上海古籍出版社, 787~789쪽 및 2060~2061쪽 참조.

84) 다만 明代의 『唐書志傳通俗演義』(일명 『秦王演義』, 『隋唐演義』)에도 당 태종의 안시성 공격 실패가 다루어진 것을 보아 당·송대 이래 당 태종의 비중으로 인하여 그의 대외전쟁의 패배는 자주 언급된 주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中國古典小說總目提要』 1, 1993, 울산대학교 출판부, 170~171쪽 참조.

렇다면 이 구절은 논란자가 지적한 유공권의 ‘소설’과 같은 자료에서 취택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혹은 유사한 맥락의 고구려 측 전승물에서 비롯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송 휘종 崇寧·大觀 연간(1102~1110)에 王 이 찬성한 『唐語林』에는 문제의 구절이 기록되었다. 해당 대목을 비교해 본다.

- 高麗靺鞨合兵爲陳 長四十里 江夏王道宗曰 …… (『자치통감』 198, 唐紀14, 貞觀 19년 6월)
- 高麗與靺鞨合軍四十里 太宗有懼色 江夏王進曰 …… (『당어림』 5, 補遺)
- 我軍與靺鞨合兵爲陣 長四十里 帝望之有懼色 江夏王道宗曰 …… (『삼국사기』, 고구려본기9, 보장왕 4년)

『자치통감』은 1084년에 봉정되었다. 『당어림』은 그보다 뒤늦게 찬성되었으나 정사에 반영되지 않은 唐代의 역사·정치·문학 관련 사적들을 집성한 것이므로 사료적 가치가 적지 않다고 해야 할 것이다. 왕당은 필시 유공권 등의 저술을 포섭한 것으로 본다.⁸⁵⁾ 반면에 『자치통감』이 『당어림』에 보이는 “太宗有懼色”의 구절을 의도적으로 탈루시킨 것임은 『삼국사기』 찬자의 지적 그대로였다. 또한 주필산 전역에서 태종의 6군이 고구려 군사에 제압당했다는 것은 『薛仁貴征東事略』과 같은 전승에서도 언급된 바였다.⁸⁶⁾ 이와 관련하여 고연수 등에게 신중한 지구전을 지시한 對盧 ‘高正義’의 이름도 중국 사서에 보이지 않는 점을 주목한다. 말하자면 고구려본기 찬자는 『자치통감』에 대부분 의존하면서도 그와는 다른 인식과 정보를 아울렀던 것이며, 그 가운데에는 중국 사서의 필법을 배반하는 전승들이 있었던 것이다. 요컨대 이 문제를 중국 문헌의 ‘사실 왜곡’ 영역으로 단정할 논거는 없으나, 적어도 『삼국사기』

85) 최근에는 문제의 대목이 당 현종대 劉餗의 『隋唐嘉話』에서 처음 유래했다는 논증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金貞培, 2007, 「三國史記 寶臧王조 史論에 보이는 ‘柳公權 小說’ 問題」, 『韓國史學報』 26.

86) 『永樂大典』(1986, 中華書局 影印本) 5244, ‘唐太宗征遼’.

찬자는 중국 측 기록의 인식에 동의하지 않았던 것이다.

사실 당 태종의 고구려 공격이 심각한 실패로 끝났다는 것은 중국 사서에 서도 전혀 외면될 문제는 아니었다. 예를 들어 宋의 范祖禹는 『唐鑑』(1086)에서 645년의 전쟁을 평하여 “당 태종의 고구려 정벌은 수 양제의 그것과 다를 바 없으며, 다만 나라가 망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는 것을 따름이다”라고 하였다.⁸⁷⁾ 『宋史』에도 고구려를 일러 “수 양제는 두 번이나 출병했고, 당 태종은 친히 정벌했으나 모두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였다.⁸⁸⁾ 게다가 당 태종 스스로 안시성에서 철군하여 귀경한 직후 李靖에게 “내가 천하 사람을 가지고서 작은 오랑캐에게 곤욕을 당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라고 묻고 있다.⁸⁹⁾ 비록 그들의 대화는 전략 전술에 관한 것이었지만, 전쟁의 패배를 부인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삼국사기』 찬자가 당 태종의 패색과 좌절을 은폐한 『자치통감』 등을 비판한 것은 일단 ‘사실 직서’의 편사 윤리에 충실한 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이 사례를 “자기 나라를 위해 꺼려 회피한 경우[爲國諱之]”라고 했으므로, 중국 문헌 일반의 편향에 대한 경계 의식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중국 문헌의 ‘의도적 편향’은 정작 당 태종에게 고구려 침공을 반대한 방현령의 현의 가운데에서도 확인된다. 그는 당 태종의 645년 고구려 침공 전쟁을 평가하여 명백한 대승으로 묘사하고 있다.

고구려는 역대로 誅伐을 피해 달아나 討擊하지 못했던 것인데, 패하게서 그들이 반역과 난동을 부려 주군을 죽이고 백성을 학대함을 꾸짖어 친히 6군을 아울러 요동과 碣石에서 문죄하시자 한 달도 안되어 곧 요동을 뒤엎으니, 그 전후로 사로잡은 포로가 수십 만을 헤아려 여러 州에 나누어 배치하매 어디를 가나 그들로 그득 차게 되었던 바, 지난 수 나라 시대의 묵은 치욕을 씻고 陵의 백골을 덮어주시어 그 공과 덕

87) 『唐鑑』 3, 太宗 下, 貞觀 19년.

88) 『宋史』 487, 列傳246, 外國3, 高麗, “漢·魏以來 常通職貢 亦屢爲邊寇 隋煬帝再舉兵 唐太宗親駕伐之 皆不克”.

89) 『資治通鑑』 198, 唐紀14, 太宗 下之上 貞觀 20년 3월.

을 비교하자면 전대 제왕의 만 배나 되오니, 이야 성명하신 폐하께서
 몸소 아시는 바이라 저 같은 이가 어찌 감히 갖추어 말하겠나이까.
 (『구당서』 66, 열전16, 방현령)

물론 방현령은 태종의 2차 정벌을 만류하기 위해 1차 정벌의 성과를 과장하여 대 고구려 전쟁의 목표가 이미 달성되었다는 논지를 폈다고 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 사서의 외국에 대한 기록의 본질은 당대 중국사에 대한 서술과 이해를 위한 맥락에 충실한 것들이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그러한 기록들은 ‘중국 역사의 일부’이었던 것이다.⁹⁰⁾ 따라서 안시성 전투를 끝으로 패퇴한 전쟁에 대해 방현령과 같이 인식하는 것은 이 전쟁을 자국사의 관점에서 음미하는 『삼국사기』의 그것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 즉 『삼국사기』 찬자의 평가에서 645년 당 태종의 고구려 침공이란 명백히 실패한 것이었다.

편찬자는 논평하여 말한다. 당 태종은 덕이 고매하고 명철하여 세상에 드문 임금으로, 환란을 평정하는 데는 은 湯王과 주 武王에 비기고, 정사를 이루는 데는 주 成王이나 康王에 가까우며, 군사를 다루는 데 이르러서는 기묘한 책략이 무궁해 향하는 곳마다 대적할 이가 없었는데, 동방 정벌의 일만은 안시성에서 패했으니, 그 성주야말로 비상한 호걸이라 하겠다. 그러나 역사 기록에 그 성명이 없어 楊子가 이른바 “齊와 魯의 大臣들은 역사에 그 이름이 전하지 않는다”라고 한 것과 다를 없으니, 매우 애석한 일이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9, 보장왕 4년 말미의 사론)

논찬은 우선 당 태종의 영명함에 대해 언급한다. 예거된 바와 같은 당 태종에 대한 평가는 중국의 역대 사서나 문집에서 흔히 발견되는 것이다. 예컨대 『신당서』의 사론에는 태종을 일러 매우 이상적 정치를 베푼 세상에 드문

90) 高柄翊, 1970, 「中國正史의 外國列傳 - 朝鮮傳을 중심으로」, 『東亞交涉史의 研究』, 서울대 출판부, 7~9쪽.

임금으로 찬탄하면서, “수의 환란을 평정한 것은 탕왕과 무왕의 공적에 버금가고, 훌륭한 정사를 이룬 점에서는 성왕과 강왕에 가까우니, 예로부터 공과 덕이 모두 융성하기로 한 나라 이래 이와 같은 경우가 없었다”라고 하였다.⁹¹⁾ 그러나 그와 같은 당 태종의 위세를 꺾은 것은 고구려 안시성 성주의 영웅적 지휘와 투쟁이었다. 그러므로 논의의 주조는 안시성주가 ‘비상한 호걸’이라는 데 있으며, 당 태종의 빼어난이야 그를 위한 효과적 예증에 불과한 것이다.

한편 안시성 성주를 이름이 전하지 않은 ‘제와 노의 대신’에 비유한 것은 단순히 호걸의 이름이 전하지 않은 데 대한 안타까움 이상의 의미를 함유한다. 양자의 발언은, 성인은 도를 중히 여기고 봉록을 가벼이 여기며 범상한 이들은 그와 반대라는 취지에서, ‘大臣’이란 道가 행해지지 않는 까닭으로 인군의 부름에 응하지 않아 역사에 이름이 남지 않은 경우를 이르는 것이다.⁹²⁾ 그러므로 안시성 성주가 ‘제·노의 대신’에 비의할 만하다면, 그의 시대는 도가 실행되지 않는 때였던 셈이다. 실로 그는 연개소문의 집정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표방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개소문 정권은 실력으로 그를 굴복시키지 못한 채 안시성 성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바 있었다.⁹³⁾ 여기에 안시성 성주의 독특한 위상이 있으며, 『삼국사기』 논란자는 그러한 맥락을 유의하고 있었던 것이다. 즉 그에게 안시성 성주를 ‘제·노의 대신’으로 인식케 한 것은 곧 연개소문이었다.

- 편찬자는 논평하여 말한다. 송의 神宗이 王介甫와 정사를 의논하면서 말하기를 “태종이 고구려를 치다가 어찌하여 이기지 못했는가?”라고 하자, 개보가 대답하여 “개소문이 비상한 사람이었기 때 문입니다”라고 했으니, 소문은 역시 재주 있는 인물[才士]이었다.

91) 『新唐書』 2, 太宗本紀, 貞觀 23년 말미의 사론.

92) 『法言』 8, 五百篇, “聖人重其道而輕其祿 衆人重其祿而輕其道 聖人曰於道行與 衆人曰於祿殖與 昔者齊魯有大臣史失其名[以道事君不可則止爲大臣也 史失其名者 不書其名也]”.

93) 『資治通鑑』 198, 唐紀14, 太宗 貞觀 19년 9월, “上之克白巖也 謂李世勣曰 吾聞安市城險而兵精 其城主材勇 莫離支之亂 城守不服 莫離支擊之不能下 因而與之”.

그러나 곧은 도리로 나라를 받들지 못하고 잔인함과 포악함을 멋대로 하다가 큰 역적이 되기에 이르렀다. 『춘추』에 “군주가 시해당했는데도 역적을 토벌하지 않는다면 그 나라에 사람다운 사람이 없다 할 것이다”라고 했거늘, 소문은 일신을 보전해 집에서 죽으니 요행으로 모면한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남생과 현성은 비록 당에서 이름을 날렸으나, 본국의 처지에서 말한다면 반역자가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삼국사기』, 열전10, 개소문전의 사론)

- 편찬자는 논평하여 말한다. 양제의 요동 전쟁은 군사를 출동시킨 규모의 성대함에 있어서 전례가 없었거니와, 고구려가 한 편방의 작은 나라로서 능히 이를 막아내 스스로를 보존했을 뿐 아니라 적군을 거의 다 섬멸한 것은 문덕 한 사람의 공이었다. 『좌전』에 이르기를 “저와 같은 군자가 없으면 어찌 나라 노릇을 할 수 있으랴!”라고 했으니, 옳은 말이다. (『삼국사기』, 열전4, 을지문덕전의 사론)

당 태종의 막료들이 패전의 이유를 전략의 차질을 중심으로 논의했던 것과는 달리, 충분히 시대를 격한 왕안석은 연개소문의 역량 때문이었다고 단언한다. 『삼국사기』 찬자는 우선 왕안석의 분석에 찬의를 표하였다. 그러나 그에게 연개소문은 榮留王을 시해한 대역을 저지른 자이며, 안시성 성주를 ‘제·노의 대신’에게 만든 무도한 이였다. 따라서 연개소문이 천수를 누린 것은 고구려에 ‘사람다운 사람’이 없다고 할 지경이라 하였다. 그가 인용한 『공양전』에는 뒤이어 “임금이 시해당했는데 신하가 그 역적을 토벌하지 않으면 신하가 아니요, 복수하지 않으면 자식이 아니다”라고 하였다.⁹⁴⁾ 군신윤리에서 ‘역적’이 대 중국 전쟁에서는 ‘才士’가 되고 있다. 왕조 간 전쟁에 대한 인식 주체의 양면적 속성을 발견한다.

‘사람다운 사람’이란 을지문덕을 일러 말한 ‘나라 노릇을 하게 하는 한 사람’이기도 하다. 『좌전』의 사례도 나라간의 전쟁에 연루된 것이었다. 즉 秦에서 西乞術을 虢에 보내 예방하고 장차 晉을 칠 계획을 말하게 했는데, 노의 襄

94) 『公羊傳』, 隱公 11년 11월, “春秋 君弑 賊不討 不書葬 以爲無臣子也 子沈子曰 君弑 臣不討賊 非臣也 不復讐 非子也”.

仲이 서결술이 가져온 옥을 받지 않고 사양하자 서결술이 조리 있게 설득했으며, 이에 양증이 “저와 같은 군자가 없으면 어떻게 나라를 보존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찬탄했다 한다.⁹⁵⁾ 즉 논찬자는 전례 없는 대규모의 수 양제 침입을 막아낸 을지문덕 또한 秦伯의 사자 서결술과 같이 한 나라를 나라이게 하는 인재로 평가했던 것이다. 비록 을지문덕전의 서술은 『자치통감』을 주요 재료로 하면서 고구려 중심 그리고 을지문덕 중심으로 세심하게 개서하는 한편 『수서』의 우중문전과 우문술전을 적절하게 활용 배치한 데 불과했지만,⁹⁶⁾ 그에 대한 찬자의 인식은 역시 대 중국 전쟁의 승리자라는 위상에 주안하고 있었던 것이다.

요컨대 연개소문에 대한 논찬자의 양면적 인식은 대 중국 전쟁이라는 조건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고구려사 내부의 논리에서만 본다면 연개소문은 오직 난신적자의 오명을 벗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연개소문의 아들과 손자인 남생이나 현성 등 또한 당에 투항하여 당사에 입전될 정도로 당조에서 비중을 가지고 있었으나,⁹⁷⁾ 고구려 측의 처지에서 본다면 반역자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즉 그가 연개소문에 대한 왕안석의 평가를 수긍한 것은 당 태종의 침략에 맞서 멸망기 고구려를 지켜낸 측면을 주목한 것이었다. 같은 이유에서 안시성 성주에 대한 평가 역시 두 가지 영역을 아우르고 있다. 그는 당 태종의 침공을 패퇴시켰으나, 당 태종의 고구려 침공 명분은 정작 그가 반대한 연개소문을 징치한다는 외양을 표방하고 있었던 때문이다. 즉 주필산 전투 즈음에 패색과 위구를 숨기지 못했던 당 태종은 고연수 등에게 군색한 전쟁 명분을 토로한 바 있다.

나는 너희 나라의 강포한 신하가 자기 임금을 시해했기 때문에 그를

95) 『左傳』 9, 文公 12년, “秦伯使西乞術來聘 且言將伐晉(魯)襄仲曰 不有君子 其能國乎 國無陋矣 厚賄之”.

96) 『資治通鑑』 181, 隋紀, 煬帝 大業 8년; 『隋書』 60, 列傳25, 于仲文; 『隋書』 61, 列傳 26, 宇文述.

97) 『新唐書』 110, 列傳35, 泉男生傳 및 獻誠傳. 泉男生墓誌는 儀鳳 4년(679) 王德眞이, 泉獻誠墓誌는 大定 2년(701) 梁惟忠이 찬술함.

문죄하러 온 것이요, 서로 전쟁까지 하게 된 것은 나의 본래 마음이 아니었거늘, 너희 경내에 들어오자 말먹이와 양식을 주지 않으므로 너희의 몇 개 성을 빼앗은 것이니, 너희 나라가 신하의 예를 닦기만 한다면 잃었던 것들은 반드시 되찾게 될 것이다. (『자치통감』 198, 唐紀14, 太宗 貞觀 19년 6월 丁巳)

이러한 발언은 당조의 본의가 아니다. 주지하듯이 당의 대 고구려 전쟁의 당위는 수의 그것을 답습한 것으로서, 그 이전 고구려가 갈등했던 중원 왕조와는 본질을 달리하는 것이었다. 한 이후 고구려에 접경했던 중국 측 세력들과 고구려의 공방은 경제적 맥락이 중심을 이루었으며, 명백히 이질적 세력 주체 간의 토지와 노동력의 획득을 위한 국지전에 머물렀다. 예컨대 전연의 모용황이 고구려 환도성을 유린하고 대승을 거두었을 때 左長史 韓壽의 발언을 환기한다.

모용황이 장차 돌아가려 할 때 한수가 말하기를 “고구려의 땅은 군사로 지킬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 임금이 도망가고 백성은 흩어져 산골짜기에 숨어 있으나, 우리 대군이 한번 떠나고 나면 반드시 다시 모여들어 전화의 뒤끝을 수습할 것이니,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근심거리가 될 것입니다. 청컨대 고구려 왕의 아버지 시신을 싣고 그 생모를 잡아갔다가, 그들이 어찌할 도리 없이 제 발로 찾아와 귀복하기를 기다린 다음에야 그들을 돌려보내서 은혜와 신의로 무마하는 것이 상책입니다”라고 하였다. 모용황이 그 말을 따라 미천왕의 무덤을 파헤쳐서 그 시신을 싣고, 창고에 있는 누대의 보물을 거두었으며, 남녀 5만여 명을 사로잡고 궁실을 불사르는데다 환도성을 허물어뜨리고 돌아갔다. (『자치통감』 97, 晉紀, 顯宗成帝 咸康 8년 겨울 10월)

이렇듯 전쟁의 궁극적 목표가 항구적 점유는 아니었다. 북중국을 장악한 북위의 경우에도 고구려를 해동의 9夷를 통어하는 주체로 인정하면서, 온건한 균형의 유지를 원하였다. 한 예로 북위 世宗은 부여와 涉羅의 토산품이 결여되었음을 들어 고구려를 힐난할 때, “작은 술그릇들이 빈 것은 큰 오지그릇

의 수치[瓶罄鼎恥]”라고 하였다. 이는 『시경』에서 이른바 “작은 병의 텅 빈이
여 큰 병의 수치로다”⁹⁸⁾라는 말에서 연유한 것으로, 작은 병과 큰 병이란 서로
의지하여 목숨을 부지하는 자식과 부모의 관계로 비유한 것이니, 동방 제국
가운데 차지하는 고구려의 위상에 대한 중국 왕조의 인식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북위의 이와 같은 인식은 일찍이 동이 제국을 제어하기 위해 설치된
‘東夷校尉’가 장수왕 23년(385) 이후 고구려왕의 책봉호에 담기면서 예견된
것이기도 했다.⁹⁹⁾

그와 같은 인식은 수 왕조가 등장한 이후에도 한동안 큰 변화 없이 유지되
었다. 즉 陳을 멸망시키고 일통을 이룬 이듬해(590) 수 문제는 고구려 평원왕
에게 조서를 보내 “遼水の 넓이가 長江에 비해 어떠하며, 고구려 인구의 많고
적음이 陳에 비해 어떠하다고 여기는가?” 겁박하면서도, “만일 마음을 씻어
내고 행실을 고쳐 국가의 현장을 좇아 준수한다면 이는 곧 나의 좋은 신하인
것”이라 하여, 기왕의 국가 관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명분의 충족을 겨
냥하여 현상의 파탄을 원치 않았다. 게다가 598년 영양왕이 요서 先攻을 감
행하고, 이에 대한 문제의 보복 침공마저 격렬한 터에, 고구려에 협격을 제안
한 백제에 대해 정작 수 문제는 “고구려가 죄를 자복하여 내가 이미 용서했으
니 칠 수 없다”하여 확전을 회피하였다.¹⁰⁰⁾ 이와 같은 분위기에서 고구려에 대
한 군사 행동을 반대하는 劉炫의 ‘撫夷論’이 등장하기도 했다.¹⁰¹⁾

이처럼 재래의 중국 왕조들이 고구려에 대해 견지해 온 관계 인식 및 전쟁
명분의 기조는 607년 양제가 거란·말갈 등 새외 종족을 겨냥한 시위 차원에서
서 북변을 순행하여 동돌궐의 啓民可汗을 방문했을 때 뜻밖에 고구려의 사절
과 조우한 사건을 기점으로 변전되었다.

98) 『詩經』, 小雅 蓼莪章, “**餅之罄矣 維罍之恥**”.

99) 金鍾完, 2004, 「高句麗의 朝貢과 冊封의 性格 - 正體性和 關聯하여」, 『高句麗研
究』 18, 629쪽.

100) 『資治通鑑』 178, 隋紀2, 高祖 上之下 開皇 18년 9월.

101) 『隋書』 75, 劉炫傳, “**朝野皆以遼東爲意. 炫以爲遼東不可伐 作撫夷論以諷焉**”.

영양왕 18년(607), 애초 수 양제가 啓民의 장막에 갔을 때 우리 사신이 계민이 있는 곳에 있었다. 계민이 감히 우리 사신을 숨기지 못해 함께 양제를 뵈었다. 黃門侍郎 裴矩가 양제에게 말하기를 “고구려는 본래 箕子를 봉했던 땅으로 漢과 晉이 모두 군·현으로 만들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신하 노릇을 하지 않고 별개의 다른 지역이 되어버렸으니, 선제께서 정복하려 하신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다만 楊諒이 못나서 군사를 내었다가 공적을 이루지 못했지만, 폐하의 시절을 만나 어찌 그대로 놓아두어 예의가 두터웠던 지역을 끝내 오랑개 소굴이 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계민이 나라를 들어 교화에 복종하는 것을 저들의 사신이 와서 직접 보았으니, 저들이 두려워하는 기회에 저들로 하여금 입조하도록 위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양제가 그의 말을 따라 牛弘으로 하여금 고구려 사신에게 명령을 전해 이르게하기를 “나는 계민이 성심으로 국가를 받들기 때문에 친히 그의 장막까지 온 것이며, 명년에는 웅당 涿郡으로 갈 것이다. 너는 돌아가는 날로 너희 왕에게 말해 마땅히 서둘러 와서 조알하고, 스스로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라. 보살펴 길러주는 예법은 마땅히 계민에게 하는 것과 같게 하리라. 다만 만일 입조하지 않는다면 장차 계민을 거느리고 직접 너희 나라에 가서 돌아볼 것이다”라고 하였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8)¹⁰²⁾

이 극적인 조우는 수와 고구려 모두에게 당혹스러운 경험이었겠으나, 특히 배구의 의견은 전대와 크게 달라진 고구려 인식을 표방하고 있다. 그는 기자를 연원으로, 그리고 한과 진대의 군현을 매개로 고구려 영토에 대한 역사적 귀속 의지를 드러냈다. 배구의 본래 인식은 孤竹國 → 箕子 → 漢三郡 → 고구려의 역사 계통론에 입각해 있다.¹⁰³⁾ 따라서 ‘고구려는 회복해야 할 중국의 내지’라는 도발적 인식을 낳게 되었고,¹⁰⁴⁾ 이에 고무된 양제는 영양왕의 친

102) 『資治通鑑』 181, 隋紀, 煬帝 上之下 大業 6년 12월 ; 『隋書』 67, 裴矩傳 및 같은 책 3, 煬帝紀 上 大業 3년 8월 乙酉.

103) 『隋書』 67, 列傳32, 裴矩, “(大業 3년) 矩因奏狀曰 高麗之地 本孤竹國也 周代以之封于箕子 漢世分爲三郡” ; 『舊唐書』 63, 列傳13, 裴矩, “(大業 3년) 矩因奏曰 高麗之地 本孤竹國也 周代以之封箕子 漢時分爲三郡” ; 『新唐書』 100, 列傳25, 裴矩, “(大業 3년) 矩因奏言 高麗本孤竹國 周以封箕子 漢分三郡”.

조를 요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전통적인 중국 왕조들과는 전혀 차원을 달리 하는 공세의 의미를 고구려 측에서 얼마나 면밀히 각성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추후 전개되는 상황으로 미루어 영양왕 측에서는 기왕의 대응 방식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¹⁰⁵⁾

양제는 612년 벽두에 마침내 ‘東征詔’를 선포하고 “저 먼 북방까지 풍속을 살펴 백성들을 위로하고 죄인들을 문책하여 두 번 걸음을 하지 않으리라!” 결의를 다지면서 출병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전투 병력 100만이 요동성에 긴박된 채 요하 이동의 영토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613년에도 역시 “바다를 둘러엮고 산을 옮겨놓는 일조차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성언하면서 재침했으나 요동성 공략에 실패하고 패주하였다. 수의 집요한 영유욕은 끝내 자멸의 결과를 낳았거니와, 수를 대신한 당이 초기에 고구려와 유화적 교섭을 추진하면서 “서로 화목하고 길이 교빙의 우호를 돈독히 하며 각각 자기 강토를 보존하고 있으니 이 어찌 성대한 아름다움이 아니라!”¹⁰⁶⁾라고 자찬한 것은, 수대의 경험에서 비롯된 신중함인 동시에 이전의 전통적 고구려 인식에 근접한 측면이 있다. 당 고조는 급기야 ‘명분과 실제’ 사이의 괴리를 지적하면서, 고구려에 구태여 ‘稱臣’을 강요할 필요가 있는가 회의하기에 이르르게 되었다.¹⁰⁷⁾

그러나 배구는 다시 당의 고구려 인식을 경색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그는 “요동의 땅은 周代의 기자국이요 漢代의 현도군”임을 단언하면서, 당 고조의 유화적 태도를 저지하였다. 이러한 강경론을 토대로 당 태종은 “고구려는 본래 4郡의 땅이었을 뿐”이라고 규정했고,¹⁰⁸⁾ 신라를 비호하기 위해 파견된 당의 相里玄은 당 태종의 인식을 대변하여 연개소문을 향해 “요동의 여러 성

104) 황약술, 1994, 「수나라의 高句麗에 대한 認識을 시론함」, 『高句麗文化國際學術會 論文集』, 81~89쪽.

105) 한편 여호규는 598년 고구려의 수에 대한 선제 공격이나 603년 이후 남방 군사 작전의 전개를 주목하면서 고구려 대외 정책의 변화를 읽어낸 바 있다. 여호규, 2002, 「6세기말~7세기초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고구려 대외정책의 변화 - 대수 관계(對隋關係)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46.

106) 『舊唐書』 199上, 列傳149上, 東夷 高麗 武德 5년(622).

107) 『舊唐書』, 東夷 高麗, 武德 7년(624).

108) 『資治通鑑』 196, 唐紀12, 太宗 中之中 貞觀 15년(641).

들은 본래 모두 중국의 군·현들”이라고 항의하였다.¹⁰⁹⁾ 그러한 추이의 한 가운데에 연개소문의 정변이 있었고, 이 사건은 당 태종의 대 고구려 군사 행동에 또 다른 명분을 제공하게 되었다. 즉 태종은 644년 고구려 침공의 결의를 다지면서 장안의 원로들에게 “요동은 옛날 중국의 땅이었을 뿐만 아니라 막 리지가 자기 임금을 죽였으니 내가 이제 직접 가서 그 곳을 정략하려 하는 터”라고 선무하는 동시에, “오늘날은 수나라 때의 일과 비교할 바가 아니다”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사실 대표적 강경론자인 배구를 포함하여 많은 신료들은 수 왕조에 복무했던 경험을 가진 이들이라, 고구려를 향한 태종의 무력주의는 신료 일반 사이에 광범한 우려를 만연시키고 있었다. 이에 대한 태종의 반대 논리는 우선 “오늘날 고구려 정벌에서는 모두 가고자 하는 이들만을 취하되 열을 모으면 백을 얻고 백을 징모하면 천 명이 응하며 종군하지 못하는 이들은 모두 분개하고 한탄하며 답답해하거늘, 어찌 수나라가 원망하는 백성들을 내몬 것에 비할 것인가”¹¹⁰⁾ 하여 대내적 조건의 변화를 지적하였다. 사실 그에게 수 왕조 멸망의 가장 큰 원인은 군주 일 개인에 있을 뿐이었다.¹¹¹⁾ 그러나 태종을 고무시킨 가장 주요한 요인은 고구려 측의 상황 변화에 있었다. 신료들의 집요한 제지에 대한 그의 대답을 본다.

- 나도 알겠다. 근본을 떠나 말단으로 치닫고, 높은 데를 버리고 낮은 데를 취하며, 가까운 것을 놓아두고 먼 곳에 가는 이 세 가지가 모두 바람직하지 않은 것인데, 고구려를 치는 것이 바로 그러하다. 그러나 개소문이 자기 임금을 시해하고 또 대신들을 죽여 제멋대로 하는지라 온 나라 백성들이 목을 늘이고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데, 의논하는 이들은 도리어 이 점을 알지 못하는 것일 뿐이다. (『신당서』 220, 동이전, 고려 貞觀 18년)
- 옛날 수 양제는 아래 사람에게 잔인하고 포학했으며, 고구려 왕은

109) 『資治通鑑』 196, 唐紀13, 太宗 中之下 貞觀 18년(644).

110) 위와 같음

111) 姜性文, 1996, 앞의 논문, 188~189쪽.

자기 백성에게 어질었으며 그들을 사랑하였다. 이처럼 반란을 생각하고 있는 군사들을 가지고서 평안하고 화목한 이들을 쳤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었던 것이다. 지금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이치 다섯 가지를 대략 말해보자면, 첫째 큰 것으로 작은 것을 치는 것이요, 둘째 순리로 반역을 치는 것이요, 셋째 정연한 다스림으로 어지러운 틈을 타는 것이요, 넷째 편안한 군사로 피로한 군사를 대적하는 것이요, 다섯째 기뻐하는 군사로 원망하는 군사에 맞서는 것이니, 어찌 이기지 못할 것을 근심하겠는가? 백성들에게 포고하노니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자치통감』 197, 唐紀13, 정관 18년 11월)

- 요동은 본래 중국의 땅이다. 수는 네 번이나 군사를 출동시켰으나 이곳을 찾아오지 못하였다. 내가 지금 동방을 정벌하는 것은, 중국을 위해서는 전몰한 자제들의 원수를 갚고자 하는 것이고, 고구려에 대해서는 시해당한 임금의 치욕을 씻어주려는 것일 뿐이다. 게다가 사방의 구석까지 크게 평정되었는데 오직 이 고구려만이 평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더 늦기 전에 사대부들의 남은 힘을 가지고 이 땅을 되찾으려는 것이다. (『자치통감』 197, 唐紀13, 정관 19년 3월)

고구려 정벌은 본말과 고하와 원근의 순리를 일탈한 행위라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 모든 부정적 본질을 일소하는 조건이 곧 연개소문의 정변이라는 판단이다. 연개소문의 시역과 집권이야말로 당의 가장 근원적인 침공 명분이 된다.¹¹²⁾ 이를 염두에 두고 태종이 분석한 고구려의 현상이란 국력의 열패, 정통성의 하자, 정정의 혼란, 전력의 손실, 사기의 저하로 정리되었다. 그리고 여기에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요동은 본래 중국의 땅’이라는 역사적 명분이 가세하였다. 물론 이 역사적 명분이란 실제의 전쟁 의도와 목표를 분석하는 데 불과하다. 그러나 태종의 칙명으로 중찬된 『진서』에 고구려전 자체는 물론 본기에서도 고구려 교섭 기사가 없는 것은, 고구려를 중국의 실지로 선

112) 金善昱, 1985, 「高句麗의 隋唐關係研究 - 靺鞨을 中心으로」, 『百濟研究』 16, 15 쪽; 金基興, 1992, 「고구려 淵蓋蘇文政權의 한계성」, 『西嶽趙恒來教授華甲紀念韓國史學論叢』, 亞細亞文化社.

언한 태종의 지향이 반영된 구체적 사례이기도 한 것이다.¹¹³⁾ 요컨대 멸망기 고구려에 대한 중국의 전쟁 인식이란 현실적 명분과 역사적 명분의 총합 형태를 띠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삼국사기』의 연개소문에 대한 양면적 평의는 당의 전쟁 명분을 구성하는 현실의 주요 조건 인식에 대한 소극적인 부정이라 할 수 있다.

역사적 명분에 대한 논의는 고구려사가 종결되는 지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개진되었다.

편찬자는 논평하여 말한다. 현도와 낙랑은 본래 조선의 땅으로서 기자를 봉했던 곳이니, 기자는 그 백성들에게 예의와 농사와 누에치고 베 짜는 법을 가르치고 금법 여덟 조목을 만들었다. 이리하여 그 백성들이 서로 도둑질하지 않고 문을 닫아걸지 않으며, 부인들은 곧고 신실해 음탕하지 않고, 음식을 먹는 데는 제정된 그릇을 사용했으니, 이야말로 어진 현자의 교화인 것이다. 게다가 그들의 천성이 유순해 다른 세 방면의 오랑캐와는 달랐던 까닭에, 공자가 중국에서 도가 시행되지 않음을 슬퍼하여 바다를 건너와 살고자 했던 것도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 그러나 고구려사의 시말을 보면 위아래가 화합하고 백성들이 화목할 때는 비록 큰 나라라 해도 이를 빼앗지 못했지만, 국정을 의롭게 처리하지 못하고 백성을 어질게 다스리지 못해 사람들의 원성을 불러일으키게 되어서는 허물어져 내려 견잡을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맹자는 “天時와 地利가 人和만 못하다”라고 했고, 左氏는 “나라는 복으로써 흥하고 화로써 망하는바, 나라가 흥하려면 백성 대하기를 상치를 위하듯이 하나니 이것이 복이요, 나라가 망하는 데 있어서는 백성을 흠 검불과 같이 여기나니 이것이 화인 것이다”라고 했으니 의미 있는 말일진저!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종결부의 사론)

현도와 낙랑 등 한의 군현들은 ‘본래 조선의 땅’이라 하였다. 요동은 본래 중국의 땅이라거나 고구려는 본래 현도 등 4군의 땅이라 한 수·당조의 논리

113) 윤용구, 2005, 「隋唐의 對外政策과 高句麗 遠征 - 裴矩의 ‘郡縣廻復論’을 중심으로」, 『北方史論叢』 5, 61~65쪽.

에 정면으로 대립한다. 조선 → 기자 → 한군현 → 고구려의 계통 인식이니, 기자나 한의 군현에 앞서 조선을 시발로 설정한 점을 주목한다. 물론 이른바 ‘기자동래’의 연원을¹¹⁴⁾ 수긍했으나, 그것은 도가 실종된 중국의 대안으로서 또 다른 문명 사회를 전제하는 것이었다.¹¹⁵⁾ 이것은 마치 이승휴가 중국 역대 왕조에 대응하는 우리 왕조들의 역사 공간을 일러 “중국 왕조들과 홀연히 지역을 나눈 요동의 또 다른 천지”로서 ‘조선’을 인식하는 맥락과 방불하다.¹¹⁶⁾ 요컨대 고려의 지식인 일반에게 ‘조선’은 ‘중국’에 대한 ‘우리 역사 공간 총체’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고, 고구려는 그러한 조선의 태내에서 발흥한 왕조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수·당의 고구려 침공은 중국의 외방 ‘별유천지’에 대한 침략일 뿐이다.

중국의 역사적 전쟁 명분 논리를 간명하게 일축하는 한편, 고구려 멸망의 근본 원인을 오직 고구려 내부의 문제로 정돈한 것은 오히려 건강하다 할 것이다. 문제는 애민과 위민의 통치 여하에 있다 하였다. 당 태종이 열거한 바 고구려가 패배할 수밖에 없는 다섯 가지 조건은 위민의 통치가 결여된 이상 동의어에 불과한 것이다. 맹자의 ‘인화’와 좌씨의 ‘애민’이야말로 통치와 흥망의 요체라고 할 때,¹¹⁷⁾ 대외적 멸망 요인 즉 당 태종이 성언한 ‘개소문에 대한 문죄’의 전쟁마저 이미 내부의 문제에서 배태된 셈이다. 이러한 인식에서 멸망기 고구려에 대한 비판에 앞서 자국사에 대한 애정 어린 성찰을 발견하기 어렵지 않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논찬자가 당 태종에 대한 『신당서』의 극찬을 인용한 것은 결국 그를 패퇴시킨 안시성주의 호걸비상함을 부각시키

114) 『史記』 38, 宋微子世家.

115) 『論語』, 公冶長篇 및 子罕篇. 기자의 교화와 그로 인한 문명화 및 공자의 발언 등 일련의 서술 구조는 『後漢書』 85, 東夷列傳 序와 濊貊에 가장 근접한 것이다.

116) 李承休, 『帝王韻紀』 下, 東國君王開國年代, “遼東別有一乾坤 斗與中朝區以分 洪濤萬頃圍三面 於北有陸連如線 中方千里是朝鮮 …… 於中何者是大國 先以扶餘沸流稱 次有尸羅與高禮 南北沃沮穢貊膺 此諸君長問誰後 世系亦自檀君承”.

117) 『孟子』, 公孫丑章 下, “孟子曰 天時不如地利 地利不如人和”; 『左傳』, 哀公 元年, “吳之入楚也 …… 逢滑當公而進曰 臣聞 國之興也以福 其亡也以禍 今吳未有福 楚未有禍 楚未可棄 吳未可從 …… 臣聞 國之興也 視民如傷 是其福也 其亡也 以民爲土芥 是其禍也”.

기 위한 역설이었으며, 당 태종에게 현실적 침공 명분을 제공하고 또한 당 태종을 패퇴시킨 안시성 성주와 대립했던 연개소문조차 고구려를 보위해 낸 재사였음을 허용한 것 역시 고구려를 자기 왕조의 토대로 인식한 때문이었음을 놓칠 수 없는 것이다.

IV. 전승과 기억

역대 중국의 정권들과 고구려의 전쟁에 대한 후대 중국의 다양한 ‘소설’류에 담긴 내용들 가운데에는 『삼국사기』 찬자가 비판한 바 『자치통감』이나 『신·구당서』 따위 당대 정사류와는 사뭇 다른 문면이 적지 않았던 것처럼, 오직 『삼국사기』를 매개로 한 고구려 당대의 사실들은 이후 새로운 전승과 기억으로 대체되거나 변형되기도 하였다. 또한 송대 이후 특히 당 태종에 대한 비판적 演義류가 빈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삼국사기』의 관점은 12세기 중엽의 고려적 현실을 벗어나면서 쉽사리 설득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다. 예컨대 연개소문에 대한 미온적 비판과 모호한 수공론은 조선에 와서 정면으로 논박되었다.

(臣等按) …… 어찌하여 왕안석은 신종의 물음에 답하여 태종이 고구려를 이기지 못한 것은 蘇文이 비상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 하였는가. 이러한 亂賊의 괴수를 비상한 자라 한다면 천하고금의 난신적자 가운데 누구든 비상하지 않겠는가. …… 김부식은 우리 동방의 名士로 소문의 대역부도한 죄를 소상히 알면서도 왕안석의 그릇된 설명에 뇌동하여 (소문을) 才士라 한 것은 어찌된 일인가. 그 역시 남의 신화된 자로서 『춘추』를 알지 못한 죄를 면치 못할 것이다. (『동국통감』 8, 당 乾封 원년, 고구려 보장왕 25년)

고려의 지식인들은 고구려를 자기 왕조의 전대사 가운데 주요한 하나로

삼아 스스로 이룩한 ‘一統’의 토대로 여겼으나, 조선의 경우 고구려와 직접 연결될 만한 역사 논리가 없었던 데에 이와 같은 차이점이 연유한다. 따라서 『동국통감』 찬자에게 연개소문은 오직 대역무도한 난신적자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연개소문에 대한 평가의 문제와는 달리 고구려 영토의 역사적 계통 인식에서는 “고구려는 본래 단군조선의 땅”이라 하여, 수·당의 고토 회복이라는 전쟁 명분을 논박한 『삼국사기』의 인식을 강화하였다.¹¹⁸⁾ 1488년 제주를 출발한 후 표류하여 중국에 상륙한 崔溥가 명 나라 紹興府의 관원들을 상대로 조선의 전대 연혁을 간추려 말하는 대목에서도 자국사의 시원을 단군조선으로 삼는 한편, 고구려 등 삼국은 ‘옛 조선의 땅’이 나뉜 것으로 말하였다. 아울러 그는 역대의 인물들을 예거하되, 고구려의 경우 유일하게 을지문덕을 꼽았다.¹¹⁹⁾ 을지문덕에 대해서는 『동국통감』 찬자들 역시 前秦의 100만 대군을 물리친 동진의 謝玄보다 뛰어난 장수라 하였다. 나아가 뒷날 안시성 전투의 승리는 물론 고려시대의 요·금·원 및 크고 작은 침구들을 물리친 성과들이 모두 을지문덕이 남긴 공렬이라고 하였다.¹²⁰⁾

안시성 성주에 대한 포양 역시 달라지지 않았다. 연개소문에 굴하지 않은 절의가 가상타 했고, 당 태종을 격퇴시켜 요동을 지켜냈다고 하였다.¹²¹⁾ 특히 안시성 성주가 梁萬春이라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즉 현종이 안시성주의 이름을 묻자 宋浚吉이 양만춘이라 대답하고 있으며, 다시 왕이 그 근거를 묻자 府院君 尹根壽가 중국에서 듣고 기록한 것이라고 대답하였다.¹²²⁾ 윤근수는 선조 때 명나라와의 외교 일선에서 활약했으며 특히 임진왜란 발발 이후 여러 차례 대 명 교섭을 주도하면서 국난 극복에 기여했으므로, 그 과정에서 명대의 당 태종 관련 전승을 접하면서 예의 주목했을 법하다. 송준길 역시 송시열과 함

118) 『三國史節要』 10, 高句麗 寶藏王 27년, ‘權近日’.

119) 『漂海錄』 1, 2월 初4일.

120) 『東國通鑑』 6, 高句麗 嬰陽王 23년, ‘臣等按’.

121) 『東國通鑑』 6, 高句麗 寶藏王 4년, ‘臣等按’.

122) 『同春堂先生別集』 6, 經筵日記 己酉(현종 10년(1669)) 4월 26일, “上曰安市城主其名爲誰 浚吉曰 梁萬春也 能拒太宗之師 可謂善守城者也 上曰 此見於何處 浚吉曰 故府院君尹根壽 聞於中朝而記云矣”.

게 효종 정부의 북벌론에 편향한 인물인지라, 고구려의 대 중 투쟁사 관련 전승에 각별한 관심을 지녔을 것으로 추측한다.

또 朴趾源도 세상에서 전해오는 말이라 하여 “안시성주 양만춘이 당 태종의 눈을 쏘아 맞추자, 태종이 성 아래 군사를 집합시키고 비단 백 필을 하사하여 그가 자기 임금을 위해 성을 굳게 지킨 점을 포상하였다”라고 했으며, 이 사건을 언급한 金昌翁의 시와 李穡의 「貞觀吟」을 소개하였다.¹²³⁾ 김창흡은 양만춘의 화살에 눈동자[眸子]가 떨어졌다고 하였고, 이색의 시에도 “흰 날개에 검은 꽃이 떨어졌다[玄花落白羽]”라고 하였다.¹²⁴⁾ 이어 박지원은 두 사람의 시는 필시 우리나라에서 예로부터 전해오는 이야기에 근거한 것이리라 짐작하면서, 김부식의 경우 유공권의 소설을 인용하여 당 태종이 주필산에서 곤육을 당한 일을 입증하고서도 정작 우리나라의 옛 전승은 신지 않았다고 비판하였다.

안시성주의 실체는 논외로 하더라도, 당 태종의 패퇴 사실은 고구려를 자기 역사의 토대로 간주하는 후대 지식인들에게 강한 자긍심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특히 이색은 삼한 즉 우리나라는 기자 이래 중국이 신하로 여기지 못한 땅이므로 중국 밖의 세계로 간주하여 개입하지 않았어야 할 터라 하고, 또 태종이 고구려를 ‘주머니 속의 물건일 뿐’이라 한 성언을 야유하여 고구려에 대한 뚜렷한 자부심을 드러냈다.¹²⁵⁾ 이색 당시는 元末의 병란기이라, 이민족의 오랜 침압에 시달리던 고려의 각성한 지식인으로서 자연히 과거 고구려를 침입해 온 중국에 강한 비판 의식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사실 그와 같은 전승은 徐居正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 출처가 명료치 않다. 다만 서거정 역시 중국

123) 『熱河日記』, 渡江錄 6월 28일 乙亥, “又世傳安市城主 楊萬春 射帝中目 帝耀兵城下 賜絹百匹 以賞其爲主堅守”.

124) 李穡, 「貞觀吟榆林關作」, 『東文選』 8 七言古詩.

125) 呂運弼, 1999, 「李穡의 歷史素材 漢詩 研究」, 『고려시대 역사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26) 徐居正, 『筆苑雜記』 2, “世傳 唐太宗伐高麗 至安市城 箭中其目而還 考唐書通鑑皆不載此事 雖有之 當時史官爲中國諱 無怪乎其不書也 但金富軾三國史 亦不載 未知牧老何從得此”.

문헌에 당 태종의 피격이 실리지 않은 것은 중국 사관이 나라의 기휘로 여겨
은폐했을 것이라고 하여 『삼국사기』 찬자의 짐작에 동의하였다.¹²⁶⁾

한편 『삼국유사』에는 수·당과 고구려의 전쟁 및 멸망에 대한 독특한 인
식이 소개되어 있다.

또 『唐書』를 살펴보면, “이에 앞서 수 양제가 요동을 칠 때, 裨將 羊血
이란 이가 있었는데 전세가 불리하여 바야흐로 죽게 되자 맹세해 말하
기를 ‘반드시 충신이 되어 저 나라를 멸망시키겠다’라고 하였다. 그
후 蓋氏가 조정을 멋대로 하게 되어 ‘蓋’를 성씨를 삼았으니 곧 羊血
이 이에 부합한다”라고 하였다.

또 『高麗古記』를 보면 이렇하다. “수 양제가 大業 8년 壬申(612)에 30
만 군사를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 쳐들어왔다. 10년 甲戌(614) 10월에
고려 왕[이때는 제36대 영양왕 즉위 25년이었다]이 표문을 올려 항복
을 청하였다. 그때 한 사람이 몰래 작은 강궁을 품속에 지니고서 표문
을 지닌 사신을 따라 양제가 탄 배 안에 이르러, 양제가 표문을 들고 읽
을 때 활을 쏘아 양제의 가슴을 맞혔다. 양제는 군사를 돌이키려 하면
서 좌우에 이르기를 ‘내가 천하의 주인으로서 작은 나라를 직접 치다
가 이기지 못했으니 만대의 웃음거리가 되었구나!’라고 하였다. 이때
右相 羊血이 아뢰기를 ‘신이 죽어 고려의 대신이 되어서 반드시 나라
를 멸망시켜 제왕의 원수를 갚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양제가 죽은 후
(양명은) 고려에 태어났는데, 15세에 총명하고 神武하니 그때 武陽王
이 그가 현명하다는 소문을 듣고[『국사』에는 영류왕의 이름을 建武 혹
은 建成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무양이라고 하니 자세히 알 수 없다]
불러들여 신하로 삼았다. 그는 스스로 성을 ‘蓋’라 하고 이름은 ‘釜’이
라 했으며, 벼슬이 ‘蘇文’에까지 이르렀으니 곧 侍中의 관직이다[『당
서』에는 ‘개소문이 스스로 莫離支라 일컬었는데 당의 中書令과 같다’
라고 하였다. 또 『神誌秘詞』 서문을 보면 ‘蘇文 大英弘 序并注’라고
했으니 ‘소문’이 곧 직명임은 문헌의 증거가 있지만, 그런데 ‘傳’에 이
르기는 ‘文人 蘇英弘 序’라고 했으니 어느 것이 옳은지 자세히 알 수
없다] 개금이 왕에게 아뢰기를 ‘술에는 발 세 개가 있고 나라에는 三
敎가 있는 법인데, 신이 보기에 우리나라에는 오직 유교와 불교만 있
고 도교는 없으니, 그러므로 나라가 위태롭습니다’라고 하였다. 왕은

그 말을 옹계 여겨 당나라에 도교를 청하니 태종이 叔達 등 도사 여덟 명을 보내주었다[『국사』에는 武德 8년 을유(625)에 사신을 당나라에 보내 불교와 도교를 구했더니 당나라의 황제가 이를 허락했다고 한다. 이에 의하면, 양명이 갑술년(614)에 죽어 이곳에 태어났다면 나이 겨우 10여 세였거늘 총재가 되고 왕에게 말해 사신을 보내 청하게 했더니, 그 연월이 반드시 어느 한 편의 경우는 잘못된 것이다. 지금 두 기록을 다 실어둔다]. 왕은 기뻐하여 절을 道館으로 만들고, 도사를 높여 儒士의 위에 앉게 하였다. 도사들은 국내의 유명한 산천을 돌아다니며 진압시켰다. 옛 평양성은 지세가 新月城이므로 도사들은 주문으로 南河의 용에게 성을 더 쌓게 하여 滿月城으로 만들고, 이로 인해 성 이름을 龍堰城이라 하고 비결을 지어 龍堰堵 또는 千年寶藏塔라고 하였다. 혹은 靈石을 파서 깨뜨리기도 하였다[속설에는 都帝堙이라 하고 역시 朝天石이라고도 하는데 대개 옛날에 聖帝가 이 돌을 타고 上帝에게 조회했기 때문이다]. 개금이 또 왕에게 아뢰어 동북에서 서남으로 長城을 쌓게 했는데, 이때 남자들은 부역에 나가고 여자들이 농사를 지었다. 공역이 16년 만에 끝났다. 보장왕 때 당 태종이 직접 6군을 거느리고 와서 쳤으나 또 이기지 못하고 돌아갔다. 고종 總章 원년 戊辰(668)에 右相 劉仁軌·대장군 李勣과 신라의 金仁問 등이 공파하여 나라를 멸망시키고 왕을 사로잡아 당으로 돌아가니, 보장왕의 서자가 4천여 家를 이끌어 신라에 투항하였다”[『국사』와 조금 다르므로 아울러 적어둔다]. (『삼국유사』, 흥법 寶藏奉老普德移庵)

인용문은 『당서』와 『고려고기』의 전승이다. 보장봉로보덕이암조는 서부에서 먼저 ‘高麗本記’를 들어 서술한 다음, 위의 두 자료를 소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에 “『국사』와 조금 다르므로 아울러 적어둔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두 자료와 ‘조금 다른’ 『국사』란 필시 그에 앞서 인용한 ‘고려본기’를 이룬다고 보아야 옳다. ‘고려본기’의 주요 내용은 영류왕 7년 즉 武德 7년 갑신(624)에 당 고조가 도사와 天尊像을 보내온 사실, 1년 뒤(625) 다시 당에 불교와 도교를 배우고자 청해 고조가 허락한 사실, 보장왕이 즉위한 뒤 연개소문의 주도로 당에 도교를 구한 사실, 普德和尚이 도교 진작에 항의하여 永徽 원년(650)에 完山州로 이거한 사실 등이며, 그리고 얼마 후 나라가 망했다고 중

결하였다. 즉 ‘고려본기’ 내용은 이른바 ‘고구려 멸망론’이라 할 수 있되, 그 주요 논리는 도교망국론인 셈이다.

한편 ‘고려본기’의 주요 사실들은 모두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내용과 일치한다. 따라서 ‘高麗本記’는 『삼국사기』 ‘高句麗本紀’를 이른다. 그렇다면 고구려본기 정보를 도교망국론의 재료로 삼은 것은 서술자의 의도적 편향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찬자의 의도는 『고려고기』를 인용한 데에서 더욱 명료해진다. 『고려고기』 역시 고구려 멸망론이요, 도교망국론에 충실한 내용이다. 『고려고기』는 정도로서의 불교의 흥포를 겨냥한 『삼국유사』 찬자의 사유에서 주목할 만한 논리의 자료였던 것이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인용된 『고기』류 일반이 그러하듯이, 『고려고기』에는 적지 않은 당착과 오류가 들어 있어 일단 그 사실 관계를 신뢰하기 어렵다. 우선 612년 수 양제의 군사 규모를 30만이라 하고 바다를 건너 침공했다거나, 614년에 고구려 사람이 양제를 배 안에서 저격했다는 따위는 물론이려니와, 정작 『고려고기』에 설정된 개금의 나이와 관련하여 의문을 제기한 찬자의 논리 또한 착종을 범하고 있다. 즉 찬자는 羊晞이 갑술년(614)에 죽었으므로 그가 환생한 개금은 무덕 8년(625) 당시에 10여 세에 불과한데 어떻게 도교 수용을 주도했겠느냐 회의하였다. 그러나 『고려고기』에는 개금의 주청에 응한 주체를 당 태종이라 하였다. 따라서 『고려고기』가 언급한 개금의 주청과 그에 응하여 당 태종이 숙달 등 도사 8인을 보낸 사건은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보장왕 2년(643) 기사에 부합하는 사건인 것이다.¹²⁷⁾ 다시 말해 찬자가 의문의 근거로 제시한 무덕 8년의 사건은 당 고조와 영류왕 사이의 교섭이었으니, 찬자 자신의 자료 대교에 오류가 있었던 것이다.

아마 『고려고기』의 해당 내용은 다양한 전승 과정과 에피소드의 개입을 거치면서 변형과 생성을 거듭한 결과일 것으로 판단한다. 즉 『고려고기』에는

127) 『三國史記』 21, 高句麗本紀9, 寶臧王 2년, “三月 蘇文告王曰 三教譬如鼎足 闕一不可 今儒釋並興 而道教未盛 非所謂備天下之道術者也 伏請遣使於唐 求道教以訓國人 大王深然之 奉表陳請 太宗遣道士叔達等八人 兼賜老子道德經 王喜 取僧寺館之”.

고구려에 대한 후대인들의 기억과 전승의 맥락이 함축되어 있다고 본다.¹²⁸⁾ 무엇보다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고려고기』가 비록 고구려 멸망을 도교망국론에 서서 진술하는 외양을 띠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그것은 개금 즉 연개소문에서 비롯한 귀결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또한 고구려를 멸망시킨 외적 요인으로서 수와 당이 개금 즉 양명을 매개로 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위상에 있다는 파악 방식을 유의하게 된다. 비록 『당서』에 전하는 내용이라 했으나 현전하는 어느 『당서』에서도 양명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거니와, ‘蓋’의 破字로 ‘羊皿’을 창안해 낸 것에 불과할 것이다. 요컨대 이것은 민중적 상상력이 낳은 것이되, 중국 역대 제왕 가운데에서도 현저히 호전적이고 현시적이었던 당 태종을 패퇴시킨 연개소문의 영웅성과, 부단히 중국에 맞서 자존을 구가해 왔던 고구려의 위용에 대한 기억이 그 토대를 이루고 있다. 민중적 기억이 전승의 주요 화소로 기능하는 부분은 다양하게 적출될 수 있다.

첫째, 양명이 원한을 품고 적국에서 환생하여 원분을 풀게 된다는 설정은, 고구려의 楸南이 신라의 김유신으로 환생하여 고구려를 멸망시킨다는 전승과 맥락을 같이 한다. 추남은 고구려의 占巫였는데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되자 죽은 후에 대장이 되어 반드시 고구려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맹세했으며, 그 맹세대로 신라의 김유신으로 환생했다는 것이다.¹²⁹⁾ 일통의 주역인 김유신의 공적에서 소급된 설화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강대한 고구려의 패망이라는 충격적 사건에 대해 현상의 인과 관계로는 납득하지 못하는 민중적 욕구가 자리하고 있다. 후대 민중들이 고구려의 멸망을 납득하기 위해서는 양명과 추남 등의 비상한 원분과 그로 인한 신비한 환생이라는 비현실적 설명이 필요했던 것이다.

둘째, 항복을 빌미로 양제에 근접하여 저격했다는 설정 또한 동천왕대 관구검의 침공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동부의 紐由가 항복을 가장하여 위장에게 접근했다가 칼로 찌르고 함께 죽은 사건과 방불한 것이다. 게다가 그로 인해

128) 李弘植, 1962, 「高句麗秘記考 - 附 三國末期의 讖緯的 記事의 考察」, 『歷史學報』 17 · 18 ; _____, 1971, 앞의 책, 271~274쪽.

129) 『三國遺事』, 紀異 金庾信.

동천왕은 위의 군사를 격퇴시킬 수 있었다고 했으니, 양제가 패배를 자인하고 철군한 바와도 상응한다. 고구려본기와 열전에 모두 246년의 일로 기록된 이 사건은 명백히 고구려 자체의 전승을 토대로 한 것이며, 고구려 당대인은 물론 후대인에게서도 고구려에 대한 우호적 기억의 맥락 가운데 줄곧 회자되었을 법하다. 따라서 유유의 희생은 중국 세력의 침입 앞에 물리력의 열패를 극적으로 변전시킨 순국 투쟁담으로서 고구려 멸망 과정을 설명하는 데 다시 동원되었을 것이다.

셋째, 중국의 도시들이 평양성을 신월성의 형세에서 만월성으로 개축했고, 이어 고구려가 멸망했다는 논리 전개 역시, 아마 풍수지리적 사유가 팽만해 있던 고려에서 생성된 보편적 귀납 논리였다. 즉 의자왕대에 출현한 거북의 등에 적힌 참서에서도 “백제는 둥근 달이요, 신라는 초승달과 같다[百濟圓月輪 新羅如新月]”라고 했거니와, 점무가 이를 “둥근 달이란 꼭 찬 것이니 차면 이지러지는 법이며, 초승달이란 차지 않은 것이니 차지 않으면 점점 차게 되는 것”이라고 해설했다가 왕의 노여움을 사 죽임을 당하였다.¹³⁰⁾ 이 범상한 자연 법칙을 거스른 백제 왕조는 그러므로 멸망을 예비하였다. 같은 이유에서 평양성이 만월성의 형세로 개축된 것은 고구려의 멸망을 재촉한 장치였다는 인식인 셈이다.¹³¹⁾

요컨대 『고려고기』에 담긴 내용은 수와 당이라는 동질적 외압으로 멸망한 고구려에 대해 후대인들이 어떻게 기억하고 전승해 왔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하겠다. 물론 전승의 연원은 고구려 혹은 국내 고유의 자료와 인식에서 비롯하였다. 신라에 투항한 ‘보장왕의 서자’ 대목이 고구려 측 고유 전승 계통에 있다는 것을 앞에서 논증한 바 있거니와, 16년이 소요된 장성의 축조와 개소문을 연계시킨 서술 역시 오직 국내의 자료 범주 안에 있는 정보이다. 이

130) 『三國遺事』, 紀異 太宗春秋公.

131) 이내옥은 ‘千年寶藏塔’라는 ‘讖’을 國祚의 연장을 꾀하고 국민들 사이에 팽배한 위기 의식을 해소시키려는 연개소문의 의도에서 비롯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李乃沃, 1983, 「淵蓋蘇文의 執權과 道教」, 『歷史學報』 99·100. 그러나 적어도 『고려고기』의 문맥이나 그것을 인용한 『삼국유사』 찬자의 의도는 그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처럼 국내 전승을 주요 토대로 하고 다시 후대인들의 사유와 논리가 덧붙여지면서, 고구려와 중국의 전쟁은 시공간의 사실성보다는 고구려에 대해 각별한 친연 관계를 공유한 인식 주체의 논리적 구체성에 맞춰 기억되었던 것이다.



[ABSTRACT]

The Comparative Study of Korean and Chinese Historical Records of the Wars between Koguryo and Chinese Kingdoms

Lee, Kang-Lae

The war is the event where the parties concerned have their own causes and also produce their own stories. This was true of the wars between Koguryo and Chinese kingdoms. Their own motifs led them to the wars, which was narrativized by Korean and Chinese literatures, respectively. *Samguksagi*, or History of Three Kingdoms contains much more Korean narratives than any other historiography, including *Samgukyusa* or Memorabilia of Three Kingdoms, which relates the wars from Korean perspectives. Chinese narratives can be read in *Huhan-shu* or History of the Later Han and other dynastic historiographies, or diachronic Chinese historiographies such as *Zizhitongjian*. With this in mind, this essay comparatively examines war stories that Korean and Chinese literatures recorded and left.

The essay addresses two issues. That is, its comparative approach is employed to confirm the factualities of Korean and Chinese accounts and at the same time to appreciate the understandings of the wars held by each belligerent. For the former discussion, the comparisons are made of the items concerned with figures, chronologies, and events, which are contained in History of Three

Kingdoms and Chinese historiographies, with the focus upon their differences and variations. This shows that History of Three Kingdoms offers to its readership not a few informations unavailable in its Chinese counterparts.

The latter comparison includes the causes and effects, and the historical meanings, of the war. As the former discussion does, the second one confirms that there existed the differences of some significance between Koguryo views and Chinese ones of the items listed above. These differences existed between war participants, Koguryo or Chinese, and also their following historiographers. Especially, the differences in their war understanding were greatly influenced by their views of historical legitimacy concerned with dynastic successions. In other words, Koreans and also Chinese based their historical accounts and memories upon their view of the historical legitimacy.

What have been told thus far cast implications upon today when and where different historical views produced the tensions and conflicts between Korean academia conflicts and Chinese one over the history of Koguryo. It is, there have existed the differences not only between Koguryo and Chinese belligerents but also among historiographers who have remembered the wars and circulated war memories. Given this, 'the wars of history' currently waged by Koreans and Chinese should be appeased by the concrete examinations of 'the history of wars.' Incidentally, hopefully two peoples can realize that the ideas of Koguryo and their historical inheritors should be put before our contemporary ones.

Keywords

war, Koguryo, *Samguksagi*, *Zizhitongjian*, wars of history, history of wars



국립도서관본 계열 「설인귀전」의 형성 과정에 나타난 고·당 전쟁 문학의 교섭양상에 관한 연구

권도경 |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I. 들어가는 말

한국의 고·당 전쟁 문학인 「설인귀전」은 중국의 대표적인 고·당 전쟁 문학인 「설인귀정동」 42회본¹⁾을 수입·번역해서 만든 작품이다. 그런데 이 「설인귀전」은 단순히 「설인귀정동」 42회본을 충실히 축자역한 번역소설로서만 존재하지 않는다. 「설인귀정동」 42회본은 한글로 번역되어 「설인귀전」이라는 형태로 한국의 소설 독자층에게 널리 읽힘으로써 한국의 대표적인 고·당 전쟁 문학이 된 것이다. 이 점에서 「설인귀정동」 42회본과 「설인귀전」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한·중 고·당 전쟁 문학의 교섭 양상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²⁾ 그런데 「설인귀정동」 42회본의 수용과 「설인귀전」의 성립에 이르는

- 1) 중국의 고·당 전쟁문학으로 존재하는 설인귀 관련 문학의 존재 양상과 특징에 대해서는 민혜란, 1988, 「설인귀설화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을 참조하기 바람.
- 2) 여기서 다시 한번 분명해 해 두어야 할 것은 한중 고·당 전쟁 문학의 교섭양상과 관련한 개념과 범주의 문제이다. 「설인귀전」은 번역소설이라는 존재의 특성상 중국 고·당 전쟁 문학인 「설인귀정동」 42회본을 원전으로 한다. 그러나 중국 고·당 전쟁 문학인 「설인귀정동」 42회본의 번역본인 「설인귀전」은 한국 고·당 전쟁 문학의

일련의 과정 속에는 단순히 번역으로만 설명될 수 없는 복잡한 층위가 존재한다. 「설인귀전」을 단지 「설인귀정동」을 수입하여 번역한 작품으로 규정하려면 「설인귀전」이라는 표제에 속하는 작품들이 모두 「설인귀정동」 42회본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비록 자구와 어구상의 출입은 있을 지라도 그 대개의 내용 변개의 범주는 「설인귀정동」 42회본을 축자역한 테두리 내부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이와 다르다. 「설인귀전」의 이본군 속에는 「설인귀정동」 42회본을 그대로 축자 번역한 유형과 그렇지 않은 두 부류가 존재한다.³⁾ 중국 고·당 전쟁 문학으로서의 「설인귀정동」 42회본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한국 고·당 전쟁 문학으로서의 「설인귀전」 계열의 선본은 국립도서관본이다. 본 연구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중국 고·당 전쟁문학으로서의 「설인귀정동」 42회본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한국 고·당 전쟁문학으로서의 「설인귀전」을 국립도서관본 계열로 칭하기로 한다.

본 연구의 문제의 설정 방향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설인귀전」의 한 계열에 포함되어 있는 이 내용이 「설인귀정동」 42회본을 제외한 중국 고·당 전쟁 문학의 다른 작품 속에서 유래한 것인가, 아니면 한국 고·당 전쟁 문학과 관련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즉 한국 고·당 전쟁 문학으로서의 국립도서관본 계열 「설인귀전」을 중국 고·당 전쟁 문학으로서의 「설인귀정동」 42회본과 내용상 분지되게 하는 소재의 원천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둘째는 「설인귀전」의 한 계열이 만약 한국 고·당 전쟁 문학과 관련이 있다면 무슨 작품과 어떠한 양상으로 관련을 맺고 있으며, 그 형성과정은 어떠한가 하는 점이다. 중국 고·당 전쟁 문학으로서의 「설인귀정

범주에 속한다. 원전과 번역물이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작품은 고·당 전쟁 문학의 각각 다른 범주로 분류되는 것이다.

- 3) 전자에는 연세대본, 이화여대본, 동미서시본, 경성서적조합본, 신구서림본의 4종이 속한다. 후자에는 경판40장본, 경판30장본, 경판17장본, 국립도서관본, 영남대본, 고려대본 박순호본 등 7종이 속하는데, 국립도서관본이 최선본으로 알려져 있다. 각 이본 관계에 대해서는 이윤석, 2001, 「〈설인귀전〉의 원천에 대하여」, 『연민학지』 9를 참조하기 바람.

동」 42회본에는 없으나, 한국 고 · 당 전쟁 문학으로서의 국립도서관본 계열 「설인귀전」에는 있으며, 한국 고 · 당 전쟁 문학을 구성하는 두 하위 유형인 국립도서관본 계열 「설인귀전」과 설인귀 전설⁴⁾이 공유하고 있는 대식 모티프, 외삼촌의 박대 모티프, 병기 획득 모티프, 용마 획득 모티프가 어떤 과정으로 형성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셋째는 「설인귀전」의 한 계열이 「설인귀정동」 42회본과 보여주고 있는 내용상의 차이가 한국 고 · 당 전쟁 문학에 나타난 역사의식과 어떤 방식으로 연관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설인귀를 주인공 혹은 주요 등장인물로 한 고 · 당 전쟁 관련 중국 측 소설을 한국 측에서 번역하여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냄에 있어서, 설인귀를 주인공으로 하여 한국 구

4) 설인귀 전설은 한국의 경기도 북부, 파주 일대에 지역전설로서 전승되는 구비전설을 일컫는다. 설인귀 전설 자료의 목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조희웅 외, 「설인귀비가 감악산으로 옮겨간 까닭(1)」, 『경기북부구전자료집(1)』, [동두천설화1] 생연2동 한약방, 1999. 5. 21, 조희웅, 조흥옥, 노영근, 박인희 조사, 이윤형, 남 · 76, 박이정, 299~301쪽.
- ② 조희웅 외, 2001, 「설인귀비가 감악산으로 옮겨진 까닭(2)」, 『경기북부구전자료집(1)』, [동두천설화13] 생연2동 한약방, 1999. 5. 21, 조희웅, 조흥옥, 노영근, 박인희 조사, 홍성연, 남 · 69, 박이정, 316~318쪽.
- ③ 조희웅 외, 2001, 「이사 간 설인귀 비」, 『경기북부구전자료집(1)』, [적성면 설화3] 어유지리 노인정, 1999. 8. 9, 조흥옥, 박인희, 조재현 조사, 정규운, 남 · 84, 박이정, 540~541쪽.
- ④ 조희웅 외, 2001, 「영험한 설인귀비」, 『경기북부구전자료집(1)』, [적성면설화4] 어유지리 노인정, 1999. 8. 9, 조흥옥, 박인희, 조재현 조사, 정규운, 남 · 84, 박이정, 541~542쪽.
- ⑤ 조희웅 외, 2001, 「백포소장 설인귀」, 『경기북부구전자료집(1)』, [동두천설화2] 생연2동 한약방, 1999. 5. 21, 조희웅, 조흥옥, 노영근, 박인희 조사, 이윤형, 남 · 76, 박이정, 301~303쪽.
- ⑥ 조희웅 외, 2001, 「설인귀 전설」, 『경기북부구전자료집(1)』, [적성면설화5] 울포리 노인정, 1999. 2. 9, 조흥옥, 박인희, 조재현 조사, 조팽기, 남 · 65, 박이정, 542~543쪽.
- ⑦ 조희웅 외, 2001, 「설인귀 이야기」, 『경기북부구전자료집(2)』, [화현면설화10] 화현3리(영신) 노인정, 2000. 1. 18, 조흥옥, 박인희, 조재현 조사, 최재수, 남 · 66, 박이정, 502~507쪽.
- ⑧ 「설윤기 전설」, 제보자 : 김정홍(남, 70세, 파주시 적성면 주월리 154-8), 조사지: 제보자의 집, 경기도 박물관 홈페이지, <http://www.musent.or.kr/resources/river>, 제4장 임진강 유역의 민속문화, 제7절 구비전승, 508~509쪽.

비문학 담당층 속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된 설인귀 설화를 수용하고 있다면, 궁극적으로는 설인귀를 주인공으로 한 고·당 전쟁 관련 중국 측 소설을 한국 측에서 재창작해냄에 있어서 그 향유의식의 핵심이 된 것은 설인귀에 대한 한국 민중의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상의 세 가지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국립도서관본 계열 「설인귀전」의 형성과정에 나타난 한·중 고·당 전쟁 문학의 교섭양상 및 역사인식에 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⁵⁾

II. 한·중 고·당 전쟁문학의 교섭과 국립도서관본 계열 「설인귀전」의 형성과정

설인귀 전설과 「설인귀전」의 교섭과정은 세 가지 패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독자적으로 형성된 설인귀 전설이 「설인귀정동」 42회본의 변안과정에 유입되어 국립도서관본 계열 「설인귀전」 계열처럼 「설인귀정동」 42회본과 전혀 다른 내용을 포함한 계통도를 확립하는 패턴이다. 둘째는 「설인귀정동」 42회본과 다른 내용을 포함한 국립도서관본 계열 「설인귀전」 계열이 먼

5) 한국 고·당 전쟁 문학에 해당하는 번역소설 「설인귀전」을 대상으로 한 한·중 문학의 교섭 양상에 관한 기존 연구는 번역 및 변안 양상 및 시기, 변안·번역 이본의 존재 양상과 특징, 원전의 확정 문제 등에 집중되어 있다. 기존 연구 성과 목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서대석, 1971, 「이조(李朝) 변안소설고(變案小說攷)－설인귀전(薛仁貴傳)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52; 성현경, 2005, 「여걸소설(女傑小說)과 『설인귀전(薛仁貴傳)』－그 저작연대(著作年代)와 수입연대(輸入年代)·수용(受容)과 변용(變容)」, 『국어국문학』 62·63; 이운석, 2001, 앞의 책; 이금재, 1990, 「〈설인귀전〉의 〈설인귀정동〉 수용과 그 의미」,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재연, 1984, 「설인귀정료사략 소고」, 『중국학연구』1. 이처럼 한국 고·당 전쟁 문학에 해당하는 번역소설 「설인귀전」에 대한 기존 연구는 서지적인 연구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설인귀전」이 한국 고·당 전쟁문학으로 성립되는 과정에서 설인귀 전설이라는 제삼의 변수가 개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설인귀전」을 대상으로 한 고·당 전쟁 문학의 한·중 역사인식 차이는 한국 구비전설의 담당층의 향유의식을 중심으로 하여 미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저 형성된 후에 설인귀 전설을 파생하는 패턴이다. 셋째는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향유되던 설인귀 전설이 중국의 고·당 전쟁 문학 내부에서 「설인귀정동」 42회본과 다른 계열에 영향을 미친 뒤에 이 작품이 국내로 수입되어 국립도서관본 계열 「설인귀전」을 형성하는 패턴이다.

우선 두 번째 패턴의 가능성부터 점검해 보기로 하자. 이 두 번째 패턴은 「설인귀정동」 42회본과 다르면서도 국립도서관본 계열 「설인귀전」 계열에 들어있는 내용을 포함한 「설인귀정동」 작품이 있을 경우에 그 타당성이 성립된다. 그런데 설인귀가 집안 형편이 어려워 남의 집에서 양치기와 날품팔이 생활을 하며,⁶⁾ 외숙모인 두씨 밑에서 밭일을 하던 중 요괴를 항복시켜서 보물을 얻는 이야기를 포함한 「설인귀정동」 이본이 한 편 존재한다. 비교적 최근세에 상해에서 발행된 설창고서(說唱鼓書)인 「인귀정동(仁貴征東)」이 바로 「설인귀정동」 42회본과는 다른 국립도서관본 계열 「설인귀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작품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소개되어 있지 않아서 에피소드를 본격적으로 상호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인귀피난목양(仁貴被難牧羊)’과 ‘경전향요득보(耕田降妖得寶)’란 장회명만 보아도 「인귀정동」이란 작품이 「설인귀정동」 42회본과는 다른 계열의 이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설인귀가 어려움을 당하여 양을 쳤으며, 밭을 갈다가 요괴를 항복시키고 보물을 얻었다는 이 장회명은 국립도서관본 계열 「설인귀전」을 「설인귀정동」 42회본과 분지시키는 내용의 일부 지점과 상당부분 일치하는 면을 포함하고 있다.⁷⁾

하지만 강창고서「인귀정동」의 이 두 개의 해당 장회의 내용이 「설인귀정동」 42회본과 분지되는 국립도서관본 계열 「설인귀전」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6) 박재연(1995, 「백포장군전」, 『중국소설연구회보』 24, 중국소설연구회, 7쪽)과 이윤석(2001, 앞의 책, 221쪽)은 「설인귀전」의 이 대목을 양치기라고 하여 「인귀정동」의 ‘仁貴被難牧羊’이란 장회명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보았다. 경판30장본인 「설인귀전단」을 보면 설인귀는 남의 집에서 양치기는 물론 남역촌에 가서 신을 삼거나 나무를 해다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설인귀전단」, 『영인고소설판각본전집』 4, 429~430쪽).

7) 「인귀정동」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두 논문을 참고하였다. 박재연, 1995, 위의 책; 이윤석, 2001, 앞의 책.

있는 것은 아니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강창고서 「인귀정동」과 국립도서관본 계열 「설인귀전」의 해당 모티프를 구체적으로 각각 다섯 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강창고서 「인귀정동」	국립도서관본 계열 「설인귀전」
① 투군 전 생계유지	양치기	양치기, 신 삼기와 나무하기
② 투군을 위한 노비 획득 방법	밭 갈기	소 몰아서 밭 갈기
③ 병기를 얻는 과정	요괴를 물리치고 얻음	요괴를 물리치고 땅 속의 석함에서 은갑, 은투구, 방천극을 얻음
④ 용마의 획득 과정	×	굴 속에서 만난 한 노인으로부터 천리용총마를 얻음

강창고서 「인귀정동」과 국립도서관본 계열 「설인귀전」의 병기 획득 모티프에서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③ 단락 정도뿐이다. ①과 ②는 비슷하지만 그 구체적인 양상은 다르다. 강창고서 「인귀정동」이나 국립도서관본 계열 「설인귀전」 모두 설인귀가 투군 전 양치기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국립도서관본 계열 「설인귀전」에서는 신 삼고 나무 한 것을 팔아서 연명하는 과정이 확대되어 있다. 또 투군을 위한 노자를 획득하기 위해 외숙모 두씨 집에서 밭을 갈아주는 장면도 국립도서관본 계열 「설인귀전」에서는 소를 몰아서 밭을 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국립도서관본 계열 「설인귀전」의 ② 단락에서 밭을 갈 때 설인귀가 이용하는 소는 ③ 단락에서도 계속적으로 등장한다. 하늘에서 갑자기 바람을 일으키며 밭에 박혔다가 큰 짐승으로 변한 요괴를 보고 소가 벌벌 떨며 가지 않으니 설인귀가 밭을 계속 갈기 위해 짐승을 물리쳤는데 그 결과로 얻은 것이 은갑, 은투구, 방천극이다. 즉, 요괴를 물리치는 장면에서 소가 한 중요한 모티베이션을 제공하는 것이다.

아시아에서 양을 치는 문화권은 유목 생활권에 위치한다. 우리나라처럼 논농사를 주로 하는 지역에서는 밭을 갈 때도 쟁기를 달아 소를 몰 정도로 소를 더욱 중요시 한다. 국립도서관본 계열 「설인귀전」의 ② 단락에 소가 등장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농업 문화와 관련이 있다. 국립도서관본 계열 「설인귀전」

에서 원작의 영향으로 설인귀가 투군 전의 생계유지 수단으로 양치기를 하는 장면이 등장하지만, 향유층은 이것이 우리나라의 실정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국립도서관본 계열 「설인귀전」의 ② 단락에서 소가 중요한 한 기능을 맡고 있는 것도 이 때문으로 생각된다. 파주 지역에 전승되는 설인귀 전설 속에서도 하나 같이 투군 전 생계 유지, 병기 및 용마 획득 장면에서 소가 중요한 기능을 맡고 있다. 반면 강창고서 「인귀정동」의 ① 단락에 등장하는 양은 중국적인 색채가 강한 양치기 장면으로 끝난다. ②·③·④의 어느 단락에서도 소가 중요한 서사적 계기를 제공하는 매개체로 등장하는 항목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다. 강창고서 「인귀정동」을 변안하는 과정에서 소를 서사전개의 중요한 한 동인으로 편입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그 소재의 원천은 설인귀가 밭을 갈 때 소를 몰다가 갑주를 얻는 설인귀 전설에 기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④의 용마 획득 단락은 강창고서 「인귀정동」에는 아예 없고 국립도서관본 계열 「설인귀전」에만 등장한다. 그런데 이 용마 획득 단락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기장수 전설의 서사구조적 전통에 기대고 있는 설인귀 전설 속에서 풍부한 세부적인 서사와 함께 중요하게 부각되어 있다. 위의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립도서관본 계열 「설인귀전」에서는 이 용마 획득 단락을 각각 중요한 한 장면으로 확대하고 있다. 남보다 탁월한 비범함을 지니고 있으나 이를 발휘하지 못하고 남의 집 더부살이를 하는 설인귀가 군대 입격 후 영웅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되기까지의 인과성을 부여하기 위한 장치로서 중요하게 다룬 것으로 보인다. 국립도서관본 계열 「설인귀전」의 성립 과정에서 아기장수 전설로부터 용마 모티프를 계승한 설인귀 전설과의 교섭이 긴밀히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설인귀 전설과 국립도서관본 계열 「설인귀전」 사이의 상관관계가 설인귀 전설과 강창고서 「인귀정동」 사이의 상관관계 보다 상대적으로 본질적인 친연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앞서 제시한 국립도서관본 계열 「설인귀전」의 형성과정에 대한 가설 중 세 번째 항목은 그 성립 근거가 약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 것은 독자적으로 형성된 설인귀 전설이 「설인귀정

동」 42회본의 번안과정에 유입되어 국립도서관본 계열 「설인귀전」 계열처럼 「설인귀정동」 42회본과 전혀 다른 내용을 포함한 계통도를 확립하는 첫 번째 패턴이다. 이 가설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설인귀 전설에서 설인귀의 영웅일대기로 이행되는 독자적인 이야기의 유통 경로가 「설인귀정동」 42회본의 수입 이전에 존재했으며, 이러한 형태로 향유된 설인귀의 영웅일대기가 「설인귀정동」 42회본의 번역 및 번안 과정에 영향을 미친 결과 국립도서관본 계열 「설인귀전」이 파생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의 자료를 통해 이 가설을 확인해 보자.

- A. 전기수(傳奇叟)는 동문 밖에 살았는데, 「숙향전(淑香傳)」, 「소대성전(蘇大成傳)」, 「심청전(沈淸傳)」, 「설인귀(薛仁貴)」와 같은 연문 이야기를 구연하였다.⁸⁾

A는 18세기 전문 이야기꾼인 전기수가 소설을 구연하는 장면을 조수삼이 기록해 놓은 독서문화사에 해당하는 자료이다. 「설인귀전」과 관련한 최초의 기록인 동시에 고소설에 대한 최초의 향유기록이기도 하다. 전기수가 구연한 「설인귀」란 작품의 정체는 전기수가 구연한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작품이 언과패설(諺課稗說), 즉 우리말로 된 이야기 범주에 들어간다는 점에서 「설인귀」라고 지칭한 작품은 「설인귀정동」 42회본의 원작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 「설인귀」가 소설 작품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영웅소설의 일대기구조를 갖춘 형태였다면 그것은 번역본 「설인귀전」이나 국립도서관본 계열 「설인귀전」에 해당한다.⁹⁾

8) 趙秀三, 「奇異」, 『秋齋集』, “傳奇叟, 叟居東門外, 口誦諺課稗說, 如淑香傳, 蘇大成傳, 沈淸傳, 薛仁貴.”

9) 한편,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설인귀」라는 작품명에 「숙향전」이나 「소대성전」, 「심청전」처럼 ‘전(傳)’이란 명칭이 붙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傳’이란 명칭은 설화의 형태로 구비 전승되는 이야기를 소설적인 구성을 갖춘 한 편의 작품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전기수가 강담(講談)을 하는 구연의 마당에서

Ⅲ. 국립도서관본 계열 「설인귀전」의 향유방식에 나타난 한·중 역사인식 비교

한·중 고·당 전쟁 문학의 대표작인 「설인귀전」은 우리민족의 영웅인 연개소문이 중국의 영웅인 설인귀의 손에 죽는다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민족의식 측면의 딜레마를 안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다음과 같은

는 기록된 작품이 이야기로 다시 풀리는 향유 양상을 보여주지만, 그것은 일단 18세기 당시 소설 향유층이 고소설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전형적인 구성을 확립한 뒤에 그것을 구현하는 것으로 향유의 패턴이 다른 차원에 입각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설인귀」라고 쓴 작품명이 「설인귀정동」 42회본을 번역한 소설 작품을 가리킨다면 마땅히 「설인귀전」이라고 기록했어야 한다. 「숙향전」, 「소대성전」, 「심청전」에서는 ‘傳’이란 명칭을 붙여서 한 편의 고소설 작품으로 지칭했으면서, 굳이 「설인귀전」의 경우에는 그냥 「설인귀」라고 쓸 하등의 이유가 없다. 만약 전기수가 강담의 대본으로 한 것이 「숙향전」, 「소대성전」, 「심청전」처럼 고소설의 전형적인 구성을 갖춘 것이었다면 특별한 구분 없이 「설인귀전」이라고 썼을 것이다. 조수삼이 굳이 「설인귀」라고만 쓴 이유는 전기수가 「숙향전」, 「소대성전」, 「심청전」을 강담할 때와는 다른 구연의 상황이 연출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예컨대 「숙향전」, 「소대성전」, 「심청전」을 구연할 때는 대본에 해당하는 고소설 작품을 옆에 끼고 했다면, 「설인귀전」의 경우에는 전기수가 구전설화를 바탕으로 그냥 이야기를 단편적으로 엮어 냈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 고소설의 전형적인 영웅 일대기 구조로 딱 짜인 이야기가 아니라 단편의 에피소드를 상황에 따라 이어붙인 구연의 형태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때 구연의 내용은 국내에 전승되는 다수의 설인귀 전설을 열거설기 짜집기한 형태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 물론 「설인귀정동」 42회본을 번역한 「설인귀전」의 초기 단계를 얻어들은 것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번역한 초기의 것을 전해 듣고 구전으로 옮기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원전이 엄연히 존재한다. 원전이 존재하는 것을 번역한 것의 본질은 이야기가 아니라 소설을 이야기로 해체한 것일 뿐이다. 전기수가 이야기 한 것을 「설인귀」라 하여 굳이 「설인귀전」과 구분했다면 그것은 구연된 내용이 「설인귀정동」 42회본을 번역한 「설인귀전」과는 다른 계열의 이야기에 바탕 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나라 구비전설 향유층 사이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하여 전승된 설인귀 전설에 기반 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비록 소설로 완성된 것을 이야기로 풀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숙향전」, 「소대성전」, 「심청전」 등과 같은 차원에서 거론되었다면 그 구체적인 양상은 단편적인 구비전설 그대로가 아니라 여러 편의 전설 텍스트를 설인귀의 일대기에 맞게 구조화 하여 이어붙인 것으로 자체내적으로 소설화의 경로를 밟고 있는 원시적인 형태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두 가지 가설을 제기할 수 있다. 첫 번째 가설은 고구려의 영웅인 연개소문이 중국 역사상 최고의 영웅으로 손꼽히는 이세민을 혼내는 일부의 장면을 통해 같은 민족의 구성원으로서 집단적인 통쾌감을 느끼는 민족의식의 차원이다. 두 번째 가설은 원본, 번역본, 번안본을 초월하여 국가간의 대규모 전쟁과 영웅의 무용이 주는 군담에 대한 독자의 순수한 흥미의 차원이다. 이 가설은 통일신라 성립 이후에 고구려에 대한 민족의식이 일반 민중에게서 희박했었을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¹⁰⁾ 이러한 두 가지 가설은 모두 연개소문을 중심으로 민족문제의 아이러니를 해결하고자 하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일단 첫 번째 가설부터 생각해 보자. 「설인귀정동」 42회본과는 달리 국립도서관본 계열 「설인귀전」에서 연개소문이 당태종을 핍박하거나 그의 부도덕함을 논리적으로 비판하며, 항복문서를 쓰게 하는 장면을 부각시킴으로써 민족의식을 중심으로 한 딜레마를 해소하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연개소문이 당 정벌의 이유를 밝힌 전쟁 선고문의 내용과 당태종을 추격하여 항복 문서를 강요하는 장면 비교를 통해 이러한 양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자.

B-① 面刺東海不齊國高句麗大將蓋蘇文，把總崔兵都元帥，先鋒掛印獨稱雄，幾欲興兵離大海，三番與義至長安，今年苦不來進，貢明年就與兵，生擒敬德秦叔寶，活捉長安大隱軍，戰書寄到南朝去李世民。¹¹⁾

② 당덕종이 지물을 탐하고 식을 조히 너기노도다 형을 죽이고 아비를 후궁에 가도와 시니 조선왕은 자서이보라 너 명년 팔월노

10) 고구려의 멸망 이후 그 유민을 규합한 발해가 고구려의 고토에 성립함으로써 통일신라는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와 남북에서 대치하는 상황에 돌입하게 되었다. 삼국통일 이후 발해의 남침이라는 새로운 군사적인 위협에 직면하게 된 통일신라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호국 의식을 강화해 나갔는데, 발해가 고구려의 계승국임을 대내외적으로 강조했다는 점에서 발해에 대한 통일신라의 적대적인 의식은 곧 반고구려의식과도 상통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발해에 대한 통일신라의 저항의식에 관해서는 정우영의 앞의 논문을 참조하기 바람). 통일신라가 고구려에 대하여 동일한 민족이라는 의식을 지니지 않았다는 본고의 관점은 이러한 당대의 역사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다.

11) 1986, 『薛仁貴征東』, 『征東·征西·掃北』, 대북문화도서관사, 102쪽.

중원을 함몰하고 니세민은 버혀 천하의 효시하리라.¹²⁾

C-① 蓋蘇文道, 唐王爾體想性命了, 遂想道, 不如今日逼他, 寫了降表, 然後發箭射死他, 豈不妙哉, 心中算計已定, 叫一聲, 唐王爾命在順叟, 還不自刎, 首級不來 ……¹³⁾

② 흡소문이 외여왈 니세민아 네 이제 하늘노 오르며 썩호로 들쇼
나 수면 턴지의 뇨병이 천첩이오 알희 디강이 있고 놀을 당히리
업는지라 일즉 항복하라 하고 술을 먹여 보니 시위 소리를 응하
야 혼술이 느라와 티종의 몸의 박이느니라 티종이 티경하사 술
을 싸히고 발노 말을 구르시니 말이 놀라 물의 빠져 나오지 못
하느니라.¹⁴⁾

B는 연개소문이 당 정벌의 이유를 밝힌 전쟁 선고문이다. 「설인귀정동」 42회본인 B-①과 비교해 보면 국립도서관본 계열 「설인귀전」인 B-②에서 연개소문의 당 정벌의 변이 논리적·합리적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연개소문의 캐릭터가 보다 긍정적으로 형상화 되는 변이를 보여주고 있다.

C는 연개소문이 당 태종을 추격하면서 뺨박하여 항복할 것을 권고하는 장면이다. 여기에는 연개소문이 활을 쏘아서 당태종에게 맞추는 장면이 삽입되어 있는데, 이와 비슷한 어떠한 장면도 중국의 고·당 전쟁 문학인 「설인귀정동」 42회본에는 들어있지 않다. 국립도서관본 계열 「설인귀전」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장면이다.¹⁵⁾ 당연히 『신구당서』, 『자치통감』과 같은 중국의 정사 기록은 물론 우리나라의 정사 기록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장면은 우리나라의 야사 기록을 비롯하여 사대부 지식인들의 문헌설화에 등장하는 양만춘 고사와 그 열개가 거의 비슷하다. 안시성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돌아가는

12) 「설인귀전단」, 앞의 책.

13) 1986, 「薛仁貴征東」, 『征東·征西·掃北』, 대북문화도서공사, 201쪽.

14) 「설인귀전단」, 앞의 책.

15) 「설인귀전」 권1, 국립도서관 소장본, 13쪽; 「설인귀전」 권2, 영남대학교 도서관 소장본, 18쪽; 「설인귀전」, 박순호 소장본, 『한글필사본 고소설자료총서』 23, 319쪽; 「설인귀전」, 나손본, 『경인고소설판각본전집』, 439쪽.

당태종에게 양만춘이 화살을 쏘아 그 눈을 맞췄다는 이야기로, 양만춘의 캐릭터에 연개소문만 대입하면 그 내용이 동일하다.

D-① 문정공(文靖公) 이색(李穡)의 「정관음(貞觀吟)」시에 다음과 같이 읊고 있다. “주머니 속 물건처럼 쉽게 생각했는데, 화살 맞아 눈이 빠질 줄 어찌 알았으리오.” 여기서 현화(玄花)는 눈을 말한 것이요, 백우(白羽)는 화살을 말한 것이다. 당태종이 고구려를 칠 때 안시성에 이르러 눈에 화살을 맞고 돌아갔다고 세상에 전하나 『당서(唐書)』, 『자치통감(自治通鑑)』에 그런 사실이 실려 있지 않고, 다만 유공권(柳公權)의 「소설(小說)」에 태종이 처음에 고연수(高延壽)·고혜진(高惠真)이 발해의 군대를 이끌고 40리에 걸쳐 진을 친 것을 보고 두려워 하는 기색이 있었다고 했으나 당태종이 눈을 다쳤다고 말한 적은 없다. 서거정(徐居正)은 이렇게 생각했다. 당시에 설사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관(史官)이 중국을 위해 사실을 숨겼을 것이니 기록하지 않았다 해서 이상할 것은 없다. 다만 김부식(金富軾)의 『삼국사기(三國史記)』에도 그런 기록이 없으니 목은(牧隱)은 어디서 이 이야기를 얻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¹⁶⁾

② 안시성주가 당태종의 정예병에 대항하여 마침내 외딴 성을 보전하였으니 그 공이 크다 하겠다. 그러나 그의 이름이 전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서적이 드물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고구려 때 사적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 임진왜란 뒤에 중국의 장관으로 우리나라에 원병 나온 오종도(吳宗道)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안시성주의 이름은 양만춘(梁萬春)으로 『당태종동정기(唐太宗東征記)』에 보입니다.” 얼마전엔 감사 이시발(李時發)을 만났더니 이렇게 말했다. 일찍이 『당서연의(唐書衍義)』를 보니 안시성주는 과연 양만춘이었으며 그밖에 안시성을 지

16) 徐居正, 『大東野乘』 卷三, 「筆苑雜記」 卷二, “李文靖公穡貞觀吟曰, 謂是囊中一物耳, 那知玄花落白羽, 玄花言其目, 白羽言其箭, 世傳, 唐宗伐高麗至安市城, 箭中其目而還, 考唐書通鑑皆不載, 但柳公權小說, 太宗初見延壽惠真, 率渤海軍, 布陣四十里, 有懼色, 亦未有言其中傷者, 居正意以謂, 當時雖有此事, 史官必爲中國諱, 毋性乎其不書也, 但金富軾三國史亦不載, 未知牧老何從得此.”

킨 장수가 두 사람이나 있었다.¹⁷⁾

- ③ 안시성주는 조그마한 외딴 성으로 능히 천자의 군대를 막아냈으니 세상에 보기 드문 주략(籌略)일 뿐만 아니라, 성에 올라 작별인사 하는데 말에 여유가 있고 예의가 발랐으니 참으로 도를 아는 군자이다. 아깝게도 사서에 그의 이름이 전하지 않더니 명나라 때에 이르러 『당서연의(唐書演義)』에 그의 이름을 양만춘이라 하였다. 어느 책에서 찾아냈는지 알 수 없으나 안시성의 공이 책에 빛나고 있다. 이름이 유실되지 않고 전해졌더라면 『통감강목(通鑑綱目)』이나 『동국사기(東國史記)』에 응당 실려 있어야 할 것이다. 어찌 수백년이 지난 후 연의에 나오겠는가. 믿을 수 없는 일이다.¹⁸⁾

D-①은 서거정(徐居正)의 『필원잡기(筆苑雜記)』에 나오는 기록이다. 서거정이 기록한 양만춘이 당태종의 눈을 화살로 맞췄다는 이 고사와 같은 내용이 이후 이익(李瀾)의 『성호사설(星湖僞說)』,¹⁹⁾ 신광수(申光洙)의 『관서악부(關西樂府)』,²⁰⁾ 김창흡(金昌翕)의 「천산시(千山詩)」²¹⁾에 지속적으로 나온다. D-②는 윤근수(尹根壽)의 「월정만필(月汀漫筆)」에 나오는 기록이다. D-①과는 달리 양만춘이 활을 쏘아 당태종의 눈을 맞췄다는 고사의 내용은 나오지 않으나 양만춘이 당태종의 대군에 대항하여 안시성 전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기술을 하고 있다. D-①과 D-②는 한·중의 역사서에 그 이름이 전하지

17) 尹根壽, 1982, 『大東野乘』 卷57, 「月汀漫筆」, 민족문화추진회, “安市城主抗唐太宗精兵, 卒全孤城, 其功偉矣, 姓名不傳, 我東之書籍鮮少而然耶, 抑朱氏時無史而然耶, 壬辰亂後, 天朝將出來我國者, 有吳宗道謂餘曰, 安市城主姓名梁萬春, 見太宗東征記云, 頃見唐書衍義則安市城主果是梁萬春, 而又有他人守將凡二人云.”

18) 『大東野乘』 권72, 「浣溪記聞」, “安市城主以最爾孤城, 能抗王師, 不特籌略不世, 登城拜辭, 詞氣從容, 得禮之正, 實聞道君子也, 惜乎史失其名, 至明時唐書演義, 出表其名爲梁萬春, 未知得之何書, 安市之功輝映簡策, 苟非明不失傳, 通鑑綱目及東國史記, 不應并遺, 豈待數百年, 始出於衍義耶, 殆不可信也.”

19) 李瀾, 『星湖僞說』 萬物篇, 「木弩干步」, “唐太宗東征, 爲流矢所中目盲, 史官諱之, 故牧隱詩有誰知白羽落玄花之句, 麗末必有文考故云爾.”

20) 申光洙, 『關西樂府』, “虬髯客是蓋蘇文, 句引東來大國軍, 留與高麗學士話, 玄花白羽笑唐君.”

21) 金昌翕, 「千山詩」, “千秋大膽楊萬春, 箭射虬髯落眸子.”

않는 양만춘의 존재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역사서에서 양만춘 고사를 숨긴 것을 패배한 전쟁에 대한 역사적 콤플렉스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민족주의에 입각하여 중국의 역사의식을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D에서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양만춘이 활을 쏘아 당태종의 눈을 맞췄다는 고사가 설인귀 고사를 소설화 한 중국의 고·당 전쟁 문학 속에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설인귀정동」 42회본을 비롯하여 설인귀를 주인공으로 한 중국의 고·당 전쟁 문학에서는 이러한 양만춘의 고사가 나오지 않는다. D-②와 ③에서 밝히고 있는 것과 같이 중국 자료 속에서 이 양만춘의 고사가 등장하는 것은 『당서연의』가 최초이다. 『당서연의』는 명나라 때 창작된 작품으로 『신구당서』나 『자치통감』에 기록되어 있는 당나라의 역사에 약간의 허구를 삽입하여 연의한 것이다. 거의 역사기록에 가까운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양만춘의 고사라는 것이 고·당 전쟁을 시종일관 당나라가 압도한 것처럼 서술하고 싶은 중국의 역사의식에 치명타를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나라 당대의 문학 작품 속에서는 나오지 않다가 오랜 시기를 지나 명나라 때에 와서야 이 고사를 등장시킨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고·당 전쟁 문학을 제외한 작품 속에서 이루어진 것에 한정된다. 고·당 전쟁을 형상화 한 중국의 어떠한 문학 작품 속에서도 양만춘의 고사는 등장하지 않는다. 고·당 전쟁에 대한 중국의 역사인식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립도서관본 계열 「설인귀전」에서 원작인 「설인귀정동」 42회본에도 없는 양만춘 고사를 연개소문의 에피소드로 변형하고 있는 것은 철저히 우리나라의 민족주의적인 역사인식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고·당 전쟁 문학을 원작으로 하면서도 이를 우리나라의 민족적인 입장에서 재해석한 결과가 양만춘의 고사 변형이라는 것이다. 이는 작가의 창작의식의 관점에서 보자면 자국의 패배를 부정하고 압도적인 승리로 윤색하고자 하는 중국의 역사인식에 대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민족의 영웅인 연개소문이 중국의 천자인 당태종을 압도하는 장면을 통해 독자에게 민족적인 자부심과 통쾌감을 선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고구려가 우리나라 고대사의 일

부이고 연개소문이 그 고구려의 영웅임을 아는 독자에게 있어서 고·당 전쟁 문학에 나타난 전쟁이란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의 대리전처럼 인식되었을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 연개소문은 민족을 대표하여 대리전을 치르는 전사처럼 받아들여졌을 것으로 보인다. 국립도서관본 계열 「설인귀전」에서 양만춘 고사를 변형하여 연개소문의 영웅적인 면모를 과시하는 동시에 당태종을 왜소화 시키고 있는 것은 민족주의를 내세워 고·당 전쟁의 역사적 의미를 이해하는 독자의 구미를 맞추고자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연개소문의 영웅화에 비례하여 당태종을 희화화 시키는 국립도서관본 계열 「설인귀전」에 나타난 변이는 고·당 전쟁에 대한 역사적 사전 지식을 보유한 작가와 독자, 즉 향유층을 전제로 할 때 설명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고·당 전쟁 문학으로서의 「설인귀전」의 향유의식을 이처럼 민족의식의 차원으로만 보기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남는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향유된 작품이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중국의 고·당 전쟁 문학으로서의 「설인귀전」을 변개한 국립도서관본 계열 「설인귀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해 볼 수 있다. 지식인층에서는 한문으로 된 「설인귀정동」 42회본 외에 중국의 고·당 전쟁 문학으로서의 「설인귀전」에 속하는 여타의 작품들을 읽었을 것이며, 국문 독자층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설인귀정동」 42회본을 거의 직역하여 축약한 구활자본을 비롯한 여타의 이본들이 두루 유통되었기 때문이다.²²⁾ 한문이라는 문자 해독의 한계 때문에 「설인귀정동」 42회본을 비롯한 중국의 고·당 전쟁 문학으로서의 「설인귀전」은 논외로 하더라도, 민중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문소설 독자층 사이에서 민족의식을 상대적으로 부각시킨 국립도서관본 계열 이외의 작품들도 충분히 상업적인 인기를 구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민족의식 고취만으로는

22) 「설인귀정동」 42회본을 그대로 직역하여 축약한 이본에는 연세대본, 이화여대본, 구활자본이 있다. 이 중에서 상업적인 유통망을 확보한 구활자본에만도 동미서시본, 경성서적조합본, 신구서림본의 3종이 존재한다. 구활자본만 고려한다 하더라도 「설인귀정동」 42회본이 그 자체로 충분히 상업성과 대중성을 갖추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고·당 전쟁 문학으로서의 「설인귀전」이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끌었던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연개소문이 당태종을 폄박하는 장면은 번역본, 번안본이 아닌 「설인귀정동」 42회본에서도 강조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사실이다. 연개소문이 당태종을 활로 쏘아 맞히거나 당태종을 왜소화·희화화 시키는 장면을 제외한다면, 연개소문의 영웅적인 면모를 부각시키는 형상화의 방식은 국립도서관본 계열 「설인귀전」 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연개소문이 당태종의 부도덕함을 논리적으로 비판하거나 그를 일방적으로 폄박하는 장면의 확대는 민족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하여 고·당 전쟁을 포함한 고구려의 역사와 동북아시아 고대사의 전개 양상에 대한 지식이 있는 지식층에 의한 번역 과정에서 첨가된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중국의 고·당 전쟁 문학으로서의 「설인귀전」에서도 연개소문은 무용과 지략이 초월적인 인물로 등장한다. 다음의 자료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해 보기로 하자.

E-① 일원 대장이 나오는데 키가 십척이요, 강사복을 걸치고 적군 마를 타고 허리에는 두 활을 차고 등에 비도 다섯 자루를 메었 사운데 바로 고구려의 용장 갈소문이었습니다.²³⁾

② 일원 대장을 앞세워 나오는데 머리에는 삼차자금관을 쓰고 몸에는 강사복을 걸쳤다. 대한도를 비스듬히 들고 좌우로는 두 개의 활을 찻으며 등에는 비도 다섯 자루를 메고 있다. 그는 진 앞에 나와 병기를 휘두르며 “내가 막리지 갈소문이다!”라고 자신 만만하게 소리쳤다. 동쪽 진에서 막리지가 나오자 당병이 함성을 질렀다. 한 고구려 장수가 나오는데 머리에 삼차자금관을 쓰고 단화강사복을 몸에 걸치고 청동언월도를 휘둘렀다.²⁴⁾

③ 형을 어전에서 살해하고,

23) 「薛仁貴征遼事略」, 1쪽, “捧一員將, 身長一丈, 披絳獅服, 跨赤虬馬, 腰掛兩鞬弓, 身背飛刀五口, 乃高麗虎將葛蘇文也.”

24) 「薛仁貴征遼事略」, 3쪽, “陣前捧一員將, 頂三叉紫金冠, 披絳獅服, 橫一柄大桿刀, 跨赤虬馬, 左右帶兵器兩鞬弓, 身背飛刀五口, 陣前輝武自言, 吾乃莫離支葛蘇文也, 東陣上莫離支出馬, 唐兵皆納喊, 遼將頂三叉紫金冠, 披團花絳獅服, 橫青銅偃月刀.”

부왕을 후궁에 가두다.
장수는 늙고 병사는 교만하니,
큰 일은 이루지 못하리라.²⁵⁾

E-①은 「설인귀정동」 42회본과 같은 계열에 속하는 중국 고·당 전쟁 문학인 「설인귀정료사략(薛仁貴征遼事略)」의 도입부에 해당하는 장면으로 연개소문에게 핍박을 당한 백제의 사신 창흑비(昌黑飛)가 당태종을 찾아와 하소연을 하는 부분이다. 창흑비는 당태종에게 올릴 공물을 가지고 고구려를 거쳐 지나가는 도중에 연개소문을 만나 공물을 강탈당했을 뿐 아니라 고문을 당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창흑비의 언급 속에서도 연개소문의 모습은 천하의 당당한 영웅으로 묘사되고 있다. 심지어 E-①에서는 서사전개상에서 연개소문으로부터 고문을 당한 창흑비마저도 그를 고구려의 용장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E-②는 당태종의 꿈에 나타난 연개소문의 모습을 형상화 한 장면이다. 연개소문의 영웅적인 면모를 행동거지와 옷차림, 병기, 무용을 통해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설인귀정료사략」이 중국의 고·당 전쟁 문학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사람이 묘사한 장면이라고 해도 어색함이 거의 없다. 연개소문의 영웅적인 면모에 대한 인정은 한중의 역사 기록서에서도 일치하는 부분이어서 중국의 정사인 『신구당서』²⁶⁾나 우리나라의 정사인 『삼국사기』²⁷⁾에서도 E-①·②의 「설인귀정료사략」과 같은 내용을 찾을 수 있다.

한편 E-③은 「설인귀정료사략」에서 연개소문이 창흑비의 얼굴에 새겨 당태종을 비판한 내용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E-③의 내용이 국립도서관본 계열 「설인귀전」에서 연개소문이 당태종에게 보낸 침략의 변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이다. ‘살형수부(殺兄囚父)’, 즉 정당한 왕위 계승

25) 「薛仁貴征遼事略」, 3쪽, “殺兄前殿, 囚父後宮, 將老兵驕, 不堪成事.”

26) 『舊唐書』, “鬚貌甚偉, 形體魁傑, 身佩五刀, 左右莫敢仰視”; 『新唐書』, “貌魁秀, 美鬚髯, 冠服皆食以金, 佩五刀, 左右莫敢仰視.”

27) 『三國史記』 卷49, 列傳 第9, “儀表雄偉, 意氣豪逸 …… 身佩五刀, 左右莫敢仰視.”

자인 형을 죽이고 부왕을 후궁에 가둔 반인륜적인 행위를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글자 하나 틀리지 않다. 여기에 중원을 치겠다는 대목만 덧붙이면 E-③에서 연개소문이 당태종을 도발한 비판의 내용은 국립도서관본 계열 「설인귀전」에 등장하는 연개소문의 당나라 침략의 변과 전후로 완전히 동일한 내용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볼 때, 중국의 고·당 전쟁 문학으로서의 「설인귀전」까지 포함하여, 국립도서관본 계열이 아닌 「설인귀전」에 대한 우리나라 독자층의 향유의식 역시 민족의식의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에피소드별로 분절화되어 있어서 각 장면의 독립성이 극대화 되어 있는 중국 연의소설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의 독자층이 연개소문의 영웅성을 극대화한 장면에 보다 집중하거나, 그러한 장면들을 취택하여 연결하는 동시에 의미화 하는 무의식적·의식적 독서과정의 연쇄를 상정할 수 있다. 중국의 연의소설 양식을 우리나라의 영웅소설의 일대기 구조로 축약한 작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의 영웅소설의 일대기 구조 역시 주인공의 시련, 성공 등 독자층을 견인하는 각기 다른 미의식의 차원이 각 서사단락마다 극대화 되어 있는 장면화와 분절화의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연개소문을 중심으로 한 민족의식 고취를 위해 각 장면을 변형하여 수렴한 국립도서관본 계열 「설인귀전」이 아니라 하더라도 연개소문의 영웅적인 면모를 부각시켜놓은 원작을 번역한 장면만으로도 어느 정도까지는 민족의식 차원의 독서 쾌감을 맞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오히려 문제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제기될 수도 있다. 왜 중국의 고·당 전쟁 문학 속에서 적국의 장수, 즉 우리민족의 영웅인 연개소문의 영웅적인 면모를 이토록 강조해 놓았을까 하는 것이다. 중국의 고·당 전쟁 문학으로서의 「설인귀전」은 연개소문 대 당태종·설인귀의 적대적 대립 노선을 중심으로 서사를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선악 대비 구조를 골자로 하는 우리나라 고소설의 미의식적 차원에서 본다면 당태종은 히어로이고, 반면 연개소문은 안티히어로이다. 안티히어로를 영웅적인 인물로 묘사하지 않는 우리나라 고소설의 관습 속에서 보자면 오히려 자국 영웅의 적대자에 해당하는 연

개소문의 웅재대략을 부각시켜놓은 중국 고·당 전쟁 문학의 향유의식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 차원이다. 첫째는 어쨌든 궁극적인 승패의 승리자는 당태종이며, 무용과 지략으로 연개소문을 패배시킨 것은 당나라 장수인 설인귀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소소한 패배 자체는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대국의 스케일 과시이다. 중요한 것은 최종적인 승리자인 당나라인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천자의 소소한 위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중국의 연의류가 자국을 중심으로 한 역사를 재구성하고 그로부터 대국의 자부심을 확인하는 동시에 소설적인 흥미를 배가시키는 방법으로 이미 『삼국지연의』로부터 발전시킨 것이기도 하다. 예컨대 제갈공명의 최종적인 승리가 확인되어 있는 남만 왕과의 전투 에피소드 속에서, 제갈공명에게 일곱 번 사로잡히면서도 풀려나는 족족 그의 군대를 괴롭혔던 남만왕의 끈질김을 강조해주는 동시에 제갈공명의 소소한 패배를 반복함으로써 역사연의의 허구적 흥미를 부각시키는 것과 같은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적국의 장수라 하더라도 소소한 몇 번의 전투에서 천자를 궁지로 내몬 능력을 인정해 준다는 사고방식이다. 적국의 장수라 하더라도 인정할 것은 인정해준다는 대국의 포용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의식의 소산인 것이다. 1차 고·당 전투에 해당하는 안시성 싸움을 당나라 승리와 연개소문 및 양만춘에 대한 당태종의 상급 하사로 마무리 한 것도 역사적인 사실을 조작해서라도 대국의 포용력을 과시한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삼국지연의』 속에서 조조가 몇 번의 전투에서 자신에게 치명타를 가할 정도로 능력이 있는 장수인 관운장이 끝까지 자신의 호의를 거부하고 유비를 섬기려 하는 순간에도 예우를 다함을 잊지 않은 것과 같은 차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두 가지 향유의식의 차원, 즉 연개소문의 영웅성 부각을 통한 민족의식의 추구 차원과 군담소설의 순수한 흥미 추구의 차원으로도 해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바로 연개소문의 죽음과 관련된 장면이다. 생시의 연개소문을 천하의 영웅으로 형상화 한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고·당 전쟁 문학으로서의 「설인귀전」에서는 연개소문의 죽음 역시 일정정도 미화해주는 측

면이 있다. 이는 「설인귀정동」 42회본을 직역하여 축약한 우리나라의 고·당 전쟁 문학 속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중국의 독자가 중국의 고·당 전쟁 문학으로서의 「설인귀전」을 향유하는 의식과 우리나라의 독자가 중국의 원본 및 번역본을 향유하는 의식은 분명히 다른 차원에 입각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여타의 부분에서 연개소문의 영웅성을 미화하는 방향으로 원작을 변개한 국립도서관본 계열 「설인귀전」에서 오히려 연개소문의 죽음에 대한 배려가 나타나 있지 않다는 사실에 있다. 다음의 예문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F-① 仁貴道, 非本師要你性命, 不肯放松, 只是你自已不是, 不該下戰書到中原, 得罪天子, 天子恨你切齒, 記在心, 包在本師身上, 要你這顆首級, 我不得不取汝性命了, 蓋蘇文所了這話, 心中懊悔不及, 長歎一聲, 罷了罷了, 此乃天數判定, 該應傷於你之手了, 與你這頭罷, 遂把赤銅刀, 望頸項下一勾, 頸落在水, 仁貴把戟挑起, 挂於腰中, 見蘇文頸上呼, 一道風聲送起, 現出一青龍, 把眼一閉, 頭一答, 竟望西方而去, 鮮血一冒, 身子落在水底.²⁸⁾

② 설인귀 왈 니 굿터어 네의 성명을 살히코져 호미 아니라 중원 전서를 보닐 썩에 스의 설만호미 심흔 고로 턴즈 진로하사 너의 슈급을 취하라 하시니 니 임이 슈명호얏느지라 엇지 사사로이 요디호리오 함소문이 말을 듯고 일성 장탄왈 이놈 턴쉬니 도망키 어려온지라 엇지 네 손에 옥을 바드리오 호고 적강도를 들어 칼집에 쏘고 수둔법을 호야 흔적 업시 다라나이라.²⁹⁾

③ 인귀 크게 불너 왈 노적은 닛지 말나 호고 활을 다려 쏘니 시위를 응호여 함소문이 말기 썩러지거늘 다라드러 머리를 버혀들고 적진을 함몰호고 도라와 태종귀 슈급을 드린다.³⁰⁾

F-①은 「설인귀정동」 42회본이다. 여기서는 연개소문이 비열하게 항복

28) 「薛仁貴征東」, 앞의 책, 104쪽.

29) 「백포소장 설인귀전」, 동미서시본, 63쪽.

30) 「설인귀전단」, 앞의 책, 440쪽.

을 구하거나 설인귀에 의해 목이 떨어지는 비참한 방식으로 묘사되는 것이 아니라 자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살은 패배는 했으되 뛰어난 능력을 지닌 상대방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방식으로, 고대의 전쟁 국가 상호간에 관습적으로 유지되던 일종의 예의 같은 형태로 존재했다. 연개소문이 비록 적국의 장수이기는 하나 탁월한 능력을 지닌 인물인 만큼 죽는 장면에서도 그 위엄을 유지해 주고자 한 것이다. 연개소문의 목이 끊어진 자리로부터 바람소리와 함께 청룡 한 마리가 서방으로 날아갔다고 묘사한 부분에서는 신비주의 색채를 동원하여 그 목이 떨어지는 장면의 사실적인 묘사를 피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준다.

F-②는 F-①의 「설인귀정동」 42회본을 번역한 구활자본이다. 여기서는 아예 연개소문의 죽음을 직접 언급하지 않는다. 다만 수둔법으로 달아나는 것으로 그리고 있다. 연개소문의 죽음에 대한 직접적인 서술을 회피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 연개소문의 생존을 은근히 암시한다. 역사적인 지식으로 볼 때는 이 장면에서 연개소문이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가 죽었다는 언급을 끝까지 피하고 굳이 사라진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죽어서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불멸의 모습으로 승화시키려고 했다고도 볼 수 있다. 이처럼 F-②의 번역본에서 이루어진 변개는 한문을 아는 지식인인 번역자의 민족의식의 발로로, 우리민족의 영웅인 연개소문이 당나라의 일개 장수에 의해 죽음을 당한다는 설정에서 느낄 독자층의 아쉬움을 고려한 배려라고 할 수 있다.

F-③은 국립도서관본 계열 「설인귀전」이다. 이 장면에서 연개소문은 설인귀에 의해서 단칼에 목이 베어지고 있다. 여기에는 어떠한 주저함도 없으며, 연개소문에 대한 미화도 없다. 이는 형상화의 초점이 연개소문이 아닌 설인귀로 이동한 결과이다. 설인귀의 영웅적인 면모를 부각시키려다 보니 연개소문의 죽음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 점이야 말로 우리나라의 고·당 전쟁 문학으로서의 「설인귀전」의 향유의식을 파악하고자 할 때 직면하게 되는 핵심적인 딜레마가 된다. 지금까지 알려있는 바에 따르자면 설인귀는 당나라의 장수로 되어있다. 중국이건 우리나라건 한 편의 고소설로 완성되어 있는 고·당 전쟁 문학으로서의 「설인귀전」에서 이 사실은 변함이 없다.

설인귀와 마찬가지로 당나라 인물로 되어 있는 당태종을 미화하기 위한 시도는 우리나라의 고·당 전쟁 문학으로 존재하는 「설인귀전」의 어떠한 이본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설인귀란 인물에 한해서만 우리나라 고·당 전쟁 문학의 향유층이 특별한 향유의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중국의 고·당 전쟁 문학인 「설인귀정동」에서도 미화되어 있는 연개소문의 죽음이 정작 한국의 고·당 전쟁 문학인 국립도서관본 계열 「설인귀전」에 와서 오히려 그 묘사의 초점이 연개소문이 아닌 설인귀 쪽으로 이동되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까. 연개소문의 죽음 부분에 와서 갑자기 전쟁의 승패가 갈리면서, 적장을 항복시켜서 죽이는 것에 대한 독자층의 흥미를 배가시키기 위해 그 앞부분에서 당태종을 핍박하여 항복문서를 쓰게 할 정도로 당당한 면모를 보여주었던 연개소문을 비참하게 만들었다고 해석해야 할까. 그렇게 보기에는 국립도서관본 계열 「설인귀전」이 아무리 상업적인 목적에 의해 향유되었던 군담소설로 유통되었다 할지라도 개연성이 모자란다. 여기에는 연개소문에 대한 민족의식이나 혹은 군담소설 자체의 흥미 차원이 아닌 제2의 향유의식이 내재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지점에서 우리나라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생성, 전승되어 한국의 고·당 전쟁 문학의 하나로 존재한 설인귀 구비전설과의 관련 맥락을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 국립도서관본 계열 「설인귀전」의 향유방식 속에 내재한 아이러니를 해결하고 그 향유의식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설인귀 구비전설의 향유방식 및 향유의식과의 관계도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G-① 설인귀래는 이가 어디서 낳았느냐 하면은 저기 저 적성 주원군
이라는 데에서 낳아가지구 그리구 감악산에서 공부를 하다가
중국으로 건너가서 그 중국의 그 장수가 된 거야.³¹⁾

② 설인귀가 그 사람이 주원리서 분명히 태어났어.³²⁾

31) 조희웅 외, 「설인귀비가 감악산으로 옮겨간 까닭(1)」, 『경기북부구전자료집(1)』, [동두천설화] 생연2동 한약방, 1999. 5. 21, 조희웅, 조홍욱, 노영근, 박인희 조사, 이윤형, 남·76, 박이정, 299~301쪽.

32) 조희웅 외, 2001, 「백포소장 설인귀」, 『경기북부구전자료집(1)』, [동두천설화2] 생

- ③ 그리고 한 유래를 내가 가만히 얘기하자면은 요 아래 주월리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서 설인귀장군이 출생한 자리여.³³⁾

G는 현재 경기도 파주군에 전승되고 있는 설인귀 구비전설이다. 이 설인귀 전설에서 설인귀는 파주군 적성면 주월리에서 출생한 인물로 형상화되어 있다. 적성면 주월리 사람으로 그 근처에서 갑주와 용마를 얻고 감악산 설인귀굴에서 훈련을 하여 중국에서 장군으로 성공했다가 다시 감악산신이 되었다고 한다. 설인귀 전설의 향유층이 설인귀를 우리나라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파주군 설인귀 전설에서 고·당 전쟁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전쟁의 국적 여부는 애매하게 처리되어 있다. 설인귀가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고구려를 멸망시킨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민족 출신인 설인귀가 같은 민족인 고구려를 멸망시킨다는 민족의식상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아예 설인귀를 고구려 장군으로 지칭하기도 한다.³⁴⁾ 이는 민족의식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아이러니를 해결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 설화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국립도서관본 계열 「설인귀전」은 설인귀를 우리민족으로 인식한 설인귀 전설과의 교섭 양상이 가장 두드러지는 이본군이다. 설인귀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나타나는 국립도서관본 계열 「설인귀전」이 하필 그 형성 과정 속에서 설인귀 전설과의 상호 작용이 확인되는 이본군이라는 사실은 그 향유의식 속에 설화적인 역사인식의 방식이 개입해 있을 가능성을 설정할 수 있게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향유층이 국립도서관본 계열 「설인귀전」을 중국의 고·당 전쟁 문학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고·당 전쟁 문학

연2동 한약방, 1999. 5. 21, 조희웅, 조홍욱, 노영근, 박인희 조사, 이윤희, 남·76, 박이정, 301~303쪽.

33) 조희웅 외, 2001, 「설인귀 전설」, 『경기북부구전자료집(1)』, [적성면설화5] 율포리 노인정, 1999. 2. 9, 조홍욱, 박인희, 조재현 조사, 조평기, 남·65, 박이정, 542~543쪽.

34) “이게 설인귀장군이 그러니깐 고구려 장군이더라구 보니까는”, 조희웅 외, 2001, 「설인귀 전설」, 『경기북부구전자료집(1)』, [적성면설화5] 율포리 노인정, 1999. 2. 9, 조홍욱, 박인희, 조재현 조사, 조평기, 남·65, 박이정, 542~543쪽.

으로 향유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연개소문의 죽음 장면이 아니라 설인귀를 형상화 한 장면 속에서 그에 대한 국립도서관본 계열 향유층이 설인귀를 우리민족으로 인식한 증거를 직접적으로 찾아낼 필요가 있다. 국립도서관본 계열 「설인귀전」에서 설인귀를 우리 민족화 하는 변개의 구체적인 양상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국면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설인귀의 캐릭터 변개이다. 중국의 고·당 전쟁 문학으로서의 「설인귀전」에 등장하는 설인귀는 항상 흰 옷을 입고 빛나는 투구를 쓰고, 붉은 끈으로 장식한 적토마를 타고 방천극을 휘두르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특히 무기와 관련한 설인귀 캐릭터는 방천극(方天戟)으로 상징된다. 당나라 군대에 입격하기 위해 장사귀를 찾아가서도 다짜고짜 강무청(講武廳)에 방천극을 땅에 꽂는 것으로 의지를 피력하는 모습을 연출한다. 중국 고·당 전쟁 문학 속에서 방천극은 일종의 설인귀의 분신처럼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H-① 馬上一箇少年將軍, 素袍瑩鎧, 赤馬朱纓, 擲轉方天戟³⁵⁾

② 捧一員將, 素袍瑩鎧, 赤馬繫纓, 橫方天戟, 聲如哮雷³⁶⁾

H-①과 ②는 「설인귀정료사략」의 전투장면에서 설인귀의 모습이 흰옷을 입고 방천극을 든 형상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장면을 제시한 것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방천극은 『삼국지연의』 속에서 변패가 능숙하게 다루었다고 하는 창으로 지극히 중국적인 무기이다. 방천극을 분신처럼 내세우는 설인귀의 모습은 완전히 당나라 장군으로서의 그것이다. 그런데 의외로 고·당 전쟁 문학 속에서 설인귀가 연개소문을 제압하는 결정적인 장면을 장식하는 것은 방천극이 아니라 활이다. 방천극은 그저 언제나처럼 옆에 끼고 있을 뿐이고 연개소문을 사로잡는 도구는 활이다. 연개소문을 활로 제압하는 설인귀의 형상은 한국 고·당 전쟁 문학에서도 변함이 없다. 연개소문의 제압은 고·당 전쟁을 마무리하는 결정적인 계기로서 클라이막스에 해당한다. 당나라 장군

35) 1957, 『薛仁貴征遼事略』, 상해고전문학출판사, 5쪽.

36) 위의 책, 18쪽.

인 설인귀가 마땅히 이 장면에서 사용해야 할 무기로 기대되는 것은 그의 상징적인 분신인 방천극이다. 게다가 방천극은 은갑주, 천총마와 함께 하늘로부터 전해 받은 것이다. 하늘이 내린 방천극을 받는다는 설정은 당나라 장수로서의 설인귀가 적국인 고구려 장수 연개소문을 제압함으로써 고·당 전쟁을 승리로 이끌 주역이라는 상징이다. 방천극은 중국적인 신물이기 때문이다.

반면 활, 즉 궁전(弓箭)인 다분히 한국적인 상징을 가지고 있다. 활을 잘 쏘는 ‘선사(善射)’의 능력은 동이족, 즉 우리 민족 영웅의 전통적인 표징이다. 고구려의 시조인 주몽이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지칭하는 일반명사인 주몽을 고유명사로 삼았으며, 고구려의 고분 벽화 속 무사의 모습은 깃털 장식이 달린 모자 혹은 투구를 쓰고 역시 깃털 장식이 된 화살이 가득 든 동개[鞬]를 차고 활을 든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 고려 신화에서도 왕건의 조상인 작제건은 악룡을 활로 퇴치하여 왕업의 기틀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조선의 창업주인 이성계도 특히 궁술로 명성이 높았다. 중국 측 고·당 전쟁 문학인 「설인귀정료사략」에서도 연개소문을 동개를 찬 모습으로 형상화 해놓고 있다.³⁷⁾ 우리 신화 체계 속에서 궁술은 우리 민족의 영웅을 상징하는 지표로 관습화 되어 있는 것이다. 이처럼 활이 중국적인 상징이 아니라 우리 민족 고유의 상징일 진대, 다른 장면도 아니고 하필 고·당 전쟁의 승패를 가름하는 결정적인 장면에서 설인귀가 고·당 전쟁의 승리의 주역이라는 표징인 방천극이 아닌 활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애초에 활은 설인귀가 하늘로부터 고·당 전쟁의 주역으로 지목받으면서 부여받은 신물 속에 들어있지도 않다. 설인귀가 연개소문을 방천극이 아닌 활로 제압한다는 설정이 중국의 고·당 전쟁 문학 속에서부터 나타난다는 것은 그의 출신성분이 우리 민족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그런데 고·당 전쟁 문학의 원천적인 기반이 되는 역사기록물인 『신구당서(新舊唐書)』에는 설인귀의 신물로 알려져 있는 방천극이 아예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설인귀의 신물

37) 『薛仁貴征遼史略』, 앞의 책, 58쪽, “莫離支出馬 …… 左右弓掛二鞬, 身背飛刀五口.”

은 방천극이 아니라 화살과 활, 동개이다. 다음의 자료 속에서 이를 확인해보자.

I. 설인귀는 강주 용문 사람이다. 정관 말에 태종이 친히 요동을 정벌할 때에 인귀가 장사귀 장군의 막하에 응모하여 종군할 것을 간청하였다. 안지에 이르러 낭장 유군앙이 적에게 포위되자 인귀가 그를 구출하고 말을 곧장 앞으로 치달려 들어가 적장의 목을 베니 적들이 모두 두려워하여 드디어 인귀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다. 대군이 안시성을 공략하자 고구려의 막리지는 고연수, 고혜진을 보내 군사 25만을 거느리고 대적하게 했다. 산을 등지고 진을 치자 태종은 여러 장수들에게 사면으로 공격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인귀는 자신의 용맹을 믿고 큰 공을 세우려 그 복색을 바꾸어 흰 옷을 입고 손에는 창을 들고 허리에 동개와 화살을 차고 고함을 치며 쳐들어가니 가는 곳마다 당해내는 사람이 없어 적이 초개처럼 쓰러졌다. 그 틈을 타서 대군이 공격하니 적이 대패하였다. 태종이 멀리서 이를 바라보고 선봉에게 흰옷 입은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다. 태종께서 접견하시고 말 두필과 비단 사십 필을 하사하셨다. 유격장군에 발탁하고 운전부 과의에 임명했다.³⁸⁾

『신구당서』의 열전에 편재되어 있는 「설인귀전(薛仁貴傳)」은 『설인귀정료사략』으로부터 비롯된 고·당 전쟁에 관한 중국 측 소설문학의 원천적인 스스로 활용된 역사의 정사 사료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디에도 설인귀가 방천극을 주된 무기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다. 손에 창을 들고 있다는 되어 있지만 설인귀의 특제는 궁술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뿐만 아니라 허리에 동개란 활통을 차고 화살과 활을 구비한 설인귀의 모습은 흡사 고구려

38) 『舊唐書』, 列傳, 「薛仁貴傳」, “薛仁貴, 絳州龍門人, 貞觀末, 太宗親征遼東, 仁貴謁將軍張士貴應募, 請從行, 至安地, 有郎將劉君昂, 爲賊所圍, 仁貴往救之, 躍馬徑前, 手斬賊將, 賊皆荏服, 仁貴遂知名, 及大軍功安地城, 高麗莫離支遣將高延壽·高惠真, 率兵二十五萬來, 距戰依山結營, 太宗分命諸將四面擊之, 仁貴自恃驍勇, 欲立奇功, 乃異其服色, 著白衣, 握戟腰鞬兩長弓, 大呼先入, 所向無前, 賊盡披靡, 大軍乘之, 賊大潰, 太宗遙望見之, 問先鋒, 白衣者爲誰, 引見, 賜馬兩匹, 絹四十四, 擢遊擊將軍, 雲泉府果毅 ……”.

벽화에 등장하는 무사의 모습과 비슷하다. 『삼국지(三國志)』 위지(魏志) 동이전(東夷傳)을 위시한 중국의 정사 기록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동이족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어디를 보아도 중국 사서에서 전하는 중국 무사의 전형적인 모습을 떠올리기란 쉽지 않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설인귀가 태종의 눈에 띄기 위해 일부러 흰 옷을 골라 입었다는 기록도 심상치 않게 보인다. 원래 흰색은 중국인이 일반적으로 즐겨 입는 옷 색깔이 아니다. 중국사서가 흔히 동이족을 가리켜 백의민족이라고 하듯이 흰옷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복색으로 일컬어져 왔다. 아무리 태종의 눈에 들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굳이 다른 민족의 고유한 복색을 갖추어 입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게다가 남들보다 튀기 위해서 흰 옷을 입었다는 설정 자체도 중국의 일반적인 관습 속에서 보면 특이하다. 흰 옷이라서 눈에 띈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설인귀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흰 옷을 입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 즉 중국인이 일반적으로 잘 안 입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 눈에 띈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흰색은 오해에서 동쪽을 상징하는 색으로, 중국에서 보면 한반도가 동쪽이 된다. 한반도 출신자의 상징색을 굳이 꼽자면 흰색이 되는 것이다. 이 동쪽의 신수(神獸)는 백호인데, 설인귀의 출생 시 태몽도 백호 꿈으로 되어 있다. 고·당 전쟁 문학 속에서 백호는 바로 설인귀의 신수로 등장한다.

물론 이 흰 옷과 백호가 설인귀의 출신지인 산서 강주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중국 대륙을 중앙에 놓고 봤을 때, 산둥성에 위치한 산서 강주는 동쪽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산둥성이라는 지역 자체가 중국 대륙 내부에서도 전통적으로 우리 민족과 관련이 깊다는 점에서 단순히 이렇게 볼 수만도 없다. 산둥성은 신라방이 있던 곳으로 상업과 무역에 종사하는 신라인들이 대거 거주하던 집장촌이 위치해 있었다. 장보고가 골품제의 한계를 뛰어넘어 자신의 능력을 실현하기 위한 기회의 땅으로 당나라를 점찍고 건너간 곳도 바로 이 산둥성이었다. 이후 장보고는 산둥성의 신라방과 관음사를 중국 내 기점으로 하여 중국, 우리나라, 일본을 연결하는 동북아 해상 삼각무역을 구축하기도 했다.³⁹⁾ 그

39) 산둥성 신라방과 우리 민족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2002, 『대의문물교류사연구』,

런데 우리나라 전설 속에서 설인귀는 장보고처럼 고품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신의 능력을 실현하기 위해 당나라로 떠난 신라인으로 설정되어 있다. 설인귀의 병장기, 복색, 출생지와 우리민족과의 관련성을 이처럼 세심하게 따져본 이유는 설인귀 문화를 향유하는 우리의 인식체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일단 이러한 사실들을 지적하는 것으로 넘어가기로 한다.

정리하자면 중국 측 고·당 전쟁 문학 속에서 나타나는 설인귀의 형상과 병장기의 상징성은 이원화되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측 고·당 전쟁 문학의 한 원류가 되는 『신구당서』의 「설인귀전」에서 그의 상징물을 동개와 화살, 활로 묘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설인귀의 인물형상이 「설인귀정료사략」을 위시한 이후의 「설인귀정동」 42회본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원적으로 방천극을 그의 신물로 내세우고자 하는 의식이 확인된다는 것이다. 즉, 한 사람의 영웅적인 무장으로서의 설인귀가 동개, 화살, 활로 상징화 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여기에 당나라 장수로서의 전형적인 상징성을 덧씌우고자 한 변개의 결과가 「설인귀정료사략」 이후의 방천극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설인귀에 대한 이러한 이원적인 형상화 방식으로 인해 표면적으로는 방천극을 특재로 하는 당나라 명장 설인귀라는 캐릭터를 완성하고자 하는 의도는 성공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면적으로는 오히려 설인귀 캐릭터의 본질이 방천극이 아니라 연개소문을 격파한 도구인 화살, 활, 동개에 있다는 사실을 대비적으로 강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활쏘기의 명장 설인귀라는 인물형상은 국립도서관본 계열 「설인귀전」에서 확실하게 강화되어 나타난다. 다음의 자료를 통해 비교해 보자.

- J-① 馬上一箇少年將軍, 素袍瑩鎧, 赤馬朱纓, 1. 攬轉方天戟, 取弓箭在手, 一箭射, 莫離支墜馬⁴⁰⁾
 ② 인귀 크게 불너 왈 노적지 말나 하고 2. 활을 다려 쏘니 시위를 응호여 흡소문이 말기 썩러지거늘⁴¹⁾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를 참조하기 바람.

40) 1957, 『薛仁貴征遼事略』, 상해고전문학출판사, 5쪽.

J-①은 「설인귀정료사략」이고, J-②는 국립도서관본 계열 「설인귀전」으로, 설인귀가 연개소문을 제압하는 장면에 해당한다. J-①의 1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중국 측 고·당 전쟁 문학 속에서 설인귀가 연개소문을 제압하는 장면은 방천극과 활의 결합으로 되어 있다. 반면 J-②의 2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 측 고·당 전쟁 문학 속에서 설인귀가 연개소문을 죽이는 결정적인 수단은 오직 활 한 가지뿐이다. 애초에 『신구당서』의 「설인귀전」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설인귀 인물 형상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설인귀 형상의 변개 양상은 당나라 장수 설인귀의 모습 속에 우리 민족 영웅의 모습을 새겨넣고자 하는 향유의식의 일단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런데 설인귀를 우리민족으로 인식하고 이를 인물 형상에 반영하여 원작을 변개한 국립도서관본 계열 「설인귀전」의 향유의식은 구활자본에서도 그 유사한 일측면을 확인할 수 있다. 구활자본은 중국의 고·당 전쟁 문학인 「설인귀정동」 42회본을 직역하여 축약하면서 설인귀가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인식을 필사기에 피력해 놓고 있다.

K. 고구려사기를 상고하니 천흡소문은 고구려 보장왕 씨 스릅이라 잇 씨당제 리세민이 흡소문의 시군훈 죄를 빙조하고 디병을 거느려 요동 안시성을 칠시 려장 고연슈 말갈병 십오만으로 막다가 당장 설인귀의게 피훈 비 되미 디군이 물밀 듯 하여 안시성을 외우다가 성주 양만춘의게 피훈 비 되어 당제가 눈에 살를 마즈미 당병의 예기가 최찰하미 만춘이 경기를 니여 좌우로 쳐 크게 파후얏스며 당제가 천흡소문과 싸흠흔 짓슨 조금 모호흔 사실이며 설인귀는 본디 요동 스릅이오 신라인 설계두로 당장이 되야 공을 세스니 잇췌도 스릅 쓰기를 골품을 의논하미 흥지덕락이 잇서도 발신치 못흔는지라 고로 이상 두스릅도 당에 도라가 비상흔 공업을 세우이라.

K에서는 설인귀를 신라 사람으로, 골품제의 한계를 뛰어넘어 자신의 능

41) 「설인귀전단」, 앞의 책, 440쪽.

력을 실현하기 위해 당나라를 건너가서 성공한 신라인 설계두라고 설명하고 있다. K와 같은 내용의 필사기는 3종의 구활자본 모두에 삽입되어 있다. 작품의 본문에서는 중국의 고·당 전쟁 문학인 「설인귀정동」 42회본을 직역하여 축약함으로써 원작의 내용을 최대한 그대로 유지하면서, 서사가 종결되고 난 부분에 첨가하는 필사기를 통해 설인귀가 우리민족 출신이라는 편집자의 의견을 밝히는 방식이다. 이 점에서 구활자본 계열 「설인귀전」은 번역 양상에서 뿐만 아니라 역사인식과 향유의식의 측면에서도 중국의 고·당 전쟁 문학으로서의 「설인귀전」과 국립도서관본 계열 「설인귀전」의 중간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다.⁴²⁾

둘째는 공간의 재배치이다. 문면의 표면에서는 중국 당나라 사람이라는 점을 서두의 인물 소개 부분에서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중국 고·당 전쟁 문학인 「설인귀정동」 42회본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산서 강주 용문’⁴³⁾ 사람이라는 번역본 「백포소장 설인귀전」의 인물 소개가 변안본 국립도서관본 계열 「설인귀전」에서는 이미 산서 강주라는 표현이 빠지고 그저 용문현 사람으로만 되어 있다. ‘딩당 정관 초의 용문현’⁴⁴⁾ 사람이라고만 하면 당나라가 천하를 제패한 시대에 용문현 출생이라고만 해석된다. 고구려 멸망 이후 중국이 사실상 동북아시아 질서의 패자로 군림하던 시절에 당나라 정관 시대라는 것은 보편적인 연대표처럼 쓰여 졌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중국 산동의 산서 강주라는 지명의 생략은 중국색을 희석시키고 공간적 배경을 우리 쪽으로 끌어오기 위한 포석의 작은 일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은근하게 공간을 재배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우회적인 공간적 배경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 관념의 우회적인 재배를 통해 설인

42) 기존연구에서는 이를 민족의식의 발로라고 파악하고 말았지만, 단순히 이렇게 볼 수만은 없다는 것이 필자의 관점이다. 구활자본 「설인귀전」의 필사기에서 설인귀를 우리나라 사람으로 해명한 의식의 이면에는 설인귀를 우리민족으로 인식하고 그 설화를 전승한 설인귀 전설과의 교섭과정을 설정해야만 그 향유의식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다.

43) 「백포소장 설인귀전」, 동미서시.

44) 「설인귀전단」, 앞의 책, 429쪽.

귀의 우리 민족화는 보다 구체성을 얻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는 연개소문과의 대결양상의 약화이다. 「설인귀정동」 42회본에서는 연개소문과 설인귀의 대결이 다양한 진법전과 단기전으로 확대되어 있는 반면 국립도서관본 계열 「설인귀전」에서는 간단하게 처리되어 있다. 다양한 무술과 용병술, 진법으로 화려하게 전개되는 「설인귀정동」 42회본의 대결이 국립도서관본 계열 「설인귀전」에서는 설인귀가 연개소문을 단지 활을 한번 쏘아 맞추는 것으로 종결된다. 이러한 변이의 양상 속에는 설인귀를 자국의 인물로 인식하는 무의식적인 향유의식이 내재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설인귀를 그저 당나라의 장수로만 인식한다면 상업소설의 특성상 주인공인 영웅과 적대자인 반영웅 사이의 갈등은 극렬할수록 흥미가 배가된다. 이 때 반영웅이 비록 사악하지만 그 나름대로 악랄한 독수를 능수능란하게 구사할수록 선악 대비구조는 강화되며, 대중적인 재미도 부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작에 있는 반영웅과의 화려한 대결을 간단명료하게 축약해 버렸다는 것은 연개소문과 설인귀를 영웅과 반영웅의 대결구도 속에 놓기를 거부하는 의식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국립도서관본 계열 「설인귀전」이 원작인 「설인귀정동」 42회본 보다 전반적으로 그 내용 형상화의 구체적인 디테일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결의 양상이 축소되었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백번 양보하여 그렇다 하더라도 설인귀와 연개소문, 이 두 사람을 모두 우리민족으로 인식하는 향유의식의 체계가 전제되어 있는 독자의 독서과정 속에서 이러한 양상은 단순히 내용상의 축약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측면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설인귀가 중국 사람이 아니라 우리민족이라는 인식체계 속에서 볼 때 같은 민족 출신의 영웅 사이에 죽고 죽이는 대결이 확대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독자층의 향유의식이 분명히 존재했을 것이며, 대중성을 염두에 둔 작가로서는 이 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독자의 구미를 염두에 둔 대중적 작가의 존재를 상정하지 않고 작가가 단순히 원작을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설인귀를 우리민족으로 생각하는 자신의 인식을 반영했다고 하더라도 그 저변에 내재한 향유의식에는 차이가 없다.

설인귀가 우리민족이라는 인식이 설인귀 전설을 중심으로 존재했으며, 이

러한 인식이 국립도서관본 계열 「설인귀전」의 형성 과정 속에 반영되었다는 관점에 서게 되면, 왜 하필 우리 민족인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민족의 영웅인 연개소문을 죽인 설인귀에 관한 중국의 작품을 그토록 인기리에 향유했을까 하는 딜레마가 해결이 된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그 기반 위에서 고려, 조선의 왕조가 이어져 왔기 때문에 한반도 남부를 중심으로 한 통일 왕조의 역사 속에서 살아온 민중 속에서는 고구려나 연개소문을 적극적으로 우리민족사의 일부로 편입시키는 민족의식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 전설 속에서 연개소문 인물 전설이 강화도를 중심으로 한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확인된다는 사실이 그 근거가 된다. 민중이 만들고 전승한 구비 전설 속에서 연개소문 혹은 고구려의 역사는 친숙한 소재가 아니었던 것이다. 고구려와 연개소문, 을지문덕, 양만춘, 고·당 전쟁을 회고하고 북방고토 회복이나 북방역사를 거론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지식인의 문학 작품으로 한정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지식인 창작은 한문을 아는 식자층으로 그 향유층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민중층의 문학과는 동떨어진 것이었다. 민중에게 있어서는 연개소문이나 고구려의 역사 보다는 파주 적성면 출신으로서 당나라라는 대국으로 진출하여 큰 공을 세우고 그 역사에 길이 남은 설인귀가 훨씬 피부에 가깝게 와 닿았을 것이다. 통일신라가 진평왕 때 고구려로부터 파주 일대를 빼앗은 이후로 이 지역은 한반도 남부에 위치한 국가의 역사 속에 완전히 편입되었다. 이 점에서 파주 적성면 출신인 설인귀는 통일신라 이후로 이어져온 한반도 남부를 중심으로 한 민족사가 낳은 걸출한 인물이자, 국제적인 성공을 이룬 위대한 지역 출신의 역사적인 인물로 인식되어 왔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설인귀를 소재로 한 고·당 전쟁 문학을 향유하는 우리 민족의 인식은 같은 민족 출신의 역사적 인물의 이야기이자 국제적인 성공 스토리로서 향유되었다고 할 수 있다.

IV. 나오는 말

본 연구는 한국 고·당 전쟁 문학으로서의 국립도서관본 계열 「설인귀전」 성립과정에 나타난 한중 고·당 전쟁 문학의 교섭양상과 역사인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설인귀전」은 한국과 중국에 걸쳐있는 대표적인 고·당 전쟁 문학으로 존재한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기존연구에서는 한국의 「설인귀전」이 중국의 그것을 번역한 작품에 불과하다고 알려져 왔지만 구체적으로 탐구해 보면 보다 그 형성과정에 있어서 복잡한 측위의 맥락이 드러난다. 한국의 고·당 전쟁 문학인 「설인귀전」 이본군 중에서 국립도서관본 계열에서는 중국 고·당 전쟁 문학으로서의 「설인귀전」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용과 역사인식이 나타나는데, 이와 동일한 양상이 역시 한국의 고·당 전쟁 문학으로 존재하는 설인귀 전설에서 확인된다. 이는 중국의 고·당 전쟁문학인 「설인귀정동」과 변별되는 한국의 고·당 전쟁문학인 국립도서관본 계열 「설인귀전」의 성립 및 형성 과정 속에 설인귀 전설이 구조적으로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을 중점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첫째, 국립도서관본 계열 「설인귀전」이 그 성립 및 형성 과정에 있어서 설인귀 전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 및 방식에 관한 고찰이다. 한국 고·당 전쟁 문학으로서의 국립도서관본 계열 「설인귀전」의 형성과정에 있어서 설인귀 전설과의 교섭과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독자적으로 형성된 설인귀 전설이 「설인귀정동」 42회본의 변안과정에 유입되어 국립도서관본 계열 「설인귀전」 계열처럼 「설인귀정동」 42회본과 전혀 다른 내용을 포함한 계통도를 확립하는 패턴이다. 국내의 초기 국문 영웅소설과 함께 향유된 「설인귀전」에 관한 기록이 소설의 형태가 아니라 이야기, 즉 설인귀 이야기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한국 고·당 전쟁 문학으로서의 「설인귀전」이 한국 내에서 독자적으로 형성된 설인귀 전설의 수용 및 교섭을 통해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설인귀전」의 형성과정과 향유방식에 나타난 고·당 전쟁 문학에

대한 한·중 역사인식에 관한 고찰이다. 중국 고·당 전쟁 문학으로서의 「설인귀전」을 번역한 한국 고·당 전쟁 문학으로서의 「설인귀전」을 향유하는 방식과 그 속에 내포된 역사인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하나는 당태종을 압도하는 연개소문의 영웅적인 면모를 부각시키는 변개를 통해 우리나라의 민족주의적인 역사인식에 부응함으로써 자국의 패배를 부정하고 압도적인 승리로 윤색하고자 하는 중국의 역사인식을 비판하는 향유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한국 고·당 전쟁 문학으로 존재하는 설인귀 전설과의 교섭을 통해 설인귀 캐릭터를 변개함으로써 우리민족의 외연을 확대하는 향유방식이다. 중국의 구체적인 지명을 생략하는 방식으로 설인귀의 출신지를 변경하고, 방천극이라는 중국 고유의 무기가 아닌 동이족 특유의 활로 결정적인 대결을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인물 형상을 변개함으로써 중국색을 약화하거나 소거시키는 대신 우리민족 특유의 고유색을 강화함으로써 설인귀를 우리민족으로 인식하는 설인귀 전설의 속지주의적인 역사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문헌〉

- 『京劇劇目初探』, 1980, 北京:中國戲劇出版社.
- 『舊唐書』, 1975, 北京:中華書局.
- 『新唐書』, 1975, 北京:中華書局.
- 『新編京劇大觀』, 北京出版社編, 1989, 北京:北京出版社.
- 『征東·征西·掃北』, 1979, 臺北:文化圖書出版社.
- 『戲學全書』, 1959, 上海書店.
- 祁慶富·申敬燮, 1998, 「俗文學中薛仁貴, 蓋蘇文故事的由來及流變」, 『社會科學戰線』第二期, 長春:社會科學戰線, 잡지사.
- 徐培均·范民聲, 1990, 『中國古典名劇鑑賞辭典』, 上海:上海古籍出版社.
- 莊一拂 編著, 『古典戲曲存目匯考』, 上海:古籍出版社.
- 張忠良, 1983, 「薛仁貴故事研究」, 國立臺灣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 程毅中, 「宋元講史簡論」, 『文學遺產 增刊』.
- 趙萬里, 1967, 『薛仁貴征遼史略』, 臺北:河洛圖書出版社.
- 中國戲曲志編輯委員會, 1993, 「關於禁演和勸告停演劇目的請示報告」, 『中國戲曲志·湖北卷』, 北京:文化藝術出版社.
- 胡士瑩, 1980, 『話本小說概論』下, 北京:中華書局.
- 강진옥, 1993, 「마고할미설화에 나타난 여성신 관념」, 『한국민속학』 25.
- 경기도 박물관 홈페이지, <http://www.musent.or.kr/resources/river>, 제4장 임진강 유역의 민속문화, 제7절 구비전승.
- 정철화 저·박창배 번역, 2004, 『중국인이 쓴 고구려사』, 고구려연구재단.
- 김두진 편저, 2002, 『경기북부지역의 신당과 제장』, 국민대학교 한국학 연구소.
- 김운우, 1990, 「감악산비와 철원고석정」, 『경주사학』 9.
- 김일렬, 1990, 「소대성전」, 『한국고전소설작품론』, 집문당.

- 김한규, 1999, 『한중관계사』, 아르케.
- 나희라, 2003, 『신라의 국가제사』, 일조각.
- 민두기 편, 1985, 『중국의 역사의식』, 창작과비평사.
- 박일용, 1983, 「영웅소설의 유형 변이와 그 소설사적 의의」,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재연, 1984, 「설인귀정료사략 소고」, 『중국학연구』 1.
- 백종우 · 신영문, 2005, 『고구려유적의 보고 경기도』, 경기도박물관.
- 변태섭, 1971, 「고려전기의 외관계」, 『고려정치제도사연구』.
- 사마광 저 · 권중달 역, 2002, 『資治通鑑』, 푸른역사.
- 서병국, 1997, 『고구려제국사』, 혜안.
- 서선덕, 2001, 「고려 충선왕의 유불정책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영대, 1991, 「한국고대 신 개념의 사회적 의미」,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송영우, 1994, 『韓中關係論』, 지영사.
- 신경섭, 1998, 「경극 〈독목관〉의 연개소문 무대의상 디자인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 윤병석, 2002, 「박은식의 민족운동과 한국사 저술」, 『한국사학사학보』 6.
- 이명규, 2000, 『서울 경기지역 지명 및 방언 연구』, 한국문화사.
- 이변근 · 박정래, 1988, 「경기도 방언의 연구와 특징」, 『국어생활』 12.
- 이윤석, 2001, 「〈설인귀전〉의 원천에 대하여」, 『연민학지』 9.
- 임석재 편, 1987, 『임석재전집』 2, 평안북도편, 평민사.
- 장주근, 1961, 『한국의 신화』, 성문각.
- 전해중, 1970, 『韓中關係史研究』, 일조각.
- 정우영, 2001, 「운계사 고석비와 감악산 무속신앙의 시원」, 『경기향토사학』 6.
- 조동일, 1991, 「한문학권 역사서 개작의 문학사적 의의」, 『한국문화와 세계문학』, 지식산업사.
- 조동일, 1999, 『문명권의 동질성과 이질성』, 지식산업사.

- 조동일, 1999, 『하나이면서 여럿인 동아시아문학』, 지식산업사.
- 조동일, 1999, 『공동어문학과 민족어문학』, 지식산업사.
- 조희웅 편, 2001, 『경기북부구전자료집(1)』, 박이정.
- 조희웅 편, 2001, 『경기북부 구전자료집(2)』, 박이정.
- 천혜숙, 1987, 「전설의 신화적 성격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최건승, 2004, 『한국어 방언의 공시적 구조와 통시적 변화』, 역락.
- 크리스 피어스 지음 · 황보종우 옮김, 2005, 『(전쟁으로 보는) 중국사』, 수막새.
- 한국사연구회 편, 1987, 『古代韓中關係史의 研究』, 삼지원.
- 한상수, 1986, 『한국인의 신화』, 문음사.
- 현용준, 1976, 『제주도전설』, 서문문고.
- 파주군지편찬위원회, 1995, 『파주군지』상, 파주군.

[ABSTRACT]

A study on the historical recognition in Korea · China
about the korean and chinese war literature about
Koguryo and Dang appearing in the course forming and
method enjoying *Seol-in-gui-chon*

Kwon, Do-Ky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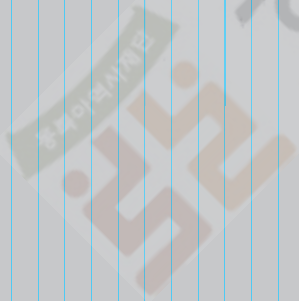
This paper is the study on the historical recognition in Korea · China about the korean and chinese war literature about Koguryo and Dang appearing in the course forming and method enjoying *Seol-in-gui-chon*. The one is method of enjoy that criticizing historical recognition of china that denies defeat of it's own country and embellishes as overwhelmlizing win, by satisfying our nationalism through modification bringing into relief as Yeon-gae-so-moon herically overwhelming Tae-jong in Dang dynasty. The other is method magnifing the outline of our nation by modifying Seolingui character relating with Seolingui legend being as Korean war literature about Koguryo and Dang.

keyword

the korean and chinese war literature about Koguryo and Dang, *Seol-in-gui-chon*, the Seolingui legened, the nationalism, Yeon-gae-So-moon, Tae-jong in Dang dynasty, Seolingui

논문

I



中國 東北地域 後期舊石器 製作技術의 變遷과 系統 研究

장 용 준 | 국립김해박물관 학예연구사

I. 序論

中國 東北地域 중 遼寧省, 吉林省, 黑龍江省, 이른바 東北 三省地域은 현재 50여 곳 이상의 후기구석기유적이 확인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인 1932년 黑龍江省 昂昂溪유적에서 신석기유적이 발견된 뒤, 1931년 顧鄉屯유적에서 동물화석이 발견되어 1933 ~ 1934년 일본인 德永重康 등이 발굴 조사해 다량의 제4기 포유동물화석과 석기를 처음으로 발견하였다.¹⁾ 그 후 東北 三省지역은 遼寧省을 중심으로 金牛山, 建平, 安圖, 榆樹유적 등에서 인류화석이 출토되어 많은 연구자의 주목을 받아왔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遼寧省지역의 전기구석기시대의 金牛山, 廟后山 유적과 중기구석기시대의 子洞유적을 제외하면, 吉林省과 黑龍江省지역에서 3만년 이전에 해당하는 석기군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중국 東北

1) 尹贊勛, 1934, 「哈爾濱附近第四紀哺乳動物化石群之發現」, 『中國地質學會誌』 11卷 ; 德永重康 等, 1934, 「滿洲帝國吉林省顧鄉屯第一回發掘物研究報告」, 『第1次滿蒙學術調查報告』 二部一編.

三省에서 발견된 吉林省 樺甸 仙人洞의 最下層(4層)은 16~23만 년 전으로 밝혀져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석기군으로 평가받고 있다. 吉林省과 인접한 내몽고지역에 위치한 金太동굴유적은 8층 중 5~6층에서 르발르와찌르개(Levallois point)가 출토되었는데, 보고서가 발간되어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동북아시아지역 중 가장 동쪽에서 출토된 르발르와계통의 유물이다. 알타이지역의 르발르와 석기군과 비슷한 시기로 최소 10만 년 전까지 연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²⁾

동북지역은 지리적으로 한반도와 인접해 있어 한반도의 석기계통을 파악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며, 다양한 석기제작기술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지역보다 연구의 필요성이 높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 내에서는 이와 관련된 연구가 소개되거나 연구된 사례가 거의 없었던 게 사실이다.³⁾

따라서 이와 같은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 중국 동북지역의 후기 구석기시대의 주요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의 검토를 통해 석기군의 특징과 석기의 박리 기술 및 도구조합상이 가지는 의미를 파악하여 이들 석기군이 가지는 기술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석기군을 몇 개의 유형으로 설정하여 석기군의 변천이 가지는 문화적 의미와 동북지역 석기군의 계통이 중국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華北지역의 석기군에 있는지 주변의 영향인지에 대한 계통을 검토할 것이다. 또한 한반도에서 구석기시대부터 청동기시대까지 출토되고 있는 黑曜石의 原產地연구가 답보상태에 있는 현시점에서 원산지유적의 자료를 통해 원산지문제와 흑요석제 석기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2) 吉林大學 邊疆考古研究中心의 구석기연구실에 소장되어 있고, 정확한 발굴보고서는 아직 발간되지 않았다. 이 유적은 여러 층위에서 유물이 출토되었고, 특히 시베리아 지역의 무스테리안 관련 유물과 석재와 제작방법이 매우 유사하여 앞으로 연구성과가 주목된다.

3) 손보기, 1990, 『구석기유적-한국·만주』, 한국선사문화연구소, 4~313쪽; 장호수·홍현선, 1990, 「중국 구석기시대 집터유적」, 『박물관기요』 6, 단국대중앙박물관, 113~128쪽; 辛占山·顧玉才, 1996, 『東北亞舊石器文化』, 韓國國立忠北大學校 先史文化研究所·中國 遼寧省 文物考古研究所, 215~226쪽.

II. 主要 遺蹟의 檢討

1. 遼寧省地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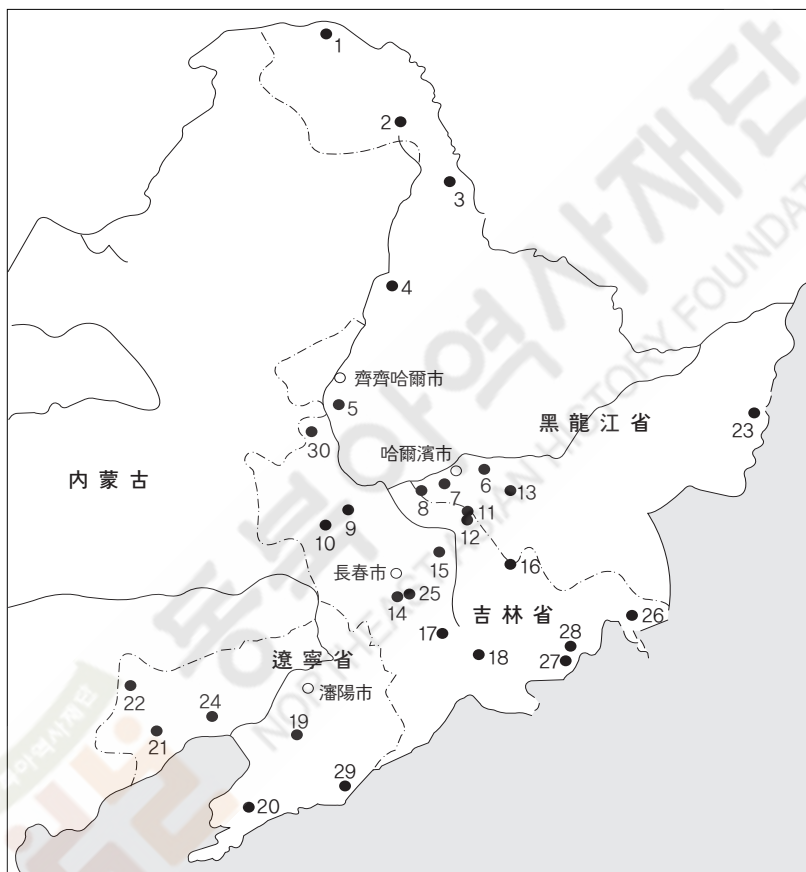
遼寧省지역의 地勢는 東쪽과 西쪽은 높고 中央이 낮으며, 遼河를 중심으로 서쪽과 동쪽으로 나뉘며, 산지와 구릉면적은 62%를 차지하며 평원은 30% 내외이다. 동부의 낮은 산과 구릉은 遼東산맥, 北東 방향은 千山山脈이 위치한다. 석회암동굴이 매우 발달된 지역으로 동물화석과 인류화석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지질학적 특징을 지닌 곳이다. 동북평원의 일부인 遼河평원이 드넓게 자리 잡고 있으며 華北지역과 인접해 그 지역문화와의 유사성도 주목받고 있는 곳이다. 遼河지역 동쪽에서 인류화석 또는 구석기가 확인된 유적은 本溪 廟后山, 本溪 廟后山 東洞, 海城 小孤山, 營口 金牛山, 營口 藏山, 大連 古龍山, 沈家臺 등이다. 大凌河를 중심으로 한 遼寧省 서남부지역은 子洞, 建平人 化石, 凌源 西八間房, 丹東 前陽人 유적이 분포한다.⁴⁾

1) 古龍山(Gulongshan)遺蹟

遼寧省 大連市 復縣鎮 교외 古龍山 동쪽 언덕에 위치하는 석회암질의 동굴유적으로 1981년~1982년 大連自然史博物館에서 발굴조사하여, 4개 층위를 확인하였다. 제1층은 붉은색 점토층으로 대량의 척추동물화석이 출토된 주요한 화석층위이며 4점의 석기(그림 2-B)가 출토되었다. 제2층은 황색점토층으로 많은 화석이 출토되었고, 제3층은 회황색점토층으로 소량의 척추동물화석이 나왔다. 最下層인 제4층은 옅은 황색 점토층으로 대량의 척추동물화석이 출토되었다. 古龍山동물군은 모두 77개종이며, 그 중 어류 2종, 파충류 1종, 포유동물 57종, 조류 17종이다. 동물군 중에는 절멸종이 9종이며 척추동

4) 辛占山·顧玉才, 1996, 위의 글, 215~226쪽.

물의 화석 중에는 털코끼리뼈와 7종의 말뼈도 포함되어 있다. 제1층의 동물 화석을 이용한 절대연대(C-14)는 $17,610 \pm 240\text{BP}$, 제4층은 40,000년 전으로 밝혀졌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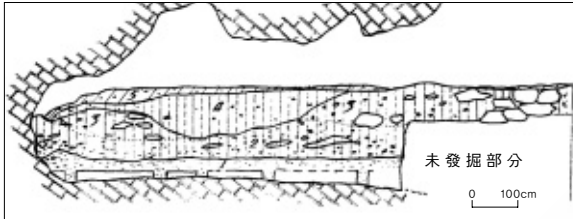


〈그림 1〉 中國 東北地域의 後期舊石器遺蹟

1. 漠河 老溝河 2. 十八站 3. 老 4. 清和屯 5. 昂昂溪遺蹟 大興屯 6. 哈爾濱 荒山
7. 哈爾濱 顧鄉屯 8. 哈爾濱 閭家崗 9. 乾安 青山頭 10. 乾安 大布蘇 11. 柳樹 大橋屯
12. 周家 油坊 13. 學田 14. 紅嘴子 15. 九站西山 16. 仙人橋河 17. 壽山 仙人洞
18. 撫松 仙人洞 19. 海城 小孤山 20. 大連 古龍山 21. 鴿子洞(中期舊石器) 22. 西八間房
23. 小南山 24. 沈家臺 25. 輝南 邵家店 26. 琢春 北山 27. 和龍 柳洞 28. 和龍 石人溝
29. 丹東 前陽 30. 大坎子

5) 周信學·孫玉峰·王家茂, 1984, 「古龍山動物群的時代及其對比」, 『古脊椎動物學

2) 小孤山(Xiaogushan)遺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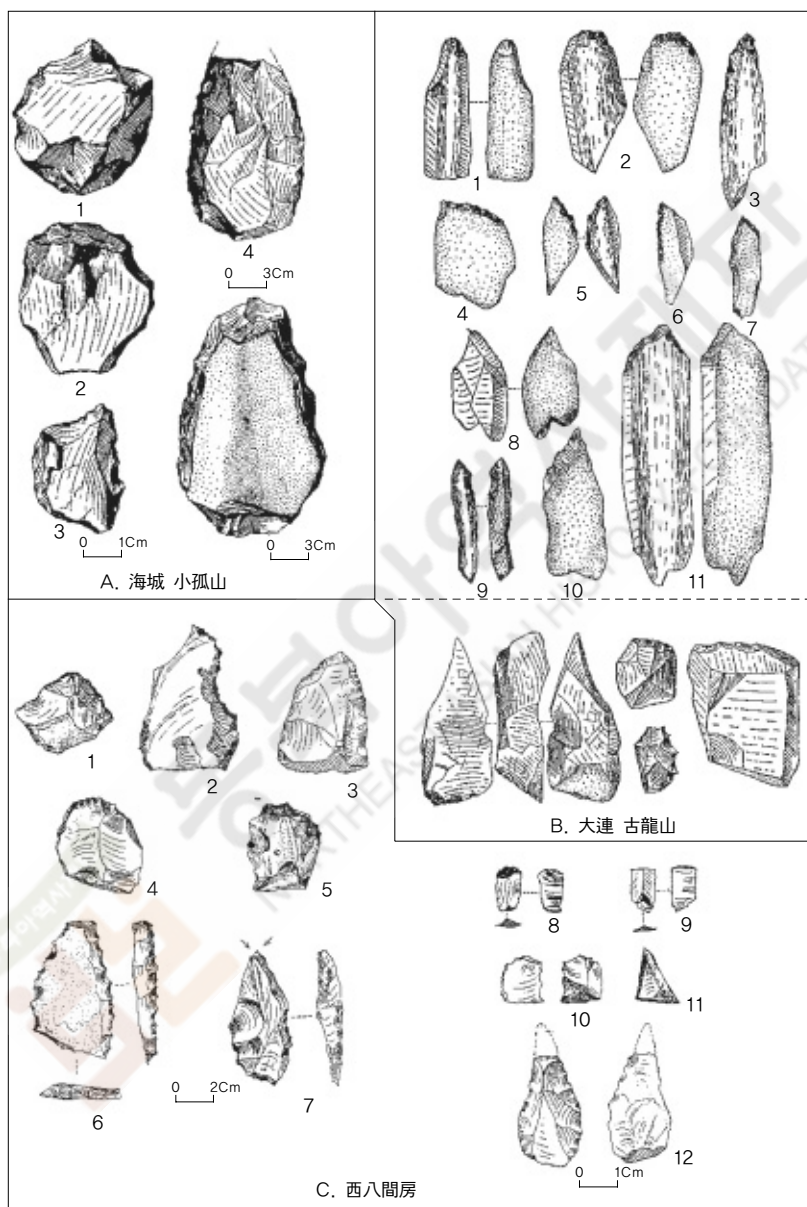
〈그림 2-1〉小孤山유적의 층위도(張鎮洪 등, 1985)

遼寧省 小孤山村 부근의 仙人洞에 위치하며, 낮 동안에는 해가 항상 동굴을 비추주고 바로 앞에 강이 위치

하고 있어 지형적인 측면에서 사람이 살기에 매우 적합한 곳이다. 1981년 발견되어 같은 해에 시굴조사가 이루어졌고, 1983년과 1990년 遼寧省박물관과 중국 과학원 고척추동물과 고인류연구소가 정식으로 조사하였다. 층위는 아래부터 1~5층까지로 나누어지며, 그 중 1~4층에서 인류화석, 석기, 골각기, 장신구, 동물화석이 출토되었다. 1층은 동물화석과 석기, 2층은 동물화석과 문화유물, 3층은 석기, 골각기, 동물화석, 작살, 창끝, 4층은 소량의 석기와 동물화석이 출토되었다. 5층은 신석기시대 토기와 마제석기는 물론 청나라 때의 화폐도 출토되어 교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석기의 석재는 맥석영, 석영암, 옥석을 사용하였는데, 그 중 동굴 앞에 널리 분포하는 맥석영을 많이 이용해 석구, 찌르개, 뚜르개, 새기개, 찌개, 긁개 등을 제작하였다. 박편제 긁개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直接타격과 兩極타격으로 제작했다(그림 2-A). 동물군 중 식육류와 우제류가 71.5%로 당시 환경이 삼림과 초원동물군 위주였음을 알 수 있고, 동물화석은 38종으로 털코끼리, 수달, 들소, 물소, 사슴, 털코뿔이 등이 있다. 갈아서 만든 장식품 중 우제류 동물의 뼈로 만든 작살 1점, 동물사지골로 만든 창끝 1점이 출토되었는데 중국 후기 구석기시대의 유일한 예이다. 장신구 125점 중 구멍뚫린 이빨로 만든 완성품 116점, 깨진 것 9점이 확인되었는데 주로 소형식육류와 사

報』22-2, 51~155쪽; 尤玉柱·李·孫玉峰·王家茂, 1985, 「大蓮古龍山洞穴文化遺物及對當時古生環境의 探討」, 『史前研究』.



〈그림 2〉 遼寧省地域의 後期舊石器時代 主要 遺蹟(縮尺不同)

A. 海城 小孤山(張鎮洪 등, 1985) B. 大連 古龍山(周信學 등, 1984, 상단은 골각기, 하단 4점이 석기) C. 西八間房(遼寧省博物館, 1973)

슴송곳니로 제작하였다. 코끼리앞니를 이용해 만든 뼈바늘 3점(그림 9-8~10)도 출토되었다. 열형광측정법으로 $40,000 \pm 3,500\text{BP}$, C-14연대가 $30,000 \sim 40,000\text{BP}$ 가 확인되었다.⁶⁾ 이 때는溫暖濕潤期에 해당하지만, 출토된 동물양상을 보면, 오히려 한랭기에 해당한다. 불탄자리가 층위상으로 4층과 3층을 중심으로 두 층으로 형성되어 있고, 동굴입구 쪽에서 안으로 들어갈수록 기울어진 형상이다. 지금도 석영제 석기가 출토되고 있다.

3) 沈家臺(Shenjiadai)遺蹟

遼寧省 小凌河 支流的 작은 언덕에 위치하는 야외유적으로 황토상퇴적의 中上部 층위 내에서 타제석기와 동물화석이 출토되었다. 석기는 주로 마노와 석영암으로 제작되었으며, 동물군으로 볼 때 늦은 갱신세 중기에 해당하며, 西八間房유적보다는 이른 시기로 보고되었다.⁷⁾ 보고된 자료가 적어 유적의 자세한 상황과 유물의 성격을 알기 어렵다.

4) 西八間房(그림 2-C, Xipajienfang)遺蹟

遼寧省 凌源縣의 西八間房村의 서남쪽 400m에 위치하는 야외유적으로 遼寧省박물관이 1972년 시굴조사, 1973년 발굴조사해 2점의 채집품을 포함해 모두 51점의 석기를 찾았다. 층위는 3개로 나뉘며, 最上層인 3층의 하부에서 석기가 출토되었다. 석재는 황갈색 부싯돌, 수정, 마노, 석영, 화성암이 사용되었다.⁸⁾ 석기 51점 중에는 굽개, 톱니날석기, 홈날석기, 밀개를 비롯해 세석인

6) 張鎮洪·傅仁義·陳寶峰·劉景玉·祝明也·吳洪寬·黃慰文, 1985, 「遼寧海城小孤山遺址發掘簡報」, 『人類學學報』 4-1, 70~79쪽; 黃慰文·張鎮洪·傅仁義·陳寶峰·劉景玉·祝明也·吳洪寬, 1986, 「海城小孤山の遺骨制品和裝飾品」, 『人類學學報』 5-3, 259~266쪽; 趙賓福, 2003, 『東北石器時代考古』, 吉林大學出版社, 121~123쪽.

7) 呂遵諤, 2004, 「遼寧省舊石器時代考古」, 『中國考古學研究的世紀回顧-舊石器時代卷-』, 科學出版社, 194~219쪽.

8) 遼寧省博物館, 1973, 「凌源西八間房舊石器時代文化地點」, 『古脊椎動物與古人類』

으로 보이는 소형석기와 斜行刃 새기개를 비롯해 엄지손톱형 밀개가 여러 점 출토되었다. 특히 길이 10cm 전후의 대형 수석제 석인은 등면의 날과 인부의 날이 평행한 전형적인 석인으로 파악되었다.⁹⁾

2. 吉林省地域

吉林지역의 地勢는 東南部가 높고 西北部가 낮다. 동남부는 산지와 구릉이 자리잡고 있으며, 서북부는 평원으로 동남부의 산지와 구릉은 동쪽방향의 산맥과 하천이 뒤섞여 있다. 서북부에는 동북평원에 속하는 松嫩평원이 있고, 남쪽의 遼河평원과 북쪽의 松嫩평원사이에 松遼分水嶺이 있다. 남쪽은 백두산을 중심으로 하여 두만강이 흐르고 있고, 下流는 松花江, 遼河, 鴨綠江, 豆滿江, 二道白河 등 5개의 큰 水系가 있고 松花江의 유역면적이 가장 넓다. 구석기유적이 주로 분포하는 곳은 松花江유역의 長春과 吉林, 두만강유역의 琿春, 延吉, 圖門, 和龍이다.

1) 周家 油坊(그림 3-C, Jujiayoufang)遺蹟

吉林省 榆水縣의 서남쪽 18km에 위치하며, 松花江과 拉林河 사이의 황토대지의 야외유적이다. 1977년 吉林省 지질과학연구소와 吉林省 文物工作대가 발굴하여, 7개 지점에서 동물군 35종을 포함한 松花江텔코끼리, 텔코뿔이 등이 보고되었다. 1지점은 5개층 중 2층에서 화석유물이 출토되었고, 2지점은 11개층으로 나누어지나, 층위는 다소 불확실하다. 절대연대는 제1지점 $26,740 \pm 735\text{BP}$, $26,100 \pm 850\text{BP}$, 제2지점 $31,800 \pm 90\text{BP}$, $7,380 \pm 100\text{BP}$, $7,300 \pm 100\text{BP}$, $7,250 \pm 140\text{BP}$, $6,060 \pm 100\text{BP}$ 이다. 석기는 제1지점의 안정된 층위에서 15점 출토되었고, 석핵 2점, 박편 6점, 부스러기 10점

11-2, 223~226쪽.

9) 加藤眞二, 2000, 「中國北部の後期舊石器文化」, 『舊石器考古學』 60, 舊石器談話會, 58쪽.

등이다. 석재는 현무암이 가장 많으며 안산암, 맥석영, 유문암도 사용하였다. 석핵 중 반암을 이용해 르발르와기법과 유사하게 양면조정된 석핵 1점도 있다. 자연면 타면과 박리면 타면을 사용해 박편을 박리하였으며 마름모꼴 굽개와 손톱모양 밀개가 출토되었다. 박편을 이용하여 先端部를 조정한 찌르개 1점이 특징적이다. 골각기는 1·2·4·7지점에서 출토되었는데, 총 51점 중 28점이 층위 상에서 발견되었고 나머지 23점은 채집 유물이다.¹⁰⁾

2) 壽山 仙人洞(그림 3-B, Xianrendong)遺蹟

仙人洞유적은 吉林省 樺甸市 서북쪽에 위치하며 해발 460m에 지표에서는 110m에 자리 잡고 있는 동굴유적이다. 1991년 吉林大學 고고학계에서 시굴 조사했고, 1993년 吉林大學 고고학계와 吉林省 文物고고연구소가 발굴조사했다.

1991년 시굴조사에서 3개 지층 중 하부의 2층과 3층에서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다. 하부의 2층과 3층에서 포유동물화석과 석기가 출토되었다. 47점의 석기와 12종의 동물화석이 확인된 동굴유적이다. 석재는 각암을 가장 많이 이용하였고 그 다음으로 석영, 유문암, 반암을 사용했는데, 주변 강가에서 모두 채집된 것이었다. 석핵 4점, 박편 30점, 작은 돌덩이 5점, 기타 완성된 석기 8점(망치돌, 굽개, 찌개) 등이 출토되었으며, 석기제작소로 추정하였다. 동물군 중에는 森林과 疏林에 서식하는 동물이 41.1%를 차지하고 초원형 동물이 41.4%였으며 일부 동물종으로 볼 때 현신세에 해당하는 종도 포함되어 있었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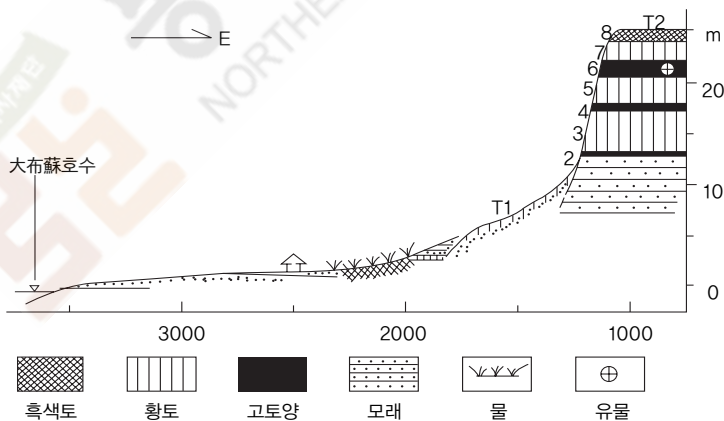
10) 孫建中·王雨灼·姜鵬, 1981, 「吉林榆樹周家油坊舊石器文化遺址」, 『古脊椎動物與古人類』 19-3, 281~291쪽.

11) 陳全家·李其泰, 1994, 「吉林樺甸壽山仙人洞舊石器遺址試掘報告」, 『人類學學報』 1994-2.

3) 乾安 大布蘇(그림 3-E, Dabusu)遺蹟

吉林省 乾安縣 大布蘇泡子 東岸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세석기유적이다. 1950년대에 석기 몇 점이 발견된 이후, 1970년대에 孫建中, 姜棚 등이 지질과 고고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985년 6월에 중국 과학원 고척추동물과 고인류연구소에서 발굴을 실시하여 487점의 석기가 출토되었다. 모두 8개의 층위 중 석기가 출토된 층위는 6층이지만, 정확한 층위양상은 보고되지 않았다. 松嫩평원과 遼河평원의 사이는 嫩江이 위치하며 1단구 상부의 고토양층에서 1,000점이 넘는 석기가 출토되었는데, 세석핵과 세석인의 수량이 가장 많이 확인된 유적 중 한 곳이다.

박편으로 만든 석기는 많지 않지만, 석기제작과 관련된 부산물이 많다. 석재는 수석을 중심으로 석영, 단백석, 흑요석 등이 이용되었고 석기 중 13%가 자연면을 지니고 있다. 세석핵은 4점으로 타면이 정교하게 조정되었고, 半원추형과 썰기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세석인도 121점이 출토되었다. 석기는 박편을 이용해 만들었고, 6종의 다양한 굽개가 확인되었으며 석기에 따라 눌러떼기로 제작된 것도 있다.¹²⁾ 구석기시대 최말기 또는 10,000BP로 추정되는



〈그림 3-1〉 大布蘇유적의 층위도(趙賓福, 2003)

12) 姜棚(崔茂藏 譯), 2004, 『中國東北舊石器時代 文化研究』, 한국학술정보(주),

유적으로 14종의 동물화석이 출토되었다. 大布蘇유적의 세석기의 특징을 董祝安은 7가지로 정리하였다.¹³⁾

4) 大橋屯(그림 3-G, Dajiatun)遺蹟

吉林 榆樹縣 劉家鄉 大橋屯 大橋溝에 위치하는 野外유적으로 남쪽 2km 정도 떨어진 곳에 周家 油坊이 있다. 1988년 榆樹박물관과 吉林省 文物고고연구소에서 조사하였고, 1988년에 시굴조사하였다. 층위는 모두 4개층으로 나뉘며, 최하층인 1층(회녹색펄이 포함된 가는모래층)에서 동물화석과 함께 석기가 출토되었다. 周家 油坊의 지층과 비교할 때 이 곳에서 출토된 석기와 포유동물화석은 1단구의 아랫부분에서 출토되었다. 현신세 지층에 속하지만, 후기 구석기시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1988년 조사를 통해 젓먹이짐승 15종을 포함해 털코끼리, 털코뿔이, 오르도스큰뿔사슴 등 초식동물이 80%를 차지하고 있고 절멸동물은 많지 않았다. 森林이 稀少한 疏林이나 草原 환경시기에 형성된 유적이었다.

박편석기와 굽개가 많고 석재는 석영암, 맥석영이 76.5%를 차지하며, 석기는 17점으로 잔손질을 통해 외날가공한 것이 62.5%를 차지하였다. 박편을 이용한 원형밀개는 석영암으로 만들어졌고, 배면에서 등면으로 조정한 것이 대부분이다. 석핵 6점은 單設타면과 多타면으로 나눌 수 있고, 대부분 직접떼기로 박리하였다. 석기이외에도 깨어진 뼈조각들이 많이 출토되었는데 인공 타격흔을 지닌 것이 35점이며 완성된 뼈도구는 2점이다. 姜鵬은 이 유적이 후기 구석기시대, 즉 갱신세 만기에 속하는 이유에 대해 석기, 동물화석, 뼈도구, 최후하이에나가 깨문 흔적이 있는 뼈 등을 이용해 4가지로 정리하였다.¹⁴⁾

79~81쪽; 孫建中 等, 1984, 「吉林建安縣大布蘇泡東岸遺址調查簡報」, 『考古』 第5期, 396~402쪽.

13) 董祝安, 1989, 「大布蘇의 細石器」, 『人類學學報』 8卷1期, 49~57쪽.

14) 姜鵬, 1990, 「吉林榆樹大橋屯發現的舊石器」, 『人類學學報』 9-1, 8~15쪽.

5) 前郭 青山頭(Qingshantuo)遺蹟

吉林省 前郭縣 青山頭에 위치하며 嫩江과 西遼河의 사이에 자리잡고 있다. 1981년 吉林省地震局 野外隊가 구조조사 중 확인한 유적으로 1982년에는 吉林省 지질국구역지질조사대가 인골, 장식품, 동물화석을 발견하였고, 1983년에는 중국과학원 고척추동물과 고인류연구소, 吉林省지질국구역지질조사대, 吉林省 문물고고대가 조사하였다. 층위는 총 10지층 중 10~8층은 현신세 혹은 신석기시대지층이며 8층이 신석기시대에 해당하며, 제7~1층이 갱신세 만기에 속한다. 人骨화석이 7층 윗부분에서 출토되었는데 C-14연대는 7층 상부가 $10,940 \pm 170$ 이 확인되었고, 山頂洞人·下草灣人·柳江人과 같은 계통의 원시적인 특징을 지녔다. 6점의 석기가 지표에서 채집되었는데 그 중 새기개 1점, 굽개 1점, 박편 4점으로 모두 수석으로 만들어졌다.

포유동물화석은 제7층과 6층에서 출토되었는데 13개 속종 중 설치류 46%, 우제류 38%, 식육류 16%를 차지하며 絶滅動物도 5종 포함되었다. 하지만 털코끼리·털코뿔이 동물군과 유사하지만 출토유물 중 털코끼리가 없고 멸종비율이 적으면서 현생종이 우세한 것으로 볼 때 이들 동물군의 과도기적 형태를 보여주었다.¹⁵⁾

6) 長春 紅嘴子(Hongzuizi)遺蹟

長春市에서 남쪽으로 8km 떨어진 幸福鄉 紅嘴子村에 위치하며, 1987년 長春市 지질학원에서 실습조사 때 발견하여 1990년대 초반에 吉林大學과 공동조사하였다. 층위는 정확하지 않으나, 흑회색 가는 사질점토층에서 석핵 1점, 박편 1점, 굽개 1점이 출토되었는데 굽개는 직접떼기로 양면가공되었고 날의 형태는 휘어졌다. 포유동물화석은 25점이며, 털코끼리, 곰, 들소 등이 출토되

15) 尤玉柱 等, 1984, 「吉林前郭查干泡發現的人類化石與古生態環境」, 『史前研究』 4期, 7~74쪽.

었다. 지층은 현신세에 속하지만 지질연대는 갱신세 만기에 해당한다.¹⁶⁾

7) 吉林 西山(Xishan)遺蹟

1991년 吉林大學에서 처음 발견하여 지표조사를 통해 석기 11점을 채집하였고 1992년에 다시 석기 5점이 채집되어 모두 16점이 확인되었다(그림 3-D). 제3단구에서 유물은 출토되었고 지층은 모두 4개층이며, 제3층에서 석기가 출토되었으나 동물화석은 나오지 않았다. 석재는 맥석영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석기총수의 75%를 차지하며 그 다음 규질암, 흑요석, 수정 순이다. 굽개가 가장 많고 단타면석핵, 뾰족한 칼, 박편, 양극떼기를 한 석핵 등이며, 박편은 타면조정을 베풀기도 했다. 석핵은 자연면타면을 이용하여 직접떼기한 것이 1점, 양극떼기에 의한 것이 2점이다.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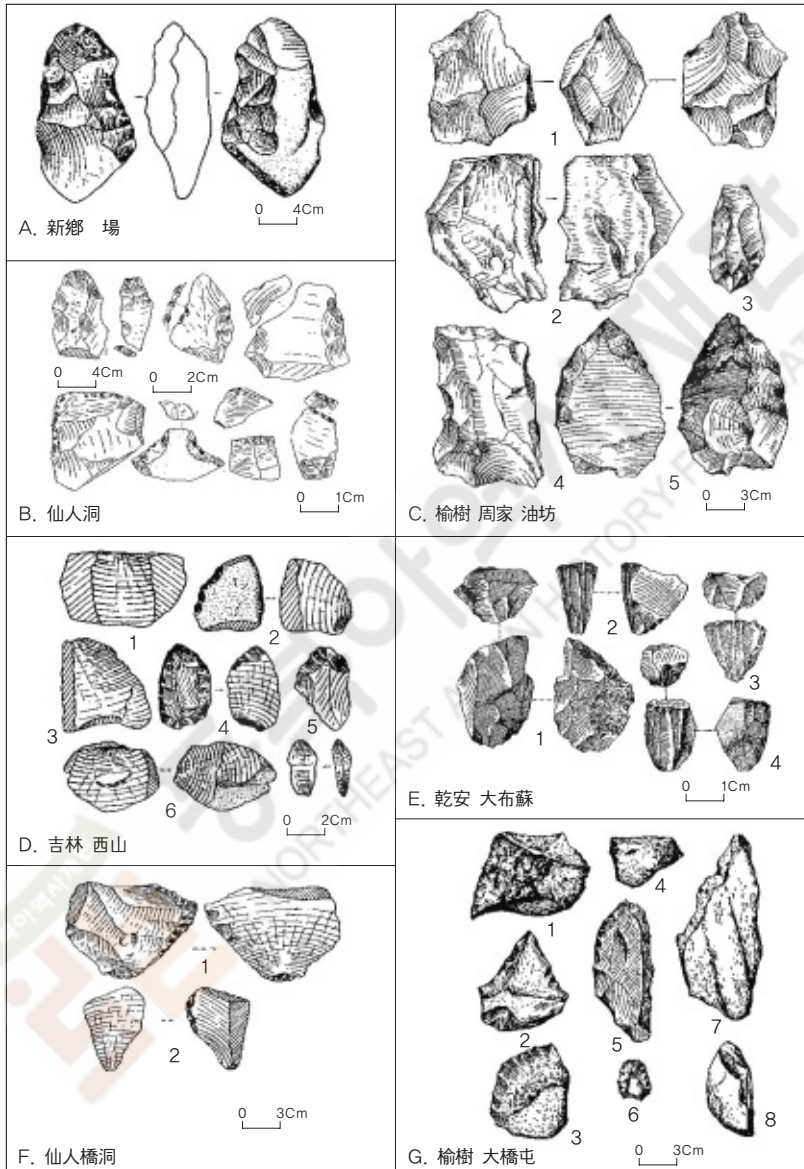
8) 蛟河 仙人橋洞(Xianrenqiaodong)遺蹟

吉林省 蛟河市 拉法鎮 小砬子山 仙人橋 아래에 위치한다. 1993년 吉林대학교 고고학계의 야외조사 중 발견되어 그 해 시굴조사에서 인류가 불을 사용한 흔적과 석기를 발견하였다. 모두 3개 지층이며 제1층에서만 끝이 뾰족한 굽개와 단순 굽개의 두 점(그림 3-F)이 출토되었고 동물화석은 발견되지 않았다. 제2층에서 불을 사용한 흔적이 발견되었지만 인공유물은 나오지 않았다. 규질암과 화강암을 석재로 이용하였고 직접떼기로 박리하였지만, 박편의 타면은 點狀으로 작은 것이 특징이다. 만기갱신세에 해당하는 후기구석기시대 만기로 설정하였다.¹⁸⁾

16) 程新民 等, 1993, 「長春郊區紅嘴子發現哺乳動物化石」, 『長春地質學院學報』 23卷 2期, 71~78쪽.

17) 陳全家, 1996, 「吉林市地區數次發現的舊石器」, 『東北亞舊石器文化』, 247~258쪽.

18) 陳全家, 1996, 위의 논문.



〈그림 3〉吉林省地域의 後期舊石器時代 主要 石器群(縮尺不同)

A. 新鄉 場(陳全家, 1996, 중기 구석기) B. 仙人洞(陳全家 등, 1994) C. 榆樹 周家 油坊(孫建中 등, 1981) D. 吉林 西山(陳全家, 1996) E. 乾安 大布蘇(董祝安, 1989) F. 仙人橋洞(陳全家, 1996) G. 榆樹 大橋屯(姜鵬, 1990)

9) 撫松 仙人洞(Xianrenodong)遺蹟

吉林省 撫松縣 東南쪽으로 2km 떨어진 곳으로 1992년과 1994년에 조사가 이루어져 각종 포유동물화석과 석기를 발견하였다. 지층은 모두 3개층이며 제1층과 제2층에서는 유물이 출토되지 않았지만, 최하층인 3층에서 석기와 포유동물화석이 출토되었다. 석기는 박편 2점, 굽개 2점, 자갈돌석기 1점 등이며 석기의 가공은 등면에서 배면쪽으로 주로 이루어졌다. 석재는 석영반암과 현무암을 주로 사용하였고 직접떼기로 떼어낸 박편을 이용해 박편제 석기를 제작하였다. 석기의 유형은 大形석기군으로 동북지구 20여 군데 유적 중에서는 가장 큰 석기를 제작한 석기군에 해당하며, 시베리아지역과 그 유사성이 찾아지기도 한다. 동물화석은 털코끼리-털코뿔이 동물군에 해당하며 초식동물군이 57%로 육식성동물군보다 조금 많으며 당시 仙人洞유적의 주변은 삼림초원환경으로 추정했다.¹⁹⁾

10) 輝南 邵家店(그림 6-13 · 14, Shaojiadian)遺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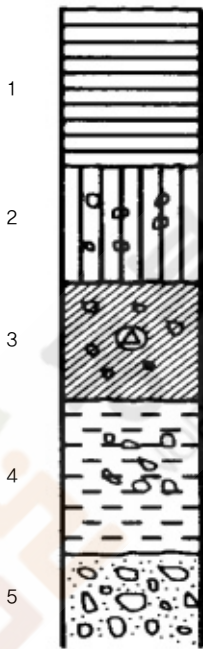
吉林省 輝南縣 邵家店村 동북쪽 산비탈의 정상부에 위치하며 2003년 발견되어 다음 해에 소규모 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해발고도 414m로 지표부터는 200m지점에 위치한다. 산비탈의 정상부는 비로 인해 삭평되어 기반암이 거의 드러나 있어 석기의 원래 층위는 찾지 못하였다. 두 차례 조사에서 출토된 석기 57점 중 석핵 7점, 박편 23점, 완성된 석기 12점 등이 있으며, 동물화석은 출토되지 않았다. 석영, 흑요석, 단백석, 수석, 유문암의 다섯 종류의 석재를 사용하였으며, 석영 45.6%, 흑요석 31.6%, 단백석 14% 등의 순이었다.

석핵 7점 중에는 박편을 이용한 배모양세석핵이 한 점 출토되었는데 붉은색을 띤 수석제로 길이 3.2cm, 폭 1.2cm, 두께 0.8cm에 타각은 80도이다.

19) 王文興, 1996, 「吉林抚松發現舊石器時代文化遺址」, 『人類學學報』 12卷2期, 89~94쪽; 姜鵬, 1996, 「吉林抚松仙人洞舊石器時代遺址」, 『東北亞舊石器文化』 205~210쪽.

세석인은 출토되지 않았고, 박편은 석영, 흑요석, 단백석, 수석으로 만든 것이 있고 석영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며, 타점의 크기가 작은 것으로 볼 때 직접 떼기 이외의 기법도 사용되었다. 석기 종류로는 각종 긁개, 사용흔이 있는 박편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중국 북방지역의 전형적인 석기제작기술을 사용한 석기군으로 대다수의 석기가 소형이면서 4cm 이하이다. 마제석기와 토기편은 출토되지 않아 구석기시대 만기로 추정하였다.²⁰⁾

11) 延邊 琿春 北山(그림 7-22~33, Beishan)遺蹟



〈그림 3-2〉 柳洞유적의 지층도

1층 흑색경작토 2층 각력포함된 얇은 황색토
3층 각력포함된 회황색토 4층 각력포함된 황색토
5층 모래포함된 각력층(陳全家 等, 2006)

吉林 琿春市 北山유적은 北山臺地上에 위치하며 2002년 吉林大學 邊疆考古研究中心에서 발견하여 소규모 시굴조사를 실시했다. 유적은 제2단구 위에 있고 해발 114.1m, 두만강까지는 서쪽으로 4km정도 떨어져 있다. 지층은 모두 3개층으로 석기는 2층(황색아점토층)에서 단 1점만 출토되었고 나머지 51점은 지표채집품이다. 석기 52점 중 석핵 3점, 박편 42점(세석인 1점 포함), 완성된 석기 7점이다. 흑요석, 유문암, 맥석영, 각혈암, 응회암을 석재로 사용했고 흑요석 86.5%, 맥석영 5.7%, 유문암 3.8%, 각혈암 1.9%, 화산응회암 1.9%의 비율이다. 직접떼기와

20) 陳全家 等, 2006a, 「吉林輝南邵家店發現的舊石器」, 『北方文物』第1期, 1~7쪽.

양극떼기로 소형박편을 박리해 석기를 제작하였다.

琢春 北山유적은 구석기시대 후기의 세석인기술의 전통을 지닌 유적으로 下川유적을 대표되는 華北지역의 세석인기술전통의 영향을 받았으면서도 現地화된 면도 엿보이는 유적으로 주변지역의 석기군과 비교하여 2만 년 전으로 보았다.²¹⁾ 출토된 유물 중에는 兩面調整된 찌르개로 추정되는 석기가 함께 출토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유적의 연대는 후기 구석기시대 중엽까지 소급되기는 어렵다.

12) 和龍 柳洞(그림 7-1~21, Liudong)遺蹟

두만강유역의 제2단구 위에 위치하며 吉林大學 邊疆考古研究中心에서 2002년 발견하여 和龍市 文物관리소와 공동으로 2004년 발굴조사했다. 吉林省은 동남쪽이 높고 서북쪽이 낮은 형세를 보이는데 동쪽의 백두산은 新華夏系 隆起帶에 속한다. 유적의 지층은 5개로 나뉘며 3층(회황색토)에서만 출토되었다. 석제는 흑요석이 93.6%를 차지하고, 유문암, 안산암, 마노, 이암, 각혈암도 사용되었다.

출토된 석기 142점 중 안정된 층위에서 출토된 것은 4점뿐이고 138점은 모두 지표에서 채집된 것이다. 석핵 10점은 양극떼기와 직접떼기로 만든 석핵 8점과 흑요석으로 만들어진 썰기형 세석핵 2점이 있다. 박편은 69점으로 97.1%가 흑요석으로 만들어졌으며 타면은 자연면타면, 조정타면, 点타면의 형태로 남아있다. 석기는 30점으로 박편을 이용해 주로 제작되었으며, 굽개류와 밀개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석기 중에는 사용흔을 지니고 있는 것도 있다. 표면에 찍힌 흔적이 남아있는 대석 1점이 출토되었다.²²⁾

세석핵은 2005년 보고에서 추가로 3점(세석인을 박리하기 전의 예비소

21) 陳全家 等, 2006b, 「吉林延邊琢春北山發現的舊石器」, 『人類學學報』 23(2), 中國社會科學院古脊椎動物與古人類研究所, 138~145쪽.

22) 陳全家 等, 2006c, 「吉林和龍柳洞2004發現的舊石器」, 『人類學學報』 25(2), 中國社會科學院古脊椎動物與古人類研究所, 208~219쪽.

재)이 더 확인되었으므로 모두 5점이 출토되었다.²³⁾ 그러나 2점은 세석핵의 소재라기에는 형태가 거친데 반해 나머지 1점은 등면과 배면에 양면조정함과 동시에 세석인박리면에 능조정을 베푼 흔적이 남아 있다. 밀개는 박편의 끝을 조정한 것으로 사각형과 역삼각형의 두 가지 형식이 있다. 前者는 배면에서 등면으로 조정해 인부를 만들었으나 後者는 양방향으로 조정하였다. 대각선 새기개, 찌르개 등 다양한 형식의 석기가 출토되었다.

13) 延邊 和龍 石人溝(그림 8, Shirengou)遺蹟

和龍縣 龍城鎮 石人村의 서쪽 산의 제2단구에 위치하며 동쪽으로는 백두산지의 신화하계 융기대에 속한다. 2001년과 2002년에 농민이 흑요석 박편석핵(무게 15kg)과 석인석핵(무게 3.5kg)을 신고하면서 유적이 알려졌다. 吉林大學 邊疆考古研究中心과 和龍縣文物管理所가 공동으로 2004년 조사를 실시하여 4개 지층 중 지표의 1층을 제외한 2층(황회색점토층), 3층(모난돌이 포함된 사질황토층), 4층(모난돌이 들어있는 연한 황색토층)에서 석기가 출토되었

다. 시굴조사에서 출토된 석기는 40점이며 모두 흑요석이다.

대형석핵은 길이 29.3cm, 폭 27.9cm, 두께 19.9cm, 무게 15kg으로 두 개의 타면을 지닌 것으로 주요 타면의 길이는 29.3cm, 폭 27.9cm이며, 길이 18.9cm나 되는 대형박편을 박리했다(사진 1).



〈사진 1〉 吉林 石人溝유적의 흑요석원석
(29.3×27.9×19.9cm, 무게 15kg, 필자촬영)

23) 陳全家 等, 2005, 「和龍市柳洞舊石器地點發現的石製品研究」, 『華夏考古』 3期, 河南省文物考古學會, 51~59쪽.

석인석핵은 길이 17.5cm, 폭 18.8cm, 두께 10.5cm이며, 3개의 타면을 지니며 타면조정을 거친 뒤 최대 17.0cm크기의 석인을 박리했다(그림 8-9). 그 외에도 세석인, 새기개가 출토되었다. 마제석기와 토기편은 출토되지 않았다.²⁴⁾ 새기개스폴과 더불어 모서리형 새기개와 대각선새기개가 확인된다. 백두산 흑요석의 원산지를 밝힐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유적이다.

3_ 黑龍江省地域

黑龍江省지역은 동쪽과 북쪽이 러시아지역과 인접해 있고, 서쪽과 남쪽은 내몽고지역과 吉林省에 접해있으며, 東北三省 중 吉林省과 遼寧省을 합한 것보다 더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黑龍江을 중심으로 松花江, 牡丹江을 비롯해 東南쪽으로는 烏蘇里江, 西北쪽으로는 嫩江이 위치하고 있다. 中央은 얇은 구릉이나 평지를 이루는 반면에 동으로는 小興安嶺이 위치하고, 서북쪽으로는 大興安嶺이 산맥을 형성하고 있다. 후기구석기유적은 중앙의 松嫩平原에 위치한 哈爾濱市와 그 북쪽, 黑龍江省의 남동쪽의 동부산지에 많이 분포한다.

동굴유적은 遼寧省과 吉林省의 일부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黑龍江省의 경우 동굴유적의 예가 드문 반면 야외유적의 비중이 높다. 현재까지 黑龍江省에서 확인된 구석기유적은 28곳이며, 그 중 14곳은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으나 나머지 유적은 지표채집된 곳이다. 松嫩평원의 주요 유적은 荒山, 顧鄉屯, 閻家江, 靑和屯, 大興屯, 景星이며, 동부산지는 交界·學田·小南山유적, 大興安嶺에는 十八站·老溝河·老·碾子山유적이 있다. 또한 松嫩평원에서 지표채집된 유적으로 東輞廳, 沙曼屯, 萬家, 半拉城子, 肇東澇州, 四方臺, 海鎮유적이 있고, 동부산지는 雙鴨山, 寶清, 東寧, 延壽, 寶懸居仁, 小嶺유적이 있다.²⁵⁾ 黑龍江省에서 가장 오래된 구석기유적은 阿城市 交界유적으로 약 17

24) 陳全家 等, 2006d, 「吉林地區和龍石人溝發現的舊石器」, 『人類學學報』 25(2), 中國社會科學院古脊椎動物與古人類研究所, 106~114쪽.

25) 啓曉, 2004, 「黑龍江省舊石器時代文化有存研究」, 『邊疆考古研究』 第2輯, 37~65쪽.

만 년 전으로 추정되고 있어 東北 三省에 위치한 구석기유적 중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前期구석기유적으로 알려져 있다. 그 외 유적은 대부분 후기 구석기시대에 해당한다.

1) 荒山(그림 4-A, Hwangshan)遺蹟

黑龍江省 哈爾濱市에 위치한 야외유적으로 1936년 석기와 털코뿔이 · 털코끼리동물군의 화석, 1953년 · 1957~1959년에는 석핵과 동물화석, 1960년에는 인공흔이 있는 뼈조각, 1964년에는 1점의 석기와 털코끼리 · 털코뿔이 · 찢소, 1975년에는 석기와 많은 수의 동물화석, 1979년에는 골각기와 동물화석이 확인되었다. 석기는 박편 3점을 포함해 굵개 4점, 찌르개 3점, 새기개 1점이 출토되었고, 절대연대(C-14)는 30,000~23,860BP이다.²⁶⁾ 荒山 유적에 대한 정식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아 정확한 발굴상황과 출토층위는 알기 어렵다.

2) 顧鄉屯(그림 4-B, Guxiangtun)遺蹟

黑龍江省 顧鄉屯유적의 松花江 右岸에 자리잡고 있고, 해발 125~140m에 위치한다. 1930년 봄에 농민이 동물뼈 한 점을 발견하여 黑龍江省박물관에 신고하여, 1931년 E.E.Ahnert와 A.S.Loukashikinjin이 시굴조사하였고, 1933년에서 1957년까지 모두 8차례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모두 6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층(가는모래)은 짐승화석, 2층(연한노란색 가는모래층)은 털코끼리뼈와 문화유물, 3층(검은 모래층)은 동물화석, 4층(연한노란색 모래층)은 동물화석, 5층(연회색 고운모래점토층)은 조가비와 동물화석, 6층(검은찰흙층)으로 나뉜다.

석재는 현무암을 가장 많이 사용했고, 쳐트, 석영, 벽옥, 옥수 등이 이용되

26) 譚英杰, 1982, 「黑龍江舊石器時代考古的回顧與展望」, 『黑龍江文物叢刊』, 5~10쪽.



〈그림 4〉 黑龍江省地域의 後期舊石器時代 主要 石器群(縮尺不同)

(啓曉, 2004)

었으나 석재의 질은 좋지 않다. 석기는 14점으로 그 중 버들잎모양석기, 세석기, 굽개, 밀개 등이 출토되었으며, 대개 3~6cm 정도의 크기이다. 직접떼기와 양극떼기를 주로 활용하였고, 타면조정과 二次加工의 흔적이 남아있다. 뼈 도구 216점, 뿔도구 4점, 짐승치아로 만든 도구 11점이 확인되었고 뼈에 새겨진 그림도 4점이 출토되었다. 털코끼리-털코뿔이동물군에 해당하며, 연대는 4만 년~2만 년 전으로 추정하였다.²⁷⁾

3) 昂昂溪 大興屯(그림 4-E, Angangxi)遺蹟

黑龍江省 齊齊哈爾市 大興屯 昂昂溪유적의 강의 둔덕에 위치한 유적이다. 1928년 철도가설 중 러시아군이 細石器가 출토되는 신석기유적을 발견한 이후, 1930년부터 1982년에 걸쳐 5차례 조사가 이루어졌다. 모두 4개층으로 나뉘며, 2층(황색모래)에서 갱신세만기의 퇴적층 상부에서 동물화석, 석기, 재와 불탄뼈가 발견되었다. 1층에서 출토된 짐승화석을 이용한 절대연대는 $11,800 \pm 150BP$ 로 밝혀졌다. 포유동물의 화석은 1981년부터 9종, 11종, 11종이 각각 확인되었고 들말, 들소, 첫소와 같은 사멸종과 더불어 육식류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석기 60점 중에는 燧石을 가장 많이 사용했고, 석영과 화성암도 드물게 사용하였으며 주로 강에서 채집하여 공급하였다. 석핵 7점, 박편 44점, 부스러기 3점, 석기 6점으로, 특히 세석핵, 세석인 등이 출토되었고 세석핵은 靑色頁巖으로 원추형에 가깝다. 불에 탄 뼈와 재층이 발견되어 불을 상당히 자유롭게 다루었던 집단으로 파악되고 있다.²⁸⁾ 박리기법은 직접떼기, 눌러떼기, 양극떼기가 사용되었고, 縱長剝片을 이용한 석기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27) 譚英杰, 1982, 위의 글, 5~10쪽; 姜棚(崔茂藏 譯), 2004, 앞의 책, 17~267쪽; 孫建中, 1988, 「東北舊石器斷代問題-答安志敏先生」, 『史前研究』, 陝西省考古研究所成立三十周年記念特刊; 裴文中, 1954, 『中國石器時代的文化』.

28) 高星, 1988, 「昂昂溪新發現的舊石器」, 『人類學學報』 7-1, 84~88쪽.

4) 十八站(그림 4-I, Shibazhan)遺蹟

黑龍江省 呼瑪18站的 大興安嶺 北部의 黑龍江 支流 呼瑪江의 단구상에 위치하는 4곳의 후기 구석기유적으로 중국 내 구석기유적 중 最北端에 위치한 유적이다. 1975년과 1976년은 중국과학원 고척추연구소와 黑龍江省박물관이 공동으로 조사하여 석기 1070점을 확인하였고, 1979년은 중국 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와 黑龍江省박물관이 석기를 채집하였다. 그 중 제1지점이 유물이 가장 풍부하고 모두 4개층 중 제3층(황갈색사력층)에서 석기가 출토되었다. 4개 지점 중 석기는 모두 2층과 3층에서 주로 출토되었다. 석기 1천 여점 중 석핵, 박편, 긁개, 새기개 등 많은 박편석기가 확인되었고, 석재는 現地の 翁 회암, 수석, 유문암 등이 이용되었다. 세석기는 수량이 적지만, 형태와 형식, 예비조정과정으로 미루어 볼 때 상당히 기술적인 정형화가 이루어졌다.

下川·虎頭梁·昂昂溪大興屯·西八間方유적 등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2005년 5월과 6월에 중국 과학원 고척추동물과 고인류연구소와 黑龍江省 文物고고연구소가 공동으로 75075지점을 조사하였다. 모두 4개 층위 중 제1층은 유물이 출토되지 않았고, 제2층은 석기는 출토되었으나 토기는 확인되지 않았다. 제3층은 석기가 출토되었으나 제4층은 유물이 출토되지 않았다. 모두 41점이 출토되었으며 주로 일반적인 박편, 석인, 석핵, 긁개, 자갈돌석기 등이며 세석기는 출토되지 않았다.²⁹⁾

5) 清和屯(그림 4-D, Qinghuotun)遺蹟

訥河市 清和鄉 清和屯에 위치하며 嫩江의 상류 해발 280~290m에 있다. 1960년 黑龍江省 文化국이 嫩江 沿岸의 고고조사 때 지표에서 석기를 채집한 제1지점과 1993년 訥河市 文物국관리소가 석기를 발견한 제2지점이 있

29) 魏正一·干志耿, 1981, 「呼瑪十八站新發現의 舊石器」, 『求是學干』, 1981-1; 于江·張曉凌, 2006, 「黑龍江十八站舊石器遺址發掘有新收穫」, 『2005年100个重要考古新發現』, 新華書店, 18~19쪽.

며, 제1지점은 1993년 黑龍江省 文物연구소가 발굴조사하였다. 제1층은 경작토로 석기와 소량의 모난 자갈돌이 포함되어 있으며, 제2층은 황토상 점토층으로 석기와 박편, 모난돌이 함께 출토되었고, 제3층은 유물이 출토되지 않았다.

석기는 72점으로 제1지점 10점, 제2지점 62점이다. 그 중 제2지점의 14점을 제외하면, 석기는 모두 지표나 경작층에서 채집되었다. 석기의 종류에는 석핵 19점(여러면 석핵 15점, 배밀모양석핵 3점, 추형석핵 1점), 박편 37점, 찌개 5점, 굽개 8점, 망치돌 2점, 새기개 1점 등이며 녹색규질암을 이용해 석기를 만들었다. 토기편과 세석기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제2지점의 지층연대를 기준으로 2.1~0.8만 년 전으로 추정하였다.³⁰⁾

6) 小南山(그림 4-H, Xiaonanshan)遺蹟

黑龍江省 遼河 小南山 烏蘇里江에 위치한 야외유적으로 1980년에 중국 고척추동물과 고인류연구소에서 발굴조사하였다. 모두 6개층으로 2층(회갈색점토층)에서 석기와 털코끼리뼈가 출토되었고 나머지 층에서는 유물이 발견되지 않았다.

화산응회암을 이용해 만든 외날굽개 1점과 주먹도끼모양 석핵 1점이 출토되었으며, 대부분 중소형석기 중심으로 화산응회암을 주로 이용하였다. 뼈로 만든 1점의 찌르개와 여러 개체의 털코끼리뼈가 다량으로 출토되었다. 문화층에서 출토된 석기가 많지 않아 정확한 석기양상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소형석기유형(周口店문화계통)에 속하며, C-14연대는 $13,000 \pm 460\text{BP}$ 이다.³¹⁾

30) 于江, 1996, 「黑龍江清和屯遺址의 舊石器」, 『東北亞舊石器文化』, 259~266쪽.

31) 楊大山, 1981, 「饒河小南山新發現의 舊石器地點」, 『黑龍江文物叢刊』 1981-1, 49~52쪽.

7) 漠河 老溝河(그림 4-J, Laogou)遺蹟

黑龍江省 漠河縣 老溝河 南岸1-2독에 위치하는 야외유적으로 중국의 最北部에 위치하는 유적 중 하나이다. 1981년 군인이 석기를 발견하여 黑龍江省 박물관에 신고하여, 黑龍江省 박물관이 조사를 통해 석기를 발굴하고 賈蘭坡의 감정을 통해 구석기유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모두 4개의 지층이 확인되었으며 석기는 제3층 황토상점토 내부에 일부 작은 돌이 끼어있는 층에서 출토되었다. 석기는 황색사암과 석영암을 이용하였으며 주변의 석재를 활용하였다. 모두 14점 중 석핵 4점, 찌개 2점, 찌르개 7점, 긁개 1점으로 분류되었고, 크게 중소형의 찌르개와 긁개로 양분할 수 있다. 석핵은 모두 자연면타면에 작업면은 여러 차례의 박리가 이루어진 흔적이 남아있어 비교적 이용율이 높았다. 보고자는 이 유적의 성격을 十八站유적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小南山유적의 지층연대와 비교하여 대략 2만 년 전으로 추정하였다.³²⁾ 또한 대형석기 문화유형과 지층을 근거로 약 4~3년 전으로 보는 연구자도 있다.³³⁾

8) 閻家崗(그림 4-C, Yanjiagang)遺蹟

黑龍江省 哈爾濱市 閻家崗 松花江지류에 제2단구에 위치하는 야외유적으로 1982년 哈爾濱市 文物고고공작반 조사 때 동물뼈를 발견하였고, 1982년~1983년에는 黑龍江省 文物공작대, 黑龍江省 박물관, 哈爾濱市 文物管理站 이 발굴하였고 1984~1985년에는 중국과학원 고척추동물과 고인류연구소가 발굴함으로써 모두 4차례에 걸쳐 조사되었다.

1982년과 1983년의 발굴보고에 따르면, 1982년에는 모두 6개층으로 3층과 4층에서 포유동물화석이 출토되었고, 1983년에는 4개층 중 TA3구덩이의

32) 楊大山, 1982, 「漠河出土的打製石器」, 『黑龍江省文物叢刊』 1, 1~4쪽.

33) 啓曉, 2004, 앞의 글, 53쪽.

2층(황토상아사토)과 1층(가는모래층)에서 석기가 몇 점 출토되었으나 위치가 정확하지 않다. 동물표본은 모두 2,500여개이며, 척추동물화석 31종은 초식동물이 중심이고 털코끼리, 물소, 들소, 캐나다말사슴 등 멸종동물이 25.9%에 이른다. 꽃가루 조사결과 초원성의 메마르고 서늘한 기후로 현재보다 기온이 다소 낮았다. 석기 9점은 찌개, 굽개, 박편 등이며, 석재는 차돌, 부싯돌, 반암, 응회암, 화강암, 장식암을 이용하였으며, 뼈도구는 찌르개 17점, 자르개 6점이 출토되었다. 둥근 형태의 집터 4개가 20~40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었다. C-14연대는 $22,370 \pm 300\text{BP}$ 가 확인되었다.³⁴⁾

9) 學田(그림 4-G, Xuetian)遺蹟

黑龍江省 五常縣 學田村에 위치하며 松花江 지류의 제2단구에 위치하는 야외유적이다. 1986년 발견되어 1986년 말에 黑龍江省문물고고연구소에서 H8601과 H8602지점을 발굴한 이후 모두 4차례 조사되었다. H8601지점은 5개층, H8602지점은 8개층으로 나눌 수 있고, 두 지점은 층위퇴적물의 구성, 화석의 출토층위, 석화정도와 포유동물화석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이 유적에서는 동물화석이 2,300여건이나 출토되었지만 석기는 1986년에 3점, 1993년 10점밖에 출토되지 않았다. 1986년 조사된 H8601지점에서 확인된 4개 지층 중 2층(회록색빨층)에서 인골, 짐승뼈, 석기가 출토되었는데 松花江털코끼리, 들말, 털코끼리, 사슴과, 털코뿔이, 식육류, 들소 땅쥐가 분류되었으며, 사멸종 3종이 발견되어 당시의 기후가 한랭한 빙하주변의 동토지대였음을 알 수 있었다. 털코끼리화석이 전체의 80%이상을 차지하였다. 동물화석의 분석을 통해 포유동물의 성인개체가 적고 어린개체의 동물뼈

34) 魏正一·楊大山·尹开屏·于江·于江, 1986, 「哈爾濱閭家崗舊石器時代晚期地點」, 『北方文物』 1986-4; 于江·尤玉柱, 1988, 「閭家崗遺址的結構及埋藏學研究」, 『考古與文物』 1988-4; 尹开屏·魏正一, 1990, 「哈爾濱人的狩獵活動淺析」, 『學習與探索』 1990-5.

의 출토량이 많고 머리뼈나 이빨 등 특정부위가 많은 것을 근거로 인류의 수렵활동과 연관지워 해석하였다.³⁵⁾ 인근의 周家 油坊유적과 비슷한 시기로 추정하였다.

10) 老卡(그림 4-K, Laoqia)遺蹟

黑龍江省 呼瑪縣 三 鄉 老 村에서 西北쪽으로 약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東쪽에 黑龍江이 있다. 1989년 黑龍江省 文物고고연구소에서 조사하여 인류화석과 포유동물화석은 출토되지 않았지만, 지표에서 53점의 석기를 수습하였다. 정확한 층위는 알려지지 않았다. 석재는 규질암, 유문암위주로 소량의 단백석과 마노도 있었다. 직접떼기를 기본으로 양극떼기와 간접떼기를 함께 사용하였고 박편과 석핵 중에는 자연면타면이 적었다. 석기의 기종은 간단하며 대형석기로는 찌개가 있고 소형석기는 긁개, 찌르개가 있다. 박편 중에는 소량의 석인도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 석기는 석핵, 박편, 공구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석핵 3점은 모두 單타면이며, 박편 35점은 직접떼기로 떼어졌고 그것의 형태는 모두 불규칙적이다. 찌개, 긁개, 찌르개가 있으며 찌르개는 부분적으로 눌러떼기가 사용되었다.

昂昂溪유적 大興屯, 十八站유적 등의 후기구석기유적과 비교하여 기술적으로 다소 원시적이고, 소형찌개, 긁개, 작은 박편으로 볼 때 華北의 小石器문화전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大興屯유적이나 十八站유적보다는 다소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³⁶⁾ 또한 석기와 크기 등을 분석하여 周口店 - 峙峪系 文化傳統으로 보기도 한다.³⁷⁾

35) 于 江 万, 1988, 「黑龍江五常學田舊石器文化之的初步研究」, 『人類學報』 7-3, 255~262쪽.

36)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1996, 「黑龍江省呼瑪老 遺址調查簡報」, 『北方文物』, 19~22쪽; 趙賓福, 2003, 앞의 책, 121~123쪽.

37) 啓曉, 2004, 앞의 글, 53~54쪽.

11) 碾子山(그림 4-L, Nianzishan)遺蹟

大興安嶺의 동쪽 山麓의 아래쪽에 위치하는 齊齊哈爾市 碾子山の 동남쪽의 끝에 위치한다. 1983년과 1984년에 걸쳐 齊齊哈爾市 文物管理站이 발견하였고, 黑龍江省박물관과 공동으로 25개 지점을 조사하여 석기 321점, 동물화석 30점을 확인하였다. 대부분의 화석과 석기는 지표상에서 채집되었으나 일부 유물은 경작토와 흑색 및 흑황색 사질토층의 점토층에서도 출토되었다.

출토된 화석은 털코끼리, 동북들소, 진씨영양, 멧돼지, 사슴, 반양으로 6종이 확인되었고 털코끼리와 털코뿔이 동물군에 속하는 것들이다. 석기는 석핵 8점, 찌개 50점, 찌르개 15점, 자르개 10점, 긁개 59점, 그물추 1점, 박편 168점, 떼진 흔적이 있는 돌 10점이다. 직접떼기와 간접떼기로 주로 만들어졌으며 가공은 거친 편이다. 장식반암과 응회암을 석재로 사용하여 대형 찌개, 대형 찌르개, 박편 등을 제작하였다. 세석기도 출토되었는데 수석, 석수, 마노, 규질암 등으로 만들어졌다.³⁸⁾

Ⅲ. 石器群의 種類와 變遷

1_ 石器群의 種類

석기의 소재가 되는 박편(세석인 포함)의 제작방법과 석재의 선택방법을 기준으로 <표 1>와 같이 非石刃系 剝片石器群, 細石刃石器群, 白頭黑曜石石器群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기존에 소형박편 석기군으로 분류되어 온 비석인계 박편석기군은 주변지역과의 기술적인 구분을 위해 석인관련유물이 출토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非石刃系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백두흑요석석기군의 경

38) 啓曉, 2004, 앞의 글, 50~52쪽.

우 넓은 의미에서는 세석인석기군에 포함될 수 있지만, 吉林省지역을 중심으로 백두산흑요석으로 추정되는 석재사용이 특정 시점에 나타나고 있어 그 문화상이 기존의 세석인석기군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새로운 석기군으로 설정하였다.

1) 非石刃系 剝片石器群

중국 동북지역은 遼寧省의 廟后山(16만 년 전)유적, 金牛山(28만 년 전)유적, 黑龍江省의 阿城 交界(17만 년 전)유적으로 동북지방에는 20만 년 전 부터 인류가 살았음을 알 수 있다. 특히 廟后山유적은 원석을 그대로 이용한 석핵석기의 예가 드문 반면, 대형박편의 넓은 박리면을 활용해 석기를 제작하기도

〈표 1〉 東北 三省의 후기구석기시대 석기군의 종류

석기군의 분류	석기군의 특징	공반유물	대표유적
비석인계 박편 석기군	· 직접떼기를 통해 박리된 불규칙 박편을 이용해 석기제작 · 석영암, 맥석영, 각암, 판암, 현무암을 중심석재로 사용해 대형석기와 소형석기제작 · 비율은 낮지만, 석영 이외에도 수석처럼 다양한 석재를 사용하여 석기를 제작 · 기종구성에서 굽개를 가장 많이 제작 · 기부가 가공된 찌르개는 확인되지 않음 · 불규칙 박편석기의 비율이 높아짐	불규칙박편, 찌르개, 굽개, 밀개, 구심박리석핵, 엽기, 찌개 등	小孤山, 學田, 周家油坊, 清和屯, 閻家崗, 壽山 仙人洞, 九站西山, 大橋屯, 荒山, 下白龍
세석인석기군	· 석영보다는 수석, 유문암, 흑요석 등을 석재로 이용 · 북방계 세석인관련, 양면조정 또는 박편의 배면을 이용하여 예비조정 · 전형적인 췌기형 세석핵의 제작 · 전형적인 새기개와 밀개의 제작	세석핵, 세석인, 굽개, 밀개, 새기개, 석인 등	十八站, 顧鄉屯, 昂鼻溪, 大興屯, 大布蘇, 西八間房
백두흑요석 석기군	· 박편을 이용한 중·소형석기의 제작 · 백두산흑요석을 석재로 사용 · 흑요석의 교류 또는 이동이 확인됨 · 석인을 이용한 가공류의 석기가 많음 · 석기제작 때 잔손질의 빈도가 높고, 양방향 조정이 많음 · 양면조정방식이 사용됨	석인, 세석핵, 세석인, 굽개, 새기개, 밀개, 양면조정찌르개 등	柳洞, 北山, 石人溝

하였다.³⁹⁾ 소형박편을 얻기 위해서는 동일한 타면에서 연속적으로 박리하여 박편의 등면에 자연면이 남아 있지 않고, 타면을 형성한 뒤에 박리한 점은 발 달된 기술적 양상이다. 金牛山유적도 유물의 출토수량이 많지는 않지만 석영과 맥석영을 주로 이용해 굽개와 소형찌르개, 박편 등을 제작하였다. 吉林省의 新郷 場유적의 대형박편을 이용해 만든 주먹도끼(그림 3-A)는 절대연대가 6.2 ± 0.6 만 년 전으로 확인되어 중기구석기시대로 판명되었다.⁴⁰⁾

후기구석기시대에 들어선 이후에도 일정 기간동안 이러한 전통이 계승되어 小孤山유적 4층, 小南山유적과 老溝河유적처럼 대형박편을 이용해 석기를 제작하는 석기전통이 우세하였다. 결국 동북지역의 후기구석기시대 이전의 석기군은 석영을 핵심적인 석재로 사용하였고, 석핵석기와 소형 박편을 이용

〈표 2〉 遼寧省지역의 비석인계 박편석기군의 석기조합상과 특징

遺跡名	出土層位	遺蹟形態	出土遺物	石材	技術的特徵	뼈도구	動物相	參考文獻
遼寧丹東前陽	모난돌이 포함된 황색점토층	동굴	석기 3점: 소형 찌개, 박편	맥석영, 석영암, 안산암	박편석기군	모름	동물군 18종으로 현생종중심 *인골화석출토	林一璞 등, 1985 ⁴¹⁾
遼寧喀左二布尺	퇴적층 불안정	동굴	석기 4점: 박편 1점, 굽개 3점	수석, 마노	소형석기제작전통	1점	동물화석 10여종	啓曉, 2004
遼寧古龍山洞窟	4층 중 1층 (붉은색 점토층)	동굴	굽개 2점, 박편 1점, 석핵 1점	석영암	소형박편석기로 굽개위주의 석기를 제작, 불규칙박편석기군	찌르개, 새끼개 등 다양한 종류가 출토됨	수만점 이상이 출토됨, 털코끼리와 코뿔소 동물군	周信學 등, 1984; 尤玉柱, 1985; 周信學 등, 1990
遼寧小孤山	5층 중 4층~1층에서 유물출토	동굴	석핵, 박편, 석구, 찌르개, 푸르개, 새끼개, 찌개, 굽개	맥석영 (가장 많이 사용), 석영암, 옥석	석영계 석기로 대형석기와 소형석기가 혼재 석인과 세석인관련유물확인?	바늘, 작살, 창끝, 찌르개 등	식육류와 우제류가 71.5% 38종 (털코끼리, 수달, 들소, 물소, 사슴, 털코뿔이 등)	張綱洪 등, 1985; 黃尉文 등, 1986
遼寧沈家臺	모름	야외	타제석기	마노, 석영암	박편석기군	모름	늦은 갱신세 중기	譚英杰, 1982

39) 遼寧省의 遼寧省박물관과 遼陽박물관에 나누어져 유물이 전시되고 있다.

40) 陳全家, 1996, 「吉林省地區首次發現的舊石器」, 『東北亞舊石器文化』, 247 ~ 258쪽.

41) 林一璞 등, 1985, 「遼寧省丹東地區舊石器末期人類化石的發現」, 『遼寧省本溪丹東地區考古學術論文集』.

한 급개류가 대표기종으로 제작되었지만, 석인과 같은 종장박편계열의 석기군이 확인되지 않는게 특징이다. 전반적으로 석기 구성이나 제작상의 차이가 크지 않은 점으로 볼 때 기술적 동질성을 보유했던 시기였다.

중기구석기시대에 소형박편석기를 제작한 대표 유적으로는 子洞유적이 있다.⁴²⁾ 석재의 종류가 다양하고, 석기는 자연면을 이용한 타면이 많기는 하지만, 박리타면도 사용하였다. 불규칙박편을 이용한 톱니날석기가 가장 많이 제작되었고 그 외 홈날석기가 확인되었다. 이곳의 사례로 본다면, 중기 구석기시대 후반부터는 석기의 소형화와 석재에 대한 새로운 선택기준이 발생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렇지만, 北京이나 泥河灣지역의 유적처럼 후기구석기 전반에 종장박편을 지향하는 박리기술로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앞선 시기와 유사하게 석영, 맥석영, 각암, 현무암 등을 주요 석재로 사용하였고, 대부분 비석인계 불규칙박편으로 박리의 규칙성은 물론 석기 규격성도 관찰되지 않는다(그림 5). 이러한 사실은 석재의 효율적 이용과 생산된 박편의 규격성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이 지역 석기군의 기술적 한계를 엿볼 수 있다.

따라서 동북지역의 비석인계 박편석기군은 후기구석기시대 이전부터 소형박편석기에 대한 제작개념과 기술공정을 보유했 상태였고, <표 2>와 <표 3>의 석기의 종류나 특징을 보더라도 現地의 기술을 토대로 발전한 것이지 다른 전통의 영향을 받아 생성된 것은 아니었



〈사진 2〉 鴿子洞출토 중기구석기시대의 박편석기 (필자촬영)

42) 子洞發掘隊, 1975, 「遼寧 子洞舊石器遺址發掘報告」, 『古脊椎動物與古人類』 13-2, 122~136쪽.

다. 遼河지역 중 吉林省 동부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비석인계 박편석기군이 발달한 지역으로 석영을 이용한 석기전통이 매우 강하였다. 특히 遼河의 동쪽지역은 아직 세석인관련 유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서쪽도 西八間房유적 외에는 없다.

前期와 中期 구석기시대 석기제작전통을 이어받은 동북지역 석기군은 <표 2·3>의 출토유물에서 알 수 있듯이 주변지역에 위치한 한국의 고례리·수양개⁴³⁾·진그늘⁴⁴⁾유적, 러시아의 우스티노프카유적⁴⁵⁾ 등에서 출토된 稜調整(crest)기법과 관련된 석기가 출토되지 않는다.⁴⁶⁾ 遼寧省지역은 석기의 수량이 적지만 굽개류가 중심이고, 吉林省은 굽개, 밀개, 찌르개 등 기종이 다양하면서 석기제작의 증거인 석핵이 출토되고 있고 黑龍江省은 석핵, 굽개, 찌르개와 함께 자갈돌 석기의 비중이 높은 게 특징이다. 찌르개는 확인되지만 한반도에서 출토되는 슴베찌르개(剝片尖頭器)와 같은 수렵구의 출토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도 특징이다. 東北 三省지역은 박편석기 중에서도 소형석기가 우세하고 굽개류같은 가공구가 주로 제작되는 예가 많다. 풍부한 동물뼈에 비해 석기의 출토량이 적고 정형성이 떨어지는데, 대체로 종장박편이나 석인을 박리하기에 石材의 質이 좋지 않으며 출토된 석기 중에서도 균질제 석재가 별로 확인되지 않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표 2·3).

결국 석재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석인과 같은 균질한 크기의 박편을 양산해 내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이다. 이 석기군은 동북지역에서는 후기

43) 이용조, 1984, 『단양 수양개 구석기유적 발굴조사 보고 - 忠州댐 水沒地區 文化遺蹟 掘調査報告書』, 충북대학교 박물관; _____, 1985, 『단양 수양개 구석기유적 발굴조사 보고 - 忠州댐 水沒地區 文化遺蹟 延長掘調査報告書』, 충북대학교 박물관조사보고 제16책.

44) 이기길, 2001. 11, 「진안 진그늘 선사유적 조사 개요」, 『한국 농경문화의 형성』 제 25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韓國考古學會, 131~154쪽.

45) 小畑昭己, 2004, 「日本列島および周辺地域から見た韓国の後期旧石器文化」, 『동북아시아의 후기구석기문화와 장흥신북유적』, 장흥 신북구석기유적 발굴기념 국제학술회의, 전남장흥군·조선대박물관, 71~82쪽.

46) 장용준, 2004. 12, 「한국 후기구석기의 기원」, 『국사관논총』 국사편찬위원회; _____, 2006a, 「韓國 後期舊石器의 製作技法과 編年研究 - 石刃과 細石刃遺物相을 中心으로 -」, 釜山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265쪽.

구석기시대 전시기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되었고, 해체가공을 위한 소형의 금속 개류 제작을 위한 박리기술의 産物이었다.

2) 細石刃石器群

현재까지 중국 세석기문화에 대해 많은 중국연구자는 그 기원지를 華北지역으로 생각하거나 現地の 기술전통을 기반, 혹은 주변지역의 문화접촉을 통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표 9 참조). 그 외 중국 내 연구자들은 세석인문화의 기원과 계통은 現地에서 발생했다는 견해,⁴⁷⁾ 교류와 같은 문화접촉의 산물이라는 견해,⁴⁸⁾ 現地기술과 문화교류의 혼합이라는 견해⁴⁹⁾가 있다.

중국 내에서는 丁村 77:01지점의 $26,400 \pm 800\text{BP}$, 下川 $21,700 \pm 1,000 \sim 16,400 \pm 900\text{BP}$, 育紅河 $17,330 \pm 500\text{BP}$ 등이 세석인기원과 관련된 유적들이다. 특히 峙峪는 박편석기에서 세석인기술이 발달한 것으로 보고, 동북아시아지역의 세석인출현지의 하나로 주목받아왔다. 하지만 중국 북부지역의 세석인기술의 출현을 1.8~1.7만 년 전으로 보는 견해도 있어 연대측정치에 대한 신뢰문제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陳淳(1983)은 세석핵의 형태에 따라 8가지로 분류하였고,⁵⁰⁾ 河北省의 虎頭梁, 陽原, 東谷 蛇窪적 등은 내몽고의 석기기술의 영향을 받아 양면조정을 통해 예비소재(blank)를 제작하는 북방계통의 석기군으로 파악하였다.⁵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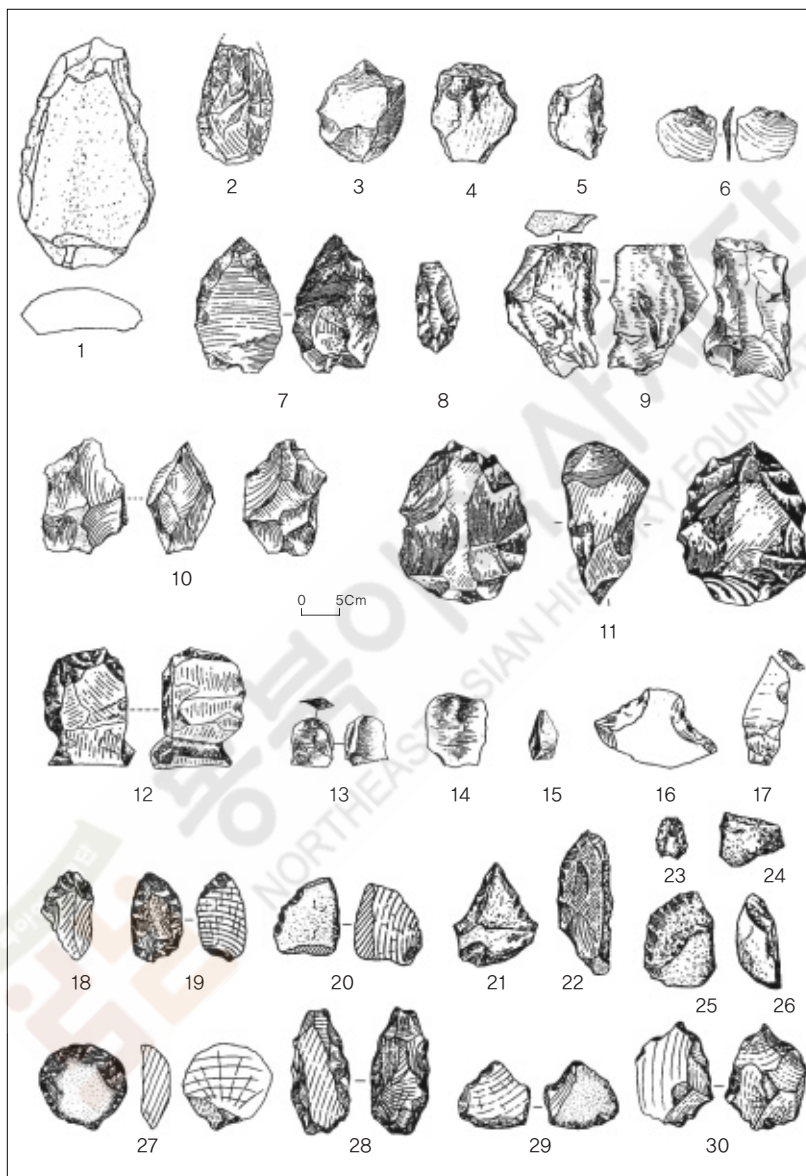
47) 賈蘭坡 등(1972), 安志敏(1978), 王建 등(1994), 王益人·王建(2000), 侯亞梅(2003), 李超榮(2004)이 있다.

48) 陳淳(1983), 高星 등(2002)이 있다.

49) 加藤眞二(2000), 王幼平(2004)이 있다.

50) 寬型석핵, 楔形석핵, 窄型楔形석핵, 錐形석핵, 柱形석핵, 半錐形석핵, 船形석핵, 漏頭形석핵으로 나누었다.

51) 중국의 대표적인 세석인기법 중 河套기법은 양면조정 블랭크(blank)를 준비하여 장축방향으로 스폴을 박리해서 타면을 만드는 것이 특징이며, 일본의 湧別기법과 유사하다. 虎頭梁기법은 양면조정 블랭크를 준비해서 횡방향에서 여러 차례의 박리를 거쳐 타면을 만드는 것이다. 한 번 또는 여러 차례의 박리를 통해 타면을 만들어 낸다. 석핵의 양측끝에서 세석인이 박리되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의 矢出川기법



〈그림 5〉 비석인계 박편석기군

1~5. 小孤山(張鎮洪 등, 1985) 6. 學田(于匯歷, 1988) 7~10. 周家 油坊(孫建中 등, 1981)
 11. 清和屯(于匯歷, 1996) 12~15. 閻家崗(魏正一, 1986) 16·17. 壽山 仙人洞(陳全家, 1994)
 18~20. 九站西山(陳全家, 1996) 21~26. 大橋屯(姜鵬, 1990) 27~30. 下白龍(陳全家 등, 2004)

〈표 3〉 吉林省과 黑龍江省의 비석인계 박편석기군의 석기조합상과 특징

遺跡名	出土層位	遺蹟形態	出土遺物	石材	技術的特徵	뼈도구	動物相	參考文獻
吉林長春紅嘴子	흑회색의 가는사질 점토층	야외	석핵, 굽개	모름	직접떼기	모름	유동물화석은 25점, 털코끼리, 곰, 들소	程新民 등, 1993
吉林周家油坊	모름	야외	석핵, 박편, 굽개, 밀개, 찌르개 등 21점(제1지점출토), 지표 4점	현무암(가장 많음), 안산암, 백석영, 유문암	르 발 르와 형식과 유사한 양면조정된 석핵, 자연면타면과 박리면타면을 이용	찌르개, 굴지구 등 51점	첫소, 들소, 털코끼리, 털코뿔이 등 35종	孫建中 등, 1981; 趙賓福, 2003
吉林壽山仙人洞	모름	동굴	석핵, 박편, 망치돌, 굽개, 찌개	각암(가장 많이 사용), 석영, 유문반암, 석영암	직접떼기와 양극떼기를 사용	모름	초원형동물	陳全家 등, 1994
吉林榆樹大橋屯	1단구 아래	야외	석기 17점: 석핵, 박편석기, 굽개, 원형밀개, 석영암제 찌르개 2점	석영암과 맥석영이 76.5% 차지	가공은 배면에서 등면으로 조정, 단설타면과 다타면, 대부분 직접떼기로 박리	찌르개, 상아제 굽개 등	포유동물 15종, 털코끼리, 털코뿔이, 오르도스큰뿔사슴 등 초식동물이 80%	姜棚, 1990
吉林前郭青山頭	7층 상부	야외	지표에서 6점: 새기개 1점, 굽개 1점, 박편 4점	수석	박편석기군	모름	인골화석, 설치류 46%, 우제목류 38%, 식육류 16%를 차지하며 절멸 동물도 5종 포함	尤玉柱 등, 1984
吉林西山	제3단구 3층	야외	석핵 3점, 박편 5점, 석괴 4점, 굽개 등 4점	석영, 규질암 등	직접떼기와 양극떼기가 사용됨, 불규칙박편석기	없음	없음	陳全家, 1996
吉林蛟河仙人橋洞	3층 중 제1층	야외	끝이 뾰족한 굽개와 단순 굽개	규질암, 화강암	불을 사용한 흔적, 직접떼기로 박리했지만 간접떼기를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음	없음	없음	陳全家, 1996
吉林下白龍	6층 중 1층	야외	석기 31점: 석핵, 박편, 둥근 밀개, 굽개, 엇기, 찌르개	판암(가장 많이 사용), 안산암, 유문암, 현무암, 사암, 석회암, 각암	석기는 주로 판암으로 제작, 직접 떼기, 자연면 타면과 조정타면	없음	없음	陳全家 등, 2004 ⁵²⁾
吉林撫松仙人洞	3층 중 3층	동굴	박편 2점, 굽개 2점, 찌개 1점	석영반암, 현무암	직접떼기, 박편 석기우세, 등면에서 배면쪽으로 조정		최후하이에나, 곰, 야생마, 야생돼지 등(털코끼리-털코뿔이동물군)	王文興, 1996; 姜棚, 1996

(계속)

의 하나와 유사하다. 陽原기법은 편면조정 블랭크를 준비하여 타면의 길이를 조절하는 홈(notch)을 넣은 후 장축방향의 박리에서 타면을 만들어내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의 峠下기법과 유사하다.

52) 陳全家·霍東峰·趙海龍, 1996, 「圖們下白龍發現的舊石器」, 『邊疆考古研究』第2

遺跡名	出土層位	遺蹟形態	出土遺物	石材	技術的特徵	뼈도구	動物相	參考文獻
黑龍江龍江景興	지표채집	야의	석기 250점	수석, 마노, 석영	직접타격, 간접타격, 놀러떼기로 가공	없음	포유동물화석 5종	啓曉, 2004
黑龍江碾子山	지표, 표토, 점토층	동굴	석핵, 찌개, 찌르개, 자르개, 굵개, 그물추, 박편, 쪼개형소형석핵	장석반암, 응회암, 수석, 석수, 마노, 규질암	불규칙박편석기, 세석기, 소형 각주형 석핵	없음	털코끼리, 털코뿔이, 영양 등	啓曉, 2004
黑龍江漠河老溝	제3층	야의	석핵, 찌개, 찌르개, 굵개, 박편	사암, 석영암	자연타면, 직접떼기가 주요한 조정수법, 중대형의 박편을 많이 생산	없음	없음	楊大山, 1982
黑龍江小南山	제5층 (담회황색 점토층)	야의	한날굵개, 도끼형 석핵 등 모두 2점	화산응회암	출토수량이 적어 기술수준을 알기 어려움	골기	털코끼리	楊大山, 1981
黑龍江闊家崗	모름	야의	찌개, 단인굵개, 박편	석영암, 흑색 프린트, 차돌, 부싯돌, 반암, 응회암, 화강암, 장석암	대형박편석기와 소형박편석기가 혼재한 양상	찌르개, 자르개 등 골제품 100여점 (직접타격으로 제작됨)	삼림형종류 25%, 초원형종류 71.2% (털코끼리, 松花江털코끼리, 동굴하이에나, 물소, 들소, 캐나다말사슴)	黑龍江省文物管理委員會 등, 1987; 魏正一等, 1986
黑龍江學田	희록색별층, 제3·4층	야의	박편	석영암, 담황색비세암(유문암)	소형박편 1점만 보고되어 알기 어려움	투창용 찌르개, 뼈창	松花江털코끼리, 들말, 털코끼리, 사슴과, 털코뿔이, 땅쥐, 들소	于汧万, 1988; 啓曉, 2004
黑龍江清和屯	제1층, 제2층*2지점 2층출토 14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표채집	야의	제1지점 10점 제2지점 62점 다면체석핵, 배밀모양석핵, 추형석핵, 박편, 찌개, 굵개, 망치돌 등	갈색규질암, 회색혈암 등 거의 한 종류의 석재만을 사용	직접떼기를 중심으로 양극떼기법, 놀러떼기를 병용 자연타면과 조정타면을 함께 사용, 구심박리기법이 특징	없음	없음	于汧万, 1996
黑龍江黃山	황색사질 점토층, 황토층	야의	박편(3), 굵개(4), 찌르개(3), 새기개(1), 석핵, 세석기, 갈린마제석부	석영암	소형 박편(길이 6cm), 직접떼기와 양극떼기 사용하였고 타면조정은 배품었으나 이차 가공은 드뭄	뼈도구(10)	털코끼리, 털코뿔이, 원시소, 들말	譚英杰, 1982; 啓曉, 2004; 趙寅福, 2003

東北 三省의 세석인석기군은 遼河지역 西八間房, 黑龍江省 十八站, 顧鄉屯, 大興屯, 大子陽山, 大布蘇, 大坎子유적이 있다.⁵³⁾ 대부분의 세석인유적은

輯, 1~1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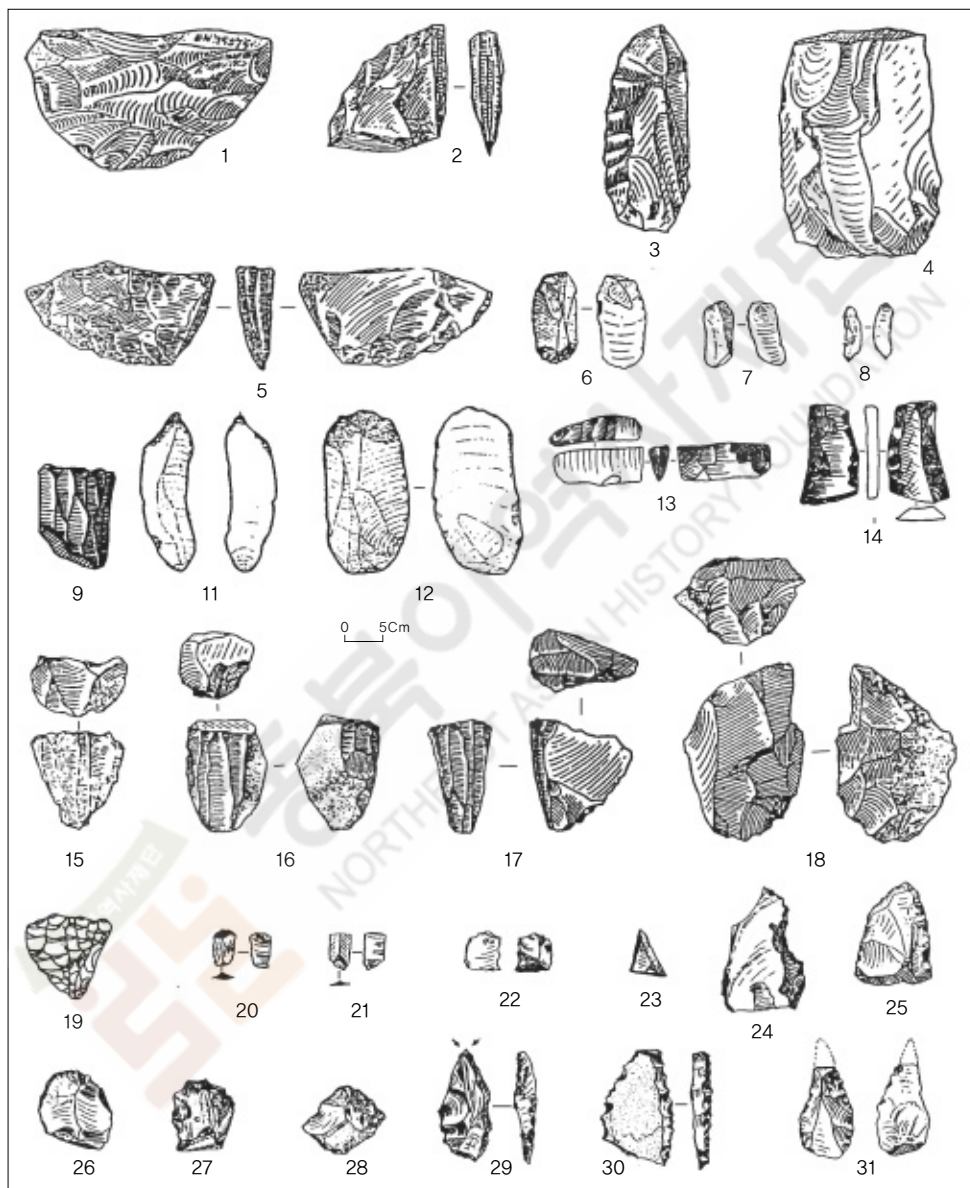
53)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1998, 「黑龍江省大興安嶺大子楊山遺址調查簡報」, 『北方文物』1998-2.

〈표 4〉 세석인석기군의 석기조합상과 특징

遺跡名	出土層位	遺蹟形態	出土遺物	石材	技術的特徵	뼈도구	動物相	參考文獻
遼寧 西八間房	3층하부	야외	석기 51점: 긁개, 톨날석기, 홈날석기, 밀개, 세석인	황갈색 화석, 수정, 마노, 석영, 화성암	석기는 대체로 소형사행인 새기개를 비롯해 엄지손톱형 밀개, 집중적으로 출토	없음	포유동물 5종 중 현생종 4종, 절멸종 1종	遼寧省博物館, 1973; 加藤真二, 2000
黑龍江 大坎子	7층 중 석기출토 지점은 알 수 없음	야외	석기 86점: 석해, 박편, 세석인, 세석해, 찌르개, 긁개, 갈린석부 등	마노, 벽옥, 비색암 (이상 3종이 가장 많이 사용됨), 유문암, 규질암, 현무암, 단백석	세석인과 석기 제작에 눌러떼기 기법이 사용됨, 마연기술의 사용, 조정이 많음	없음	동물화석 10종 45점	啓曉, 2004
黑龍江 老	지표채집		석해 3점: 박편 35점, 찌개, 긁개, 찌르개	규질암, 유문암위주, 단백석, 마노	불규칙박편, 찌르개발달, 華北의 소석기문화 전통, 주구점-치욕계 문화전통	없음	없음	趙寶福, 2003; 黑龍江省文物研究所, 1996
黑龍江 十八站 (05년조사)	제2층, 제3층	야외	박편, 석인, 석해, 긁개, 찌개 등	수석 (주요석재), 규질암	직접떼기, 간접떼기 등	없음	없음	于江万, 2006
黑龍江 十八站 (76-77년 조사)	제2층 (사실 점토층)	야외	세석인, 석인, 돌자귀, 박편제 긁개, 쐐기형세 석해	규질암수석 (주요석재), 석영,	주변의 석재를 이용, 직접떼기와 양극떼기, 눌러떼기와 간접떼기			魏正一 등, 1982
	제3층 (역석층)	야외	다양한 석해, 박편, 석기, 쐐기모양석해, 긁개, 찌르개, 석인, 새기개	마노, 혈암, 화강암, 란석	주변의 석재를 이용, 직접떼기와 양극떼기, 석인석해는 단타면			
黑龍江 昂昂溪 大興屯	1층/2층	야외	찌개, 긁개, 새기개, 박편, 석해, 세석해, 석인	옥수, 마노, 수석	세석인기법이 확인되고 박편석기의 비중이 높음 타면조정도 배품	없음	11종: 우는토끼, 들말, 들소, 첫소 등 육식동물이 없음	黃尉文 등, 1984; 高星, 1988
黑龍江 廟鄉屯	2층 (원노랑 가는 모래층)	야외	석기 14점: 버들잎모양석기, 세석기, 박편, 긁개, 밀개	현무암, 처트, 석영, 벽옥, 옥수	소형박편 석기군, 불규칙박편우세	뼈도구 216점, 뿔도구 4점, 이빨도구 11점	큰뿔사슴, 영양뿔, 털코끼리	譚英杰, 1982; 德永重康 등, 1934

黑龍江, 松花江, 嫩江과 같은 하천유역을 중심으로 분포하는데, 黑龍江省은 松嫩평원과 嫩江에 많이 분포하며 遼西지역은 西八間房유적 以外에는 없다 (그림 1).

비석인계 박편석기군이 석영을 중심으로 석재를 이용했던 것과 달리 〈표 4〉에서 보듯이 수석, 규질암, 마노, 석영 등 다양한 석재를 활용함과 동시에



〈그림 6〉 세석인석기군

1~4. 十八站(魏正一, 1981) 5. 顧鄉屯(譚英杰, 1982) 6~12. 昂昂溪 大興屯(高星, 1988) 13·14. 邵家店(陳全家 등, 2006) 15~18. 大布蘇(董祝安, 1989) 19~31. 西八間房(遼寧省博物館, 1973)

吉林省 中·南部지역을 중심으로 흑요석을 이용해 세석인을 제작하기 시작했다. 공반되는 유물은 세석핵, 세석인, 굽개, 밀개, 새기개, 톱니날석기, 홈날석기 등이며, 전형적인 밀개와 새기개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그림 6-6~8·20~21〉처럼 현재까지 보고된 세석인의 형태는 길이가 짧고 폭이 넓으나, 〈그림 6-2·5·15~19〉의 세석핵 작업면을 보면 양질의 세석인도 박리되었다.⁵⁴⁾

西八間房유적은 역삼각형의 세석핵과 함께 세석인, 중앙인형 새기개, 톱니날형 석기, 손톱모양 밀개 등이 출토된 전형적인 세석인석기군에 해당한다(그림 6-19~31). 十八站유적은 〈그림 6-1·2〉처럼 반달모양의 세석핵블랭크와 함께 전형적인 썰기형 세석핵이 출토되었고, 大布蘇유적과 더불어 양면조정기술을 활용해 석기를 제작하였다. 大布蘇유적에서는 〈그림 6-17·18〉처럼 썰기형(단면 삼각형, 이등변삼각형)과 〈그림 6-15·16〉처럼 반원추형의 세석핵도 출토되었다. 세석핵 4점 모두 스폴을 박리하지 않는 대신에 세석인박리면에서 조정하여 타면을 형성시켰고 예비조정은 박편을 주로 이용하였으며 자연면이 남은 경우도 있다. 3점은 밀면조정을 거쳤지만, 한 점은 별다른 조정을 거치지 않았다. 大興屯은 半圓錐形의 세석핵(그림 6-9)이 여러 점의 세석인과 함께 출토되었다. 세석핵 중 〈그림 6-13〉처럼 배모양세석핵과 유사한 것이 있기는 하지만, 타면을 중심으로 양측면을 조정한 예는 아직 없다.

세석인기법의 예비소재제작에서 관찰되는 기술적인 흐름은 양면조정의 썰기형에서 반원추형이나 방형과 같은 非썰기형의 형태로 변화해 나갔지만, 양면조정기술이 석촉이나 석창과 같은 석기제작에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부터는 양면조정된 세석핵이 다시 등장하기도 한다. 十八站유적과 顧鄉屯유적의 세석인기술이 遼寧省지역에서는 관찰되지 않지만, 한반도 남부의 수양개, 집현, 민락동, 해운대 중동유적 등에서는 쉽게 발견되고 있어 그 기술적인 연관

54) 정식발굴조사가 많이 이루어져야지만, 세석인처럼 소형 유물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성을 짐작할 수 있다.⁵⁵⁾

동북지역 세석인석기군은 세석핵과 세석인의 출토수량이 적어 석기접합과 같은 작업공정이 불가능하고, 석인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였고, 여러 세석핵의 형식 중 연해주나 한반도 남부·중국 남부지역에서 확인되는 배모양세석핵의 출토사례가 극히 드문 게 특징이다. 또한 스폴과 같은 기술과정을 알 수 있는 유물이 없고 석기의 복원작업 예가 없어 기술적 복원이 힘들다. 顧鄉屯유적에서 버들잎모양석기가 출토되었다고 보고되었으나, 아직 이 석기군의 출현단계에서는 양면조정 찌르개의 사례가 알려져 있지 않으며, 이러한 점은 세석핵의 제작기술 중 양면조정기술의 부재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표 4>에서 보듯, 顧鄉屯유적에서 다양한 뼈도구가 제작된 예로 미루어 볼 때 토양적 특징이나 발굴사례가 적어 출토되지 않았을 뿐 다양한 뼈도구가 함께 제작 또는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동북지역의 세석인석기군은 예비조정방법에 따라 黑龍江과 松花江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그림 6-1·2·5·17>의 양면조정형, <그림 6-17·18>의 밀면썰기조정형, <그림 6-9·13·15·16·19>의 비조정형으로 나눌 수 있다. 예비소재를 기준으로 하면 原石이용형과 剝片이용형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前者는 양면조정 뒤 스폴을 박리하며 몸체에 자연면이 남아있지 않으며 단면이 세장한 썰기형태인 반면, 後者는 박편의 밀면에 썰기조정을 거의 거치지 않고 세석인박리면이 석기의 最大幅이 되는 경우가 있다. 전반적으로 양면조정기술을 이용한 찌르개, 세석핵, 새기개, 뚜르개 등은 물론 스폴이나 능조정박편처럼 기술과정을 알 수 있는 석기가 드물며, 세석핵이 대량으로 출토되는 유적 예가 적어 제작과정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3) 白頭黑曜石石器群

후기구석기시대 전반과 중반에는 대부분의 석재를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석

55) 張龍俊, 2002. 12, 「韓半島出土 細石核의 編年」, 『韓國考古學報』 제48집, 5~33쪽.

〈표 5〉 백두흑요석석기군의 석기조합상과 특징

遺跡名	出土層位	遺蹟形態	出土遺物	石材	技術的特徵	뼈도구	動物相	參考文獻
吉林和龍石人溝	4층 중 2-4층	야외	석인석핵, 박편석핵, 새기개, 굽개, 새기개스품, 세석인 등	흑요석(100%)	직접떼기, 간접떼기, 눌러떼기 대형 석인을 박리한 석인기법이 발달, 새기개기술발달	없음	없음	陳全家, 2006
吉林輝南邵家店	지표채집	야외	석기 57점: 석핵 6점, 세석핵 1점, 박편 23, 굽개 등 12점	석영, 흑요석, 탄백석, 수석, 유문암 등	직접떼기, 간접떼기 이차가공의 빈도가 많음, 세석인기법	없음	없음	陳全家, 2006
吉林延邊琿春北山	3층 중 2층 (대부분 지표채집)	야외	석기 52점: 석핵 3점, 박편 42점 (세석인 1점), 완성된 석기 7점	흑요석 (86.5%), 유문암, 맥석영, 각혈암, 응회암	직접떼기와 양극떼기로 소형박편을 박리하여 석기를 제작, 세석인기술, 양면조정기술의 사용	없음	없음	陳全家, 2004
吉林乾安大布蘇	모름	야외	석기 1000여점, 세석핵, 세석인, 굽개	수석, 석영, 탄백석, 흑요석	석기제작의 부산물, 반원추형과 췌기형세석핵, 다양한 굽개	모름	동물 화석 14종	姜棚, 2004
吉林和龍柳洞	5개로 나뉘며 3층 (회황색토)	야외	석기 142점 중 4점만 층위 내에서 출토 세석핵, 굽개, 밀개, 새기개, 박편, 석핵, 대석, 대형첨두기편 등	흑요석이 93.6%를 차지 유문암, 안산암, 마노, 이암, 각혈암	세석인기법(양면조정), 밀개와 새기개 등 전형적인 석기제작기법이 적용된 석기형식, 흑요석을 집중적으로 사용	없음	없음	陳全家 등, 2005; 陳全家 등, 2006

재를 구하여 석기를 제작하는 경향이 높았으나, 후반 이후부터는 이러한 추세에 변화가 생긴다. 두만강유역, 즉 백두산의 北東지역을 중심으로 한 흑요석 원산지가 개척되어 새로운 석기재료로 흑요석이 채택되고, 백두산 흑요석이 吉林 大布蘇유적까지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석재의 원거리이동현상도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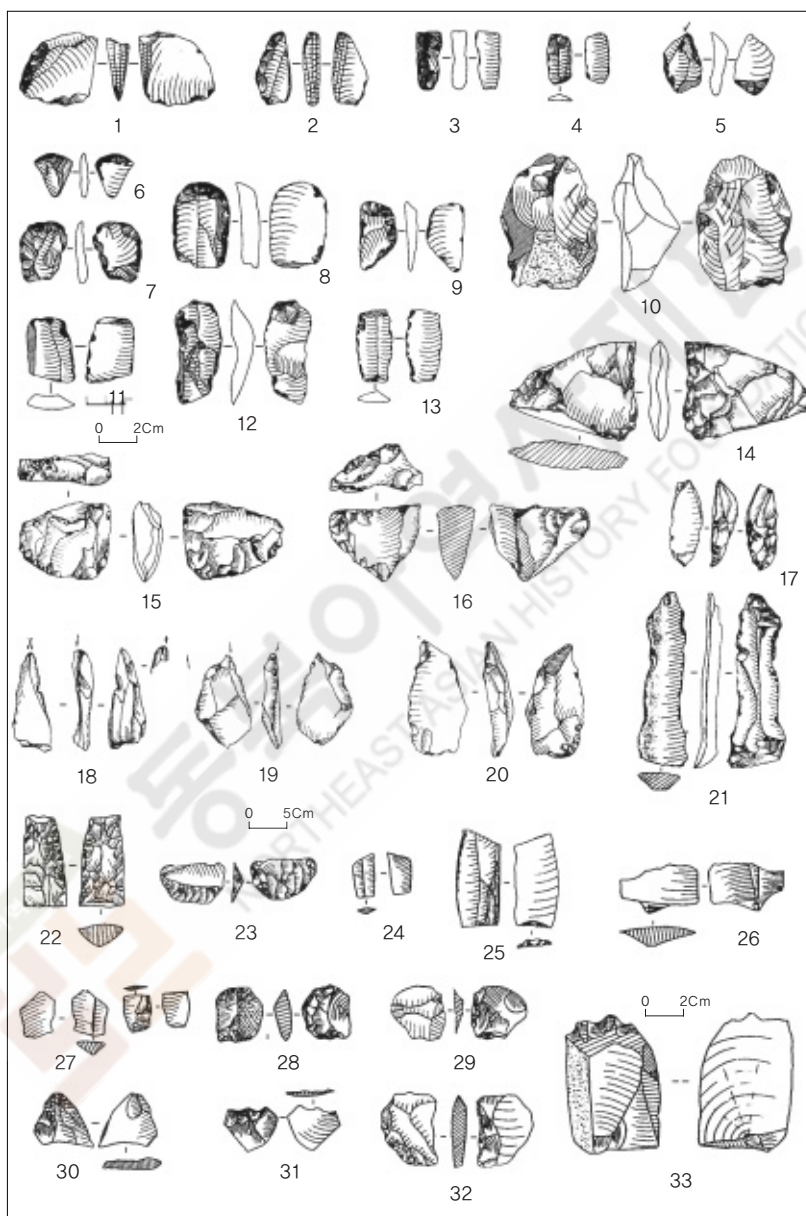
王春雪·陳全家는 흑요석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柳洞, 石人溝, 北山유적에 대해 ‘黑曜巖遺蹟’으로 분류하기도 했는데,⁵⁶⁾ 백두흑요석석기군은 백두산

56) 두만강유역의 후기 구석기시대의 흑요석관련 유적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에 잘 정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기 바란다(王春雪·陳全家, 2006, 『圖們江流域舊石器時代晚期黑曜巖遺址人類的活應生存方式』, 『邊疆考古研究』, 科學出版社, 26~35쪽.

이 原產地인 흑요석을 사용해 박편을 이용한 소형석기의 제작, 석인을 이용한 종장박편제 도구의 제작, 세석인을 이용한 조합식 석기의 제작, 양면조정기법의 활용 등 석기제작수준이 상당히 높았다. 석기를 제작할 때는 잔손질의 빈도가 높고, 兩方向 조정이 많으며, 심지어 전면에 걸쳐 눌러떼기로 조정된 예가 많다. 〈그림 7·8〉에서 보듯 흑요석제 석기의 특징은 조정빈도가 높아짐과 동시에 박리된 후의 刃部를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조정에 의존하였고, 많은 조정을 거침으로 인해 정형성과 대칭성이 뛰어나고 석기기술이 후기 전반의 박편석기군과 석기형식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다. 비석인계 박편석기군과 세석인석기군 중 석영암계통의 석기제작을 脫皮하여 흑요석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새로운 문화양상이 출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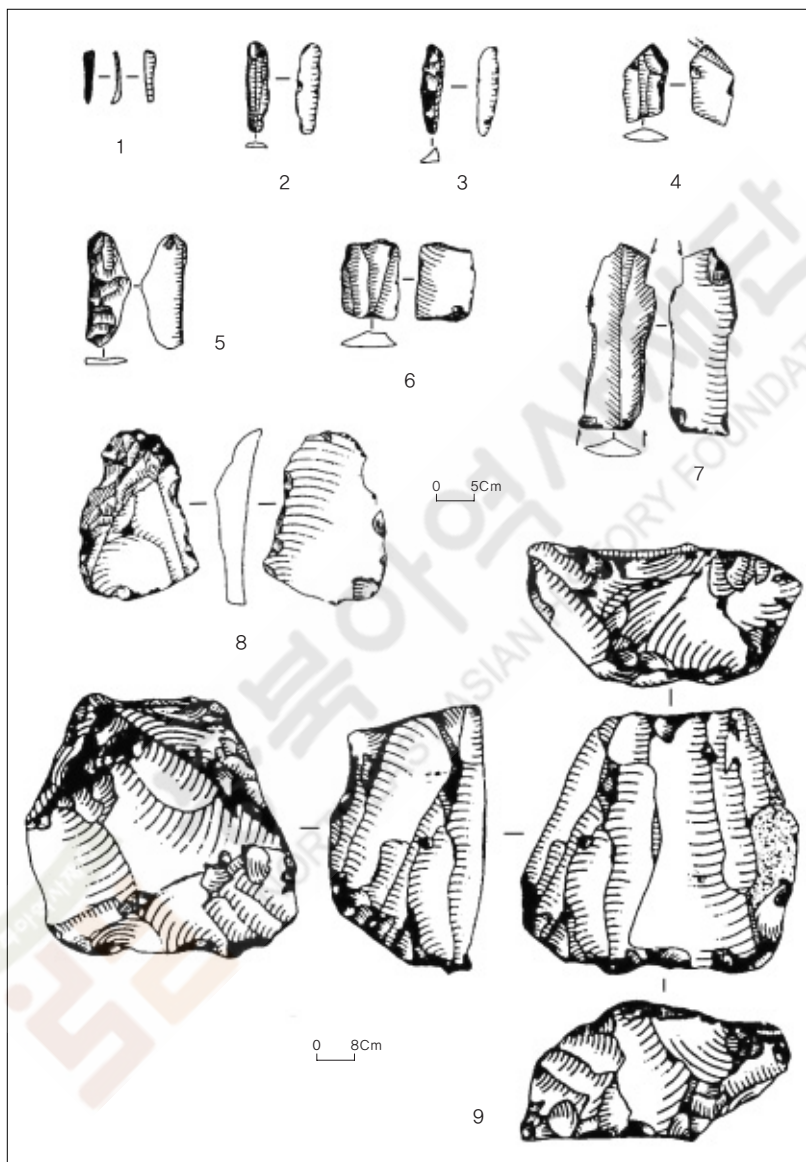
또한 和龍 石人溝유적은 29cm나 되는 대형 흑요석원석이 출토되었는데 현재까지 발견된 흑요석 중에서는 가장 큰 것이며 원산지가 백두산일 가능성이 높다(사진 1). 왜냐하면, 이 정도의 석재 크기라면 운반하기가 용이하지 않고, 원석의 직접적인 이동보다는 現地에서 일차가공을 거친 뒤 무게를 최소화시켜 박편이나 석인의 형태로 외부로 반출시키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실제 20cm나 되는 석인을 박리한 흔적을 지닌 석인석핵도 한 점 출토되어 이러한 사실을 입증해 준다(그림 8-9). 성급한 판단일 수 있겠지만, 백두흑요석의 사용시스템은 대형원석에서 소재를 집중적으로 박리하는 예비소재 생산유적을 통해 석기의 소재를 제작하고 분배하는 유적(소재생산형: 石人溝유적)과 그 하위의 단계에서 직접적으로 석기를 제작해 사용하는 유적(사용유적: 邵家店, 北山, 柳洞)으로 나눌 수 있다.

한편, 세석핵은 박편을 예비소재로 주로 제작되었고, 세석인석기군과 마찬가지로 밀면만 조정하는 형(그림 7-1), 타면만 만드는 형(그림 7-2), 양면조정형(그림 7-15·23)이 있다. 양면조정형은 黑龍江省의 十八站유적(그림 6-1·2·5)과 동일한 기술계통이다. 〈표 5〉에서 보듯 세석인석기군과 동일하게 새기개와 밀개의 제작이 늘어나며 밀개는 소형박편을 이용해 배면에서 등면으로 조정하거나 兩방향으로 조정하였다. 새기개는 中央刃型(그림 7-18·19), 斜行刃型(그림 7-5·8-4), 直角刃型(그림 7-20·8-7)으로 나눌



〈그림 7〉 백두흑요석시기군 I

1~21. 和龍 柳洞(陳全家 等, 2005) 22~33. 琢春 北山(陳全家 等, 2006)



〈그림 8〉 백두흑요석석기군 II

(吉林 石人溝 흑요석원산지유적, 陳全家 等, 2006)

1·2. 세석인 3. 새기개스플 4·7. 새기개 5. 잔손질된 박편 6. 석인박편 8. 밀개 9. 석인석핵

수 있다. 다만 언제부터 이것들을 이용하여 석기를 제작하였는지는 정식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세석인석기군의 영향을 받아 1.5만 년 전부터 신석기시대의 8천 년 전까지가 가장 많이 흑요석을 가장 많이 사용했던 시기로 생각된다. 특히 두만강유역을 중심으로 한 석기군으로 두만강석기군으로 부를 수 있다.

2_ 石器群의 變遷

東北 三省지역의 석기군을 세 개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이들 석기군은 특정 시기에만 출현한 것도 있지만, 문화발전의 연속적인 선상에서 새로운 석기제

〈표 6〉 중국 동북지역의 후기구석기유적의 편년

단계	시기 (BC)	비석인계 박편석기군	세석인 석기군	백두흑요석 석기군	문화적 특징	석재
종말기	1.0~0.8만 년 전	顧鄉屯 大橋屯 十八站 大坎子 青山頭	后套木 大興屯2층	北山 邵家店	원추형 세석핵 등장 양면조정기술의 발달 석촉출현 토기의 등장 인부전체를 조정하는 경우가 많아짐 갈린석기사용(석부 등)	· 이전 시기의 전 통을 계승 · 吉林남부지역은 흑요석을 집중 적으로 이용
후반	1.5~1.0만 년 전	小南山 老 紅嘴子 景興	邵家店 西八間房 大興屯1층	柳洞 石人溝 大布蘇	흑요석이용 세석인기법발달 (특히 췌기형세석핵) 새기개 (중앙인형, 모서리형) 소형밀개	
중반	2.0~1.5만 년 전	北山 荒山 撫松 仙人洞 下白龍 閭家崗 古龍山동굴 廟后山7층 小孤山2층	十八站 大布蘇 清和屯 제1지점		밀개의 본격적인 사용 다양한 석재의 사용 세석인기법의 출현 (눌러떼기방법의 출현)	· 수석 등 다양한 석제사용(석영 암위주에서 탈 피)
전반	4~2.0만 년 전	九站西山 荒山 老溝河 顧鄉屯 周家油坊 清和屯 小孤山 3층과 4층 學田			선단조정찌르개 괘개발달 방사상박리 (유사르발르와석핵) 선단조정찌르개 비석인계 소형박편의 박리기술 석핵석기의 감소	· 석영암 중심

작기술이 추가되는 양상도 보여주었다. 석기군의 제작기술과 절대연대(표 7) 등을 참조하여 후기구석기시대를 전반, 중반, 후반, 종말기의 4단계로 설정하였다(표 6).

전반(4~2.0만 년 전)은 비석인계 박편석기군 중 석핵석기와 박편석기가 함께 출토되는 시기로 세석인기법이 출현하지 않는다. 석영계 석재를 중심으로 한 석기제작이 눈에 띄며, 吉林省 남부에서 쉽게 발견되는 흑요석이 동북 지역의 후기구석기시대 전반에 해당하는 석기군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것이 석재운용전략의 특징이다. 박리기술은 직접떼기와 양극떼기가 주로 사용되었고, 구심박리를 이용해 중·소형의 박편도 획득했다. 불규칙 박편중심의 석기 제작, 소형긁개와 톱니날중심의 도구류, 석영계통의 석재의 지속적인 사용, 유경식 석창의 不在, 전형적인 새기개의 不在, 내몽고지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구심박리기술의 석핵이 周家 油坊유적(그림 5-10)과 淸和屯유적(그림 5-11)에 존재한다.

출토된 모든 동물뼈가 직접적인 수렵행위의 결과물로 보기는 어렵지만, 털코끼리가 석기와 공반되는 사실은 인류의 수렵행위와 관련성을 보여준다. 소형박편석기의 발달은 털코끼리·털코뿔이 동물군을 대표하는 寒冷동물군의 출현과 무관하지 않다. 빙하기의 발달에 따른 森林形 생계방식에서 草原形 생계방식으로의 변화에 기인한 移動性を 담보로 석기의 단순화가 진행되었고, 대신에 복합도구가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난다.⁵⁷⁾ 기술박편 또는 석핵이

57) 세노그램에 의한 기후환경의 해석에 따르면 숲환경은 0.5~5kg의 종이 많으면서 250kg 이상의 종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 반면, 초원과 같은 개활지의 경우 0.5~5kg 사이의 종이 아예 없거나 드물다. 또한 습한 환경에서는 종수가 많고 큰 젖먹이종이 많은 데 반해 건조한 환경은 종수가 적고 큰 젖먹이종이 적다(조태섭, 2005, 『화석환경학과 한국 구석기시대의 동물화석』, 혜안, 230쪽).

동북지역에서 출토된 동물상으로 미루어 볼 때 후기 구석기시대에 東北 三省지역은 털코끼리, 털코뿔이, 들소 등이 중심이 된 대형동물군이 전반적으로 출토되고 있어 당시 환경은 삼림이었다기보다는 초원이었다. 특히 털코끼리는 遼寧省 古龍山·小孤山, 吉林省 紅嘴子·油坊·大橋屯, 黑龍江省 碾子山·小南山·閻家崗·學田·荒山유적 등에서 시기에 상관없이 출토되고 있다. 다만, 남쪽에 위치한 遼寧省지역은 黑龍江省지역의 세석기유적 말기와 달리 털코끼리 - 털코뿔이가 점차 사라져 출

多量으로 출토되는 석기제작지유적이 드물고 사냥감을 따라 이동하는 臨時居住處에서 일시적으로 석기가 제작되었던 것이다. 이들 석기군 중 석기생산관련 유적이 드물고 定住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竪穴住居가 나타나지 않 점도 이를 뒷받침해 준다.

또한 비석인계 박편석기군은 한국의 슌베찌르개, 일본의 박편첨두기와 나이프형 석기, 中國 華北지역의 소형찌르개와 같은 특정형식의 찌르개가 관찰되지 않는다. 찌르개가 발달한 지역은 縱長指向의 剝片技術이 발달한데 반해 東北 三省지역은 석인이나 종장박편을 떼는 박리기술이 출현하지 않는다. 박리가 용이한 均質制 石材를 이용한 석기제작의 容易性을 선택하기보다는 거칠고 투박하더라도 석영처럼 석기의 강도를 중시하는 경향이 強하였다. 유물구성상을 보더라도 石槍의 先端部에 석기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수렵도구에 의존하기보다 뼈나 나무로 된 창, 함정을 이용한 동물사냥, 협동에 의한 사냥법 등 아직 밝혀지지 않은 수렵행위가 적극적으로 개발되었을 개연성이 크다. 이러한 양상은 생계방식의 多元化의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비석인계 박편석기군은 이른바 석기제작에서 패턴화된 석기형식을 보유하지 못한 집단이었다. 다소는 자의적이고 臨機應變의인 도구제작을 통해 생존을 위해 시급하게 제작된 것이었다. 석인이나 세석인 제작집단과 비교하면 환경에 대처하는 기술적 능력이 부족하고 활동영역이 넓지는 않았다. 그 결과 수렵이나 생존정보에 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았고 독자적인 생활영역을 구축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까지의 자료만으로 집단 내부의 작업들이 性的 分業으로까지 이어졌는지는 알기 어렵다.

중반(2.0~1.5만 년 전)은 비석인계 박편석기군과 함께 세석인석기군이 출현한다. 주변지역의 세석인유적의 출현연대를 고려한다면, 2.5만 년 전까지 소급될 가능성도 있지만, 東北 三省지역에서 세석인문화의 출현기에 해당

토 예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지는 것으로 볼 때 세석인석기군의 늦은 시기에 환경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표 7〉 중국동북지역의 후기구석기유적 절대연대표(참고문헌은 주 59를 참조)

遺跡名	層位	測定試料	14C年代 (yrs BP)	備考	參考文獻
黑龍江龍江·白土山	黃土狀亞砂· 亞粘土層	原牛化石	9,250±30	原牛	黎興國 等, 1987
黑龍江昂昂溪·大興屯	제2트렌치2층	破碎骨	9,460±80	밀개·뺨기형세석핵	黎興國 等, 1987
吉林省 青山頭	제7층상부		10,940±179	석기 6점(지표채집)	尤玉柱 等, 1984
黑龍江昂昂溪·大興屯	제1트렌치1층	파쇄골	11,470±150	밀개·뺨기형세석핵	黎興國 等, 1987
遼寧喀左· 二尺布安杖子洞穴	3층	골편	12,482±157		社會科學院考古 實驗室, 2001
黑龍江饒河·小南山	지표아래5m 사리층	틸코끼리화석	12,910±410	후기구석기·골기	黎興國 等, 1987
吉林安圖·明月溝		말	12,940±535	野馬	黎興國 等, 1987
黑龍江海拉爾·北山 廠	황토상 아사 토층	原牛化石	14,790±480	原牛	黎興國 等, 1987
黑龍江海拉爾·北山 廠	지표아래8m	틸코끼리상아	16,920±2,000*	소형박편석기군	王令紅, 1989
遼寧復縣·古龍山洞穴		뼈화석	17,090±240	글개·뼈조각·破碎骨	黎興國 等, 1987
黑龍江哈爾濱·閻家崗		뼈화석	21,740±300	후기구석기	張之桓 等, 2003
黑龍江哈爾濱·黃山	顧鄉屯조 지층	목재	23,190±650		黎興國 等, 1987
吉林榆樹· 周家油坊第4地点	지표아래4.4m	수지	23,460±800		黎興國 等, 1987; 孫建中 等, 1981
遼寧本溪·廟後山	7층	野牛骨化石	23,880±570	글개	遼寧博·本溪市 博, 1986
吉林安圖·明月溝		틸코끼리견갑골	25,810±535	틸코끼리	黎興國 等, 1987
吉林榆樹· 周家油坊第4地点	지표아래 6~7m	낙엽송	25,360±850	原牛·野牛· 틸코끼리	黎興國 等, 1987; 孫建中 等, 1981
吉林榆樹· 周家油坊第4地点	지표아래5.4m	낙엽송	26,740±735*		仇士華 等, 1990; 孫建中 等, 1981
遼寧本溪·廟後山東洞	2층	용경골화석	27,240±680	후기 구석기	遼寧博·本溪市 博 1986 ⁵⁸⁾
吉林安圖·明月溝		틸코끼리치아	27,905±730	틸코끼리	黎興國 等, 1987
吉林榆樹·周家油坊		틸코끼리화석	28,910±1,185	틸코끼리	黎興國 等, 1987; 孫建中 等, 1981
黑龍江哈爾濱·顧鄉屯			29,150±700	석기, 골기	啓曉, 2004
黑龍江哈爾濱·顧鄉屯	지표아래 4.3~4.6m	고토양	29,340±870	상층 고토양	黎興國 等, 1987
黑龍江哈爾濱·黃山	顧鄉屯조 지층	목재	30,000±700		黎興國 等, 1987
吉林榆樹·周家油坊		틸코끼리化石	30,900±875	틸코끼리	黎興國 等, 1987; 黎興國 等, 1981
黑龍江哈爾濱·廟鄉屯	지표아래7.7m	고토양	33,660±3,270	하층 고토양	黎興國 等, 1987
吉林安圖·明月溝		틸코끼리치아	34,370±1,795	틸코끼리	黎興國 等, 1987
吉林榆樹·大康家屯	제2단구퇴적물	틸코끼리상아	38,290±2,000	만기경신세증부	黎興國 等, 1987
黑龍江哈爾濱·顧鄉屯	지표아래15m 이탄층	실트	>40,000		黎興國 等, 1987

(계속)

58) 遼寧省博物館·本溪市博物館, 1986, 『廟後山 - 遼寧本溪市舊石器文化遺址』, 文物出版社.

遺跡名	層位	測定試料	14C年代 (yrs BP)	備考	參考文獻
黑龍江五常·學田	상하문화층		24,500±400 38,800±3,500 39,600±3,500 40,200±3,500	인류화석·박편	張之恒 等, 2003; 啓曉, 2004

하는 관련유적은 아직 확인된 바 없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세석인석기군 중 2만 년 전 이상까지 보급될 만한 유적도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표 7 참조).⁵⁹⁾ 이 당시의 기후는 매우 寒冷乾燥하였으며, 閭家崗·小孤山동물군, 古龍山·前陽동물군이 생존하였던 시기로 초원동물이 서식할 수 있었던 평원을 형성하였다. 석재가 다소 粗惡하여 소형박편을 박리하기 위한 양극떼기의 비율이 한반도지역이나 연해주지역보다 높은 편이며, 눌러떼기도 사용되었다. 소형박편을 이용한 굵개와 함께 밀개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며, 석염암에 偏重되던 것이 마노, 유문암, 수석, 벽옥, 흑요석 등 석재 종류가 다양해진다.

〈그림 5-7〉처럼 박편을 이용하여, 先端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정한 찌르개가 제작되지만, 기부를 제작한 흔적은 없다. 눌러떼기를 이용한 세석인기술의 출현, 吉林省과 黑龍江省을 중심으로 한 北方形 세석인관련유물의 집중적인 출토와 켜기형세석핵(양면조정형, 박편의 배면이용형)이 발달한 점은 주변지역과의 활발한 접촉과 이동의 산물이었다. 세석인문화는 黑龍江과 松花江의 兩面調整 技術文化와 遼河지역의 非兩面調整 技術文化로 兩分할 수 있으며, 前者가 흑요석제 석기문화를 탄생시키는 기술적인 기반이 되었다.

유물구성상에서 세석인석기군은 일반적으로 석인기법을 보유하고 있고 그것을 이용한 도구제작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반해, 東北 三省지역은

59) 仇士華·陳鐵梅·蔡蓮珍, 1990, 『中國C-14年代學研究』, 科學出版社; 黎興國·劉光聯·許國英, 1987, 『C-14年代測定報告』, 『第四紀水川與第四紀地質論文集』第4集, 地質出版社; 王令紅, 1989, 『中國古人類和舊石器時代文化地點的年代測定』, 『中國遠古人類』, 科學出版社;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考古科技實驗研究中心, 2001, 『放射性炭素測定年代報告(二七)』, 『考古』7期; 張之恒·黃建秋·吳建民, 2003, 『中國舊石器時代考古』, 南京大學出版社; 松藤和人, 2004, 『日本列島における後期舊石器文化の始原に関する基礎的な研究』, 37~64쪽.

이전시기의 비석인제 박편을 이용해 석기를 제작하는 특수성을 보인다. 東北三省의 세석인석기군이 주로 분포하는 嫩江과 松花江유역의 유물양상으로 보아 吉林省지역은 북한 북부지역·내몽고지역과 黑龍江省은 러시아지역과의 직·간접적인 연관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후술하겠지만, 黑龍江省지역에서 출토되는 세석인석기군까지 華北지역의 세석인기법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석하거나 비석인계 세석인석기군에 의해 자체적으로 발생했다고 보기에는 지리적 거리만큼이나 기술 관련성이 적다.

동북지역의 세석인석기군의 성격을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는 북방문화의 한반도유입의 경로선상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의 후기구석기문화를 파악하는데도 중요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특이한 점은 세석인이 출토되는 유적(백두혹요석석기군 포함) 중 야외유적만 있을 뿐 동굴유적은 없다.

후반(1.5~1.0만 년 전)은 비석인계 박편석기군, 세석인석기군, 백두혹요석석기군이 함께 나타나며, 특히 흑요석을 이용한 석기군이 눈에 띈다. 세석인기술이 발달하여 組合式 찌르개가 제작되었음을 새기개(中央刃型, 直角刃型)와 밀개를 통해 알 수 있다. 백두혹요석석기군의 출현은 黑曜石을 이용한 새로운 기술출현의 시발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단계의 석기문화는 직접떼기를 기본으로 하여 세석인 박리에만 눌러떼기를 국한시키지 않고 새로운 도구제작에도 사용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기술을 통한 양면조정된 석창, 석촉, 석도 등의 제작은 도구의 기능이 다변화되어 가는 현상을 반영해 준 눌러떼기를 이용하면 얇고 깊게 떼어낼 수 있다는 기법상의 특징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흑요석의 물리적 성질을 활용하였다. 흑요석제 석기문화는 중국 북부지역의 泥河灣지역이나 華北지역의 석기문화나 비석인계 박편석기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에는 기술적인 면이나 석재의 이용방식 면에서 상당한 乖離가 있다. 그러므로 세석인문화가 발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흑요석이 출토되지 않는 遼河지역보다는 吉林省과 黑龍江省지역, 沿海州지역의 세석인기술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출현한 것이다.

세석인석기군의 출현은 以前시기에 구축되지 못한 사회적인 네트워크형

성이 초보적이지만 등장하기 시작했음을 알려준다. 비석인계 박편석기군에서 보이지 않는 특수한 석재의 사용과 세석인을 이용한 複合石器(composite tool)의 제작기술을 공유하는 현상은 빙하기 때 점점 고갈되어 가는 식량자원의 획득방법에 대한 정보공유의 결과물이다. 또한 석기의 경량화에 따른 유동 영역의 확대도 문화적인 공통성을 창출한 한 요인이었다.

종말기(1.0~0.8만 년 전)는 후기 구석기와 신석기의 移行期로 흑요석제 석기제작의 발전, 양면조정기술의 발달(양면조정 세석핵·석촉·석창·석도 등), 새기개의 발달, 흑요석을 중심으로 한 石材의 遠距離移動 및 交換體系의 成立, 圓錐形세석핵이 등장한다. 圓錐形세석핵의 출현은 遼寧지방 신석기문화 중 紅山문화의 查海지역 세석인기술과 동북지역 신석기시대의 흑요석제 석기제작에 영향을 미쳤다. 吉林지역 북부에 위치한 后套木嘎 유적처럼 갈린 석부, 양면조정석촉, 양면조정 세석핵, 밀개, 양면조정찌르개 등이 출현하며, 지표에서 토기편도 일부 출토되었다.⁶⁰⁾

백두흑요석석기군의 양면조정세석핵은 박편의 배면을 많이 활용하였고, 특히 타면을 제작할 때 배면에서 등면으로 橫方向 조정을 연속적으로 베푼 뒤 스폴(spall)을 박리하는 기술적 특징이 나타난다. 원추형세석핵의 등장은 켜기형 세석핵의 쇠퇴를 대변하지만, 지역에 따라 조합식 석창은 여전히 사용되었음을 말해 준다. 이러한 경향은 수렵도구가 구석기전통을 벗어나 차츰 활을 이용한 새로운 수렵방식의 등장을 예고함과 동시에 변화된 환경에 대한 새로운 대처방법이 절실했음을 의미한다.

무엇보다도 終末期의 백두흑요석석기군은 한반도 동북부의 신석기시대 석기문화의 근저가 되었으며, 석인을 이용한 다양한 석기, 세석인, 석촉, 석도, 밀개, 굽개, 새기개 등이 주요한 석기형식이었다. 한반도 신석기시대의 원류를 찾는데 있어 백두산 동쪽의 두만강을 중심으로 북한의 함북지역 북부와

60) 華北지역 중 토기가 가장 먼저 출현한 곳은 于家溝와 于南庄頭에서 출토된 것으로 대략 1만 년 전후의 연대이다. 특히 于家溝에서는 원추형세석핵, 켜기형세석핵, 류엽형찌르개, 밀개 등이 토기와 함께 출토되었다(謝飛·李珺·劉連強, 2006, 『泥河灣舊石器文化』, 花山文藝出版社, 1~278쪽).

중국 동북지역 중 吉林省 延吉지역의 흑요석으로 만든 석기가 출토되는 유적을 앞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요령지방의 세석기문화도 신석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용되었고 원추형 세석핵의 발달이 눈에 띈다. 반면 吉林省지역의 경우는 기존의 구석기시대의 백두흑요석석기군에 석촉과 가공이 많은 석기들이 상호간에 보완작용이 일어나면서 신석기시대까지 존속한다.

IV. 石器製作技術과 系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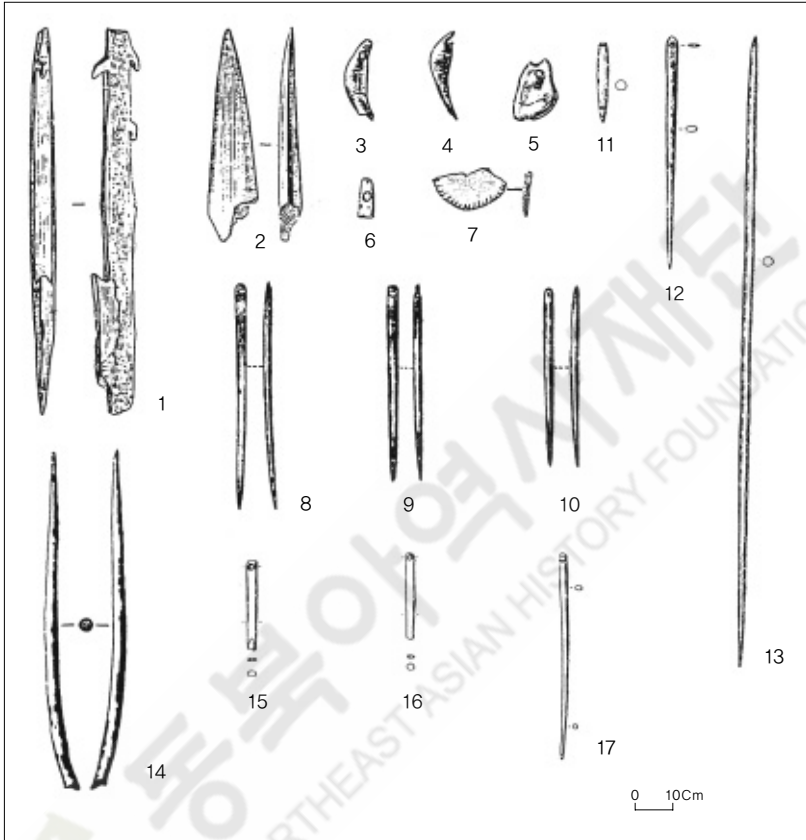
1_ 製作技術의 多樣性

러시아의 프리바이칼지역에서 바다표범을 포획하기 위한 작살 중 小孤山유적의 뼈작살(그림 9-1)처럼 기부에 돌기가 있는 유형은 글라스코보형이라 부르는데, 작살이 출현하는 것은 바다표범의 뼈가 출토되기 시작한 중석기시대보다 훨씬 늦은 만기 신석기시대~초기청동기시대이다.⁶¹⁾ 小孤山출토품의 경우 기부의 돌기와 몸신의 돌기와의 간격이 긴 편에 해당하므로 시기적으로 신석기시대 말에 해당될 수도 있겠지만, 바이칼지역과 중국동북지방의 지리적 격차를 고려한다면, 굳이 러시아지역의 편년에 맞출 필요는 없다.⁶²⁾ 작살의 형태는 기부에 하나의 돌기가 있고 몸신의 양쪽에 돌기가 있다. 이것은 러시아 중석기시대의 베르호렌스카야산 I 유적의 출토품과 거의 동일하며, 중국에서는 후기구석기시대부터 신석기시대에 걸쳐 5점의 뼈작살이 알려져 있으나 이와 유사한 예는 없으며 기부에 구멍이 있는 형식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小孤山유적에서 출토된 상아와 동물뼈로 만든 뼈바늘 3점(그림 9-8~10)은 일부 끝부분이 파손되었지만, 거의 완형에 가까우며 바늘의 구멍은 양쪽에

61) 小畑昭己, 2001, 『シベリア先史考古學』, 中國書店, 105~128쪽.

62) 최초 보고된 도면과 달리 先端部가 基部가 되고, 基部가 先端部일 가능성이 높다.



〈그림 9〉 중국 동북지역과 주변지역의 석기이외의 기술다양성 관련 유물

小孤山(1, 뼈작살 2, 창끝 3~7, 장신구 8~10, 바늘:黃慰文 등, 1986), 코코레보1유적(11~13, 바늘:木村英明, 1997), 北京 山頂洞(14, 바늘:裴文中, 1999), 쿨라(15~17, 바늘:木村英明, 1997)

서 마주보게끔 투공하였다. 裝飾品은 담비·작은 들고양이·사슴의 윗견치와 肉食類동물의 견치를 소재로 하여 구멍을 뚫은 것이 4점(그림 9-3~6), 조개 껍질에 구멍을 뚫은 것은 1점(그림 9-7)이다. 러시아지역의 코코레보1유적, 쿨라유적에서도 바늘이 출토되었는데 쿨라유적의 경우 대략 2만 년 전의 연대를 지니고 있어 小孤山유적의 연대도 2만 년 전을 전후한 시기로 생각된다.

구멍을 내는 작업은 처음에는 석기를 이용하여 깎 뒤 透孔하였으며 조개

겉질의 투공부에 赤色顔料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볼 때 적철광이 사용되었다.⁶³⁾ 러시아의 우스티 베라야유적 제Ⅱ발굴지역의 제5토층(중석기시대층)에서 개의 매장유적이 확인되었는데, 여기서 출토된 개의 머리에는 사슴의 송곳니 8개로 만든 목걸이가 발견되었다. 출토지점은 $8960 \pm 60\text{BP}$ 의 절대연대가 나온 층의 하부이다. 그 외에도 우스티 드라가야묘지유적 제1호묘 출토 목걸이, 지가로보 티호에 프레소묘지유적 제1호묘의 머리장식 등이 小孤山유적에서 출토된 것과 상당히 유사하다.⁶⁴⁾

특히 小孤山유적의 조가비연대가 $10,870 \pm 240\text{BP}$ 이고, 바늘·조가비·목걸이장식이 나온 산정동유적의 $13,000 \sim 29,000\text{BP(AMS)}$, $10,470 \pm 360\text{BP(C-14)}$ 의 연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⁶⁵⁾ 장신구와 어로구의 출현은 만빙기의 급격한 환경적 변화에서 오는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동물뼈를 이용해 주술을 통한 식량획득에 대한 염원을 표현함과 동시에 水中生物을 이용한 새로운 食糧原의 開發이라는 측면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시기의 인류는 전통적인 타제석기를 계승함과 동시에 눌러떼기·간접떼기, 磨研·透孔기술은 물론 山頂洞유적처럼 장식품·뼈바늘(그림 9-14)·원시 조각예술품과 매장이 확인되었고,⁶⁶⁾ 小孤山유적은 뼈로 만든 작살, 찌르개, 장신구가 출토되었다. 東方廣場유적에서는 불을 사용한 흔적, 峙

63) 顧玉才, 1996, 「海城仙人洞遺址裝飾品的穿孔技術及有關問題」, 『人類學學報』15-4, 269~283쪽.

64) 小畑昭己, 2001, 앞의 책, 1~522쪽.

65) 陳鐵梅·袁振新, 1992, 「山頂洞遺址第二批加速器質譜C-14年齡數據與討論」, 『人類學學報』11-2. 뼈바늘은 上室의 상부에서 출토되었고 下室에서 구멍 뚫린 조개, 인골 3점, 적철광석 가루, 구멍 뚫린 자갈과 돌구슬이 출토되었다. 山頂洞유적의 上室문화층에서 동물뼈를 이용한 연대자료에서 AMS측정을 한 결과 $13,200 \pm 160$, $27,500 \pm 380$, $23,700 \pm 350$, $27,370 \pm 410$, $25,700 \pm 360$, $28,680 \pm 460$, $29,100 \pm 520$ 을 얻었다. 하나의 문화층에서 다양한 연대측정치가 확인되어 후기 구석기에 해당하는 유적임에는 분명하지만, 그 안에서 시기를 설정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는 1961년 최하층의 동물뼈시료를 이용해 측정된 $18,340 \pm 410\text{BP}$ 와 1990년에 下室의 사슴의 사지골을 이용해 측정해서 나온 $10,470 \pm 360\text{BP}$ 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66) 裴文中, 1999, 『舊石器時代之藝術』, 商務印書館, 1~161쪽.

峪유적에서는 석촉이 출토되는 등 매우 다양한 인간행위의 흔적들이 확인되었다. 山頂洞유적의 C-14연대가 $18,865 \pm 420$, $10,770 \pm 360$ 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재측정을 통해 23,000~33,000년 전으로 파악되어 연대가 다소 遡及되었다.⁶⁷⁾

작살과 창끝으로 미루어 볼 때 小孤山人은 자르고, 톱질하고, 깎고, 마연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⁶⁸⁾ 비록 유물의 출토수량은 적지만, 이러한 유물에서 알 수 있는 기술적 특징은 현재 사용되는 여러 기술들이 후기 구석기시대에 이미 사용되었음을 증명해주며, 돌 뿐만이 아니라 어떤 재료라도 자유롭게 활용해서 새롭게 도구를 창출해 낼 수 있는 발전된 문화를 보유하고 있었다.

2_ 系統

華北지역은 대형석기가 특징인 岔河 - 丁村系 또는 大石片砍斫器 - 大三稜尖狀傳統, 소형석기가 특징인 周口店 제1지점 - 峙峪계 또는 船頭狀刮削器 - 雕刻器전통이 있다. 前者는 역시, 三稜大尖狀器, 주먹도끼, 사냥돌, 굽개 중 석핵석기의 비중이 높고, 後者는 박편을 이용해 굽개, 찌르개, 새기개, 역기로 가공구의 비중이 가장 높은 차이점이 있다.⁶⁹⁾ 특히 華北지역의 소형석기(小石器)전통은 馬圈溝, 小長梁, 東谷 砦유적 등의 전기구석기시대부터 板井子, 峙峪, 西白馬塋유적의 후기구석기유적까지 계승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⁷⁰⁾

중국 북부지역은 劉家 유적출토 석기군을 모태로 峙峪, 下川 下層, 塔水河유적에서 석인석기군이 출현하는 것으로 대체로 파악하고 있다. 加藤眞二는 峙峪석기문화의 시대를 기존의 기술전통을 토대로 생업활동의 특수화를 계기로 석인기술의 확립과 그 석기제작기술의 편입으로 대표되는 인류의 새

67) 陳鐵梅·袁振新, 1992, 앞의 책, 112~116쪽.

68) 黃慰文·張鎮洪·傅仁義·陳寶峰·劉景玉·祝明也·吳洪寬, 1986, 앞의 책, 259~266쪽.

69) 賈蘭坡, 1986, 「中國舊石器時代考古」, 『中國大百科全書-考古學-』,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683~689쪽.

70) 謝飛·李珣·劉連強, 2006, 『泥河灣舊石器文化』, 花山文藝出版社, 1~278쪽.

로운 기술적 대응이 일어난 시대라 주장하였다. 그는 遼寧省을 포함한 중국북부지역의 석기군을 대형석인 박리기술군(A유형), 소형석인 박리기술군(B유형), 석인기술을 지니지 않은 석기군(C유형)으로 분류하였다.⁷¹⁾

하지만, 중국 東北 三省에서 A유형과 B유형은 전반과 중반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양상으로 보아 東北 三省지역에서 후기구석기 전반의 석기군은 중기구석기시대 석기군의 기술전통을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석인기법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는다.

1972년 賈蘭坡가 華北지역의 二大傳統論을 제시한 이후 후기구석기시대 중기구석기시대의 전통을 이어받은 소형석기전통과 華北지역의 세석기전통이 중국 내 구석기문화의 주된 흐름이었던 게 사실이다. 그러한 영향아래에서 辛占山·顧玉才是 遼河지역석기군을 소석기전통과 세석기전통으로 분류하였고, 陳全家는 동북지역을 3개유형으로, 啓曉는 陳全家의 분류를 토대로 黑龍江省지역을 3개 유형으로 나누었다(표 8). 결국 큰 석기유형이 부가되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소형석기와 세석기가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기본 근거에 깔고 있다. 華北지역 석기군을 염두에 두고 東北 三省지역의 석기문화를 일원론적 논리로 바라보는 것은 접근방식에서 문제가 있다.

한편 趙賓福은 북방지역의 문화전통을 소석기위주의 문화전통과 석인-세석기위주의 문화전통으로 구분하고, 기술기반을 간접떼기와 눌러떼기의 채용으로 보았다.⁷²⁾ 十八站유적이 확인된 黑龍江(아무르강)유역에는 러시아지역에서 발견된 많은 세석인석기군이 위치한다. 이 강의 下流에는 즈메이나야, 포로가야, 바르카스나야, 우스피우리마유적 등 10개 유적과 연해주의 우스피노프카, 그로마투하, 스보로보유적 등 11개 유적을 포함해 20여개의 유적이 확인되었다. 특히 셀렘자유적군에 대해 데레비안코는 쉐기형세석핵, 프리즘형 석핵, 양면가공석기, 밀개, 대형굵개, 새기개, 석인제 석기 등을 근거해

71) 加藤眞二, 2000, 「中國北部の後期舊石器文化」, 『舊石器考古學』 60, 舊石器談話會, 57~67쪽.

72) 趙賓福, 2003, 앞의 책, 120쪽.

〈표 8〉 중국 내 후기구석기관련 주요견해

研究者	區分	細部內容	備考
賈蘭坡(1972)	華北을 二大傳統으로 구분	1. 涇河-丁村系(쥬개-三稜尖狀器전통) 2. 周口店 제1지점-峙峪系(船底形쥬개-새기개전통): 華北지역 세석기문화의 모태	
黃尉文(1989) ⁷³⁾	후기를 5개지역으로 설정	華北지역: 소형석기전통, 석인석기군, 세석인석기군	
張森水(1990)	후기구석기문화를 두 석기군으로 분류	1. 소형석기공작 A: 直承單一類(樓房子, 薩拉烏蘇, 峙峪, 爪村) B: 遠乘簡單類(小南海) C: 組合內容多 樣類(山頂洞) 2. 종장박편-세석기공작 A: 종장박편석기군(水洞溝) B: 單-典型 세석기석기군 亞型(下川, 油坊, 爪村 상층문화) C: 多成分 混合 세석기석기군(虎頭梁, 丁家溝)	
李炎賢(1993) ⁷⁴⁾	4개의 문화계열 설정	1. 석인을 특징으로 하는 문화계열(水洞溝유적) 2. 세석인을 특징으로 하는 문화계열(丁家溝, 下川, 虎頭梁, 薛關) 3. 점상타면박편을 특징으로 하는 문화계열(猫猫洞, 穿洞) 4. 박편을 특징으로 하는 문화계열(小孤山, 峙峪, 山頂洞, 小南海 등)	4개의 문화계열이 병행발전하고 각각으로 계승발전하는 것이 특징
辛占山·顧玉才(1996)	遼河지역의 석기군을 두 계통으로 분류	1. 소석기계통(仙人洞, 古龍山, 前陽 등): 맥석영과 석영암위주로 석기제작이 매우 작고 직접 떼기와 양극떼기가 박편을 때는 중요한 기법이며, 굽개, 역기 등 2. 세석기계통(西八間房, 沈家臺): 수석, 마노, 수정 등 좋은 석재를 사용해 타면조정하여 간접떼기로 제작. 석기유형은 굽개, 력기, 찌르개를 중심으로 그 외 돌송곳, 새기개 등	
陳全家(1997) ⁷⁵⁾	동북지역을 3개의 석기유형으로 구분	1. 동부산악지대의 큰 석기(大石器)제작유형 2. 중부구릉지대의 작은석기(小石器)위주의 제작유형 3. 서부 초원지대의 세석기위주의 제작유형	

(계속)

73) 黃尉文, 2000, 「中國舊石器文化序列的地層學基礎」, 『人類學學報』第19卷 第4期, 267~283쪽.

74) 李炎賢, 1993, 「中國舊石器時代晚期文化的劃分」, 『人類學學報』第12卷 第3期, 214~223쪽.

75) 陳全家, 1997, 「(東北)舊石器時代考古」, 『東北古代民族·考古與疆域』, 吉林大學出版社, 196~197쪽.

研究者	區分	細部内容	備考
張森水(1999)	남북 二大석기군으로 구분하고 지역에 따라 총 9개 유형으로 세분	1. 북방: 廟后山유형, 丁村문화B조유형, 水洞溝유형, 清水河유형, 下川유형, 孟家泉유형 2. 남방: 觀音洞유형, 猫猫洞유형, 銅梁유형	지역적 석기군이 병존하고 다양성이 인정
王幼平(2004)	3단계로 분류	1. 박편석기(3.0만 년 전~2.0만 년 전)단계 2. 박편과 자갈돌석기단계 (2.0만년~1.5만 년 전) 3. 자갈돌과 갈린석기단계 (1.5만년~1.0만 년 전)	
啓曉(2004)	黑龍江지역 세 개 유형으로 분류	1. 大石器위주의 문화유형 2. 小石器위주의 문화유형 3. 細石器특징의 문화유형	

2.5만년~1.1만 년 전으로 연대를 상정하였다.⁷⁶⁾

十八站유적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우스띠우리마유적의 제 I 지점은 3층의 화덕을 이용해 얻은 $19,360 \pm 65\text{BP}$ 이며, 세석핵은 켜기형세석핵(양면조정을 이용한 전형적인 湧別기법)이 사용된 석핵과 박편의 배면이용형, 타면스폴, 새기개, 양면조정찌르개, 석인 등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東北 三省지역도 세석인문화가 2만 년 전 이상으로 소급되기는 어렵다. <그림 6-1·2·5>도 앞서 언급한 유적과 기술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볼 때 동일 계통으로 생각되며, 1.5만 년 전이 그 중심연대로 추정된다.⁷⁷⁾

아무르강유역의 셀렘자유적군은 동아시아지역에서 4개의 문화층을 지니면서 다양한 형식의 석기종류와 여러 형식의 세석핵이 공반되어 나타난 가장 오래된 세석인석기군으로 주장되기도 했다.⁷⁸⁾ 하지만 석기 조합상과 주변유

76) 木村英明, 1997, 『シベリアの舊石器文化』, 北海道大學圖書刊行會, 1~426쪽; 木村英明 編, 1998, 『シベリアの細石刃石器群』, 考古學資料集 2, 札幌大學文化學部考古學研究室, 1~219쪽.

77) 黑龍江省의 十八站의 연대를 魏正一 등은 1만 2천 년 전으로 추정하였고 華北지구의 세석인기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魏正一·干志耿, 1981, 앞의 책).

78) Derev'anko, 1998, *The Paleolithic of Siberia-new discoveries and interpretations-*, Urbana and 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pp. 1~406.

적과의 비교를 통해 셀렘자유적군의 연대를 1.5만 년 전 이전으로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바 있다.⁷⁹⁾ 실제 한국지역에서 湧別기법과 같은 제작기법의 성행연대는 2만년~1.5만 년 전에 가장 많이 출현하고 있어, 그 이후로 양면조정기술이 서서히 쇠퇴한다.⁸⁰⁾ 일본의 경우 양면조정기술을 활용한 蘭越기법이 사용되었지만, 실제 湧別기법의 중심연대는 1.5만 년 전 이후이다.⁸¹⁾ 따라서 十八站유적과 顧鄉屯유적출토 세석핵의 연대가 2만 년 전을 소급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세석핵의 세석인박리면을 볼 때 기술적으로 아직 전통이 남아 있고 다른 지역의 세석인과 비교할 때 質적으로 우수하므로 1.5만 년 전 아래로는 내려오지 않을 것 같다. 吉林省과 黑龍江省의 중·북부 지역의 세석인 기술전통은 黑龍江유역의 세석인석기군의 한 부류로 보는 것이 맞지만, 遼寧省의 세석인석기군과는 제작기법에서 차이가 인정된다.

그런데 북방초원지역을 포함한 동북지역에서 소형석기가 후기구석기시대에도 우세했던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석재가 성공적으로 교체되지 못해 縱長剝離가 容易하지 못했던 점, 석영계 석기전통의 지속성, 稜調整(crest)技法의 不在로 석인 중 대형석인을 박리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지 못한 점, 석기로 제작된 수렵도구 중 中·大形 찌르개의 불필요성, 수렵대상 동물군의 차이, 유적 내에서 차지하는 석기의 비중차이 등 다양한 요인을 꼽을 수 있다. 華北지역의 석기군 중 峙峪유적의 예를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기존의 소형 석기에 소형석인이 추가되는 양상을 보여주지만, 東北三省은 비석인계 박편 석기군이 후기구석기시대 종말기까지 큰 변화없이 사용되었다. 河北省 북부, 山西省 북부, 내몽고자치구 河套지구, 寧夏自治區 內的 유적은 세석인기술이 출현한 이후 수석의 사용이 늘었지만, 峙峪·薩拉烏蘇유적 등은 여전히 도구 제작의 소재로 석영을 많이 사용하였다.

또한 흑요석이 중심이 된 백두흑요석석기군의 대형 석인은 華北지역의 세

79) 小畑弘己, 2001, 앞의 책, 1~522쪽.

80) 장용준, 2006a, 앞의 글.

81) 張龍俊, 2006b, 「日本 北海島地域 細石刃技法」, 『석헌정정원선생정년퇴임기념논총』, 1~36쪽.

〈표 9〉 중국 내 세석인문화 관련 연구견해

研究者	內容	關聯遺跡
賈蘭坡·蓋培·優玉柱(1972)	· 峙峪유적의 자료가 세석기문화의 원류 · 華北의 후기 구석기문화가 華北의 발달된 세석기문화의 기반이 됨	峙峪
蓋培·衛奇(1977)	· 후기 갱신세의 썰기형석핵과 첨두기를 특징으로 한 문화를 '북태평양지구 馬蹄形 문화대'로 설정	虎頭梁
安志敏(1978)	· 세석기로 대표되는 석기군은 중국 華北지역에서 출현하고, 후기구석기시대에는 이미 세석기의 원형이 형성 · 전형적인 세석기는 구석기시대 말엽에 출현하고 중석기에서 신석기시대에 성행	
陳淳(1983)	· 세석기문화의 공통성은 동북아시아·서북아메리카와 華北지구에 긴밀한 문화교류의 증거	
張森水(1990) ⁸²⁾	· 석인기술이 발달한 水洞溝 등의 '긴 박편제작(長石片工業)'에서 석인문화가 발생	
李炎賢(1993)	· 후기구석기문화를 병행발전하는 4계열로 분류하고 세석인문화를 2계열로 분류 · 錐形·썰기형세석핵과 세석인을 특징으로 하고 박편과 석인을 소재로 한 석기를 공반	丁家溝·下川·陽原·虎頭梁·薛關
王建 등(1994)	· 下川유적의 C-14연대는 23,000~16,000BP, 丁村유적 77:01지점의 연대는 26,500BP이므로, 下川문화의 전형적인 세석기는 丁村유적 77:01지점에서 발전 · 세석기는 下川문화와 유사하며 기술적으로도 숙련되었기 때문에 丁村문화가 후기 구석기시대에 이르러 발달된 세석기문화의 영향을 받음	下川
王益人·王建(2000)	· 下川유적이 동아시아 세석인문화의 기원	下川
高星 등(2002)	· 서방과 북방의 문화가 융합되어 나타난 석인기법이 중국 북방 지역의 양극기법과 결합한 뒤 양질의 프린트를 이용하면서 세석기가 출현한 뒤 각 지역으로 확산	水洞溝 제2지점
侯亞梅(2003)	· 東谷 ⁸³⁾ 석핵과 썰기형석핵과의 비교검토를 통해 썰기형석핵의 자체발생의 가능성과 소형석기전통과의 관련성을 주장	東谷 ⁸³⁾
加藤眞二(2000)	· 중국 북부지역의 세석인기술은 주변문화의 접촉은 있었을 수 있지만, 角錐狀세석핵은 시베리아지역에 널리 분포한 썰기형 세석핵과는 다르므로 세석인기술과 植刀器의 개념만을 받아들여 現地의 기술로 만들어짐	

(계속)

82) 張森水, 1990, 「中國北方舊石器工業的區域漸進與文化交流」, 『人類學學報』 第9卷 第4期, 322~333쪽.

研究者	內 容	關聯遺跡
王幼平(2004)	· 배모양세석핵은 북방 서부쪽의 박편석기에서 유래 · 석인과 켜기형세석핵은 문화교류의 결과 · 배모양세석핵에서 켜기형세석핵으로 내재적 문화발전이 확인되며 소형박편전통을 계속 발전시키면 배모양이 됨	
李超榮(2004) ⁸³⁾	· 세석인문화의 기원은 華北지역 중기의 許家窯유적의 원시적 稜柱形석핵, 漏頭形석핵, 중장박편, 손톱모양밀개가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세석기기술은 구석기시대 초기의 양극타격, 직접타격에서 유래 · 후기구석기시대 석인과 세석인문화는 전기와 중기구석기시대의 제작기술을 계승한 것	許家窯

석인석기군과는 전혀 다른 형태이다. 北京을 중심으로 한 華北지역과 소형박편석기군의 전통은 상호 공유했을 수 있겠지만, 세석인석기군의 계통은 보다 복잡하다. 아울러 이 지역의 세석인석기군과 달리 동북지역의 세석인석기군은 백두흑요석석기군으로 발전한 뒤 다시 신석기시대의 석인문화로 계승된다. 그러므로 백두흑요석과 석인족이 발견되지 않는 華北지역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는 더욱 어렵다.

즉, 華北지역의 세석인석기군이 중국 동북지역의 그것보다 반드시 시기적으로 앞선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중국 東北 三省지역의 면적은 한반도면적의 2배나 될 정도로 매우 넓음과 동시에 러시아, 몽골, 북한지역과 인접해 있어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는데 있어 내부적인 문화발전은 물론 외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어 華北지역보다 일찍이 세석인기법의 등장했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遼寧省지역의 경우 北京이나 河北省의 泥河灣지역의 문화적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중국 북부지역도 아직까지 시베리아 구석기문화가 南下하여 두 문화가 접촉되었다는 증거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83) 李超榮, 2004, 「中國北方舊石器時代晚期文化」, 『日本列島における後期舊石器文化の始原に関する基礎的な研究』, 37~64쪽.

V. 結論

東北三省(遼寧省, 吉林省, 黑龍江省)은 기존에 소형박편석기군과 세석인석기군 또는 큰 석기전통이 추가되는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나, 기술적인 특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석인계 박편석기군, 세석인석기군, 백두흑요석석기군으로 細分化시켰다. 이들 석기군은 이동형 생계에 적합한 소형석기라는 점에서 후기 구석기시대의 유동적 생활의 한 단면을 추론할 수 있었고, 석영계통의 석재를 固守하지 않고 다양한 석재를 채택하는 등의 기술의 적용영역이 넓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후기구석기시대는 전반, 중반, 후반, 종말기의 네 단계로 설정하였고, 대략 4만 년 전~8천 년 전에 해당하였다. 東北三省 중 遼寧省지역은 西八間房 유적을 제외하고는 세석인기술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며, 특히 동북지역은 정식조사 된 2만년~1.5만 년 전의 절대연대를 지닌 세석인관련 유적이 드물어 그 기원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았다. 吉林省과 黑龍江省의 경우 松花江과 黑龍江에 분포하는 썰기형 세석핵으로 미루어 보아 華北지역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다는 인접한 내몽고와 시베리아지역과 접촉했다. 十八站, 大布蘇, 顧鄉屯 유적에서 출토된 세석핵이 예비석핵의 제작을 채택한 점은 遼寧省지역과는 다른 기술체계임을 보여준 것이었다. 遼寧省까지는 華北지역의 영향이 간접적으로 미쳤거나 기존의 비석인계 박편석기제작기술을 토대로 세석인기술을 출현시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吉林省과 黑龍江省의 세석인기술은 자체발전보다는 주변지역의 세석인문화와 접촉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결국 東北三省 중 遼寧省지방의 경우 華北의 泥河灣지역이나 內蒙古지역의 세석인문화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아직 없었다.

한편 小孤山 유적의 작살이 시베리아에서 출토되는 뼈작살과 비교하면, 2만 년 전~1.5만 년 전을 전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 높은 수준의 가공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 東北三省지역의 후기구석기시대의 석기문화는 유적 내에서 석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해체가공중심에서 생존을 위한 적극적

인 식량획득의 노력이 반영된 수렵도구중심으로 再編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비석인계 박편석기군과 비교해 세석인석기군은 새로운 도구제작기술을 공유함에 따른 활발한 교류도 엿볼 수 있었다.

아울러 吉林省을 중심으로 넓게 분포하고 있는 백두흑요석석기군은 양면 조정에 토대를 둔 켜기형세석핵의 제작기술의 영향을 받아 성립된 것이며, 박편을 이용해 세석핵을 제작하는 것도 동일한 기술개념의 변형에 지나지 않았다. 중국 동북지방의 석기계통을 파악하는데 華北지역을 중심에 두고 다른 주변지역과의 관련성을 深度깊게 고려하지 않는 것은 一元論的 解釋의 확장결과로 볼 수 있었다. 지금까지 백두산 흑요석의 원산지를 둘러싼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대형 흑요석제 원석이 발견된 石人溝유적을 통해 흑요석원산지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향후 한반도지역의 흑요석제 석기의 기원을 찾는 실마리를 제공해 줄 것이다.

끝으로 현재까지 東北 三省지역의 석기군의 특징 중 하나는 석인석기군이 확인되지 않았다. 발굴조사가 적었던 것이 일차적 원인이지만, 한국의 예처럼 1990년대 말부터 본격적인 석인기법이 논의되었듯 동북지역도 향후 발굴성과를 기대해 볼 필요가 있다. 중국 동북지방의 후기구석기유적은 아직 층위적인 상관관계를 비교검토하거나 多層位유적에서 기술상의 변화과정이나 도구의 변천을 파악하기가 현재의 발굴성과로서는 어려웠다. 백두흑요석석기군과 한반도의 후기구석기와의 문화적 상관성 및 석재교류의 네트워크문제 등에 대한 검토는 추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附記

2006年 9月 中國訪問 때 中國 遼寧省博物館 박문영선생님, 遼寧省文物研究所 傅人義선생님, 吉林大學 邊疆考古研究中心의 陳全家교수님께 遺物實見의 機會 및 많은 指導를 받았다. 이 글을 빌어 깊이 감사드린다.

[ABSTRACT]**Addressing the Upper Palaeolithic lithic technologies
in Northeastern China**

Jang, Yong-Jun

In Northeast Asia, the beginning of the Upper Paleolithic is closely correlated with the emergence of blade technologies, use of siliceous or glassy raw materials, long-distance movement of materials, bone/antler working, regional style, beads and pendants. However, there is no clear evidence about the lithic artefacts applied blade technology.

The research was divided into four stages in the Upper Palaeolithic period. The principal flaking technique at the sites located in Liaoning, Jilin and Heilongjiang province was mainly direct hammer percussion, bipolar percussion and pressure flaking in micro-lithic culture. In particular, the harpoon from the Xiaogushan Cave was the earliest example in Eurasia. The harpoon and bone point may have been used to exploit water food resources such as fishes and tortoises.

The obsidian from Mt. Baekdu Mountain were the major raw material to make stone tools in Northeastern China, Russia and the Korean Peninsula. The stone assemblage included flakes, cores, chunks, scrapers, burin, blades, micro-blade and micro-blade core. Major blanks for tools fabrication were flakes and blades. Based on the general features of these artifacts, they belonged to the micro-

lithic industry type in Northeastern China.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artifacts and the fact that no polished stone tools and pottery shards were found in the late period of the Pleistocene or of the late Palaeolithic.

It was very important that big-sized cores made by obsidian were found at a few sites located in the Jilin province (Duman River) near Mt. Baekdu. These facts provided important data for studying the distribution, origin and tradition of obsidian.

keywords

China, Liaoning, Jilin, Heilongjiang, the Upper Paleolithic period, stone tools, micro-blades, obsidian, Mt. Baekdu

遼東 公孫氏政權의 興亡과 ‘夷人’問題

권 오 중 | 영남대학교 사학과 교수

I. 머리말

漢代의 遼東郡에 公孫氏政權이 등장한 것은 후한말 黃巾集團의 붕괴가 미쳐가지지 않은 189년의 일이다. 요동군의 襄平 出身인 公孫度이 遼東太守로 부임하면서 시작된 公孫氏의 집권은 238년 손자인 公孫淵이 司馬懿에게 토벌되기까지 3대에 걸친 50년간 지속되었다. 요동군의 현지 출신인 인물이 요동 태수 직에 임명되었다는 사실도 그렇지만, 이를 기반으로 요동지역에 半獨立의 정권을 구축하여 그 지위가 子孫에 이르도록 세습되었다는 사실은 새삼 이 시기가 武將들이 지방에 할거하던 ‘軍閥의 시대’임을 일깨워 준다.

요동지역에 공손씨에 의한 지방정권이 반세기 동안이나 유지되었다는 사실은 다음의 정황을 고려할 때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첫째는 요동군이 동북 변경에 위치한 邊郡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일반적으로 변군은 외부 異民族과의 충돌이 잦은 국경지대이자 군사지역으로서 정권이 구축될 만한 지역적 기반이 취약한 지역이다. 역사상 요동지역에 이민족 왕조가 등장한 것을 제외하고, 요동을 근간으로 삼는 漢人王朝가 단 한 차례

도 개설되지 않았음은 이를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공손씨는 漢人의 혈통으로서 3대에 걸친 50년의 정권을 구가하였다. 둘째는 요동군의 위치에 따른 주민의 구성과 분포 때문이다. 요동군의 외곽지대가 漢族이 아닌 異民族(夷人)의 거주지임은 주지의 사실이나, 요동군 안에도 상당수의 ‘夷人’들이 郡의 주민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더욱이 ‘夷民’¹⁾의 분포는 종족계통 상으로도 복잡함을 보였는데, 이러한 주민 구성이 정권을 수립하고 유지하는 데 유리하지 못한 여건이었음은 물론일 것이다.

正史에서는 공손씨정권의 존재를 일컬어 ‘雄張海東’이라고 표현하고 있다.²⁾ ‘海東’이라고 하면 그 범위가 요동군의 영역만이 아니라 樂浪·帶方·玄菟郡 및 東夷諸族의 지역까지 포괄하는 공간이다. 공손씨는 집권 기간을 통해 요동지역 만이 아니라 동이의 지역까지 ‘雄張’할 정도의 영향을 나타냈던 것이다. 중국 본토로부터의 지원이 차단된 독립적 상태의 공손씨가 ‘雄張’한 정권을 구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공손씨가 정권을 구축하여 ‘海東’의 실력자로 군림하는 과정도 그렇지만, 이와는 반대로 정권이 몰락하는 과정에서도 ‘夷人’의 문제는 주요한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추론이 가능한 것은 요동군의 역사에 있어 ‘夷人’ 문제는 이 지역을 관리한 주체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시간을 초월하여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되었던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의 본문에서는 공손씨정권이 흥성하고 멸망한 주요 원인이 夷人 문제에 있을 것이라는 가설 아래 이들의 문제가 공손씨정권과 시간적으로나 공간상으로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그 구체적 사례를 조사 검토하려고 한다. 또한 夷人 가운데서도 공손씨정권의 흥망과 특별한 관련이 있

1) ‘夷人’, ‘夷民’이라는 용어가 생경할 수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漢族의 公孫氏政權을 중심 주제로 다루는 만큼 漢族이 아닌 종족들에 대한 총괄적이고도 일반적 표현으로서 ‘夷人’ 또는 ‘夷民’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夷人’과 ‘夷民’의 의미를 뚜렷이 구분할 근거는 없지만 다음에서는 편의상 ‘夷人’을 漢族이 아닌 異民族에 대한 범칭의 의미로, 그리고 ‘夷民’은 夷人 가운데 중국 왕조가 행정단위로서 개설한 郡縣 안에 주민으로 거주하는 ‘非漢族 住民’의 의미로 구분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2) 『三國志』 30, 東夷傳, 夫餘條에서는 “漢末 公孫度雄張海東 威服外夷”(842)라고 하였고, 같은 책 東夷傳의 머리 부분(840)에서는 “委以海外之事”라고 하였다(이하 본 고에서 사용한 正史는 中華書局印行本에 의함, 아라비아 숫자는 쪽수를 나타냄).

다고 판단되는 종족이나 국가에 대해선 연관성 문제에만 한정하지 않고 저들의 역사 자체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생각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가 목적하는 바는 우선 후한말~삼국시대에 등장한 공손씨정권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이 주제를 통해 요동군이라는 군현 그리고 이 지역이 지닌 역사적 특수성에 관해 이해의 폭을 넓히려는 것이다.

II. 遼東郡의 夷人

漢代 요동군 일대에 거주하였던 夷人의 존재는 종족 상으로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공손씨의 세력과 영향은 요동군에 국한하지 않고 ‘海東’이라고 표현할 정도의 공간에 확산되어 있었던 만큼 ‘夷人’의 대상을 郡의 영역으로만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조사의 범위를 군의 외곽으로까지 확대할 경우 夷人에 대한 종족적 구분을 더욱 세분해야 할 필요가 있겠지만 다음에서는 요동군의 주민인 夷民을 ‘內夷’, 군 밖에 거주하는 夷人을 ‘外夷’라는 이름으로 구분해서 검토하도록 하겠다.

1. 遼東郡의 內夷

요동군에 거주하였던 주민으로서 內夷의 존재를 확인하기에 앞서 우선 공손씨 집권기의 요동군 영역을 파악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그 이유는 시대에 따라 군의 영역이 변경된 까닭도 있지만, 공손탁 자신이 군의 태수로 부임한 직후 요동군 지역의 편제를 임의로 변경시켰던 때문이다. 그 내용을 보면 “遼東郡을 분할하여 遼西郡과 中遼郡을 만들고 太守를 두었으며, 바다를 건너 東萊의 여러 縣을 거두고는 營州刺史를 두었다”라는 것이다.³⁾ 공손탁은 일개

3) 『三國志』 8, 公孫度傳, 252쪽. 原文에 의하면 분할의 상황이 “分遼東郡爲遼西中遼

군에 발령된 지방관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군을 임의로 분할했을 뿐 아니라, 요동군 이외의 지역에까지 손을 뻗쳐 자신의 관할로 만들었다. 이러한 구획과 편제는 公孫度가 취임한 초기에 추진한 조치로서, 이 조치는 공손탁이 태수로 부임한 직후 신속히 정권의 구축에 착수하였음을 전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공손탁이 營州刺史를 두어 관할하였던 東萊郡 지역은 공손씨의 영역으로 시종하였던 것 같지는 않다. 원래 동래군은 산둥반도의 東端~北端의 해안지대로서 요동반도의 남부지역과 海路를 통한 왕래가 용이할 뿐 아니라 거리상으로도 가까운 지역이다. 공손탁은 정국의 분열과 혼란의 상황을 틈 타 동래 지역을 점유하였으나, 후일 魏 왕조가 東萊의 東端에 위치한 成山지역을 해군 기지로 활용했음⁴⁾을 보면 공손씨가 동래 지역을 지배한 시기는 공손탁의 집권 초기에 한하는 일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공손탁이 요동군을 분할하여 그 일부를 遼西郡으로 삼았다는 내용도 공손씨의 영역과 관련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後漢의 요서군은 前漢에 비해 屬縣의 수가 크게 감소하기는 하였지만⁵⁾ 열악한 상태에서도 명맥을 유지하였다. 따라서 공손탁의 요서군 개설은 자칫 종래의 요서군을 공손씨가 점유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으나 실제 정황은 그렇지 않다. 전한시대 이래로 遼東郡과 遼西郡의 경계선은 醫巫閭山 줄기였는데, 공손씨가 이 경계선을 넘어 요서지역으로 진출하였다는 기록을 찾을 수 없다.⁶⁾ 또한 당시의 요서지역은 공손탁보다 한 단계 위의 강력한 軍

郡"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요동군을 兩分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으나 요동군의 존재를 상기할 때 이러한 해독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 위의 사료는 公孫度가 遼東郡을 三分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기록상에 '遼西와 中遼'만 표기한 것은 遼東을 모체로 분할하였기 때문에 '遼東'에 대한 기록을 생략하였다고 생각한다.

4) 『三國志』 28, 田豫傳, 728쪽 및 같은 책, 권47, 吳主傳, 1136쪽에 의하면 산둥반도 東端의 成山(현재의 山東 榮山)은 吳의 해상활동을 제어하는 魏의 해군기지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漢書』, 地理志와 『後漢書』, 郡國志에 의하면 遼西郡의 屬縣은 前漢 14縣에서 後漢 5縣으로 그 수가 크게 축소하였음을 볼 수 있다.

6) 공손씨정권의 말기에 이르면 公孫淵은 237년과 238년 魏軍의 2차에 걸친 공격을 받

閔인 公孫瓚의 고향이면서 그의 배후 근거지이기도 하였다. 만약 공손씨가 요서지역으로 진출하고자 하였다면 공손찬과의 충돌이 불가피하였을 텐데, 두 세력이 갈등하거나 충돌하였다는 예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공손탁이 취한 遼東·遼西·中遼의 三分은 과거의 요서군을 자신의 영역으로 확보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遼東郡을 분할한 조치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요동·요서·중요군의 區劃을 공손탁 이후에는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區劃 역시 공손씨의 집권 초기에 한하는 일로 생각된다. 공손탁이 요동군을 세 郡으로 나누고 해외의 지역인 동래군에 營州刺史府를 설치한 이유는 자신이 일개 군의 태수가 아니라 여러 州郡을 통치하는 '君王'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⁷⁾ 그렇더라도 공손탁이 요동군을 세 지역으로 분할함에 있어서는 요동 출신인 그가 지역에 대해 갖고 있던 지식과 정보가 적지 않은 근거로 작용하였으리라고 본다. 그것은 요동에 관해 공손탁이 지녀온 지리·환경·인구·주민의 분포 등의 지식이 중심 내용이었을 것이다. 이 점에서 연상되는 것은 前漢시대부터 後漢 초기에 걸쳐 遼東郡에 설치 운영되었던 部都尉라는 기구이다. 부도위의 존재는 요동군에 거주한 夷民, 즉 內夷의 존재와 직결되는 만큼 다음에서는 부도위에 관해 검토하도록 하겠다.

『漢書』地理志에 의하면 요동군에는 東部·中部·西部都尉라는 部都尉가 세 지역에 설치되어 있었고, 이들 부도위는 각 지역의 夷民을 관리하였다.⁸⁾

는데, 공손씨정권이 최전방 방어선으로 구축한 遼隧(隊)라는 지역이 이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遼隧는 최전방 방어선으로 보기엔 요동의 수도인 襄平과 약 70km에 불과한 가까운 거리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양평과 더불어 遼河(渾河) 유역에 위치한다는 사실도 최전선으로선 불리한 조건이다. 만약 공손씨가 醫巫閭山脈 이서의 지역, 즉 종래의 요서군을 관할하고 있었다면 군사적 충격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서도 최전선은 요동이 아닌 요서지역으로 전진 배치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7) 公孫度는 요동태수에 취임한 이후 曹操가 '武威將軍·永寧鄉侯'에 봉하자 "我王遼東 何永寧也"라고 하여 '鄉侯'의 지위를 부정하고 스스로 '遼東王'임을 자처하였다(『三國志』8, 公孫度傳, 253쪽).

8) 『漢書』, 地理志나 『後漢書』, 郡國志 등의 기록에 의하면 公孫度이 營州刺史를 설치한 東萊郡에는 部都尉가 설치되지 않았다. 따라서 동래군의 주민 분포는 요동군과 상이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도 공손씨 집권기의 夷民 문제는 요동군 지역만

부도위는 郡의 태수를 보좌하여 都試나 討賊과 같은 군사적 업무를 담당하던 都尉官에서 파생된 관직이다. 부도위는 설치된 지역에 따라 기구의 성격에 차이가 있었다. 匈奴와 대치하던 并州·涼州 일대의 郡縣에 개설된 부도위는 障塞를 보유한 군사기지 형태의 기구임에 반해 東夷·西南夷지역의 군에 개설된 부도위는 군과 유사한 지방관아 형태의 기구였다.⁹⁾ 이들 기구를 지방관아형 부도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都尉의 기본 업무인 군사적 업무 외에 해당 주민을 다스리는 治民의 업무까지 담당하였기 때문이다. 이 경우 부도위 휘하에는 다수의 縣이 소속되었고 治民을 위한 諸曹의 屬吏가 개설되었다.¹⁰⁾ 부도위에 딸린 屬縣의 수가 복수인가 혹은 단수인가를 판별하는 것은 부도위의 속성을 파악하는 단서가 될 수 있는데, 이점에서 複數의 屬縣을 거느린 요동군의 세 부도위는 모두 지방관아형 부도위라고 할 만하다.

요동군 동부도위에 소속된 현으로는 동부도위의 首縣인 丹東市 鳳城에 위치한 武次縣을 비롯하여¹¹⁾ 丹東市 동쪽 외곽에 자리하였던 西安平縣, 그리고 그 이남의 番汗縣이 있었다.¹²⁾ 後漢에 이르러 부도위제가 폐지되기도 하였지만, 특히 요동동부도위의 治所였던 武次는 縣의 상태에서 제외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무차현 인근에 위치한 西安平縣의 행정·군사적 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판단되는데, 丹東市의 東邊에 위치한 西安平에 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다. 中部都尉의 현재 위치는 沈陽 부근지역으로서 候城·高顯·遼陽縣이 속하였으며, 이들 세 현은 후한 安帝期에 이르면 그 소속이 玄 郡으로 바뀌었다.¹³⁾ 西部都尉의 속현으로는 醫巫閭山~遼河下流一帶에 위치한 無慮·險瀆·房縣 등이 추정되는 바, 이들 세 縣 역시 後漢 安帝期에 遼東屬國으로 개편되었다.¹⁴⁾

을 대상으로 삼도록 하겠다.

9) 拙稿, 2004. 9, 「漢代 邊郡의 部都尉」, 『東洋史學研究』 第88輯.

10) 嚴耕望, 1974, 『中國地方行政制度史』 上編 上卷, 臺灣商務印書館(再版).

11) 王綿厚, 「兩漢時期遼寧建置戍論」, 『東北地方史研究』 1965-1, 21쪽.

12) 拙稿, 2000. 12, 「滄海郡과 遼東東部都尉」, 『歷史學報』 168, 109~111쪽.

13) 『東觀漢紀』 5, 地理志, 1쪽.

14) 『後漢書』, 志23, 郡國5, 3529쪽.

위에서 소개한 요동군 부도위의 속현 수는 합계 아홉 縣에 달한다. 『漢書』, 地理志에 소개된 요동군의 속현이 모두 18개 縣이었음을 감안하면 부도위에 소속된 현은 대략 요동군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할 수 있다. 부도위의 존재가 군 안에 거주하는 夷民을 관리 통치하기 위한 기구이었음을 상기할 때 요동군에는 그 정도로 많은 이민족이 원주민으로서 생활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종류와 분포도 부도위를 세 지역으로 나누어 운영해야 할 정도로 복잡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漢武帝가 조선을 멸망시킨 이후 그 遺民이나 인근의 東夷諸族을 관리하기 위해 樂浪·眞番·臨屯·玄 郡을 설치한 이후에도 부도위가 유지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요동군의 종족분포가 다양하였음을 시사한다.

각 부도위가 관리한 종족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우며, 또한 前漢武帝 때 부도위를 설치할 당시의 夷民이 公孫氏政權의 시기까지 해당 지역에서 변함없이 거주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 부도위를 설치한 漢武帝의 治世를 기준으로 한다면, 동부도위는 穢(濊)族을 대상으로 설치한 滄海郡의 후신인 만큼 예족을 주요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추정한다.¹⁵⁾ 중부도위는 貊(貊)族을 주축으로 삼는 현도군과 결합한 것으로 미루어 주민의 대개는 貊人이었을 것으로 추단한다.¹⁶⁾ 서부도위는 후한대에 개편된 요동속국의 주요 상대가 烏桓이었음을 보면,¹⁷⁾ 그 夷民의 대개가 오환족이었음을 알 수 있다. 요동군에 東·中·西部都尉를 각각 설치한 것은 지역적 차이도 있지만 夷民의 성분이 다양해서 분할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郡内の 夷民을 특별히 관리하던 요동의 부도위는 후한 광무제 때에 이르

15) 이에 관해서는 拙稿, 2000. 12, 앞의 책 참조.

16) 拙稿, 2005, 「遼東郡 中部都尉와 高句麗의 新城」, 『고구려의 국제관계』, 고구려연구재단 연구총서 05, 27~31쪽.

17) 기록에 의하면 烏桓의 거처는 遼東·遼西·右北平·漁陽·上谷郡 등에 미칠 정도로 광범하였으나 요동군의 경우엔 “遼東烏桓”이라는 명칭이 쓰일 정도로 오환족의 거주 인구가 많았다. 이들을 집중 관리한 지역은 서부도위와 그 후신인 요동속국이 었다. “遼東烏桓”의 용례에 관해선 『漢書』 7, 昭帝紀, 229쪽 및 『後漢書』 56, 馬援傳, 1828쪽 참조.

러 변화를 맞아야 했다. 그것은 建武6년(30) 전국적으로 내려진 都尉官의 폐지에 따른 결과였다.¹⁸⁾ 전국의 도위관과 아울러 요동의 부도위도 폐지되었고 이러한 상태는 공손탁이 집권하는 후한 말기까지 지속되었다. 부도위가 폐지된 이후 지역에 따라서는 간혹 부도위를 재건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들 지역은 대체로 夷人의 소요나 그로 인한 邊患이 심각한 경우였다. 요동군의 경우엔 西部都尉가 和帝 永元16年(104)에 다시 개설되었다.¹⁹⁾ 요동의 세 부도위 가운데 오직 서부도위만을 다시 설치한 것은 요동 서부지역의 夷民 문제가 특별히 심각한 때문이었을 것이다.

서부도위는 본래 요동지역의 오환을 전담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이나 서부도위가 재건된 사정을 보면 그 이유가 오로지 오환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後漢書』, 烏桓傳에 의하면 오환은 明帝(57~75)·章帝(75~88)·和帝(88~105)의 治世를 통해 ‘保塞無事’의 온건한 입장을 취하였다. 이에 반하여 鮮卑는 和帝期에 이르면 遼西·右北平·漁陽郡 등의 지역에 대해 잦은 공격을 하였다. 이 시기 선비의 공격에서 주도적 역할은 요동에 거주하는 ‘遼東鮮卑’의 몫이었다.²⁰⁾ 선비족으로 말미암은 邊患은 安帝期(106~125)에 접어들면서 더욱 심해졌는데, 이 시기에 이르면 烏桓 역시 여기에 편승하였고 때에 따라서는 오환과 선비가 연합하는 경우도 있었다. 요동서부도위는 이처럼 날로 증가하는 선비의 소요와 이에 편승한 오환 문제를 수습하기 위한 목적에서 재건되었다.

서부도위를 재건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安帝期(107~125)에는 다시 서부도위를 遼東屬國으로 개편하였다. 그 이유는 安帝期 이후 한층 심해진 선비와 오환의 소요 때문으로서, 이들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遼東屬國을 개설하였다. 이 시기의 屬國은 전한시대와는 달리 郡과 대등한 ‘如郡’의 기구로 격상되었는데,²¹⁾ 遼東屬國 역시 요동군의 서부도위와 과거 요서군의 동부

18) 『後漢書』 1下, 光武紀, 51쪽.

19) 『後漢書』 4, 和帝紀, 193쪽.

20) 『後漢書』 90, 鮮卑傳, 2986~2987쪽.

21) 前漢시대의 屬國은 투항해 온 蠻夷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로서 邊郡

도위 지역을 병합한 규모였다.²²⁾ 원래 분리되어 있던 두 기구를 하나의 기구로 병합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을 것이나 두 기구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즉 하나는 요서군의 동부도위 역시 요동군의 서부도위처럼 烏桓과 鮮卑를 관리하기 위한 기구라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醫巫閭山에 의해 격리 구분된 요동·요서군의 일반 현과는 달리 두 지역은 醫巫閭山 이남에 위치하여 지리적으로도 상호 근접해 있었다는 사실이다.²³⁾ 두 기구가 병합됨으로써 安帝期 이후의 遼東屬國은 6개 縣을 보유한 郡에 유사한 기구로서²⁴⁾ 오환과 선비 문제에 대처하였다.

위에서 열거한 사실들에 의거 공손씨가 집권할 무렵 夷民의 상태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요동군에는 전한시대의 세 부도위가 상징하듯 많은 夷民들이 거주하였다. 후한에 이르러 부도위가 폐지되었지만 이것은 이민을 관리하는 제도가 변화한 것이지 夷人이 주민으로 거주하는 구도 자체가 변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부도위제는 폐지되었더라도 부도위 지역의 주민인 夷民의 존재는 계속되었을 것이다. 夷民은 인구의 가감과 같은 일부의 변화는 있을지언정 공손씨가 집권하는 시기까지 유지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음의 기록은 공손탁의 시기 요동군의 주민으로서 夷人의 존재가 뚜렷함을 전하고 있다.

(王烈은) 黃巾·董卓의 亂을 만나자 곧 遼東으로 피신하였다. 夷人들이 그를 尊奉하였고, 太守 公孫度은 昆弟의 禮로 접대하였다. (『後漢書』 81, 獨行傳, 2697쪽)

의 縣에 설치하였지만, 部都尉나 후한시대의 屬國처럼 다수의 縣을 보유하거나 '牧民'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았다.

- 22) 遼東屬國은 遼東郡 西部都尉로 추정되는 無慮·險瀆·房의 세 縣과 西漢時代 遼西郡 東部都尉지역으로 추정되는 昌遼(交黎)·賓徒·徒河의 세 縣을 합쳐 6개의 屬縣으로 편성하였다.
- 23) 遼東郡西部都尉의 治所인 無慮縣과 遼西郡東部都尉의 治所인 交黎縣은 상호 약 60km 정도의 근접한 거리에 위치해 있다.
- 24) 참고로 『後漢書』, 郡國志에 기재된 주변 郡의 屬縣數를 보면 遼東郡은 11縣임에 반해 玄 郡은 六縣, 遼西郡은 五縣, 右北平郡은 四縣이었다.

위의 기록은 後漢 末에 ‘義行’으로 명성이 높았던 王烈이라는 인물에 관한 것이다. 요동으로 피신해 온 그를 ‘夷人’들이 尊奉하였다는 것인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요동의 주민으로서 夷人의 존재이다. 傳記의 기록자가 ‘夷人’을 특별히 주목한 의도는 夷人까지 尊奉하도록 만든 王烈이라는 인물의 義行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지만 어쨌든 요동 주민으로서 夷人의 존재는 뚜렷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夷民의 존재는 공손탁이 요동군을 분할하는 주요한 근거의 하나가 되었으리라고 보는데, 그가 전국시대 이래로 ‘요동군’이라는 행정단위로 승계되어 온 전통을 뒤로하고 遼東·遼西·中遼郡이라는 새로운 구획을 설정한 것은 이러한 기반 위에서 가능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공손탁이 새롭게 제시한 ‘遼東의 三分’은 과거 전한~후한 초에 존재한 세 부도위의 토대 위에 추진된 것으로서, 요동의 분할은 결과적으로 공손탁의 시기까지 상존한 夷民의 존재를 의식한 조치였을 것으로 이해된다.

요동군에 거주하는 夷民에 추가하여 살필 대상은 玄 郡에 거주하였던 夷人이다. 엄밀히 말하여 현도군은 요동군의 외곽에 위치한 요동군과 별개의 행정 단위이다. 따라서 현도군에 거주하는 夷人은 다음에서 검토할 ‘外夷’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하겠지만, 공손씨 집권기의 현도군 주민은 요동군 주민과 더불어 內夷로 분류해도 좋을 듯하다. 그 이유는 공손씨 집권기의 현도군은 행정단위로서의 완전한 郡이라기 보다는 요동의 屬縣과도 같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현도의 위치는 요동의 수도 襄平에서 불과 2百里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있었고, 현도태수가 거느린 인력은 領戶 2百·兼重 3~4百人 정도의 매우 왜소한 규모였다.²⁵⁾ 이러한 사실은 233년 요동을 찾은 魏의 使節 일행을 公孫淵이 요동군의 각 현에 분산 배치하면서 현도군에도 사절의 일부 인원을 배당하였다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²⁶⁾

이에 의하면 현도군은 위치나 규모 그리고 기능면에서 요동의 속현으로

25) 요동군과 현도군의 거리가 가까운 것은 後漢 安帝期에 요동군의 속현이었던 候城·高顯·遼陽의 세 현이 현도군 소속으로 이관된 것과 관련이 있다. 세 현의 이관에 관해서는 『東觀漢紀』 5, 地理志1의 내용 참조.

26) 『三國志』, 吳主傳 2, 1139쪽에 인용된 「吳書」에 의함.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도군의 위상에 대해선 魏 朝廷도 동일한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이 점은 魏 조정이 요동의 郡民에게 내린 詔書를 통해 나타난다. 이 조서는 232년 요동의 公孫淵이 魏의 孫權에게 사신을 보내어 通交한 사실을 들어 군민을 회유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 내용은 “告遼東玄將校吏民”이란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다.²⁷⁾ 요동의 군민을 상대한 공문에서 ‘요동’과 ‘현도’가 두 번씩이나 거듭하여 연칭되었다는 사실은, 魏 조정에 의해서도 현도는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요동에 부속되거나 일체화된 존재로 인식되었음을 입증한다. 따라서 현도군 주민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貊人系 주민은²⁸⁾ 요동군의 夷民 즉 內夷로 분류하여 무방할 것이다.

2. 遼東郡의 外夷

요동군의 外夷라고 하면 군의 범위 밖에 존재하는 夷人을 의미한다. 공손씨의 집권기를 통해 관계를 맺은 요동군 외곽의 夷人으로는 烏桓·鮮卑·夫餘·高句麗 및 樂浪郡과 帶方郡에 의해 관리되던 夷人을 들 수 있다. 오환과 선비는 종족 계통상 ‘東胡系’로 분류되며, 부여·고구려 이하의 夷人은 ‘東夷系’로 분류되는 만큼 요동군 외곽의 外夷를 편의상 東胡系와 東夷系로 구분하여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두 계통의 종족들은 요동군을 중심으로 하여 서쪽과 동쪽에 분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리상으로 보자면 遼河나 千山山脈을 중심축으로 하여 그 以西와 以東으로 나뉜 형상이라고 할 수 있다.

공손씨가 집권하던 시기 요동 인근에서 가장 세력을 떨친 夷人으로는 단연 烏桓을 꼽아야 할 것이다. 후한의 초기~중기를 통해 가장 강성했던 夷人으론 鮮卑를 들어야 하겠지만, 公孫氏政權이 수립되었던 後漢末~三國時代(189~238)의 시기에 특히 요동지역 일대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벌인 것은 오환이었다. 오환은 전한의 시기 흉노에 예속된 상태에 있었는데, 武帝 때 匈

27) 『三國志』 8, 公孫度傳, 255쪽에 인용된 『魏略』의 기사.

28) 당시 현도군의 주민의 다수가 貊인 계통이었을 것임은 拙稿, 2005, 앞의 책, 27~31쪽 참조.

奴의 左地를 빼앗고 오환을 흉노에서 분리하여 上谷·漁陽·右北平·遼西·遼東郡의 5郡 塞外에 거주하도록 하였다. 이들 오환에게는 흉노의 동정을 정찰하는 임무가 부여되었는데, 오환을 효과적으로 통솔하기 위해 上谷郡 寧城에 본부를 둔 護烏桓校尉를 설치하였다. 오환교위는 지역의 구분 없이 오환족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체제임에 반해 각 지역별로 거주하는 오환을 관리하기 위한 部都尉도 개설되었다. 오환을 관리하기 위한 부도위로는 遼東郡 西部都尉와 遼西郡 東部都尉를 대표적 예로 들 수 있다.

요동군 서부도위에 거주하는 오환에 대해선 內夷로 분류할 수 있으나, 요동 서부도위 이외에도 오환의 거주 범위는 광범하였다. 이것은 전한시기 흉노 공격을 위한 尖兵으로 오환을 유치하면서 다섯 郡 지역에 분산 배치한 탓도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 이유는 오환의 생활 습관이 ‘居無常處’의 이동 생활을 하였기 때문이다.²⁹⁾ 후한말의 혼란기에 이르면 오환은 上谷郡·代郡 등 幽州의 구역을 넘어 雲中·五原郡까지 미치었고, 과거 흉노의 故地인 漠南의 땅을 차지하기도 하였다. 오환의 장정들은 騎射에 능한 병사로 유명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遼東·遼西·右北平의 세 郡에 거주하는 ‘三郡烏桓’의 명성이 자자하였다. 오환의 군사적 기술은 동북지역을 자신의 지배하에 두려는 세력들에 의해 사역되었는데, 다음의 사례들은 오환의 역할이 어느 정도 중요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187년 中山相을 지낸 張純은 漁陽에서 궤기하였는데, 이 반란에는 遼西의 烏桓大人인 丘力居가 큰 힘이 되었다.³⁰⁾ 遼西烏桓을 선동한 장순은 ‘三郡烏桓元帥’를 자처하며 오환을 활용 幽州와 冀州지역을 점유함은 물론 靑州·徐州의 지역까지 영향을 미쳤다. 장순의 반란이 크게 영향을 미친 지역은 漁陽~遼西일대이지만 요동지역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우선은 당시 요동군의 태수직에 있던 楊終³¹⁾이 반군에 의해 피살된 점이 그러하며, 요동으로 향

29) 『後漢書』 90, 烏桓傳, 2979쪽.

30) 위의 책, 2984쪽.

31) 楊終에 관해 『後漢書』 73쪽, 劉虞傳, 2353쪽에서는 ‘陽’으로 표기하였으나 같은 책, 卷8, 靈帝紀, 354쪽에 의거 ‘楊’으로 표기함.

하는 교통로가 반군에 의해 차단되었다는 사실 역시 그러하다. 장순의 반군은 10만의 병력으로 遼西郡 肥如縣에 주둔하였는데, 이 지역은 요동으로 향하는 교통로인 遼西走廊의 요지였다. 장순의 반군이 진압된 시기는 공손탁이 요동태수로 부임하기 불과 수개월 전이었는데, 이로써 보자면 遼東 현지 출신인 공손탁이 태수 직에 취임한 것과 장순의 반란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장순의 반란은 幽州牧 劉虞에 의해 진압되었는데, 그는 과거에 幽州刺史로서 夷人들의 두터운 신뢰를 받는 인물이었다. 열전의 기록에 의하면 鮮卑·烏桓·夫餘·濊貊의 무리들이 그의 德化에 감응하여 “隨時朝貢 無敢擾邊”하였다고 한다.³²⁾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새로이 幽州牧에 임명된 유우가 현지에 부임하여 취한 조치는 烏桓의 王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를 회유한 일이었다. 王은 요동속국에 거주하는 오환의 리더로서 요동지역은 물론 다른 지역의 오환에게도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다.³³⁾ 오환을 회유하는 일에 성공함으로써 장순의 반란은 붕괴되었고 東北諸郡은 반란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장순의 반란을 통해서 보면 오환의 위상과 역할이 극명하게 들어나는데, 반란이 초기에 성공한 것도 그렇지만 진압의 과정까지도 오환의 협력에 의해 가능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장순의 반란에 이어 오환의 활약이 재차 돋보였던 것은 袁紹와 公孫瓚이 河北 지역의 패권을 놓고 각축을 벌이는 상황에서였다. 원소와 공손찬의 대립은 192년부터 199년에 걸친 무력 충돌로 비화하였는데, 최후의 승부는 오환의 지원에 의해 결정되었다. 193년 공손찬은 오환에게 많은 신망을 얻고 있던 유우를 살해하였는데, 이 일은 결과적으로 烏桓諸族이 공손찬을 등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유우의 휘하에 있던 鮮于輔는 유우의 원수를 갚기 위해 오환에

32) 위의 책, 2353쪽.

33) 王에 대해 『三國志』, 烏丸傳에서는 ‘遼東屬國’의 大人이라고 기술한 반면 『後漢書』에서는 ‘遼東’의 大人으로 표기하였다. 두 史書의 기록이 차이 있어 보이지만 요동지역의 오환은 서부도위, 즉 후일의 요동속국에 거주한 만큼 상충하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친숙한 閼柔를 포섭하였고, 그를 통해 오환과 선비의 병력을 동원 공손찬의 군대를 격파할 수 있었다. 유유의 추종세력이 원소를 지원함은 당연한 추세이나 원소 또한 오환의 중요성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³⁴⁾ 유유의 사망 이후 오환의 관심은 원소에게 기울고 있었지만 원소는 朝命의 형식을 빈 ‘矯制’로서 ‘三郡烏桓’의 首長에게 單于의 지위를 내림과 동시에 각각 王의 印綬를 수여하였다.

袁紹에 의해 單于의 지위를 받은 대상은 오환의 새로운 강자로 부각되던 遼西의 蹋頓과 요동의 王 그리고 右北平의 汗魯王이었다. 195년 오환과 연합한 원소의 군대는 공손찬에게 재기할 수 없는 패배를 안기었는데, 漁陽에서의 패배이후 易京(北京인근)으로 철수한 공손찬은 방어에만 급급하였고 199년에는 결국 원소의 군대에 의해 함락 멸망하였다.³⁵⁾ 이상의 예에 의하면 후한 말 중국 동북지역의 정세는 오환의 항배에 의해 승부가 결정되었음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요동지역의 外夷로서 오환이 지닌 중요성을 새삼 확인할 수 있다. 外夷로서 烏桓의 존재는 공손씨정권의 安危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이에 관해선 다음 장에서 검토하겠다.

오환과 같은 東胡系의 外夷로는 鮮卑를 꼽을 수 있다. 전한 시기의 선비는 흉노에 밀려 요동군의 북방에 숨어 오환과 인접했을 따름이지 중국과는 교류하지 않았다. 新~後漢 초기 중국의 혼란을 틈타 세력을 키운 匈奴는 선비를 유인하여 요동군을 비롯한 중국 동북의 변경을 위협하였다. 당시 요동군에는 태수로서 30년을 봉직한 祭彤이 재임하던 시기로서 그는 선비의 공격을 격파하는 한편 漢에 內屬하도록 하였다.³⁶⁾ 建武25년(49) 선비의 朝貢이 시작된 이래 선비는 중국이 北匈奴를 공격하는 데 동원되기도 하였고, 북흉노가 퇴각하여 본래의 거처를 비운 이후엔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였다. 和帝(88~105) 이후의 선비는 幽州 諸郡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였는데, 여기서는 ‘遼東鮮卑’의

34) 『三國志』 8, 公孫瓚傳, 243쪽.

35) 『後漢書』 73, 公孫瓚傳, 2364쪽.

36) 요동태수로서 祭彤의 역할에 관해선 拙著, 1992, 『樂浪郡研究』, 98~101쪽 참조.

활동이 가장 돋보였다.³⁷⁾

安帝(106~125)의 시기를 정점으로 선비의 활동이 왕성하였는데, 새로이 요동군 서부도위를 재건한 것이나 이를 다시 요동속국으로 개편한 것, 그리고 요동의 옛 중부도위 지역을 현도군으로 편입시킨 일 등은 모두 北邊을 소요케 하는 선비에 대응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 順帝(126~144)·桓帝(146~167)의 治世를 통해 선비의 활동무대는 遼東·遼西·右北平·漁陽郡 등 幽州의 경계를 넘어 代郡·雁門·朔方郡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선비족의 영웅 檀石槐가 출현했던 靈帝(167~189) 때의 상황을 보면 “幽·并·涼緣邊의 諸郡으로 鮮卑의 寇抄를 당하지 않는 해가 없었고, 殺略된 것이 數를 헤아릴 수 없을”³⁸⁾ 정도였다고 한다. 이 시기 단석괴에 의해 영도되는 선비의 분포는 遼東에서 敦煌에 미치는 광범한 범위로서 단석괴는 이를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누었다. 東部는 右北平 以東에서 遼東에 이르러 夫餘와 濊貊에 접하는 20餘邑, 中部는 右北平 以西에서 上谷에 이르는 10餘邑, 西部는 上谷 以西에서 敦煌과 烏孫에 이르는 20餘邑이었다.³⁹⁾

단석괴의 시기를 정점으로 그가 사망한 光和年間(178~183) 이후에는 선비의 세력이 점차 쇠퇴하였다. 이처럼 공손씨 정권이 등장하는 시기는 선비의 세력이 한풀 꺾이기도 하였지만, 단석괴의 뒤를 이은 步度根·軻比能 등의 주요 세력은 幽州의 서북과 并州의 북방에 있어 요동에 위협이 되지 못하였다.⁴⁰⁾ 『三國志』, 夫餘傳에 의하면 부여가 당시에 강한 고구려와 선비의 사이에 있어 이를 염려한 公孫度이 ‘妻以宗女’하였다는 내용이 보인다.⁴¹⁾ 이에 의하면 요동지역 북방에 자리한 鮮卑部衆 역시 경계의 대상이었음은 분명하나, 이는 부여의 안위를 고려한 것이었지 요동정권의 안보에 위협이 될 만한 상대로서가 아니었다. 단석괴가 사망한 이후 요동에 인접한 선비의 東部에는 素

37) 『後漢書』 90, 鮮卑傳, 2986~2987쪽.

38) 위의 책, 2990쪽.

39) 위의 책, 2989~2990쪽.

40) 『三國志』 30, 鮮卑傳, 836~839쪽.

41) 위의 책, 卷30, 842쪽.

利·彌加·厥機 등의 大人이 거처하였다.⁴²⁾ 이들 동부의 선비는 요동의 서북 지역인 遼西·右北平·漁陽郡의 북쪽 塞外에 거주하여 요동과 원거리였을 뿐 아니라 세력 면에서도 邊患이 되기에 부족하였던 것으로 『三國志』에서는 기록하였다.⁴³⁾ 이상에 의하면 公孫氏政權이 수립되었던 시기에 요동지역 일대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벌인 것은 오환임을 알 수 있다. 선비는 공손씨정권과의 관계를 떠나 중국 동북 또는 북방에서 邊患을 일으키는 종족이라는 점에서 오환과 아울러 朝廷의 지속적 관심을 받았지만 이는 본고의 논지와 별개의 문제이다. 다음으로 東夷系 夷人의 상황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자.

동이계의 夷人 가운데 공손씨정권의 지속적 관심과 보호를 받은 대상으로는 단연 夫餘를 꼽을 수 있다. 부여가 호의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로는 두 가지 사항을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동이계의 종족 국가들 가운데 중국과의 관계가 가장 원만하였고 순종적이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부여의 외교적 자세와 결부하여 부여의 국력이나 인구의 규모가 東夷諸族의 선두에 설만한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부여의 경쟁 상대인 고구려가 “良田이 없어 비록 힘써 佃作한다고 하더라도 口腹을 채우기엔 부족”한 실정이었던 점에 비해 부여는 “東夷 지역 가운데 가장 平敞하여 토지가 五穀에 적합”한 지역이었던 것이다.⁴⁴⁾ 이러한 여건으로 인해 부여는 고구려와 같은 ‘方可二千里’의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고구려의 인구 ‘戶三萬’의 두 배를 능가하는 ‘戶八萬’의 인구를 누릴 수 있었다.

요동군이나 현도군이 부여를 지원의 대상이자 협력의 파트너로 정한 것은 이 같은 東夷系의 사정을 파악한 선택적 결정이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부여도 고구려에 비해 군현에 대한 의존의 정도가 강하였는데, 이러한 입장 역시 생존을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山谷을 따라 거처를 잡는” 고구려에 비해 부여는 開豁된 ‘平敞’의 지역에 거처하는 ‘土著(着)’의 생활이었다. 이로 인해 동이지역 최다의 인구를 보유할 수 있었지만, 외부로부

42) 『三國志』30, 鮮卑傳, 836~837쪽의 注에서 인용한 「魏書」.

43) 위의 책, 840쪽.

44) 위의 책, 841~843쪽.

터 공격을 받을 가능성도 그 만큼 높았다. 고구려가 외부의 공격에 맞서 '大山深谷'의 지형을 심분 활용한 것에 반해 평탄한 지형에 처한 부여로서는 중국 군현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처세로 대신하였다.⁴⁵⁾ 중국 군현에 대한 의존은 부여의 안보에 도움이 되기는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부여의 국력이 고구려에 비해 열세에 빠지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이 점에 대해선 다음 章에서 다시 재론토록 하겠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고구려의 대응 방식이 부여와는 대조적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중국 正史의 기록에 고구려에 대해 “人性이 凶急하며 노략질을 즐겨한다”는 평가는 고구려에 대한 중국의 인식이 어떠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부여도 漢 郡縣에 대한 침공 기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⁴⁶⁾ 고구려의 경우엔 군현에 대한 侵寇 기사가 빈번하였다. 고구려와 한 군현의 충돌이 많았던 이유는 위치상으로 현도군과 요동군 그리고 남부의 낙랑군이 고구려가 외부로 진출 확장하는 것을 봉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구려가 처한 지리적 환경은 외부로의 진출이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의 내용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大山과 深谷이 많고 原澤이 없다. 山谷을 따라 거처하며 澗水를 먹는 다. 良田이 없어 비록 힘써 佃作하더라도 口腹을 채우기에 부족하여 그들의 습속은 節食을 한다. (『三國志』 30, 高句麗傳, 843쪽)

고구려인의 생활은 山間人으로서의 각박한 삶이었는데, 생존과 성장을 위해선 외부로의 진출이 필수적 과업이었을 것이다. 고구려의 동부에 위치한 沃沮나 東濊는 후한 중기 이후 고구려에 臣屬한 까닭에⁴⁷⁾ 고구려의 진출 방향은

45) 부여와 고구려의 지형, 인문지리 환경에 관해서는 『三國志』, 東夷傳의 내용에 의한.

46) 『三國志』에 의한 경우 118년의 낙랑 침공 기사와 167년의 현도군 공격 기사 총 2회를 확인할 수 있다.

47) 옥저와 동예가 고구려에 복속한 것은 樂浪郡 東部都尉가 廢棄되는 光武帝 建武 6년 (30) 이후의 시기일 것이다. 동예가 복속한 시기에 대해선 『三國志』에 “漢末更屬句麗”라고 하여 그 시기가 後漢末임을 밝히고 있다.

자연 중국 군현이 포진하고 있는 서쪽 방면이 될 수밖에 없었다. 고구려의 西進은 크게 두 방향에서 전개된 것으로 보이는데 하나는 후한말의 현도군이 위치한 撫順 방면과 다른 하나는 과거 동부도위의 屬縣이었던 西安平이 위치한 丹東 방향이었다. 두 방면으로의 진출을 위해 고구려가 활용한 교통로는 河川의 水路였는데, 渾江을 통한 북쪽의 渾河와 남쪽의 鴨綠江은 고구려의 西進을 위한 대동맥의 구실을 하였다. 고구려가 북쪽의 혼하를 경유했을 경우 가로막힌 것은 무순지방에 자리한 玄 郡이었고, 남의 압록강 수로를 이용했을 경우 장애가 된 것은 西安平縣이었다. 대외적인 확장과 진출을 위해선 두 지역에서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三國志』, 東夷傳, 高句麗條의 짧은 분량의 기사에 비해, 고구려가 현도군과 서안평현을 공격한 사건이 비교적 빈번하게 기록되었던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⁴⁸⁾ 또한 중국측의 입장에서 前漢시대 東部都尉의 首縣이었던 武次縣을 폐지하는 대신 서안평현을 존치시킨 이유도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한 때문일 것이다.

현도군이 요동군에 비해 劣弱한 군이라는 사실은 앞 장에서 설명한 바 있다. 현도군의 규모나 요동군에 대한 의존의 정도로 보더라도 현도군은 母郡인 요동군의 子郡과 같은 존재임이 분명하다. 그런대도 현도군을 존속시킨 이유는 東夷지역에서의 역할 때문이었다. 현도군이 수행한 역할이란 고구려와 부여의 內屬을 관리하는 일이었다. 현도군이 부여와 고구려의 내속을 관리하는 형태는 사료에 있어 「夫餘本屬玄」(『三國志』 30, 東夷傳, 夫餘條), 「(高句麗) 伯固乞屬玄」(같은 책, 高句麗條) 등과 같이 ‘屬’이라는 표현형식으로 나타난다. 고구려가 “玄 郡으로부터 朝服과 衣 을 받았다”라던가, 현도군의 “高句麗縣令이 그들의 名籍을 주관하였다”라는 내용은 현도군이 고구려의 내속을 관리하는 구체적 모습일 것이다. 부여와 고구려의 내속을 관리하는 업무는 공손씨 출현 이전에도 요동군으로 이관된 적이 있었지만,⁴⁹⁾ 공손씨 출현 이후엔

48) 東夷傳, 高句麗條에 의하면 고구려의 공격기사로 玄菟 4회, 西安平 2회를 확인할 수 있다.

49) 『三國志』 30, 東夷傳, 高句麗條에 보이는 後漢 靈帝建寧二年(169)의 ‘伯固降 屬遼東’이라는 기사를 그러한 예로 해석한다.

부여와 고구려를 관리하는 업무에 근본적 변화가 발생하였다고 본다. 그 이유는 현도군이 종전에 비해 더욱 약체화된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요동군의 위상이 변화한 때문이다. 과거 부여와 고구려가 상대한 요동군은 皇帝 直轄의 기구였음에 반해 공손씨정권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군주로서의 입장을 천명하였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손씨정권과 관계를 맺은 東夷系의 外夷로서 樂浪 지역 일대에 거주하는 원주민에 관해 검토하도록 하자. 먼저 요동군과 낙랑군의 관계를 보면 현도군에 미치지 못하는 못하나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져왔음을 볼 수 있다.⁵⁰⁾ 낙랑의 夷人에게 있어 요동군은 낙랑군을 지탱하는 배후세력이자 지원 세력이었다. 낙랑군 설치 초기의 행정은 요동군으로부터 공급된 郡吏에 의해 추진되었고, 낙랑의 소요와 불안은 요동군을 통해 해소되었다.⁵¹⁾ 낙랑지역에 대한 요동군의 영향은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나름의 이유를 갖고 있다. 요동은 중국에서 육로를 통해 낙랑군으로 나아가는 교통로의 길목에 해당하는 위치이었고, 동이지역 가운데 가장 먼저 설치된 '舊郡'으로서의 역사를 갖고 있었다. 따라서 낙랑지역의 요동에 대한 의존은 클 수밖에 없었으며, 결과적으로 요동의 변화는 낙랑지역에 큰 영향을 미쳤다.

중국 본토와 요동을 왕래하는 방법은 육로 이외에 해로도 활발히 이용되었다. 또한 본토지역과 渤海나 遼東灣을 사이에 두고 격리되어 있는 지형은 '海外' 또는 '海東'이라는 인식을 낳았다.⁵²⁾ '海外'와 '海東'은 요동지역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樂浪지역을 비롯한 東夷지역 전반을 포괄하는 범위이다. '海外' 그리고 '海東'의 개념에는 '먼 곳(遠域)'이자 '異域'으로서의 격리된 지

50) 두 郡의 관계에 대해선 拙著, 2005, 앞의 책, 94~101쪽 참조.

51) 후한 초기 낙랑에서 발생한 王調의 난은 요동군의 영향 하에 진압되었고, 낙랑군에 의해 관리되는 濊·韓·倭의 夷人들은 후한초반 30년을 요동태수로 재직한 祭彤의 영향으로 漢朝에 朝貢하였다(위의 책).

52) 요동에 대해 '海外' 또는 '海東'으로 인식한 예로 다음의 기록을 들 수 있다.

① 公孫淵仍父祖三世有遼東 天子為其恢域 委以海外之事 遂隔斷東夷 不得通於諸夏 (『三國志』 30, 東夷傳, 840쪽).

② 漢末 公孫度雄張海東 威服外夷(위의 책, 842쪽).

으로 향하는 길목인 遼西郡 肥如縣에 주둔함으로서 교통로를 차단하였다. 장순의 반란이 진압된 것은 189년 3월로 공손탁이 부임하는 시기보다 불과 수 개월 앞선 것을 보면,⁵⁵⁾ 양종의 피살 이후 공손탁이 부임하기까지 요동태수 자리는 空缺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짐작한다. 本郡 출신인 공손탁을 回避制의 원칙에서 벗어나면서까지 태수로 임명한 것은 이러한 비상의 상황이 작용한 때문일 것이다.

본군 출신으로 태수에 부임한 공손탁은 요동지역에서 신속하게 정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 정권을 장악한 형태는 太守라는 순수한 지방관으로서만이 아니라 공손탁이 자처한 “我王遼東”이라는 표현처럼 독립적인 君王으로서의 위상이었다. 공손탁이 지향한 바는 ‘軍閥의 시대’라는 당시의 시대상에 부합하는 것이기는 하더라도, 공손탁에게도 정권의 구축을 위한 협력자내지는 기반 세력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공손탁이 취임 직후에 취한 행동은 정상의 수순으로 보기 어렵다. 다음의 사례 ①과 ②는 요동태수인 공손탁이 郡에서 영향력 있는 名門大豪에 대해 어떻게 대우했는지를 알려주고 있다.

- ① 郡中の 名豪이자 大姓인 田詔 등은 오랜 만남에도 은혜가 없었다. 모두 법으로 誅殺하니 夷滅한 바가 百餘家로서 온 郡이 두려워 떨었다. (『三國志』 8, 公孫度傳)
- ② 옛 河內太守인 李敏은 郡에서 이름이 났었는데, 公孫度이 하는 바를 혐오하여 害를 입을까 두려워 家屬을 이끌고 바다로 나아갔다. 度은 크게 노하여 그 부친의 무덤을 파서 棺을 깨고 屍身을 불태웠고 그 宗族들을 誅殺하였다. (같은 책)

위의 예에 의하면 태수직에 취임한 공손탁은 郡内の ‘名門豪族’에 대해 위압적이었을 뿐 아니라 잔혹할 정도의 숙청도 마다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遼東王’으로서의 實權을 위해선 遼東 大家들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였을 텐데 그는 오히려 반대의 행동을 취하였던 것이다. 그러면 공손탁의

55) 위의 책, 卷8, 357쪽.

세력 기반은 무엇이였을까? ‘名豪大姓’에 대한 숙청이 요동에서의 견제세력 또는 경쟁 상대를 제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면 이들에 대신하여 공손 씨가 의존하고 협력할 대상이 설정되어야만 하였을 것이다.

189년에 漢 朝廷의 권력을 장악하여 공손탁을 요동태수에 앉힌 董卓은 190년이던 袁紹 이하의 山東 武將들이 꺾기힘으로써 더 이상 공손탁의 지원 세력이 될 수 없었다. 또한 공손탁의 가계를 보면, 소시 적에 그의 부친 公孫 延이 郡吏를 피해 玄 郡으로 이사를 해야 할 정도로 名門의 집안은 아니었던 듯하다. 공손탁 열전에 의하면 그의 就學이나 결혼 그리고 官界로의 진출은 현도군에서 만난 玄 太守 公孫域의 개인적 恩典에 힘입은 것임을 알 수 있다.⁵⁶⁾ 공손탁의 집안이 요동의 심장부인 양평 출신인 점을 감안하여 그의 가계를 遼東 土豪로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세력의 기반으로 삼을만 한 제2 그리고 제3의 존재를 설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관련된 기록이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에 추론에 의한다면, 공손탁이 의존한 대상은 요동의 중간적 土豪들과 아울러 주민의 상당수를 점하고 있던 夷民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앞의 章에서 요동군 안에 존재한 夷民을 확인하기 위해 요동으로 이주한 獨行의 인물 王烈을 주목한 바 있다. 새로이 이주해 온 왕렬에 대해 “夷人이 尊奉하였다”라는 내용이었는데,⁵⁷⁾ 이를 통해 어림할 수 있는 것은 郡 안에 거주하는 夷民의 문화적 상태이다. 즉 夷民은 ‘移住 漢人’의 ‘義行’을 기리고 받들 정도로 문화적으로나 의식면에 있어 同化된 상태에 있었던 것이다. 상대의 문화에 대한 이해는 夷民들만의 일방적 의무는 아니었으니, 다음의 예는 夷民의 문화에 대한 漢人의 반응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시사한다.

襄平 延里의 社廟에 큰 돌(大石)이 생겨났는데 길이는 한 丈이 넘고 밑에는 세 개의 작은 돌(小石)이 있어 그것의 다리가 되었다. 누군가 公孫

56) 『三國志』, 公孫度傳에 의하면 공손탁은 玄 太守 公孫域의 여러 죽은 아들과 동강 일 뿐만 아니라 兪名도 같았다. 이로 인해 공손탁은 현도태수의 親愛를 받았고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57) 『後漢書』 81, 獨行傳, 王烈, 2697쪽.

度에게 말하길 “이것은 漢 宣帝 冠石의 祥瑞로움과 같습니다. 그리고 洞里的 이름도 先君과 동일합니다. 社는 토지를 주관하니 분명히 土地를 보유하게 되어 三公이 輔弼할 것입니다”라고 하니 公孫度이 매우 기뻐하였다. (『三國志』 8, 公孫度傳, 252쪽)

위의 내용에 보이는 세 小石의 받침 위에 얹혀진 大石의 모습은 支石墓가 분명하다. 원문에 ‘社生大石’이라고 한 내용으로 미루어 공손탁이 등장한 후 한 말의 시기까지 지석묘가 제작된 것은 아닐까 추측이 가지만, 여기서 주목할 것은 夷人의 지석묘가 공손씨 정부의 수뇌들에 의해 정권의 장래를 豫示하는 吉祥物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인식은 夷民의 문화에 대한 이해는 물론 긍정적 관심이 전제되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이로써 보자면 夷民은 공손씨 정권에 있어 차별과 소외의 대상이 아니라 협력과 동반의 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⁵⁸⁾ 공손탁이 자신의 경쟁 상대이기도 하지만 정권의 유력한 세력 기반이 될 수 있는 ‘名豪大姓’을 과감히 숙청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유대와 관계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

공손탁이 夷民을 중시했음은 그가 새롭게 실시한 행정체제에서도 나타난다. 그는 요동군의 지역 편제를 일신하여, 요동군을 다시 東·中·西의 세 지역으로 나누어 각각 郡으로 삼았다. 이러한 행정체제가 그의 후손들에 의해 계승된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구도는 과거 前漢~後漢初期에 존재하였던 세 部都尉 체제를 연상케 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과거 부도위는 夷民의 주거였는데, 이 체제에 준거한 세 郡의 분할은 공손탁의 행정 구도가 夷民을 의식하는 기초 위에서 실시되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결국 공손탁 정권의 이민에 대한 의존이 그 만큼 컸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공손탁의 치세를 통해 이루어진 外夷와의 관계를 보도록 하자.

58) 이와는 별개로 공손탁은 ‘遼東侯·平州牧’으로 자립한 이후 漢高祖와 光武帝 二祖廟를 건립함으로써 자신이 二祖를 받드는 ‘藩王’의 위치라는 점을 내외에 천명하였다. 이는 漢朝의 말년에 二祖에 대해 요동 주민들이 갖고 있던 향수를 자극하기 위한 선전적 행위로 보이며, 이것은 夷民이 아닌 漢人系 주민을 의식한 행위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三國志』의 公孫度 열전을 보면 外夷와의 관계를 대변하는 내용으로 “東伐高句麗 西擊烏丸 威行海外”라는 기록이 보인다.⁵⁹⁾ 고구려와 오환 두 세력을 공격함으로써 海外에서 위세를 떨칠 수 있었다는 것인데, 위의 기사를 제외하곤 공손탁이 두 종족에 대해 군사행동을 취했다는 기록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고구려의 경우엔 大加와 主簿 등을 보내어 “공손탁을 도와 富山賊을 쳐서 격파하였다”라는 기록이 보인다. 고구려와 오환은 요동군의 동서에 분포하는 이민족 가운데 대표적 존재였는데, 그렇다면 공손탁이 ‘東伐西擊’했다는 기사는 실제의 군사행동이라기보다는 두 세력을 비롯한 外夷 세계를 장악하였다는 상징적 표현으로 이해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공손씨가 요동에 군림하였던 50년간의 형세는 ‘威行海外’, ‘雄張海東’ 등의 표현으로 나타난다. 공손씨정권이 ‘雄張’하고 ‘威行’할 수 있었던 기초는 이미 공손탁에 의해 구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三國志』, 東夷傳의 序文에서는 공손씨정권의 治世에 관해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公孫淵이 父와 祖 三世에 걸쳐 遼東을 보유하였다. 天子는 그곳을 絕域이라 여겨 海外의 일을 위탁하니 마침내 東夷와는 격리 단절되어 중국과 통할 수 없었다.

앞 章에서 주목한 것처럼 요동군은 전통적으로 ‘海外’, ‘海東’으로 지칭되는 공간에서 중심적 위치였다. 후한 초기엔 요동태수로 30년을 재임한 祭彤의 역할에 의해 중국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海外’의 공간이 중국과 결합되었음에 반해, 공손씨정권의 기간에는 오히려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났다. 요동은 중국과 구분되는 ‘海外’, ‘海東’이라는 공간의식이 형성됨과 아울러 요동이 ‘海外’임으로 인해 중국에서 분리 격리되는 시기를 맞이한 것이다. 위의 기록에서 “海外의 일을 위탁하였다”라고 하였으나 실은 天子가 위탁한 것이 아니라 공손씨의 힘과 판단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서, 그 기초는 공손탁이 닦

59) 『三國志』 30, 東夷傳, 高句麗, 845쪽.

았다고 하겠다.

요동을 중심한 주변세계가 '海外'라는 단위로 분리된 만큼 요동의 공손씨는 분리된 '작은 세계'에서 宗主의 위치였다. 공손씨의 外夷에 대한 대응은 이러한 입장이 기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점은 특히 夫餘와의 관계에서 각별하였다. 당시 부여는 북쪽에 鮮卑 남으로 高句麗가 연결해 있어 두 세력의 틈새에서 어려운 처지였다. 이에 대해 공손탁은 자신의 宗女를 부여(왕)에 출가시키면서까지 부여가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시키고자 하였다. 부여는 본래 현도군을 통해 중국에 내속하였는데, 공손탁이 집권한 이후 과거와 같은 內屬의 절차가 바뀐 당연한 추이였다. 『三國志』, 夫餘傳에

夫餘本屬玄 漢末 公孫度雄張海東 威服外夷 夫餘王尉仇台更屬遼東

하였다는 내용은 이를 의미한다. 공손씨의 등장은 '本屬玄'의 상태에서부터 '更屬遼東'의 상태로 변화토록 하였던 것이다. 원래 玄 · 樂浪郡 등 동이지역에 설치된 郡縣의 임무는 '天子', '中國'을 향한 東夷諸族의 內屬을 관리하고 중개하는 것이었는데, 요동을 중심한 '海外'라는 세계가 중국에서 분리된 이후의 상황은 달라져야만 했다. 동이의 국가 종족이 歸屬할 대상은 요동의 공손씨 자체였으니 부여의 '更屬遼東'이란 이러한 변화를 의미하는 내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요동을 宗主로 삼는 새로운 변화는 낙랑군의 경우 갈등을 겪어야만 했다. 원래 낙랑군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한 주체는 중국 황제임에 반해 낙랑이 지역적으로 소속된 '海外'는 공손탁에 의해 중국으로부터 분리된 세계로 전환된 때문이다. 다음의 기록은 공손탁이 집권하던 초기의 갈등의 양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涼茂는) 太祖(曹操)가 辟召하여 司空掾으로 삼고, 高第로 천거하여 侍御史에 補하였다. 이때에 泰山(郡)에 도적이 많음에 涼茂를 泰山太守로 삼았다. 한 달 만에 襁負하여 이른 것이 千餘家였다. 樂浪太守로

전출되었는데 公孫度이 遼東에 있으며 마음대로 涼茂를 억류시키고
官에 보내지 않았다. 그러나 涼茂는 끝내 굴복하지 않았다. (『三國志』
11, 涼茂傳, 338쪽)

위의 기사는 曹操가 司空으로 재직하던 建安(196~220) 초반의 일이다.⁶⁰⁾
조조는 泰山太守로 있던 涼茂를 전출시켜 樂浪太守로 파견하였다. 당시는 요
동의 실력자로 부상한 公孫度이 군림하던 시절이었는데, 그는 임의로 涼茂를
막아 요동에 체류케 한 다음 樂浪으로 부임하지 못하게 하였다. 공손탁이 朝
廷의 발령을 받은 涼茂를 낙랑 현지에 보내지 않고 요동에 억류시킨 이유는
두 가지 방향에서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海外’의 君主를 지향하는 공손탁의
입장에서 ‘해외’의 범주인 낙랑에 중앙의 발령을 받은 지방관을 파견하는 것
은 자가당착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공손탁의 견지에서 낙랑은 자신의 영역이
었지 더 이상 皇帝의 영역일 수 없었던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해외’와 요동의 安保를 위해서도 涼茂를 낙랑에 부임하게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앞의 기록에서도 나타나듯이 양무는 황제의 관리이자 曹
操의 심복이었지 공손씨정권을 위해 奉仕할 인물이 아니었다. 이런 인물이 낙
랑군에서 태수로 봉직한다는 것은 배후에 적을 키우는 것과 같았다. 따라서
양무의 현지 부임을 차단한 것은 自立을 지향하는 공손탁으로선 당연한 귀결
이었다. 한편 조조 역시 양무를 파견함에 있어서는 나름의 목적을 갖고 있었
던 것 같다. 이 점은 양무의 경력을 보면 확연히 들어난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는 조조의 幕僚 出身으로 泰山郡의 太守職에 재임 중인 인물이었다. 외형은
같은 郡이라고 하더라도 태산군과 낙랑군의 위상은 天壤之差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태산태수로 재직하던 양무를 조조가 좌천도 아닌 상태에서 낙랑태수
에 임명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낙랑군의 가치에 대
한 새로운 인식 때문이 아니라 요동에 자리 잡은 공손씨 때문이었다. 공손탁

60) 조조가 司空職을 보유한 것은 建安元年(196) 11월부터 丞相에 부임하는 13년(208)
6월까지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관해서는 『後漢書』 9, 獻帝紀, 380쪽 및 385쪽
참조.

에 대한 배후의 견제를 위해 조조는 양무를 낙랑태수로 파견하였고, 이를 간파한 공손탁은 양무의 부임을 차단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_ 公孫康 · 公孫恭의 治世(204~221, 221~228)

공손탁에 이어 그 아들 康이 부임한 것은 建安9년(204)의 일이다. 이 시기의 정국은 袁紹가 官度의 전투(200)에서 조조에게 패배한 후 사망하였고(202), 그 아들인 袁尙 역시 조조에게 대패하여(204) 袁氏 부자에 의해 領有되던 冀州牧의 지위는 조조가 차지하였다. 조조는 여세를 몰아 원소의 또 다른 아들 袁譚을 靑州에서 공략하였다. 이 당시 烏桓은 과거 원소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곤경에 처한 원담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이를 간파한 조조는 204년 오환의 원조를 차단하기 위해 柳城에 사신을 파견하여 오환의 王을 만났다. 이때는 마침 새로이 부임한 公孫康이 韓忠을 오환에 사신으로 보낸 시기로서, 조조와 공손씨 양측의 사절은 초왕의 면전에서 조우하였다.⁶¹⁾

당시 요동의 사절은 單于의 印綬를 초왕에게 수여코자 하였는데, 이점 역시 天子의 이름으로 오환에게 眞單于의 지위를 부여하려던 조조의 사절과 상충하였다. 두 사절의 대립은 조조 측의 승리로 결말이 났으며, 결과적으로 초왕은 원담에 대한 원조를 포기함과 아울러 요동의 사절을 복귀토록 하였다. 위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문은 공손강이 오환의 초왕에게 사절을 보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점이다. 우선 당시는 공손강이 부친인 공손탁의 사망으로 인해 그 지위를 승계한 초년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요동의 주인으로서 당시 주변의 이민족 가운데 강력한 세력을 구가하고 있는 오환에 대한 의례적 절차는 필요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공손강이 사절을 통해 오환의 초왕에게 單于의 印綬를 수여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조조의 사절도 요동 측의 행동을 힐난하였듯이 印綬를 수여하는 일은 天子 또는 천자로부터 위임 받은 자만이 행할 수 있는 권한이었지 郡太守 정도

61) 『三國志』 26, 牽招傳, 730~731쪽.

의 신분이 임의로 취할 행동은 못되었다. 과거 袁紹도 오환의 大人들에게 印綬를 수여한 적이 있지만 이것은 ‘天子의 命’이라는 형식을 취한 것이었다.⁶²⁾ 이로써 보자면 요동의 사절이 취한 행동은 단순한 의례행위 이상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목적이란 두 말할 필요 없이 오환을 회유하는 일이었을 것이다. 오환의 여러 군장 가운데 초왕을 찾은 이유는 오환의 원로로서 영향력이 있기도 하지만, 초왕이 遼東屬國 출신으로 遼東烏桓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위치인 때문이었을 것이다.

당시 요동은 自立의 노선을 굳히고 있던 시기인 만큼 藩屏으로서 烏桓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였음은 물론이다. 더욱이 당시의 상황은 원소의 패배 이후 동북지역에 대한 조조의 압력이 가중되던 시기였다. 날로 영향을 더해가는 조조에 대해 요동정권은 다음과 같은 자세를 취하였다.

遼東은 滄海의 동쪽에 있어 보유한 병력이 百萬이고, 또한 夫餘와 濊貊을 활용할 수 있다. 현재의 형세는 강한 자가 위이니 曹操 홀로 어찌 옳다고 할 것인가! (『三國志』 26, 牽招傳, 730쪽)

위의 내용은 柳城에서 조조의 사절과 맞닥뜨린 공손강의 사절 韓忠이 그 자리에서 한 말이다. 그의 말은 오환 앞에서 요동정권의 위세를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최고의 실력자로 부각되는 조조에 대한 언사로서는 매우 불경스러운 표현이 아닐 수 없었다. 요동의 사절은 조조와 요동의 자격을 대등한 것으로 피력하였으니 이러한 태도는 당시 요동의 공손씨가 취하고 있던 自立의 형세를 여실히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공손강은 부친인 度에 이어 ‘海外’의 宗主로서 자립의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였으니, 이 같은 입장에서 오환의 협력은 더욱 절실하였을 것이다. 공손씨가 기대한 오환의 역할이란 다른 아닌 藩屏의 역할이었을 것이다.

조조의 사절로 인해 오환을 藩屏으로 삼고자 했던 공손씨의 계획은 수포

62) 앞의 책, 卷30, 烏丸傳, 834쪽.

로 돌아갔지만, 이것이 당장 오환의 外交 路線에 변화를 준 것 같지는 않다. 205년에 이르면 원소의 아들인 袁尙과 袁熙는 조조에게 패한 이후 부하들의 배신마저 있어 柳城으로 도주 三郡烏桓에 의탁하였다.⁶³⁾ 이후 三郡烏桓은 漁陽郡을 공격하였다. 오환이 원소 아들의 망명을 받아들인다든가, 漁陽을 공략한 일 등은 조조 측의 이해에 반하는 행동이었음이 분명하다. 요동의 입장에선 비록 오환을 자신의 울타리로 만들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저들은 여전히 요동 방면이 아닌 조조 편을 적대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원희와 원상이 柳城의 烏桓에게 망명한 것은 조조에게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오환이 원소의 후예를 보호한다는 것도 그렇지만 원희·원상에게는 아직도 漢民 10餘萬戶가 팔려 있었다.⁶⁴⁾ 이들이 전열을 재정비하기 이전 공격하는 것이 필요하였고, 조조는 이를 위해 207년 劉備·劉表와 대치하던 荊州의 전선을 뒤로 한 채 遼西를 향한 원정길에 올랐다. 조조가 요서의 오환을 정벌하기 위해 盧龍塞의 험준한 지름길을 선택해 柳城을 기습 공격한 것은 유명한 일화이다. 柳城의 전투를 통해 조조의 군대는 오환의 최고 실력자 蹋頓을 처단했을 뿐 아니라 胡漢의 군사 2십여만의 항복을 받았다. 이때에 袁熙·袁尙과 오환의 大人인 速附丸⁶⁵⁾·樓班·烏延 등은 遼東으로 도주하였다.

조조의 요서 원정은 요동 공손씨와 오환의 관계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조조의 정벌로 인해 오환의 잔여 세력은 조조에 투항 귀순하였고, 鮮卑 역시 이러한 위세에 눌려 步度根이나 軻比能 같은 지도자들이 貢獻하였다.⁶⁶⁾ 조조의 무력에 의해 오환의 상당수가 조조에 귀순하였다는 사실도 그렇지만 정작 문제는 요동에 피신한 오환의 수뇌들에 대해 공손강이

63) 『三國志』 1, 武帝紀, 27쪽. '三郡烏桓'이란 遼東·遼西·右北平郡에 거주하는 오환을 뜻한다. 당시의 首長은 遼西의 蹋頓, 遼東의 王, 右北平의 烏延으로서 蹋頓이 三部(三郡)를 총괄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주요 근거지는 蹋頓의 본거지인 요서지역 柳城이 그 중심이었다.

64) 위의 책, 28쪽.

65) 遼東의 單于인 速附丸의 이름 표기는 기록에 따라 일정하지 않다. 위의 표기는 『三國志』 30, 烏桓傳의 기록임에 반해 같은 책, 武帝本紀에서는 速僕丸으로 표기하였다.

66) 위의 책, 鮮卑傳, 830쪽.

취한 조치였다. 공손강은 요동을 근거로 재기를 모색하는 원희·원상 형제를 처단함은 물론 오환의 수령들도 몰살시키는 극단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공손강의 행동은 조조의 환심을 크게 샀지만,⁶⁷⁾ 한편으론 요동정권의 藩屏이 되어야 할 세력을 상실하는 엄청난 결과를 맞이하였다.

遼東政權이 藩屏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협력자를 상실하였다는 점에서는 동쪽 高句麗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고구려는 공손강의 시기에 이르러 자주 요동을 공격하였고, 도망한 胡人 5百餘家を 받아들였다.⁶⁸⁾ 요동을 공격한 것도 그렇지만 ‘亡胡’를 수용한 일까지 공손강을 자극하여 出軍하게 만든 것을 보면 ‘亡胡’의 구체적 신분은 요동군 영내에 거주하던 이민족[夷民]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三國志』에서 공손강의 군사 행동에 관해 “破其國 焚燒邑落”이라고 한 것을 보면 그 내용이 매우 격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관한 『三國史記』의 내용을 보면 중국 정사의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다. 특히 연대 상으로 차이가 심한데, 建安年間(196~220)에 있었다는 遼東軍의 출격이 『三國史記』에서는 故國川王6년(184)의 일로 기재되어 있다.⁶⁹⁾ 원래 산상왕(197~226)조에 수록되어야 할 것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이며, 다만 산상왕조에 보이는 국내성 遷都 기사는 공손강과의 전쟁 후유증에 관한 내용으로 풀이할 수 있다.

고구려는 공손강의 出軍이후에도 玄 방면에 대한 침공을 계속하여 요동군과 현도군이 연합하여 반격하는 일도 있었다. 고구려와의 잦은 충돌 내용은 공손탁의 시기와 비교하여 양측의 관계가 변화하였음을 의미한다. 공손씨가 집권하던 시기의 요동은 과거의 요동군과는 달리 중국왕조의 지원으로부터

67) 이 일에 대한 포상으로 조조는 公孫康을 ‘襄平侯·左將軍’에 봉하였다(『三國志』 卷8, 公孫度傳, 253쪽).

68) 『三國史記』 16, 高句麗本紀4, 山上王21年(217)條에는 『三國志』, 東夷傳에 보이는 ‘亡胡’ 기사에 대신하여 “漢의 平州人 夏瑤가 百姓 一千餘家와 來投하니 王이 그들을 받아들여 柵城에 安置하였다”라고 하였다.

69) 공손씨 정권과 관련된 『三國史記』의 기록은 특히 연대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례로 公孫度を 도와 富山賊을 토벌한 것이 新大王5년(169), 故國川王의 兄 拔奇가 公孫康에 투항한 것이 고국천왕 원년(179)으로 기록되어 있어 189년부터 238년까지 존속한 공손씨 정권의 연대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벗어난 독자적 세력이었던 만큼 고구려의 침입은 이를 간파한 행동이었을 것이다. 결국 공손강 시기의 고구려는 공손탁 시기에 보인 藩屏 또는 협력자의 위치에서 이탈하여 요동정권의 적대세력으로까지 변모하였던 듯하다.

이 시기에는 요동 남부에 위치한 낙랑군에도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공손탁 이래로 낙랑의 관리는 '海外'의 宗主인 요동정권의 몫이었다. 공손씨가 낙랑을 관리한 본보기로 확인 되는 것은 낙랑의 남부지역에 대방군을 설치한 일이다. 낙랑 남부의 원주민인 韓·濊가 강성함으로 말미암아 낙랑 주민들의 동요와 이탈이 심하였는데,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공손강은 公孫模·張敞 등 요동의 관원을 파견하였다. 이들은 낙랑 현지에 나아가 분산 이탈하였던 낙랑의 주민을 수습하는 한편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대방군을 개설하였다. 그 시기가 조조가 건재하였던 建安年間임을 보면, 대방군 설치의 순수히 '해외'의 구성분자에 대한 관리 이외에 조조의 배후 진출을 예방하려는 목적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어쨌든 대방군 설치의 쇠락해가는 낙랑군을 재건한다는 의미가 컸지만, 이와 관련된 낙랑의 유물은 이 시기가 결코 '樂浪의 繁榮期'에는 미치지 못하였음을 예증하고 있다.⁷⁰⁾

공손강이 사망한 이후 그 아들인 晁과 淵은 아직 연소하였던 관계로 동생인 恭이 지위를 계승하였다. 공손공이 재위하면서 공손연의 형인 晁은 洛陽에 任子로 파견되었고 결과적으로 淵은 형에 대신하여 요동태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다. 공손공이 재위한 연수는 8년으로 짧은 시간은 아니었지만 특기할 만한 자취를 남기지 못하였다. 공손공은 매우 病弱하여 治國할 형편이 못되었는데, 조카인 공손연은 이를 이유로 恭의 지위를 박탈하였고 낙양에 任子로 체류하던 형을 제치고 요동태수 직을 차지하였다.

70) 高久健二, 1995, 『樂浪古墳文化研究』, 학연문화사, 128~131쪽에 의하면 공손씨의 시기는 낙랑 분묘의 편년상 V기로 구분된다. 이 시기는 낙랑분묘의 쇠퇴기로서 車馬具 등이 소형 明器로 대체됨을 볼 수 있다.

3_ 公孫淵의 治世(228~238)

공손연이 요동의 새로운 주인으로 취임한 것은 228년 魏의 明帝 太和2년(228)의 일이었다. 공손연이 임의로 태수의 자리를 빼앗아 취임하자 魏 朝廷에서는 이에 대한 응징의 여론이 높았다. 그러나 당시는 蜀相 諸葛亮의 出師가 진행되었던 시기로서 동북 방면에 대해 새로운 전쟁을 수행하기 어려웠던 만큼 공손연에 대해서는 ‘揚烈將軍·遼東太守’에 임명함으로써 그 지위를 승인하였다. ‘揚烈將軍’의 직함은 원래 州刺史급을 대상으로 하는 관직으로서 앞의 公孫恭이 누렸던 지위에 비해서도 낮은 등급이었다.⁷¹⁾ 이 지위는 후일 吳의 孫權이 수여한 ‘燕王’의 지위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서 공손연이 일시 吳에게 稱藩하는 이유의 하나를 여기에서도 찾을 수 있겠다.

魏와 접해 있는 요동이 바다 건너 멀리 떨어진 吳와 通交하였다는 것은 흥미로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공손탁 이래 三代째 이어온 ‘海外的 領主’로 자리잡히려는 욕구와 이로 인한 魏 王朝에 대한 두려움이 吳라는 새로운 출구를 찾도록 하였을 것이다. 더욱이 당시는 공손강의 治世에서도 확인되는 바처럼 遼東政權의 藩屏이 될 만한 이민족은 존재하지 않았다. 207년 조조가 요서의 오환을 정벌한 이후 烏桓의 나머지 무리는 조조에게 항복하였다. 또한 幽州와 并州에 거처하며 烏桓校尉 閭柔에 의해 통솔되던 ‘萬餘落’의 오환 역시 중국에 거처하면서 魏의 각종 정벌에 참여하였고, 이중에서도 특히 三郡烏桓은 ‘天下名騎’로 명성을 높이고 있었다.⁷²⁾

고구려 역시 공손연의 치세에는 더욱 본격적으로 독자의 노선을 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 공손씨가 요동에서 집권하던 반세기의 역사는 외교면에서 고구려를 비롯한 東夷의 국가들에게 혼란의 시기였을 것이다. 종전 이

71) ‘揚烈將軍’은 후한말 이후 사용된 호칭으로, 『三國志』에는 공손연 이외에 兗州刺史 王昶(卷27, 744쪽)과 荊州刺史 王基(卷27, 752쪽)에게 수여한 예가 확인된다. 이에 반해 ‘車騎將軍’의 지위는 州牧 수준의 관료에게 수여되던 것으로 揚烈將軍에 비해 두 단계 상위의 등급이라고 하겠다.

72) 『三國志』 30, 烏丸傳, 835쪽.

들 국가의 외교는 玄 郡이나 樂浪郡 또는 遼東郡에 인도되었는데, 중국 군현이 궁극적으로 목적인 바는 중국 황제에 內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공손씨가 지배하는 요동군의 실체는 과거와는 판이하였다. 당시의 요동이 '중국'의 범주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실상은 半獨立의 '海外'로 분리된 상태에 있었던 만큼, 이제 요동은 더 이상 中國의 肢體도 아니요 皇帝 直轄의 단위도 아니었다. 또한 '해외'의 일부인 東夷지역 역시 '중국'으로부터 隔斷된 지역으로 공인되었던 만큼 외교의 구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당시의 구도로 보아 공손씨정권이 外夷에게 요구한 것은 본토의 황제에 대한 內屬이 아니라 遼東王인 자신에 대한 服屬이었고, 이를 통한 藩屏의 위치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요동 주변의 국가나 종족들의 입장은 달랐다. 이민족 가운데 특히 고구려는 외교의 종착점이 요동에 있지 않음을 파악하고 있었다. 요동의 공손씨정권도 상대해야 할 대상이지만, 요동 너머엔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강력한 魏가 있고 또한 이와는 별개로 江南지역엔 吳도 있음을 알고 있었다. 고구려가 魏와 吳를 상대하기 위해선 과거처럼 요동군이나 현도군의 인도에만 이끌릴 수는 없는 일이었다. 중국 남북의 魏와 吳王朝를 상대하기 위해선 요동이 아닌 독자의 경로가 필요하였는데, 이점에서 공손씨의 집권기는 고구려의 외교에 큰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진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고구려의 외교술에 반해 부여는 요동군에만 의존하였다. 부여는 공손씨정권을 전후한 시기도 그랬지만, 이 시기엔 公孫度이 부여왕에 대해 '妻以宗女'하였다는 일화가 시사하듯 군현에 대한 의존이 더욱 친밀하였다.⁷³⁾

요동의 공손연은 魏王朝로 인한 불안감과 중압감을 면하기 위해 吳와의 외교를 모색하였지만 이러한 외교노선은 기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었다. 거리상 후원국으로서 吳는 멀고 海路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와는 달리 魏의 兵馬는 지척에서 달려들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요동과 吳의 通交는 魏를 더욱 자

73) 고구려와 부여의 외교적 차이는 결국 국력의 차이로 결과하였다고 생각하는데, 부여국 발전의 한계는 철저하리 만치 중국 군현에만 의존한 외교적 자세에서 그 하나의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국하였다. 232년 魏의 明帝는 汝南太守 田豫와 幽州刺史 王雄에게 水路와 陸路를 통해 요동을 공격토록 하였는데,⁷⁴⁾ 그 결과가 불발로 그치긴 했지만 이는 요동을 향한 군사행동의 출발이었다. 이에 불안을 느낀 공손연은 다음 해에 태도를 돌변하여 요동을 찾은 魏의 使節을 斬首하여 그 목을 魏의 수도로 보냈다.⁷⁵⁾ 이에 대한 포상으로 魏는 공손연의 지위를 ‘大司馬·樂浪公’으로 승격시켰지만, 이러한 대우가 공손연에 대한 완전한 赦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234년 8월 蜀相 諸葛亮의 죽음은 蜀과의 전쟁으로 漢中지역에 묶여 있던 魏軍에게 새로운 轉機를 제공하였다.⁷⁶⁾ 蜀과 전선에서 대치하는 부담이 한층 완화되었기 때문에 魏軍은 방향을 요동으로 돌렸다. 237년 幽州刺史 毌丘儉을 파견한 공격은 큰 비로 말미암아 실패하였고, 238년엔 太尉 司馬懿의 대규모적인 원정이 있었다. 원정의 결과는 공손씨정권의 몰락이었다. 공손연 부자는 夫餘가 위치한 북쪽이 아닌 고구려의 방향인 동남쪽으로 도주하다 죽음을 맞았다.

공손씨정권의 최후를 맞게 만든 毌丘儉과 司馬懿의 잇단 원정에서 요동 주변의 夷人들은 요동정권을 철저히하리만치 외면하였다. 오히려 고구려는 大加와 主簿를 파견하여 數千人的 兵士로 요동을 공략하는 사마의의 군대를 지원하였으며,⁷⁷⁾ 烏桓 역시 205년 袁尙과 더불어 遼西로 도주하여 잔존해 있던 무리들까지 관구검의 원정군에 귀순하였다.⁷⁸⁾ 궁지에 처한 공손연은 전에 없던 행동으로 鮮卑의 수장에게 單于璽를 수여한다든가 邊民을 封하여 도움을 받고자 했으나 별 소득이 없었다.⁷⁹⁾ 또한 이 시기는 요동 주변의 夷人인 外夷 뿐 아니라 요동의 주민인 內夷들까지 동요하였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우

74) 『三國志』 26, 田豫傳, 728쪽.

75) 위의 책, 卷3, 101쪽.

76) 西嶋定生, 1983, 「親魏倭王冊封に至る東アジア情勢 - 公孫氏政權の興亡を中心として -」, 『中國古代國家と東アジア世界』, 東京大學出版會, 483~484쪽에서는 諸葛亮의 죽음이 魏의 요동 원정에 영향을 주었고, 결국에는 ‘親魏倭王’에 책봉되는 倭國에 까지 영향을 준 것으로 이해하였다.

77) 『三國志』 30, 東夷傳, 845쪽.

78) 위의 책, 835쪽.

79) 『三國志』 8, 公孫度傳, 254쪽.

선 公孫康의 治世에 고구려에 온 '亡胡'의 존재가 그렇다. 이밖에 '內夷'의 동
 요로 생각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기록도 보인다. 「魏名臣奏」의 夏侯獻表에
 의하면 “高句麗와 濊貊은 (公孫)淵과 원수가 되어 함께 寇 하니 (遼東은) 지
 금 밖으로 吳의 원조를 잃고 안으로는 胡人의 노략질이 있다”라고 하였다.⁸⁰⁾
 원문에 '內有胡寇'라고 한 '內'의 표현은 '海外'를 단위로 본 표현이겠지만,
 '內'의 구체적 대상으로 지목한 濊貊은 遼東 內夷의 한 部類로 볼 만 하다.⁸¹⁾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다면 공손연의 치세엔 外夷로부터 소외되었을 뿐 아니
 라 內夷의 동요까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시기 고구려가 司馬懿 군대를 지원한 것은 군현에 의존하지 않은 독자
 외교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공손연의 治世를 통해 고구려의 독자 외교는 괄
 목할 만한 발전을 보였는데, 독자 외교의 출구는 西安平이었다. 서안평의 위
 치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압록강의 하구로 북에서 흘러온 濊河와의 합
 류점이다. 그 위치는 丹東市의 동쪽 교외 지점으로 현지 주민들은 '濊河尖'이
 라고 부르고 있다. 이 지점은 위치상으로 현도군은 물론 요동군의 중심부에서
 벗어난 곳으로서 군현 세력과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곳이다. 또한 강의
 하구인 까닭에 바다를 통해 魏 그리고 吳와 용이하게 교통할 수 있었다.

233년 공손연이 吳의 使節 일행을 현도군에 억류하였었는데, 이들 중 일
 부는 탈출하여 고구려의 구원을 받았다. 고구려는 吳의 사절을 본국으로 송환
 하였는데, 해로로 귀환시킨 지점을 알기 어려우나 서안평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234년 吳의 정식 사절이 고구려를 찾았는데, 이들 일행이 상륙한 곳 역
 시 서안평이었고 고구려의 관원도 이곳에서 오의 사절을 영접하였다.⁸²⁾ 이러
 한 예로 미루어 당시의 서안평은 요동정권의 屬縣이 아니라 고구려가 점유한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의 독자외교는 吳뿐만 아니라 魏와도 교
 류하였는데, 오의 사절이 고구려를 방문한 234년 무렵 幽州刺史의 諷旨를 받

80) 위의 책, 257쪽에 인용된 「魏名臣奏」.

81) 拙稿, 2006, 앞의 책에서는 '內夷'에 해당하는 遼東中部都尉와 玄 郡의 주민 대개
 를 貊(濊貊)으로 파악하였다.

82) 「三國志」 47, 吳主傳2, 1140쪽에 인용된 「吳書」.

았다는 사실은 이를 입증한다.⁸³⁾ 또한 魏의 동북지역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던 236년 고구려가 魏의 사절을 참수하여 유주자사를 찾았다는 사실은⁸⁴⁾ 민감한 시기에 고구려가 보인 외교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실감케 한다. 요동정권이 멸망한 이후에 魏는 고구려가 서안평을 점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관구검이 고구려를 원정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지만,⁸⁵⁾ 234년과 236년에 이루어진 魏와의 교류 역시 서안평을 중요 거점으로 삼아 출입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끝으로 공손연 시기의 夷人 문제와 관련하여 魏軍의 공격에 직면한 遼東의 군대가 구축한 방어선의 위치에 관해 주목하려고 한다. 237년 관구검이 공격하던 시기와 238년 사마의가 공격하던 시기에도 요동의 군대는 遼隧(隊)를 방어선으로 삼았다. 이 지역은 遼河에 인접한 저지대로서 하천이라는 점을 제외하곤 전술상의 이점을 찾기 어려운 지대이다.⁸⁶⁾ 특히 수도인 襄平과의 거리를 생각할 때 매우 가까운 거리라는 느낌이다. 여기에서 상기되는 것은 207년 공손강의 집단 학살로 말미암아 등을 돌리게 된 오환의 존재이다. 만일 오환이 공손씨정권의 협력세력으로서 藩屏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면 요동의 방어선은 襄平에서 멀리 떨어진 遼西의 한 지점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오환의 협력을 상실한 요동정권은 결국 수도인 襄平과 가까운 거리에 방어선을 구축할 수밖에 없었고 238년 8월 수도인 양평이 함락됨으로써 공손씨정권 50년의 역사는 막을 내렸다.

83) 위의 책.

84) 『三國志』 3, 明帝紀, 107쪽.

85) 『三國志』 30, 東夷傳, 845~846쪽.

86) 王綿厚(等), 1988, 『東北歷史地理』 1卷, 北方史地叢書編委會, 285쪽에 의하면 현재 위치를 遼寧省 海城市 서쪽의 四方臺로 보았다. 이 지점과 襄平(현재의 遼陽)과의 거리는 약 70km 정도의 거리이다.

IV. 맺는말

지금까지 2세기말부터 반세기 동안 요동지역에 존재한 공손씨정권에 관해 검토하였다. 요동군 주변에 많은 ‘夷人’이 분포하고 있음을 감안 이들과의 관련성 문제에 주안점을 두었고, 이를 통해 郡으로서 요동군이 지닌 특성에 관해 이해하고자 하였다. 검토의 내용은 각 ‘이인’의 분포와 존재 형태 그리고 공손씨정권 담당자의 治世에 따라 나타난 ‘이인’과의 관계 및 변화상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확인된 사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요동군이 처한 환경은 우선 ‘夷人’들이 많다는 사실이다. ‘이인’의 존재는 郡의 외곽만이 아니라 군의 내부에도 종족 계통이 다른 ‘이인’들이 상당수 주민으로 거주하고 있었다. 이런 이유로 前漢에서 後漢初에 이르는 기간 동안 요동군에는 ‘이인’을 특별히 관리 통치하기 위한 기구로서 部嗾尉가 개설되었다. ‘이인’의 숫자가 많고 다양함으로 인해 부도위는 東部·中部·西部의 세 지역에 개설해야만 했다. 제도적 변화로 인해 後漢 光武帝 때 전국의 부도위가 폐지되었지만 ‘이인’의 거주는 지속되었고, 이들의 분포는 공손씨정권을 수립한 공손탁에 의해 요동군을 세 郡으로 분할하는 형태로 반영되었다.

요동군 외곽의 ‘이인’으로는 서쪽의 烏桓과 동쪽의 高句麗가 대표적이었다. 공손씨정권이 등장한 시기엔 鮮卑보다 요서지방을 중시한 오환의 활약이 두드러졌는데, 반란을 일으킨 張純, 이를 진압한 劉虞, 그리고 袁紹와 曹操의 예에서 보듯 동북의 실력자가 되기 위해선 오환을 장악하거나 저들의 협력을 받아야만 했다. 고구려가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선 서쪽 방면으로 진출하는 것이 필요하였는데, 현도·요동·낙랑군으로 연결되는 漢郡縣의 분포는 고구려의 西進를 봉쇄하는 형국이었다. 따라서 고구려와 군현의 충돌은 불가피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은 공손씨의 집권기를 통해서도 반복되었다.

공손씨정권을 연 公孫度은 요동의 土豪이긴 하나 권력있는 名門의 집안은 아니었다. 그는 오히려 郡太守의 권한을 이용 요동의 名門大豪들에 대한 숙청을 단행하면서 ‘海外’의 실력자로 부상하였다. 그는 요동의 범주를 넘어 ‘해

외'의 군주를 지향한 만큼 요동 内外의 '이인'을 세력 기반으로 삼고자 하였다. 요동군의 三分은 '이인'을 고려한 조치였고, 外夷에 대해서도 오환과 고구려를 장악함으로써 '해외'에 위세를 떨칠 수 있었다. 공손탁의 부여에 대한 지원은 각별하였고, 낙랑에 대해선 황제의 발령을 받은 太守의 부임을 차단할 정도로 '해외'군주로서의 면모를 과시하였다.

공손탁에 이어 등장한 공손강은 '夷人' 중에서도 오환이 보유한 능력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때는 曹操가 오환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접근해 온 시기였던 만큼 오환을 요동정권의 藩屏으로 유도하기가 용이하지 않았다. 207년 조조가 오환의 중심지인 柳城을 공격하여 오환의 수뇌들이 요동에 피난하였을 때 공손강은 저들을 몰살시킴으로써 오환족과의 협력 가능성을 스스로 단절하였다. 고구려 역시 이 기간에 요동군과 현도군 등 군현을 매개로 삼지 않는 자립이라는 새로운 외교방식을 추구하였다. 그 결과 요동정권과의 마찰을 피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한 공격을 받기도 하였다. 공손강의 대방군 설치는 '해외'의 남부를 보호하려는 '해외군주'로서의 면모이면서 한편으론 조조가 배후로 진출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조치이기도 하였다.

공손연의 치세는 좌우에 분포하는 '外夷' 모두에게서 藩屏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오환은 조조의 원정 이후 魏에 협력하는 세력으로 변모하였고, 고구려는 요동군이라는 우산을 떠나 자립 외교의 길을 구축하였다. 이제까지 부여나 고구려 모두 중국에 대한 외교는 중국 군현에 의해 인도되는 형태였던 데 반해 이 시기 고구려는 중국 본토의 魏와 吳王朝 모두에 대해 독자적 외교를 구사하였다. 중국에서 분리된 단위로서 '海外君主'의 지위를 유지해야겠다는 욕구와 울타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인'을 상실한 현실 사이에서 공손연이 취한 것은 魏와의 通交였다. 그러나 근접해 있는 魏의 압박은 강력한 것이었기 때문에 공손씨의 외교 형태는 三角外交일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요동의 처세는 결국 魏의 공격을 유발하였으니 238년의 정벌로 인해 공손씨정권 50년의 역사는 막을 내렸다. 한마디로 공손씨정권은 '이인'으로 인해 흥성하였고 '이인'으로 말미암아 몰락한 정권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ABSTRACT]

The Rise and Fall of Liaodong Kingdom by Gongsun's Family(公孫氏) and the Relationship with the Neighboring Barbarians

Kwon, O-Jung

This thesis was prepar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iaodong Kingdom of Gongsun's family and neighboring barbarians at Liaodong commandery(遼東郡). The Liaodong kingdom was established by Gongsun-Duo(公孫度) who was appointed to the post of a governor to Liaodong commandery in 189, and ruined at 238 in the period of Gongsun-yuan(公孫淵)'s reign who is grandson of Dou(度). There were many barbarians at the internal and external commandery who were lived as inhabitants. For the establishment of his own kingdom Duo relies on barbarian inhabitants Instead of powerful families in commandery.

Gongsun's family endeavor to make neighboring barbarians as their subordinates, especially to Koguryo(高句麗) and Wuhuan(烏桓). Wuhuan was famous for its' strong influence in the northeast of China. If a power who got the assistance of Wuhuan was successful and if not, were failed. At first, Gongsun's family could be blessed with stability within holding supports of Wuhuan. But in 207, after Caocao(曹操) had conquered Wuhuan tribes, the situation was changed. Thereafter, Wuhuan just assisted the Caocao's militaries but didn't cooperate with Liaodong commandery.

At first, Goguryo also did in favor of Kongsun's kingdom. But, Gongsun's family constructed special 'Overseas' world after separated from Proper-China, Koguryo didn't submits to Liaodong Kingdom's direction. Instead of submits to liaodong Kingdom, Koguryo dispatch a envoy and exchanged with the Proper-China(魏 Wei, 吳 Wu). This kind of diplomacy was stand on Koguryo's own course and was remarkable contrast with Buyeo(夫餘) who was dependant with Chinese Commanderies(漢郡縣). At this time, Koguryo secure Xianping(西安平) that was a point of strategic importance in the south of Liaodong commandery and through this spot Koguryo exchanged with China.

At this reason, finally Koguryo didn't take a role of barrier of Liaodong Kingdom. Liaodong commandery seek for independent Liaodong Kingdom which was separated from Proper-China, for that reason Liaodong commandery was attacked by Wei army. At this attack, any tribe took a role of barrier of Liaodong commandery and there were in commotion of barbarian inhabitants in Liaodong commandery. Actually Liadong Kingdom was destroyed by an expeditionary force of Wei dynasty, but we can say that the rise and fall of Liaodong Kingdom was resulted in barbarians' for or against.

keyword

Liaodong Commandery, Gongsun's Kingdom, Sub-Commandery, Xuantu Commandery, Barbarian Inhabitants, Barbarian, Wuhuan, Koguryo, 'Oversea'

일본 율령국가의 고구려계 씨족

김 은 숙 | 한국교원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I. 서론

고구려가 668년에 멸망한 후 고구려의 유민들은 신라와 당의 지배를 받거나 일본으로 건너가 생활하였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어디에 있던 고구려계라는 의식을 가지고 생활한 사람들이 존재하였고, 이것은 역사적으로 발해, 고려의 건국으로 나타났다. 일본으로 건너간 고구려 유민들이 일본에서 고구려계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음은 『續日本紀』, 『日本後紀』 등의 正史의 단편적인 기술이나 『新撰姓氏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본율령국가의 고구려계 씨족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적다. 王姓을 가진 씨족을 중심으로 高麗王, 肖奈王(高麗朝臣) 등에 대해 단편적으로 검토한 연구가 있을 뿐이다.¹⁾ 이 연구들은 高麗王이나 肖奈王의 존재를 일본을 발해나 신

1) 율령국가의 고구려계 씨족에 관한 가장 기초적인 연구로는 佐伯有清의 『新撰姓氏錄』에 대한 고증작업이 있다 (佐伯有清, 1983, 『新撰姓氏錄の研究』考證編第5, 吉川弘文館). 그밖에 高麗朝臣福信에 관한 연구로 近江昌司, 1985, 『仲麻呂政權下の高麗朝臣福信』, 『日本古代の政治と制度』, 吉川弘文館; _____, 1988, 『背奈福信と相撲』,

라보다 우위에 놓고자 하였던 일본 지배층의 중화의식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668년에 이미 고구려는 멸망하였는데, 703년에 과거 고구려 귀족 출신의 사람에게 高麗王을 사성하거나, 747년에 고구려 귀족의 후예에게 肖奈王姓을 준다고 해서 발해나 신라가 일본 왕권의 하위에 놓여진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는 일본율령국가의 이데올로기에만 초점을 맞춰, 당시 객관적인 국제상황이나 고구려계 씨족의 주체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본고에서는 고구려계 씨족의 주체성을 고려하면서, 7세기말 이후 9세기 초까지에 한정하여 일본의 고구려계 씨족들이 일본 율령국가에서 어떻게 존재하였는지, 이들이 어떠한 계보의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日本書紀』, 『續日本紀』, 『日本後紀』, 『新撰姓氏錄』의 고구려 씨족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하여 밝히고자 한다.

II. 천무8성과 黃文連씨와 大貊連씨

고구려가 멸망한 후에 어떤 사람들이 왜국으로 건너갔는지는 알 수 없다. 『日本書紀』에도 668년 고구려의 멸망 후에 고구려 유민들이 왜국에 망명하였다는 기사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天武조정에서 672년에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왜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에 대해 調稅를 10년간 면제해주는 조치를 내렸다는 점에서 고구려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²⁾ 다른 나라 사람이 왜국에 정착하는 경우 10년간의 과역을 면제하는 조치는 唐令을 참고

『古代史論集』, 直木孝次郎古稀記念會編, 塙書房이 있다. 高麗王씨에 관한 연구로 菅澤庸子, 1990, 「古代日本における高麗の殘像」, 『史窓』 47과 田中史生, 1997a, 「渡來系氏族と日本古代國家」, 『日本古代國家の民族支配と渡來人』, 校倉書房이 있다.

2) 『續日本紀』에 보이는 高麗朝臣福信의 薨傳에 의하면 唐將 李勣이 평양성을 함락시켰을 때 肖奈福德이 왜국으로 건너와 武藏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로 한 것으로, 681년 2월부터 제정 작업이 시작되어 다음 지통천황대인 689년 6월에 완성되는 淨御原令에도 조문으로 정착하게 된다.³⁾ 그런데 681년에 天武는 다시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이주한 사람들에 대한 課役 면제 조치를 연장하도록 하였다.⁴⁾ 7세기 후반에 왜국조정에서 한반도에서 건너온 사람들을 상당히 우대하였음을 알 수 있다.

『日本書紀』에서 특별히 고구려에서 도래한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685년 9월에 왜국에 온 고구려인들에게 祿을 주었다는 기사다.⁵⁾ 아마도 이 때 고구려인들은 安勝의 소고구려국의 사람들로서, 685년 왜국 사신 三輪引田君難波麻呂 등과 함께 왔을 가능성이 있다. 686년 9월 천무천황이 사망하고 지통이 臨朝稱制한 직후 그해 윤12월 筑紫大宰가 고구려, 백제, 신라의 백성 남녀와 승니 모두 62인을 바쳤다.⁶⁾ 한반도에서 북부 구주로 건너온 사람들을 藤原京으로 보낸 것이다. 다음해 3월에는 ‘投化’한 고구려인 56인을 常陸國에 살게 하였다.⁷⁾ 이들도 과역 면제 조치를 받았을 것이다.

672년 임신의 난을 거쳐 천지의 아들을 제거하고 즉위한 天武는 8색의姓을 제정하여 유력 씨족들을 황족을 정점으로 하는 새로운 姓 질서 속에 재편성하고자 하였다. 天武대에 8색의 姓 질서 속에 편입된 고구려계 씨족은 大狛造씨와 黃文造씨이다.⁸⁾

3) 森公章, 1998, 「古代日本における在日外國人觀小考」, 『古代日本の對外認識と通交』, 吉川弘文館, 97쪽.

4) 『日本書紀』, 天武10년 8월 병자조에는 “詔三韓諸人曰, 先日復十年調稅既訖. 且加以歸化初年俱來之子孫, 並課役悉免焉”이라는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이 기사는 681년 8월에 천무천황은 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 調稅를 10년간 면제하는 기간이 끝났지만, 그들의 자손 중에 성장하여 課丁의 연령에 달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10년간 課役을 면하게 하는 조서를 내린 것이다. 이를 통해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일본 열도로 건너간 사람들에 대해서 10년간 課役을 면제하는 조치가 천무천황이 즉위하던 672년에 이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5) 『日本書紀』, 天武14년 9월 庚午條, “化來高麗人等, 賜祿各有差.”

6) 『日本書紀』, 朱鳥元年 閏12月條.

7) 『日本書紀』, 持統元年 3月乙丑朔乙卯條.

8) 한편 『日本書紀』에 의하면 681년 4월에 連姓을 받아 狛連이 된 山背狛烏賊麻呂가 보인다. 그도 고구려계 도래인으로 여겨지지만, 狛連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아 어떤 계보의 사람인지 알 수 없다.

大狛造씨는 681년 4월에 大狛造百枝, 足坏가 大狛連姓을 받고, 683년 9월에는 다른 大狛造씨도 大狛連姓을 받아,⁹⁾ 고구려 출신 씨족 중에서 가장 먼저 8色姓 질서에 편입되었다. 그런데 『新撰姓氏錄』에 의하면 大狛連은 고구려 伊利斯(湓土)씨의 후손이라는 계보를 가지고 있다. 伊利斯(湓土, 伊利之)는 淵(泉)을 가리키므로 연개소문과 같은 성씨이다.¹⁰⁾ 연개소문의 동족 중에서 왜국에 간 사람은 656년에 고구려에서 왜국에 파견된 사신단의 副使 伊利之가 있다.¹¹⁾ 고구려의 연개소문은 645년 이후 계속되는 당의 공격¹²⁾에 대비하여 왜국과 동맹을 맺기 위해 대사 達沙와 副使 伊利之 등 모두 81명의 대규모의 사신단을 656년 왜국에 파견하였다.¹³⁾

『日本書紀』에는 伊利之 이외에도 고구려 사신 이름이 다수 보이지만 『新撰姓氏錄』에 특별히 伊利之의 후예씨족이 많은 것은 그가 왜국에 계속 체재

9) 『日本書紀』, 天武10年 夏4月 庚戌條; 같은 책, 天武12年 9月 丁未條. 『新撰姓氏錄』, 山城國諸蕃에서는 ‘狛造’에 대해 “出自高麗國主夫連王”이라고 적고 있다.

10) 『新唐書』 卷22, 列傳 第145, 高麗條에서는 “有蓋蘇文者, 或號蓋金, 姓泉氏, 自云生水中以惑衆”이라고 하여 연개소문이 자신이 물 속에서 태어났다고 하면서 대중을 미혹하였다고 한다. 원래 淵씨였으나 당 고조 李淵과 이름이 같으므로 避諱하여 천씨로 고친 것이다. 그런데 『日本書紀』, 星極元年 2月 丁未條에서는 淵蓋蘇文을 伊梨枸須禰로 표기하고 있다. 왜국에서 淵씨가 伊梨 또는 伊리로 표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11) 『新撰姓氏錄』, 河內國 諸蕃에 두 종류의 大狛連씨가 보인다. 각각 “出自高麗國人伊利斯少禮斯也”, “出自高麗國湓土福貴王也”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伊利斯와 湓土는 같은 음을 다른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新撰姓氏錄』에는 伊利斯와 湓土를 다른 음으로 표기한 伊利須도 보이는데, 『新撰姓氏錄』에서 伊利須의 후예씨족으로 日置造, 鳥井宿禰, 榮井宿禰, 吉井宿禰, 和造와 日置倉人 등이 보인다. 『新撰姓氏錄』의 伊利斯, 湓土, 伊利須는 『日本書紀』 齊明2年 秋8月 庚子條의 “高麗遣達沙等進調. 大使達沙副使伊利之總八十一人.”의 伊利之를 달리 표기한 것이다. 伊利之나 伊利斯, 湓土, 伊利須는 모두 동일인임을 알 수 있다.

12) 644년 당 태종은 고구려를 공격할 계획을 세우고 645년 군대를 파견하였다. 647년에도 군대를 파견하였으나 성공하지 못 하고 649년에 회군하였다. 고구려가 백제, 말갈과 함께 신라를 침범하여 신라 북쪽 경계의 33성을 빼앗자, 신라 무열왕은 사신을 당에 보내 구원을 청하였고, 당은 655년 2월 영주도독 정명진과 좌위중랑장 소정방을 파견하여 고구려를 치도록 하였다. 5월 정명진 등이 요수를 건너와 고구려의 성을 공격하고 돌아갔다.

13) 鄭孝雲, 1995, 『古代韓日政治交涉史研究』, 學研文化社, 149쪽.

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伊利之는 왜국에서 왜국 정부와 교섭하는 일을 담당하다가 고구려가 멸망하면서 그냥 왜국에 정착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681년에 大狛連姓을 받은 百枝과 足坏와 683년 9월에 大狛連姓을 받은 사람 모두 伊利之의 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천무조정에서 이들에게 連姓을 사성한 이유는 무엇일까? 696년 5월 大狛連百枝가 사망하였을 때 지통천황은 直廣肆(令制의 종5위하)를 추증하고 부의물을 보내주었는데,¹⁴⁾ 그가 임신의 난 때 공을 세웠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¹⁵⁾ 이들 伊利之의 후손들은 무장으로서 임신의 난 때 天武 측에서 공을 세워 고구려 유민 중에서 가장 먼저 천무8성을 사성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후 활약하는 大狛連씨가 보이지 않고 『新撰姓氏錄』 河內國 諸蕃에 大狛連씨가 보이는 점에서 河內國에서 토착세력이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고구려계 씨족 중에서 두 번째로 天武8성을 사성받은 것은 黃文造씨였다. 黃文造(黃書造)씨는 683년 8월에 連姓을 받아 黃文連(黃書連)씨가 되었다. 『新撰姓氏錄』 山城國 諸蕃條에 의하면 黃文連씨는 ‘高麗國人久斯祁王’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久斯祁王은 고구려왕명으로는 존재하지 않으며, ‘高麗國人’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점에서 ‘王’은 존칭으로 부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推古대인 604년 여러 사원들의 불상을 그리기 위해 고구려계 화공조직으로 黃書畫師와 山背畫師를 두었는데¹⁶⁾ 黃書畫師를 통솔하던 씨족이 黃文造였다. 黃文造는 늦어도 7세기 초까지는 왜국에 이주하여 왜국조정에서 화공을 지휘하던 씨족이었다.

黃文造씨는 7세기 후반에는 여러 분야에서 활약하는데, 黃書造本實은 669년에 당에 사신으로 파견되었다가 돌아와 671년 토목, 건축에 사용되는 수평기를 천지천황에게 바쳤다.¹⁷⁾ 黃書造本實은 畫師라기보다는 당의 최신 과학

14) 『日本書紀』, 持統10年 5月 甲寅條.

15) 日本古典文學大系, 1965, 『日本書紀』 下, 岩波書店, 554쪽.

16) 『日本書紀』, 推古12年 秋9月條; 白橋明穂, 2006, 『繪畫と畫師』, 『列島の古代史』 5, 岩波書店, 33쪽.

기술과 의식, 제도 등을 도입한 기술관료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黃書造大伴은 672년 임신의 난 때 활약하여 공신으로 천무천황으로부터 食封 100호를 받았다.¹⁸⁾ 이상 天武대에 8色姓을 받은 고구려계 두 씨족은 모두 임신의 난의 공신 집안이었다.

Ⅲ. 7세기말 8세기초의 고구려계 씨족과 高麗王 若光

천무천황이 사망한 후 天武의 황후 지통천황이 칭제를 거쳐 즉위하였다. 지통천황대에는 천무천황대에 連姓을 받은 黃文連씨가 계속 활약하였다. 687년에 直大肆(令制의 중5위상) 黃書連大伴이 300명의 고승을 飛鳥寺에 초청하여 袈裟를 시주하는 의식을 위해 사신으로 임명되었다.¹⁹⁾ 黃文連本實은 694년 3월에는 大宅朝臣麻呂, 壹忌寸八島와 함께 鑄錢司로 임명되어²⁰⁾ 화폐 주조 일을 담당하였다. 한편 693년 6월에 지통천황은 고구려 승려 福嘉를 환속시켰다.²¹⁾ 福嘉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아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으나 학문에 뛰어난 승려를 환속시켜 관인으로 등용하기 위한 것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697년 지통천황이 손자에게 양위하여 문무천황이 즉위한 후 701년에 대보울령이 반포되었다. 국호도 일본으로 고치고 당을 모방한 울령국가를 만들

17) 『日本書紀』, 天智10年 3月 戊戌朔 庚子條:1990, 『日本古代氏族人名辭典』, 吉川弘文館, 245쪽.

18) 『日本書紀』, 天武元年 6月 甲申條. 『續日本紀』, 天平寶字元年 12月 壬子條에 의하면 757년 12월에 壬申年の 功臣 黃文連大伴의 功田 8町을 2世(손자)까지 상속하도록 하고 있다. 養老令 田令 功田條 “凡功田. 大功世世不絕. 上功傳三世. 中功傳二世. 下功傳子”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黃文連大伴의 공은 中功에 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 『日本書紀』, 持統元年 8月 己未條.

20) 『日本書紀』, 持統8年 3月 乙酉條.

21) 『日本書紀』, 持統7年 6月 己未朔條.

어갔다. 울령국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백제나 고구려계 도래인들이 많은 역할을 하였는데, 고구려계 중에서는 700년 6월에 追大壺(令制의 정8위상) 黃文連備가 大寶律令 찬정에 공을 세워 刑部親王, 藤原不比等 등과 함께 녹을 받았다.²²⁾ 임신의 난의 공신 黃書連大伴은 701년 7월 食封으로 100호를 받았고, 703년 7월에는 정5위하로서 山背守로 취임하였다.²³⁾ 702년 12월 持統태상천황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중5위하 黃文連本實이 作殯宮司로 활약하였다.²⁴⁾ 그는 건당사로 당에 가서 佛足跡圖를 모사해 오기도 하였다. 高松塚古墳壁畫의 제작자 중의 한 사람으로 추측되고 있다.²⁵⁾

문무조정은 승려들도 701년 8월 승려 慧耀, 信成, 東樓를 환속하도록 하여 본래의 이름을 쓰도록 하였는데, 이들의 본래 이름은 慧耀는 錄兄麻呂, 信成은 高金藏, 東樓는 王中文이었다. 일본에서는 7세기 말부터 8세기 초의 지식인인 승려를 환속하여 관인으로 등용하여 울령국가의 학예부분을 담당하도록 하였는데,²⁶⁾ 위의 경우도 같은 성격의 조치라고 할 수 있다. 錄兄麻呂는 백제계이고, 高金藏과 王中文(王仲文)은 고구려계였다.

한편 703년 문무조정은 중5위하 高麗若光에게 ‘王姓’을 주어, 고구려계 도래인 중에도 왕성을 가진 사람이 등장하게 되었다.²⁷⁾ 高麗若光에 대해서는 『日本書紀』, 天智5年(666) 冬10月 甲午朔己未條에 “高麗遣臣乙相奄鄒等進調. 大使臣乙相奄鄒, 副使達相通, 二位玄武若光等.”라는 기사가 보여, 고구려의 대사 乙相 奄鄒, 부사 達相 遁과 함께 왜국에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사신은 왜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던 고구려에서 파견한 사신이었다. 고구려에서는 연개소문의 사망 이후 연개소문의 아들들의 권력 싸움이 일어나 男生을 동생 男建

22) 『續日本紀』, 文武4年 6月 甲午條.

23) 『續日本紀』, 大寶元年 秋7月 壬辰條; 같은 책, 3年 秋7月 甲午條.

24) 『續日本紀』, 大寶2年 12月 乙卯條.

25) 8세기의 黃文連씨 중에는 畫工司 관계자가 많았다. 757년의 山背國久世郡久世郷의 호주 정7위하 黃文連黑人, 山背國 久世郡의 畫工司 畫部 黃文川主, 758년의 畫工司 令史 정7위상 黃文連乙麻呂, 大和國 山邊郡의 畫工司 畫部 黃文三田 등이 있다(佐伯有清, 1983, 앞의 책, 328~329쪽).

26) 關晃, 1956, 「遣新羅使の文化史的意義」, 『山梨大學學藝學部研究報告』 6, 55쪽.

27) 『續日本紀』, 大寶3年 夏4月 乙未條.

과 男山이 몰아내고 권력을 장악하였다. 乙相 奄鄒 등은 男建 세력이 왜국에 파견한 사신이었다. 이들은 왜국에서 667년 2월에 齊明王과 그의 딸 間人を 합장하고 天智王의 딸 大田을 장사지내는 의식에 참가하였다.²⁸⁾ 이들 중에서 玄武若光이 일본에 남아, 685년 天武천황에게 작위를 받고 703년에는 문무천황으로부터 ‘高麗王’이라는 氏姓을 받게 된 것이다.

위에 보이는 『일본서기』의 기사에서는 2位 玄武若光이라고 하였는데, 2위는 원래 2品이었던 것을 『일본서기』 편찬자가 2位로 고친 것으로 생각된다. 玄武는 北, 黑을 나타내므로 고구려의 5부중에서 北部(절노부·후부·흑부)를 가리키는 말이다. 절노부는 왕비를 배출하는 部이었으므로, 若光은 왕족은 아니었다.²⁹⁾

그런데 문무천황 조정이 703년에 高麗若光에게 王姓을 수여한 이유는 무엇일까? 종래 연구에서는 일본 지배층이 대보울령을 제정한 후 일본울령국가의 내부에 百濟王姓과 高句麗王姓을 출현시킴으로써 일본이 이들 왕권을 포함시킨 것을 나타내고자 하였다고 보았다.³⁰⁾ 물론 ‘高麗王’의 등장은 ‘百濟王’의 존재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이들 칭호가 등장한 것을 일본왕권이 백제, 고구려 왕권을 포함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는 추상적인 설명보다는 보다 구체적인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7세기 후반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을 전후하여 많은 사람들이 왜국으로 건너갔다. 의자왕의 아들 善光은 難波지역의 百濟評(令制의 攝津國 百濟郡)에 거주하면서 많은 백제계 도래인을 지휘하여 왜국조정을 위해 일하였다. 691년 1월 지통천황은 善光을 백제계 도래인의 대표로 인정하여 ‘百濟王’을 氏姓으로 쓰도록 허가하였던 것이다.

고구려 멸망을 전후하여 이주한 고구려 유민들도 많이 있었는데, 문무조

28) 『日本書紀』, 天智6年 春2月 壬戌朔戊午條, “是日, 以皇孫大田皇女, 葬於陵前之墓. 高麗百濟新羅, 皆奉哀於御路.”

29) 近江昌司는 적어도 大寶3년에는 고구려왕의 후예로 간주되었을 것으로 보았으나(1985, 앞의 논문, 147쪽), 玄武若光의 이름을 통해 그가 고구려의 五部 중의 北部 출신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若光을 고구려왕의 후예로 보았을 리는 없었을 것이다.

30) 田中史生, 1997a, 앞의 논문, 55~56쪽.

정은 이들을 지휘하고 통제할 사람이 필요하였다. 사실 8세기 초에 일본조정에서 가장 활약한 고구려계 씨족으로는 黃書連씨가 있지만 그들은 고구려 왕족이나 귀족은 아니었다. 玄武若光도 왕족은 아니었지만, 과거 고구려 귀족 출신 중에 생존한 사람으로는 가장 고위 출신이었고 고구려계 도래인들에게 인망이 있었기 때문에 ‘高麗王’의 칭호를 받게 되었을 것이다. 고구려 멸망 이후 신라가 淵淨土의 아들이며 보장왕의 외손인 安勝을 고구려왕으로 책봉하고 금마저국에 살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문무조정은 若光에게 ‘高麗王’의 칭호를 주고 각지에 흩어져 있던 고구려 유민들을 모아 高麗郡을 세우고자 하였다. 若光은 이를 위해 노력하여 드디어 716년에 武藏國에 高麗郡을 세우게 되었다.

707년 6월 문무천황이 사망하고 그해 7월 문무천황의 어머니인 원명천황이 즉위하였는데, 원명천황대에 활약하는 고구려계 씨족으로는 黃文連씨가 있다. 持統태상천황의 喪에서 作殯宮司를 맡았던 중5위하 黃文連本實이 707년 6월 문무천황의 殯宮을 모시는 일을 맡았고, 그해 10월에는 御裝司를 맡았다.³¹⁾ 元明천황은 710년 3월 黃文連益을 중6위상에서 중5위하로 승진시켰다.³²⁾ 귀족의 대열에 들어가게 하였다. 710년 10월에 임신의 난의 공신 黃書連大伴이 사망하자 원명천황은 정4위하를 추증하였다.³³⁾

원명천황은 711년 4월에는 黃文連備를 중5위하로 승진시켰다.³⁴⁾ 『懷風藻』에는 黃文連備의 五言詩가 한 수 있는데, 그 시에 대한 소개로 ‘主稅頭從五位下黃文連備一首. 年五十六.’이라고 적혀 있다. 이를 통해 黃文連備가 56세로 사망할 때까지 마지막으로 역임한 관직은 主稅頭이었고, 최종 관위는 從5위하이었음을 알 수 있다.³⁵⁾ 711년에 중5위하로 승진한 후 더 이상 黃文連備

31) 『續日本紀』, 慶雲4年 6月 壬午條. 및 冬10月 丁卯條.

32) 『續日本紀』, 和銅3年 春正月 甲子條.

33) 『續日本紀』, 和銅3年 冬10月 辛卯條.

34) 『續日本紀』, 和銅4年 夏4月 壬午條.

35) 『懷風藻』는 751년 11월에 완성된 漢詩集으로, 64명이 쓴 120수의 한시를 수록한 책인데, 여기에서는 시의 작자의 최종 관직과 관위, 享年 등을 적고 있어 작자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다.

에 관한 기사가 보이지 않는 점에서 그는 몇 년 지나지 않아 사망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율령 찬정에 참여하였고 한시에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고 있었던 점에서 볼 때 黃文連備는 『일본서기』의 편찬 과정에도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크다.³⁶⁾

711년 종5위하 狛朝臣秋麻呂가 자신의 본래 성은 阿倍인데, 用明천황 때에 자신의 조부가 고려(고구려)에 사신으로 갔기 때문에 狛이라고 칭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본래 씨성으로 고쳐주기를 신청하여 허가받았다.³⁷⁾ 用明조정이 고구려와 외교 관계를 가졌다는 내용이 다른 사료에서는 보이지 않아 이 주장의 사실성은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주장을 통해 大和정권의 유력한 씨족이었던 阿倍씨라도 고구려에 사신으로 갔다 온 것을 기념하여 狛씨를 칭하였을 수도 있다는 인식이 일본 지배층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7세기말 8色の姓이 제정되면서 大和정권에서 유력하였던 씨족과 외부에서 들어온 씨족 사이에 차별이 생기게 되자, 다시 본래 姓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일어났음도 짐작할 수 있다.

712년 1월 後部王同이 종6위하에서 종5위하로 승진하였다.³⁸⁾ 後部王은 『新撰姓氏錄』 우경 제번에 “高麗國 長王周의 후손”이라고 하였다. 長王周라는 고구려왕은 없으므로, 후부왕씨가 자신들을 고구려의 왕족이라고 주장하면서 만들어낸 계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처음부터 고구려 5부 중의 하나인 後部(절노부, 북부)의 王이라는 의미로 후부왕씨를 칭하였을 것이다. 8세기의 후부왕씨로 後部王起, 後部王吉, 後部王安成이 보이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뒤에서 언급하기로 하겠다.

715년 7월에는 授刀舍人 狛造千金이 大狛連을 씨성으로 받았다.³⁹⁾ 授刀舍人は 707년 7월 원명천황이 즉위 직후 황위계승 예정자인 首皇子의 지위를

36) 金恩淑, 2002, 「『古事記』·『日本書紀』의 편찬 과정」, 『강좌한국고대사』 제5권,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381쪽.

37) 『續日本紀』, 和銅4年 12月 壬子條.

38) 『續日本紀』, 和銅5年 春正月 戊子條.

39) 『續日本紀』, 靈龜元年 秋7月 壬辰條.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둔 授刀舍人寮의 舍人으로서 궁중의 호위를 담당하였다. 狛造千金은 授刀舍人으로서 궁중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715년 7월 초 원명천황이 甕原離宮에 行幸하였을 때 供奉한 공로로 大狛連姓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⁴⁰⁾ 원명천황이 특별히 총애하여 하급 호위무사가 새로 連姓을 받게 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원래의 氏姓이 狛造였던 점에서 狛造千金은 고구려계 씨족 출신으로 여겨지는데, 이때 大狛連을 씨성으로 받음으로써 681년과 683년에 連姓을 받은 大狛連씨의 일족이 되었던 것이다.

Ⅳ. 高麗郡과 고려왕씨

715년 9월에 원명천황의 양위를 받아 원명천황의 딸 元正천황이 즉위하였는데, 원정천황은 716년 5월에 駿河, 甲斐, 相摸, 上總, 下總, 常陸, 下野의 7국에 살던 고구려인 1799명을 모아서 武藏國에 高麗郡을 설치하도록 하였다.⁴¹⁾ 이들 7국에 고구려계 사람들이 언제부터 얼마나 살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日本書紀』에 의하면 687년에 투화한 고구려인 56인을 常陸國에 살게 한 적이 있다.⁴²⁾ 駿河 등 7국에 살던 고구려인은 7세기 후반 고구려의 멸망을 전후하여 왜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高麗郡은 현재 埼玉縣 日高市에 있는 高麗神社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 있었다.⁴³⁾ 현재 高麗神社는 高麗王若光을 모시고 있는데, 이 신사에 있는 ‘高麗氏古系圖’에 의하면 高麗王若光은 현재까지 이어지는 武藏國 高麗氏의 始祖다. 高麗王若光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703년의 王姓 사여기사 이외에 다

40) 新日本古典文學大系, 1989, 『續日本紀』 1, 岩波書店, 231쪽.

41) 『續日本紀』, 靈龜2年 5月辛卯條, “以駿河. 甲斐, 相摸. 上總. 下總. 常陸. 下野七國 高麗人千七百九十九人. 遷于武藏國. 始置高麗郡焉.”

42) 『日本書紀』, 持統元年 3月 乙丑朔 乙卯條.

43) 高麗郡은 1896년 入間郡에 합병되기 전까지 존재하였다.

른 사료가 보이지 않지만, ‘고려왕’을 씨성으로 받은 후 고구려 유민들을 모아 고려군을 세우는 데 힘썼음을 알 수 있다.

武藏國은 당시 平城京에서 보면 동쪽 변경 지방으로, 高麗郡이 설치된 지역은 척박한 산지였다. 若光의 58대손 高麗澄雄는 若光이 이러한 산지를 고구려 유민들의 새로운 근거지로 선택한 것은 과거 夫餘 땅을 연상하게 하는 풍경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측하였다.⁴⁴⁾ 그러나 일본조정이 武藏國에 고려군을 설치한 것은 나름대로 다른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대보령이나 양로령에서는 외국에서 이주한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지역에 살도록 하여 논밭을 일구게 하고, 특히 외국 사신이 거쳐 가는 길에는 외국에서 이주한 사람들을 살지 않도록 하였다.⁴⁵⁾ 물론 武藏國 高麗郡은 이러한 조건에 다 해당된다.⁴⁶⁾ 그러나 이러한 조건 이상으로 武藏國 高麗郡에 고구려 유민들을 살게 한 이유가 있었다. 武藏國은 相模, 上總, 下總, 常陸, 上野, 下野 등 다른 東國과 마찬가지로 동북지방의 蝦夷 정복에 필요한 병사와 군수물자를 준비하는 후방기지였다.⁴⁷⁾ 8세기 초 일본 올령국에게 蝦夷문제는 중요한 현안 문제였다. 陸奥國의 蝦夷가 반란을 일으켜 720년에 多治比縣守가 持節征夷將軍으로 출정하였고, 724년에도 藤原宇合이 持節將軍으로 파견되었는데, 藤原宇合의 원정에 참가한 사람 중에 정7위하 後部王起가 725년 1월 勳6等の 勳位와 田 2町을 받고 있다.⁴⁸⁾ 後部王起는 高麗郡 출신으로 이 원정에 참가하여 공을 세웠을 것으로 여겨진다.

武藏國에는 7세기 후반에 이미 백제 유민들이 집단으로 이주하여 새로운

44) 高麗澄雄, 1995, 『高麗神社と高麗郷』, 高麗神社社務所, 5쪽.

45) 養老令戸令 沒落外蕃條, 雜令 蕃使往還條.

46) 今井啓一은 일본에 파견되는 사신과 같은 나라 출신 사람들이 모의할 위험성 때문에 외국에서 이주한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東國에 배치하였을 것으로 보았다(今井啓一, 1970, 『歸化人の來住』, 『古代の日本』 7, 角川書店, 250쪽).

47) 『續日本紀』에 의하면 715년 5월에 相模, 上總, 常陸, 上野, 武藏, 下野 6국의 富民 1000호를 陸奥國으로 옮겼고, 737년 4월에는 常陸, 上總, 下總, 武藏, 上野, 下野 등 6국의 기병 1000명을 陸奥國에 파견하였고, 759년에는 相模, 上總, 下總, 常陸, 上野, 武藏, 下野 등 7국의 군사의 무기를 陸奥國의 雄勝城과 桃生城에 두도록 하였다.

48) 『續日本紀』, 神龜2年 閏正月 丁未條.

땅을 개척하고 있었다.⁴⁹⁾ 일본조정은 용맹하고 기마문화에 익숙한 고구려 유민들을 武藏國에 대거 이주시켜 蝦夷 정복에 필요한 병력을 확보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고구려계 사람들은 우선 산림을 개척하고 화전농업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양잠과 견직을 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⁵⁰⁾ 고려군은 『和名類聚抄』에 ‘高麗郡古萬’이라고 나와 있다.

若光의 노력으로 원정천황대에 고구려 유민들은 武藏國에 모여 살게 되었다. ‘高麗氏古系圖’에 의하면 고려왕 若光은 武藏國 高麗씨의始祖라고 한다. 현재 日高町新堀에 있는 高麗神社는 高麗王若光을 모시고 있다.⁵¹⁾ 高麗郡을 만들 때 高麗王若光도 이곳으로 이주하여 郡領이 되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 점에서 ‘高麗王’이라는 칭호는 이미 고구려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武藏國 高麗郡을 처음 설치하면서 이를 이끌어갈 사람에게 ‘고려왕’이라는 존칭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다.

元正천황은 717년에는 고구려와 백제의 士卒로서 본국의 난을 피해 일본으로 귀화한 사람에게 죽을 때까지 ‘給復’, 즉 課役(庸, 調, 雜徭)을 면제한다는 조치를 내렸다.⁵²⁾ 물론 701년에 만들어진 大寶令에는 ‘歸化人’에 대해 10년간 조세를 면제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었지만,⁵³⁾ 大寶令의 규정을 넘어서 終身 세금을 면제하는 특별조치가 나온 것이다. 이 조치를 백제, 고구려의 諸民族이 歸化를 통해 일본의 華夏百姓으로 편입되었음을 나타내기 위한 일본

49) 森田悌는 『日本書紀』의 天智代에 백제인 2000명을 東國에 배치하였다는 기사의 ‘東國’을 關東 지방으로 보았다. 그는 백제인 2000명을 上野國 甘樂이나 武藏國 幡羅지역 등에 집단으로 살도록 하여 미개척지를 개척하여 농사를 지도록 한편 도로 건설과 같은 토목공사에도 종사하도록 하여 東山道の 上野方面과 東海道の 相模와 연결하는 도로를 만들었을 것으로 보았다(森田悌, 1992, 『天智朝における百濟人の入植』, 『古代東國と大和政權』, 新人物往來社, 123~129쪽).

50) 段熙麟, 1978, 『日本に残る古代朝鮮』 關東編, 創元社, 87~88쪽.

51) 新日本古典文學大系, 1989, 앞의 책, 460쪽.

52) 『續日本紀』, 養老年元 11월 甲辰條에는 “高麗, 百濟二國士卒, 遭本國亂投聖化. 朝廷憐其絕域, 給復終身”이라고 적고 있으며, 이 때의 太政官符가 『令集解』 賦役令 沒落外蕃條에 인용되고 있다. 靈龜3年(717) 11월 8일 太政官符 “外蕃免課役事. 高麗, 百濟敗時投化, 至于終身, 課役俱免. 自餘依令施行.”

53) 養老令 賦役令 沒落外蕃條.

율령국가의 중화의식의 표현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⁵⁴⁾ 그러나 고구려, 백제 출신의 사람들이 일본의 華夏百姓으로 편입되었음을 나타내고자 한다면 이들 에게도 65세까지 과역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고구려와 백제에서 이주한 사람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조치를 내린 이유는 달리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고구려와 백제의 본국의 난을 피해 일본으로 귀화한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일까? 『일본서기』에 의하면 백제가 멸망한 이후 백제 부흥운동이 백강구 전투에서의 패배로 실패한 이후 663년 9월에 백제의 佐平 餘自信, 達率 木素貴子, 憶禮福留, 谷那晋首와 ‘國民’들이 왜국의 수군과 함께 왜국으로 갔다고 한다.⁵⁵⁾ 고구려가 멸망한 후에는 684년 5월에 ‘化來’한 백제의 승니 및 俗人 남녀 23명을 武藏國에 안치하였으며, 685년에는 ‘化來’한 고구려인들에게 녹을 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686년 윤12월에는 筑紫大率가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백성 남녀와 승니 등 모두 62인을 바쳤다고 한다.⁵⁶⁾

663년에 이주하였다면 이미 50년 이상 세월이 흘렀다. 이 때 士卒이었다면 이미 노년이 되었거나 죽었을 것이다. 大寶令에 의하면 일반 公民의 경우에도 66세 이상이 되면 課役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66세 이상인 경우는 이 조치로 실제적인 혜택을 입게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680년대에 일본으로 이주하였다면 30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으므로 아직 66세가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위의 조치는 680년대에 왜국으로 이주한 백제와 고구려 사람들이나 그들과 함께 온 후손 중에서 과역부담자인 65세 이하

54) 田中史生은 이 조치는 일본 율령국가의 중화의식이 강화된 시기에 신라뿐만 아니라 이미 멸망한 고구려, 백제도 일본의 중화세계의 구성 요소로 필요하였기 때문에 백제, 고구려의 諸民族이 歸化를 통해 일본의 華夏百姓으로 편입되었음을 명시하고자 한 것으로 보았다(田中史生, 1997b, 「律令制下における「歸化人」と「復」, 『日本古代國家の民族支配と渡來人』, 校倉書房, 164~166쪽).

55) 『日本書紀』, 天智2年 9月 甲戌條.

56) 『日本書紀』, 天武13年 5月 辛亥朔 甲子條 및 14年 9月 庚午條; 같은 책, 持統元年 閏 12月條.

의 사람에게 課役을 면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717년의 면세 조치는 716년 武藏國에 高麗郡을 설치하여 농경지를 개발하도록 하면서 이들을 격려하는 한편 백제 유민에게도 종신 과역을 면제하는 우대조치를 내린 것이었다.

처음 고려군을 세우면서 大領으로 高麗王若光을 임명하였다. 大領은 관위 상당관이 아니며 종신직이었다.⁵⁷⁾ 약광은 716년 大領이 된 후 죽을 때까지 大領으로 있었다. 高麗씨의 전승에 의하면 若光이 사망한 후에 蔭位가 2世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약광의 관위가 얼마까지 올라갔는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종5위하 이상이었을 것이다. 종5위였다면 그의 장자는 종8위상, 나머지 아들들은 종8위하를 받을 수 있었다. 若光의 장자 重世(748년 사망)는 21살에 종8위상을 음위로 받았을 것이고 아버지 약광이 사망한 후에는 대령의 직책을 물려 받았을 것이다. 음위가 약광의 2세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重世도 종5위하 이상까지 승진하였을 것이다. 重世의 아들 弘仁(760년 사망)도 蔭位로 21살에 종8위상의 관위를 받고 大領직을 세습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이후 그후 庶流, 즉 방계로 이어졌다고 하는 점에서 弘仁의 직계는 끊어졌을 가능성이 크다.⁵⁸⁾

이상 高麗王若光과 高麗郡에 대해 살펴 보았다. ‘백제왕’이 중앙에서 고위 관료를 배출하는 귀족의 씨성이었던 것에 반해⁵⁹⁾ ‘고려왕’은 郡司의 氏姓이었다.

57) 金恩淑, 2003, 「일본울령국가의 관인급여」, 『강좌한국고대사』 제3권, 가락국사적 개발연구원, 282쪽.

58) 高麗澄雄, 1995, 앞의 책, 11쪽. 10세기말 14대 一豊 때에 高麗神社는 高麗明神이라는 宮號을 허가받아 高麗씨도 神職(神官)으로서 大宮司씨를 칭하게 되었다. 그후 23대 高純 때에는 修驗이 되어 大宮寺씨로 바꾼 후 56대 大記까지 修驗으로 살았다. 55대부터 다시 高麗씨로 바꾼 후 현재 60대 當主 高麗文康이 高麗神社의 禰宜(神官)를 맡고 있다.

59) 백제왕의 경우 703년에 백제왕 良處가 종5위상으로 伊豫守에 임명된 이후 백제왕 씨가 8세기에 계속 관인으로 활약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V. 肖奈公行文과 발해사의 파견

716년에 元正천황은 672년 임신의 난 때 활약한 공신의 아들 9명에게 田을 지급하였는데, 이때 黃文連大伴의 아들 중7위상 梗麻呂도 田을 지급받았다.⁶⁰⁾ 元正천황대에 고구려계 관인으로는 王中文, 高金藏이 계속 활약하였고, 肖奈公行文이 새로 등장하였다. 王中文은 천문박사로서 718년에 중5위하로 승진하였고, 721년에는 ‘陰陽’에 뛰어난 사람으로 상을 받았다. 高金藏은 718년경에 陰陽師로 활약하다가 723년 중5위하로 승진하였다. 이들은 모두 ‘陰陽’에 뛰어난 사람으로서 지방관으로도 활약하였다. 그리고 각각 일본의 고구려계 王씨와 高씨의 조상이 되어, 『新撰姓氏錄』에는 王中文의 후손 王씨와 高金藏의 후손 高씨가 보인다.⁶¹⁾

716년에 高麗郡을 설치한 후 高麗郡 사람 중에서 학문이 뛰어난 사람들은 중앙에서 발탁하여 관인으로 등용하였다. 8세기 전반에 가장 큰 활약을 한 사람은 肖奈福德의 아들 肖奈公行文이었다. 肖奈는 消奈로도 표기되는데,⁶²⁾ 고구려의 五那部중의 하나인 消那部(消奴部)에서 유래하였다. 고구려 건국 초기에는 消奴部에서 왕이 나왔지만, 3세기 이후에는 桂婁部가 왕을 세습하였다.⁶³⁾ 消奴部는 西部, 右部라고도 한다.⁶⁴⁾

(60) 『續日本紀』, 靈龜2年 夏4月 癸丑條.

(61) 『新撰姓氏錄』, 左京 諸蕃 高麗에 ‘王’은 “出自高麗國人從5位下王仲文法名東樓也”, ‘高’는 “高麗國人從5位下高金藏法名信成, 之後也.”라고 적혀 있다.

(62) 『萬葉集』卷16, 3836番歌의 左注에 ‘右歌一首, 博士消奈行文大夫作之.’라고 적고 있어 ‘消奈’로 표기하고 있다. 近江昌司는 肖奈公을 背奈公으로 읽어 福德이 駿河國 背奈郷에 거주하면서 背奈公이라는 칭호를 가지게 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만약에 背奈公이 駿河國 背奈郷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이들에게 ‘王’을 주었을 리가 없다. 일본에서 황족 이외에 ‘王’을 성으로 받은 것은 도래계 씨족 중에서 왕족의 후예라는 것을 인정한 경우에 한정되었다. 초나공으로 읽어야 한다.

(63) 『三國志』卷30, 魏書, 烏丸鮮卑東夷傳 第30, 高句麗條; 『後漢書』卷85, 東夷列傳 第75, 高句麗條.

(64) 고구려에서 중앙집권화가 진전되면서 5나부는 계루부를 중심으로 결집하여 왕도의 행정구역인 5부로 전환되었다. 消奴部도 압록강 유역의 沸流國에서 출발하였지만

高麗朝臣福信의 薨傳에 의하면 肖奈公福德은 唐將 李勣이 평양성을 함락시켰을 때 왜국으로 건너와 武藏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⁶⁵⁾ 평양성이 함락된 668년에 고구려에서 어떤 사람들이 왜국으로 갔는지 확실하지 않다. 西部 출신의 고구려계 사람이 일본에 건너온 것은 『日本書紀』 天武9년(680) 5월 정해조의 “高麗가 南部大使 卯間과 西部大兄 俊德 등을 파견하여 朝貢하였다”라는 기사가 유일하다. 이들은 고구려가 멸망한 후 안승의 고구려국에서 파견한 사신이다. 西部大兄 俊德은 福德과 동족이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福德은 이 사신들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왔을 수도 있다.

다른 고구려계 씨족들이 西部(下部), 後部, 南部(前部), 上部 등과 같이 5部名을 씨족명으로 사용한 데 반해 福德과 같이 五那部名을 氏名으로 삼은 사람도 있었다. 799년에는 桂婁部 출신의 고구려계 씨족이 역시 5부명이 아니라 5나부명인 桂婁를 씨족명으로 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⁶⁶⁾ 이들은 자신들이 5부 출신의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이런 5나부명을 사용하였을 것이다.

肖奈福德이 망명한 직후부터 武藏에 살았는지, 또는 武藏國에 高麗郡이 설치된 716년에 이주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福德의 손자 福信이 779년에 새로 원하였던 氏姓이 高倉朝臣이었다는 점을 통해 추측은 가능하다. 福信이 원하였던 氏名 高倉은 相模國 高倉郡에서 유래한 것이다.⁶⁷⁾ 716년에 相模國을 비롯한 7개국에서 1799명의 고구려 출신 사람들을 武藏國 高麗郡으로 옮겼을 때 肖奈福德도 相模國 高倉郡에서 武藏國 高麗郡으로 이주하

왕도의 행정구역으로 편입된 후에는 西部, 右部, 下部 등으로 불렸다(盧泰敦, 1999, 『고구려사연구』, 사계절, 122쪽; 李仁哲, 2003, 『三國時代 地方統治體制의 定着 과정』, 『강좌 한국고대사』 제2권,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254쪽).

65) 『續日本紀』, 延曆8年 冬10月 乙酉條.

66) 『日本後紀』, 延曆18年 12月 甲戌條에서는 信濃國의 외종6위하 卦婁眞老 등이 새로운 씨성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여 허가받고 있다. 卦婁는 고구려 5부 중의 하나로 고구려의 왕을 배출한 桂婁部를 가리킨다.

67) 相模國高倉郡에 대해서는 『日本書紀』, 天武4年 冬10月 庚寅條에 相模國 高倉郡의 여자가 세 남자아이를 낳았다는 기사가 보인다. 『和名類聚抄』에서는 相模國 高座郡으로 한자 표기가 바뀌었다.

였을 것이다.

福德은 고구려 지배층이며 지식인이었다. 福德의 아들 肖奈公行文이 武藏國 高麗郡에서 平城京으로 가서 明經 제2博士로서 이름을 높인 것은 福德의 교육에 힘입은 바 컸다고 할 수 있다. 福德이 다른 고구려 유민 출신의 씨족과 달리 소노부라는 5나부명을 쓴 것도 『三國志』나 『後漢書』 등에 보이는 涓奴部(涓奴部)가 고구려 초기의 왕이었다는 이야기를 의식한 것이었다.

行文이 언제부터 중앙의 조정에서 활약하였는지 알 수 없지만, 721년 1월 元正천황이 유교, 법률, 문장, 산술, 음양학, 의술, 工事, 음악, 무예 등에 뛰어난 官人 39명에게 특별히 상을 주고 있는데, 肖奈公行文은 明經 제2박사 정7위상으로서 紵 15疋, 絹絲 15絢, 麻布 30段, 20口를 받았다.⁶⁸⁾ 明經 제2박사는 大學寮의 博士의 助教를 가리키는 말로 博士를 도와 400명의 學生을 가르쳤다.⁶⁹⁾ 助教는 정7위하의 사람이 임명되는 직책이었다.

福德이 일본조정으로부터 5위 이상의 관위를 받은 것 같지는 않으므로 行文도 蔭位로 관위를 받았다고 할 수 없다. 그는 대학 코스를 거쳐 관인이 되었을 것이다.

行文은 유교 경전에 통달했을 뿐만 아니라 漢詩를 잘 지었던 것으로도 유명하다. 漢詩集 『懷風藻』에는 그의 시가 두 수 들어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行文에 대해 “從五位下大學助背奈王行文二首. 年六十二.”라고 적고 있어, 行文이 62세로 사망할 때까지 관위는 종5위하까지 올라갔고, 관직은 大學寮의 차관인 大學助까지 역임하였음을 알 수 있다.⁷⁰⁾ 그리고 行文의 시 중 하나는 “秋日於長王宅宴新羅客一首”라고 적고 있어 어느 해인지 모르지만 가을날 長屋王의 저택에서 신라사신을 위해 연회를 베풀었을 때 行文이 쓴 시임을 알 수 있다.

68) 『續日本紀』, 養老5年 春正月 甲戌條.

69) 養老令職員令 大學寮條.

70) 肖奈行文이 종5위하가 된 것은 『속일본기』에 의하면 727년이다(『續日本紀』, 神龜4年 12月 丁亥條). 따라서 『懷風藻』에서 ‘종5위하 大學助 背奈王’이라고 적고 있는 것은 『懷風藻』를 편찬한 사람이 行文의 최종 관위와 관직 및 『懷風藻』 편찬시의 行文의 姓을 적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長屋王 저택에서 신라사신을 접대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은 長屋王 정권시 대였다. 720년 8월 藤原不比等이 사망하고 난 후 長屋王은 721년 1월 종2위 우대신이 되어 당시 태정관에서 가장 고위인물이 되었다. 長屋王은 724년 2월에 원정천황의 양위로 성무천황이 즉위한 후에는 정2위 좌대신으로 승진하여, 729년 2월 漆部造君足 등의 밀고로 자살할 때까지 태정관의 최고위자로 활약하였다. 長屋王이 권세를 휘둘렀던 721년부터 729년 사이에 長屋王宅에서 신라 사신을 접대했을 가능성이 크다.⁷¹⁾ 이 시기 신라에서 사신이 파견된 것은 721년, 723년, 725년 모두 세 차례이지만, 平城京으로 불러 접대한 것은 723년과 726년이다. 그리고 가을(7월~9월)에 신라사신을 접대한 것은 723년이다.⁷²⁾ 위의 시는 723년 8월 長屋王宅에서 新羅客을 접대할 때 쓴 시로 『懷風藻』에 수록된 것이다.

이 長屋王 저택의 연회에는 ‘大學頭 從5位下 山田史三方’도 참가하여 『懷風藻』에 五言詩를 남기고 있다. 山田史三方은 『日本書紀』의 주요 편찬자로 추정되는 사람이다.⁷³⁾ 肖奈公 行文은 유교 경전, 漢詩, 그리고 和歌에도 뛰어난 인재로 『일본서기』 편찬과정에도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크다.⁷⁴⁾

行文은 721년 정7위상에서 계속 승진을 거듭하여 727년에는 정6위상이 되었다. 그런데 행문은 발해에서 사신이 파견된 것을 계기로 종5위하로 승진하였다. 즉 당과 신라의 군사적 압박 속에서 727년 발해는 처음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였는데, 발해사 일행은 蝦夷 지역에 표착하여 대사 高仁義 등 16인은 피살되고, 高齊德 등 8명만이 살아남아 727년 12월 입경하였다. 그런데 이들 발해사신이 입경한 바로 그날 정6위상 肖奈公行文이 단독으로 종5위하

71) 이를 佐藤信은 ‘大臣外交’라고 칭하고 있다. ‘大臣외교’는 국왕의 궁정에서 행해지는 공식적인 외교와는 별도로 정계의 실력자가 사신을 접대하는 외교를 말한다. 佐藤信, 1997, 「古代の「大臣外交」についての一考察」, 『境界の日本史』, 山川出版社.

72) 金恩淑, 1991a, 「8세기의 신라와 일본」, 『國史館論叢』 29, 106쪽; 寺崎保廣, 1999, 『長屋王』, 吉川弘文館, 105쪽.

73) 森博達, 1999, 『日本書紀の謎を解く』, 中央公論社, 226~227쪽; 金恩淑, 2002, 앞의 논문, 379~380쪽.

74) 金恩淑, 2002, 앞의 논문, 394~395쪽.

로 승진하고 있다.⁷⁵⁾ 게다가 行文은 外從5위하를 거치지 않고 종5위하가 된 것인데, 이는 행문의 승진이 발해사의 파견과 관련이 있음을 말해준다.

성무조정은 발해가 처음 사신을 파견한 것을 “天智7년 10월에 唐將 李勣이 고구려를 멸하여 그 후 朝貢이 오래 동안 끊어졌는데 이번에 渤海郡王이 寧遠將軍 高仁義 등 24인을 파견하여 朝聘하였다”라고 하면서 환영하고, 발해사 高齊德 등 8명에게 정6위상을 수여하였다.⁷⁶⁾

당시 일본조정은 발해를 고구려의 후신으로 생각하고 외교 관계 수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고구려계 관인을 접대역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외국에서 온 사신은 궁에서 천황이 주최하는 연회에 참석하였는데,⁷⁷⁾ 이 연회에는 5위이상의 관인들만 참가할 수 있었다.⁷⁸⁾

그런데 당시 일본조정에는 5위 이상의 고구려계 관인은 없었던 듯 하다. 8세기 초에는 고구려계 씨족 중에서 黃文連씨가 5위 이상으로 승진하고 있지만, 727년경에는 5위 이상의 黃文連씨 중에서 생존한 사람이 없었다. 대보 율령 찬정에 공을 세운 黃文連備도 711년 4월에 종5위하로 승진한 후⁷⁹⁾ 더 이상 사서에 보이지 않는다. 『懷風藻』에 실린 黃文連備의 五言詩에는, 그 시에 대한 소개로 ‘主稅頭從五位下黃文連備一首, 年五十六.’이라고 적혀 있다. 黃文連備가 56세로 사망할 때까지 마지막으로 역임한 관직은 主稅頭이었고, 최종 관위는 從5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는 711년에 종5위하로 승진한 후 몇 년 지나지 않아 사망하였을 것이다.⁸⁰⁾ 그 밖에도 712년에 종5위하였던 後部王同이나, 721년 陰陽家로서 상을 받은 종5위하 王仲文, 723년에 종5위하였던 陰

75) 『續日本紀』, 神龜4年 12月 丁亥條.

76) 『續日本紀』, 神龜4年 12月 丙申條. 성무조정은 이 발해 사신에 대해 송사로 引田朝臣 麻呂를 파견하였다. 麻呂는 728년 6월 발해사와 함께 발해로 갔다가 730년 8월에 돌아왔다.

77) 田島公, 1985, 『日本の律令國家の“賓禮”』, 『史林』 68-3, 68쪽.

78) 山下信一郎, 1994, 『「延喜式」からみた節會と節祿』, 『延喜式研究』 9, 20쪽.

79) 『續日本紀』, 和銅4年 夏4月 壬午條.

80) 율령 찬정에 참여하였고 한시에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고 있었던 점에서 볼 때 黃文連備는 『일본서기』의 편찬 과정에도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크다(金恩淑, 2002, 앞의 논문, 381쪽).

陽師 高金藏 등이 있었으나, 더 이상 이들에 관한 기사는 보이지 않는 점에서 이들도 아마 727년경에는 이미 사망하였던 듯하다.

727년 당시 일본 조정에는 고구려계 씨족 중에서 종5위하 이상인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발해가 파견한 사신을 위한 연회에 고구려계 관인인 肖奈公行文을 참석할 수 있도록 특별히 종5위하로 승진시켜 왜국에서 고구려 출신 사람들을 우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다. 『續日本紀』에는 727년의 肖奈公行文의 승진 기사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그에 관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藤氏家傳』에는 727년경의 뛰어난 유학자 6명이 藤原武智麻呂의 별장에서 있었던 文人會에 참석하였다고 하는데 그 중에 行文이 있다. 위의 『懷風藻』의 기록으로 보아 行文의 최종 관위는 종5위하이므로 727년에서 멀지 않은 시기에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奈良시대에 5위 이상을 배출할 수 있는 귀족 집안은 150씨에서 200씨 정도로 추정되는데, 天武천황 때 畝寸 이상의 姓을 받은 126씨는 대부분 포함되었다.⁸¹⁾ 고구려계 씨족 중에서는 連姓인 黃文連씨가 임신의 난 때의 공적 덕분에 5위 이상을 배출하는 귀족 집안이 될 수 있었다. 이 점에서 본다면 肖奈公行文이 종5위하로 승진한 것은 특별한 일이었다. 행문의 개인적인 능력이 바탕이 된 것이었지만, 발해와 일본의 국교 개시라는 국제적 계기가 고구려 유민 출신 관인의 승진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81) 金恩淑, 2003, 앞의 논문, 309쪽.

Ⅵ. 聖武천황과 肖奈公福信

724년 2월 즉위한 성무천황은 즉위 조서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시책에 대해 언급하는 중에 도래계 관인에 대한 정책도 언급하였다. 그는 관청에 근무하는 도래계의 사람들에게 직책과 관련된 姓을 내려주도록 하였다.⁸²⁾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724년 5월에 모두 22씨의 중5위상에서 무위까지의 도래계 중·하급 관인들에게 새로운 씨성을 내려주었다. 이들은 모두 뛰어난 재능과 기술로 일본 조정에서 관인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었다.⁸³⁾

새로 성을 받은 도래계 관인들의 출신국으로는 당(1씨), 고구려(3씨), 임나(1씨), 백제(8씨), 신라(1씨) 등이며 확실하지 않은 씨도 6씨 있다. 당, 임나, 신라 출신의 사람들은 언제 왜국으로 왔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고구려와 백제 출신의 사람들은 고구려와 백제가 멸망한 후 왜국에 도래한 사람이거나 그 자손이었다. 717년의 면세 조치가 나라가 멸망한 뒤 도래한 고구려계, 백제계 사람들에 한정되었던 것에 비해 이번의 賜姓 관련 조치는 모든 도래인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성무천황은 백제나 고구려 출신과 다른 나라 출신을 차별하지 않고 인재에게 새로운 씨성을 주어 일본적인 氏姓질서 속에 포함시켰다.

이 때 고구려계 도래인으로는 중7위하 王吉勝이 新城連을, 정8위상 高正勝이 三笠連을, 高益信이 男掬連을 받았다. 이들이 받은 氏姓을 검토해보면 이들이 받은 姓은 天武8姓 중에서 하위의 성이었고, 이들이 받은 氏는 모두 지명과 관련이 있다. 三笠連의 三笠은 大和國 添上郡의 三笠山에서, 新城連의 新城은 參河國 額田郡 新城郷에서, 男掬連의 男掬는 武藏國 男衾郡에서 유래한 것이다.⁸⁴⁾ 이들 세 씨족은 일본에 이주한 후에는 각각 이들 세 지역에 기

82) 『續日本紀』, 神龜元年 2月 甲午條, “又官官仕奉韓人部一二人爾。其負而可仕奉姓名賜。”

83) 伊藤千浪, 1985, 「律令制下の渡來人賜姓」, 『日本歴史』 442, 26쪽.

84) 栗田寛, 『新撰姓氏錄考證』 下, 1154~1156쪽; 『和名類聚抄』, 參河國 額田郡 新城

반을 두고 살던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그 지명을 氏로 인정받음으로써 자신들의 거주지에서 기반을 확립하고자 하였다고 할 수 있다. 王吉勝, 高正勝, 高益信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사서에 보이지 않는다. 이들이 새로 받은 씨성을 가진 사람도 성무천황대인 739년에 정6위하에서 외종5위하로 승진한 新城連吉足이 보일 뿐이다.⁸⁵⁾ 그러나 『新撰姓氏錄』左京 諸蕃에는 이들 세 씨족이 모두 보이는 점에서, 8세기말 이후에는 平安京에 이주한 사람들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성무천황대에 女官 중에 고구려계 씨족 출신자가 보인다. 즉 女官 黃文連許志가 737년 중6위상에서 외종5위하로 승진하였고, 745년 1월에는 다시 외정5위하로 승진하였다.⁸⁶⁾ 그런데 745년 1월에는 黃文連許志와 함께 上部眞善도 無位에서 일약 외종5위하로 승진하였다. 上部는 順奴部, 東部, 左部, 靑部라고도 한다. 고구려의 上部 출신의 사람이 왜국에 간 것은 7세기 후반으로, 『日本書紀』에는 고구려가 멸망한 후 고구려 유민들이 세운 소고구려국에서 왜국에 파견한 사신으로, 671년의 上部 大相 可婁와 673년의 上部 位頭 大兄 邯子, 679년의 上部 大相 桓父 등이 보인다.

上部眞善의 최초의 위계가 無位인 점에서 采女 출신으로 여겨지는데,⁸⁷⁾ 女官의 경우도 승진 기준은 남성 관인의 長上에 준하였으므로,⁸⁸⁾ 6년마다 考課에 따라 관위가 올라갔다. 따라서 無位에서 5위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수십 년의 세월이 필요하였다.⁸⁹⁾ 上部眞善이 無位에서 일약 외종5위하로 승진한

郷, 武藏國 男衾郡.

85) 『續日本紀』, 天平11年 秋7月 乙未條.

86) 『續日本紀』, 天平9年 2月 戊午條 및 17年 春正月 乙丑條.

87) 養老令後宮職員令 氏女采女條에 의하면 後宮에서 근무하는 女官은 중궁과 지방의 氏가 바친 13살 이상 30살 이하의 여자로 충원되었다. 京과 畿内に 사는 유력한 氏는 氏上의 이름으로 여자를 바쳤는데, 이를 氏女(女孺)라고 한다. 한편 각국의 郡의 大領과 少領의 자매나 딸 중에서 용모가 단정한 사람을 바치도록 하였는데, 이를 采女라고 한다. 이들의 관위는 女孺는 少初位下부터 시작한 반면 采女는 무위부터 시작하였다.

88) 養老令 後宮職員令 縫司條의 끝부분에 「右諸司掌以上, 皆爲職事, 自餘爲散事, 各每半月, 給休暇三日. 其考叙法式, 一准長上之例」라고 하였다.

것은 성무천황의 은총을 입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陸奥國의 蝦夷 정벌에 공을 세워 725년 훈위를 받은 後部王起는 728년 3월에는 정6위상에서 외종5위하로 승진하였고, 732년 10월에는 右衛士佐가 되어 右衛士督을 도와 궁정 경호를 하는 무관으로 활약하였다.⁹⁰⁾ 747년 5월에는 고구려의 前部 출신 사람인 외정6위하 前部寶空가 ‘力田’(篤農家)으로서 외종5위하로 승진하였고, 그의 처 久米舍人妹女도 외소초위상을 받았다고 한다.⁹¹⁾ 前部는 南部, 赤部, 灌奴部라고도 한다. 『日本書紀』에는 소고구려에서 파견한 사신으로 672년의 前部 富加朴, 680년의 南部 大使 卯間 등이 보이는데,⁹²⁾ 이들 사신과 前部寶空이 어떤 관계인지 알 수 없다. 前部寶空이 어느 지역 출신인지도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前部寶空 부부는 武藏國 高麗郡에서 새로운 땅을 개척하고 농업 생산력을 향상시키는 데 많은 능력을 발휘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⁹³⁾

성무천황대에 관인으로 出身하여 8세기에 가장 큰 활약을 한 고구려계 관인은 肖奈公福信이었다. 福信은 肖奈公行文의 조카로, 709년 武藏國 高麗郡에서 태어나, 소년시절 백부 行文을 따라 郡을 떠나 平城京으로 갔다. 상경 후 복신은 씨름으로 이름을 떨쳐 內裏로 들어가서 內豎所에서 성무천황을 모셨다.⁹⁴⁾ 729년 복신의 나이 21살 때에 右衛士大志로 임명되었다. 右衛士府의 大志는 정8위의 사람이 임명되는 직책이었으므로 蔭位가 아니라면 21살의 나이에 이 직책에 임명될 수 없었다. 아마도 福信은 종5위하까지 승진한 백부

89) 野村忠夫, 1967, 『律令官人制の研究』, 吉川弘文館, 339~340쪽.

90) 『續日本紀』, 天平元年 3月 甲午條 및 4年 冬10月 丁亥條.

91) 『續日本紀』, 天平19年 5月 辛卯條.

92) 『日本書紀』, 天武元年 夏5月 戊午條 및 9年 5月 丁亥條.

93) 關晃은 지방에서 농지를 개발하고 경영한 사람들에 의해 사회가 진전한다는 점에서 奈良朝의 歸化人 중에서 가장 적극적인 의의를 담당한 것은 농민으로서 널리 동국 각지에 이식된 사람들이라고 하였다(關晃, 1996, 『古代의 歸化人』, 關晃著作集 第三卷, 吉川弘文館, 124쪽).

94) 武藏國에 高麗郡을 설치한 것은 716년이므로 709년에 福信이 武藏國 高麗郡에서 태어났다고 적고 있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福信이 다른 곳에서 태어나 716년 이후 이곳에 살다가 이곳에서 平城京으로 간 것을 그 과정을 생략하고 위와 같이 적었다고 할 수 있다.

行文의 養子가 되어 음위의 혜택을 입어 정8위부터 관인으로 출발할 수 있었을 것이다.⁹⁵⁾

복신은 그후 738년 3월 외종5위하로 승진한 후, 739년 7월에는 종5위하가 되어 入內하였다.⁹⁶⁾ 외종5위하에서 종5위하로 승진한 것이 1년 4개월만인 것도 놀라웠지만, 그가 31세의 나이로 入內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천황가의 諸王과 藤原氏 이외의 사람 중에는 가장 빨랐다.⁹⁷⁾ 福信이 측근에서 경호하면서 성무천황의 총애를 받은 것은 확실하지만, 그의 예외적인 入內에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

그것은 발해사의 파견과 관련이 있다. 즉 739년 7월 渤海郡使 己珍蒙 등이 일본의 견당사 일행과 함께 出羽國에 도착하였다. 己珍蒙은 그해 10월에 入京하여 12월에 조정에서 인사하고, 740년 1월 朝賀의식을 비롯한 여러 연회에 참석하고 2월에 돌아갔다.⁹⁸⁾ 이 발해사신은 발해가 727년에 최초로 사신을 파견한지 12년 만에 다시 파견한 것이다. 당시 신라와 관계가 매우 악화되었던 성무조정은 발해의 사신 파견을 중시하였다. 이들의 접대역으로 고구려계 씨족을 필요로 하였는데, 당시 고구려계 씨족 중에 가장 고위에 있었던 사람은 福信이었다. 과거 727년의 발해사를 접대한 사람은 福信의 伯父 行文이었다. 行文이 발해사의 파견을 계기로 종5위하로 승진한 것과 마찬가지로 福信도 발해사의 접대를 계기로 승진이 앞당겨진 것이다. 尙奈公福信이 최초의 발해사를 접대한 行文의 조카였다는 점이 발해와 교섭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 후 복신은 정5위하로 승진하고 743년 6월에는 春宮亮이 되어 阿倍皇

95) 近江昌司, 1985, 앞의 논문, 141쪽.

96) 성무천황은 재정상의 문제로 728년 3월 내5위와 외5위의 처우에 차이를 두도록 하여, 氏나 家の 사회적 지위에 따라 內階코스(정6위상이하에서 종5위하로 승진)와 外階코스(정6위상 이하에서 외종5위하로 승진)로 나뉘게 되었는데 尙奈公씨는 外階코스를 거치는 씨족이었다.

97) 野村忠夫, 1967, 앞의 책, 446쪽.

98) 『續日本紀』, 天平11年 秋7月 癸卯條・冬10月 丙戌條・11月 辛卯條・2月 戊辰條・12年 春正月 戊子朔條・甲午條・癸卯條・甲辰條・丙辰條・丁巳條・2月 己未條.

太자를 보필하였다. 春宮亮은 東宮의 家政을 담당하는 春宮坊의 차관이다. 春宮坊의 장관은 春宮大夫이지만 8~9세기의 춘궁대부는 대부분 辨官이나 衛府官과 같은 요직을 겸임하면서 의정관과 황태자 사이의 파이프 역할을 하였다. 春宮亮이 춘궁대부보다 황태자와 더 밀착하여 황태자가 천황으로 즉위한 다음에 급격히 승진하는 사람이 많았다.⁹⁹⁾

성무천황은 지배층 내부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딸 阿倍內親王을 자신의 뒤를 이을 황태자로 삼고, 용맹스럽고 신뢰할 만한 福信에게 阿倍皇太子의 신변을 지키도록 하였다. 그가 아배황태자의 측근이 된 것은 이후 그의 운명을 결정하였다. 그는 그후 여러 정변 속에서 끝까지 아배황태자(효겸천황, 지통천황)에게 충성하였다.

747년 6월에 성무천황은 정5위하 肖奈公福信, 외정7위하 肖奈公大山, 종8위상 肖奈公廣山 등 8명에게 ‘肖奈王’을 씨성으로 주었다.¹⁰⁰⁾ 일본율령국가에서 ‘王’을 姓으로 받은 것은 ‘百濟王’, ‘高麗王’, 그리고 ‘肖奈王’ 뿐이다. 그런 점에서 ‘肖奈王’을 사여한 것은 福信 등을 상당히 우대한 것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다.¹⁰¹⁾

이에 대해 고구려 왕족 肖奈씨에게 王姓을 주어 고구려의 후신인 발해를 일본의 하위에 놓고 일본의 중화세계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菅澤庸子和 田中史生の 견해가 있다.¹⁰²⁾ 그러나 福信 등에게 肖奈王이라는 칭호를 준다고

99) 保母崇, 2000, 「奈良末期から平安初期の東宮官人と皇太子」, 『日本歴史』 625, 7~8쪽.

100) 『續日本紀』, 天平19年 6月 辛亥條.

101) 近江昌司는 福信을 藤原仲麻呂파의 사람으로 보는 견지에서 당시 藤原仲麻呂의 대항세력인 橘諸兄파의 下道朝臣眞備가 746년 吉備朝臣을 賜姓받은 것에 대항하여 藤原仲麻呂가 福信등에게 肖奈王을 사성받도록 하였다고 보았다(近江昌司, 1985, 앞의 논문).

102) 菅澤庸子는 일본과 발해 양국의 의식의 차이 때문에 일본 측이 원하는 발해와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자, 일본측은 일본 국내에 고구려 왕족을 천황의 신하로 존재한다는 것을 있는 나라내 고구려의 후신국인 발해보다 일본이 상위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였다고 주장하였다(菅澤庸子, 1990, 앞의 논문, 23쪽). 田中史生은 고구려왕족이 일본의 신하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상징함으로써 고구려의 후신인 발해의 왕통이 일본 왕권의 신하의 위치에 있음을 나타내어 일본의 중화세계를

해서 福信을 비롯한 고구려계 사람들이 이를 고구려의 왕통을 이어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리도 없고, 발해 또한 고구려의 왕통을 이어받은 사람이 일본에 있다고 생각했을 리도 없다.

福信이 ‘肖奈王’성을 받은 지 3년 만에 다시 高麗朝臣을 받은 점에서 肖奈王姓의 의미를 알 수 있다. ‘肖奈王’이라는 것은 ‘百濟王’이 백제왕의 후예라는 의미를 가진 것과는 달리, 고구려왕의 후예라는 의미는 없었으며, 고구려계 씨족을 대표하는 명칭도 아니었다. 고구려계를 대표하는 명칭으로는 ‘高麗王’이 있었지만, ‘高麗王’은 이미 若光에게 사여하여, 武藏國 高麗郡의 若光의 후손들이 이 씨성을 계승하면서 武藏國 高麗郡의 郡司의 씨성으로 변하였다.

그러면 성무천황이 복신 등에게 특별히 ‘肖奈王’이라는 씨성을 준 이유는 무엇일까? 743년 10월 성무천황은 近江國의 紫香樂宮에서 『화엄경』의 교리에 따라 금동 盧舍那佛을 만들겠다는 조서를 발표하면서 국민들이 知識으로 참가하여 노사나불을 만드는 데 협력하기를 호소하였다.¹⁰³⁾ 노사나불 조영사업은 745년 5월 성무천황이 紫香樂宮에서 平城宮으로 다시 천도하면서, 平城京의 東山에 있던 金鐘寺(大和國金光明寺)에서 재개되었다. 金鐘寺는 747년에 東大寺로 명칭이 바뀌어 造東大寺司를 중심으로 대불 조영 사업이 이어졌다. 노사나불 조영 사업에는 百濟王씨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지만, 성무천황은 더욱 많은 사람들의 협력을 원하였다.¹⁰⁴⁾ 福信은 748년 2월에 정5위상으로 승진하였다.

肖奈王을 받은 福信과 大山, 廣山은 함께 肖奈王을 받고 또 750년에도 함께 高麗朝臣을 받고 있는 점에서 近親이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肖奈公行文의 아들들로 추측된다. 大山은 750년 8월에 造東大寺司 判官으로 서명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는 발해와 대등한 위치에 있는 신라도 일본의 하위에 두는 것까지 의식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田中史生, 1997a, 앞의 논문, 61쪽).

103) 『續日本紀』, 天平15年 冬10月 辛巳條.

104) 大坪秀敏, 1989, 「大佛造營過程における百濟系渡來人」, 『國史學研究』 15, 1~29쪽.

있는 점에서 造東大寺司가 설치된 747년부터 造東大寺司에서 일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廣山은 749년 윤5월경에 종8위상 春宮坊舍人으로 寫經所에 파견되고 있는데,¹⁰⁵⁾ 이를 통해 廣山도 阿倍皇太子의 春宮坊에서 福信의 밑에서 일하면서 東大寺의 대불 주조 사업에 관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성무천황은 고구려계 도래인들이 동대사의 노사나불 조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성무천황 조정에서 가장 고위에 있던 福信과 東大寺 대불 조영 사업에 관여하고 있던 福信의 사촌형제들에게 고구려 역사 초기에 왕족이었음을 기억하게 하는 ‘肖奈王’ 姓을 사여함으로써 ‘백제왕’씨나 ‘고려왕’씨도 분발하도록 하였던 것이었다.

VII. 藤原仲麻呂정권과 高麗朝臣福信

749년 7월에 몸이 병약하였던 성무천황이 양위하여 그의 딸 효검천황이 즉위하였다. 효검천황이 즉위한 후, 光明皇太后는 황후궁직을 紫微中臺로 바꾸고, 조카 藤原仲麻呂를 중용하여 紫微令으로 임명하였다. 자미중대는 광명황태후가 즉위한 효검천황을 후견하면서 실질적으로 국정을 담당하기 위한 기관이었다. 내정을 총괄하면서 천황의 칙을 여러 관청에 전하는 紫微令의 지위를 이용하여 藤原仲麻呂는 천황의 칙을 빙자하여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였다. 따라서 태정관의 의정관의 권력은 형해화하였다. 효검천황대는 실제로 광명황태후와 藤原仲麻呂가 실권을 장악하였던 시기였으므로, 藤原仲麻呂 정권시대라고도 한다.

효검천황이 황태자였을 때부터 측근으로 있었던 肖奈王福信은 749년 7월 효검천황이 즉위한 날 종4위하로 승진하였다. 그해 8월에는 中衛府의 少將으

105) 新日本古典文學大系, 1989, 『續日本紀』 3, 岩波書店, 45쪽의 注20.

로서 효점천황을 경호하는 한편 紫微中臺의 少弼을 겸하게 되었다.¹⁰⁶⁾ 紫微少弼은 紫微中臺의 3등관이었다. 紫微中臺의 장관(令)은 광명황태후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던 조카 藤原仲麻呂이었고 차관(大弼)은 大伴兄麻呂와 石川年足이었다. 그 밑에 少弼로 百濟王孝忠, 巨勢堺麻呂, 肖奈王福信이 있었다. 肖奈王福信은 百濟王孝忠과 함께 도래계 씨족을 대표하여 藤原仲麻呂 정권의 중추부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다.

福信은 749년 11월에는 종4위하로 승진한지 4개월 만에 종4위상으로 승진하였다. 그리고 효점천황은 750년 1월에는 肖奈王福信 등 6명에게 高麗朝臣을 사성하였다.¹⁰⁷⁾ 747년에 福信을 비롯하여 肖奈王을 씨성으로 받은 사람은 모두 8명이었는데, 750년에 다시 高麗朝臣을 씨성으로 받은 사람은 福信을 비롯하여 6명이었다. 肖奈王을 씨성으로 받은 사람 중에서 福信과 大山과 廣山은 高麗朝臣을 다시 씨성으로 받고 있는 점에서 747년에 肖奈王을 받은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모두 다시 고려조신을 받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747년보다 750년이 2명 줄어든 것은 아마도 그 사이 두 명이 사망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肖奈王을 수여한지 2년 반 만에 다시 高麗朝臣이라는 씨성으로 고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菅澤庸子は 복신 등에게 高麗朝臣을 준 그해 9월에 高麗朝臣大山이 건당사 判官으로 임명되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녀는 일본천황이 과거 고구려 왕족을 家臣으로 데리고 있음을 당에 알리고자 肖奈王을 高麗朝臣이라는 씨성으로 고치도록 하였을 것으로 생각하였다.¹⁰⁸⁾

大山的 건당사 임명과 관련하여 肖奈王에서 高麗朝臣으로 씨성을 바꾸었을 가능성은 크다. 그러나 고려조신으로 씨성을 바꾼 이유에 대한 菅澤庸子の 견해는 수긍하기 힘들다. 高麗朝臣을 씨성으로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당이 이를 과거 고구려의 왕족의 후예라고 생각했을 리도 없지만, 만약 당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 알 수 없다. 그보다는 ‘肖奈

106) 『續日本紀』, 天平勝寶元年 秋7月 甲午條 및 8月 辛未條.

107) 『續日本紀』, 天平勝寶元年11月 己未條 및 2年 春正月 丙辰條.

108) 菅澤庸子, 1990, 앞의 논문, 43쪽.

王'이라는 씨성이 대외적으로 통용되기 힘들었기 때문이었다는 田中史生の 지적이 타당하다.¹⁰⁹⁾ 일본조정에서는 견당사의 이름에 '肖奈王'이라는 왕명이 존재한다는 것이 당과 외교 교섭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福信 등도 肖奈王이라는 씨성을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고구려의 왕족 출신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高麗王'의 현실적인 지위가 武藏國의 高麗郡의 郡司 정도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福信 등은 오히려 天武 8姓에 해당하는 姓을 가지길 원하였을 것이다. '肖奈王'은 '百濟王'이나 '高麗王'과 같이 7세기 후반에 본국의 멸망을 전후하여 도래한 유력한 씨족을 우대한 氏姓이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들 씨성은 일본적인 氏姓 질서에는 포함되지 않은 애매한 위치에 있었다.

그에 비해 朝臣은 일본에서 황족 이외의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성이었는데, 肖奈王씨가 도래계 씨족 중에서 가장 먼저 이 姓을 받게 되었던 것이었다.¹¹⁰⁾ 福信은 高麗朝臣姓을 받음으로써 일본적 姓 질서의 상층부에 포함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高麗朝臣은 巨萬朝臣으로도 표기되고 있는 점에서 '高麗'는 'こま(고마)'로 읽혔음을 알 수 있다.¹¹¹⁾

福信과 大山 등은 肖奈王 대신에 '高麗'라는 명칭과 함께 황족 이외의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성인 '朝臣' 姓을 받음으로써 정치적, 사회적으로 애매한 지위에 있었던 '高麗王' 대신에 고구려계 도래인을 대표하는 위치를 인정받은 것이었다.

高麗朝臣大山은 750년 8월에 造東大寺司判官으로 서명하였다. 그후 大山

109) 田中史生, 1997, 앞의 논문, 62~63쪽.

110) 百濟朝臣의 경우, 陸奥國의 守 百濟王敬福이 陸奥國에서 황금을 발견하였을 때 함께 공을 세운 陸奥國의 大掾 宗6위상 餘足人이 749년 윤5월 賞을 받았다. 그리고 757년 5월에는 '百濟朝臣足人'이 宗5위하에서 宗5위상으로 승진하였다(『續日本紀』, 天平勝寶元年 閏5月 甲辰條 및 天平寶字元年 5月 丁卯條). 이를 통해 餘足人이 749년 윤5월 이후 757년 5월 이전의 어느 때인가 百濟朝臣姓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758년 6월에는 그의 一族 大宰 陰陽師 宗6위하 餘益人, 造法華寺判官 宗6위하 餘東人 등 4명이 百濟朝臣을 받았다(『續日本紀』, 天平寶字2年 6月 甲辰條).

111) 『續日本紀』, 天平勝寶6年 夏4月 壬申條.

은 750년 9월 건당사 判官으로 임명되어 752년 윤3월 출발하여 당으로 갔다가 754년 1월 귀국하여 그해 4월 정6위상에서 종5위하로 승진하였다.¹¹²⁾

한편 754년 1월 고구려계 씨족들이 승진하였다. 後部王吉이 정6위상에서 종5위하로 승진하였고, 高福子와 日置造眞卯, 黃文連水分이 정6위상에서 외종5위하로 승진하였다. 後部王吉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이지 않지만, 원명천 황대에 入內한 後部王同, 성무천황대에 무관으로 활약한 後部王起와 동족으로, 정6위상에서 외위를 거치지 않고 종5위하로 승진하였다는 점에서 우대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高福子是 고구려 출신의 고씨로, 724년에 성무천황으로부터 高正勝이 三笠連을, 高益信이 男埴連을 새로 氏姓으로 받았지만, 그후에도 계속 高를 씨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日置造眞卯는 고구려계 日置造 중에 『續日本紀』에 처음 보이는 사람이다. 日置造는 日置部를 관할하는 伴造씨족이다. 日置部는 6세기 후반 중앙의 祭官조직이 만들어지면서 지방에 설치한 部民으로, 神靈을 맞이하기 위한 聖火의 재료를 조달하고 神事を 담당하였다. 日置部는 특히 畿內를 중심으로 北陸, 山陰 지방에 많이 분포되었다.¹¹³⁾ 그런데 『新撰姓氏錄』에서는 ‘高麗國人 伊利須意彌(使主)’의 후손이라고 하는 日置造씨가 보인다. ‘高麗國人 伊利須意彌(使主)’는 『新撰姓氏錄』에서 고구려계 씨족들의 조상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사람이다. 앞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 大貊連과 日置造(左京, 右京, 大和國, 攝津國) 뿐만 아니라, 河內國의 島本씨, 그리고 日置造와 同祖라고 하는 大和國의 鳥井宿禰, 榮井宿禰, 吉井宿禰, 和造, 日置倉人씨가 656년에 고구려에서 일본으로 파견되어 일본에 체재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副使 伊利之(伊利須使主)를 조상으로 놓고 있다.

그런데 『新撰姓氏錄』에 의하면 伊利須意彌(使主)의 후예 씨족이 가장 많이 살고 있던 곳은 大和國이었고, 伊利須意彌(使主)의 후예 씨족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日置造씨였다. 『和名類聚抄』에 의하면 大和國에는 葛

112) 『續日本紀』, 天平勝寶 2年 9月 己酉條・4年 閏3月 丙辰條・6年 夏4月 壬申條.

113) 上田正昭, 1968, 「祭官の成立」, 『日本古代國家論究』, 塙書房, 241~243쪽.

城郡 日置郷이 있다. 아마도 고구려 멸망을 전후한 시기에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大和國 葛城郡 日置郷 지역을 처음 근거지로 하여 살게 되었고, 伊利之가 이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이들은 그 후 河內國, 攝津國 등의 지역에도 퍼져나갔지만, 伊利之를 조상으로 놓는 계보를 만들어 서로 유대감을 만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 日置造는 大和國의 지명 日置郷과 관련된 씨성으로 여겨진다. 日置造 씨 중에는 777년에 鳥井宿禰, 榮井宿禰, 吉井宿禰 등의 새로운 씨성으로 바꾼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뒤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754년 4월 日置造眞卯는 紫微中臺의 少弼로 임명되어 藤原仲麻呂정권에 참가하였고, 黃文連水分은 備前守로 임명되었다.¹¹⁴⁾ 日置造眞卯는 757년 5월 종5위하로 승진하고 760년 종5위상으로 승진하였다. 761년 6월에는 廉勤에 대한 상으로 沒官稻 1000속을 사여받는 등 藤原仲麻呂의 신임을 받았다.

756년 5월 성무태상천황이 사망하자 高麗朝臣福信은 종3위 多治比真人 廣足, 百濟王敬福 등과 함께 山作司로 임명되어 장례일을 맡아보았다.¹¹⁵⁾ 孝謙천황은 757년 4월 황태자를 道祖王에서 藤原仲麻呂가 지지하는 大炊王으로 교체하였다. 藤原仲麻呂의 권력은 大炊王이 황태자로 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이 정권 하에서 福信은 757년 5월에 정4위하로 승진하였다.

藤原仲麻呂의 독재에 반발하여 757년 7월 奈良麻呂의 모반사건이 일어났다. 奈良麻呂 측의 賀茂角足는 자신들의 거사에 방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高麗福信, 奈貴王, 坂上环田麻呂, 巨勢苗麻呂, 牡鹿嶋足을 거병 전날 연회에 초대하여 술에 취하게 하자는 의견을 내놓았지만, 사전에 모반계획이 발각되어 실행에 옮기지는 못 하였다. 757년 7월 당시 紫微少弼 겸 武藏守였던 福信이 무술이 뛰어난 인물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福信은 奈良麻呂의 일당을 체포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758년 8월 효검천황이 양위하여 大炊王(淳仁천황)이 즉위하였다. 淳仁천

114) 『續日本紀』, 天平勝寶 6年 春正月 壬子條 및 夏4月 庚午條.

115) 『續日本紀』, 天平勝寶 8歲 5月 乙卯條 및 丙辰條.

황의 즉위 직후 藤原仲麻呂는 8省의 명칭을 바꾸었다. 高麗朝臣福信은 760년 1월 信部省의 大輔가 되었다. 信部省은 中務省을 개칭한 것이다. 信部省은 中務省과 마찬가지로 詔勅을 전달하는 관사였는데, 信部卿은 淳仁천황의 형 船親王이었다. 信部省의 차관인 大輔는 정5위 상당관이므로, 福信은 자신의 관위보다 낮은 직책에 임명된 것이었다. 762년에는 内匠頭로 임명되었는데, 内匠頭는 728년에 설치된 令外官으로 건축 담당의 관인을 총괄하는 官司였다.

760년 6월 광명황태후가 사망한 후 762년 3월부터 淳仁천황과 孝謙상황의 불화가 드러나 藤原仲麻呂 정권의 기반이 불안해졌는데, 福信은 淳仁천황으로부터 信部大輔나 内匠頭로 임명되었음에도 효검상황의 측근으로서 움직였다.¹¹⁶⁾

순인천황대에는 신라침공 계획이 추진되었다. 즉 758년 발해에 갔다가 발해의 보국대장군 楊承慶과 함께 돌아온 小野田守가 安史의 난에 대해 보고한 것을 계기로 藤原仲麻呂는 독재에 대한 반발을 외부로 돌리고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라침공 계획을 추진하였다.¹¹⁷⁾ 『續日本紀』에 의하면 759년 6월부터 762년 11월까지 신라침공 계획이 추진되었는데, 이때 高麗朝臣大山이 발해와의 교섭을 담당하였다. 高麗朝臣大山은 견당 판관으로 당에 갔다 돌아 온 후 757년 윤8월에는 造東大寺司次官으로 그의 이름을 올리고 있다.¹¹⁸⁾ 高麗朝臣大山은 761년 10월에는 武藏介로 임명되었다가, 곧 遣渤海使로 임명되어¹¹⁹⁾ 발해와 신라침공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발해에 사신으로 갔다.¹²⁰⁾ 그는 762년 10월 발해에서 돌아와 越前國 加賀郡에 도착하였지만 곧 병으로 죽는다. 淳仁

116) 近江昌司, 1985, 앞의 논문, 158~159쪽.

117) 具蘭熹, 1999, 「8세기 중엽 발해·신라·일본의 관계」, 『韓日關係史研究』 10, 9~12쪽; 延敏洙, 2003, 「統一期新羅와 日本 關係」, 『강화한국고대사』 제4권,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257쪽.

118) 酒寄雅志, 2001, 「八世紀における日本の外交と東アジアの情勢」, 『渤海と古代の日本』, 校倉書房, 221쪽.

119) 『續日本紀』, 天平寶字5年 冬10月 壬子朔條 및 癸酉條. 외국에 파견되는 사람에게 지방관을 겸직하도록 하는 것은 그 급여를 가족들에게 주어 우대하기 위한 조치였다.

120) 酒寄雅志, 2001, 앞의 논문, 231~233쪽.

조정에서는 견발해사로서의 그의 공로를 기려 정5위하를 추증하였다.¹²¹⁾ 그의 사망으로 신라침공 계획의 추진에 지장이 생겼을 것이다.

한편 신라침공 계획이 추진되던 762년 4월 高麗朝臣廣山은 정6위상으로 遣唐副使로 임명되었다.¹²²⁾ 이때는 부사 石上宅嗣가 파면되고 견당사선이 난 파하는 등, 사고 때문에 규모가 축소된 것인데, 7월에 다시 명칭도 送唐人使로 바뀌었으나 결국 견당사는 渡唐하지 않았다. 廣山은 764년 1월 외종5위하로 승진하였지만,¹²³⁾ 이후 더이상 보이지 않는다.

淳仁천황대에 高麗朝臣福信의 일족인 大山과 廣山이 모두 대외사절로 활약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밖에도 고구려계의 高씨도 대외사절로 활약하였다. 高元度는 759년 1월 정6위상에서 외종5위하로 승진하는 날 迎入唐大使使로 임명되었다. 752년 견당대사로 파견되었다가 귀국하던 도중 표류하여 당에 돌아간 藤原朝臣清河를 맞이해 오기 위한 사신이었다. 759년 2월 高元度는 발해사신 楊承慶이 귀국할 때에 함께 발해로 가서 그곳에서 발해가 당에 파견하는 사신 楊方慶과 함께 당으로 갔다. 그러나 당 현종은 안사의 난 이후 길이 위험하다면서 清河를 보내지 않았다. 당 현종은 배와 선원을 제공하여 고원도를 일본에 보내주면서 활을 만들기 위한 우각을 보내주기를 일본정부에 요구하였다. 순인조정은 고원도가 사신으로 나가 있는 동안 그를 能登守로 임명하여 가족들에게 녹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그가 761년 8월에 일본에 돌아와 당의 요구를 전하자 일본조정은 우각을 마련하였다. 고원도는 761년 11월에는 종5위상으로 승진하였고, 762년 1월에는 參河守, 763년 7월에는 右平準令이 되었으나 이후 더이상 보이지 않는다.¹²⁴⁾

121) 『續日本紀』, 天平寶字5年 冬10月 壬子朔條・癸酉條・6年 冬10月 丙午朔條・12月 乙卯條. 견발해사로 임명하기 직전에 高麗朝臣大山을 武藏國의 介로 임명하였는데, 이는 외국에 사신으로 가는 사람에게 지방관의 관직을 주어 우대하기 위한 것이었다.

122) 『續日本紀』, 天平寶字6年 夏4月 丙寅條.

123) 『續日本紀』, 天平寶字8年 春正月 乙巳條.

124) 『續日本紀』, 天平寶字3年 春正月 丁酉條・2月 癸丑條・冬10月 辛亥條・4年 春正月 戊寅條・5年 8月 甲子條・冬10月 辛酉條・11月 辛未條・6年 春正月 戊子條・

그 밖에 순인천황대에 발해에 파견되어 음성을 공부하고 귀국한 학생 高內弓이 있다. 763년 2월에 발해사신 王新福이 본국으로 돌아갈 때에 淳仁조 정에서는 뱃사람을 함께 보내주었는데, 이 때 學生 高內弓이 함께 가서 발해에서 音聲을 공부하다가 돌아왔다.¹²⁵⁾

淳仁천황대에 黃文連씨 중에서는 758년 8월 女官인 黃文連眞白女가 外大初位上에서 외종5위하로 승진하였다.¹²⁶⁾ 日置造씨 중에 蓑麻呂가 762년 1월 외종5위하로 丹波介가 되었고, 764년 10월에는 외정5위하로 승진하였다.

VIII. 새로운 氏姓 사여와 고구려계 도래인의 토착화

8세기 후반에 고구려 도래인들 중에 새로운 씨성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이 이어진다. 그 계기가 된 것은 757년 4월에 발표된 효경천황의 조서였다. 조서에서는 “其高麗百濟新羅人等. 久慕聖化. 來附我俗. 志願給姓. 悉聽許之”라고 적고 있다.¹²⁷⁾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도래하여 일본 땅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姓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원하는 대로 姓을 내려 주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이는 藤原仲麻呂가 757년 4월 자신이 지지하는 大炊王를 황태자로 만든 뒤 도래인에 대한 대규모 사성을 통해 자신의 지지 기반을 확대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를 계기로 757년부터 761년까지 모두 50여씨 약 2000명의 도래계 사람들이 새로운 氏姓을 받았는데, 이들은 도래인 집단 중에서 유력한 중심적 존재였다.¹²⁸⁾

757년 4월의 도래인에 대한 改姓 허가 정책에 기초하여 고구려계 도래씨

7年 秋7月 乙卯條.

125) 『續日本紀』, 天平寶字 7年 冬10月 乙亥條・寶龜4年 6月 丙辰條.

126) 『續日本紀』, 天平寶字 2年 8月 庚子朔條.

127) 『續日本紀』, 天平寶字 元年 夏4月 辛巳條.

128) 金恩淑, 1991b, 「『新撰姓氏錄』의 加耶系氏族」, 『한국고대사논총』 2, 198~199쪽.

죽도 새로운 씨성을 허가받았다. 758년 4월에 內藥司의 佐로 出雲國의 員外掾을 겸임한 正6위상 難波藥師奈良 등 11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藥師姓을 고쳐 주기를 요구하였다. 자신들의 ‘遠祖’는 ‘德來’로, 원래는 고구려인이었으나 백제국에 歸化하였는데, 雄略조정이 백제국에 국서를 보내 才人を 구할 때에 백제가 德來를 왜국에 바쳤다고 하였다. 그리고 藥師성을 가지게 된 유래에 대해 “德來의 5世孫 惠日이 推古대에 당으로 파견되어 의술을 배웠으므로 藥師라고 불리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 姓으로 바뀌게 되었다”¹²⁹⁾라고 하였다. 이는 『日本書紀』에 보이는 藥師 惠日の 기사를 기초로 하여, 그보다 더 오래전에 일본으로 건너온 조상을 雄略시대에까지 거슬러 올라가 상정한 것이다. 難波連의 조상 惠日は 『日本書紀』에서는 醫 惠日, 또는 藥師惠日로나오고 있는데, 7세기 전반 舒明, 孝德대에 건당사로 활약하였다.¹³⁰⁾ 이 때부터 難波藥師씨는 攝津國의 難波郡에 살았으므로¹³¹⁾ 자신들의 거주지를 氏族名에 넣었고, 758년에는 難波連으로 개성하기를 원하여 허가받은 것이다. 難波連씨 일족은 9세기까지 사서에 이름이 보인다.

758년 6월에는 越後目 正7위상 高麗使主馬養과 內侍 典侍 中5위하 高麗使主淨日 등 5명이 새로 多可連으로 씨성을 바꾸었다.¹³²⁾ 高麗使主 馬養은 越後國의 國司로 근무하던 하급관인이었는데, 高麗使主(多可連)淨日과 가까운 혈연으로 함께 새로 多可連姓을 받게 되었을 것이다. 多可連의 ‘多可’는 고구려에서 온 도래인의 후손이 살고 있었던 山城國綴喜郡의 多可郷과 관련이 있다.¹³³⁾ ‘多可(たか)’는 ‘高麗’에서 ‘高’의訓 ‘たか’를 음표기한 것으로 고구려에서 온 도래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으므로 ‘多可’라는 명칭이 붙게 되었을 것

129) 『續日本紀』, 天平寶字2年 夏4月 己巳條.

130) 623년 7월에는 ‘醫惠日’이 당으로부터 돌아왔고(『日本書紀』, 推古31年 秋7月條), 630년 8월과 654년 2월에 ‘藥師惠日’이 당에 사신으로 파견되었다(같은 책, 舒明2年 秋8月 癸巳朔 丁酉條 및 白雉5年 2月條).

131) 『日本書紀』, 天武元年 秋7月 辛亥條에 ‘難波小郡’이 보인다. 『和名類聚抄』에 의하면 8세기 이후 攝津國의 이곳에 西成郡이 서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132) 『續日本紀』, 天平寶字2年 6月 甲辰條.

133) 池邊彌, 1981, 『和名類聚抄郡郷里驛名考證』, 吉川弘文館, 204쪽.

이다.

高麗使主(多可連)淨日是 聖武천황대부터 後宮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758년 새로 성을 사성받았을 때에는 內侍司의 차관인 典侍로 효경천황을 모시고 있었다. 그녀는 光仁천황대까지 後宮에서 근무하여 종4위하까지 승진하게 된다.¹³⁴⁾ 고대 일본의 女官은 지방 호족 출신의 采女나 중앙의 유력 씨족의 출신의 氏女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多可連씨 중에 이들 이외의 사람들의 활약은 사서에 보이지 않아 多可連씨 중에 관인으로 활약하는 사람이 더 이상 없었음을 알 수 있다.

高麗使主가 多可連으로 씨성을 바꾼 날 정6위상 狛廣足, 散位 정8위하 狛淨成 등 4명도 새 씨성 長背連을 받았다. 長背連는 伊勢國 鈴鹿郡 長背郷¹³⁵⁾을 거주지로 하던 씨족으로 여겨진다. 사서에서는 위의 기사 이외에 더 이상 보이지 않아 長背連씨는 중앙에서 관인으로 특별히 활약하는 사람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新撰姓氏錄』에는 右京 諸蕃 下 高麗조의 冒頭に 보이는 점에서 長背連廣足 등의 후손이 9세기 초까지 平安京의 右京에 정착하였으며, 右京의 고구려계 씨족 중에서는 가장 유력한 존재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新撰姓氏錄』에서 長背連는 高麗國主 鄒牟, 一名 朱蒙에게서 출자하였다고 한다. 欽明대에 무리를 이끌고 일본에 도래한 鄒牟(一名 朱蒙)의 후손이 있었는데 그는 몸이 크고 아름다워 欽明이 ‘長背王’이라는 칭호를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欽明대에 고구려에서 왜국에 도래한 사람에 관한 기록은 『日本書紀』 欽明26년 5월조에 “高麗人頭霧唎耶陞等投化於筑紫. 置山背國. 今畝原. 奈羅. 山村高麗人之先祖也”라는 기사가 있다. 『日本書紀』에서 고구려인이 왜국왕에게 ‘投化’한 최초의 기사이다. 長背連씨는 이 『日本書紀』의 기록을

134) 須田春子, 1978, 『律令制女性史研究』, 千代田書房, 66~67쪽. 多可連淨日是 淳仁천황대인 761년에는 종5위 상에서 한 단계 관위가 올라가 정5위하가 되었고, 稱徳천황대인 765년에는 정5위상이 되었으며, 766년에는 종4위하가 되었다(『續日本紀』, 天平實字 5年 6月 己卯條・天平神護元年 春正月 己亥條・天平神護2年 12月 戊申條). 光仁천황대에도 典侍로 근무하다가 780년 종4위하로 사망하였다(『續日本紀』, 寶龜11年 冬10月 甲寅條).

135) 池邊彌, 1981, 앞의 논문, 287쪽.

참고로 하여 자신의 조상이 欽明대에 왜국으로 왔다고 주장하였을 것이다.¹³⁶⁾

758년 8월 孝謙천황이 양위하여 大炊王(淳仁천황)이 즉위한 후에도 도래인에 대한 사성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진다. 761년 3월에 淳仁천황은 百濟人, 高麗人, 新羅人, 漢人 모두 36씨족 188명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성을 사성하였다.¹³⁷⁾ 이것도 藤原仲麻呂가 도래인들을 자신의 정권의 지지기반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정책이었다. 高麗人, 즉 고구려계는 모두 10씨 29명의 사람이 새로운 씨성을 받았다.

達沙仁德 등 2명 — 朝日連(嶋野連)

上部王 麻呂 — 豊原連(『新撰姓氏錄』 좌경제번)

前部高文信 — 福當連(『新撰姓氏錄』 좌경제번)

前部白公 등 6인 — 御坂連

後部王安成 등 2인 — 高里連

後部高吳野 — 大井連

上部王彌夜大理 등 10인 — 豊原造

前部選理 등 3인 — 吹井造

上部君足 등 2인 — 雄坂造

前部安人 — 御坂造

761년 3월의 賜姓 기사에서는 이들 고구려계 씨족의 관위나 근거지가 보이지 않아 어떤 사람들인지 알 수 없다. 達沙仁德에 관해서만 『續日本紀』 天平寶字5(761)年 5月 丙申조에 “左兵衛河內國志紀郡人正八位上達沙仁德”이라는 기사가 보여 관직, 출신지, 관위를 알 수 있을 뿐이다. 達沙仁德은 656년 고구려가 왜국에 파견한 대사 達沙의 후손일 가능성이 크다. 達沙는 副使 伊利之와 함께 왜국에 남아서 왜국과 고구려의 군사 협조 방안에 대해 협의하는 일을 담당하였지만, 고구려의 멸망으로 왜국에 정착하게 되었다. 『續日本紀』

136) 佐伯有清, 1983, 앞의 논문, 260쪽.

137) 『續日本紀』, 天平寶字5年 3月 庚子條.

와 正倉院文書의 寫經所 관계 문서에 達沙仁德을 비롯하여 達沙牛養, 達沙息人, 達沙子大木 등과 같이 그의 후손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보인다.¹³⁸⁾ 達沙는 朝日連으로 바뀌었다가 761년에는 다시 嶋野連으로 바뀐다.¹³⁹⁾ 嶋野連씨나 達沙씨, 朝日連씨는 이후 사서나 『新撰姓氏錄』에 보이지 않는 점에서 관인으로 활약하는 사람이나 평안경이나 기내에서 사는 사람이 없어졌다고 생각된다.

達沙仁德을 제외한 고구려계 씨족들은 모두 고구려의 5부의 명칭을 씨족 명칭에 사용하고 있다. 上部 출신으로는 王 麻呂(豊原連), 王彌夜大理(豊原造), 君足(雄坂造) 등이 있는데, 이들은 다시 上部王씨(麻呂, 彌夜大理)와 上部씨(君足)로 나뉘어졌다. 746년 1월에 평성경 右京 사람 上部乙麻呂의 처가 세 쌍둥이를 낳아 正稅 400속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보아¹⁴⁰⁾ 上部씨 중에서 평성경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上部 출신 씨족들 중에서 豊原連 만이 『新撰姓氏錄』에 보이는데, 左京 諸蕃의 豊原連은 ‘上部王 麻呂’를 조상으로 놓고 있다. 761년에 豊原連을 사성받은 上部王 麻呂가 새 조상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前部출신으로는 高文信(福當連), 白公(御坂連), 選理(呔井造), 安人(御坂造)이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아 어떤 사람들인지 알 수 없다. 前部는 南部, 赤部, 灌奴部라고도 하는데, 『일본서기』에는 소고구려에서 파견한 사신으로 672년의 前部 富加拵, 680년의 南部 大使 卯間 등이 보인다.¹⁴¹⁾ 그러나 이들 사신과 高文信, 白公 등이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알 수 없다. 747년에 篤農家로서 외종5위하로 승진한 前部寶空이 있지만, 이들과 어떤 관계였는지 알 수 없다.

後部(北部, 黒部, 絶奴部) 출신의 고구려계 씨족으로는 後部王安成이 高里連으로 後部 高吳野가 大井連으로 씨성을 바꾸었다. 이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아 어떤 사람들인지 알 수 없다. 『日本書紀』에는 소고구려국의 사신

138) 新日本古典文學大系, 1992, 『續日本紀』 3, 岩波書店, 561~562쪽.

139) 『續日本紀』, 天平寶字5年 5月 丙申條.

140) 『續日本紀』, 天平18年 春正月 庚辰條.

141) 『日本書紀』, 天武元年 夏5月 戊午條・9年 5月 丁亥條.

으로 676년 왜국에 파견된 後部 主簿 阿于가 보이고,¹⁴²⁾ 앞에서 언급한 高麗 王若光도 後部 출신이지만, 이들 상호간의 관계는 확실하지 않다. 高麗王씨를 제외한 後部 출신의 고구려계 씨족이 後部王씨와 後部高씨로 나뉘어졌을 것으로 여겨진다. 後部王씨로는 安成 이외에도 753년 정6위상에서 종5위로 승진한 後部王吉이 있다.¹⁴³⁾

後部高씨로는 757년 9월 정6위상에서 외종5위하로 승진한 後部高笠麻呂가 있다. 後部高笠麻呂는 東大寺 大佛 開眼會를 위해 만들어졌을 것으로 여겨지는 金銅雲花形裁文의 銘文에 “東大寺 高笠万呂 作 天平勝寶四年四月九日”이라고 적혀 있어¹⁴⁴⁾ 그가 造東大寺司의 관인으로 활약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後部高씨 중에는 大井連으로 씨성을 바꾸지 않고 계속 後部高씨를 칭한 사람들도 있었다. 즉 『新撰姓氏錄』 未定雜姓의 左京의 後部高씨는 “高麗國人 正6位上 後部高千金”의 후손이라고 하였고, 右京의 後部高씨는 “高麗國人 後部乙牟”의 후손이라고 하였는데, 後部高千金이나 後部乙牟는 사서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므로 未定잡성에 포함되게 되었을 것이다.¹⁴⁵⁾

위의 10 씨족이 받은 氏名은 지명과 관련된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중에서 『和名類聚抄』를 통해 지명이 확인되는 것은 朝日과 大井이다. 朝日連의 朝日是 近江國 淺井郡 朝日郷과 관련이 있다. 大井連은 大井郷과 관련이 있는데, 전국에 광범위하게 있는 大井郷 중에서 고구려계 도래인이 살았던 곳은 駿河國 富士郡과 廬原郡, 甲斐國 巨麻郡, 武藏國 久良郡과 兒玉郡, 下總國 相馬郡, 常陸國 那賀郡 등이므로 이 중에 한 지역을 근거지로 하였을 것이다.

위의 새로운 씨성 중에서 『新撰姓氏錄』에 보이는 것은 豊原連과 福當連 뿐이다. 『新撰姓氏錄』은 9세기 초 平安京과 畿内の 씨족들을 수록한 것이기

142) 『日本書紀』, 天武5年 11月 丁亥條.

143) 『續日本紀』, 天平勝寶6年 春正月 壬子條.

144) 新日本古典文學大系, 1992 『續日本紀』 3, 岩波書店, 525쪽.

145) 本系를 조사해 보았으나 古記의 내용과 다르거나 舊傳에 기록이 없어 氏族의 주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따로 別卷을 만들어 諸蕃의 뒤에 붙였다고 한다(佐伯有清, 1962 『新撰姓氏錄の研究』 本文篇, 147쪽; 같은 책, 考證篇 第6, 160~161쪽).

때문에 나머지 여덟 씨성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다면 당연히 『新撰姓氏錄』에 실리지 않는다. 위의 朝日連과 大井連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들은 畿外를 거점으로 하는 씨족들로, 9세기 초에 畿外에 거주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들 씨족들이 사서에서 이름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중앙에서 官人으로 활약하지 않고 지방에서 토착세력이 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상 757년부터 761년까지 새로운 씨성으로 바꾼 고구려계 13씨족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 중에서 難波連을 제외한 나머지 12씨족은 새로운 씨성을 가지고 지방에서 토착세력으로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IX. 8세기 후반의 고구려계 씨족과 관인

764년 10월 孝謙上皇은 仲麻呂의 난을 진압한 후 다시 즉위하였다(稱徳天皇). 孝謙上皇이 淳仁천황과 대립하고 있었을 시기에 효검상황의 측근으로 움직였던 高麗朝臣福信은 764년 10월 仲麻呂의 난 직후에 但馬守가 되었고, 仲麻呂의 난이 최종적으로 끝난 765년 1월에는 종3위로 승진하여, 공경의 반열에 들어섰다. 高麗朝臣福信은 百濟王敬福과 함께 도래계 씨족을 대표하게 되었으며, 766년 百濟王敬福이 사망한 후에는 도래계 씨족 출신으로 유일하게 공경에 지위에 있게 되었다. 그 후에도 福信은 767년 3월 造宮卿, 但馬守 兼 法王宮大夫, 그 후 武藏守, 近江守 등을 역임하였다.

稱徳천황대에 고구려계 씨족으로는 日置造씨 중에는 日置造蓑麻呂가 765년 1월에 외정5위하에서 종5위하로 승진하여 入內하였고, 767년 9월에는 다시 종5위상으로 승진하였다. 蓑麻呂는 768년 11월에는 丹波守로 임명되었다가, 770년 8월 종5위상으로 圖書頭로 임명되었다. 한편 日置造道形은 767년 8월 伊勢介로서 정6위하에서 외종5위하로 승진하였다.¹⁴⁶⁾

146) 『續日本紀』, 天平神護元年 春正月 己亥條・神護景雲元年 9月 己酉條・2年 11月

上部출신으로 上部木이 767년 1월에 정6위상에서 외종5위하로 승진하였다. 黃文連씨 중에서는 770년 7월에 黃文連牟禰가 정6위상에서 외종5위하로 승진하였고,¹⁴⁷⁾ 難波連씨 중에 難波連足人이 767년 1월 외종5위하를 받고, 그해 5월 主殿助로 임명되었다.¹⁴⁸⁾

창덕천황대에도 고구려계 도래인이 새로 씨성을 받는 일이 이어져 767년 3월에 左京人 중7위상 前部 麻呂는 廣條連을 사성받았다.¹⁴⁹⁾ 이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廣條連은 『新撰姓氏錄』에도 보이지 않는다.

770년 8월 稱徳천황의 사망으로 그해 10월 光仁천황이 즉위하였다. 光仁천황대에 외종5위하 日置造道形은 771년 윤3월에는 木工助로 임명되고, 그해 9월에는 主稅助로 임명되었다. 772년 9월에는 北陸道에 파견되어 검교하였으며 774년 3월에는 丹波介로 임명되었다. 日置造蓑麻呂는 774년 3월 중5위상으로 大學頭로 임명되었고, 동궁학사도 겸직하였다.¹⁵⁰⁾

光仁천황대에도 도래인에 대한 改賜姓은 이어졌다. 고구려계 씨족으로는 776년 정6위상 後部石嶋 등 6명이 出水連을 새 씨성으로 받았다.¹⁵¹⁾ 出水連은 『新撰姓氏錄』 左京 諸蕃 高麗에서 ‘高麗國人 後部能鼓兄’에서 나왔다고 한다. 出水는 『和名類聚抄』에 보이는 山城國 相樂郡 水泉郷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닐까 추측되고 있다.¹⁵²⁾

777년에는 중5위상 日置造蓑麻呂 등 8명이 榮井宿禰를, 중6위상 日置造雄三成 등 4인이 鳥井宿禰를, 정8위하 日置造飯麻呂 등 2인이 吉井宿禰를 새 씨성으로 받았다.¹⁵³⁾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이들 세 씨족은 앞에서 언급한 大

戊子條・寶龜元年 8月 辛亥條・神護景雲元年 8月 癸巳條.

147) 『續日本紀』, 寶龜元年 秋7月 丙寅條.

148) 『續日本紀』, 神護景雲元年 春正月 己巳條・5月 癸酉條.

149) 『續日本紀』, 神護景雲元年 春正月 癸酉條・3月 庚午條.

150) 『續日本紀』, 寶龜2年 閏3月 戊子朔條・9月 己亥條・3年 9月 癸卯條・5年 3月 甲辰條・3月 甲辰條.

151) 『續日本紀』, 寶龜7年 5月 庚子條.

152) 新日本古典文學大系, 1998, 『續日本紀』 5, 岩波書店, 522쪽.

153) 『續日本紀』, 寶龜8年 夏4月 甲申條.

使 達沙와 함께 656년에 고구려에서 파견된 副使 伊利之를 조상으로 하는 씨족이다. 鳥井宿禰씨와 吉井宿禰씨로 사서에 이름을 보이는 사람은 없지만, 榮井宿禰씨로는 뒤에서 언급하게 될 蓑麻呂과 道形이 있다.

光仁천황대에 가장 활약을 보이는 고구려계 관인은 역시 高麗朝臣씨였다. 773년 종3위 高麗朝臣福信이 造宮卿으로서 楊梅宮을 완공한 공을 기려 광인 천황은 福信의 맏아들 石麻呂에게 종5위하를 주었다. 楊梅宮은 平城宮 안에 건축한 離宮인데, 이 공사를 지휘한 공로로 福信의 아들 石麻呂에게 종5위하를 준 것이다. 종3위 福信의 아들로 嫡子라면 蔭位로 종6위상부터 시작할 수 있었다. 아마 773년에 石麻呂가 21세가 되어 蔭位로 관위를 받게 되었을 때에 아버지 福信의 공로 덕분에 蔭位로 얻을 수 있는 관위보다 더 높은 관위를 ‘別勅處分’에 의해 준 것으로 생각된다. 石麻呂는 774년에는 中務員外少輔로 임명되었고, 778년에는 武藏介가 되었다.¹⁵⁴⁾

殿嗣도 福信, 石麻呂와 함께 779년 3월 이후에 高倉朝臣으로 씨성이 바뀌고 있는 점에서 福信의 아들일 것으로 여겨진다.¹⁵⁵⁾ 殿嗣는 777년부터 그 활약상이 보이는데 大學의 少允이며 정6위상으로서, 발해사신 史都蒙 등이 발해로 돌아갈 때에 送使로 파견되어 함께 발해로 갔다. 발해로 가던 중 길을 잃고 발해의 변경에 표착하였으나, 발해의 문왕이 배를 2척 만들어 張仙壽를 승사로 함께 보내주어, 殿嗣는 778년 9월 발해의 送使와 함께 越前國 板井郡 三國湊에 무사히 도착하였다. 殿嗣는 入京하여, 그해 10월 종5위하로 승진하였다.¹⁵⁶⁾ 그 후 780년 治部少輔가 되었고, 781년에 大判事が 되었다.¹⁵⁷⁾

종3위 福信은 779년 3월에 또 한번 새로운 씨성을 받게 되었다. 그는 高麗朝臣의 ‘高麗’라는 글자가 ‘舊俗’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며 개성해 주기를

154) 『續日本紀』, 寶龜4年 2月 壬申條・5年 9月 庚子條・9年 2月 辛巳條.

155) 『續日本紀』에 의하면 殿嗣는 779년 1월에는 高麗朝臣이었으나 780년 3월에는 高倉朝臣으로 나오고, 石麻呂는 高倉朝臣으로 나온다.

156) 『續日本紀』, 寶龜8年 5月 癸酉條・10年 春正月 丙午條・9年 9月 癸亥條・冬10月 戊寅條.

157) 『續日本紀』, 寶龜11年 3月 壬午條・天應元年 5月 癸未條.

요청하여 高倉朝臣姓을 받았다.¹⁵⁸⁾ 여기에서 ‘舊俗’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하지 않다. 종래 ‘高麗’를 ‘高倉’으로 바꿈으로써 일본적인 씨로 바꾼 것이라고 보았다. 高倉은 보통 ‘たかくら’로 읽히지만 ‘こくら’로도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고구려’를 상기시키는 씨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高麗朝臣에서 高倉朝臣으로 성을 바꾼 이유가 단지 일본적인 씨성을 원하였기 때문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고구려계 도래인들이 자신들이 고구려계임을 말해주는 氏姓 대신에 일본적인 氏姓을 선호하여 성을 바꾸어 주길 바란 것은 이미 聖武천황대인 720년대부터 보인다. 그리고 ‘고마(高麗, 狛)’와 같은 고구려계임을 알 수 있는 글자를 바꾼 것은 이미 758년 6월에 高麗使主馬養 등이 高麗使主를 多可連으로 바꾸었고, 狛廣足 등이 狛를 長背連으로 바꾸었다.¹⁵⁹⁾ 따라서 고구려계를 대표하는 高麗朝臣씨가 왜 다른 고구려계 사람들보다 늦게 고구려계임을 밝히는 씨성을 굳이 바꾸고자 하였는지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779년에 高麗朝臣에서 高倉朝臣으로 氏姓이 바뀐 것은 福信 뿐이었다. 750년에 福信과 함께 高麗朝臣을 받았던 5명은 高麗朝臣을 그대로 씨성으로 가져, 9세기초의 『新撰姓氏錄』에는 高麗朝臣씨가 보인다.

福信이 高倉으로 씨명을 바꾼 이유는 高麗라는 씨명을 자신의 백부의 직계에 물려주기 위해서였던 것은 아니었을까? 福信 자신은 새로운 씨를 만들어 가고자 하였다. 복신이 새로운 씨명으로 선택한 것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연고지 이름이었을 것이다. 高倉은 『和名類聚抄』에 보이는 相模國 高倉郡일 것이다. 福信은 고구려 유민들의 집단 거주지 武藏國 高麗郡 출신이지만, 716년에 高麗郡으로 옮겨 가기 전까지는 相模國 高倉郡에 살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福信의 조부 福德도 高倉郡에 묻혀 있었을 것이다. 福信

158) 『續日本紀』, 寶龜10年 3月 戊午條, “從三位高麗朝臣福信賜姓高倉朝臣” 및 延暦8年 冬10月 乙酉條, “寶龜十年, 上書言, 臣自投聖化年歲已深, 但授新姓之榮, 朝臣過分, 而舊俗之號, 高麗未除, 伏乞, 改高麗以爲高倉, 詔許之.”

159) 『續日本紀』, 天平寶字2年 6月 甲辰條.

은 자신이 태어난 곳이며 조상의 무덤이 있는 高倉郡을 잊지 않도록 高倉을 새로운 씨명으로 갖기를 원하였던 것이다.¹⁶⁰⁾ 그밖에 광인천황대의 고구려계 씨족으로서는 778년 외종5위하 黃文連牟禰가 佐渡守가 되었다.¹⁶¹⁾

781년 4월 환무천황이 즉위한 후에도 高倉朝臣福信은 중용되어 781년 5월 彈正尹이 되었다. 그해 12월 광인태상천황이 사망하자 환무천황은 30명의 관인들을 장례식을 거행하는 위원으로 임명하였는데, 여기에 고구려계 씨족이 두명 참가하였다. 종3위 高倉朝臣福信은 다른 9명의 관인들과 함께 山作司로 임명되었고, 외종5위하 榮井宿禰는 두 명의 養役夫司 중의 한명으로 임명되었다.¹⁶²⁾

高倉朝臣福信은 783년 6월에는 武藏守를 겸임하게 되었다. 당시 그의 아들 石麻呂가 武藏介로 있었다. 이들은 武藏國 高麗郡의 郡領을 세습하고 있었을 高麗王씨의 上官이 된 셈이다. 복신은 785년 2월에 77세로 벼슬을 그만두고, 789년 81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¹⁶³⁾ 高倉朝臣福信은 766년 百濟王敬福이 사망한 후 789년 사망할 때까지 도래계 씨족 출신 중에 가장 고위의 사람이었다.

高倉朝臣石麻呂는 785년에는 종5위하로 治部少輔가 되었고, 787년에는 中務少輔로 올랐다가, 789년에는 美作介가 되었다.¹⁶⁴⁾ 이후 그에 대한 기사는 보이지 않아 사망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高倉朝臣殿嗣는 782년에 종5위하로 下總介로 임명되었다. 786년에는 玄蕃頭로서 승려와 사원을 관리하고 외국인을 접대하는 관청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787년에는 左京亮이 되었고, 788년에는 大和介가 되었다.¹⁶⁵⁾ 그는 799년에는 主計頭가 되었고, 804년에

160) 원래 高倉이라는 地名도 고구려(고구려)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부쳐졌을 가능성이 크다.

161) 『續日本紀』, 寶龜9年 2月 辛巳條.

162) 『續日本紀』, 天應元年 12月 丁未條. 이때 백제계 씨족은 葛井連道依만이 장례 위원으로 참가하였다.

163) 『續日本紀』, 延暦4年 2月 丁未條 · 8年 冬10月 乙酉條.

164) 『續日本紀』, 延暦4年 3月 丙午條 · 6年 2月 庚申條 · 8年 2月 丁丑條.

165) 『續日本紀』, 延暦元年 3月 辛亥條 · 5年 冬10月 甲子條 · 6年 9月 丁卯條 · 7年 2月 甲申條.

는 종5위상으로 駿河守, 806년에는 肥後守가 되었다.¹⁶⁶⁾ 이후 高倉朝臣에 관해서는 사료에 보이지 않는다.

『新撰姓氏錄』에도 高麗朝臣은 보이지만 高倉朝臣은 보이지 않는다. 高倉朝臣씨 중에 중앙에서 관인으로 활약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高倉朝臣姓은 福信에게만 사여된 것이므로, 福信의直系에서 뛰어난 사람이 배출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관인으로 활약하는 사람도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었다. 혹은 高倉朝臣씨의 근거지인 相模國의 高倉郡으로 가서 지방호족으로 발전해 갔을 가능성도 있다.

桓武天皇대에 高倉朝臣씨 다음으로 활약을 보이는 고구려계 씨족은 榮井宿禰씨다. 榮井宿禰菟麻呂는 781년 4월 종5위하에서 정5위하로 승진하였고, 782년 2월에는 造法華寺長官으로 임명되었고, 그해 9월에는 陰陽頭로 임명되었다. 783년 1월에 그의 나이가 80이 되자, 환무천황은 그가 경전에 밝고 수행하고 청렴하고 근신하는 점이 후진에 모범이 된다고 하면서 그에게 絁, 布, 米, 鹽을 주어 표창하였다.¹⁶⁷⁾ 광인태상천황이 사망하였을 때 장례위원이었던 榮井宿禰道形은 782년 5월 종5위하를 받아 입내하였고, 8월에는 主稅頭로서 다른 12명의 관인들과 함께 광인천황릉을 개장하기 위한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 파견되었다.¹⁶⁸⁾ 783년 2월에는 備中守가 되었고, 787년 2월에는 內藏助가 되었다. 그 해 5월에는 造兵司의 장관 造兵正이 되었다.¹⁶⁹⁾ 三笠連씨 중에는 781년 종8위하에서 외종5위하로 승진하는 三笠連秋 이 『續日本紀』에 보인다.¹⁷⁰⁾

166) 『日本後紀』, 延暦18年 2月 辛巳條・23年 春正月 庚子條・大同元年 春正月 癸巳條.

167) 『續日本紀』, 天應元年 夏4月 癸卯條・延暦元年 2月 庚申條・9月 戊子條・2年 春正月 辛巳條.

168) 『續日本紀』, 延暦元年 5月 壬寅條・8月 己未條.

169) 『續日本紀』, 延暦2年 2月 壬申條・6年 2月 癸亥條・5月 乙巳條.

170) 『續日本紀』, 天應元年 3月 戊辰條.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관위가 이렇게 급격히 상승하는 예는 女敍位에서만 보인다. 秋 은 女官으로 환무천황의 은총을 입었을 가능성이 크다.

桓武천황대에 難波連은 주로 醫藥관계의 관직에 임명되고 있다. 難波藥師(難波連)씨가 7세기 전반에 당에 유학하였던 醫師 惠日の 후손으로 醫藥 관련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804년에 侍醫로 외종5위하인 難波連 廣名이 因幡國의 權掾을 겸직하도록 하고 있다. 또 難波連廣成은 805년 외종5위하로 승진하였고 808년에는 內藥正이 되었다.¹⁷¹⁾

환무천황대에도 고구려계 씨족 중에 새로운 씨성을 원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789년 信濃國 筑摩郡의 少初位下 後部牛養, 無位 宗守村, 豊人 등이 田河造라는 새 씨성을 받았다. 田河造는 『新撰姓氏錄』에도 보이지 않는데, 아마도 信濃國 筑摩郡의 지명일 것으로 여겨진다.¹⁷²⁾ 이들은 고구려계 씨족 중에서 信濃國에서 호족 세력으로 발전해 간 사람들일 것이다.

799년 12월에도 信濃國人 외종6위하 卦婁眞老, 後部黑足, 前部黑麻呂, 前部佐根人, 下部奈弓麻呂, 前部秋足과 小縣郡人 無位 上部豊人, 下部文代, 高麗家繼, 高麗繼樞, 前部貞麻呂, 上部色布知 등이 “우리들의 조상은 高麗人입니다. 小治田(推古), 飛鳥(舒明)대에 歸化하여 來朝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오랜 세월 平民으로 아직 원래 호칭을 바꾸지 못하였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기를 天平勝寶9歲 4월 4일 칙에 따라 大姓으로 고쳐주십시오”라고 청하였으므로, 환무천황은 이들에게 새로운 성을 내려 주었다.¹⁷³⁾ 주목되는 것은 799년에 信濃國에 살던 고구려계 씨족들이 上部, 下部, 前部, 後部, 桂婁部와 같은 5부 명칭을 자신들의 氏名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8세기 후반에 고구려의 5부명을 바꾸어 자신들의 근거지와 관련된 씨명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이어졌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새로 받은 씨는 須須岐, 豊岡, 村上, 井, 玉川, 清岡, 御井, 朝治, 玉井 등 지명과 관련된 것이었다.¹⁷⁴⁾ 天平勝寶9歲 4월 4일 칙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757년 藤原仲麻呂정권이 정권의 지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도래계 씨족들에게 새로운 氏姓을 사여하도록 한 것이지만,

171) 『日本後紀』, 延曆23年 夏4月 壬子條・24年 6月 辛亥條・大同3年 8月 庚申條.

172) 新日本古典文學大系, 1998, 『續日本紀』5, 岩波書店, 429쪽.

173) 『日本後紀』, 延曆18年 12月 甲戌條.

174) 黒坂伸夫・森田悌(編), 2003, 『譯注日本史料 日本後紀』, 集英社, 1150쪽.

도래계 씨족들은 새로운 씨성을 원할 때 항상 이것을 先例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의 信濃國의 사람들은 어떤 姓을 받았는지 알 수 없다.

X. 결론

이상 7세기 말부터 9세기 초까지 한정하여 고구려의 멸망 이후 왜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어떻게 현지에서 정착하여 생활해 나갔는지를 살펴 보았다.

종래 일본 조정이 멸망한 고구려와 백제의 왕권을 일본에 부활시킴으로써 신라나 발해보다 우위에 서고자 하였다고 이해되어왔다. 그러나 일본 율령국가의 중화사상을 만족시키는 존재로 인식되었던 ‘高麗王’과 ‘百濟王’은 사실은 존재 형태가 달랐다. ‘고려왕’은 중앙정계에서 고위 관인의 지위를 확보한 귀족이었던 ‘백제왕’과는 상당히 달랐다. 일본 율령정부는 ‘고려왕’을 고구려 멸망 전후에 일본 땅으로 건너간 고구려계 주민의 집단거주지인 武藏國 高麗郡의 관리자로 설정한 것이었다. ‘高麗王’은 고구려계 씨족을 대표한다는 의미보다는 武藏國 高麗郡의 郡領적인 성격이 강하였다. 8~9세기에 중앙정계에서 고위 관인으로 활약하는 ‘百濟王’과는 달리 ‘高麗王’은 武藏國 高麗郡의 지방호족으로 변해갔다.

일본 율령국가에서 고구려계 씨족은 개인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하여 대부분 중·하급 관인으로 활약하고 있다. 가장 오래된 고구려계 씨족은 7세기 전반부터 활약하고 있는 難波連과 黃文連씨로, 難波連은 9세기 후반까지 활약하고 있다.

일본 율령국가에서 고구려계 씨족들은 改姓을 통해 일본적인 氏姓과 근거지에 대한 기득권을 확보해 나가고자 하였고, 일본 조정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들 도래인을 지지 기반으로 확보하였다. 고구려계 씨족이 천황으로부터 사성받은 姓은 王, 朝臣, 宿禰, 連造, 首, 公, 史, 使主, 村主 등으로 다양하였다.

일본 율령국가에서 가장 고위에 올랐던 씨족은 高麗朝臣(高倉朝臣)인데 이는 高麗朝臣福信 개인이 왕권과 밀착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다. 高麗

朝臣福信이 肖奈公 - 肖奈王 - 高麗朝臣 - 高倉朝臣으로 氏姓을 계속 바꾸어 가는 과정은 일본의 도래계 씨족에게 氏姓이 의미하는 바를 잘 말해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과 발해의 외교 관계가 高麗朝臣씨의 존재형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Koguryo Clans in Ancient Japan

Kim, Eun-Sook

This paper examines the processes of the Koguryo(高句麗) clan(氏族)'s settling in Japan during the 7-9th centuries with a focus on the change of clan name and official rank.

Since making an alliance with Wa(倭) at the end of the 6th century, Koguryo(高句麗) had dispatched many envoys to Japan, of which some stayed long as ambassadors in Japan. But after the fall of Koguryo dynasty in 668, they had to settle down in Japan. One of them, called Irisuomi(伊利須使主), played a central role in gathering the Koguryo people who had moved to Japan as refugees. As a result, in a book of genealogy, called Sinsenshojiroku(新撰姓氏錄), many Koguryo clans that lived in or near the capital claimed that their ancestor was Irisuomi, who had been dispatched to Japan from Koguryo in 656.

In ancient Japan, clan name was made up of Uji(氏) and Kabane(姓). In general, Uji represented the one's residence and Kabane was the symbol of one's social and political status. It was only Tennou(天皇) who could give a person a favor of changing Uji and Kabane. Most Koguryo settlers in Japan who worked as middle or lower class officers according to their personal abilities, wanted to elevate their social and political status by changing clan name.

The earliest among the Koguryo clans who received regular

Japanese clan name were Ohokomanomuraji(大狛連) and Gibuminomuraji(黃文連), who performed meritorious deed for Tenmu Tennou(天武天皇) during the civil war in 672. The former was assumed to be the descendant of Irisuomi. The latter began to serve King Suiko(推古王) as the leader of court painters early in the 7th century, and changed into technical officers in the latter half of the 7th century.

Early in the 8th century Jakkou(若光) who had been dispatched to Japan from Koguryo in 666, was given new clan name Komanokimi(高麗王) by Monmu Tennou(文武天皇). The political status of Komanokiminojakkou(高麗王若光), however, was just the local officer of Komagun(高麗郡) in Musasinokuni(武藏國), where many Koguryo people settled down. The direct descendents of Komanokiminojakkou inherited the political status of Komanokiminojakkou in Komagun.

The man who was promoted to the highest place among Koguryo people was Komanoasominofukusin(高麗朝臣福信). Starting his official career as a guard of Shoumu Tennou(聖武天皇), Fukusin continued to be promoted to higher positions over and over. Accordingly, his clan name had been changed three times from shounakimi(肖奈公) to Takakuranoasomi(高倉朝臣) by favors of three Tennous. But after the death of Fukusin(福信) Takakuranoasomi clan did not prosper any longer. Among relatively old Koguryo clans in Japan was Naniwanomuraji(難波連), which had worked as court medical officers from the 7th century to the 9th century.

keyword

Koguryo clans, Ancient Japan, Naniwanomuraji, Gibuminomuraji, Komanokimi, Koma Province, Kabane, Komanoasomi, Irisnomi, Sinsenshojiroku



1) 余

[편집위원회 규정]

1. 편집위원회는 동북아역사 관련 고대, 중세, 근현대 연구 영역의 전문연구자로 구성하고,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2.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이중 위원장은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의 제1연구실장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타 연구실장이 수행한다. 편집위원장은 재단소속 편집위원 중 실무총괄 담당자를 임명한다.
3. 편집위원의 유고 시 편집위원회는 차기 호 논문 심사가 있기 전에 새로운 편집위원을 선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이라 한다)의 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2) 논총에 게재하기 위한 일체의 논문류에 대한 심사
 - 3) 논총 게재 기획논문, 자료소개, 서평, 설립 등에 대한 기획과 심사
 - 4) 기타 논총 관련 사업에 대한 기획과 심의
5.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논총의 편집과 간행을 총괄한다.
6. 재단소속 편집위원은 논총의 편집과 간행에 따른 실무를 담당한다.
7. 편집위원회는 논총 발간 전에 개최하고, 편집위원회의 진행절차는 편집 및 토의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실무총괄 담당자는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고자료 및 보고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 이 편집위원회 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편집위원회 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개최된 동북아역사논총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되었음.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1. 논총에는 다음과 관련된 특집, 논문, 설립, 자료소개, 서평 등의 글을 게재한다.
 - 1) 한국사(문화) 및 동아시아사(문화)와 관련된 문제
 - 2) 독도 및 영토 관련 문제
 - 3) 본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논문
2. 논총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매년 4회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를 다음과 같은 과정과 내용으로 심사한다.
 -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모든 원고를 논문 제목, 형식요건, 원고분량의 적절성, 재단 목적에 대한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1차 심사하고, 참석 편집위원 과반수 통과 판정을 얻어 2차 심사에 회부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 중 논문류의 경우 편당 학계 전문가 3인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2차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차 심사 때에는 공정성을 위해 필자명을 반드시 지운 뒤 심사한다.
 - 3) 심사위원은 심사 외뢰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정 없이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네 등급으로 판정한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중 B, C등급의 경우 수정사항이, D등급의 경우에는 게재 불가 이유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 4) 편집위원회는 심사 통과 논문 편수가 논총의 일반적인 분량을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기획과 심사 성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게재 순위를 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과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일체를 대외비로 한다. 이외 투고자는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심사위원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발송한다. 논문은 아래와 같은 항목에 의하여 심사한다.

- 1) 논문 제목의 적절성
- 2) 형식요건 및 체제의 정연성
- 3) 논리성 및 독창성
- 4) 학술적 가치
- 5) 인용자료의 적절성
- 6) 분량의 적절성
- 7) 요약문의 적절성

6. 편집위원회는 논중에 투고된 일체의 원고에 대해 심사 종료 후 투고 원고 일체를 반납하지 않는다.

※ 이 심사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

[논문 심사 내규]

1.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다음의 네 가지로 처리한다.

1) 게재 가 : 3인 모두 A로 판정한 경우 예 : (A, A, A)

2) 수정 후 게재 : 3인 모두 B 이상으로 판정한 경우 / 2인이 A로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 (A, A, B), (A, B, B), (B, B, B), (A, A, C)

3) 수정 후 재심사 : 2인이 A와 B 이하로 판정하고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 2인이 B 이상으로 판정하고 나머지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 1인이 A나 B로 판정하고 2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 (A, B, C), (A, B, D), (B, B, C), (B, C, C), (A, C, C)

4) 게재 불가 : 2인 이상이 C나 D로 판정한 경우(A, C, C와 B, C, C는 제외) / 1인이 D로 판정하였는데 A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예 : (A, C, C), (A, C, D), (A, D, D), (C, C, C), (B, B, D), (B, C, D), (C, C, D), (D, D, D)

5) 재심사 : 2인이 B 이상으로 판정하였는데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D 판정 1건에 대해서만 심사위원을 교체하여 재심사함.

2. 편집위원회는 논문 편수가 논총의 수록 분량을 초과하거나 또는 편집위원회의 기획 상의 우선 순위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 통과 원고 가운데 일부를 필자의 양해 하에 차기호 또는 차차기호에 실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단순히 논총 수록 분량 초과만이 원인일 때에는 심사 성적 순위로 해당 호 게재를 결정한다.

3. 심사 결과 통보는 심사위원이나 과정을 대외비로 한 상태에서 심사 결과와 수정 제의 및 게재 불가 사유를 통보한다.

※이 심사 내규는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 내규를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

[투고요령]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으로 약함)은 전문적인 학술지로서 논문, 설립, 서평, 자료소개 등이 게재된다. 투고하고자 하는 원고는 논총 발간 전 투고 신청서와 함께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반드시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원고 제출방식은 본문의 경우 동북아역사논총 대표메일(nonchong@historyfoundation.or.kr)로, 그림과 사진의 경우 심사용 각 3부를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보내야 한다. 또한 최종 원고 제출시 사진 해상도는 300dpi 이상으로 하여 별도 제출한다.
3.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충분한 논지 전개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70매 가량 초과할 수 있다. 그림과 사진의 수량은 논지 전개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한다.
4. 원고는 제목, 필자(소속기관, 직위), 머리말, 본문, 맺음말, 영문초록, 영문 주제어, 참고문헌(필요시)의 순서로 구성한다.
5. 논문의 목차와 소제목은 머리말로부터 순서에 따라 I>1>1)>(1)의 순서로 번호 매김 한다.
6. 인용문헌은 가급적 각주로 표기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참고문헌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7. 각주에서 현대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필자”, “연도”, “논문”, “서책(출판사)”, “쪽수”의 순서로 한다. 앞서 인용한 문헌을 재인용할 때에는 바로 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위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바로 위 이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앞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인용한다.

예) 동북인, 2006, 「동북아사와 동북문화에 대하여」, 『동북아역사논총』 1호, 1~10쪽.

동북인, 2006, 위(앞)의 글(책), 1~10쪽.

8. 각주에서 고증세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작자(필요시)”, “서책”, “편목”, “인용대문”의 순서로 한다. 이중 고증세문헌은 필요할 경우 판본명이나 영인본명을 밝힐 수 있고, 인용대문중 전략 중략 후략 등은 “……”로 표기한다. 이외 본문 중의 인용문은 문장 가운데에 삽입되는 경우 “ ” 표시로 묶고, 인용문이 길어 문단을 나눌 경우에는 “ ” 표기 없이 서술한다.

예) 東北人, 『東北集』(東北文化社影印本). “東北有高士, 東北公賢裔鵠擁, 是人也”

9. 서양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책명은 이탤릭체, 논문은 큰따옴표로 표기하고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식으로 인용한다.

예) V. G. Childe, 1932, “Chronology of prehistoric Europe : a review,” *Antiquity* 6, pp. 206~212.

10.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인용처를 밝히고자 하는 곳에 괄호를 치고 그 안에 필자와 인용문헌의 간행연도 및 필요시 인용쪽수를 표기한다.

예) (동북인, 2006 : 24)

- ※이 투고요령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투고요령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

■ 집필자 (집필순)

여호규(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부교수)

공석구(한밭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김창석(강원대학교 역사교육과 조교수)

박정철(강남대학교 교양교수부 부교수)

이강래(전남대학교 사학과 교수)

권도경(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장용준(국립김해박물관 학예연구사)

권오중(영남대학교 사학과 교수)

김은숙(한국교원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 편집위원

위원장 : 이 훈(동북아역사재단 실장)

위 원 : 김은숙(한국교원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손승철(강원대학교 사학과 교수)

최덕수(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교수)

이현혜(한림대학교 사학과 교수)

여호규(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부교수)

유용태(서울대학교 역사교육과 부교수)

김병렬(국방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이성환(계명대학교 일본학과 부교수)

도시환(동북아역사재단 부연구위원)

장석호(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홍성근(동북아역사재단 부연구위원)

윤재운(동북아역사재단 부연구위원)

前 北方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15호(2007. 3)

초판 1쇄 인쇄 2007년 3월 25일

초판 1쇄 발행 2007년 3월 30일

펴낸이 김용덕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미군동 267 임광빌딩 본관 11~12층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80

ISSN 1975-7840

비매품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제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